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38호 2012. 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특집 연변 지역과 고구려사

박경철 | 延邊地域으로의 高句麗 勢力 浸透 및 支配의 實相 15

임기환 | 고구려의 연변 지역 경영 - 柵城과 新城을 중심으로 53

양시은 | 연변 지역 고구려 유적의 현황과 과제 101

임찬경 | 延邊長城의 現況과 性格 135

논문

임권웅 · 정성운 |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고구려 고분벽화의 백색오염물질 제거에
관한 연구 185

최진열 | 唐代 高句麗 표기 기피현상 - 隋唐 墓誌銘의 國名 표기 분석을 중심으로 211

한성주 | 조선 세조대 ‘女眞 和解事’에 대한 연구 - 申叔舟의 判견을 중심으로 259

김강일 | 동래부사와 대일외교 295

심혁주 | 티베트 貴族의 혼인문화 329

동향과 전망

방일권 | 한국과 러시아의 사할린 한인 연구 - 연구사의 검토 363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 414

Contents

Special Issue The Yanbian Region and the history of Koguryo

Park Kyungcheol | The reality of invasion and clomination of Koguryo powers in Yanbian area before the 4th century A. D. 15

Lim Kihwan | Koguryo's Rule in the Yanbian Region: Flatland Fortresses and New Fortresses 53

Yang Sieun | A Consideration of Koguryo Remains in the Yanbian Region 101

Im Chankyong |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ong Wall of Yanbian 135

Articles

Lime Kwonwoong-Jung Sungyun | Using Ion Exchange Resin to Remove White Crust from the Wall Paintings of Koguryo Tombs 185

Choi Jinyeoul | The Trend of Naming Koguryo through Other Names in the Tang Period 211

Han Seongjoo | The "Jurchen Reconciliation"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 Focusing on the Dispatch of Shin Sukju 259

Kim Kangil | The Dongnae Magistrate and Diplomatic Policy toward Japan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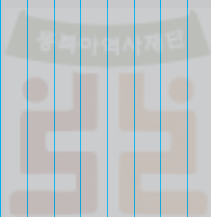
Sim Hyukjoo | The Marriage Culture of Tibetan Noble Families 329

Trends and Prospects

Bang Ilkwon | A Review of Research on Sakhalin Koreans Published in South Korea and Russia 363

특집

연변 지역과 고구려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문

‘延邊’ 지역은 古代 이래 近·現代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사 전개에 고비마다 유의미한 역할을 감당한 역사의 場으로서 기능해 왔다. 따라서 중국에서 진행된 바 있는 東北工程이 가장 먼저 참여하게 또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현상이 바로 이곳이었다. 중국 학계는 최근 몇 년간 점차 이 지역의 高句麗史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間島 문제와 白頭山 문제 등과도 관련하여 이 지역을 자주 거론하고 있다.

본 집필자들은 2011년 현지 답사 과정에서 이 지역의 문화적 正體性의 기반을 ‘北沃沮’에서 구하고자 하는 중국 측의 노력을 看破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필자는 延邊 북부지역과 인접 黑龍江省 일대의 그것을 ‘肅慎·挹婁’에 연결시키하고자 하는 중국 측의 적극적 정책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측 『延邊通史(上): 古代篇』에 따르면, 연변의 역사는 [舊石器時代의 ‘安圖人’ → 新石器時代의 ‘古肅慎人’ → 青銅器時代의 ‘古肅慎’ → 早期鐵器時代의 ‘沃沮人’ → 沃沮의 ‘消亡’과 勿吉粟末部の 形成 → 渤海 → 女真族 → 遼·金·東夏國·元·明·淸] 구도 아래 전개된 것으로 강변하고 있다. 이 경우 이 지역에서의 ‘고구려사’는 설자리를 잃게 됨은 자명한 일이 된다.

최근 중국 학계는 ‘團結文化=沃沮文化’論에 입각,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모든 시·공간적 범위를 ‘옥저=북옥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문화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고구려의 연변 지역 지배 노력이 可視化되는 時點에서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가 소멸되는 반면, 기원후 1~3세기대 이 지역의 考古文化相 전개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전술한 바처럼, 흑룡강성 三江平原과 연해주 지역 등 주변 지역에서는 별체 문화 계통

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 경우 현재 중국 측 입장에 따라 연변 지역에서의 역사 전개에 주인공을 [肅慎 → 挹婁] 계통을 잇는 [勿吉 → 靺鞨 → 女眞]으로만 연결하게 되면, 이 지역에서 고구려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지워지게 된다.

이런 중국 측의 최근 논의는 연변 지역 관련 문헌 자료와 고고학 자료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공간적 범위의 인식에서의 부정합성을 간취한 의도적인 오류인 셈이다.

이러한 政學的 담론을 따른다면 [북옥저 → 고구려 → 渤海]로 연결되는 연변 지역에서의 우리 역사 主權의 정체성과 연속성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종래 우리 학계의 고구려사 관련 관심과 연구는 都城 지역인 압록강-대동강 유역 및 요하 유역의 山城에 집중되어 왔다. 또 송화강 유역의 경우 고구려-부여 관계의 진전상 속에서 부분적인 고찰이 행해져 왔다. 한편 연변 지역은 고구려를 계승한 渤海의 중심 지역이었으며, 현재까지도 간도 문제로 쟁점이 內燃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 유역의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연구 성과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고구려사 인식 노력에서 이러한 공간적 偏重 현상을 극복함과 동시에 [북옥저사 → 고구려사 → 발해사]로 繼起되는 우리 민족사 전개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연변 지역사의 재인식을 위한 디딤돌을 다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네 개 부문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연변 지역 고구려사의 시기별 전개상을 두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박경철이 북옥저~기원후 4세기 이전 고구려 지배기를, 임기환이 4세기 이후 고구려의 이 지역 지배의 실상을 검토하였다. 또 양시은은 연변 지역 고구려 유적의 현황과 이에 바탕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찬경은 최근 학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延邊長城’의 현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그 성격의 일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하 각 집필자의 글을 간단히 요약해 보고자 한다.

박경철의 「延邊地域으로의 高句麗 勢力 浸透 및 支配의 實相」

東北韓-연해주-延邊 등지의 초기철기시대 문화는 크게 '團結-끄로우노프까 문화권'과 '沿海州의 빨체 문화권'이 공존하였다. 이들 문화의 하담자들은 각기 문헌자료상의 주민집단인 '北沃沮'와 '挹婁'에 대비될 수 있다.

기원전 4~3세기경 이후의 한랭건조화는 단결-끄로우노프까 문화의 경우 오히려 사회구조를 좀 더 복잡화시키고 교역체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연해주의 빨체 문화와 끄로우노프까 문화 하담 집단과의 사회 사이에는 일정한 희선이 존재했다. 양자가 유사한 생업경제 기반을 가졌던 까닭에 점차로 각자의 생존기반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제반 갈등이 유발되고, 나아가 무장 충돌이 잇따라 발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挹婁의 압박을 받던 北沃沮 주민들은 일찍부터 같은 濊貊으로서의 기저문화와 정서를 공유하는 고구려로의 귀속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의 북옥저 '벌멸'은 기원전 28년의 세력 침투 책동을 始點으로 기원 후 1세기 말 太祖王대에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된 북옥저 '經略'이라 추측된다. 국가형성기 당시 고구려가 국세팽창 動線의 첫 목표지로서 북옥저를 선택한 것은 漢郡縣들과의 직접적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현재까지 알려진 이곳의 단결-끄로우노프까 문화의 분포상과 전개상은 이 지역에서의 유력한 정치적 중심세력의 부재를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는 큰 機會費用을 감당할 위험성이 적은 이곳을 그 세력침투의 첫 대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고구려는 전략자원인 鐵을 확보하고 한랭건조화 현상이라는 장기적인 기상이변 상황 아래에서 보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북옥저 지역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변 지역은 당시 주요한 교역품으로 평가받던 毛皮와 人蔘 그리고 木材의 주요 생산지인 백두산에 인접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고구려의 전략적 구상과 점점 거세어지는 읍루 세력의 군사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을 찾던 북옥저인들의 자구 노력이 맞물리면서 가능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 세력의 북옥저 진출은 연변 지역 주민들이 기왕에 향유하던 단결-끄로우노프

까 문화의 지속적 발전 기반을 잠식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八連城·濫特赫部城·裴優城이라는 세 平地城이 이례적으로 밀집해 있는 琿春의 三街子鄉이 고구려 시기의 '柵城'으로 추정된다. 中後期(4세기 이후) 이전 고구려 북옥저 고지 지배는 기본적으로 平地城中心體制였다.

연변 지역에 대한 실효적 '高句麗化' 정책은 장기간 연변 지역 고유문화로 자리 잡아온 바 있던 단결-끄로우노프까 문화의 전통을 완전히 단절시켜버렸다. 연변 지역에서 북옥저와 고구려 지배기의 문화가 심한 斷層性을 드러내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 연유한다.

이와 반대로 읍루계 집단을 주체로 한 三江平原 僻處 문화 계통의 [蜿蜒河文化 → 滾兔嶺文化 → 風林文化 → 夢北團結文化]는 자기 고유의 문화를 기반으로 사회조직의 자율적 발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들 주민집단의 실체는 5세기 이래 흥기한 勿吉이라고 추단된다.

임기환의 「고구려의 연변 지역 경영-柵城과 新城을 중심으로」

연변 지역은 고구려의 동북방에 해당하는 곳으로 3세기까지는 北沃沮의 중심지역이기도 하였다. 고구려는 초기부터 활발하게 이 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여 태조왕 이후에는 柵城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 지배의 거점을 구축하였고, 서천왕대를 전후해서는 新城을 축조하여 또 다른 거점을 마련하였다. 특히 서천왕대에 新城을 구축하게 되는 대외적인 배경은 북방의 肅愼에 대한 방어 및 통제력의 확보와 관련시켜 볼 수 있다.

연변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완전한 영역 지배는 광개토왕대에 이루어졌다. 이 지역을 거점으로 북방에 있는 肅愼을 통제할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 부여의 일파가 세운 東夫餘를 정벌하여 동북지역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필자는 이 동부여의 위치를 현재의 길림성 돈화지역으로 비정하였다.

연변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영역지배의 양상을 추정할 수 있는 고고자료로는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고구려 성곽을 주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발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고구려 시대에 축조된 성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 연변 지역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

지배의 양상을 추적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문헌상에 보이는 柵城과 新城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두 성의 역사지리 비정을 시도한 결과 柵城은 지금의 훈춘지역의 산성인 살기성과 평지성인 온특혁부성을 하나의 거점으로 묶어 이곳에 비정하였고, 新城은 연길의 산성인 성자산산성과 평지성인 하룡고성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여 비정하였다.

그리고 고구려가 柵城과 新城을 축조하여 영역 외곽의 거점성으로 삼은 데에는 단지 영역 외곽의 방어와 지배의 기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 國內城에서 영역 외곽의 책성과 신성에 이르는 교통로를 통하여 동북지역 전체에 대한 영역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책성과 신성에 이르는 교통로를 검토한 결과 국내성에서 옥저를 통하여 북옥저에 이르는 동해안로가 책성까지의 주된 교통로(책성로)고, 국내성에서 통화-백산-무송-안도로 이어지는 내륙교통로(신성로)가 신성까지의 주된 교통로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영역으로 편제한 연변 지역을 고구려는 영역 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4~5세기 단계에는 城·谷 지배체제를 통해 지배하였다고 추정된다. 이는 그 이전 북옥저 지역에 대한 속민-공납에 의한 간접적 지배를 극복한 결과였다. 이러한 양상은 ‘광개토왕비’의 구민 수요인연호조에 보이는 賣句余民·東海賈·敦城民이란 세 곳의 통치 단위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역과는 달리 ‘民’이란 부가 내용이나 東海賈란 존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지배방식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이 지역이 본래 북옥저 지역이었고, 또 주변에 있는 肅慎이나 東夫餘 지역의 주민집단들이 혼재되었던 결과가 아닐까 짐작된다.

고구려 말기 단계에 이 지역의 지배 양상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는 ‘高慈墓誌’와 ‘李他仁墓誌’다. ‘柵城都督’의 존재를 통해, 책성이 禰薩이라는 고구려 최고위 지방관이 파견되는 동북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거점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新城은 옥살급 아래인 處間近支급의 지방관이 파견된 지방성으로 짐작된다. 이 외에도 연변 지역에는 다수의 처려근지가 파견된 지방성이 분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李他仁의 출신이 ‘遼東 柵州人’이라는 점에서 그의 종족적 기반이 고구려인인지 속말말갈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柵城이 이 일대의 지방

세력을 결집시키고, 독자적인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양시은의 「연변 지역 고구려 유적의 현황과 과제」

본 연구는 연변 지역에 위치한 고구려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 현황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고구려에서 연변 지역은 책성이 설치되는 등 국가 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도 연변 지역의 고구려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연변 지역은 발해를 중심으로 고고학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 고구려와 관련된 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변 지역 고구려 유적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보고된 자료 외에 1930년대 후반 일본인 연구자들이 채집한 연변 지역의 고구려와 발해 유물을 추가 검토하고, 이를 집안이나 평양 그리고 길림 등지에서 출토된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고구려 유물 및 서고성이나 상경성과 같은 발해 도성에서 출토된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발해 유물과 비교 검토하였다.

채집된 유물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해본 결과 연변 지역에서는 10개의 고구려 성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분의 경우 수남고분군과 동청고분군이 고구려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검토결과 고구려보다는 발해 시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연변 지역에서 채집된 고구려 와당의 경우 전형적인 고구려 양식이 아니라 변형된 것들만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한편 연변 지역의 고구려 성곽은 산성이 아닌 평지성 중심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시 다른 지역들과는 다른 점이다. 도성지역을 제외한다면 규모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큰 편으로 이러한 평지성의 분포 양상은 고구려의 지배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발굴 조사된 유물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채집된 자료를 근거로 논문을 구성한 관계로 해석에 한계가 있다는 점, 연변 지역의 고구려 유적과 관련하여 발굴 자료가 전무한 점, 와당을 제외한 고구려 평기와 및 발해 평기와에 대한 연구 자료가 전무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임찬경의 「延邊長城의 現況과 性格」

본 연구는 지금까지 출간된 각종 문헌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변장성의 발견과 조사 및 연구 현황을 概觀하면서, 동시에 본고의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차원에서 2011년의 현지답사 등에서 수집한 자료로서 연변장성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장성 일반에 대한 여러 연구 성과들을 분석하면서 연변장성이 장성 일반으로서 지니고 있는 성격과 함께 역사적 및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형성될 수밖에 없는 연변장성의 특성을 검토해 보고, 나아가 연변장성의 건축 主體와 年代 문제에 대해 概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연변장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 현황과 성과를 꼼꼼히 정리하고는 있지만, 장성의 건축 주체와 연대에 대해 더욱 깊게 접근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이는 연변장성과 관련한 자료의 한계로 인한 것이다. 사실 연변장성은 문물로서의 그 실체도 아직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못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地表調査 수준의 간략한 조사 자료, 그러한 조사 자료와 함께 개별 연구자의 간단한 답사 자료 등을 활용한 몇 편의 연구 성과들로 인하여 연변장성의 실체와 그 건축 주체 및 연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제출되어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연변장성은 한국의 연구자가 짧은 기간에 현지를 조사하는데도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수집 가능한 자료와 함께 특히 현지답사로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현황을 상세하게 소개한 것도 앞으로의 관련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명확한 결론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면서도 연변장성이 그 장성의 특성으로 볼 때 고구려 시기에 건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변 학계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이 관점은 물론 앞으로 더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집필자들은 본 연구 과정에서 빈약한 문헌 자료와 부실한 고고 자료라는 기본적인 애로 요인에 더하여 선행 연구 성과의 미흡적이라는 장벽 앞에서 고전하여야만 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집필자들은 이번의 연구 성과가 앞으로의 연변 지

역 고구려사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가 되는 문제 제기 수준에 그침을 위안으로 삼고자 한다.

집필자들을 대신하여 박 경 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延邊地域으로의 高句麗 勢力 浸透 및 支配의 實相

박경철 |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I. 머리말

‘延邊’ 지역은¹⁾ 한국 古代史·中世史는 물론 近·現代史와도 연관이 깊은 지역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진행된 바 있는 東北工程이 가장 먼저 참여하게 또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현장이 바로 이곳이었다. 곧 중국 학계는 최근 몇 년간 점차 이 지역의 高句麗史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間島 문제와 白頭山 문제 등과도 관련하여 이 지역을 자주 거론하고 있다.

연변 지역의 역사는 동북공정 수행 과정에서도 중국 학계의 주목을 받아온 바 있으며, 특히 ‘長白山工程’의 주요 담론인 ‘長白山文化論’의 중심 적용지이기도 하다. 저들은 ‘중국 北方 3대 지역 문화’로서 ‘遼河文化·草原文化·장백

※ 투고일: 2012년 5월 18일, 심사일: 2012년 8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2년 11월 23일

1) ‘延邊’ 지역이라 함은 과거 ‘北間島’로 불려 왔으며, 현재의 ‘中華人民共和國 吉林省 延邊朝鮮族自治州’를 지칭하고 있다. 이 연변 지역은 延吉을 州治로 하여, 연길·圖們·敦化·龍井·琿春의 5개 市와 安圖·和龍·汪清이라는 3개 縣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문화'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先史時代 이래 중국 동북 지방에서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던 濊貊文化는 장백산문화의 下位 지역 문화로 자리매김되고, 고구려·扶餘·北沃沮·肅慎-挹婁-靺鞨 등에 대한 역사 인식상의 錯視現象 속에서 예맥계 문화 자체의 正體性을 잃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중국 동북지역에서 가장 우월성을 갖는 문화는 漢文化라고 규정되는 셈이다.

연변 지역 우리 역사 전개에 있어서 結節點 구실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역에서의 고구려사의 존재이다. 이러한 政學的 談論을 따른다면 [북옥저 → 고구려 → 渤海]로 연결되는 연변 지역에서의 우리 역사 主權의 정체성과 연속성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고구려사는 대체로 鴨綠江·大同江·遼河·松花江·豆滿江이라는 다섯 大河流域을 중심으로 한 空間的 전개상을 보여주고 있다. 종래 우리 학계의 관심과 연구는 都城 지역인 압록강·대동강 유역 및 요하 유역의 山城에 집중되어 왔다. 또 송화강 유역의 경우 고구려-부여 관계의 진전상 속에서 부분적인 고찰이 행해져 왔다.

한편 연변 지역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중심 지역이었으며, 현재까지도 '간도' 문제로 쟁점이 內燃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 유역의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연구 성과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本稿는 고구려사 인식 노력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간적 偏重 현상을 극복함과 동시에 그 前史인 北沃沮史와 고구려사와는 繼起的 관계로 자리매김되는 발해사를 포함한 이후 우리 민족사 전개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 지역사의 재인식을 위한 디딤돌을 다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기원후 4세기 이전 연변 지역 혹은 두만강 유역에서의 고구려사 전개에 관한 연구 성과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보잘것없다. 그조차도 고구려사 전개과정상 이 지역의 戰略的 위상과 역할이나,²⁾ 발해 건국의 背後地로서의 고구려 당

2) 朴京哲, 1989. 6, 「高句麗 軍事戰略 考察을 위한 一試論: 平壤遷都以後 高句麗

시 이 지역의 유의미성을³⁾ 거론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에는 고구려 都城에서 이 지역으로의 接近路 비정과 관련된 제 논의가⁴⁾ 진행된 바 있다.

그런데 종래 우리 학계는 연변 지역사의 전개와 관련하여 주로 ‘沃沮史’와 관련된 제 논의를 행하여 온 바 있다. 관련 史料에 따르면 ‘沃沮’는 ‘北沃沮·東沃沮·南沃沮’로 분별·인식되고 있다. 우리 학계는 이 옥저의 위치와 관련, ‘동옥저=남옥저’의 입지를 咸鏡北道 남부 및 함경남도 해안 지방, 특히 咸興平野 지방으로, 그리고 ‘북옥저’의 그것을 두만강 연안 및 연변 지방 그리고 沿海州 남부 지역 일대로 비정함을 정설화하고 있다.⁵⁾ 그리고 그 연구의 초점이 연변 지역이 아닌 韓半島 동북부에 위치한 ‘東沃沮’에 편중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⁶⁾

연변에서의 고구려사 전개의 前史에 해당하는 文獻史料상의 주민 집단은 ‘北沃沮’이다. 아울러 이들은 일찍이 挾婁로 일컬어지는 집단과의 共時的 競合相을 연출하면서 고구려의 勢力圈 내로 해소되어 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고구려 세력의 확산 과정 해명은 북옥저의 實體 구명과 직결된다.

최근 우리 학계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 및 러시아 측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변과 연해주 지역에 자리했던 북옥저 및 읍루의 실제 파악을 위한 연구 성과가 제시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은 우리 학계가 빈약한 문헌자료에 기대

軍事戰略의 志向點을 中心으로, 『史學研究』 40

- 3) 盧泰敦, 1981, 「渤海建國의 背景」, 『大邱史學』 19
- 4) 여호규, 2008, 2, 「鴨綠江 중상류 연안의 高句麗 성곽과 東海路」, 『역사문화연구』 29; 이성제, 2009, 7, 「高句麗와 渤海의 城郭 운용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 延邊地域 분포의 성곽에 대한 이해를 겸하여」, 『高句麗渤海研究』 34
- 5) 李基白·李基東, 1983, 『韓國史講座(1): 古代篇』; 朴京哲, 1994, 「보론: 옥저·동예·읍루」, 『한국사2: 원사사회에서 고대사회로-2』, 한길사; 이현혜, 1997, 「IV. 동예와 옥저」, 『한국사4: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국사편찬위원회
- 6) 이현혜는 기원후 3세기 중엽 고구려의 세력 확장 노력과 맞물려 咸興 이북 동해안과 두만강 유역 주민들을 통칭하는 ‘沃沮’ 개념의 확대 현상을 지적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현혜, 1997, 위의 논문, 250~251쪽; 이현혜, 2011, 11, 「沃沮의 기원과 문화 성격에 대한 고찰」, 『韓國上古史學報』 70

어 ‘고구려의 북옥저 지배’를 논의하던 종래의 연구 환경을 벗어나 고구려-북옥저-부여-읍루의 상관 관계 속에서 고구려의 이 지역으로의 세력 침투, 확산 실상에 대한 보다 유기적이고도 역동적인 構圖를 그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점과 관련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고고학계의 연구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곧 우리 학계 일각에서는 團結文化와 동질적인 크로우노프카 문화를 매개로 북옥저인들의 구체적 존재 형태에 접근하고 있다.⁷⁾ 또 러시아의 한 연구는⁸⁾ 이들 북옥저인들과 항시 갈등관계 속에 있었던 읍루의 실체를 ‘연해주의 별채 문화’의 존재를 매개로 추적하고 있다. 또 이러한 읍루가 鞞靺로 轉化되는 과정을 고고학적으로 검토한 연구도 제시된 바 있다.⁹⁾

또 최근 이를 한층 심화시켜, ‘沃沮-挹婁文化圈’의 존재를 동북아시아 고고학·고대사의 範疇 속에서 논의하면서,¹⁰⁾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계통적 성격을 구명하고,¹¹⁾ ‘한반도의 中島式土器文化’와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관련성을 천착하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¹²⁾

한편 중국 학계의 연변 지역사에 대한 연구 성과는 우리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¹³⁾ 따라서 최근 우리 학계 일각에서 고고학 자료에 입각한 이러한 중국

7) 崔夢龍·李憲宗·姜仁旭, 2003, 『시베리아의 선사고고학』, 주류성

8) 데. 엘. 브로단스키 著, 鄭焯培 譯, 1996, 『沿海州의 考古學』, 學研文化社

9) 강인욱, 2008, 「발해의 기층문화 형성과정에 대하여: A.D. 2~5세기 말갈문화 형성을 중심으로」(프라스끼노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10) 강인욱, 2008, 12, 「동아시아 고고학·고대사연구 속에서 옥저문화의 위치: 옥저·읍루문화권의 계기를 중심으로」, 강인욱·김재운·N. A. 클류예프·A. L. 수보티나,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11) 김재운, 2008, 12, 「동북한과 중국 연변지구의 초기 철기시대문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계통적 성격」, 강인욱·김재운·N. A. 클류예프·A. L. 수보티나,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12) 강인욱, 2007, 「연해주 초기철기시대 크로우노프카문화의 확산과 전파」, 『국가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第31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資料集 別刷); A. L. 수보티나, 2008, 12, 「한반도의 중도식 토기문화와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비교: 옥저문화와 한반도의 상호교류에 대한 실증적 비교연구」, 강인욱·김재운·N. A. 클류예프·A. L. 수보티나,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13) 2010년 간행된 『延邊通史』(劉子敏·焦增勇, 2010, 8, 『延邊通史(上): 古代篇』,

고고학계의 ‘沃沮史’ 인식에 대한 신중하고도 비판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새로운 논의가 제기되고 있어¹⁴⁾ 주목을 요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원후 4세기 이전 연변 지역사의 전개상은 고구려의 독점적 지배권 획득 기도와 이에 걸림돌이 되는 북옥저-읍루-扶餘 등 세 세력 간의 경합·갈등·지배관계의 실상에 대한 해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입장에서 먼저 고구려 지배기 이전 연변 지역 前史 전개의 주체가 되는 ‘끄로우노프까-團結文化’를 享有하던 주민 집단과 ‘연해주의 뿔뿔 문화’를 荷擔하던 그것들의 실제 파악과 비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북옥저사’ 인식의 시·공간적 범위와 그 유의미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고는 고구려의 연변 지역으로의 세력 침투의 배경 및 그 시점과 과정을 파악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4세기 이전 고구려의 연변 지역에서의 據點 經營 및 세력 확산 과정 및 지배의 실상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II. 前史: 北沃沮와 挹婁

필자는 2011년 현지 답사 과정에서 이 지역의 문화적 正體性의 기반을 ‘북옥저’에서 구하고자 하는 중국 측의 노력을 看破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필자는 연변 북부지역과 인접 黑龍江省 일대의 그것을 ‘肅慎·挹婁’에 연결시키려는 중국 측의 적극적 정책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측 『延邊通史(上): 古代篇』에 따르면,¹⁵⁾ 연변의 역사는 [舊石器時代의 ‘安圖人’ → 新石器時代의 ‘古

香港亞洲出版社)가 그 好例이다. 중국 측 고고학계 인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현해, 2011. 11, 앞의 논문 참조.

14) 이현해, 2011. 11, 위의 논문

15) 劉子敏·焦增勇, 2010. 8, 앞의 책

肅慎人'→ 靑銅器時代의 '古肅慎' → 早期鐵器時代의 '沃沮人' → 沃沮의 '消亡'과 勿吉粟末部の 形成 → 渤海 → 女眞族 → 遼·金·東夏國·元·明·淸]의 구도 아래 전개된 것으로 강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高句麗史'는 이 경우 그 설자리를 잃게 됨은 자명한 일이 된다. 연변 지역은 文獻 자료와 考古學 자료 사이에 시간적·공간적 범위의 인식에 있어서의 不整合性이 露呈되는 대표적 역사의 場이다. 중국 측의 이 지역에서의 고구려 '지우기'는 이러한 빈틈을 엿보면서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본장에서 우리 학계가 새로이 제시하고 있는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연변 지역 고구려사 전개의 前史가 되는 초기철기시대 '團結-끄로우노프카 문화'와 그에 對比되는 '연해주의 빨체 문화'의 실체를 차분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1. '團結-끄로우노프카 문화'와 '沿海州의 빨체 문화'

'團結-끄로우노프카(Klounovka) 문화'란 綏芬河-興凱湖 유역에서 두만강 유역의 연변 및 연해주 일대에 분포하는 기원전 4~1세기의 初期鐵器時代의 문화이다.

'團結文化'는 끄로우노프카 문화와 그 내용이 동일하나, 단지 중국 境內의 遺蹟·遺物에 한정된 考古문화를 지칭한다.¹⁶⁾ 혹자는 이 '단결-끄로우노프카 문화'를 지역적 分布相에 따라 「끄로우노프카 문화 / 團結文化 / 韓半島 동북 지방 虎谷5期類型」으로 분별하기도 한다. 즉, 이 고고문화는 함경북도·연변·沿海洲 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셈이다.¹⁷⁾

이 '단결-끄로우노프카 문화'의 고고학적 특성은 硬質無文土器, 나무그루

16) 강인욱, 2008. 12, 앞의 논문, 36쪽

17) 강인욱, 2008. 12, 위의 논문, 32~40쪽

관련 유적의 자세한 내용은 김재윤의 '표 3. 단결-끄로우노프카 문화 유적'(김재윤, 2008. 12, 앞의 논문, 102~103쪽)을, 유적분포 상황은 김재윤의 '그림 1. 관련 유적 분포도'(김재윤, 2008. 12, 위의 논문, 89쪽)를 참조할 것.

터기형(柱狀)으로 불리는 파수가 부착된 발형 토기와 호·고배·시루와 함께 鑄鐵製 長方形鐵斧 등 철제 유물, 五銖錢 등의 유물이 반출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이 문화는 평면 형태가 ‘뿔’자형 혹은 ‘凸’자형 주거지와 터널식 爐址·부뚜막식 노지 등을 주요 유적의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¹⁸⁾ 특히 이곳 주거지의 ‘火壇’으로 알려진 터널식 노지는 온돌 시설로서 주목을 요한다.¹⁹⁾

우리 학계 일각에서는 이 단결-끄로우노프카 문화가 3단계 발전 과정을 밟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I기의 유적분포는 북한, 연변과 연해주에서 강을 중심으로 한 곳에서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안팎스끼인들이 이미 해안선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론되며, 그 上限은 기원전 7세기경이다.

II기는 두만강(호곡6기)의 지류인 嘎呀河(일송정), 바다와 가까운 강(올레니 A, 블로치카, 키예프카), 섬(삐뜨로바 섬)에서 유적들이 나타나며, 강 주변에서부터 해안가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II기의 상한연대는 기원전 3~4세기경으로 추론된다. 이 II기(기원전 3세기)가 되면서 강변에서 해안가로 단결-끄로우노프카 문화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학계는 단결-끄로우노프카 문화의 주체를 ‘옥저’ 혹은 ‘북옥저’로 비정하고, 러시아에서도 ‘沃沮族’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계 일각에서는 기원후 3세기 중반 撰述된 『三國志』 등 제 사료의 기록에 비추어, 옥저의 上限을 기원전 2세기경 이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견해는 단결-끄로우노프카 문화 전 시기를 ‘옥저’로 비정하기보다는 기원전 3세기~기원전 1세기경으로 판단되는 ‘단결-끄로우노프카 문화 II기’ 이후를 ‘북옥저’의

18) 강인욱, 2008. 12, 앞의 논문, 34~36쪽; 김재운, 2008. 12, 앞의 논문, 85쪽. 이에 관한 연구사 정리는, 김재운, 2008. 12, 위의 논문, 85~88쪽

19) 강인욱, 2008. 12, 앞의 논문, 34~36·39쪽; 김재운, 2008. 12, 앞의 논문, 85쪽. 이에 관한 연구사 정리는, 김재운, 2008. 12, 위의 논문, 85~88쪽. 한편 고고학계는 ‘유정동 후기 / 안팎스끼 문화’를 ‘단결-끄로우노프카문화’의 先行文化로 파악하고 있다. 김재운, 2008. 12, 위의 논문, 96·128~129쪽

실체가 드러나는 시기로 판단하기도 한다.

기원전 3세기가 되면서 강변에서 해안가로 단결-끄로우노프까 문화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단결-끄로우노프까 문화의 확산 현상과 관련, 러시아 학계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끄로우노프까인들이 남하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시각에서 II기(기원전 3~1세기)부터 해안가로 문화가 확산되는 현상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륙의 문화와 共存하는 상태에서 그 문화가 해안가로도 확산되는 것은 좀 더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결-끄로우노프까 문화 III기’에는 그 시기의 유적이 연변과 연해주 전체에 나타난다. III기의 상한은 기원전 1세기를 넘지 못한다. III기의 하한은 기원후 1세기 중반에서 2세기까지 정도로 볼 수 있다.²⁰⁾

끄로우노프까 단계에 들어서면서 두만강 유역의 沿海 지역이나 內陸 지역 할 것 없이 비슷한 經濟體系(雜穀農耕)를 영위하기 시작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부터 鐵器가 널리 쓰이며 강가의 넓은 河岸臺地에 수백 개의 주거지가 밀집한 유적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또한 그 범위는 연해주 남부에서 吉林 동남부, 그리고 東北韓 지역까지 확인된다. 청동기시대 후기에 내륙 유형과 연해 유형으로 나뉘던 한반도 동북 지역이 이 시기가 되면 같은 문화로 묶이게 되는데, 아마도 커다란 마을을 이루며 집약적 농경을 하던 끄로우노프까 문화의 영향력이 연해 지역에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²¹⁾

‘뿔체(Poltse) 문화’는 지역별·時期별로 [아무르(Amur) 지역의 뿔체 문화 / 沿海州의 뿔체 문화(올가 문화) / 黑龍江省 서북부의 蜿蜒河유형 / 滾兔嶺문화와 七星河 유역의 城址群]으로 분별·인식되고 있다. 이를 ‘뿔체 文化圈’으

20) 김재운, 2008. 12, 위의 논문, 129~132쪽. 기원전 4~1세기 ‘크로우노브카-團結文化’와 ‘沿海州의 뿔체 문화’의 분포도는 강인욱, 2008. 12, 앞의 논문 32쪽 참조.

21) 강인욱, 2008. 12, 위의 논문, 31·34쪽

로 개념지을 수 있다.²²⁾

‘아무르 지역의 빨체 문화’는 기원전 1,000年紀 거의 전 시기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었다. 빨체 문화의 주요 生業經濟는 漁業과 農業이었다. 아무르 지역의 빨체 문화의 標識遺蹟인 빨체 유적의 경우 특별한 방어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발굴된 10기의 주거지 중 1기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지는 완전히 불에 탄 채로 발견되었다. 빨체 유적의 유물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철기와 骨角器로 만든 화살촉·찰갑·철검 등 武器類를 꼽을 수 있다. 특히 武器로서 사용되었을 찰갑이 빨체 유적의 거의 모든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은 당시 빨체 문화의 주민들 사이에는 戰爭의 가능성이 常存했음을 방증한다. 빨체 문화 주거지의 위치를 살펴보면, 그들은 각 지역마다 따로따로 群落을 지어 살았음을 알 수 있다.²³⁾

이 빨체 문화는 紀元 전후한 시기에 연해주 쪽으로 내려와서 ‘연해주의 빨체 문화(올가 문화)’를 형성한다.²⁴⁾ 이러한 연해주의 문화를 빨체 문화로 보는 가장 큰 근거는 토기의 유사성이다.²⁵⁾ 연해주에서 확인된 빨체 문화의 유적은 나호뜨까지 근처의 불로치카·셀키나 샤프카·말랴야 뽀두쉐치카·시니에 스갈르이·글라즈꼬보 성지 등이 유명한데, 주로 우수리강의 지류인 호레강·비키네강·불쇼이 우수르께강 등에서 발견되었다.²⁶⁾

이 시기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防禦的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기원 전후한 시기에 돌연히 남쪽의 연해주로 이동하면서 그곳에 거주하던 기존의 초기철

22) 이러한 분별과 각 문화의 구체적 내용은 강인욱, 2008. 12, 위의 논문, 40~54쪽

23) ‘아무르지역의 빨체 문화’에 대해서는 강인욱, 2008. 12, 위의 논문, 40~48쪽

24) 강인욱, 2008. 12, 위의 논문, 48쪽

25) 연해주 빨체 문화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형식, 紋樣 구성, 제작기법 등에서 이들 연해주 철기시대 토기와 가장 가까운 것은 쿠켈레보 형식의 빨체 토기다. 이러한 유물의 유사성은 토기뿐 아니라 석기와 철기에서도 보인다. 강인욱, 2008. 12, 위의 논문, 50쪽

26) 강인욱, 2008. 12, 위의 논문, 48·50쪽

기시대 문화인 크로우노프카 문화가 점차로 소멸되어 갔다는 점이다.²⁷⁾ 그러나 연해주의 빨체 문화가 적극적인 군사행동으로 크로우노프카 문화를 정복했다는 러시아 학계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이 빨체 문화의 주요 분포지는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중심 분포지인 한카호에서 동쪽인 우수리강 중류 유역과 나훛뜨까를 중심으로 하는 연해주 동남부다. 즉, 연해주의 빨체 문화는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중심지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으며, 군사충돌의 증거가 없는 만큼 자연스럽게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요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⁸⁾

黑龍江省 三江平原의 빨체 문화 계통의 문화는 [蜿蜒河文化 → 滾兔嶺文化 → 風林文化 → 夢北團結文化] 로 繼起的 전개상을 보여주고 있다.²⁹⁾

1970년대에 蜿蜒河 유적의 발굴과 함께 중국 흑룡강성 서북부에도 빨체 문화가 존재함이 확인된 바 있다. 한편 빨체 문화와 흑룡강을 사이에 두고 남쪽에 위치한 三江平原에서 대형의 城址들이 수백 개 밀집한 것이 발견된 바 있다. 이는 기원후 2~3세기의 대형유적으로 일부 빨체 문화와 유사한 문화요소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滾兔嶺文化’에 해당된다.

이 곤토령 문화는 小八浪, 風林 城址, 保安 성지, 炮台山 성지 등 삼강평원에 분포한 빨체 문화-단결문화와 동 시기의 유적이다. 이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고지에 성지를 축조했다는 점이다. 곤토령 문화는 대부분 타원형이나 원형의 토성을 쌓고 내부에 수십 기의 주거지를 축조한 것이 확인된다.

곤토령 문화는 이후 ‘風林文化’로 변천된다. 삼강평원에서 발견된 성지 유적은 대부분 곤토령 文化層과 풍림 문화층이 같이 발견되며, 토기상에서도 유사성이 많아 같은 주민 집단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남긴 것으로 판단된다. 연대는 기원후 3~4세기대까지 존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곤토령 유적과 달리 단결문화의 특징적인 고배가 유입되었으며 초원문화 계통인 鐵鍬도 발견된

27) 강인욱, 2008. 12, 위의 논문, 48쪽

28) ‘연해주의 빨체 문화’ 전반에 대해서는 강인욱, 2008. 12, 위의 논문, 48~50쪽

29) ‘빨체 문화권’의 특징에 대해서는 강인욱, 2008. 12, 위의 논문, 56~59쪽. 이 문제와 관련된 ‘옥저-읍루 문화권 계통도’는 강인욱, 2008. 12, 위의 논문, 74쪽 참조.

바 있다. 한편 토기 중 일부는 高句麗土器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³⁰⁾

이 지역 주민 집단은 문헌상 다분히 落後된 삶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군사적 긴장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성지를 중심으로 중국 학계에서 ‘文明’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발달된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³¹⁾ 이 삼강평원 고고문화 하담자들은 後述할 바처럼 扶餘-高句麗史의 전개와 일정한 상관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³²⁾

2_ ‘北沃沮’의 實體

東北韓·沿海洲·延邊 등지의 초기철기시대의 문화는 크게 平地性聚落, 深鉢形土器를 중심으로 하는 경질무문토기, 集約的 농경으로 대표되는 ‘단결-끄로우노프카 文化圈’과 高地性聚落, 무기 위주의 철기, 多文樣壺形土器로 대표되는 ‘연해주의 빨체 문화권’이 공존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 문화의 하담자들은 모두 기원전 2~1세기에 複合社會로 발전해 나갔던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각기 문헌자료상의 주민 집단인 ‘北沃沮’와 ‘挹婁’에 對比될 수 있다.³³⁾

史料(1) “(a)東沃沮, 在高句麗蓋馬大山之東, 濱大海而居, 其地形東北狹, 西南長, 可千里, 北與挹婁夫餘, 南與濊貊接, (b)戶五千, (c)無大君王, 世世邑落, 各有長帥, (d)其言語, 與句麗大同, 時時小異, (e)漢初, 燕亡人衛滿王朝鮮, 時沃沮皆屬焉, …… (f)沃沮諸邑落渠帥, 皆自稱三老, 則故縣國之制也, (g)國小, 迫于大國之間, 遂臣屬句麗, 句

30) 삼강평원에서의 빨체 문화 계통 문화의 전개상에 관해서는 강인욱, 2008. 12, 위의 논문, 51~54쪽

31) 姜仁旭, 2009. 3, 「靺鞨文化的 形成과 2~4세기 挹婁·鮮卑·夫餘系文化的 관계」, 『高句麗渤海研究』 33, 26~29쪽

32) 朴京哲, 2011. 3, 「扶餘의 國勢變動相 認識에 關한 試論」, 『高句麗渤海研究』 39, 40쪽

33) 강인욱, 2008. 12, 앞의 논문, 62~65·73쪽

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使相主領，又使大加，統責其租稅貂布魚鹽海中食物，千里擔負致之，又送其美女，以爲婢妾，遇之如奴僕，(h)其土地肥美，背山向海，宜五穀，善田種，(i)人性質直彊勇，少牛馬，便持矛步戰，(j)食飲居處，衣服禮節，有似句麗，……，(k)毋丘儉討句麗，句麗王宮奔沃沮，遂進師擊之，沃沮邑落皆破之，斬獲首虜三千餘級，宮奔北沃沮，(l)北沃沮一名置溝婁，去南沃沮八百餘里，其俗南北皆同，與挹婁接。挹婁喜乘船寇，北沃沮畏之。夏月恒在山巖深穴中爲守備，冬月水凍，船道不通，乃下居村落，(m)王頎別遣追討宮，盡其東界。”(『三國志』卷30 魏書 30 列傳 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條)

史料(2) “(a)挹婁在夫餘東北千餘里，濱大海，南與北沃沮接，未知其北所極，(b)其土地多山，(c)其人形似夫餘，言語不與夫餘句麗同，(d)有五穀牛馬麻布，(e)無大君長，邑落各有大人，(f)處山林之間，常穴居，大家深九梯，以多爲好，(g)土氣寒，劇於夫餘，(h)其俗好養豬，……，(i)古之肅慎氏之國也，(j)善射，……，(k)自漢以來，臣屬夫餘，夫餘責其租賦重，以黃初中叛之，夫餘數伐之，(l)其人衆雖少，所在山險，隣國人畏其弓矢，卒不能服也，其國便乘船寇盜，隣國患之，……，(m)法俗最無綱紀也。”(『三國志』卷30 魏書30 列傳30 烏丸·鮮卑·東夷傳 挹婁條)

옥저는 관련 사료에 따르면, ‘北沃沮·東沃沮·南沃沮’로 분별·인식되고 있었다(사료-1; a와 l 및 K, 사료-2; a). 종래 우리 학계는 이 옥저의 위치와 관련, ‘동옥저=남옥저’의 입지를 함경남도 해안지방, 특히 咸興평야 지방으로, 그리고 ‘북옥저’의 입지를 두만강 연안으로 비정함을 정설화하고 있다.³⁴⁾ 즉, 옥저는 古朝鮮·부여·고구려·東濊와는 청동기시대 이래 ‘濊貊文化圈’으로 지칭되는 동질적 基底文化를 공유한 ‘濊貊族’의 한 分枝 집단으로 파악된다(사료-1; d와 e 및 j). 또 그것은 각기 그 지역적 분포상에 따라 두만강 유역 및 연변 지방 그리고 연해주 남부지역 일대의 ‘북옥저’와,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남부 일대를 ‘동옥저=남옥저’로 분별·파악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따를 경우,

34) 李基白·李基東, 1983, 앞의 책; 朴京哲, 1994, 앞의 논문; 이현혜, 1997, 앞의 논문

상술한 바처럼, ‘단결-프로우노프까 문화권 = 북옥저’와 ‘연해주의 뿔체 문화권 = 읍루’라는 圖式이 별 무리 없이 성립될 수 있다.

사료(1)은 사료(1-k와 l)을 제외하고 보면, 거의 모두가 東沃沮 관련 記事다. 다만 사료(2-a)에서 읍루가 북옥저와 南接하고 있음을 명기함으로써 북옥저의 實在와 그곳이 읍루와 連接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 학계는 ‘團結文化=沃沮文化’論에 입각, ‘단결-프로우노프까 문화’의 모든 시·공간적 범위를 ‘옥저 = 북옥저’에 해당하는 것으로 定論化하고 있다. 이 경우 사료(1)의 주 서술 대상이 되었던 동옥저의 실체가 모호해진다. 곧 함흥을 중심으로 실재했던 동옥저는 ‘옥저사’ 인식 대상에서 배제되게 된다.³⁵⁾

그런데 문제는 단결-프로우노프까 문화가 점차 소멸, 고구려의 연변 지역 지배 노력이 可視化되는 時點인 기원후 1~3세기대 이 지역의 考古文化相 전개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³⁶⁾ 오히려 전술한 바처럼 흑룡강성 三江平原과 연해주 지역 등 주변 지역에서는 뿔체 문화 계통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 경우 최근 중국 측 입장에 따라 연변 지역에서의 역사 전개의 주인공을 [肅慎 → 挹婁] 계통을 잇는 [勿吉 → 靺鞨 → 女眞]으로만 연결하게 되면,³⁷⁾ 이 지역에서 고구려의 존재는 자연스레 지워지게 된다. 이런 중국 측의 최근 논의는 연변 지역 관련 문헌 자료와 고고학 자료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공간적 범위 인식에 있어서의 不正合性을 간취한 의도적인 誤謬인 셈이다.

단결-프로우노프까 문화는 그 존속 시기가 [기원전 7세기~기원후 1세기 중반-2세기] 혹은 [기원전 4-5세기~기원후 1세기]에 달한다. 또 이 고고문화의 공간적 범위 역시 綏芬河-興凱湖 유역에서 두만강 하류역의 연변 및 연해주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이다. 물론 중국 학계처럼 단결-프로우노프까 문화

35) 최근의 중국 측 학계의 이러한 동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이현혜, 2011. 11, 앞의 논문, 48~49쪽

36) 강인욱, 2008. 12, 앞의 논문, 60~61쪽

37) 劉子敏·焦增勇, 2011. 8, 앞의 책

전 시기를 ‘북옥저’로 비정하기보다는 상술한 ‘단결-끄로우노프까 문화 II기(기원전 3~1세기경)’ 이후를 ‘북옥저’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기로 판단할 수도 있다.³⁸⁾ 그런데 북옥저에 포섭되는 연변 지역의 경우, 이곳 주민들이 고구려와 接觸하게 되는 때는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 따르자면 아무리 빨라도 기원전 28년 이후가 된다. 현재까지 우리 학계의 연구도 고구려의 지배를 받던 북옥저 인식의 시간적 범위는 아무리 빨라도 기원전 1세기 말 이후이고, 공간적인 그것은 두만강 하류역의 연변 지방에 초점을 맞추고 수행된 바 있다.³⁹⁾

따라서 필자 또한 본고에서 ‘단결-끄로우노프까 문화 II기(기원전 3~1세기경)’ 이후의 그 문화 하담 주민들의 동향을, 특히 기원전 1세기 말~기원후 4세기 이전 고구려의 지배를 받던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두만강 하류 유역과 함경북도 북부 지역에서의 주민 집단들 삶과 역사를 다루고자 한다.

III. 延邊 지역으로의 고구려 勢力 浸透

1_ 延邊 지역에서의 北沃沮와 挾婁의 存在樣態

古環境學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4~3세기경 단결-끄로우노프까 문화(이하 ‘끄로우노프까 문화’로도 略稱함)의 주요 분포 지역인 연해주 남부에서는 기후의 한랭화와 海水面의 下降 현상이 함께 나타났다.⁴⁰⁾ 또 연해주 해안 지역에 대한 기후 연구와 중국이나 한국의 문헌 및 古氣候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끄로우노프까 문화와 그 이후 빨체 문화가 존속했던 시기인 기원전 4세기~기

38) 김재운, 2008. 12, 앞의 논문, 129~132쪽

39) 盧泰敦, 1981, 앞의 논문; 朴京哲, 1989, 6, 앞의 논문

40) A. L. 수보티나, 2008. 12, 앞의 논문, 246~248쪽

원후 2세기에 전반적인 寒冷乾燥化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¹⁾ 이러한 기후의 한랭화 현상은 연해주 지역뿐 아니라 동아시아 및 북아시아의 전반적 정세 격변과 연관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주변 지역으로 확산 원인에 대해서는 기후의 변화와 이에 따른 환경 조건의 악화라는 氣候決定論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100여 기가 넘는 주거지로 구성된 대형 聚落을 조영하고 농경을 주업으로 했던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전성기(기원전 4~1세기)가 한랭건조기였다는 사실은 이곳 주민집단이 적극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처했을 것이라는 점을 반증한다. 즉, 이 문화의 확산과정은 그 자체의 사회적 適應潛在力(preadaptation)에 바탕한 사회 내부적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다.⁴²⁾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후 변동은 때에 따라서는 주민집단의 移動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회 구조의 복합화에 기여해서 문화의 확산을 결과하기도 한다.⁴³⁾ 즉, 이 시기 이곳의 문화는 잡곡농경을 주로 하되 狩獵·採集·牧畜 등에도 종사하는 複合經濟體系였다. 이 경우 기후의 변동이 곧바로 주민의 이동으로 이어진다고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고고학적 증거는 주민의 이동이 아니라 사회의 복합화와 문화의 확산 현상이 일어났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특정 고고문화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양상은 사회 발전 등을 이유로 人口가 증가한 증거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⁴⁴⁾ 따라서 크로우노프카 문화가 내륙 하천 유역에서 沿海 지역으로 진출하는 단계는 일반적인 문화의 진출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변 지역이 복합사회로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연해 지역 진출은 단순한 資源 감소에 따른 선택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진출이었다고 볼 수 있다.⁴⁵⁾

이 지역에서는 대형 취락이 등장하고, 사회구조가 발전하여 인구가 증가한

41) 강인욱, 2007, 앞의 논문, 532쪽

42) 강인욱, 2007, 위의 논문, 533~534쪽

43) 강인욱, 2007, 위의 논문, 539쪽

44) 강인욱, 2007, 위의 논문, 539쪽

45) 강인욱, 2007, 위의 논문, 540~541쪽

동시에 이곳 주민 집단은 기후의 변화에 따른 생산력 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는 代替生計手段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을 것이다. 이 경우 사회구조의 복합화 현상의 진전은 遠距離交易關係를 가동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프로우노프*가 문화권으로 五銖錢 등 중국 계통의 유물이 유입되는 것도 당시 이 지역에 원거리 교역체계의 정립이라는 저간의 사정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⁴⁶⁾ *프로우노프*가 문화가 기원전 2~1세기에 내륙에서 해안 지역으로 확산됨은 기후의 변화에 대한 *프로우노프*가 문화인들의 적응잠재력 提高 노력과 주변 지역과의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호교류체계로 사회구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기원전 4세기대 이후 기후의 한랭건조화로 *프로우노프*가 문화인들은 자신들의 生業經濟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취락의 大型化·保溫 기능이 강화된 쪽구들이 설치된 住居地, 生産力을 높일 수 있는 철제 농기구의 도입 등으로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기원전 2세기대 이후에는 중국과의 원거리 교역체계를 가동시키고 해안지역으로 진출해서 교역물을 획득했던 것이다.

연해주 지역의 靑銅器 유물로는 기원전 9~3세기대에는 주로 草原 지역 계통의 청동기가 발견되며, *프로우노프*가 단계부터는 細形銅鑿을 중심으로 滿洲와 韓半島系 청동기 유물이 나온다. 이 시기는 한반도 지역과의 상호교류가 시작되는 시점으로서, 이곳 세형동검 관계 유물로는 이즈웨스토프에서 출토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는 세형동검문화 계통 주민의 직접적인 이주 또는 傳播라기보다는 집단 간의 교류로 이곳 주민들이 한반도 계통의 威信財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프로우노프*가 문화가 이전의 안팎스끼 문화와는 달리 집약적인 취락을 영위한 定着農耕社會로서 서쪽의 연변 지역, 남쪽의 한반도와 다양한 문화 교류를 했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한반도의 정착농경사회와 교류를 하게 됨에 따라 세형동검이 이 지역 최상층의 위신재

46) 강인욱, 2007, 위의 논문, 541쪽

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는 곧 세형동검문화 계통의 유물이 교역이 유리한 지역에서 출토된 점과 기원전 4~3세기대의 몇 헥타르에 이르는 크로우노프까 취락은 대형화되어 사회의 복잡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점과도 부합한다.⁴⁷⁾

크로우노프까 문화의 경우 기후의 한랭건조화는 주민의 移住라는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회구조를 좀 더 복잡화시키고 교역체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적응과정과 사회발전을 수행한 크로우노프까 문화권 주민들 중 특히 延邊 지역 주민 집단들이 관련 문헌 자료에서 ‘복옥저’라는 이름으로 特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⁴⁸⁾

그간 러시아 학계에서는 紀元 전후한 시기에 靺鞨 문화가 아무르 유역에서 연해주 쪽으로 남하하면서 크로우노프까 문화와 접촉하여 ‘연해주 靺鞨 문화(또는 올가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好戰的인 靺鞨 문화가 크로우노프까 문화를 驅逐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통설화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조사된 흑룡강성 삼강평원 일대의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문화 간의 교류는 일방적인 남하의 증거보다는 기후의 한랭화에서 비롯된 사회구조의 복잡화를 보여주고 있다.

연해주의 靺鞨 문화가 적극적인 군사활동에 힘입어 크로우노프까 문화를 정복한 증거는 현재 없다. 이 문화가 크로우노프까 문화의 중심지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고, 군사적인 충돌의 증거도 없는 만큼 자연스럽게 크로우노프까 문화의 요소를 흡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연해주 남부 바닷가로 진출한 靺鞨 문화 세력은 城址의 크기나 유적 수로 볼 때 매우 소규모이며,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자료로 볼 때 입지 조건상 크로우노프까 문화가 비교적 늦은 시기(기원전 2~1세기)에 소규모 취락 단위로 진출한 지역에 성지를 근거로 하는 靺鞨 문화가 진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연해주의 靺鞨 문화의 분포지가 크로우노프까 문화의 중심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일방적인 북방 세력의 남하에 의한 기존 세력의 소멸이 아니라, 사회 발전에 따른 주변 집단 간의

47) 강인욱, 2007, 위의 논문, 545~546쪽

48) 강인욱, 2007, 위의 논문, 541~542쪽

文化接變現象이라고 생각된다.⁴⁹⁾

‘아무르 지역의 빨체 문화’의 하담주민들 사이에는 상술한 바처럼 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점은 ‘연해주의 빨체 문화’에서 더욱 더 극명하게 확인된다. 연해주 빨체 문화의 주거지는 한 면은 가파른 경사면이, 다른 쪽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산의 정상에 위치하며, 그 주변에 土壘를 설치해서 방어적인 성격을 극대화시켰다. 이전에 존재했던 안팎스끼 문화와 ڠ로우노프까 문화의 경우 環壕 시설이 발견된 바가 없지만, 이 연해주의 빨체 문화는 立地 조건에서부터 自然地形을 이용한 待避處와 같은 성격을 띠며, 추가로 木柵이나 垓字를 설치한 경우도 있다.⁵⁰⁾

이 문화의 유물에서도 ‘아무르 지역의 빨체 문화’처럼 철기와 골각기로 만든 화살촉·찰갈·철검 등 무기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ڠ로우노프까 문화는 방어 시설이나 방어성 취락이 확인된 적이 없고, 유물에서도 몇 개의 철촉을 제외하여 무기류가 보이지 않은 점에서는 연해주의 빨체 문화와 크게 대비된다.⁵¹⁾

비록 巨視的 觀點에서 연해주의 빨체 문화와 ڠ로우노프까 문화 간의 문화 접변 현상의 사실성은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두 문화의 하담 집단과 사회 사이에는 일정한 劃線이 존재했던 것이다. 먼저 취락 규모 면에서 ڠ로우노프까 문화 주거지는 보통 수십 또는 수백 기가 한 곳에 모여 있는 대형 집단 취락을 구성하고 있다. 반면 연해주의 빨체 문화의 그것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였다. 이런 사실은 생업경제 면에서도 ڠ로우노프까 문화의 경제력이 연해주의 빨체 문화에 비해 比較優位的 측면을 갖고 있었고, 그만큼 양자 간에는 사회적 복합도의 수준에서 일정한 落差가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빨체 문화의 분포지인 ڠ로우노프까 문화의 주변 지역도 차츰 복

49) 강인욱, 2007, 위의 논문, 538·540·542쪽

50) 강인욱, 2008. 12, 앞의 논문, 48~50쪽

51) A. L. 수보티나, 2008. 12, 앞의 논문, 248~250쪽

합사회로 轉化되어 가게 된다. 그런데 양자는 유사한 생업경제 기반을 가졌던 까닭에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중심 지역에서 벗어난 곳에서부터 점차로 각자의 생존기반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제반 葛藤이 유발되고, 나아가 武裝衝突이 接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해주의 빨체 문화 하담지들의 방어적 기능이 강조되는 高地性 취락과 고수준의 武裝力量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또 사료(1-1과 2-1)의 읍루의 북옥저에 대한 侵寇 기사 역시 이러한 상황을 추정케 해준다.

결국 이러한 군사적 갈등의 결과로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일부 집단들은 빨체 문화에 의해 흡수되게 되었다. 불로치가 유적에서는 크로우노프카 문화 주거지 1기와 빨체 문화 주거지 5기, 모두 6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이들 주거지에서는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주요 특징인 濶突이 시설된 것과 빨체 문화의 주요 특징인 外反口緣壺形土器가 많은 것 등 크로우노프카 문화와 빨체 문화의 혼합된 요소들이 나왔다. 연구자들은 이런 사실을 들어 기원전 1~기원후 1세기경 크로우노프카 문화 일부 집단들이 빨체 문화와 혼합하여 소위 '沿海州 빨체文化共同體'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⁵²⁾

따라서 읍루의 압박을 받던 북옥저의 주민들은 일찍부터 같은 예맥으로서의 基底文化와 情緒를 공유하는 고구려로의 歸屬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변 지역에서의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衰殘을 초래한 것은 빨체 문화 계통의 읍루의 跋扈보다는 고구려의 이 북옥저 지역으로의 세력 침투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2_ 고구려의 '北沃沮 伐滅'의 實相

史料(3) “東明聖王六年(32 B.C.)冬十月 王命烏伊·扶芬奴 伐太白山 東南荇人國 取其地爲城邑.”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 1)

史料(4) “東明聖王十年(28 B.C.) 冬十一月 王命扶尉獸 伐北沃沮滅

52) A. L. 수보티나, 2008. 12. 위의 논문, 250쪽

之 以其地爲城邑.”(『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 1)

사료(4)에 따르면, 고구려는 기원전 28년 북옥저를 ‘伐滅’하고 그곳을 ‘城邑’으로 삼았다고 한다. 북옥저 지역은 백두산 너머 두만강 하류 유역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사료(4)는 『三國史記』高句麗本紀 초기 기사에 신뢰성 문제와 더불어 논란의 소지가 큰 문제이다. 먼저 필자가 고구려 국가형성기(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로 인식하고 있는⁵³⁾ [東明聖王 → 瑠璃王 → 大武神王] 3대의 『삼국사기』상의 군사행동을 연대 순으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원전 37 靺鞨 畏服 → 기원전 37~36 沸流國 制壓 → 기원전 34 荇人國 征伐 → 기원전 28 北沃沮 攻滅 → 기원전 9 鮮卑 攻伐 → 기원전 6 扶餘의 高句麗 來攻企圖 挫折 → 기원후 12 高句麗와 新的 軍事 衝突 → 기원후 13 高句麗 - 扶餘 鶴盤嶺會戰 → 기원후 14 梁貊攻滅 및 漢 高句麗縣 強襲 → 기원후 21~22 扶餘攻滅戰 → 기원후 26 蓋馬國 征伐 · 句茶國 來降 → 기원후 28 漢 遼東太守 來攻 → 기원후 32 · 37 · 44 ‘樂浪’方面 進出 企圖]

이들 기사의 대부분은 중국 측 자료에 없는 것들로서 그 가치 면에서 다양한 함의를 가진 사료들이다. 그런데 고구려의 국가형성과정이란 戰爭과 祭祀를 媒介機制로 하여 物理的 힘에 바탕한 權力裝置의 制度化와 權力의 人格化가 정착되는 과정이었다.⁵⁴⁾ 이 경우 전쟁은 권력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며, 제사는 그것에 이념적 바탕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초기 기사는 이러한 국가형성과정을 잘 적시해 주고 있다. 고구려가 국가형성기에 이미 全方位의 國세팽창이라는 전략적 構圖 하에 압록강 유역 · 두만강 유역 · 大同江 유역 · 遼河 유역 · 松花江 유역을 志向하는 諸軍事行動을 실시하였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행동의 실효적 수행이 국가형성기 고구려에 있어서 力動性 창출의 本원적 推動力으로 작용했던

53) 朴京哲, 1996, 『高句麗의 國家形成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4) 朴京哲, 1996, 위의 논문

것이다.⁵⁵⁾

따라서 국가형성기부터 고구려는 고구려 사회에 포섭된 주변 제 세력들 · 新 · 扶餘 · 遼東郡 · 玄菟郡 · 樂浪郡 · 靺鞨 · 鮮卑 · 荊人國 · 梁貊 · 蓋馬國 · 句茶國이라는 주변 제 세력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군사행동을 수행해 나갔던 것이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고구려가 설정한 ‘北沃沮 伐滅’의 先次性이다. 이에 비하여 東沃沮 지방 확보는 『삼국사기』 상 太祖王 대인 기원후 56년이다. 이 56년도 기사는 당시 동옥저가 기원후 30년 東部都尉 폐지 후 漢의 ‘侯國’으로서 漢郡縣의 영향권 하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비교적 取信할 수 있는 기사이다. 따라서 북옥저 정벌은 기원전 28년에서 기원후 56년 사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사료(2-k)는 挾婁가 “自漢以來, 臣屬夫餘”했다고 한다. 고구려-부여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기원전 6년 이래 일련의 交戰 상황이 벌어진 것은 고구려가 부여의 國益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행동을 감행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 고구려의 위협적 행동이 북옥저 방면으로의 세력 침투 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고구려 세력의 연변 지역 침투가 부여의 이 방면 淸魯 經營의 저해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따른 것으로 추정해 본다.⁵⁶⁾ 만일 이러한 假定이 맞다면, [기원전 34년 荊人國 征伐 → 기원전 28년 北沃沮 攻滅 → 기원전 6년 扶餘의 高句麗 來攻企圖 挫折 → 기원후 13년 高句麗-扶餘 鶴盤嶺會戰 → 기원후 21~22년 扶餘攻滅戰]이라는 기사의 유의 미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삼국사기』 상 기원전 28년 북옥저 관련 기사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북옥저 ‘伐滅’은 一回性 군사행동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55) 朴京哲, 1996, 위의 논문, 120~197쪽; 朴京哲, 2002, 12, 「高句麗人の ‘國家形成’ 認識 試論」, 『한국고대사연구』 28, 26~28쪽

56) 朴京哲, 2011, 3, 위의 논문, 27~28쪽

것이 아닐 가능성도 없지 않은 까닭이다. 즉, 고구려가 이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勘當해야만 할 敵對 세력은 북옥저 현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방면의 또 다른 先住民인 挹婁 집단 그리고 [吉林 → 敦化 → 延吉] 루트(route)를 따라⁵⁷⁾ 이곳의 경영에 腐心하고 있던 부여 역시 그러했다. 이 경우 국가형성기 고구려의 國力を 헤아려 볼 때, 북옥저 역시 쉽게 아우를 수 있는 곳이 아닐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 고구려의 북옥저 ‘별멸’은 기원전 28년의 세력 침투 策動을 始點으로 기원후 1세기 말 太祖王대에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된 북옥저 ‘經略’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상술한 바처럼 북옥저 지역은 백두산 너머 두만강 하류 유역에 위치하고 있던 만큼 國初의 고구려로서는 접근하기 매우 힘든 곳이었다. 오늘날 우리 학계는 고구려 중심지에서 연변에 이르는 經路를 둘러싸고 여러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것들은 모두 鴨綠江 상류 유역(集安에서 상류 쪽으로 250km 떨어져 있음)인 臨江·長白 지역의 고구려 關防遺蹟 및 古墳群의 존재를 확인한 위에서⁵⁸⁾ 이 지역에서 운용되던 水運體系를 전제로 전개되고 있다.

먼저 이 接近路를 ‘東海路’라 지칭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는 경우 ‘동해로’란 [集安 → 惠山·長白 → 馬天嶺山脈 → 吉州 → 淸津 → 豆滿江下流]의 경로를 말한다.⁵⁹⁾ 또 이 견해는 고구려가 동해로를 중시한 이유로서 안정적인 背後基地로서의 그것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⁶⁰⁾ 그러나 이 접근로는 고구려가 동옥저를 확보한 이후 보다 효율적으로 가동된 것으로 파악함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루트를 고구려의 ‘沃沮方面路’라 지칭하며, 이를 후대 발해의 ‘鴨綠道’ 일부 區間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이 ‘옥저방면로’는 [鴨綠江水路

57) 현재 중국 측은 [延吉~敦化~蛟河~長春] 高速道路를 개통·운용 중이다.

58) 余昊奎, 2008, 2, 앞의 논문; 朴京哲, 2010, 6, 「鴨綠江 中·上流流域 積石塚築造集團의 存在樣態」, 『先史와 古代』 32; 朴京哲, 2011, 2, 「鴨綠江 上流 臨江-長白地域 積石塚築造集團의 存在樣態」, 『역사문화연구』 38

59) 余昊奎, 2008, 2, 앞의 논문, 152쪽, 153쪽의 註 99

60) 余昊奎, 2008, 2, 위의 논문, 153~154쪽

→ 集安·臨江 → 陸路, 撫松縣 所在地 → 泉陽(撫松縣 泉陽鎮) → 露水河(撫松縣 所在)〈露水河鎮 → 北, 沿江鄉 → 大蒲柴河鎮 → 東清, 萬寶鎮〉 → 安圖市 萬寶鎮 → 新合鄉 → 古洞河 → 和龍市 西城鎮)에 이르는 길, 곧 ‘白頭山北路’이다.⁶¹⁾ 이 루트가 국가형성기의 고구려에서 연변에 이르는 길일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 고구려가 북옥저에 세력을 침투·扶植할 당시 作戰線으로 운용한 접근로는 현시점에서 명확히 확정 짓기 어렵다.

사료(3과 4)에 따르면, 고구려의 북옥저 정벌은 [荇人國 → 북옥저]라는 逐次的 군사행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곧 고구려는 연변 지역에 이르는 작전선 상의 要衝에 있는 ‘행인국’을 제압한 후 일단 숨을 고른 후 연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행인국’의 실체는 임강-장백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에 雄據하던 세력 집단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臨江市 6道溝에는 龍崗 고분군·西馬鹿泡子 고분군·東甸子 고분군·砬臺 고분군 같은 고분군과 東馬鹿泡子 古城·夾皮溝古城·樺皮甸子古城 등의 고구려 관방 유적들이 강변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곧 이 지역이 압록강 상류 유역에서는 가장 힘의 집중도가 뚜렷한 곳이다.⁶²⁾ 따라서 행인국의 중심 세력도 이곳에 근거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고구려는 압록강 水系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곳을 장악함으로써 백두산에 이르는 작전선 및 작전 거점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4세기~기원후 2세기에 전반적인 한랭건조화 현상이 동아시아 및 북아시아의 전반적 정세 격변과 유관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국가형성기(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 고구려 역시 이사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더구나 당시 고구려는 증가하는 인구나 한정된 可耕地, 또 무엇보다도 사회복합도의 진전에 따른 諸需要의 增幅으로 인해 걸머지게 된 過負荷의 해소책을 모색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 서북 지방과 遼寧 지역에 설치한 漢郡縣들은 고구려가 물적·인적 자원이 풍부한 서부·북부·서남부 지역들로 접근하는 출로를 봉쇄하는 장애물로 기능하였다. 고구려는 이렇게 ‘우

61) 李成制, 2009. 7, 앞의 논문, 168~169쪽

62) 朴京哲, 2011. 2, 앞의 논문, 47쪽

리에 공공 묶여 버린 상황(a circumscribed environment)'을 군사력 행사를 통하여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하였던 것이다.⁶³⁾

혹종의 軍事行動은 경략 대상 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된다. 즉, 당시 고구려는 어떠한 경로로든지 간에 자신들과 교류 관계가 형성되어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군사력을 움직였을 것이다. 국가형성기 以前 '高句麗社會(기원전 3~1세기)' 당시에 이미 이들은 두만강 하류 유역 연변 지역과 일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던 듯하다. 먼저 압록강 최상류 長白에 위치한 그 상한 연대가 기원전 3세기경까지 올라가는 干溝子古墳群의 존재는 공간적으로 그러한 네트워크(network)稼動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아울러 고구려사회 시기의 '노남리 문화' 유적지인 將子江(1976년 이전의 禿魯江) 유역 魯南里 옷 문화층 2號 집자리 유적의 구들(溫突) 시설의 존재는 이미 압록강 중류 유역에서 단결-끄로우노프까 문화 주거지에서 비롯된 온돌을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랭한 기후에 保溫 기능을 강화하는 이러한 온돌의 존재는 고구려가 이미 북옥저와의 일정한 교류를 통하여 연변 지역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국가형성기 당시 고구려가 국세팽창 動線의 첫 목표지로서 북옥저를 선택한 것은 그곳이 상술한 漢郡縣들과의 직접적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현재까지 알려진 이곳의 단결-끄로우노프까 문화의 분포상과 전개상은 이 지역에서의 유력한 정치적 중심세력의 부재를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는 큰 機會費用을 감당할 위험성이 적은 이곳을 그 세력침투의 첫 대상지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연변 지역은 현재도 海蘭江 유역 和龍의 '통강별'·龍井의 '세전별'·延吉의 '延吉草原' 그리고 琿春河 유역의 '琿春별' 등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북옥저 지역은 농업 생산력에서 압록강 중류 유역보다 오히려 우월한 편이다. 또 和龍에서 두만강 건너 편에는 동북아시아 최대의 茂山

63) 박경철, 2007. 3. 「고구려의 국가형성」,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鐵鑛이 있다. 즉, 국가형성기 고구려는 전략자원인 鐵을 확보하고 한랭건조화 현상이라는 장기적인 氣象異變 상황 아래에서 보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 기반을 構築하기 위해 북옥저 지역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변 지역은 당시 주요한 交易品으로 평가받던 毛皮와 人蔘 그리고 木材의 주요 생산지인 백두산에 인접한 지역이었다.⁶⁴⁾

어쩌면 고구려의 이 지역으로의 세력 浸透는 이러한 전략적 構想과 점점 거세어지는 挾婁 세력의 군사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을 찾던 북옥저인들의 自救努力이 맞물리면서 가능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구려 세력의 북옥저 진출은 연변 지역 주민들이 기왕에 享有하던 단결-끄로우노프카 문화의 지속적 발전 기반을 잠식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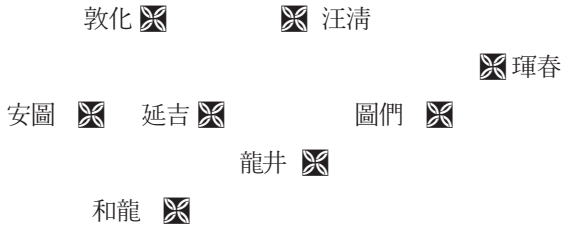
IV. 고구려의 延邊 지역 支配의 실상

史料(5) “太祖大王十六年(A.D. 98), 春三月, 王東巡柵城, 至柵城西 闕山, 獲白鹿, 乃至柵城, 與群臣宴飲, 賜柵城守吏物段, 有差, 遂紀功於巖, 乃還, 冬十月, 王至自柵城.”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 3)
史料(6) “太祖大王五十年(A.D. 102), 秋八月, 遣使安撫柵城.” (위의 책)

史料 (5)·(6)은 고구려가 기원전 28년에 이 북옥저 지역으로 진출한 이래, 太祖王 대에 들어와 柵城을 중심으로 두만강 유역의 연변 지방에 대한 경영이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柵城에 대해서는 현재 琿春 八連城 / 琿春 溫特赫部城 / 琿春 薩其城 / 圖們 城子山山城(磨盤村山城)으로 비정하는 제 견해가 있다.⁶⁵⁾

64) 朴京哲, 2011, 2, 앞의 논문, 36~39쪽

65) 柵城의 위치 비정과 관련해서는 李成制, 2009, 7, 앞의 논문, 166~167쪽



〈그림 1〉 延邊朝鮮族自治州 행정단위 배치 개념도

그림 1에 따르면, 현재 연변에서는 延吉이 중심지이나, 과거의 경우 이곳에서 90km 이상 떨어진 혼춘이 그 구실을 하고 있었다. 혼춘의 三街子鄉에는 八連城·溫特赫部城·裴優城이 두만강을 끼고서 連接해 있다. 이 점에 비추어 세 平地城이 이례적으로 밀집해 있는 혼춘의 삼가자향이 고구려 시기의 ‘柵城’으로서 북옥저 故地인 연변 지역의 중심지로 기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연변 지역에는 108곳의 城址(山城과 平地城)가 남아 있다.⁶⁶⁾ 이 중 고구려 시기의 성지로 확인된 곳은 극소수(26~10곳)이다. 그러나 답사 결과 立地·構造 면에서 그중 상당수가 고구려 시기 後期에 구축되어 발해 시기까지 沿用된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고구려의 關防 운영체계가 ‘山城-平地城’ 配合體系였음에 비추어, 琿春의 [通肯山城~八連城]·圖們的 [城子山山城~河龍古城] 등의 사례는 이 운영체계가 연변 지역에서도 관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平時의 居住城으로서의 平地城과 戰時入保와 動員을 위한 山城을 기능적으로 결합하는 관방체계는 고구려 中後期(기원후 4세기 이후)에 와서 정립된다.⁶⁷⁾ 圖們的 城子山山城(둘레 4.4km)·혼춘의 薩其城(7.0km)·혼춘의 城牆砬子山城(10km) 등 大型山城들이 그 좋은 예가 된다.

그렇다면 고구려 中後期(기원후 4세기) 이전 연변 지역에서의 고구려 지배의 실상은 어떠했을까?

66) 연변 지역의 城郭 분포 인식과 문제점은 李成制, 2009. 7, 위의 논문, 160~165쪽

67) 李成制, 2009. 7, 위의 논문, 176~165쪽

흥미로운 사실은 고구려 支配期의 이 지역에는 遼東 등 타 지역과 달리 이례적으로 관방체계 구성 중 平地城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고구려가 연변 지역 외의 곳에서 축조한 평지성은 현재까지 모두 16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연변 지역의 경우 확인된 고구려 평지성은 安圖 東清古城·琿春 營城子古城, 혼춘 濛特赫部城·혼춘 八連城·和龍 東古城·延吉 河龍古城·연길 興安古城·龍井의 仲平古城 및 東興村土城·土城屯古城 등 모두 10곳이나 되며, 그 입지도 安圖·琿春·和龍·延吉·龍井 등 연변 각 요지에 散布되어 있다.

이러한 평지성들이 북옥저 고지인 연변 지역 支配據點으로서 구실을 다하였던 것이다. 그 입지 역시 國內城과 柵城을 연결하는 街道·集安-연변의 接近路인 ‘沃沮方面路’ 상의 주요 길목·북옥저인들의 密集居住地 등에 위치하고 있다. 즉, 고구려 북옥저 고지 지배는 기본적으로 平地城中心體制였고, 이 점 다른 지역·주민 집단과 軌를 달리했다.⁶⁸⁾

이 사실은 고구려-북옥저 사이에 존재한 힘의 優劣關係를 함축적으로 表象해 주고 있는 셈이다. 곧 고구려는 북옥저 고지인 연변 주민들을 절대적으로 制壓하고서, 군사적 기능보다는 지역 지배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는 평지성을 우선적으로 造營했던 것이다. 고구려의 북옥저에 대한 우월적 지위는 사료(1-9)에서 적시된 바 集團隸屬民으로 定位된 동옥저의 그것에⁶⁹⁾ 못지않았을 것이다.

현재 연변에는 布爾合通河(發源地: 安圖)·海蘭江(發源地: 和龍)·嘎呀河(發源地: 汪清)·琿春河(發源地: 琿春) 등의 河川이 분포하고, 圖們江(圖們)에서 含水해서 두만강으로 흘러간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변의 유적지들은 이 水系를 따라 전개되고 있다.

이들 중 柵城과 더불어 주목되는 곳이 포이합통하·해란강의 含水處이며 延吉草原이 한눈에 眺望되는 연길 일대 最要衝인 도문의 城子山山城이다. 이 대형 산성이 구축된 것은 기원후 4세기 이후로서 포이합통하 건너편 河龍古城

68) 李成制, 2009. 7. 위의 논문, 180쪽

69) “貂布魚鹽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又送其美女, 以爲婢妾, 遇之如奴僕.”

과 마주 보고 있다. 이 하룡고성은 평지성으로서 그 축조 시기가 성자산산성보다 앞서지만, 훗날 이 산성과 배합하여 군사적 기능이 강화된다. 혹자에 따라서는 이 하룡고성이 애당초 柵城에 앞선 지역 지배의 거점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⁷⁰⁾ 그런데 하룡고성이나 포이합통하·해란강의 합수처 부근과 성자산산성 城內에서 고구려 지배기 이전의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이 사실은 이 일대가 북옥저인들의 밀집 거주지였던 점을 시사한다.⁷¹⁾

고구려는 처음 연변 지역에 세력을 침투시킨 후 先住民들의 밀집 거주지역인 연길과 인접한 이 하룡고성 일대를 지배거점으로 운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고구려는 太祖王 대를 즈음하여 100km 가량 떨어진 瑋春에 柵城을 구축하고 지배 거점을 移置시켰던 것이다. 이는 고구려가 연변 지역 주변의 挹婁에 대한 경략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石頭河子古城-八連城으로 연결되는 연해주 크라스키노 방면의 단결-끄로우노프카 문화 하담 주민들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기도한 조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구려가 노린 것은 북옥저 故地の 중심지에서 벗어난 지배거점을 구축함을 통하여 북옥저인들의 정체성 稀釋과 기왕에 축적된 제 역량의 분산을 꾀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사료(5와 6)은 고구려가 이 연변 지역에 “柵城守吏”로 標榜된 일정한 지배 체제를 가동시키면서, 지속적인 감시와 懷柔 정책을 펼쳐 나간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지배는 고구려가 기원후 56년 동옥저를 領有하게 된 이래 더욱 강화되어 나갔을 것이다. 고구려는 동옥저로의 접근로인 [集安 → 惠山·長白 → 馬天嶺山脈 → 吉州 → 淸津 → 豆滿江 下流] 라는 ‘東海路’를⁷²⁾ 개통하고, 이를 기왕의 [集安 → 延邊]의 ‘沃沮方面路’와⁷³⁾ 연결시켜 연변과 한반도 동북 지역 지배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줄 沃沮-東沃沮 支配機制를 구축했던 것이다.⁷⁴⁾

70) 李成制, 2009. 7, 위의 논문, 177쪽

71) 李成制, 2009. 7, 위의 논문, 176~177쪽

72) 余昊奎, 2008. 2, 앞의 논문, 152쪽, 153쪽의 註 99

73) 李成制, 2009. 7, 앞의 논문, 168~169쪽

74) 이 점과 관련, 우리 학계의 일각에서는 太祖王~A.D. 3세기 중엽 고구려가 東海岸

史料(7) “故國川王二十一年(A.D. 217), 秋八月, 漢平州人夏瑤, 以百姓一千餘家來投, 王納之, 安置柵城.”(『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 4)

史料(7)은 기원후 3세기 초경 고구려가 연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以夷制夷’ 정책을 驅使하여 지역 사회를 통제하고자 漢人들을 집단 徙民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고구려의 강력하고 집요한 연변 지역 지배정책은 실효를 거두어 갔다.

史料(1의 k)는 고구려가 魏 毋丘儉의 공세 앞에 무참히 무너지고 있던 당시 北沃沮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즉, 관구검은 東川王 19년(기원후 245년 / 魏 正始 6년)에 丸都城을 攻陷시킨 후 5월에 일단 回軍하면서 ‘東海路’를 따라서 退却하는 동천왕을 玄菟太守 王頌로 하여금 추격케 하였다. 추격전을 벌이던 왕기 군이 동옥저 지방을 蹂躪하고 있는데 호응하여, 樂浪·帶方那의 병력도 東滅 지방에 出兵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史料(1의 l)은 ‘置溝婁’ 곧 北沃沮 지방에까지 敗退한 동천왕이 책성을 최후의 방어 거점 삼아 魏 군에 대한 反擊 작전을 벌이는 상황을 추단케 해준다. 자기 영역 내로 깊숙이 進攻해 오는 魏 군에 대한 고구려의 最後抵抗線이 바로 이 책성 중심의 연변 지역이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당시 고구려의 대북옥저 故地에 대한 지배정책이 所期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입증시켜 주고 있다.⁷⁵⁾

史料(1의 d와 j)는 동옥저의 言語가 고구려와 거의 같고, “食飲居處, 衣服

交通路를 매개로 南沃沮·北沃沮를 하나의 統治單位로 運用하게 됨에 따라 A.D. 3세기 史書에 南·北沃沮가 합해져 ‘東沃沮’라는 단일한 세력집단 내지는 種族 집단처럼 나타나게 되었다고 본다. 李賢惠, 1997, 앞의 책, 250~251쪽. 또 이러한 입장은 고구려가 지배한 北沃沮와 南沃沮를 통합하여 인식함은 “服屬主體와 服屬單位가 동일하다는 政治社會的 範疇”에서 비롯된 오류라고 지적하면서, “A.D. 1세기 末 이후 두만강 유역 주민들에게 붙여진 ‘北沃沮’라는 명칭을 시간적으로 遡及하고, 空間的으로 확대하여, ‘團結-크로우노프카文化’全體를 ‘沃沮文化’-‘北沃沮文化’로 부르거나, 이 문화의 담당자들을 ‘沃沮族’으로 간주함은 ‘虛構의 沃沮像’”이라고 오늘날 중국 학계의 연구 경향을 비판하고 있다. 이현혜, 2011, 11, 앞의 논문, 60~63쪽

75) 朴京哲, 1989, 6, 앞의 논문, 14~15쪽

禮節”도 유사함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동옥저의 文化相은 고구려가 그간 수행한 同化政策의 결과로 추정된다. 고구려는 북옥저 고지인 연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강요했을 것이다. ‘廣開土王陵碑’의 守墓人烟戶條상의 ‘舊民’으로 적시된 “賣句余民”은 ‘買溝’ 곧 두만강 하류 일대의 북옥저 지역의 주민을 지칭한다.⁷⁶⁾ 이들은 기원후 5세기 초가 되면 集團隸屬民이 아닌 平安道·咸鏡道·遼東 지방 주민과 더불어 ‘舊民’으로 인식되게 된다.

고구려 말기의 ‘柵城都督’의 존재는 기원후 1세기 “柵城守吏”의 그것과 비교할 때 고구려 지배구조 내에서 차지하는 이 지역의 위상을 가늠케 해준다. 연변 지역의 고구려 山城들은 그 築造 시기가 대체로 기원후 4세기 이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산성들은 그간 다져진 고구려의 이 지역 지배 역량을 바탕으로 조영되었던 것이다. 북옥저 고지였던 연변 지역의 이와 같은 성공적 ‘高句麗化’의 결과물은 이후 발해 건국의 人的·物的 자원으로서 구실을 다 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대한 실효적 ‘高句麗化’ 정책은 장기간 연변 지역 고유문화로 자리 잡아온 바 있던 단결-끄로우노프까 문화의 전통을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던 것으로 짐작된다. 연변 지역에서 북옥저와 고구려 지배기의 고고 문화가 심한 斷層性을 드러내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 연유한다고 판단된다. 그만큼 고구려의 연변 지역 지배의 기반은 견실하였던 것이다.

이와 반대로 挾婁系 집단을 주체로 한 三江平原 靺鞨 문화 계통의 [蜿蜒河文化 → 滾兔嶺文化 → 風林文化 → 夢北團結文化] 로의 계기적 전개상은 이곳 주민들이 자기 고유의 문화를 기반으로 사회조직의 자율적 발달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그것은 연변 지역 문화 전개상과 매우 대조되고 있다.

기원후 5세기 이래 종래의 ‘挾婁’와는 그 종족 계통을 함께하는, ‘勿吉’이라 지칭되는 퉁구스(Tungus)계 동북 滿洲 諸族이 부여를 압박하게 된다. 기원후

76) 林起煥, 1987, 「高句麗初期의 地方統治體制」, 『慶熙史學』 14, 58~63쪽; 余昊奎, 2008, 2, 앞의 논문, 150쪽

2~4세기대에는 대부분의 빨체 문화권의 읍루가 遊牧文化로 재편되며 城址 중심의 사회구조는 소멸된다. 이는 기원후 4세기 이후 松遼平原에서 부여 유적지(성지)가 사라지는 상황과 맞물리고 있다.

다만 이제까지 부여 圈域 내에 포함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세력을 가졌던 삼강평원 七星河 유역의 [風林文化 → 夢北團結文化]의 담당 주민들은 성지 중심의 定着經濟를 유지하고 있었다.⁷⁷⁾ 필자는 삼강평원에서 성지 중심의 정착경제를 지속적으로 영위해 온 빨체 문화 계통 주민 집단의 역량이 부여의 그것과 競合할 수 있을 것이라는 假定하에서 이들 칠성하 유역 주민 집단을 5세기 이래 興起한 物길이라 보고자 한다.⁷⁸⁾

물론 고구려가 이들 물길을 제압하고 松花江 유역의 안정적 경영을 擔保할 수 있게 됨에는 송요 평원 當地에서뿐만 아니라, [延吉 → 敦化 → 蛟河 → 長春] 루트를 따라 投射되는 연변 지역에 구축한 제 역량 또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단해 본다.

V. 맺음말

필자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함을 통하여 맺음말에 갈음코자 한다.

‘團結-끄로우노프까 문화’란 함경북도-중국 연변-연해주 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기원전 4~1세기의 초기철기시대의 문화이다. ‘빨체 문화’는 지역별·시기별로 [아무르 지역의 빨체 문화 / 연해주의 빨체 문화(올가 문화)]와 [흑룡강성 서북부의 완연하 유형 / 곤토령문화와 七星河 유역의 城址群]으로 분별·인식되고 있다. 단결-끄로우노프까 문화와 대비되며 논

77) 姜仁旭, 2009. 3, 앞의 논문, 26~29쪽

78) 朴京哲, 2011. 3, 앞의 논문, 40쪽

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연해주의 빨체 문화(올가 문화)’이다.

東北韓-연해주-延邊 등지의 초기철기시대의 문화는 크게 평지성 취락, 심발형 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경질무문토기, 집약적 농경으로 대표되는 ‘단결-끄로우노프까 文化圈’과 고지성취락, 무기 위주의 철기, 다문양호형 토기로 대표되는 ‘연해주의 빨체 문화권’이 공존하였다. 이들 문화의 하담자들은 모두 기원전 2~1세기대에 복합사회로 발전해 나갔다. 그리고 이들은 각기 문헌 자료 상의 주민 집단인 ‘北沃沮’와 ‘挹婁’에 대비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단결-끄로우노프까 문화 II기(기원전 3~1세기경)’ 이후의 그 문화 하담 주민들의 동향을, 특히 기원전 1세기 말~기원후 4세기 이전 고구려의 지배를 받던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두만강 하류 유역과 함경북도 북부 지역에서의 주민 집단들 삶과 역사를 다루고 있다.

기원전 4~3세기경 단결-끄로우노프까 문화의 주요 분포 지역인 남연해주에서는 기후와 海水面의 강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후의 한랭건조화는 단결-끄로우노프까 문화의 경우 오히려 사회구조를 좀 더 복잡화시키고 교역 체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적응과정과 사회발전을 수행한 단결-끄로우노프까 문화권 주민들 중 특히 延邊 지역 주민 집단들이 관련 문헌 자료에서 ‘북옥저’라는 이름으로 특기되었다

연해주의 빨체 문화와 끄로우노프까 문화 하담 집단과 사회 사이에는 일정한 획선이 존재했다. 양자가 유사한 생업경제 기반을 가졌던 까닭에 끄로우노프까 문화의 중심 지역에서 벗어난 곳에서부터 점차로 각자의 생존기반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제반 갈등이 유발되고, 나아가 무장충돌이 집중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挹婁의 압박을 받던 북옥저의 주민들은 일찍부터 같은 예맥으로서의 기저문화와 정서를 공유하는 고구려로의 귀속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변 지역에서의 끄로우노프까 문화의 쇠잔을 초래한 것은 빨체 문화 계통의 읍루의 발호보다는 고구려의 이 북옥저 지역으로의 세력 침투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고구려가 기원전 28년 북옥저를 ‘伐滅’하고 그곳을 ‘城邑’으로 삼았다는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초기 기사는 신뢰성과 더불어 논란의 소지가 큰 문제

다. 고구려의 북옥저 ‘벌멸’은 기원전 28년의 세력 침투 책동을 始點으로 기원 후 1세기 말 太祖王 대에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된 북옥저 ‘經略’이라 추측된다. ‘沃沮方面路’= ‘白頭山北路’가 고구려에서 연변에 이르는 길일 가능성이 있지만, 현시점에서 명확히 확정 짓기 어렵다. 고구려의 연변 지역에 이르는 작전 선상의 요충에 있는 ‘荇人國’은 臨江市 6道溝를 중심지로 하는 臨江-長白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에 웅거하던 세력 집단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형성기 당시 고구려가 국제팽창 動線의 첫 목표지로서 북옥저를 선택한 것은 그곳이 상술한 漢郡縣들과의 직접적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현재까지 알려진 이곳의 단결-끄로우노프카 문화의 분포상과 전개상은 이 지역에서의 유력한 정치적 중심세력의 부재를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는 큰 機會費用을 감당할 위험성이 적은 이곳을 그 세력 침투의 첫 대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고구려는 전략자원인 鐵을 확보하고 한랭건조화 현상이라는 장기적인 기상이변 상황 아래에서 보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북옥저 지역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변 지역은 당시 주요한 교역품으로 평가받던 毛皮와 人蔘 그리고 木材의 주요 생산지인 백두산에 인접한 지역이었다. 고구려의 이 지역으로의 세력 침투는 이러한 전략적 구상과 점점 거세어지는 읍루 세력의 군사적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찾던 북옥저인들의 지구 노력이 맞물리면서 가능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 세력의 북옥저 진출은 연변 지역 주민들이 기왕에 향유하던 단결-끄로우노프카 문화의 지속적 발전 기반을 잠식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八連城·溫特赫部城·裴優城이라는 세 平地城이 이례적으로 밀집해 있는 혼춘의 三街子鄉이 고구려 시기의 ‘柵城’으로 추정된다. 현재 연변 지역에는 108곳의 城址(山城과 平地城)가 남아 있다. 이 중 고구려 시기의 성지로 확인된 곳은 극소수(26~10곳)다. 그러나 답사 결과 입지·구조 면에서 그중 상당수가 고구려 시기 후기에 구축되어 발해 시기까지 연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中後期(기원후 4세기 이후) 이전 고구려의 북옥저 고지 지배는 기본적으로 平地城中心體制였다. 고구려는 북옥저 고지인 연변 주민들을 절대적으로 제

압하고서, 군사적 기능보다는 지역 지배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는 평지성을 우선적으로 조영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지배는 고구려가 기원후 56년 東沃沮를 영유하게 된 이래 더욱 강화되어 나갔을 것이다. 魏 毋丘儉 침공시 고구려의 최후저항선이 바로 이 책성 중심의 연변 지역이었던 사실, 두만강 하류 일대의 북옥저 지역의 주민인 “賣句余民”이 ‘廣開土王陵碑’의 守墓人烟戶條상의 ‘舊民’으로 적시된 점, 고구려 말기의 “柵城都督”의 존재, 연변 지역의 고구려山城들은 그 축조 시기가 대체로 기원후 4세기 이후인 사실 등은 북옥저 고지였던 연변 지역의 성공적 ‘高句麗化’의 결과물이었다. 이런 성과는 이후 발해 건국의 인적·물적 자원으로서 구실을 다하였던 것이다.

연변 지역에 대한 실효적 ‘高句麗化’ 정책은 장기간 연변 지역 고유문화로 자리 잡아온 바 있던 단결-끄로우노프까 문화의 전통을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다. 연변 지역에서 북옥저와 고구려 지배기의 고고문화가 심한 단층성을 드러내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 연유한다.

이와 반대로 읍루계 집단을 주체로 한 三江平原 靺鞨 문화 계통의 [蜿蜒河文化 → 滾兔嶺文化 → 風林文化 → 夢北團結文化]의 담당주민들은 자기 고유의 문화를 기반으로 사회조직의 자율적 발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들 三江平原 칠성하 유역 주민 집단의 실체는 5세기 이래 흥기한 勿吉이라고 추단된다.

참고문헌

- 강인욱, 2007, 「연해주 초기철기시대 크로우노프카문화의 확산과 전파」, 『국가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第31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資料集 別刷)
- 강인욱, 2008, 「발해의 기층문화 형성과정에 대하여: A.D. 2~5세기 말갈문화 형성을 중심으로」(프라스끼노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 강인욱, 2008, 12, 「동아시아 고고학·고대사연구 속에서 옥저문화의 위치: 옥저·읍루문화권의 제기를 중심으로」, 강인욱·김재운·N. A. 클류예프·A. L. 수보티나,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姜仁旭, 2009, 3, 「靺鞨文化의 形成과 2~4 세기 挹婁·鮮卑·夫餘系文化의 關係」, 『高句麗渤海研究』 33
- 김재운, 2008, 12, 「동북한과 중국 연변지구의 초기 철기시대문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계통적 성격」, 강인욱·김재운·N. A. 클류예프·A. L. 수보티나,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盧泰敦, 1981, 「渤海建國의 背景」, 『大邱史學』 19
- 朴京哲, 1989, 6, 「高句麗 軍事戰略 考察을 위한 一試論: 平壤遷都以後 高句麗 軍事戰略의 志向點을 中心으로」, 『史學研究』 40
- 朴京哲, 1994, 「보론: 옥저·동예·읍루」, 『한국사 2: 원사사회에서 고대사회로-2』, 한길사
- 朴京哲, 1996, 12, 『高句麗의 國家形成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朴京哲, 2002, 12, 「高句麗人의 '國家形成' 認識 試論」, 『한국고대사연구』 28
- 朴京哲, 2010, 6, 「鴨綠江 中·上流流域 積石塚築造集團의 存在樣態」, 『先史와 古代』 32
- 朴京哲, 2011, 2, 「鴨綠江 上流 臨江-長白地域 積石塚築造集團의 存在樣態」, 『역사문화연구』 38
- 朴京哲, 2011, 3, 「扶餘의 國勢變動相 認識에 關한 試論」, 『高句麗渤海研究』 39
- 여호규, 2008, 2, 「鴨綠江 중상류 연안의 高句麗 성곽과 東海路」, 『역사문화연구』 29
- 劉子敏·焦增勇, 2010, 8, 『延邊通史(上): 古代篇』, 香港亞洲出版社
- 李基白·李基東, 1983, 『韓國史講座(1): 古代篇』
- 이성제, 2009, 7, 「高句麗와 渤海의 城郭 운용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 延邊地域 분포의 성곽에 대한 이해를 겸하여」, 『高句麗渤海研究』 34

- 이현혜, 1997, 「IV. 동예와 옥저」, 『한국사 4: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국사편찬위원회
- 이현혜, 2011, 11, 「沃沮의 기원과 문화성격에 대한 고찰」, 韓國上古史學會, 『韓國上古史學報』 70
- 林起煥, 1987, 「高句麗初期의 地方統治體制」, 『慶熙史學』 14
- 崔夢龍·李憲宗·姜仁旭, 2003, 『시베리아의 선사고고학』, 주류성
- 데. 엘. 브로단스키 著, 鄭燾培 譯, 1996, 『沿海州의 考古學』, 學研文化社
- A. L. 수보티나, 2008, 12, 「한반도의 중도식 토기문화와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비교: 옥저문화와 한반도의 상호교류에 대한 실증적 비교연구」, 강인욱·김재운·N. A. 클류예프·A. L. 수보티나,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reality of invasion and domination of Koguryo powers in Yanbian area before the 4th century A. D.

Park Kyungcheol

The culture of the early Iron epoch in maritime areas (沿海洲) and Yanbian (延邊), which are now in the northeastern part of North Korea, was divided into the Dankyul (團結)-Krounovka culture and the Poltse culture of the maritime area. The bearers of these cultures had developed their own into the complex societies in the second and first centuries B.C.E. And also they may be compared to ethnic groups such as the Northern Okjo (北沃沮), the Yilou (挹婁), the Dankyul-Krounovka culture, and the Poltse culture of the maritime areas.

According to the Th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Koguryo campaigned progressively North Okjo from 28 B.C.E. into the first century A.D., in managing fortresses in the Yanbian area centered in Hunchun (琿春). In Yanbian area we can confirm the remains of fortresses through the 108 mountain fortresses (山城) and flatland fortresses (平地城). But among these fortresses, only from 10 th 28 fortresses were built by Koguryo. This show that Koguryo dominated the Yanbian area not by the mountain fortress system, that is the military system, but by the flatland fortresses system. Koguryo's effective assimilation policy in the Yanbian area completely dissimilated the traditional Dankyul-Krounovka Culture.

Keywords

Dankyul (團結)-Krounovka Culture, Poltse culture of the maritime district, Northern Okjo (北沃沮)-“Yiplou” (挹婁), Chaekseng (柵城), flatland fortresses system (平地城中心體制), Koguryo's assimilation policy (高句麗化 政策)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의 연변 지역 경영

- 柵城과 新城을 중심으로 -

임기환 |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

I. 머리말

중국 吉林省 延邊 지역은 고구려의 중요한 영역 기반의 하나였다. 이 지역은 고구려 영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는 沃沮人의 활동 무대였고,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중심 근거지이기도 하다. 즉, 역사적으로 볼 때 연변 지역은 沃沮에서 高句麗로, 그리고 다시 渤海의 영역으로 변화하였으니, 고구려 시대의 연변 지역은 이 지역 고대사에서 중간 단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沃沮人의 활동 무대에서 고구려의 영역으로 변화되는 과정과 고구려 영역에서 발해의 중심지로 변화되는 과정은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다시 말해서 옥저에서 고구려 영역으로의 변화는 고구려 국가에 의한 정복 과정이지만, 고구려 영역에서 발해 영역으로의 변화는 고구려의 멸망과 그 이후 고구려 유민들에 의한 발해 건국의 결과였다.

※ 투고일: 2012년 5월 18일, 심사일: 2012년 8월 17일, 게재 확정일: 2012년 11월 23일

즉, 정치적으로 볼 때 전자는 정복에 따른 새로운 지배체제의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후자는 적어도 정복이라는 정치적 격변이 내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연변 지역이 고구려 시대에는 변방의 일부였지만, 발해 시대에는 정치적 중심지였다는 점에서 이 지역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크게 변화하였을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할 때 후자의 경우, 즉 고구려 시대와 발해 시대의 연속성과 계승성이 이 지역에서 고구려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배경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변 지역이 고구려사에서 갖는 영역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진출 과정과 영역 경영의 실태가 어떠하였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표를 두고자 한다.¹⁾ 이에 대한 문헌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곽 유적 등 고고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고자료의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고구려의 연변 지역 경영의 양상을 추적하도록 하겠다. 많은 질정을 바란다.

1_ 고구려의 연변 지역으로의 진출 과정

고구려가 연변 지역으로 진출하고 이 지역을 경영하는 주요 거점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등장하는 柵城과 新城 두 곳이다. 여기서 新城은 ‘東北大鎮’으로서의 新城이다.²⁾ 본장에서는 고구려가 이 지역으로 진출하고 지배하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³⁾

1) 본 연구와 직접 관련된 기왕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여호규, 1995, 「3세기 후반 ~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한국사연구』 91; 김현숙, 1999, 「延邊地域의 長城을 통해 본 高句麗의 東夫餘支配」, 『國史館論叢』 88, 국사편찬위원회; 여호규, 2008, 「압록강 중상류 연안의 고구려 성곽과 東海路」, 『역사문화연구』 29; 이성제, 2009, 「고구려와 발해의 성곽 운용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34집

2) 『三國史記』 권17 고구려본기5 西川王 하4월조, “王如新城 或云 新城 國之東北大鎮也.”

3) 본장의 서술 중 동북지역 진출 과정에 대한 서술은 임기환, 1987, 「고구려 초기의

먼저 압록강 중류지역에 자리잡은 고구려가 동북지역, 즉 연변 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자.⁴⁾

(가)-① 東明聖王 6年(전32) 冬10月 王命烏伊·扶芬奴伐太白山東南
 荇人國 取其地爲城邑.

(가)-② 東明聖王 10年(전28) 冬11月 王命扶尉厭伐北沃沮滅之 以其
 地爲城邑.

(가)-③ 太祖大王 4年(56) 秋7月 伐東沃沮 取其土地爲城邑.

사료 (가)에 나타난 세력에 대한 고구려의 정복 과정을 보면, 東明王 6년(기원전 32)에 太白山 동남의 荇人國을 정복하고, 동왕 10년에는 北沃沮를 복속시켰다. 동북방에 대한 경략을 끝낸 고구려는 진출 방향을 동남지역으로 바꾸어 태조대왕 4년(56)에는 東沃沮를 병합하였으며, 그 후 東濊 지역도 고구려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⁵⁾ 이 중 荇人國의 위치는 太白山(백두산)의 동남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오늘날의 함경도 산간지대로 추정된다. 그리고 北沃沮는 두만강 하류지역이며, 동쪽저는 함흥평야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다.

이 기사를 통해 당시 고구려의 진출 방향을 보면 압록강 상류의 장백, 혜산에서 길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이용하여 이 지역의 행인국을 복속하고, 이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두만강 하류의 북옥저를 복속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집안, 만포에서 부전고원을 넘어서 함흥평야 일대로 진출하여 동옥저를 복속하였던 것이다.⁶⁾

위 자료에서 주목되는 점은 荇人國·北沃沮·東沃沮가 모두 城邑으로 편제되었다는 점이다. ‘城邑’으로 표현된 지배 형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三國志』 권30 東沃沮傳의 다음 기사를 통해 그 일단을 짐작해 볼 수

지방통치체제, 『朴性鳳回甲紀念論叢』의 내용을 보완하여 서술하였다.

4) 이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 인용한 자료는 별도로 전거를 밝히지 않겠다.

5) 『三國志』 권30 濊傳, “濊(중략) 漢末更屬句麗.”

6) 여호규, 1995, 앞의 논문, 27쪽

있다.

(나)-① 句麗復置其中大人爲主[使]者 使相主領 ② 又使大加統責其
租稅·貂布·魚鹽·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③ 又送其美女 以
爲碑妾 遇之如奴僕.

東沃沮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太祖大王代에 고구려에 복속되었는데도 『삼국지』 동이전에 독립된 傳이 따로 마련되고 있음을 보면, 적어도 3세기까지는 고구려가 東沃沮의 읍락사회를 해체시키지 않고 그대로 온존시키면서 이들을 종속적으로 묶어 지배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같은 『삼국지』 고구려전에서 고구려의 영역에 대해 “高句麗在遼東之東千里, 南與朝鮮, 濊貊, 東與沃沮, 北與夫餘接. 都於丸都之下, 方可二千里, 戶三萬”⁷⁾이라 하였다. 이것은 東沃沮를 포함하는 沃沮가 夫餘 및 朝鮮, 濊貊과 마찬가지로 정치집단으로서 독자성이 온존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옥저는 고구려에 복속되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곧 고구려가 이 지역을 간접지배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간접지배 방식은 위 사료 (나)-①②에 잘 나타나 있다. 즉, 당시 고구려가 동옥저 각 읍락 大人들의 자기 읍락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하되, 이들에게 使者의 직을 주어 고구려 大加의 통솔 아래 부과된 貢物을 부담하거나 읍락의 下戶들을 동원하여 공물을 운반케 하는 임무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 이와 같은 동옥저에 대한 지배방식이 마찬가지로 ‘城邑’으로 편제하였다는 荇人國·北沃沮에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두만강 하류 지역을 포함하여 고구려의 연변 지역 진출 및 지배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다음 기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7) 『三國志』 권30, 魏書30, 高句麗

8) 使者를 매개로 하여 동옥저의 貢物을 統責하는 고구려 大加의 존재는 梁貊部落과 肅慎部落을 統領하는 國相 明臨答夫나 安國君 達賈의 존재에서도 확인된다. 즉, 고구려에 복속된 梁貊·肅慎部落에도 동옥저와 동일한 지배방식이 관철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다)-① 閔中王 4年(47), 9月 東海人高朱利獻鯨魚 目夜有光.
 (다)-② 太祖大王 55年(107), 冬10月 東海谷守獻朱豹 尾長九尺.
 (다)-③ 東川王 19年(245), 春2月 東海人獻美女 王納之後宮.
 (다)-④ 西川王 19年(288), 夏4月 王幸新城 海谷太守獻鯨魚 目夜有光.

위 사료에서는 東海·東海谷·海谷 등의 지명이 나타나는데 (다)-①의 東海人의 獻鯨 기사와 (다)-④의 海谷太守의 獻鯨 기사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東海·海谷은 동일 지역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이 東海谷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기사 (다)-④를 주목해 보자. 西川王이 新城에 幸行하였을 때 海谷太守가 獻鯨한 것으로 보아 新城과 東海谷은 가까운 지역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때의 新城은 東北大鎮으로서 아래에서 검토하듯이 오늘날 연길 일대로 비정된다. 따라서 東海谷도 동해에 인접한 두만강 하류 지역의 세력집단으로 추측된다. 『삼국지』 東沃沮傳에는 이 일대의 세력으로 북옥저가 존재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북옥저는 동명왕 때 복속되어 城邑으로 편제되고 있고, 東海谷은 閔中王 이전에는 이미 고구려의 지배 아래 들어갔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복속의 시기나 지배방식 및 지리적 위치로 보아 양자는 동일한 실체로 여겨진다.

다만 아래 사료 (마)-①에서 보듯이 태조왕이 柵城을 별도로 순수한 기사를 보면, 책성과 東海谷은 서로 다른 지역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논급하려는 바와 같이 필자는 책성을 두만강 하구의 훈춘 일대로 비정하기 때문에, 동해곡의 위치는 책성과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동옥저에서 북옥저 사이의 동해안 일대의 세력으로 추정되며, 오늘날의 길주나 청진 일대가 유력하지 않을까 짐작한다.

그런데 이 동해곡이 고구려왕에게 獻鯨·獻朱豹·獻美女한 사실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옥저와 같은 방식의 貢納 지배를 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자료에 보이는 東海太守나 海谷太守도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아니라, 본래 이 지역 읍락사회의 지배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본기에 동해곡의 貢納 기록이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취기반이었던 때문이 아닐까 한다.⁹⁾ 고구려가 동북방 지역의 경영에 쏟은 관심과 노력이 남달랐음은 아래 사료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듭되는 이 지역으로의 巡守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거니와, 특히 집단 내투한 漢人집단을 柵城에 安置시켰던 것은¹⁰⁾ 이 지역의 수취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로 짐작된다.

고구려 동북방 경영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西川王代에는 肅愼의 일부 세력을 속민집단으로 복속시켰다(사료 (라)-②). 속신은 만주 지역 일대에 존재하였던 고대 북방 종족의 하나로, 후대에 등장하는 읍루, 물길이나 말갈 등과 계승관계에 있는 종족으로 사서에 나타나고 있다.¹¹⁾ 『後漢書』와 『삼국지』에는 속신과 연관된 挹婁의 열전이 있어, 3세기에는 속신이라는 이름이 이미 挹婁로 대체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¹²⁾ 고구려본기에 등장하는 속신도 이러한 중국 史書에 전하는 속신과 동일한 존재로 추정된다. 다음 사료를 보자.

(라)-① 太祖大王 69年(121), 冬10月 王幸扶餘 祀太后廟 存問百姓窮困者 賜物有差 肅愼使來 獻紫狐裘及白鷹·白馬 王宴勞以遺之 11月 王至自扶餘.

(라)-② 西川王 11年(280), 冬10月 肅愼來侵 (중략) 達賈出奇掩擊 拔

- 9) 여호규는 북옥저 등 동해로 방면에 대해 고구려가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된 배경으로 당시 중국 근현의 영양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압록강 수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여호규, 2008, 앞의 논문, 154쪽
- 10) 『三國史記』 권16 高句麗本紀4 山上王 21년(217) 8월조, “漢平州人夏瑤以百姓一千餘家來投 王納之 置柵城.”
- 11) 『魏書』 권100, 列傳88, 勿吉, “勿吉國, 在高句麗北, 舊肅愼國也.”; 『隋書』 권81, 列傳46, 東夷/靺鞨, “自拂涅以東, 矢皆石鏃, 卽古之肅愼氏也.”; 『舊唐書』 권199 下, 列傳149 下, 靺鞨, “靺鞨, 蓋肅愼之地, 後魏謂之勿吉.”; 『新唐書』 권219, 列傳144, 黑水靺鞨, “黑水靺鞨居肅愼地, 亦曰挹婁, 元魏時曰勿吉.” 이상의 기록을 통해 肅愼-挹婁-勿吉-靺鞨의 계보를 설정할 수 있다.
- 12) 『後漢書』 권85, 列傳75, 挹婁, “挹婁, 古肅愼之國也, 在夫餘東北千餘里, 東濱大海, 南與北沃沮接, 不知其北所極.”; 『三國志』 권30, 魏書30, 挹婁, “挹婁在夫餘東北千餘里, 濱大海, 南與北沃沮接, 未知其北所極, …… 其弓長四尺, 力如弩, 矢用楛, 長尺八寸, 青石爲鏃, 古之肅愼氏之國也.”

檀盧城 殺酋長 千六百餘家於扶餘南烏川 降部落六七所 以爲附庸 王大悅拜達賈爲安國君 知內外兵馬事兼統梁貊·肅慎諸部落.

숙신은 이 지역으로 확장해 오는 고구려 세력에 굴복하여, 사료 (라)-①에서 보듯이 太祖大王대에는 朝貢을 바치며 고구려에 신속해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숙신[挹婁]은 북옥저를 자주 침략하여,¹³⁾ 고구려의 중요 수취기반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라)-②에서 西川王 11년에 고구려가 군대를 동원하여 肅慎을 정벌하고 그 일부를 복속시킨 것은 이에 대한 고구려의 대응 조치로 보인다. 이때 복속된 숙신 부락을 達賈로 하여금 統領케 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옥저에 대한 지배 형태와 유사한 貢納지배가 이 지역에 관철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면 이 숙신이 위치한 곳은 어디인가? 일단 종족적으로 숙신[읍루]은 두만강 유역의 북옥저와는 구분되며, 주로 연해주와 아무르강 유역에 분포하는 빨체 문화와 연관된 종족으로 파악된다.¹⁴⁾ 1~3세기 빨체 문화의 분포권을 보면, 북옥저의 북쪽에 위치하여 고구려와 직접 경계를 맞닿아 있지는 않다.¹⁵⁾ 그러면 어떻게 숙신이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고, 고구려와 순차적으로 충돌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위 (라) 기사에서 숙신과 부여가 지리적으로 연관되어 등장하는 점이 주목된다. 『삼국지』 권30, 挹婁전에 따르면 읍루는 부여의 동쪽 1천여 리에 위치하고, 漢 이래 부여에 신속하여 조세를 바쳤으며, 그 조세 부담이 과중하자 黃初 년간(220~227)에 부여에 항거하였다가 부여의 정벌을 받기도 하였

13) 『三國志』 권30 東沃沮傳, “北沃沮(중략) 與挹婁接 挹婁喜乘船寇鈔 北沃沮畏之 夏四月恆在山巖深穴中爲守備 冬月水凍 船道不通 乃下居村落.”

14) 강인옥, 2008, 「동아시아 고고학 고대사 연구 속에서 옥저문화의 위치」,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강인옥은 두만강 유역, 연해주 이북의 初期鐵器時代의 문화권을 ‘團結-크로우노프까文化圈’과 ‘沿海洲의 빨체문화권’이 共存하였고, 이들이 각기 문헌자료상의 주민집단인 ‘北沃沮’와 ‘挹婁’에 대응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15) 강인옥, 2008, 위의 논문, 33쪽. 『三國志』 권30, 挹婁전에도 “挹婁在夫餘東北千餘里, 濱大海, 南與北沃沮接”이라고 하여 읍루가 북옥저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다.¹⁶⁾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태조왕대와 서천왕대에 고구려와 접촉 혹은 충돌한 숙신[읍루]은 아마도 부여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숙신의 일부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정벌 후 1,600여家的 숙신족을 부여의 남쪽 烏川에 이주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구려가 두만강 유역을 복속시킨 이후 이 지역에 대해 고구려왕의 巡狩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주목된다.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마)-① 太祖大王 46年(98), 春3月 王東巡柵城 至柵城西鬪山 獲白鹿 及至柵城 與群臣宴飲 賜柵城守吏物段紐差 遂紀功於岩乃還.

(마)-② 太祖大王 53年(105), 秋8月 遣使安撫柵城.

(마)-③ 太祖大王 62年(114), 秋8月 王巡守南海 冬10月 至自南海.

(마)-④ 太祖大王 69年(121), 冬10月 王幸扶餘 祀太后廟 存問百姓窮困者 賜物有差 肅慎使來 獻紫狐裘及白鷹·白馬 王宴勞以遣之 11月 王至自扶餘.

(마)-⑤ 西川王 7年(276), 夏4月 王如新城[或云新城, 國之東北大鎮也] 獵獲白虎 秋8月 王至自新城.

(마)-⑥ 西川王 19年(288), 夏4月 王幸新城 海谷太守獻鯨魚 日夜有光 秋8月 王東狩獲白鹿 冬11月 王至自新城.

(마)-⑦ 烽上王 2년(293) 8月 慕容廆來侵 王欲往新城避賊 行至鵝林 慕容廆知王出 引兵追之 將及 王懼時 新城幸北部小兄高奴子 領五百騎迎王 逢賊奮擊之 廆軍敗退 王喜 加高奴子爵爲大兄 兼賜鵝林爲食邑.

위 기사 (마)를 보면 태조왕대에 柵城으로 巡狩가 이루어지고 또한 사자를 보내어 柵城을 安撫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책성의 위치는 어디인가? 책성은 5세기대에도 고구려의 동쪽 영역의 최동단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¹⁷⁾ 지금의 두만강 유역 일대로 비정할 수 있다. 두만강 유역 일대는 북옥저가 자

16) 『後漢書』 권85, 列傳75, 挹婁, “挹婁在夫餘東千餘里, 濱大海, (중략) 自漢已來, 臣屬夫餘, 夫餘責其租賦重, 以黃初中叛之, 夫餘數伐之.”

17) 『魏書』 권100, 高句麗傳, “遼東南一千餘里, 東至柵城, 南至小海, 北至舊夫餘.”

리잡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태조왕대에 등장하는 柵城은 북옥저 지역을 지배하는 고구려의 거점성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¹⁸⁾

그러면 서천왕대에 처음 등장하는 新城의 위치는 어디인가? 고구려의 유명한 重鎮으로서 新城은 지금의 중국 무순시 고이산성으로 비정되는 성곽이다. 그러나 위 사료 (마)-⑤⑥⑦에 보이는 新城은 결코 요동 지역의 고이산성으로 비정되는 신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마)-⑥에서 서천왕이 신성에 순수하였을 때, 海谷太守가 공헌을 하고 있는데, 海谷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만강 일대 혹은 지금의 함경북도 동해안 일대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⑦의 사료에서 보듯이 293년에 慕容廆의 침입을 맞은 烽上王이 적을 피하고자 新城으로 가려 하였는데, 서쪽에서 침입하는 慕容廆에 대해 국내성의 서북쪽에 있는 고이산성으로 피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마)-⑤의 기사에서 “新城[或云新城, 國之東北大鎮也]”라는 분주 기사는 서북의 新城(고이산성이 아닌 동북지역에 별도로 新城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위 (마)-⑤⑥⑦ 기사의 新城 위치는 곧 고구려의 동북지역, 즉 두만강 유역 일대로 비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이미 태조왕대에 柵城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東北大鎮인 新城을 柵城의 다른 명칭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¹⁹⁾ 그러나 柵城은 고구려 후기까지도 여전히 柵城으로 불리웠기 때문에 新城을 柵城으로 보는 견해를 따르는 어렵다.²⁰⁾ 신성이 책성과는 다른 위치라는 점은 (마)-⑦의 기사에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慕容廆가 이끄는 前燕軍이 침공하자 봉상왕은 新城 방

18) 여호규는 광개토태왕릉비의 수묘인연호조에 보이는 賣句余를 책성과 동일한 위치로 보고, 이를 근거로 柵城이라고 불린 목책성이 435년경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여호규, 2008, 앞의 논문, 157쪽). 그러나 이러한 重鎮에 책성이라는 이름에서 추정되듯이 성곽의 초기 형태의 목책성이 장수왕대에 처음 축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책성이라는 이름에서 오히려 상당히 이른 시기의 성곽 축조를 상정해야 할 것이다.

19) 金瑛河, 1985,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 106, 歷史學會, 35~40쪽 참조.

20) 필자도 전에는 柵城과 新城을 동일한 성은 아니지만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보았으나(임기환, 1987, 앞의 논문, 25쪽), 본고에서 이를 수정하고자 한다.

향으로 도피하였고, 이를 눈치챈 전연군이 봉상왕을 추격하여 鵝林에서 봉상왕을 구원하러 온 新城幸 고노자의 군대와 충돌하게 되었다. 만약 신성이 책성과 동일한 곳이라면, 아래에서 검토하려는 바와 같이 관구검의 침공시에 동천왕이 피난간 경로와 같이, 동옥저 지역으로 남하하는 경로를 택하였을 것이다. 이 경로가 전연군의 침공 경로와 반대쪽이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위 기사를 보면 봉상왕이 수도에서 피난한 사실을 안 전연군이 국내성을 경유하지 않고 중도에 방향을 바꾸어 봉상왕을 추격하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즉, 요동 지역에서 국내성으로 침공해 오는 전연군이 경로를 바꾸어 봉상왕을 추격하였다는 사실에서 봉상왕이 피신한 방향, 즉 신성의 방향을 대략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전연군의 침공로를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후일 342년(고국원왕 12)에 전연군의 침공로 중 北道의 경로를 고려하면, 대략 무순의 新城에서 소자하를 거쳐 신빈에서 환인이나 신개하를 거쳐 국내성으로 진공하는 경로를 택하였을 것이다.²¹⁾ 따라서 봉상왕을 추격하기 위해서 전연군이 도중에 진공로를 바꾸었다는 사실은 봉상왕이 남쪽 방향인 동옥저 지역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라, 국내성에서 지금의 통화나 백산, 무송 지역을 거쳐 동북쪽으로 피신하는 경로를 택하였음을 방증하고 있다. 즉, 봉상왕은 동천왕의 경우와는 다른 경로로 동북방면으로 피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교통로가 다르다는 점에서 新城이 柵城과는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서천왕대의 新城은 柵城과는 다른 동북지역의 또 다른 거점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 신성을 어디에 비정함이 타당할지에 대해서는 아래 장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

일단 위 (마) 기사에서 태조왕대의 柵城 巡狩와 서천왕대의 2회에 걸친 新城 巡狩는 북옥저를 비롯한 두만강 유역에 대한 통치권을 확인하려는 정치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태조대왕의 南海 巡狩는 동옥저에 대한 지배권의 확

21) 342년 전연군의 침공로인 북도와 남도의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필자의 견해는 다음 논문에 제시한 바 있다. 임기환, 1998, 「고구려 전기 산성 연구」, 『국사관논총』 82, 국사편찬위원회

인이며, 태조대왕의 夫餘 行幸도 일종의 巡守로 볼 수 있겠다. 이들 지역은 그 사회의 독자성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심 읍락의 大人을 통한 간접지배였기 때문에, 고구려 중앙정권의 지배력이 약화되거나 혹은 중국 군현 세력의 침투를 계기로 고구려 지배체제에서 쉽게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큰 지역들이었다. 예컨대 동천왕대 毋丘儉의 침입 시에 東濊가 이탈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²²⁾

따라서 간접지배를 보완하기 위해 고구려왕은 수시로 이들 지역에 대한 巡狩를 행하여 그 지배권을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순수지에서의 지방관리 위로(마-①), 주변세력과의 교섭(마-④) 또는 白鹿의 수렵으로 상징되는 군사훈련(마-①④⑤⑥) 등은 고구려 변경 지역에 대한 국왕의 순수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잘 보여 준다.²³⁾ 즉, 고구려 초기에 왕의 변경 巡狩는 당시 연맹체 외곽의 이종족집단에 대한 屬民-貢納 지배의 미숙성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행해졌던 것으로 통치행위였다.

이와 같이 국왕의 巡狩 등을 통하여 동옥저와 북옥저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한 결과, 3세기 중엽 毋丘儉의 침입 때 東川王이 沃沮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북옥저로 도피하였던 사례에서 보듯이,²⁴⁾ 동옥저와 북옥저 지역이 국난 시에 국왕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력이 충분히 관철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천왕대 관구검의 침공과 고구려의 패배로 인해 동북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력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왜냐하

22) 『三國志』 卷30 濊傳, “正始 6年 樂浪太守劉茂·帶方太守弓遵 以領東濊屬句麗 興帥伐之 不耐侯等 舉邑降 其八年 詣闕朝貢 詔更拜不耐濊王 居處雜在民間 四時詣郡朝謁 二郡有軍征賦調 供給役使 遇之如民.”

23) 金瑛河, 1985,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 106, 30쪽

24) 『三國志』 권30, 魏書30, 東沃沮, “毋丘儉討句麗 句麗王宮奔沃沮 遂進師擊之 沃沮邑落皆破之斬獲首虜三千餘級 宮奔北沃沮 北沃沮一名置溝淩 去南沃沮八百餘里……”; 『三國志』 권28, 魏書28, 毋丘儉, “(正始)六年 復征之 宮遂奔買溝(毋丘)儉遣玄菟太守王頎追之 過沃沮千有餘里 至肅慎氏南界.”; 『三國史記』 권17, 고구려본기5, 東川王 20년(246) 10월조, “(毋丘)儉攻陷丸都城, 屠之. 乃遣將軍王頎, 追王. 王奔南沃沮, 至于竹嶺.” (하략)

면 관구검의 고구려 침공은 단지 고구려 정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관구검의 군사행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현도태수 王頎를 거느리고 직접 고구려를 정벌하였으며, 또 하나는 낙랑태수 劉茂와 대방태수 弓遵으로 하여금 고구려에 예속된 東濊를 정벌케 한 것이다. 244~245년의 2년에 걸친 관구검의 원정 결과 고구려의 수도를 함락시키는 심대한 타격을 주고, 현도태수 왕기가 고구려의 배후 기지 역할을 하던 동옥저·북옥저까지 유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낙랑군·대방군의 군대는 동예의 항복을 받아 낙랑군에 종속시키는 성과를 얻었다.²⁵⁾

특히 이때 현도태수 왕기의 군사행동은 관구검의 동방정책과 관련하여 주목을 끈다. 왕기는 고구려 정벌 직전에 扶餘에 파견되어 군량을 공급받았다.²⁶⁾ 이는 魏가 고구려와 대립하던 부여에 대해서는 우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244년 고구려 원정에 참여하였던 왕기는 이듬해에는 동옥저·북옥저까지 정벌하여, 肅慎의 경계에까지 이르렀다가 회군하였다. 사실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동옥저와 북옥저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상당부분은 이때 얻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관구검의 고구려 원정은 동방경역의 가장 위협 세력이었던 고구려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 이외에도, 옥저 및 동예 지역까지 중국 군현의 영향력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 당시 魏가 동방 군현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정책은 三韓의 경우에도 잘 드러난다. 관구검의 고구려 정벌전이 성공하여 魏의 가장 큰 위협세력인 고구려가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동방의 세력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 틈을 이용하여 관구검은 고구려 원정을 마친 직후 곧 三韓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였다.²⁷⁾

25) 『三國志』 권30, 魏書30, 濊, “正始六年, 樂浪太守劉茂·帶方太守弓遵以領東濊屬句麗, 興師伐之, 不耐侯等舉邑降. 其八年, 詣闕朝貢, 詔更拜不耐濊王. 居處雜在民間, 四時詣郡朝謁. 二郡有軍征賦調, 供給役使, 遇之如民.”

26) 『三國志』 권30, 魏書30, 夫餘, “正始中, 幽州刺史毋丘儉討句麗, 遣玄菟太守王頎詣夫餘, 位居遣大加郊迎, 供軍糧.”

27) 임기환, 2000, 「3세기~4세기초 魏·晉의 東方政策」, 『역사와 현실』 32, 한국역사연구회, 3~33쪽

東濊와 三韓의 사례에서 보듯이, 관구검의 고구려 침공 이후 동옥저와 북옥저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력에도 일정한 정도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244~246년간에 관구검에 의해 주도되던 공세적인 동방정책이 이후에까지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위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司馬懿가 정치적 실권을 잡아가는 과정이었고, 또 여전히 蜀·吳와의 대결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이후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고구려는 동옥저와 북옥저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곧바로 회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동옥저의 경우에는 낙랑군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고구려의 세력권에서 이탈되어 있었을지라도, 북옥저의 경우에는 지리적 조건에서 사실상 중국 군현의 힘이 미치지 어려운 지역이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우선적으로 북옥저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西川王대의 新城 巡狩다. 필자는 이 新城의 위치를 지금의 연길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는데(후술),²⁸⁾ 기존의 柵城 외에도 新城이라는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여 북옥저 일대에서 보다 강화된 지배력을 구축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봉상왕 때에 모용씨가 침공하자 북옥저 지역의 또 다른 거점인 新城이 봉상왕의 피난처로 선택될 만큼 고구려의 배후 기지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문헌 기록상에서 고구려가 다시 동북 방면인 연변 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는 廣開土王碑文이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바)-① (永樂)8년(398) 戊戌, 敎遣偏師, 觀肅愼土俗, 因便抄得, 莫口羅城加太羅谷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 朝貢論事.

(바)-② (永樂)20년(410) 庚戌 東夫餘 舊是鄒牟王屬民, 中叛不貢, 王躬率往討, 軍到餘城, 而餘城國駭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王恩普覆於是旋還, 又其慕化隨官來者, 味仇婁鴨盧, 卑斯麻鴨盧, 樨社

28) 김현숙은 신성의 위치를 연변 지역이나 아니면 그와 가까운 곳에 있는 중요한 大城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현숙, 2005, 『高句麗의 영역지배 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418쪽

婁鴨盧, 肅斯舍鴨盧, □□□鴨盧.

위 사료 (바)-①의 ‘肅慎’은 ‘帛慎’·‘息慎’ 등으로도 판독되고 있다.²⁹⁾ 판독에 따라 대상이 어디인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기왕의 견해 중에는 ‘帛慎’으로 판독하고 이를 한반도 중부지역에 비정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³⁰⁾ 그러나 원석 탁본에 의거한 명문 판독도 ‘肅慎’일 가능성이 높고,³¹⁾ 광개토왕 당시 한반도 중부지역의 상황을 고려하면 “自此以來, 朝貢論事”할 대상을 별도로 설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한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그 대상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8년 병신조의 공략 대상을 숙신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때 숙신의 위치가 문제가 될 터인데, 이에 대해서 후대에 발해 上京龍泉府로 비정되는 寧安 일대로 보는 견해,³²⁾ 부여의 북쪽 松花江 유역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³³⁾ 琿春 동쪽의 연해주 西端 일대에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³⁴⁾

그런데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두만강 유역과 牧丹江 유역이 문화적으로

- 29)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1,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1권, 駕洛國事蹟開發院. 盧泰敦은 앞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1권 26쪽 주38)에서 비문의 字는 ‘帛’은 분명히 아니고, 전후 문맥으로 보아 對百濟戰이 아니며, 息慎 또는 肅慎으로 보는 通說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武田幸男도 원석탁본을 통해 ‘肅慎’으로 판독하였다. 武田幸男, 1988, 『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 東京大學出版會
- 30) 王健群 著, 林東錫 譯, 1985,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119~200쪽; 李純根, 1995, 「靺鞨의 種族 正體性에 대한 一研究」, 『論文集』 2,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주 60; 朴性鳳, 1996, 「廣開土好太王’王號와 世界觀」, 『廣開土好太王碑 研究100年(下)』, 高句麗研究會, 7쪽; 박진석, 1996, 『高句麗 好太王碑 研究』, 아세아문화사, 131~142쪽 참조.
- 31) 필자도 2011년 11월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었던 원석 탁본인 水谷本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肅慎’으로 판독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였다.
- 32) 千寬宇, 1979, 「廣開土王陵碑文 再論」, 『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537쪽. 천관우는 발해의 上京龍泉府로 비정되는 寧安 일대가 ‘肅慎故地’라 한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 33) 손영중, 1986, 「광개토왕릉비를 통하여 본 고구려의 영역」, 『력사과학』 1986-2, 사회과학출판사, 24~25쪽
- 34) 申澁植, 1996, 「高句麗의 成長과 領域」, 『白山學報』 47, 白山學會, 259쪽 참조.

다른 문화권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³⁵⁾ 沃沮와 挹婁가 접하였다고 한 기록³⁶⁾을 연결해 보면 두만강 유역에는 沃沮가, 목단강 유역에는 肅愼·挹婁 등의 북방 종족이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³⁷⁾ 그런데 영락 8년의 숙신에 대한 공략은 偏師를 보낸 소규모 정벌이고 ‘觀肅愼土谷’하는 과정에서 그 성과도 莫□羅城 加太羅谷의 남녀 300여인을 초득하는 정도로 소략하므로, 고구려의 영역과 인접한 숙신의 일부 세력에 대한 공략으로 볼 수 있겠다. 그 구체적인 지역을 알기는 어렵지만, 서천왕대 정벌한 숙신(사료 라-②)과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광개토태왕비에 기술되어 있는 다른 정벌기사에 비하여 영락 8년의 숙신 지역에 대한 군사 행동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그 성과도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비문에 이를 기술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숙신 정벌의 최종적인 성과는 “自此以來，朝貢論事”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즉, 조공 관계를 통해 숙신 세력을 고구려의 세력권 내로 편제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아마도 숙신과 인접해 있는 북옥저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짐작된다. 3세기 중엽에 숙신의 전신인 읍루는 수시로 북옥저 지역을 침공하였다.³⁸⁾ 이러한 정황은 광개토태왕대까지도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두만강 일대에 대한 고구려의 안정적인 지배를 위해서는 숙신 세력을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영락 8년 고구려군의 숙신 정벌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시킨 군사행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군사행동의 규모나 성과는 비록 적었다고 보이지만, 고구려 동북 영역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때의 군사행동이 갖는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이 광개토태왕비문에 숙신 정벌이 기술되게 된 배경이

35) 강인욱, 2008, 앞의 논문, 60~72쪽

36) 『三國志』 권30, 魏書30, 東沃沮, “北沃沮一名置溝婁, 去南沃沮八百餘裏, 其俗南北皆同, 與挹婁接.”

37) 노태돈, 1989, 「扶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국사관논총』 4;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515쪽의 주 52)

38) 『三國志』 권30 東沃沮傳, “北沃沮(중략) 與挹婁接 挹婁喜乘船寇鈔 北沃沮畏之 夏四月恆在山巖深穴中爲守備 冬月水凍 船道不通 乃下居村落.”

었을 것이다.

다음 (바)-② 영락 20년조의 東夫餘 정벌에 대해 살펴보자. 이 동부여의 위치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 설이 있다.³⁹⁾ 그중 한반도 동해안의 穢族집단을 동부여의 실체로 본 견해⁴⁰⁾에는 따르기 어렵다. 또한 이미 쇠약해진 상태에 있는 길림 일대의 부여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⁴¹⁾ 과연 길림 일대의 부여를 동부여라고 칭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285년에 선비 모용외가 부여를 공격하여 당시 夫餘王 의려가 자살하고 그의 자제가 沃沮로 달아나 지켰다는 기록⁴²⁾과 연결시켜, 이때 길림 일대에 있던 부여족의 일부가 두만강 하류 일대로 이주하여 동부여를 세웠다는 견해다.⁴³⁾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부여는 고구려의 양해와 적극적인 주선 아래 옛 옥저의 거주지인 두만강 하류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단독적으로 건국하였다고 보기도 한다.⁴⁴⁾ 이와 관련하여 4세기 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는 연변 지역 장성의 존재와 동부여를 연결시키기도 하지만,⁴⁵⁾ 논거의 전제가 되는 연변의 장성이 고구려 시대의 장성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⁴⁶⁾ 장성 유적을 근거로 연변 일대에 동부여의 존재를 상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면 광개토왕의 정벌 대상인 동부여가 위치한 곳은 어디일까? 일단

39) 東夫餘의 위치에 관한 諸說에 대해서는 孔錫龜, 1988,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書景文化社, 252~253쪽 참조.

40) 孔錫龜, 1988, 위의 책, 265~268쪽 참조.

41) 송호정, 1997, 「부여의 성장과 대외관계」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200쪽. 송호정은 원부여(북부여)와는 달리 길림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부여를 東夫餘로 보았다.

42) 『晉書』 권97 열전67 부여국전, “至太康六年 爲慕容廆所襲破, 其王依慮自殺, 子弟走保沃沮.”

43) 노태돈, 1989, 앞의 논문, 43~46쪽

44) 김현숙, 1999, 앞의 논문; 김현숙, 2005, 앞의 책, 416~420쪽 참조.

45) 金賢淑, 2005, 앞의 책, 435쪽

46) 이성제, 2009, 앞의 논문, 177쪽. 필자 역시 연변의 장성을 답사한 결과 이 장성의 축조 양상은 연길 시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기능이 아니라, 거꾸로 연길 시내 지역을 외곽에서 포위하는 양상이었다. 따라서 연길 시내를 거점으로 삼았을 고구려 측에서 이 장성을 축조하였다고 보기는 정황상 어렵다고 생각된다.

285년에 전연의 공격으로 해체된 부여의 일파가 옥저 지역으로 이주하였다는 『晉書』 부여국전의 기록은 유념할 만하다. 그런데 옥저 지역은 두만강 유역 일대이기 때문에, 이 기록에 의거하여 동부여를 두만강 유역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두만강 유역의 연길 지역과 훈춘 지역은 광개토왕비 舊民 수묘인연호가 차출된 지역으로(후술), 이미 고구려의 지배력이 확고하게 관철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다른 독립세력으로서 동부여의 존재를 비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설사 동부여의 건국 과정에서 고구려의 용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광개토왕이 정벌한 동부여는 餘城이라는 도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광개토왕대 고구려의 영역임이 분명한 연길이나 훈춘 지역으로 동부여의 위치를 비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면 동부여의 위치를 어디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일까? 일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만강 지역을 제외하고, 동시에 광개토왕대 고구려의 영역 밖이어야 한다. 또한 목단강 중류의 寧安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숙신의 권역과도 달라야 하며, 동부여라는 명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부여의 중심지인 吉林의 동쪽 지역을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가장 유력한 지역은 지금의 길림성 敦化 지역이다. 敦化는 길림에서 연길 및 두만강 유역의 옥저 지역, 즉 훈춘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의 중간 지점으로, 동부여라는 국명에 걸맞는 위치라고 할 수 있다. 더욱 후일 발해의 첫 건국지라는 점에서 이 지역이 갖는 정치·경제적 위상을 짐작할 수도 있겠다.

동부여의 위치를 지금의 돈화 일대로 본다면 『晉書』 부여국전의 “其王依慮自殺，子弟走保沃沮”라는 기사와 상응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당시 부여인의 일파가 옥저 방향으로 피난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혹은 실제 당시 부여의 일파가 옥저까지 도망하였다가 前燕이 물러난 이후 다시 길림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일부 세력이 前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부여 영역의 외곽지역인 敦化 일대에 거주하며 새로이 동부여를 건국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추정은 敦化 일대에서 부여 관련 고고자료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두

만강 하류 일대에서도 동부여 관련 고고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기왕의 견해도 실증상의 한계가 있음은 마찬가지다. 전반적인 정황으로 보면 敦化 일대에서 동부여의 위치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동부여를 돈화 일대에 비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영락 20년의 동부여 정벌은 영락 8년의 숙신 정벌과 더불어 이 시기 고구려의 동북지역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일단 牟頭婁墓誌에 보이는 ‘北扶餘守事’인 모두루의 존재로 보아 광개토왕대에는 부여가 위치한 길림 일대를 중심으로 과거 부여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천왕대에는 이미 新城을 거점으로 연결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여기에 새로이 동부여가 위치한 돈화 지역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길림-돈화-연길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통해 고구려의 동북방 영역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 영락 8년의 숙신 정벌을 통해 새로이 조공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영역 지배는 더욱 확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영락 8년의 숙신 정벌과 영락 20년의 동부여 정벌은 고구려의 동북지역 경영과 관련하여 광개토왕대의 중요한 대외활동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2_ 柵城과 新城의 위치 비정과 교통로

1) 연변 지역의 성곽과 柵城과 新城의 위치 비정

본장에서는 연변 지역에 분포하는 고구려 성곽을 살펴보고, 그중에서 柵城과 新城에 비정할 수 있는 성곽을 찾아보고자 한다.⁴⁷⁾ 먼저 연변 지역에 소재하고

47)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山城」, 『高句麗の歴史と遺跡』; 鄭永振, 1999, 「延邊地域の城郭에 대한 研究」, 『高句麗研究』 8; 王禹浪·王宏北 編, 『高句麗·渤海古城址研究匯編』 上·下, 哈爾濱出版社; 방학봉, 2002, 『발해성곽연구』, 연

있는 고구려 성곽에 대한 연구로서 주목되는 주요한 성과는 다나카 도시아키 [田中俊明]와 鄭永振의 연구다. 두 연구자가 연변 지역에서 고구려 성곽으로 비정한 성은 각각 다음과 같다.⁴⁸⁾

〈표 1〉 鄭永振이 고구려 성곽으로 파악한 연변 일대 성곽의 현황⁴⁹⁾

순서	명칭	소재지	성곽의 규모와 축조형식
1	城子山山城*	龍井市 長安鎮 磨盤村 山城里屯	4,450m/ 石?
2	興安古城*	延吉市 興安鄉의 북	1,800m/ 土石?
3	河龍古城	延吉市 東郊	985m/ 土
4	東興古城	龍井市 光新鄉	
5	土城屯古城	龍井市 八道鄉	1,880m/ 土石
6	仲坪古城	龍井市 德新鄉	1,600m/ 土石
7	溫特赫部城	琿春市 三家子鄉	2,270m/ 土
8	石頭河子古城	琿春市 板石鄉	830m/ 石
9	薩其城*	琿春市 楊泡鄉 泡子沿村의 남	7,000m/ 石
10	長城	和龍, 龍井, 延吉, 琿春市	175,000m/ 土, 石, 土石

〈표 2〉 田中俊明이 고구려 성곽으로 파악한 연변 일대 성곽의 현황⁵⁰⁾

순서	명칭	소재지	성곽의 규모와 축조형식
1	城山子山城	敦化市 紅山鄉 城山子村의 동쪽	2,000m/ 土石
2	五峰山城	安圖縣 長興鄉 五峰村의 북쪽	2,000m/ 土石
3	東四方臺山城	汪清縣 蛤蟆塘鄉 東陽村의 북쪽	5,000m 남짓/ 土·石
4	光興山城	汪清縣 蛤蟆塘鄉 廣興屯의 서북	2,288m/ 土

변인민출판사; 방학봉, 2003, 『발해의 주요 유적을 찾아서』, 연변대출판사

48) 鄭永振과 田中俊明의 고구려 성곽에 대한 〈표 1〉, 〈표 2〉는 이성제, 2009, 앞의 논문, 183~184쪽에서 인용하였음.

49) 鄭永振, 1999, 앞의 논문, 393쪽의 〈표 2〉를 재정리.

50) 田中俊明, 1995, 앞의 논문, 381~392쪽 및 382쪽의 표 〈吉林省の高句麗山城〉 참조.

5	城門山山城	安圖縣 石門鎮 舞鶴村1隊의 남	2,500m/ 石
6	五虎山山城	安圖縣 石門鎮 榆樹川村의 서북	5,000m/ 石
7	城子溝山城	龍井市 桃源鄉 太陽村 城子溝	2,500m/ 土石
8	興安古城 *	延吉市 興安鄉의 북	1,800m/ 石
9	滿臺城山城	圖們市 石峴鎮 永昌村 滿臺城屯	2,755m/ 土?
10	城子山山城 *	龍井市 長安鎮 磨盤村 山城里屯	4,454m/ 石
11	亭巖山城	琿春市 涼水鄉 亭巖村의 북	2,800m/ 石
12	通肯山山城	琿春市 春化鄉 蘭家蹠子村의 북	3,000m/ 石
13	城牆砬子山城	琿春市 春化鄉 草坪村의 동	10,000m/ 石
14	干溝子山城	琿春市 哈達門鄉 干溝子溝	2,500m/ 土·土石
15	薩其城 *	琿春市 楊泡鄉 泡子沿村의 남	7,000m/ 石
16	水流峰山城	琿春市 敬信鄉 水流峰	1,000m/ 石
17	仰臉山城	安圖縣 兩江鎮 小營子屯의 남	1,500m/ 土石
18	八家子山城	和龍縣 八家子鎮의 남	1,500m/ 土石
19	松月山城	和龍縣 富興鄉 松月村의 서남	2,480m/ 土
20	楊木頂子山城	和龍縣 龍水鄉 石國水庫의 동남	2,680m/ 土石·石
21	三層嶺山城	和龍縣 勇化鄉의 남	1,000m 남짓/ 石
22	船口山城	龍井市 光開鄉 船口村 五屯의 서북	동남성 1,960m/ 서북성 1,814m
23	金谷山城	龍井市 德新鄉 金谷村의 서	1,415m/ 土
24	養參峰山城	龍井市 智新鄉 城南村의 서남	1,952m/ 土
25	清水山城	龍井市 三合鎮 清水村 清水洞屯	2,053m/ 동북벽 二重
26	朝東山城	龍井市 富裕鄉 朝東村의 서쪽 汗王山	1,502m/ 石

*는 鄭永振과 田中俊明이 공통으로 고구려 성곽으로 파악한 성곽

위 <표 1>, <표 2>에서 보다시피 鄭永振과 다나가 도시아키가 고구려 시대에 축조된 성곽으로 판단한 결과에서 양자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영진은 주로 현지 조사를 통해 고구려계 출토 유물의 여부를 중심으로 고구려 시대의 축조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그 결과는 평지고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하여 다나가 도시아키는 길림성의 市縣文物志 자료에 의거하여 산

성을 주요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더욱 양자가 공통으로 고구려 성곽으로 파악한 대상은 城山子山城·興安古城·薩其城 등 겨우 3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연변 지역에 소재한 전체 성곽 중에서 고구려 시대에 축조된 성곽으로 비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⁵¹⁾ 왜냐하면 성곽의 축조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지 유적과 유물에 대한 고고조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까지는 이들 성곽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⁵²⁾

따라서 축조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연변 지역 성곽의 전반적인 양상으로 보아, 성곽유적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경영 양상을 추적하는 것은 실증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쉽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헌자료에서 자주 등장하는 柵城과 新城에 대한 위치 비정과 이와 연관된 교통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柵城과 新城의 위치 비정을 위해서 연변 지역의 성곽 유적 중 지역 거점성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요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산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중 고구려 유적임이 분명한 성곽 유적을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 보아 그 후보로 상정할 수 있는 대상은 연길의 城子山山城과 興安古城, 훈춘의 薩其城과 濛特赫府城 등 네 성으로 집약될 수 있다. 먼저 이 네 성의 현황을 살펴보자.

城子山山城은 연길시에서 동쪽으로 10km 떨어진 도문시 장안진 마반촌 성자산 위에 있는 산성으로, 부르하통하와 海蘭江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입지상으로도 성자산산성은 연길 지역에서 최적의 거점이자 요해처

51) 필자도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변 지역의 성곽 다수를 답사하였는데, 단기간의 답사만으로 고구려 시대의 초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고구려 시대의 초축 성곽의 여부는 기왕의 연구 성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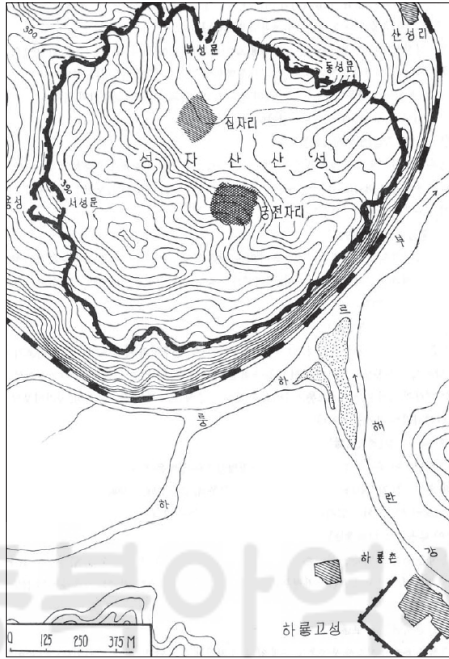
52) 본 공동연구 중 양시은이 「연변 지역의 고구려유적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출토된 유적을 중심으로 고구려 유적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연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전체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연변 지역에 남아 있는 고구려 유적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임을 알 수 있다. 성곽의 北西南 3면은 가파른 산등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성 안에는 넓은 평탄지가 펼쳐져 있다. 성벽은 돌로 쌓았고 그 위를 흙으로 덮었다. 산성의 평면은 불규칙한 타원형인데 성벽의 길이는 4,454m, 성벽의 기초는 5~7m, 잔존 성벽의 높이는 1~3m다. 성문은 모두 4곳이며 동·북·서 문에는 옹성을 축조하였다.⁵³⁾ 성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통해 고구려 시대에 축조하여 발해를 거쳐 遼와 金, 그리고 東夏國 시기까지 계속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동 지역의 고구려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축성 양상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성자산산성은 고구려 中期에 축조된 산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성자산산성의 축성 방식인 먼저 자연석을 쌓고 그 위에 흙을 채워 덮은 방식은 고구려의 新城으로 비정되고 있는 撫順의 高爾山城에서 보이는 축조 방식이다. 물론 이러한 축조 방식은 4세기 초로 추정되는 고이산성의 축조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곧바로 성자산산성의 축조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고구려의 초기 영역인 집안 지역과 환인 지역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고구려 전기에 축조된 산성의 대부분은 산 정상부에 축조되어 상시적인 군사 주둔지와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성격이 우선시되었다. 흑구산성·전수호산성·고검지산성·패왕조산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성자산산성은 성 안에 넓은 평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東北 방향의 두 문이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평지에서 용이하게 산성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성 안의 대지에는 階段狀整地의 흔적이 남아 있어 상시적인 거주공간이 성 내부에 마련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산성의 거주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산성 내에 관청 등이 소재하며 평상시에도 지역 지배의 중심지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산성의 구조적 특징은 고이산성 이후에 등장하는 고구려 중기 산성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53)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1986, 『龍井縣文物志』, 66~69쪽; 연변박물관 연변문화유물략편 집필소조, 1989, 『연변문화유물략편』, 81쪽



〈그림 1〉 성자산산성 평면도(정영진 1999, 앞의 논문)

있는 현상이다.⁵⁴⁾ 이런 점에서 성자산산성의 초축 시기를 4세기 초에 해당되는 고이산성 축조 이전으로 올려 보기는 어렵다.⁵⁵⁾ 그리고 성곽의 구조적 특성을 통해 성자산산성이 연길 일대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하는 고구려 산성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필자는 후술하듯이 서천왕대의 新城을 연길 지역으로 비정하는데, 이에 가장 부합하는 성자산산성이 이른 시기부터 이 지역의 거점성으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전제한다면, 그 초축 시기를 4세기 초 무렵까지 올려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 興安古城은 연길시 북쪽 흥안향의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평

54) 임기환, 1998, 앞의 논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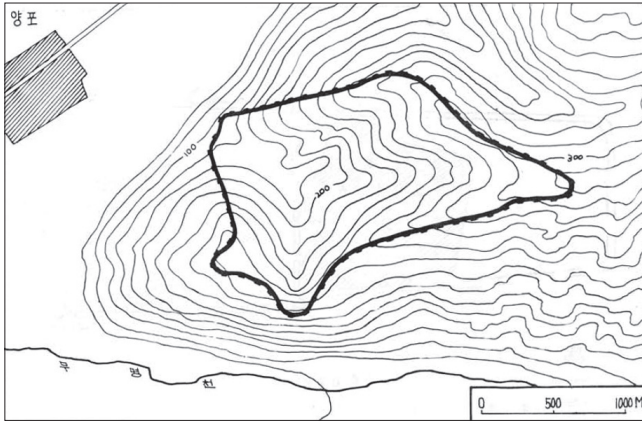
55) 이성제는 성자산산성의 축조시기를 4세기 초 이전으로 올려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성제, 2009, 앞의 논문, 177쪽

지성이다. 성의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 연집강에 면하고 있다. 현재는 유적이 대부분 파괴되어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1980년대 조사 당시에는 동쪽과 북쪽 성벽이 일부 잔존하고 있었는데, 성벽의 기저부는 석축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동쪽 성벽은 대략 500m 정도이고 북쪽 성벽은 374m로서 전체 성벽 둘레는 1,800m로 추정되었다. 동북에는 각루터가 남아 있으며 잔존 높이는 1.5m정도였다. 서쪽 성벽은 조사 당시에도 이미 흔적이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성안에서는 승문·격자문 등을 갖는 붉은색 기와와 회색 기와가 다수 출토되고 있으며, 성자산산성의 기와나 집안의 환도산성에서 출토되는 기와와 서로 통한다. 발해 시기의 유물은 희소하다. 연길의 성곽 유지 중에서 고구려계 출토 유물의 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흥안고성은 고구려 시대에 중요한 성곽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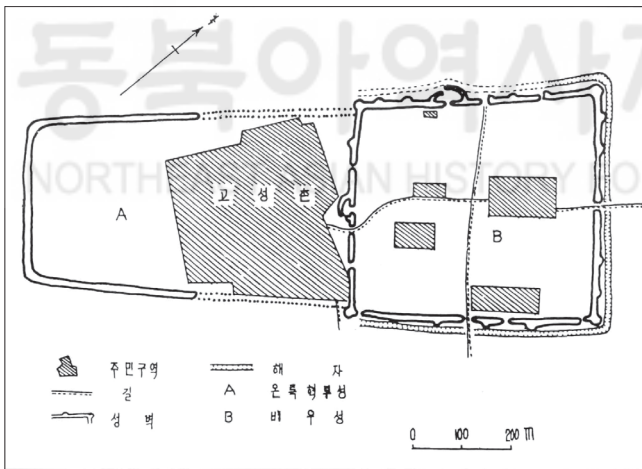
薩其城은 琿春市 楊泡鄉 楊木林子村의 동남쪽 1.5km에 위치하고 있다. 성벽의 둘레가 약 7km에 이르는 대형산성이다. 성벽은 석축으로 쌓았으며 성벽의 기초는 5~7m, 잔존 높이는 2~3m다. 성문은 동문, 서문, 남문 두 곳, 북문 등 모두 다섯 곳의 성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지와 접하고 있는 북문이 현재 楊泡鄉에서 이 산성으로 접근하는 주요 통로다. 그래서 북문의 안쪽에는 길이 100m, 높이 10m 정도의 석축 성벽을 쌓아 방어력을 강화시켰다. 북문 안쪽 300m 지점의 산등성이에 장대가 있는데, 이곳에 건물지가 있으며, 회색과 갈색의 승문기와가 흩어져 출토되고 있다. 산성 내에서는 발해국 시기의 유물도 출토되고 있다.⁵⁷⁾ 따라서 고구려 시기에 축조되어 발해 시기까지 연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성안을 보면 좁은 골짜기가 두 개 있으며, 성안의 대부분은 산비탈이기 때문에 성곽의 둘레에 비하여 성 내부는 그리 넓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온특허부성을 책성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살기성이 행정통치의 중심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56)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1986, 『延吉市文物志』, 53~55쪽; 연변박물관 연변문화유물략편 집필소조, 1989, 앞의 책, 82쪽

57)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1986, 『琿春縣文物志』, 42~43쪽; 연변박물관 연변문화유물략편 집필소조, 1989, 앞의 책, 76~78쪽



〈그림 2〉 살기성 평면도(정영진, 1999, 앞의 논문)



〈그림 3〉 온특허부성 평면도(정영진, 1999, 앞의 논문)

溫特赫府城은 팔련성에서 서남쪽으로 5km 떨어진 삼가자향 고성촌에 있는 평지 토성으로, 서북쪽으로 1km 떨어져 두만강이 흐른다. 온특허부성의 동쪽에는 요·금 시기에 축조된 斐優城이라는 또 다른 방향의 성곽이 연결하고 있다. 즉, 온특허부성의 동쪽 성벽이 비우성의 서쪽 성벽으로 인해 파괴되었다. 성벽의 둘레는 2,269m며, 동서 양벽의 잔존 길이는 각각 710m, 북쪽 성벽은

468m다. 온특혁부성과 비우성에서는 고구려 시기와 발해 시기의 기와편과 토기편이 출토되고 있다.⁵⁸⁾ 특히 온특혁부성에서는 1960년 전후에 지름이 15cm 정도의 수막새가 출토되었는데, 집안의 동대자유적의 출토품과 비슷하다.⁵⁹⁾ 온특혁부성은 고구려 때 축조되었고, 이 고구려의 옛 성터에 발해 시대에 새로 성곽을 축조한 것이 현재 남아 있는 온특혁부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면 위 네 성을 대상으로 과연 앞서 언급한 柵城과 新城에 비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자. 그중 책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왕의 논의를 잠시 살펴보자.⁶⁰⁾

고구려 책성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주요 단서의 하나는 『신당서』 발해전의 “獶 故地爲東京 曰龍原府 亦曰柵城府”란 기사다. 발해의 동경용원부는 현재 중국 길림성 훈춘의 八連城에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⁶¹⁾ 그렇다면 책성도 팔련성에 비정할 수 있는데, 현재 이곳에서는 발해 시대의 유물만 출토될 뿐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서 고구려 시대의 책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 『신당서』 발해전의 기사로 보아 책성의 위치를 훈춘 일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은 그리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지역에서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는 성곽 유적으로는 앞서 검토한 바 있는 팔련성 가까이에 위치한 薩其城과 溫特赫府城이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고구려 시대 책성의 후보지로는 산성인 살기성과 평지성인 온특혁부성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살기성으로 비정하는 견해와 온특혁부성으로 비정하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그

58)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1986, 『琿春縣文物志』, 41~42쪽; 연변박물관 연변문화유물략편 집필소조, 1989, 앞의 책, 78~79쪽

59) 방학봉, 1997, 「高句麗 柵城의 위치에 대한 고찰」, 『경기사학』 3, 2쪽

60) 기왕의 연구에서 책성의 후보지로 城子山山城·薩其城·溫特赫部城 등의 세 곳을 꼽고 있다. 이에 관한 논고는 다음과 같다. 朴眞奭, 1988, 「高句麗柵城遺址考」, 『朝鮮中世紀研究』, 延邊大學出版社; 嚴長錄·鄭永振, 1989, 「對主要高句麗古城의 考察」, 『延邊大學朝鮮學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朴眞奭, 1994, 「高句麗柵城遺址再考」, 『第七屆韓民族史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高麗學術文化財團; 李宗勛, 1998, 「高句麗 柵城遺址 一考」, 『선사와 고대』 10; 方學鳳, 1997, 위의 논문.

61) 방학봉, 1997, 위의 논문 참조.

러나 고구려의 도성이나 주요 거점 지역에서는 평지성과 산성이 조합을 이루는 양상을 보면, 양자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상황에서 살기성과 온특혁부성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면서 柵城을 구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다만 책성이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책성은 처음부터 성벽을 축조하였다기보다는 柵으로 이루어진 방어성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살기성의 지형으로 보아 이곳에 책을 설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평지에 책을 설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온특혁부성 일대가 초기에 柵을 시설한 책성일 가능성이 높고, 후일에 평지성보다 방어력이 뛰어난 살기성을 축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살기성은 내부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 거점성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지성과 산성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책성이라는 거점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柵城을 훈춘의 살기성과 온특혁부성으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책성과 구분되는 동북지역의 거점성인 新城은 연길시 일대의 성자산산성이나 홍안고성에 비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홍안고성은 고구려 시기의 유물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고구려 시기에 주요한 거점성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특히 현재 연길 시내에서 도문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정황으로 보아도 고구려 당시에 매우 중요한 거점적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평지성이기 때문에 방어상으로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 성자산산성은 그 성곽의 규모로 보나, 성 내부의 넓은 대지 등 산성의 현황으로 보아 거점성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구려 시대에도 주요한 거점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두 성 중에서 성자산산성이 거주성이나 방어력의 측면에서 동북대진인 新城으로 비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두 성을 고구려 都城이나 柵城, 그리고 요동 일대 성곽에서 나타나는 산성과 평지성의 결합 형태로 볼 수도 있지만, 워낙 거리가 떨어져 있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기는 어렵다.

오히려 성자산산성 인근에는 河龍古城이 위치하고 있는 점이 유의된다. 하룡고성은 부르하통하와 해란강이 만나는 강안 대지 위에 자리잡고 있으며, 성자산산성의 남동쪽 1.5km에 위치한다. 성벽의 둘레는 984m이고, 남벽의 중간에 웅성이 하나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현재 유적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축성방식은 토석혼축으로 성벽의 기초를 삼은 다음 흙을 이용하여 토축 성벽을 쌓았으며, 성벽의 끝부분은 돌로 마감하기도 하였다고 한다.⁶²⁾ 성 내부에서 고구려 시대의 기와편과 발해 시대의 연화문와당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성자산산성과 마찬가지로 고구려 시기에 축조되어 발해 이후까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城子山山城과 河龍古城을 평지성과 인근 산성이 결합된 사례로 보기도 한다.⁶³⁾ 그러나 성자산산성은 하룡고성과 보완 관계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⁶⁴⁾ 즉, 하룡고성은 산성에서 12km 떨어져 있는데, 유사시 산성으로 입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성자산산성의 기능과 관련하여 산성과 하룡고성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평지성과 산성의 거리 및 강 건너에 떨어져 있다는 입지가 양자의 유기적 연관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곽의 입지는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지성과 산성이 반드시 입지상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룡고성이 평지성으로서 고구려 시대에 축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자산산성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 시대의 新城 역시 柵城과 마찬가지로 평지성과 산성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연결의 성자산산성이 新城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더 살펴볼수록 하자. 두만강 유역 일대 지역이 크게 지금의 훈춘 지역과 연결 지역 등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은 발해 시대에 훈춘 지역에는 동경용원부가,

62)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1986, 앞의 책, 55~58쪽; 연변박물관 연변문화유물략 편 집필소조, 1989, 앞의 책, 81쪽

63)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1986, 위의 책, 57쪽; 방학봉, 2003, 앞의 책, 126쪽

64) 이성제, 2009, 앞의 논문, 177쪽

연길지역에는 중경현덕부가 설치되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유추될 수 있다. 더욱 두 지역에 모두 5경이 설치되고, 한때 도성이 자리잡았다는 점은 이 두 지역이 갖는 정치·경제적 의미가 매우 높았음을 짐작케 한다. 고구려 시대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柵城의 위치가 지금의 훈춘 지역으로 비정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東北大鎮인 新城은 연길 지역을 제외하고는 달리 비정할 곳이 없으며, 그렇다면 고구려 시대의 대형산성인 성자산산성을 新城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柵城과 新城으로의 교통로

연길 지역의 성자산산성을 新城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정황 근거로서 이 지역과 국내성을 있는 교통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훈춘 일대의 책성과 연길 일대의 신성이 고구려가 이 지역 경영과 관련하여 구축한 가장 주요한 거점이라고 할 때, 좀 더 고찰할 문제는 고구려의 수도 國內城에서 柵城 및 新城에 이르는 교통로이다. 다시 말해서 책성과 신성의 설치는 동북지역에 대한 지배력의 관철 혹은 외부세력의 방어를 위한 거점성의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성에서 신성 및 책성에 이르는 교통로상에 위치한 여타 영역에 대한 지배력의 확보라는 의미도 동시에 갖는다. 이 점에서 책성과 신성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국내성에서 책성이나 신성이 위치한 두만강 중류와 하류 방면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갈래를 상정할 수 있다. 그 하나가 白頭山의 북쪽을 통과하는 길로 渾江 유역에서 靖宇·撫松을 거쳐, 松花江의 상류 二道河를 따라 동북으로 가서 安圖를 거쳐 연길에 이르는 교통로다. 다른 하나는 백두산을 남쪽으로 지나쳐 가는 길로 낭림산맥을 넘어 咸興으로 가서,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훈춘에 이르는 교통로다.⁶⁵⁾

한편 국내성에서 북옥저와 동옥저로 나아가는 교통로가 별도로 개설되어

65) 田中俊明, 1995, 앞의 논문, 388~389쪽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고구려가 동옥저를 정복하기 이전에 이미 두만강 유역의 북옥저를 정복하였기 때문에, 함경도 산간지대의 교통로를 통하여 두만강 하류지역으로 통하는 교통로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의 교통로로 보아 국내성에서 압록강을 거슬러 혜산진에 이른 다음 마천령산맥을 넘어 길주로 나아가 두만강 하류의 북옥저에 도달하는 교통로가 예상된다. 이와 달리 고구려에서 동옥저로 나아가는 교통로는 독로강을 거슬러 낭림산맥을 넘어 동옥저로 나아가는 교통로를 상정할 수 있다.⁶⁶⁾

그중 북옥저, 즉 두만강 하류 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는 함흥을 거치느냐 아니면 길주로 넘어가느냐의 두 경로를 상정할 수 있지만, 두 경로 모두 일단 동해안의 교통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성에서 훈춘이나 연길로 이어지는 교통로는 크게 내륙 교통로와 동해안 교통로로 나누어진다. 그동안에는 주로 동해안로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최근에 내륙 교통로를 주목한 견해가 제기되었다.⁶⁷⁾ 이 견해는 발해 시기 이른바 ‘鴨綠-朝貢路’의 존재에 주목하고 있다. 발해의 ‘압록-조공로’는 中京을 기점으로 和龍市 西城鎮 서북쪽의 獐項古城을 지난 뒤 古洞河 물줄기를 따라 서북쪽으로 나아가 新合鄉에 이르고 여기에서 萬寶古城(안도시 만보진 소재)과 永慶과 松江鎮을 지나 寶馬城(안도시 二道白河鎮 소재)에 이르고, 여기에서 다시 露水河(무송현 소재)·泉陽(무송현 泉陽鎮)·撫松縣 소재지를 지나 神州(臨江市 소재)에 도착, 압록강을 따라 내려가 황해도 나아가는 경로로 파악하였다.⁶⁸⁾

66) 여호규, 1995, 앞의 논문, 27쪽. 특히 고구려본기 태조왕조에 보이는 東海와 南海라는 표현이 동시에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북옥저 방면의 교통로를 東海路, 동옥저[남옥저] 방면의 교통로를 南海路로 명명하고 있다. 집안에서 연변 지역에 이르는 교통로에 대한 연구사의 정리는 이성제, 2009, 앞의 논문, 168쪽 주)26 참조.

67) 이성제, 2009, 앞의 논문, 168~173쪽

68) 방학봉, 1991, 「발해 시기 연변의 네 갈래 교통로에 대하여」, 『발해문화연구』, 이론과 실천, 222~223쪽. 賈耽의 『道里記』에서 인용된 관련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新唐書』地理志 7, “登州東北海行 過大謝島·龜歆島·末島·鳥湖島三百里 北渡鳥湖海 至馬石山東之都里鎮二百里 東傍海孺 過黃泥浦 …… 自鴨綠江口

‘압록-조공로’는 발해가 당과의 교류에서 널리 활용하던 교통로였지만, 발해 시기에 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경로는 아니며, 고구려 이래의 압록강 水路 교통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⁶⁹⁾ 또한 발해 시기에 中京뿐 아니라 東京을 기점으로 하더라도 항상 안도를 거쳐 무송 방면으로 나갔다는 사실은 그 이전 시기에도 이 길이 주요한 교통로였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고구려 시기에 이미 국내성을 기점으로 책성에 이르는 교통로가 구축되어 있었고, 그것을 근간으로 하여 발해는 ‘압록-조공로’를 운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 내륙 교통로를 주목한 견해는 단지 중경현덕부가 있는 연길 지역만이 아니라, 기점이 동경용원부가 있던 훈춘으로 바뀌더라도 동경에서 중경까지의 구간이 추가될 뿐, 중경 이후의 경로는 종래의 ‘압록-조공로’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고구려 시기와 발해 시기에 압록강 유역에서 두만강 유역 일대에 이르는 교통로를 이용하는 역사적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발해 시대에는 함흥 지역 일대가 신라와의 접경지역으로 동해안 교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된 내륙교통로를 이용하여 압록강의 서경압록부에 이르렀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발해시대의 상황을 근거로, 고구려 시기에도 국내성에서 훈춘 지역에 이르는 교통로를 내륙교통로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고구려 동천왕이 관구검군에 패전한 뒤에 동옥저를 거쳐 북옥저로 피난한 사례에서 잘 나타나듯이, 동해안 교통로 역시 주되게 이용한 경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사료 (마)-⑦에서 보듯이 293년에 전연의 침공군을 피하여 新城 방면으로 피신한 봉상왕이 택한 경로는 지금의 연길 지역으로 이어지는 내륙

舟行百餘里 乃小舫泝流東北三十里至泊沟口 得渤海之境 又泝流五百里 至丸都縣城 故高句麗王都 又東北泝流二百里 至神州 又陸行四百里 至顯州 天寶中王所都.”

69) 賈耽의 『道里記』 내용 가운데, 황해에서 압록강 하류를 거슬러 올라가 국내성에 이르고 여기에서 다시 압록강 상류로 나아간다는 경로가 고구려가 운용하던 압록강 수로 교통로였음은 강의 대안에 남아 있는 고구려 시대에 축조된 관애와 산성 그리고 평지성의 존재들로 알 수 있다. 이성제, 2009, 앞의 논문, 169쪽 주) 30 참조.

교통로로 추정된다. 이런 면에서도 동해안로와 다른 내륙교통로로 이어지는 東北大鎮 신성은 연길 지역에서 그 위치를 비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두만강 중하류 지역으로 통하는 내륙교통로와 동해안 교통로라는 두 경로를 모두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내륙교통로는 국내성에서 연길 지역에 위치한 新城으로 통하는 가장 짧은 경로이고, 동해안 교통로는 훈춘에 위치한 柵城으로 이어지는 가장 용이한 교통로로 파악된다. 이에 필자는 내륙교통로를 ‘新城路’, 동해안 교통로를 ‘柵城路’로 명명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와 같이 나누어 파악하려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역의 최외곽에 위치한 거점성의 구축은 단지 그 거점 지역의 장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점 지역에 이르는 교통로 상에 위치한 영역에 대한 지배와도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⁷⁰⁾

3_ 4세기 이후 고구려의 연변 일대 경영의 양상

이 장에서는 연변 일대의 고구려 성곽 및 책성과 신성의 지리 비정을 근거로, 이 지역에 대한 고구려 영역 지배의 양상이 3세기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구려가 연변 일대를 지배한 상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료는 광개토태왕 비문이다. 3부의 守墓人烟戶조에는 수묘인의 차출 지역이 명기되어 있는데, 구민 수묘인 차출 지역에는 본 연구의 대상인 연변 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그중 유력한 후보로는 “賣句余民, 東海賈, 敦城民, 于城, 碑利城”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 지명의 위치를 비정해 보자.⁷¹⁾

먼저 東海賈의 東海는 어디로 비정할 수 있을까? 東海를 범칭으로 본다면

70) 여호규, 1995, 앞의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고구려의 지방 지배를 교통로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71) 아래의 위치 비정은 임기환, 1987, 앞의 논문, 58~61쪽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였다.

함경북도 해안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舊民 지명의 예로 보아 이곳만 범칭이 쓰였다고는 볼 수 없다. 역시 특정 지명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한데, 이와 관련하여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고구려본기 초기 기록(사료 다)에 자주 등장하는 東海谷·東海가 주목된다. 물론 수묘인연호조의 東海(賈)와 東海谷이 동일 지역이라는 근거는 불분명하지만, 앞에서 동옥저와 북옥저 사이 특히 청진 일대에 비정한 東海谷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⁷²⁾

다음 敦城의 위치를 살펴보자. 敦城에 관한 기록은 광개토왕비 외에도 『삼국사기』 권37 志6 地理4에 “新城州 本仇次忽 或云敦城”이라는 기사가 보이고 있다. 그런데 광개토왕비의 舊民 수묘인연호 지명에 新城과 敦城이 나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위 『삼국사기』 지리지 기사는 撰者의 오류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기사는 좀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앞에서 고구려의 新城은 서북의 新城과 東北大鎮인 新城 등 두 개의 新城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 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하다. 東北大鎮인 신성은 서북쪽에 새로 신성이 건설되자 그 이름을 敦城으로 바뀌어 불리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敦城은 동북 新城의 다른 이름인데, 新城을 서북 신성으로만 이해한 후대의 찬자가 서북 新城과 敦城을 동일시한 잘못을 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정이 옳다면 敦城은 곧 동북대진인 新城으로 볼 수 있다. 敦城=新城 위치를 앞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필자는 지금의 연길 성자산산성에 비정하였다.⁷³⁾

72) 여호규, 2008, 앞의 논문, 157쪽

73) 여호규는 東海路라는 교통로를 통하여 賣句余民, 東海賈, 敦城의 위치를 파악하여 賣句余는 북옥저, 東海賈는 청진 일대, 敦城은 길주 일대로 비정하였다(여호규, 2008, 위의 논문, 156쪽). 그러나 필자로서는 이들 세 곳의 위치를 하나의 교통로로 파악하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앞 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연변 지역은 고구려가 일찍 진출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구민 수묘인연호의 차출 지역 중 비정이 가능한 지역이 모두 주요 영역의 거점성임을 고려하면, 賣句余民, 東海賈, 敦城도 역시 그에 상응하는 거점일 것이다. 따라서 연변 지역도 구민 수묘인연호 차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碑利城은 신라 진흥왕 순수비의 하나인 昌寧碑에 보이는 '碑利城軍主喙福登智沙尺干'의 碑利城과 같은 지역으로 생각된다. 碑利城은 『삼국사기』 권35 志4 地理2의 比列忽로서 지금의 함경남도 安邊 일대로 비정된다.⁷⁴⁾

이상의 세 곳은 어느 정도 위치 비정이 가능한 곳이다. 그러면 이를 근거로 나머지 賣句余와 于城의 위치를 추적해 보자. 먼저 賣句余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13년조의 買溝谷과 동일한 곳으로 추정하기도 하고⁷⁵⁾ 또는 북옥저의 또 다른 이름인 置溝淩⁷⁶⁾나 買溝⁷⁷⁾와도 연관시켜 볼 수 있다. 혹은 광개토왕비 永樂 20년조의 味仇婁鴨盧의 味仇婁와 같은 지명으로 보기도 한다.⁷⁸⁾ 그런데 賣句余는 舊民으로서 광개토왕 이전에 고구려의 영역 내로 편입된 존재이기 때문에, 광개토왕대 복속된 味仇婁鴨盧와 연결시킬 수는 없다. 다만 그 구체적인 지역은 알기 어렵지만 연속되어 있는 다른 지명을 고려하면, 대개 그 추정의 범위가 두만강 유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짐작된다.

다음 于城의 위치를 짐작해 보자. 광개토왕비 구민 수묘인들이 차출된 城들이 모두 각 지역의 중심지인 저명한 성임을 생각할 때, 이 于城은 碑利城과 나란히 기술된 점을 고려하면 東沃沮의 중심지인 咸興 지방에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⁷⁹⁾

이상의 검토에서 보면 수묘인연호 차출 지역 중 賣句余民, 東海賈, 敦城民은 과거 북옥저 지역에, 于城은 과거 동옥저 지역에 대응되는 지배 단위다. 그런데 구민 수묘인연호 차출 지역에서 태조왕 이래 동북 거점의 하나인 책성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과거에

74) 『三國史記』 권35 志4 地理2, “朔庭郡 本高句麗比列忽郡 眞興王十七年 梁太平元年 爲比列州軍主.”

75) 박시형, 1966, 『광개토왕릉비』, 217쪽

76) 『三國志』 권30, 魏書30, 東沃沮, “冊丘儉討句麗 句麗王宮奔沃沮 (중략) 宮奔北沃沮 北沃沮一名置溝淩.”

77) 『三國志』 권28, 魏書28, 冊丘儉, “宮遂奔買溝.”

78) 노태돈, 1992, 「광개토왕릉비」,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29쪽, 주 52)

79) 임기환, 1987, 앞의 논문, 63쪽

돈성=신성과 책성을 동일한 지역으로 비정한 바 있으나,⁸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新城과 柵城은 고구려의 동북 경영의 서로 다른 거점성 기능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1세기 중엽에 고구려가 책성까지 진출하였다는 기록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⁸¹⁾ 이 견해는 광개토왕비문에 동부여의 王都인 '餘城'을 柵城과 같은 곳으로 보고, 태조왕 때의 책성 순행 기록 등을 책성을 영역으로 인식한 시기 이후에 추가 기록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고구려가 책성 일대를 자국령이라 의식하는 시점이 435년에 고구려에 파견된 北魏 使臣인 李敖의 견문에 의거하여 편찬한 『위서』 고구려전에서 고구려의 동쪽 경계를 책성으로 표현한 점을 고려하여, 435년에 가까운 장수왕대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책성을 동부여로 보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힘들고, 동천왕대에 이미 북옥저 지역이 고구려의 영역권 내로 복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고려하면, 책성이 광개토왕의 동부여 정벌을 통하여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舊民 수묘인연호 차출 지역에서 책성이 빠졌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광개토왕대에 책성이 고구려의 영역이 아니라는 해석은 그리 합리적이지 않다. 다만 책성에서 수묘인이 차출되지 않았던 사정은 현재의 자료로서는 전혀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광개토왕대에 책성 지역에 대한 지배가 다른 구민 차출 지역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광개토왕비 수묘인연호조에 보이는 양상과 관련하여, 광개토왕대의 舊民 지배방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牟頭婁墓誌의 다음 기사다.

世遭官恩恩貝祖□□道城民谷民.⁸²⁾

80) 임기환, 1987, 위의 논문, 25쪽

81) 田中俊明, 1996, 「高句麗의 北方進出과 『廣開土王碑文』」, 『고구려연구』 2, 高句麗研究會, 104~105쪽 참조.

82) 본 釋文은 盧泰敦, 1992, 「牟頭婁墓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에 따름.

위 기사는 광개토왕대의 ‘北道’ 즉 舊民에 대한 지배방식을 전하고 있다.⁸³⁾ 여기의 ‘道’는 부여의 ‘四出道’의 道, 또는 고구려 후기 지방관명의 하나인 ‘道使’의 道와 같은 의미로, 교통로 또는 그 교통로상에 위치하는 지역을 뜻한다.⁸⁴⁾ 그러나 이 道가 城이나 谷의 상위에 위치하며 중앙권력과 지방의 단위지역을 매개하는 통치단위로서 기능하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물론 현재 자료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北)道の 民이 城民과 谷民으로 대별되고 있음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이것은 城과 谷이 당시의 기본적인 통치단위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광개토왕대에 (北)道 지역을 포함한 舊民의 통치단위가 城과 谷으로 나누어져 있음은 광개토왕비문의 구민 수요인연호 기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수요인이 차출된 舊民 지역은 모두 14곳인데, 그중 城 7곳, 谷 2곳을 찾아볼 수 있어 당시 城·谷을 단위로 한 지방통치 체제가 보편적으로 전개되고, 그중에서도 城 지배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⁸⁵⁾ 이상의 두 자료를 통해서 광개토왕대에는 舊民 지배에서 城·谷이 중심이 된 지방통치가 실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⁸⁶⁾ 다만 守墓人烟戶라는 특정 대상을 차출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적인 영역 지배의 상황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1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3세기까지 고구려는 동옥저와 북옥저 지역을 간접지배 방식인 속민-공납 지배체제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늦어도 4세기 말 광개토왕 단계에는 舊民 전체 지역에 城·谷 지배체제가 관철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과거 북옥저 지역, 즉 두만강 유역 일대도 동일하였다고 생각된

83) 武田幸男, 1981,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 『朝鮮學報』 99·100의 釋文에서는 ‘北道’로 판독하고 있다. 『通溝』에 실려 있는 墨書銘 사진으로 판독하면 ‘北’字는 잘 판독되지 않으나, 北으로 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北道가 아닐지라도 牟頭婁家の 활동무대가 北夫餘 지역이라는 점에서 舊民 지역임은 틀림없다.

84) 武田幸男, 1981, 위의 논문, 160쪽

85) 물론 東海賈·賣句余民·連 등의 특수한 지배형태가 찾아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城·谷 지배체제가 실현되어 갔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86) 임기환, 1987, 앞의 논문, 58쪽

다.⁸⁷⁾ 다만 북옥저 지역은 다른 면모도 드러나고 있다. 賣句余民과 敦城民, 그리고 東海賈의 지배 형태가 그것이다. 이 중 東海賈를 東海지역의 商賈집단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⁸⁸⁾ 이곳만 특정 직역을 표시하는 집단명으로 보는 점은 수긍할 수 없다.⁸⁹⁾ 다음 賣句余民과 敦城民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두 경우와 같이 '民'이라는 단서가 부가된 수묘인 차출 지역으로는 平穰城民이 있다.

즉, 賣句余·敦城·平穰城 등 세 지역에는 '民'이 아닌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이유론지 수묘역의 징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들을 제외시키기 위해 '民'이란 단서를 덧붙인 점에서, 그들 역시 수묘역을 제외한 다른 수취의 경우에는 일정한 국가적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아님을 유추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일반적인 수취체제에서 처음부터 벗어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굳이 '民'이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 이들을 제외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묘인의 차출 대상으로 '民'이란 단서 조항이 붙은 것은, 그들도 일정하게는 그러한 지배체제 내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民'과는 구별되는 존재임을 시사해 준다. 수묘인연호의 징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民(舊民)'이 아닌 존재, 그러면서도 지배체제 내에서 일종의 民이기도 한 존재에 대해 필자는 복속민은 아니지만 역시 民으로 편제된 주민 집단의 존재를 상정한 바 있다.⁹⁰⁾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종족적으로 복속민인 구민과는 다른 주민집단이 매구여나 둔성 일대에 존재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

이와 같이 두만강 일대 지역은 城·谷 지배체제가 단일하게 적용되는 지역

87) 廣開土王이 6城을 쌓아 평양의 백성을 옮겼다는 國東을 두만강 유역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武田幸男, 1989, 『『三國史記』廣開土王本紀の國際關係』,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4쪽 表 7 및 196~197쪽 참조. 이러한 견해가 타당하다면 광개토왕대에 두만강 일대에 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 중심 지배체제가 확대되는 과정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88) 武田幸男, 1979, 앞의 논문, 126~130쪽

89) 金賢淑, 1989, 「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 守墓人의 社會的 性格」, 『韓國史研究』 65, 28쪽

90) 임기환, 1996,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민의 성격」, 『고구려연구』 2, 775~779쪽

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지역은 과거 북옥저 지역이고, 주변에 숙신이나 동옥저 등의 다양한 주민집단의 존재로 인해 이 지역 고구려 영역 내의 주민 구성도 상당히 복잡하였을 것이며, 이에 따라 지배방식도 다양한 면모를 드러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추정이 불가능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고구려가 늦어도 4세기 말에는 연변 지역을 경영하면서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城·谷 지배체제를 관철하였다고 볼 때, 본고의 초점인 柵城과 新城은 지방통치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와 관련하여 신성과 관련된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사)-① 烽上王 2년(293) 8月 慕容廆來侵 王欲往新城避賊 行至鵠林 慕容廆知王出 引兵追之 將及 王懼時 新城宰北部小兄高奴子 領五百騎迎王 逢賊奮擊之 廆軍敗退 王喜 加高奴子爵爲大兄 兼賜鵠林爲食邑.

(사)-② 烽上王 5년(296) 秋8月 慕容廆來侵 至故國原 見西川王墓 使人發之 役者有暴死者 亦聞壙內有樂聲 恐有神乃引退 王謂羣臣曰 “慕容氏 兵馬精強 屢犯我疆場 爲之奈何” 國相倉助利對曰 “北部大兄高奴子 賢且勇 大王若欲禦寇安民 非高奴子 無可用者” 王以高奴子爲新城太守 善政有威聲 慕容廆不復來寇.

(사)-①에서 모용씨의 침공으로 봉상왕이 신성으로 피신하였을 때, 당시 新城宰인 北部小兄인 高奴子が 출영하여 모용씨의 군대를 격퇴하고 봉상왕을 구원하였다. 이때의 신성은 동북대진인 신성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신성에 파견된 지방관은 ‘宰’급으로서 小兄이 역임하는 관직이었다. 그런데 (사)-②를 보면, 모용씨가 침공하였다가 퇴각하자, 모용씨를 방어하기 위해 창조리가 大兄인 高奴子를 천거하여 그를 신성의 태수로 삼았다. 高奴子が 太守로 부임한 (사)-②의 신성은 요동 모용씨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한 방책임을 고려하면 서북의 신성, 즉 지금의 무순에 위치한 신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서북의 신성은 고국원왕 5년에 축성한 기사가 있는데,⁹¹⁾ 아마도 이때의 축성은

지금의 무순 고이산성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高奴子가 부임한 신성은 현도군의 치소였던 무순의 노동공원토성으로 짐작된다. 어쨌든 서북의 신성에 파견된 지방관은 ‘太守’급이었으며, 그 관등도 大兄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봉상왕 대에는 고구려의 지방관이 최소한 太守(大兄)-宰(小兄)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후대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책성의 경우에는 동북대지인 신성보다는 상위의, 즉 서북 신성과 같은 위상을 갖는 太守급이 파견된 성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고구려의 지방통치조직은 일정한 변화를 겪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守事라는 지방관의 등장이다.

- (아)-① 敎遣令北夫餘守事 (牟頭婁墓誌墨書銘)
- (아)-② 古牟婁城守事 下部大兄耶口 (中原高句麗碑)
- (아)-③ 此人爲中裏都督 (德興里古墳 墨書銘)
- (아)-④ 祖量 本蕃任三品柵城都督位頭大兄兼大相 (高慈墓誌)

위 사료 (아)에서 보듯이 5세기의 금석문에는 ‘令北夫餘守事’ 모두루와 ‘古牟婁城守事’의 사례가 전하고 있다. 이 두 예에서 볼 때 守事は 휘하에 여러 城을 거느리고 있는 상급 지방관일 가능성이 높다.⁹²⁾ 그리고 守事が 역임하는 관등은 大使者 혹은 大兄이므로, 관등의 위상으로는 앞서 살펴본 新城太守 大兄 고노자와 동급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5세기의 守事は 휘하에 소형급이 파견되는 여러 지방관을 통솔하는 太守급의 지방관이라고 볼 수 있겠다.⁹³⁾ 즉, 守事は 4세기 단계의 太守의 명칭이 바뀐 지방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이 5세기의 守事が 갖는 위상을 고려할 때, 광개토왕대를 전후한 5세기에 연변 지역에서 가장 중요 거점성인 柵城에는 의당 守事が 파견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新城에 파견된 지방관의 위상을 알기 어려운데, 책성 휘

91) 『三國史記』 권18 고구려본기6 고국원왕 5년, “春正月 築國北新城.”

92) 여호규, 1997, 『1~4세기 고구려 정치체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0쪽

93) 여호규는 5세기 고구려 지방통치조직을 守事-城단위 지방관의 2단계 통치조직으로 보고 있다. 여호규, 1997, 위의 박사학위논문, 183쪽

하의 지방관이 파견되었거나, 혹은 신성 역시 독자적인 영역 지배의 거점적 기능이 강화되어 守事가 파견된 성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개토왕비문에서 전하는 5세기 초 상황 이후 연변 지역 경영에 관한 자료는 거의 전하지 않는다. 다만 금석문 자료에 책성 관련 기록이 2건 정도 전하고 있다. 바로 ‘高慈墓誌’와 ‘李他仁墓誌’다. ‘高慈墓誌’에는 高慈의 祖 高量이 ‘三品位頭大兄柵城都督兼大相’을 역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高量이 활동하는 시기인 6세기 말~7세기 초에는 책성이 都督이 파견되는 최고위 지방행정단위였다. 都督은 중국식 지방관명인데, 『翰苑』에 인용된 「高麗記」 기사에서 고구려의 褥薩을 都督에 비견하고 있음을 볼 때, 일단 柵城都督은 褥薩급의 지방관으로 볼 수 있겠다. 6~7세기에 고구려의 지방행정조직은 지방관으로 볼 때 褥薩-處閭近支[道使]-可羅達/婁肖의 3단계로 편제되어 있었다.⁹⁴⁾ 즉, 褥薩은 최고의 지방관으로, 육살이 파견된 책성은 고구려 동북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거점성인 위상이 고구려 최말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李他仁墓誌’에서 그 출신을 ‘遼東柵州人’이라고 기록한 점도 주목된다. 柵州는 곧 柵城州라는 뜻으로, 唐에서는 고구려의 책성을 州급의 지방행정단위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지리지4에 수록된 ‘목록’에 등장하는 고구려의 城 중에도 州로 파악된 北扶餘城州, 新城州, 遼東城州, 屋城州, 多伐岳州, 國內州 등의 城이 보인다. 이들 성은 모두 요동 지역 최고의 거점 성들로서, 唐이 이를 자신의 지방행정체제에 따라 모두 州로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柵城州 역시 요동 지역의 이들 州급으로 파악된 거점성들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 동북지역 최고의 거점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훈춘 일대의 柵城이 육살급이 파견된 최상위의 지방행정단위였다고 한다면, 연길 일대의 거점성인 新城은 어떠하였을까? 앞서 ‘目錄’에 보이는 요동

94) 임기환, 1995, 『高句麗 集權體制 成立過程의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4쪽

지역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육살급 단위는 아니고 그 아래의 處閭近支급이 파견된 지방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신성이 관장하였으리라 짐작되는 白山靺鞨에 대한 통제력 등 신성이 담당해야 할 영역 지배의 비중과 중요성이 높았다고 한다면, 책성과 더불어 褥薩급이 파견된 지방단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외에 고구려는 지금의 길림성 안도·화룡·돈화 등 지역에도 최소한 處閭近支급의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에서 고구려 성곽 유적으로 확실하게 판명되는 성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치소는 알기 어렵지만, 현재 남아 있는 성곽의 규모와 입지 등을 고려하면, 돈화의 城山子山城, 용정의 城子溝山城, 훈춘의 城牆砬子山城, 화룡의 松月山城 등 성곽들도 處閭近支급의 지방관이 파견된 지방 성의 후보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검토할 점은 李他仁이 스스로 그 출신을 ‘遼東 柵州人’이라고 한 점이다. 李他仁은 649년 안시성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당에 투항한 이후 평양성 함락 전투 및 뒤이은 부여 방면의 전투에 참여하였고, 그 공을 인정받아 柵州都督이 되어 고구려의 12州와 말갈 37부의 통어를 담당하며 3품에 이르는 관직을 받았다.⁹⁵⁾

그런데 李他仁 묘지에 “祖福鄒 本朝 大兄, 父孟眞 本朝大相”이라고 기록한 점으로 보아 고구려의 귀족 관리 출신임은 분명하다. 李他仁의 祖父가 大兄을 지내고 父가 大相, 즉 大使者를 지낸 상황을 보면, 5세기의 牽頭婁 가문에 해당하는 고구려 중급 귀족가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李他仁의 종족이 柵城 일대의 토착 고구려인인지 아니면 고구려에 예속된 粟末靺鞨人인지는 논란이 있다. 다만 속말말갈인 중에서 당에 투항한 이후 李氏 성을 하사받은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속말말갈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⁹⁶⁾

95) 李他仁의 묘지에 대한 분석은 윤용구, 2003, 「중국출토 한국고대 유민자료의 몇가지」, 『한국고대사연구』 32, 309~310쪽 참조.

96) 윤용구, 2003, 위의 논문, 309쪽

이러한 예와 관련해서는 발해의 건국 시조인 大祚榮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대조영 역시 그 출신을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대조영의 출신을 고구려인으로 보는 견해와 粟末靺鞨人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는데, 어쨌든 고구려인이라고 하더라도 대조영의 선조가 고구려의 중앙 출신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에 대조영의 출신을 속말수 유역에 거주하던 고구려의 변정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⁹⁷⁾ 이와는 달리 대조영의 조상을 6세기 말 전후에 고구려에 귀부한 속말말갈인으로 보기도 한다.⁹⁸⁾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아 대조영의 출신이 속말말갈인인지, 아니면 예맥계 고구려인인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李他仁의 경우 柵州人이라는 점과 그의 祖父와 父가 고구려의 관위를 획득한 점을 보면, 그의 가문은 대대로 책성에 거주하면서 고구려 관직을 역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李他仁과 그의 가문이 책성 지역의 토착 고구려인이든 아니면 귀화한 속말말갈인이든, 柵城이라는 지방 출신 가문이 大兄과 大相(大使者)라는 중급 이상의 중앙관위를 수여받고 책성을 기반으로 정치적 위상을 구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책성 지역이 갖는 고구려 국가 내에서의 영역적 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책성이 단지 고구려 중앙 권력의 지방 지배 거점으로서만 기능한 것이 아니라, 책성 일대의 지방세력을 결집시키고, 독자적인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책성의 지방세력에는 토착 고구려인 세력만이 아니라 주변의 속말말갈인이나 백산말갈인 중에서 고구려에 귀의한 세력들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광개토왕대에 복속된 동부여가 돈화 지역이라는 추정이 옳다면, 동부여 출신 주민들 역시 책성의 지배집단을 구성하는 세력이었을 것이다.

97) 노태돈, 1985, 「발해국의 주민구성과 발해인의 족원」, 『한국 고대의 국가와 사회』, 282쪽

98) 송기호, 1995, 『발해정치사연구』, 일조각, 23~45쪽

II. 맺음말

본 연구는 4세기 이후 중국 吉林省 延邊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영역 경영 양상을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도록 하겠다.

연변 지역은 고구려의 동북방에 해당하는 곳으로 3세기까지는 北沃沮의 중심지역이기도 하였다. 고구려는 초기부터 활발하게 이 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여 태조왕 이후에는 柵城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 지배의 거점을 구축하였고, 서천왕대를 전후해서는 新城을 축조하여 또 다른 거점을 마련하였다. 특히 서천왕대에 신성을 구축하게 되는 대외적인 배경은 북방의 肅愼에 대한 방어 및 통제력의 확보와 관련시켜 볼 수 있다.

연변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완전한 영역 지배는 광개토왕대에 이루어졌다. 이 지역을 거점으로 북방에 있는 숙신을 통제할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 부여의 일파가 세운 東夫餘를 정벌하여 동북지역의 영역을 확정하였다. 필자는 이 동부여의 위치를 현재의 길림성 돈화 지역으로 비정하였다.

연변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영역 지배의 양상을 추정할 수 있는 고고자료로는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고구려 성곽을 주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발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고구려 시대에 축조된 성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 연변 지역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 지배의 양상을 추적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문헌상에 보이는 책성과 신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두 성의 역사지리 비정을 시도한 결과 책성은 지금의 훈춘지역의 산성인 살기성과 평지성인 온특혁부성을 하나의 거점으로 묶어 이곳에 비정하였고, 신성은 연길의 산성인 성자산산성과 평지성인 하룽고성을 하나의 세트 구성하여 비정하였다.

그리고 고구려가 책성과 신성을 축조하여 영역 외곽의 거점성으로 삼은 데에는 단지 영역 외곽의 방어와 지배의 기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 國

內城에서 영역 외곽의 책성과 신성에 이르는 교통로를 통하여 동북지역 전체에 대한 영역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책성과 신성에 이르는 교통로를 검토한 결과, 국내성에서 옥저를 통하여 북옥저에 이르는 동해안로가 책성까지의 주된 교통로[책성로]이고, 국내성에서 통화-백산-무송-안도로 이어지는 내륙교통로[신성로]가 신성까지의 주된 교통로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영역으로 편제한 연변 지역을 고구려는 영역 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4~5세기 단계에는 城·谷 지배체제를 통해 지배하였다고 추정된다. 이는 그 이전 북옥저 지역에 대한 속민, 공납에 의한 간접적 지배를 극복한 결과였다. 이러한 양상은 ‘광개토왕비’의 구민 수묘인연호조에 보이는 賣句余民, 東海賈, 敦城民이란 세 곳의 통치 단위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역과는 달리 ‘民’이란 부가 내용이나 東海賈란 존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지배방식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이 지역이 본래 북옥저 지역이었고, 또 주변에 있는 肅慎이나 東夫餘 지역의 주민집단들이 혼재되었던 결과가 아닐까 짐작된다.

고구려 말기 단계에 이 지역의 지배 양상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는 ‘高慈墓誌’와 ‘李他仁墓誌’다. ‘柵城都督’의 존재를 통해, 책성이 褥薩이라는 고구려 최고위 지방관이 파견되는 동북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거점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新城은 육살급 아래인 處間近支급의 지방관이 파견된 지방성으로 짐작된다. 이 외에도 연변 지역에는 다수의 처려근지가 파견된 지방성이 분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李他仁의 출신이 ‘遼東柵州人’이라는 점에서, 그의 종족적 기반이 고구려인인지 속말말갈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柵城이 이 일대의 지방세력을 결집시키고, 독자적인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志』

『魏書』

『後漢書』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1,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1권, 駕洛國事蹟開發院

武田幸男, 1988, 『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 東京大學出版會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1986, 『龍井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1986, 『延吉市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1986, 『琿春縣文物志』

연변박물관 연변문화유물락편 집필소조, 1989, 『연변문화유물락편』

강인옥, 2008, 「동아시아 고고학 고대사 연구 속에서 옥저문화의 위치」,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金瑛河, 1985,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 106, 歷史學會

김현숙, 1999, 「延邊地域의 長城을 통해 본 高句麗의 東夫餘支配」, 『國史館論叢』 88, 국사편찬위원회

노태돈, 1989, 「扶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國史館論叢』 4, 국사편찬위원회

방학봉, 1997, 「高句麗 柵城의 위치에 대한 고찰」, 『경기사학』 3

여호규, 1995,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한국사연구』 91

여호규, 2008, 「압록강 중상류 연안의 고구려 성곽과 東海路」, 『역사문화연구』 29

윤용구, 2003, 「중국출토 한국고대 유민자료의 몇가지」, 『한국고대사연구』 32

이성제, 2009, 「고구려와 발해의 성곽 운용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34집

임기환, 1987, 「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체제」, 『朴性鳳回甲紀念論叢』

임기환, 2000, 「3세기~4세기초 魏·晉의 東方政策」, 『역사와 현실』 32, 한국역사연구회

임기환, 1998, 「고구려 전기 산성 연구」, 『국사관논총』 82, 국사편찬위원회

임기환, 1996,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민의 성격」, 『고구려연구』 2

鄭永振, 1999, 「延邊地域の城郭에 대한 研究」, 『高句麗研究』 8

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山城」, 『高句麗の歴史と遺跡』.

田中俊明, 1996, 「高句麗의 北方進出과 『廣開土王碑文』」, 『고구려연구』 2, 高句麗研究會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Koguryo's Rule in the Yanbian Region: Flatland Fortresses and New Fortresses

Lim Kihwan

This paper examines Koguryo's ruling methods for the Yanbian (延邊) region of Jilin (吉林) province in China from the fourth century. Yongil, located in northeastern Koguryo (高句麗), was the center of Northern Okgeo (北沃沮) until the third century. Koguryo, advancing into the region, secured a territorial foothold, building a flatland fortress from King Taejo's (太祖王) rule, and prepared another base, constructing the new fortresses (新城), fortress, during the King Seochon's (西川王) rule. Total control by Koguryo over the Yanbian region came during the reign of King Kwanggaeto (廣開土王). Sukshin (肅慎) peoples, living in the north, were subjugated, and the northeastern borders were made definite while Eastern Buyeo (東扶餘) was conquered, flatland fortresses and new fortresses were the hubs of Koguryo's local control of the Yanbian region. The flatland fortresses included Salgiseong (薩其城), a mountain fortress, and Onteukhyeokbuseong (溫特赫部城), a field fortress, both located in present-day Hunchun (琿春) area, new fortresses in a set of Seongsanjananseong (城山子山城), a mountain fortress, in Yongil (延吉), and Haryonggosung (河龍古城), a field fortress. Koguryo's control of the region was carried out centering on the transportation roads leading to and from flatland fortresses and new fortresses. The road from Guknaseong (國內城), the capital at that

time, going along the eastern coastline, headed towards flatland fortresses, and the inland-bound road from Guknaeseong led to a new fortresses. How Koguryo had ruled the Yanbian region since the fourth century can be seen through the of King Kwanggaeto monument (廣開土王碑) and the dynasty's control towards the end through gravestone of Goja (高慈墓誌) and the gravestone of Yidain (李他仁墓誌). The existence of a fortress official (柵城都督) shows that a Yoksal (褥薩), a high-ranking local official of Koguryo, was sent for Checksung. A churyogeunji (處閭近支), another local official, was said to have been dispatched to the new fortresses.

Keywords

Koguryo, flatland fortress (柵城), new fortress (新城), Yanbian (延邊)

연변 지역 고구려 유적의 현황과 과제

양시은 | 서울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연변 지역은 한반도 고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서쪽으로는 백두산에 인접해 있어 품질이 우수한 산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쪽으로는 바다와 인접하여 풍부한 수산 자원을 획득함과 동시에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이 가능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연변 지역은 또한 연길·용정·훈춘 등 넓은 평야 지대가 분포해 있어 곡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주변에 양질의 광물 자원이 매장된 지점도 많아, 고대 국가 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고루 갖추었다.

한반도와 관련한 고대국가 중에서 연변 지역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옥저(북옥저)다. 이후 고구려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柵城을 설치하고 연변 지역을 영역화하였다.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는 발해가 들어섰는데, 당시 연변 지역은 발해의 5京 중 東京과 中京이 위치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다.

※ 투고일: 2012년 5월 18일, 심사일: 2012년 8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2년 11월 23일

연변 지역이 고구려 국가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음에도 지배 방식이나 관할 내역을 알려줄 수 있는 직접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연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는 기록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이상 고구려 유적과 유물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변 지역은 발해 시기에 들어와 도성이 위치할 만큼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발해와 관련한 고고학 조사와 연구에 집중하고 있을 뿐 연변 지역의 고구려에 대한 관심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무관심 때문에 아직까지도 연변 지역의 고구려 유적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적은 만주국 성립 이후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거나, 1980년대 중반 중국에서 실시한 문물조사 당시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을 근거로 추정된 내용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보고 내용이 소략하거나 출토 유물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고, 중국의 공식적인 기초 보고서(『文物誌』, 『연변문화유물략편』, 『中國文物地圖集-吉林分冊』)에서도 동일한 유적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 부분도 있다. 또한 근래 발해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나 東北工程 등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는 연변 지역의 고구려 유적과 유물에 대한 연구를 보다 어렵게 하고 있다.

발해가 과거 고구려의 영토나 인적 구성원을 상당부분 이어받았기 때문에, 고구려와 발해 초기의 물질문화를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연변 지역의 여러 성에서는 고구려와 발해 또는 금의 유물이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더라도 발해나 그 이후 시기로 보고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함경도에서 고구려 시기의 유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나 집안 지역에서 발해 유적이 거의 보고되지 않는 점과도 상통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요령 지역의 석실분 일부를 발해 시기로 파악하거나 집안 동대자 유적의 연대를 발해까지 늦춰 보려는 강현숙의 견해가 주목된다.¹⁾

1) 강현숙, 2009, 「高句麗 故地の 渤海 古墳-中國 遼寧地方 石室墳을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 72, 韓國考古學會; 姜賢淑, 2010, 「中國 吉林城 集安 東台子遺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은 분명하지만, 고구려가 멸망한 시점인 668년에서 30년이 지난 698년에야 세워졌고, 고구려 유민과 말갈 세력이 함께 건국하였으므로 물질문화상에서 고구려와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변 지역은 고구려 멸망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크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유물상에서 고구려와 발해의 구별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연변 지역의 고구려 유적과 유물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기존에 고구려 시대로 보고된 유적을 별다른 근거 없이 발해 내지는 그 이후로 재보고하고 있어, 연구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연변 지역이 고구려 시대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오히려 자료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연변 지역 내 고구려 유적과 유물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발굴과 같은 고고학적인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합하고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변 지역 고구려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고된 유물을 통해 유적의 기본 성격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변대학 발해사연구소²⁾와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연변 지역의 고구려 자료들을 포함시켜 검토하도록 하겠다.

蹟 再考」, 『韓國考古學報』 75, 韓國考古學會

2) 발해사연구소 소장 고구려·발해 유물에 대한 조사를 흔쾌히 허락해 준 정영진 선생님께 본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II. 기존 연구 검토

연변 지역의 고구려 유적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책성의 위치 비정 문제로, 주로 정영진(1990), 방학봉(1999), 이종훈(2005), 박진석(2008) 등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기존의 논의는 주로 역사 기록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대상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진전된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두 번째는 연변 장성의 축조 세력과 관련된 문제다. 연변 장성은 1980년대 초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는데, 그동안 장성 축조 주체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 연변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장성의 여러 구간들을 답사한 결과, 석축 성벽의 축성 방식이 영성하고 연길을 바라보는 안쪽 사면에 성벽이 축조되어 마치 연길을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므로, 고구려는 연변 장성의 축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연변 장성 문제는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연변 지역 고구려 유적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된 문제로, 이와 관련된 연구는 20세기 초부터 이루어졌다. 청나라 사람인 吳祿貞이 펴낸 『延吉邊務報告』(1908)나 일본인이 작성한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1910) 등에서는 城子山山城 등과 같은 연변의 성곽 유적을 소개하고 있지만, 당시에 해당 성곽을 고구려 시기로 파악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보다 본격적인 조사는 일본인 연구자들이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京城帝國大學 교수였던 도리아마 기이치[鳥山喜一]와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는 滿洲國 文教部の 囑託으로 1937년 4월경에 間島省(지금의 연변) 일대를 다니면서 여러 유적의 현황을 조사하였다.³⁾ 이 또한 고구려 시기에 집중하거나

3) 서울대학교 박물관에는 鳥山喜一과 藤田亮策이 당시 수집했던 유물 다수가 소장되

고구려 유적 발견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선사시대부터 고구려·발해 및 遼金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그러나 도리아마와 후지타는 평양과 집안 일대의 고구려 유적과 유물을 조사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로서, 당시의 조사 내용이 초보적이고 간략하기는 하나 연변 일대의 고구려 유적을 구별해 내고 또한 관련 계통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전과는 차이를 보인다. 당시 간행된 『間島省古跡調査報告』는 연변 일대의 많은 유적이 개발로 인해 없어지거나 훼손된 지금, 당시의 유적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밖에도 단편적이긴 하지만, 사이토 마사루[齋藤優]는 1942년에 半拉城(지금의 팔련성)을 발굴조사한 뒤 훈춘 일대의 유적들을 답사하면서 高力城(지금의 비우성)과 연변의 장성 유적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⁴⁾

이후 중국에서는 『文物誌』 편찬을 위해 1980년대 초반 연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로써 연변 지역 내 고구려 유적의 전반적인 현황이 간략하게나마 밝혀지게 되었다. 당시 출간된 문물지에는 이전에 고구려의 것으로 보고되었던 유적들도 발해나 요·금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유적에서 고구려 유물이 수습되었다고 할지라도 고구려라는 명칭은 모두 빠져 있다. 그나마 해당 지역 전반의 역사를 소개하는 문물지의 서문에 고구려 유적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실려 있는 정도다. 문물지에 소개되어 있는 고구려 유적은 薩其城·溫特赫部城·城子山山城·興安古城뿐이다. 이러한 중국 측 분위기는 1992년에 출간된 『中國文物地圖集－吉林分冊』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지도집에서는 성자산산성과 흥안고성만이 고구려 유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반면, 연변 지역 문물지의 성과를 반영하여 1989년에 발간한 『연변문화유물략편』에는 살기성·온특허부성·석두하자고성·연변장성·성자산산성·흥

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滿洲國民生部 編, 1942, 『間島省古跡調査報告』, 滿洲國古蹟古物調査報告 第三編; 양시은, 2010, 「일제강점기 고구려 발해 유적조사와 그 의미: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高句麗渤海研究』 38, 高句麗渤海學會

4) 齋藤優, 1978, 『半拉城と他の史蹟』, 半拉城史刊行會

안고성·토성촌고성·중평고성 등이 고구려 유적으로 명시되었다. 해당 책에서는 연변지역 내 고구려 성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고구려 기와, 즉 승문(繩紋)·승석문(席紋)·사격자문(網紋)이 함께 출토되는 경우에만 고구려 유적으로 판단하며, 발해 기와가 함께 출토되는 경우에는 고구려가 처음 축조하여 발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육정산 고분군과 같이 일부 발해 고분에서 고구려계 기와가 출토되는 것에 대해서는 발해 초기에 고구려 기와를 받아들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정영진에 의해 보다 심화된다. 정영진은 1990년에 발표한 논고에서 연변 지역의 고구려 유적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연변 지역 고구려 성곽은 요동 지역과 고구려 중심지역에서 보이는 산성 중심이 아니라 비교적 규모가 큰 평지성이 위주이고 또한 유적에서 주로 출토되는 북옥저 계통의 판자 모양의 파수 등을 근거로, 연변 지역에서 보이는 고구려 문화의 지역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온특혁부성을 책성으로 비정하고, 연변 일대에 존재하는 장성은 고구려 시기에 읍루의 남침을 막기 위하여 축조한 것으로, 발해와 요금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⁵⁾

정영진은 이후 연구 대상을 연변 지역의 전체 성곽으로 확대하여, 고구려와 발해, 요금 시기의 성곽의 특징과 차이점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고구려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지만, 王禹浪과 王宏北이 편찬한 『高句麗·渤海古城址研究匯編』(1994)에서 고구려 성의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⁶⁾

최근 이성제는 그동안 연변 지역의 산성 답사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연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고구려와 발해 성곽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논문에서는 교통로 분석과 역사적 정황 등을 근거로 연변 지역의 고구

5) 鄭永振, 1990, 「연변지구의 고구려유적 및 몇 개 문제에 대한 탐구」, 『韓國上古史學報』 4, 韓國上古史學會

6) 鄭永振, 1999, 「延邊地域의 城郭에 대한 연구」, 『高句麗山城研究』(『高句麗研究』 8), 학연문화사

려 성을 보다 확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연변 지역에 다수 확인되고 있는 평지성은 요동이나 고구려 중심지역과는 달리 군사적 목적이 아닌 지역 지배의 중심지로서 역할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⁷⁾ 고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유적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취약점을 지니고 있지만,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연변 지역의 고구려 및 발해 유적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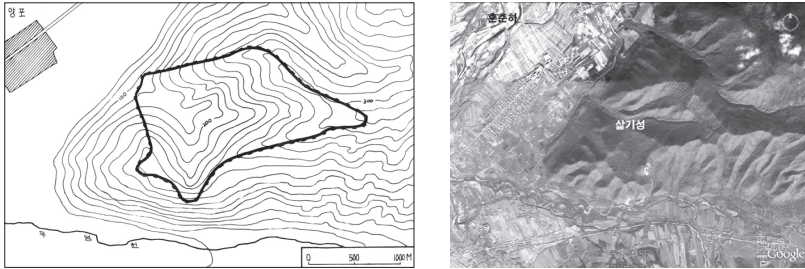
이처럼 연변 지역의 고구려 유적은 현실적인 여러 제약으로 인해 유적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관련 유적과 유물에 대한 기초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황상의 근거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경우 자칫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안은 지금까지 보고된 고고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유적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III. 연변 지역의 주요 고구려 유적

1_ 薩其城

살기성은 琿春市 楊泡鄉 楊木林子村의 동남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포곡식 석축산성으로, 성벽의 전체 둘레 길이는 약 7km다. 문지는 모두 5개며, 폭은 8m 내외다. 성 안으로 연결되는 계곡 부분에 100m에 달하는 석축 성벽을 설치하여 성 내부로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해당 계곡부에 성의 정문(북

7) 李成制, 2009, 「高句麗와 渤海의 城郭 운용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 - 延邊地域분포의 성곽에 대한 이해를 겸하여」, 『高句麗渤海研究』 34, 高句麗渤海學會



〈그림 1〉 살기성의 평면도(鄭永振, 1990: 그림 1-1)와 위성사진(구글어스)

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이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이 10m가량의 석축 성벽이 남아 있다.

성의 서남 모서리와 동남 모서리에는 망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직경 30m, 높이 3m가량의 석축 구조물이 남아 있다. 망대에서는 훈춘하 하류의 평원지역이 잘 조망된다.

『琿春縣文物志』에 따르면 성내의 건물지에서는 다량의 기와편이 발견되었다. 모두 (적)갈색과 회색 기와편으로, 승문·승석문·사격자문 등이 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 지두문[指壓紋]이 있는 암키와가 발견되었다. 인근의 양목림자 절터(楊木林子 寺廟址)에서도 승문·승석문·사격자문 및 지두문이 찍혀있는 기와편이 출토되고 있어, 두 유적 모두 발해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연변문화유물략편』에서는 문물지에서 보고한 기와편들이 집안의 환도산성에서 출토되고 있는 고구려 기와와 동일하다고 보아, 살기성은 발해가 아닌 고구려에서 축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살기성 부근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부 고구려 시기의 무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정영진 역시 고구려 유적에서 주로 확인되는 세 종류의 문양이 찍힌 기와를 근거로 살기성과 양목림자 절터는 발해가 아닌 고구려 시기에 축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살기성에서는 고구려 시기의 유물이 많고 발해 시기의 것은 일부만 확인되고 있고, 성 내부의 지세가 좁고 대부분이 산비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통치가 아닌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성이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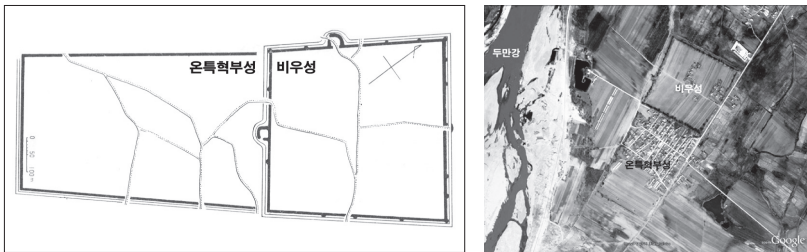
정영진은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李健才가 살기성을 고구려의 책성으로 비정하고자 하는 견해를 부정한 바 있다.⁸⁾

2. 溫特赫部城

온특혁부성은 琿春市 三家子鄉 古城村에 위치한 평지성이다. 성은 평탄한 강안대지 위에 흙을 다져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사다리꼴이다. 북쪽의 성벽은 금나라 성터인 비우성[斐優城]⁹⁾으로 인해 파괴되었으며, 동쪽과 서쪽 성벽 일부 또한 훼손되었다. 비우성의 남벽을 포함하였을 경우 온특혁부성의 전체 둘레는 2.3km가량이다.

성 내부에는 남쪽 경작지를 중심으로 고구려와 발해 시기의 유물이 확인되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다량의 기와편이 분포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당시 온특혁부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琿春縣文物志』와 『연변문화유물략편』에 따르면, 성내에서는 귀면문[獸面紋]와당과 立蓮花紋[乳釘紋]와당, 팔련성 출토품과 동일한 발해 시기의 연화문와당 등이 출토되었다. 귀면문와당은 만주국 시기에 수집된 것으로 보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더 이상의 논의가 어렵다. 입연화문와당은 온특혁부



〈그림 2〉 온특혁부성의 평면도(齋藤優, 1978: 도면 34)와 위성사진(구글어스)

8) 鄭永振, 1990, 앞의 논문, 298쪽

9) 『琿春縣文物志』에 따르면 비우성은 배우성(裴優城) 또는 고려성(高力城)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한다.

성뿐만 아니라 동대자유적[東台子遺址]과 평양 일대에서도 확인된 유물로, 고구려 연화문와당으로는 극히 드문 형식이다.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된 입연화문와당은 온특혁부성 출토품과 그 형태가 거의 동일하여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평양에서 출토된 와당보다는 그 문양 요소가 간략화되어 있기 때문에, 온특혁부성 출토품의 경우 평양보다는 늦게 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입연화문와당은 발해 초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六頂山古墳群 출토품의 경우 문양 요소가 다른 와당에 비해 가장 단순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입연화문와당의 기본 문양 요소를 지키고 있는 온특혁부성 출토품은 발해 시기보다는 이른 고구려 시기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현숙은 입연화문와당의 출현 상한을 6세기 후엽경으로 비정한 바 있다.¹⁰⁾



〈그림 3〉 각종 입연화문와당¹¹⁾

정영진은 온특혁부성의 동쪽벽에 대한 조사 당시 토축 성벽 내에서 승문과 승석문, 사격자문 등의 기와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성벽은

10) 강현숙, 2010, 앞의 논문, 186~187쪽

11) ① 井内古文化研究室 編, 1977, 『朝鮮瓦磚圖譜』 2, 眞陽社, 219번 자료

② 朝鮮總督府, 1929, 『高句麗時代之遺蹟』 上, 45번과 258번 자료

③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吉林省博物院 篇, 2010, 『集安出土高句麗文物集粹』, 科學出版社, 61쪽

④ 연변박물관 연변문화유물략편 집필소조, 1989, 『연변문화유물략편』, 연변인민출판사, 79쪽

⑤ 宋玉彬, 2011, 「近年來吉林地區歷史考古的重要成果(1999~2010)」, 『동북아시아 고대문화의 새로운 지평』, 경희대학교·길림대학교 학술교류 특별강연회 자료, 중앙박물관·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고구려가 아닌 발해 시기에 다시 쌓은 것으로 파악하였다.¹²⁾

한편, 서울대학교 박물관에는 훈춘 고려성(高力城, 高麗城土城)에서 채집된 유물이 소장되어 있는데, 대부분 고구려와 발해의 기와편이다(그림 4). 고구려 암키와편의 내면에는 대략 3cm 내외의 폭을 지닌 모골흔이 확인된다. 유물에는 12년 4월 22일에 채집된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유물 대장에는 대부분 도리아마 기이치가 기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2년은 昭和 12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채집 연도는 1937년이다. 이와 관련한 기록은 도리아마 기이치와 후지타 료사쿠가 작성한 『간도성고적조사보고』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보고서에는 1937년 4월 22일에 高力城子土城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평면도가 남아 있는데, 기록 등을 대조해 보면 현재의 비우성임이 확인된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채집된 기와편과 성벽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비우성이 고구려 시대부터 이용되다가 遼代 이후에 개축된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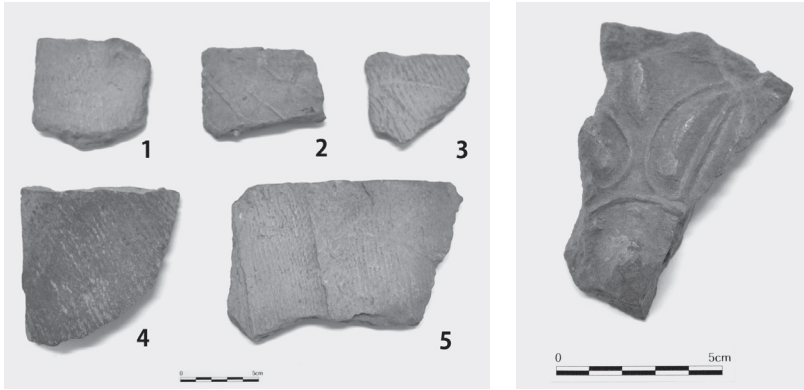
도리아마 기이치가 비우성을 조사한 이후 사이트 마사루가 비우성과 온특혁부성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에 채집된 유물들은 그림 5와 같다. 1·2번은 발해 와당이며, 3~6번은 고구려 기와편으로 보고되었는데, 특히 회색 승문 기와편(3번)은 비우성의 토루 내에서 발견되어 주목된다.¹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특혁부성이나 비우성에서 모골흔이 확인되는 고구려 기와편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분명 고구려 때부터 활용된 성이 존재했던 것은 분명하다. 다만 입연화문와당이 고구려 후기에 새롭게 등장한다는 점과 성 내외부에서 고구려뿐만 아니라 발해 유물 또한 다수 확인되는 점, 그리고 비우성과 온특혁부성 모두 토축 성벽 내에서 고구려 기와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해당 성은 고구려와 발해 시기에 지속적으로 개축되면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온특혁부성은 고구려 시대의 책성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주요 근거로는 온특혁부성이 넓은 평지성이기 때문에 살기성과는 달리 행정중심지

12) 鄭永振, 1990, 앞의 논문, 298~299쪽

13) 齋藤優, 1978, 앞의 책, 94~101쪽



〈그림 4〉 비우성 출토 고구려와 발해 기와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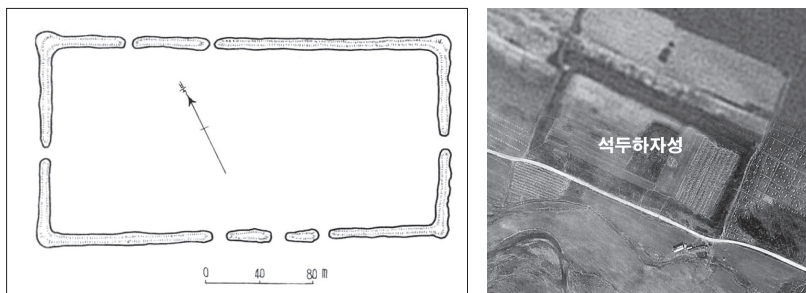
〈그림 5〉 비우성 출토 고구려와 발해 기와(齋藤優, 1978: 도면 34 재편집)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고구려 외에도 발해 유물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고구려의 책성이 발해 시기에도 계속 사용되었다는 문헌기록과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발해의 동경용원부인 훈춘의 팔련성 부근에 있다는 점 등이다.

3_ 石頭河子城

석두하자성은 琿春市 板石鄉 太陽村에 위치한 평지성인데, 훈춘하 하류의 삼각형 충적평원지대에 위치해 있다. 성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성벽은 돌로

14) 온특혁명성에서 채집된 3번을 제외한 나머지 유물은 비우성에서 채집된 것으로, 5번은 『間島省古跡調査報告』의 도판 63에 소개된 바 있다.



〈그림 6〉 석두하자성의 평면도(鄭永振, 1990: 그림 1-3)와 위성사진(구글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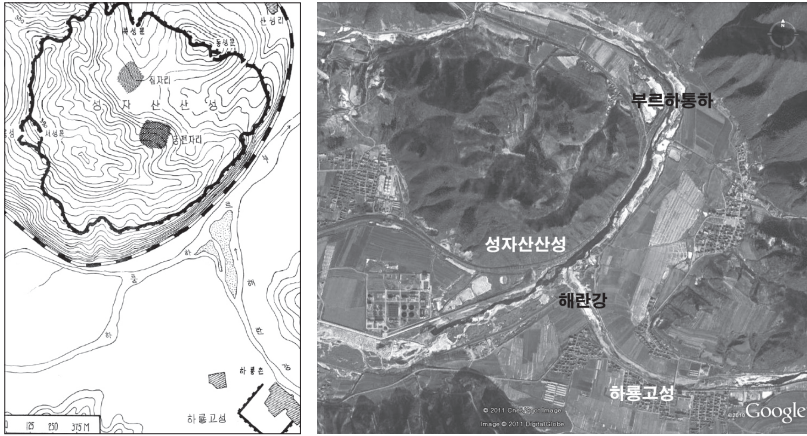
축조하였다. 성벽의 전체 둘레는 830m가량이다.

『연변문화유물략편』에 따르면, 성 내부에서는 승문·승석문·사격자문 등의 문양이 시문된 고구려 암키와편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발해 시기의 기와편도 소량 수습되었다. 석두하자성은 발해 유물을 근거로 훈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분수령인 장령자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는 발해 시기의 日本道를 지키는 성 중의 하나로 추정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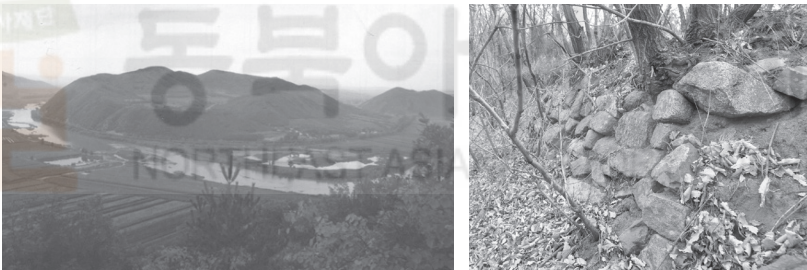
4_ 城子山山城

성자산산성은 연길시에서 동쪽으로 10km가량 떨어진 지금의 圖們市 長安鎮 磨盤村에 위치해 있다. 성자산은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발굽 모양과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성벽은 이러한 산줄기를 따라 토석혼축 내지는 석축으로 쌓았다. 산성 바깥쪽에는 부르하통하[布爾哈通河]가 성자산의 남쪽, 동쪽 그리고 북쪽의 산기슭을 휘감으며 지나가고 있어 방어에 매우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 성벽의 총 둘레는 4.45km가량이며, 성문은 3개소가 확인되는데, 서문과 (북)동문에는 옹성이 설치되어 있다.

성 내부에서는 고구려와 발해 시기의 기와와 함께 요금 시기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龍井縣文物志』와 『연변문화유물략편』에는 승문·승석문·사격자문 등이 새겨진 고구려 기와와 발해 시기의 지두문[指壓紋] 기와 등이 출토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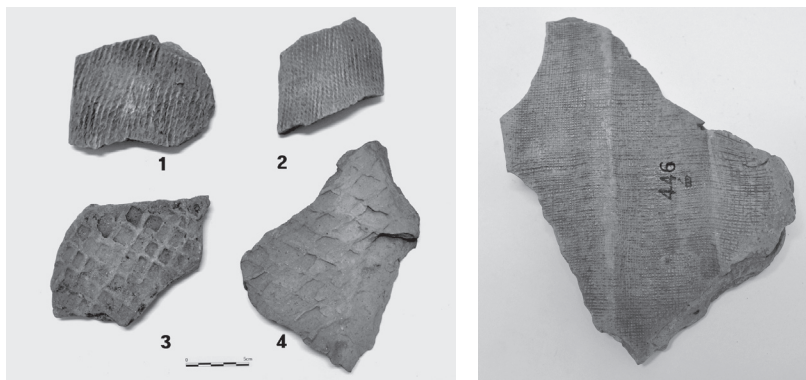
〈그림 7〉 성자산산성의 평면도(鄭永振, 1999: 그림 5)와 위성사진(구글어스)



〈그림 8〉 성자산산성의 전경과 북동쪽 석축성벽(동문지 인근)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품이 성의 축조 시기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도리아마 기이치가 1937년 4월 24일에 수집한 것인데, 『간도성고적조사보고』에는 金の 유물 일부만이 보고되어 있다. 보고서에서는 성 중앙부에 위치한 계단상 건축대지의 토층 하단부에서 고구려 기와편이 출토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성자산산성이 고구려 시기에 초축되어 후대에도 연용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성자산산성 출토 고구려 유물은 승문·사격자문이 찍혀 있는 적갈색 기와편과 니질 태토의 회색 및 적갈색 토기편 등이다. 사격자문이 찍혀 있는 그림 9의 3·4번 암기와편 내면에서는 모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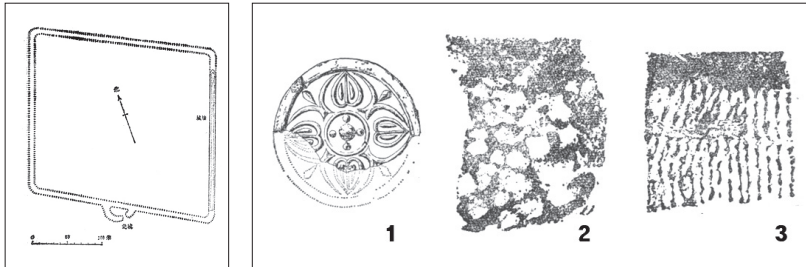
〈그림 9〉 성자산산성 출토 고구려 기와편¹⁵⁾

흔이 확인되고 있는데, 모퉁의 폭은 대략 5cm다. 토기의 형태로 시기를 구분하는데 구연부가 심하게 외반하는 경우 후대의 것으로 판단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토기편을 대상으로 고구려와 발해를 구별해내는 것은 현재의 고고학적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박물관에는 철촉과 철모, 철제 가위, 은제 귀이개, 청동금구류 등 다양한 금속 유물들도 소장되어 있는데, 그 시기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본 논고에서는 제외하였다.

5_ 河龍古城

하룡고성은 圖們市長安鎮磨盤村에 위치한 평지성으로, 土城村土城으로도 불린다. 성은 부르하통하와 해란강이 만나는 강안 대지 위에 자리잡고 있으며, 성자산산성의 남동쪽에 위치한다. 현재 대부분 파괴되어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원 성벽의 둘레는 984m로 보고되어 있다. 『延吉市文物志』(1985)에는 하룡고성의 경우 토석혼축으로 성벽의 기초를 삼은 다음 흙을 이용하여 토축 성벽을 쌓았으며, 성벽의 끝부분은 돌로 마감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15) 우측 사진에 게재된 기와는 좌측 4번 기와의 내면을 촬영한 것이다.



〈그림 10〉 하룡고성 평면도와 고구려 및 발해 기와(『延吉市文物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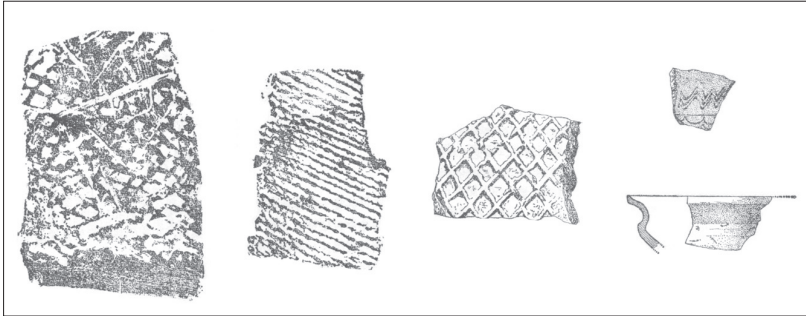
성 내부에서 수습된 유물로는 발해 연화문와당(그림 10-1)과 고구려 적갈색 사격자문 암키와편(그림 10-2), 회황색 승문 암키와편(그림 10-3) 등이 있다. 출토 유물로 판단하건대, 하룡고성 역시 성자산산성과 마찬가지로 고구려 시기에 축조되어 발해 이후까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연구자들은 하룡고성과 성자산산성이 고구려의 평지성과 방어용 산성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박진석은 성자산산성과 하룡고성 그리고 흥안고성 일대를 모두 고구려의 책성으로 비정하였다.¹⁶⁾

6_ 興安古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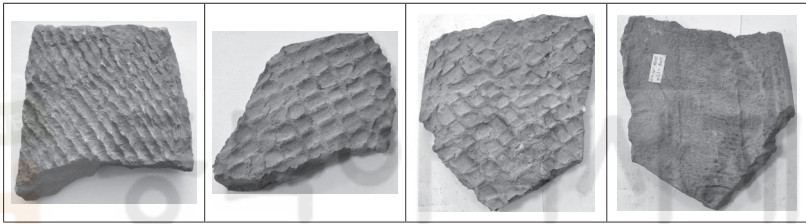
흥안고성은 연길시 북단의 興安鄉에 위치한 평지성으로, 대부분 파괴되었다. 성의 기초는 돌을 이용하였으며, 성벽의 전체 둘레는 대략 1.8km이다.

『연길시문물지』에 흥안고성 출토 유물 일부가 보고되어 있는데, 성 내부에서 주로 적갈색 기와편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기와의 문양으로는 사격자문이 상대적으로 많고, 승문은 적다. 지두문 기와 등도 소량 확인되었으며, 와당은 발견되지 않았다. 토기는 니질 태토에 회전대를 이용하여 성형한 것이 대부분이다. 토기의 색조는 회갈색이 상대적으로 많고, 적갈색은 적다. 토기에는 파상문이 시문된 것도 확인되었다.

16) 박진석, 2008, 「高句麗 柵城 遺址 三考」, 『東北亞歷史論叢』 20, 동북아역사재단



〈그림 11〉 흥안고성 출토 고구려 유물(『延吉市文物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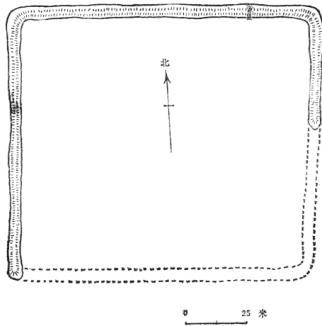


〈그림 12〉 흥안고성 출토 고구려 기와(연변대학 발해사연구소 소장)

7_ 台岩古城

태암고성은 延吉市 烟集鄉 台岩村에 위치한 방형의 평지성이다. 성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다. 성벽은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각루나 치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성벽의 전체 둘레는 310m가량이다.

『연길시문물지』에 따르면, 성 내부에서 적갈색 승문기와나 니질 태토의 회색 및 적갈색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성 외부에서는 연화문외당과 지두문기와 등 발해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림 13에 제시한 적갈색 기와편은 연변대학 발해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로, 소성도가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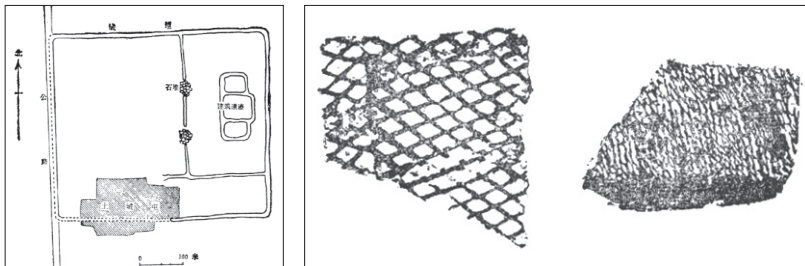


〈그림 13〉 태암고성 평면도(『延吉市文物志』)와 고구려 기와(연변대학 발해사연구소 소장)

8_ 土城村古城(또는 土城屯古城)

토성촌고성은 龍井市 八道鄉 西山村에 위치해 있다. 성은 장방형으로 둘레의 길이는 1.88km다. 성벽은 토석혼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용정현문물지』에는 성내에서 수집된 기와편이 보고되어 있다. 고구려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승문 및 사격자문 기와편과 발해 시기의 연화문외당, 지두문 기와편 등을 통해 성의 사용 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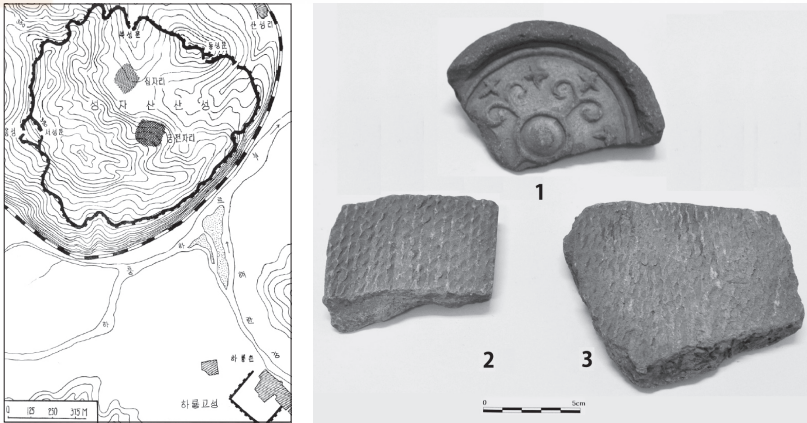


〈그림 14〉 토성촌고성 평면도와 고구려 기와(龍井縣文物志)

9_ 東興古城과 주변 유적

동흥고성은 龍井市 光新鄉 東興村에 위치해 있는 평지성으로, 토석혼축성이다. 현재는 훼손이 심하여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지만, 『간도성고적조사보고』(1942)에서 도리아마 기이치는 내성과 외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성내에서 고구려계 적색기와가 다량으로 산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동흥고성(동흥촌토성)이 고구려 때 축조되어 요금 시대까지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동흥고성 출토 유물로는 기와편과 토기편이 있다(그림 15). 고구려 기와편은 대체로 승문과 사격자문 계열이다. 그런데 3번 유물의 경우 등면에는 승문이 시문되어 있지만, 단면에는 지두문이 확인되고 있어 특이하다. 지두문은 고구려에서는 집안의 왕릉급 고구려 적석층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발해 시기에는 발해 전역에서 확인된다. 보통 지두문이 시문된 암기와는 문양이 없는 회색 계열이 대부분인데, 승문이 시문된 3번 유물은



〈그림 15〉 용정 일대 유적 분포도(『間島省古迹調査報告』)와 동흥토성 출토 기와¹⁷⁾

17) 1번 회색 와당은 발해 유물로 추정되나, 동일한 문양 요소를 가진 와당의 출토 사례는 찾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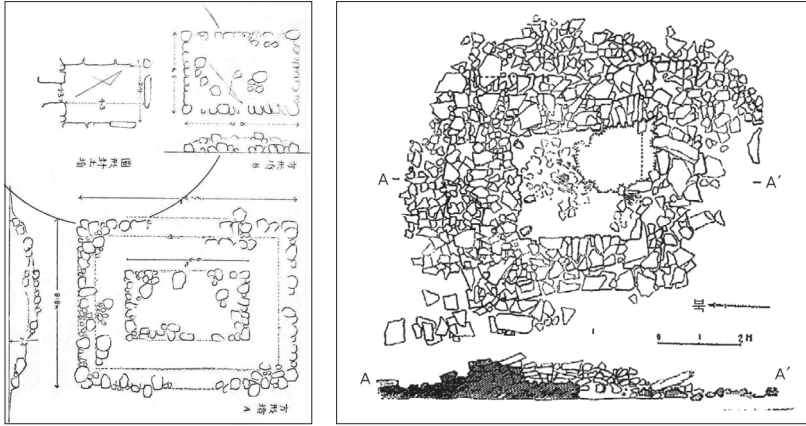
〈그림 16〉 수남 수칠구절터 출토 기와¹⁸⁾

이례적이다.

한편, 동흥고성에서 해란하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수칠구절터(水南 水七溝寺址)가 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에는 절터에서 수습된 고구려 계통의 기와편과 토기편이 소장되어 있다. 6엽형 연화문 와당과 승석문이 일부 남아 있는 유단식 적색 수키와편, 그리고 승문과 거치문 등이 시문된 적갈색 암키와편 등이 있는데, 암키와편 중에서는 내면에 5cm 너비의 모골흔이 관찰되는 예도 있다. 이 밖에도 수량은 많지 않으나 화염문과 지두문이 시문된 암키와편도 확인된다.

한편 『간도성고적조사보고』에는 동흥고성의 동남쪽에 대규모의 水南古墳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도리아 류조(鳥居龍藏)가 1911년에 조사할 당시에는 백여 기 이상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제방공사에 석축분의 돌들을 가져다 사용하여, 1937년 도리아

18) ①은 직경 14cm인 연화문 와당으로, 주연을 포함한 와당의 두께는 2.6cm다. 나무 와법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두 번 이상 눌러 찍은 관계로 구획선의 문양이 일부 겹쳐 있다. 동일범 와당이 1점 더 있다. ④는 유물 대장에는 훈춘 고려성(비우성)에서 출토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間島省古迹調査報告』 도판 17-1에 게재된 유물로 수남 수칠구절터에서 출토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한 유물이 1점 더 있다. 화염문은 평양 시기의 고구려 기와에서도 확인되는 문양인데, 유사한 사례로는 일본 帝塚山大學 附屬博物館의 소장품을 들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9,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Ⅱ, 409쪽



〈그림 17〉 수남고분군(『間島省古迹調査報告』)과 안도 동청8호분(정영진, 2006: 그림19)

마 기이치가 조사할 때는 고분군 대부분이 파괴되거나 도굴되어 그 흔적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고분의 형식은 크게 封土墳과 石墓로 구분되는데, 봉토분은 횡구식 장방형석실에 흙을 덮은 것이며, 적석묘는 고구려 계통이기는 하나 고구려의 전형적인 계단식 적석총과는 달리 평면형태가 방형보다는 장방형이 많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유적이 대부분 훼손된 관계로 자세한 논의는 어렵지만, 적석묘의 성격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영진은 계단식 적석총 계통의 적석묘는 안도 동청 고분군(3기)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동청고분군의 경우 형태적으로는 고구려의 계단식 석광적석총과 유사하지만 발해 초기에 해당하는 매우 드문 묘제로 파악하고 있다. 동청고분군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경우 심발류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과, 그동안 고구려 동북부 지역에서 전형적인 적석총이 발견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청고분군은 고구려보다는 발해 시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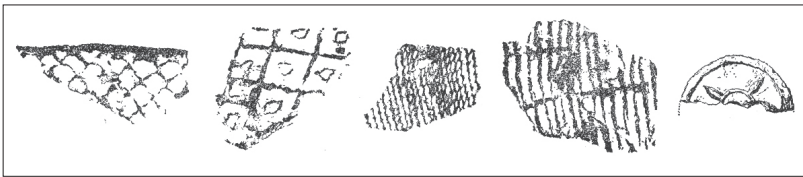
10_ 仲坪古城

중평고성은 龍井市 德新鄉 河北村의 경작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용정현문물

지』에는 『연변문화유물략편』과는 달리 중평유적(仲坪遺址)으로 보고되어 있다. 해당 유적에서는 고구려 시기의 승문·승석문·사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는 기와편과 함께 발해 시기의 연화문와당 등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성벽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지만 토석혼축의 기초가 일부 남아 있다는 점에서 해당 유적을 성으로 판단하는 견해와 일정 범위 내에서 기와편이 출토되는 점을 들어 대형 건축물터로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유적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논할 수는 없겠지만, 출토 유물만을 놓고 본다면 중평고성이 고구려 시기부터 사용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11_ 기타 유적

이상 앞에서 언급한 유적 외에도 연변 지역에서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는 중요 유적으로는 화룡현의 龍淵遺蹟과 용정시의 龍曲遺蹟 등이 있는데, 주로 승문과 승석문, 사격자문 등의 고구려 기와가 채집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용곡유적에서는 발해 시기의 기와도 상당량 출토되었다고 한다.¹⁹⁾



〈그림 18〉 용연유적 출토 고구려 기와(和龍縣文物志)²⁰⁾

19) 鄭永振, 1990, 앞의 논문, 301쪽

20) 연화문와당의 경우 실물을 접하지 못해 그 소속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다. 趙越은 해당 유형을 혼춘 팔련성에서 출토된 것과 함께 발해의 특수연화문와당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趙越, 2007, 『渤海瓦當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Ⅳ. 연변 지역 고구려 유적의 검토

지금까지 유물을 바탕으로 연변 지역에서 고구려 시대로 판단되는 유적들을 살펴보았다. 연변 지역에는 100여 개의 성곽이 분포하고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고구려 유적으로 추정하는 성곽의 수는 각기 다르다. 『中國文物地圖集－吉林分冊』의 경우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2개소만을 고구려 성으로 비정하였고, 『연변문화유물략편』에서는 출토 기와를 기준으로 삼아 8개소를,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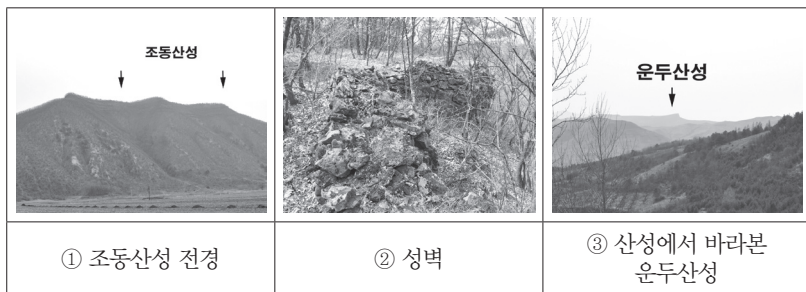
(그림 19) 연변 일대 주요 고구려 성(구글어스)²¹⁾

21) 굵고 큰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유적이 연변 지역에서 고구려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된 성이다. △는 산성을, □는 평지성을 의미한다. 북한 지역의 운두산성을 제외한 나머지 작은 글씨로 표시된 유적은 일부 연구자들이 고구려 성으로서의 가능성을 제기한 적이 있는 곳이다.

구려의 역사와 유적(句麗の歴史と遺跡)』에서는 26개소를 고구려 유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러한 차이는 고구려 성곽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기존 자료와 관련 유물을 최대한 검토하여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10개소의 유적만을 고구려 성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유적은 평지성이 대부분이며, 산성은 2개소에 불과하다. 고구려가 일찍부터 연변 지역으로 진출하였다고는 하지만 과연 평지성을 구축하는 것만으로 연변 지역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고구려의 영역 지배 방식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요동 지역이나 남한 지역 등 고구려 전역에 산성이 축조되고 있는 양상을 감안해 볼 때 연변 지역에도 산성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성제의 견해가 주목된다. 용정의 朝東山城을 고구려의 산성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입지 조건, 축조 방식 및 인근 성곽과의 배치 양상 등을 들고 있다. 조동산성은 두만강 건너편 서남쪽으로 5km 떨어져 있는 북한의 雲頭山城과 대응하여 운용 가능하며, 이러한 배치는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를 연결하던 압록강변의 虎山山城과 白馬山城과의 조합과 유사하다는 것이다.²²⁾ 필자가 조동산성을 답사한 결과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은 요동 지



〈그림 20〉 조동산성

22) 이성제, 2009, 앞의 논문, 178~180쪽

역의 고구려 석축산성과는 석재의 가공이나 성벽 축조 방식 등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또 지금까지 조동산성에서 고구려 유물이 발견된 예가 없었다. 그러나 입지 등의 측면에서 본다면, 고구려 산성으로 기능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앞으로의 조사·연구결과의 축적을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성제는 동일한 논문에서 성자산산성이 성안에 넓은 평탄지를 보유하면서 문지가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평지에서 어렵지 않게 산성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산 정상부에 산성을 축조하여 접근을 용이하지 않게 만든 고구려 전기와는 다른 고구려 중기의 특징임을 강조하였다. 또 산 능선을 따라 먼저 돌을 쌓고 그 위에 흙을 채워 덮은 토석혼축의 축조 방식이 무순의 高爾山城과 유사하기 때문에 성자산산성 역시 4세기 이후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산성의 입지 조건이나 성벽 축조 방식 등 외관상의 몇 가지 특징만을 가지고 축조의 시기나 세력을 판단하는 것은 주의가 요구된다. 고구려 중기 이후, 고구려의 성장에 따라 대형의 포곡식 산성이 축조되기 시작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중기 이후에 포곡식 산성만 축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남한의 고구려 유적은 황해도 지역의 대형 성곽과는 달리 작은 보루들이 교통로 상에 배치되거나 한강 유역의 아차산 보루군처럼 여러 개의 보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중대형 성곽처럼 활용되기도 한다.²³⁾ 고구려는 이처럼 전력 혹은 지배 방식과 지역에 따라 성곽의 운용을 매우 탄력적으로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축·토석혼축·석축 등 성벽의 축조 재료나 축성 방식에 따른 구별을 통해 연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 성곽은 활용되는 동안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보수와 개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현상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잔존하는 성벽의 외형만을 가지고 그 계통을 밝

23) 양시은, 2010,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高句麗渤海研究』 36, 高句麗渤海學會, 121~123쪽

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은 성곽이 폐기되는 최종 단계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동안 지표조사 등을 통해 백제의 유적으로 알려졌던 충청 지역의 여러 성이 발굴조사 결과 상당수가 신라 또는 그 이후 시기에 축성된 것으로 밝혀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성의 축성 시기나 주체를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결국에는 산성을 축조하고 영위했던 사람들이 남긴 물질 자료, 즉 유물과 같은 고고 자료가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연변 지역의 많은 산성이 그동안 정식으로 발굴조사가 실시된 예가 없고, 산성의 경우 특정한 시기가 아니면 평지성에 비해 지표에서 유물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후에도 고구려 산성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연변 지역 고구려 시기의 평지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번에 확인된 고구려의 평지성은 8개소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수가 월등히 많은 편이다.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동흥고성을 제외하면, 가장 작은 규모인 태암고성은 둘레가 0.3km이고, 석두하자고성과 하룡고성은 1km 내외이고, 나머지 평지성은 모두 1.6km 이상이다. 고구려의 도성 지역 내 위치한 토성²⁴⁾이나 漢이 축조한 토성을 재사용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고구려 평지성은 연변 지역에 비하면 그 크기가 상당히 작은 편이다. 구체적으로는 태암고성의 규모와 비슷하거나 더 작다. 물론 압록강변에 위치한 평지성의 경우 수로를 통제하거나 역참의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변 지역과 직접인 비교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고구려 성곽과 관련하여 연변 지역은 평지성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규모가 다른 곳에 비해 특이한 것만은 분명하다.

정영진은 연변 지역의 고구려 평지성을 발해 시기에 다시 쌓은 것이 많다

24) 환인의 하고성자토성이 0.94km, 집안의 국내성이 2.7km, 평양의 청호리토성이 5km가량이다.

고 보았다.²⁵⁾ 대부분의 평지성에서 고구려와 발해 기와가 함께 출토되고 있고, 용성과 치가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기존의 논문에서 밝힌 자신의 견해와도 일부 상충되는 것으로, 이전 논문에서 정영진은 석축 혹은 토석혼축 성벽을 고구려 시기의 특징으로 파악한 바 있다.²⁶⁾ 온특혈부성처럼 성벽 내부에서 고구려 기와편이 발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해 시기에 전면적인 개축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연변 지역에 고구려 평지성이 축조된 배경은 무엇일까. 현 단계에서 고고학적으로 풀어나가기에는 자료가 부족하여, 평지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해답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현혜는 고구려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혼강 및 압록강 유역과 두만강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함경북도 무산 호곡 유적과 희령 오동 유적에서 나온 기원전 3~2세기 단계에 해당하는 철부가 압록강 중류 지역에 위치한 위원 용연동 유적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戰國계 절기라는 점과 무산 호곡 유적에서 漢의 五銖錢이 출토되고 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삼았다. 이후 고구려가 성장하면서 고구려 중심지로부터 함흥-두만강 일대를 서로 연결하는 교통로를 장악함으로써, 이 일대의 풍부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수송받았을 것으로 파악하였다.²⁷⁾ 물론 여기서 언급한 교통로는 연변 지역보다는 함경도 일대에 보다 적합한 것이기는 하지만 참고할 만하다.

“北沃沮를 置溝婁라고도 하며, 南沃沮와는 800여 리 떨어져 있다”는 『三國志』 魏書 東夷傳의 기록이나, 고구려의 영역이 “요동 남쪽으로 천여 리에 이르고, 동으로는 柵城에 이르고 남쪽에는 小海, 북으로는 부여의 옛 땅(舊夫餘)에 이른다”라는 『魏書』 列傳의 高句麗傳을 고려할 때, 북옥저의 중심지는 책성이 위치한 연변 지역이었을 것이다. 『삼국지』에는 고구려가 옥저를 병합한 이후에 그 지역에 大人을 두고 使者로 삼고, 大加에게 조세를 통괄 수납케 하

25) 鄭永振, 1999, 앞의 논문, 410~411쪽

26) 鄭永振, 1990, 앞의 논문, 304쪽

27) 이현혜, 2010, 「沃沮의 기원과 남쪽 문화 성격에 대한 고찰」, 『韓國上古史學報』 70, 韓國上古史學會, 41~67쪽

여 천 리나 되는 거리에서 자원(貂·布·魚·鹽·海草類)을 거둬들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임상선에 따르면, 697년 唐에서 죽은 고구려 유민 高慈의 묘지명에는 그의 선조인 量이 고구려의 三品柵城都督位頭大兄兼大相을 역임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고 한다.²⁸⁾ 책성은 지방통치 중심인 大城에 해당하고, 책임자 도독은 禰薩에 해당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고구려에서 책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책성은 고구려의 동쪽 영역을 관할함과 동시에 주변의 풍부한 물자를 고구려의 중심지로 운송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연변 지역의 평지성은 이와 같은 고구려의 지방 지배전략과 맞물려 등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보통 평지성은 산성과는 달리 군사적인 성격보다는 행정 지배 방식과 보다 깊은 관련이 있다. 연변 지역 고구려 평지성은 대부분 평야의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길목 혹은 외부에서 중심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의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평지성의 입지 조건이 고구려가 연변 지역을 대하는 전략적인 방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평지성이 고구려의 중심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 그 규모가 큰 것도 주민의 거주와 함께 최소한의 방어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 추후 검증되어야만 할 것이다.

28) 임상선, 2006, 「발해 '東京'지역의 고구려 문화 요소」, 『高句麗研究』 25, 高句麗研究會, 57쪽

V. 맺음말

이상으로 연변 지역 고구려 유적의 현황과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앞서 연변 지역 고구려 유적과 유물의 연구를 위한 기초 고고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보고된 자료 외에도 연변대학 발해사연구소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검토하여 관련 자료를 추가로 보고하였다. 연변 지역의 고구려 연구에 기초 자료를 보강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으나 아쉽게도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연변 지역 고구려 연구와 관련하여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연변 지역이 고구려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현재 연변 지역의 고구려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고고학적인 조사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구려에서 발해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1930년대 후반 일본인 연구자들이 채집한 연변 지역의 고구려와 발해 유물을 검토하고, 이를 집안이나 평양, 그리고 길림 등지에서 출토된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구려 유물 및 서고성이나 상경성과 같은 발해 도성에서 출토된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발해 유물과 비교 검토하였다.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은 기와가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평기과가 가장 많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는 대부분 고구려나 발해의 와당과 관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 기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평기와와 관련한 연구 성과는 접할 수 없었다. 분명 발해 중기 이후의 평기와는 고구려의 것과는 문양이나 색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발해 초기의 자료들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분하는 초보적인 작업도 쉽지 않았다. 일부 지두문 기와의 경우에는 집안 고구려 왕릉에서 출토된 것과 서고성이나 상경성에서 출토된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 예도 있어, 연변 지역에서 고구려와 발해 유물이 섞여 있는 유적의 출토 유물은 그 시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두문 기와는 보통 회색조에 무문양이 많은데, 연변 지역의 일부 지두문 기와는 등면에 승문이 타날된 예, 내면 포목흔이 지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예, 적갈색 색조를 띠고 있는 예 등 과도기적인 특징을 보이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확인은 추후의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다.

이 밖에도 이번 연구에서는 연변 지역에서 고구려 와당이 발견된 사례가 매우 드물고, 그 수량도 매우 적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보고된 와당 또한 전형적인 고구려 양식이라기보다는 변형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와당의 제작 시기와의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후 자료의 증가를 기대해 본다.

한편, 연변 지역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유적은 대부분 성곽으로, 무덤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적석층 계통의 묘제가 보고된 바 있지만, 전형적인 고구려 적석총과는 거리가 있고 부장된 토기 또한 발해 시기로 볼 수 있어 본고에서는 해당 묘제를 발해 시기로 판단하였다. 연변 지역이 책성이 소재한 고구려의 중요한 지역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므로, 이후 연변 지역의 고구려 묘제를 밝히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연변 지역의 성곽은 산성이 아닌 평지성 중심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시 다른 지역들과는 다른 점이다. 도성 지역을 제외한다면, 규모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이었다. 본고에서는 연변 지역의 평지성의 분포 양상은 고구려의 지배 방식 내지는 전략과 맞물려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변 지역의 고구려 성곽에 대한 고고학 발굴조사가 실시된 예가 없으므로,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연변 지역의 고구려 평지성이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논문〉

- 朴紉鎭, 2010, 『渤海 石築墳 研究』, 高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박진석, 2008, 「高句麗 柵城 遺址 三考」, 『東北亞歷史論叢』 20, 동북아역사재단
- 방학봉, 1999, 「고구려 책성의 위치에 대한 고찰」, 『京畿史學』 3, 京畿史學會
- 양시은, 2010,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高句麗渤海研究』 36, 高句麗渤海學會
- 양시은, 2010, 「일제강점기 고구려 발해 유적조사와 그 의미: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高句麗渤海研究』 38, 高句麗渤海學會
- 魏存成, 1999, 「길림성 내 고구려 산성의 현황과 특징」, 『高句麗山城研究』(『高句麗研究』 8), 학연문화사
- 이남석, 2005, 「유적으로 본 계승관계」,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 관계』, 연구총서 7, 고구려연구재단
- 李成制, 2009, 「高句麗와 渤海의 城郭 운용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延邊地域분포의 성곽에 대한 이해를 겸하여」, 『高句麗渤海研究』 34, 高句麗渤海學會
- 이종훈, 2005, 「高句麗 柵城유적에 관한 辨析」,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의』, 高句麗研究財團
- 이현혜, 2010, 「沃沮의 기원과 문화 성격에 대한 고찰」, 『韓國上古史學報』 70, 韓國上古史學會
- 임상선, 2006, 「발해 '東京'지역의 고구려 문화 요소」, 『高句麗研究』 25, 高句麗研究會
- 鄭永振, 1990, 「연변지구의 고구려유적 및 몇 개 문제에 대한 탐구」, 『韓國上古史學報』 4, 韓國上古史學會
- 鄭永振, 1999, 「延邊地域의 城郭에 대한 연구」, 『高句麗山城研究』(『高句麗研究』 8), 학연문화사
- 정영진, 2006, 「고분 구조로 본 발해 문화의 고구려 계승성」, 『고분으로 본 발해 문화의 성격』, 연구총서 19, 동북아역사재단

〈단행본〉

- 강인욱 외, 2008,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연구총서 37, 동북아역사재단
- 孔錫龜, 1998,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書景文化社

- 國家文物局, 1993, 『中國文物地圖集－吉林分冊』, 中國地圖出版社
- 吉林省文物志 編委會主編, 1984, 『龍井縣文物志』
- 吉林省文物志 編委會主編, 1984, 『和龍縣文物志』
- 吉林省文物志 編委會主編, 1984, 『琿春縣文物志』
- 吉林省文物志 編委會主編, 1985, 『延吉市文物志』
- 노태돈, 2000,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東潮·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 滿洲國民生部 編, 1942, 『間島省古跡調査報告』, 滿洲國古蹟古物調査報告 第三編
- 연변박물관 연변문화유물략편 집필소조, 1989, 『연변문화유물략편』, 연변인민출판사
- 王禹浪·王宏北, 1994, 『高句麗·渤海古城址研究滙編』, 哈爾濱出版社
- 齋藤優, 1978, 『半拉城と他の史蹟』, 半拉城史刊行會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 Consideration of Koguryo Remains in the Yanbian Region

Yang Si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chaeologically consider the Koguryo remains in the Yanbian Region. Yanbian was the important area for the construction of fortresses (Chaekseng, 柵城) by Koguryo. But the direct evidence of Koguryo's methods of control do not exist in historical records. This issue can be solved only by archaeological approaches to Koguryo relics and artifacts. To do this, excavations and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must be conducted. However, in reality it is impossible to do that. Thus I investigated the artifacts held at the Institute of Balhae History at Yanbian University and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to find Koguryo remains.

As a result, more than ten Koguryo remains in the Yanbian Region were found. There also exist the remains of eight Koguryo fortresses built in flatland areas and two mountain fortresses, are bigger than other Koguryo's flatland fortress except for those in the capital area. These patterns of Koguryo fortress in Yanbian differ from other regions in China.

To better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Koguryo fortresses in Yanbian, this paper focuses on local governing strategies. Fortress construction presumes a need to reinforce defense on traffic routes and to protect the local residents.

Keywords

Koguryo, Yanbian, fortres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延邊長城의 現況과 性格

임찬경 | 국학연구소 연구원

I. 머리말

중국 吉林省 延邊朝鮮族自治州(이하 '延邊'으로 줄임) 경내에는 두 곳의 장성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는 和龍市 土山鎮 東山村 동북쪽 야산의 봉화대 인근에서 시작하여 和龍市·龍井市·延吉市·圖們市 일대를 가로질러 延吉市와 圖們市의 경계 지점인 鷄林 북쪽의 산 능선까지 연결되는 약 150km 길이의 장성 구간이다. 다른 하나는 琿春市 春化鎮 分水嶺村 동쪽 1km 지점의 啦字牌 북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圖們市 경내까지 약 200km 정도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성 구간이다.

두 곳의 장성 구간 중 琿春 일대의 장성 구간이 더 이른 시기에 조사되어 보고되었다. 魏聲籲는 1920년대에 琿春 일대의 古城들을 조사하였는데, 그는 그 구간의 장성을 邊濠로 인식하여 기록하였다.¹⁾ 和龍·龍井·延吉 일대의

※ 투고일: 2012년 5월 18일, 심사일: 2012년 11월 11일, 게재 확정일: 2012년 11월 23일

1) 魏聲籲, 1931, 「琿春古城考」, 『東北叢刊』第15期, 6쪽

장성 구간은 1941년에 작성된 滿洲國의 보고서에 처음으로 邊壕로 기록되었다. 두 곳의 장성이 문물 기관의 조사를 거쳐 학계에 알려지고 연이어 관련 연구 성과가 발표된 것은 1980년 이후다.

사실 연변장성은 문물로서의 그 실체도 아직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못한 실정이다. 1980년대 초에 연변 각 市와 縣의 文物志를 작성하면서 연변장성 전체 구간에 대한 초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조사 성과들이 담긴 文物志 등은 이후의 연구에 기초자료로서 줄곧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地表調査 수준의 간략한 조사 자료, 그러한 조사 자료와 함께 간단한 답사 자료 등을 활용한 몇 편의 연구 성과들로 인하여 연변장성의 실체와 그 건축 主體 및 年代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제출되어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지금까지 출간된 각종 문헌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변장성의 발견과 조사 및 연구 현황을 概觀하면서, 동시에 본고의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차원에서 2011년 4월에 진행한 현지답사 등에서 수집한 자료로서 연변장성의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장성 일반에 대한 여러 연구 성과들을 분석하면서 연변장성이 장성 일반으로서 지니고 있는 성격과 함께 역사적·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형성될 수밖에 없는 연변장성의 특성을 검토해 보고, 나아가 연변장성의 건축 주체와 연대 문제에 대해 概觀해 보고자 한다.

琿春 일대의 장성에 대해 魏聲猷는 「琿春古城考」에서 邊壕로 지칭하였고, 그 건축 주체와 연대에 대해서는 “女眞이 興起할 때 고려와 서로 경계를 다투면서 실제로 交戰하는 충돌이 일어났는데, 여기저기의 옛 보루는 그 유적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²⁾ 이러한 초기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그 이후의 조사 및 연구 성과들 중에서 琿春 일대의 장성을 邊壕로 지칭하는 경향도 나타나게 되었다.³⁾ 그러나 분명하게 邊壕와 장성은 다른 개념이

2) 魏聲猷, 1931, 앞의 논문, 6쪽

3) 「琿春古城考」보다 뒤에 출간된 『滿洲古蹟匯編』에 당시 間島省이었던 연변 일대의

며,⁴⁾ 비록 琿春 구간의 장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자료에 근거하더라도 琿春 일대의 관련 유적도 邊壕보다는 장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사와 연구의 한계로 인해, 본고에서는 琿春 일대의 장성에 대한 현황 조사와 그 조사 자료에 따른 장성으로서의 특점 및 성격 규정 등은 함께 진행하지 못하고 이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하였다.

본고에서 그 현황 조사와 검토의 대상을 和龍市·龍井市·延吉市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장성에 한정함으로써 아래의 본문 전체에서 연변장성이라 함은 琿春 일대의 장성을 제외한 和龍市·龍井市·延吉市 일대 등의 장성 유적만을 지칭함을 미리 밝혀둔다.

II. 연변장성의 현황

1_ 연변장성의 발견과 조사 및 연구 概觀

연변장성이 문헌에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1941년의 일이다. 滿洲國의 民生部 厚生司 教化科에서 편찬한 『滿洲古蹟古物名勝天然記念物彙編』에 기록된 것인데,⁵⁾ 그 내용을 원문 그대로 도표로 작성해 보면 <표 1>과 같다.

장성을 모두 邊壕로 기록하고 있다. 『琿春縣文物志』(1984)에도 邊壕로 기록하고 있다.

4) 景愛, 2006, 『中國長城史』, 上海人民出版社, 345~352쪽

5) 民生部厚生司教化科, 康德八年十月, 『滿洲古蹟古物名勝天然記念物彙編』, 99쪽

〈표 1〉 『滿洲古蹟古物名勝天然記念物彙編』의 邊壕(현재의 명칭 '연변장성') 관련 기록

間島省			
延吉縣			
類別	名稱	所在地	沿革
古蹟	邊壕	縣四圍邊壕	此壕之建築與年代無可考相傳爲遼金時代遺蹟。

1941년 당시의 연변장성은 滿洲國 間島省 延吉縣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邊壕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그壕의 건축 주체와 연대는 알 수 없고 단지 예로부터 전해 오는 말에 따르면 遼金 시기의 유적이라는 정도의 인식을 전하고 있었다.

1908년 淸의 官吏인 吳祿貞이 현지고찰을 근거로 『延邊邊務報告』를 작성하면서 延邊의 역사와 유물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했다. 1910년대 초부터는 일본 학자인 鳥居龍藏·內藤虎次郎·關野貞·鳥山喜一·藤田亮策 등이 間島省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면서 그 결과물로 『間島省古蹟調查報告』(1941) 등이 발표되며 연변 일대의 유적과 유물이 소개되었다.⁶⁾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각종 조사보고서에도 연변장성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연변장성에 대한 문물 관련 연구자의 관심과 발견 및 초보적인 조사와 연구는 1980년대 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980~1985년 사이에 朴龍淵·嚴長錄·呼國柱·楊再林·서학봉 등 연변박물관의 館員들이 연변장성을 연이어 조사하였다. 『延邊日報』의 徐學毅도 1984~1985년에 걸쳐 장성을 조사하였다.⁷⁾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1983년 朴龍淵은 발해 中京과 관련된 그의 논문 속에서 연변장성에 대

6) 『吉林省文物志』編委會가 主編한 『和龍縣文物志』(1984), 『龍井縣文物志』(1984), 『延吉市文物志』(1985)의 '文物工作大事記' 부분 참조. 일제강점기 만주 지역의 고구려 및 발해 유적을 일제가 조사한 과정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도 참고했다. 양시은, 2010, 「일제강점기 고구려 발해 유적조사와 그 의미」, 『고구려발해연구』 제38집

7) 박용연, 1989, 「연변 옛장성에 관하여」, 『조선학연구』 제2권, 191~192쪽

한 당시까지의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장성은 발해 中京의 衛城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⁸⁾ 이것이 연변장성을 언급한 첫 논문으로 확인된다.

특히 1984년에는 연변의 각 市와 縣에서 文物志를 편찬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문물 관련 부분 담당자들이 문물일제조사를 전개했는데, 이 기간에 각지의 연변장성에 대한 발견과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1984년 11월과 1985년 11월에 출판된 延吉·龍井·和龍 지역의 文物志에 연변장성이 마침내 역사적 실체를 지녔던 문물로서 기록될 수 있었다.⁹⁾

그러므로 연변장성이 발견 및 조사되어 공식적인 문물로 기록되고, 또 그러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그 이후의 조사 및 연구의 진전은 1984년 연변 각 市 및 縣의 文物志를 작성하는 과정에 얻어진 귀중한 성과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당시 출판된 文物志들은 이후에 전개된 연변장성 연구에서 핵심적인 기초자료가 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형성된 연변장성에 대한 관심과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1985년 友之는 ‘길림 동부의 연변 지역에서 古長城을 발견했다’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며 연변장성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에 앞서 徐學毅는 1984년과 1985년에 연변장성을 조사하면서 그 결과를 『延邊日報』와 『紅色社員報』에 보도했는데, 友之는 그 보도를 인용하며 연변장성의 발견과 그 의미를 학계에 알리려는 의도의 글을 작성한 것이다. 그 글에서 友之는 연변장성의 건축 주체 및 연대를 東夏國과 관련시켜 설명하려는 徐學毅의 관점에도 동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友之는 그 글에서 延邊古長城의 발견으로 동북지역의 동부에서도 중국의 전통적인 군사방어시설인 장성을 쌓았음을 알게

8) 朴龍淵, 「關於渤海中京問題的商榷」, 『延邊文物資料匯編』, 110쪽

9) 『吉林省文物志』編委會가 主編한 『和龍縣文物志』(1984), 『龍井縣文物志』(1984), 『延吉市文物志』(1985) 참조. 특히 『和龍縣文物志』(1984)의 ‘序言’에는 文物志 작성을 위한 60여 일 동안의 야전조사에서 邊牆, 邊壕, 烽火臺 20여 곳을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文物志 작성을 위한 답사 과정에서 연변장성의 발견과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되었으며, 연변에서의 이러한 고고학적 발견은 장성의 역사와 동북지방 역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중요한 고고발견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¹⁰⁾ 友之의 이 글은 연변장성이 중국 학계에 자못 널리 알려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6년 徐學毅는 연변장성에 대한 자신의 조사 결과를 논문 형식으로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을 통해 연변장성을 발해국의 衛城으로 보는 견해를 비판하면서 장성이 東夏國 시기의 産物이라는 자신의 관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혔다.¹¹⁾ 이렇게 제시된 관점은 뒤이은 연변장성의 건축 주체 및 연대에 관한 쟁점을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

그에 뒤이어 1987년 李鍵才는 그의 논문에서 연변장성의 구조와 건축 연대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음에도 전문적 논문 발표가 없는 학계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고고학 조사 자료와 문헌 기재를 근거로 형성한 그의 관점 즉 연변장성은 金代長城이었다는 주장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에서 李鍵才는 일찍이 1978년 10월에 和龍과 龍井 두 곳 경내의 고고학적 자료조사를 전개하면서 두 지역들에 장성 유적이 있음을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¹²⁾

1988년에 연변박물관은 通史의 성격을 띤 문물자료집인 『延邊文物簡編』을 편찬했다. 이 책은 고대문물편, 근현대문물편으로 나누어 연변의 구석기시대부터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는 시점까지의 문물들을 通史의으로 정리하고 있다. 사실 이 책은 1983~1986년까지 진행된 연변지역에 대한 전면적 문물일제조사의 성과와 함께 1984~1985년에 모두 완성된 연변지역 각 지방 文物志를 통해 나름대로 연변 역사 연구의 튼튼한 기초를 확립했다고 판단하고, 그 성과들을 엮은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 책은 당시까지의 연변 역사 문물 전반에 대한 공식적 문물 기관으로서의 연변박물관의 權威的·公式的 해석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10) 友之, 1985, 「吉林東部延邊地區發現古長城」, 『遼金契丹女真史研究』第1期

11) 徐學毅, 1986, 「延邊古長城考察報告」, 『東疆學刊』第2期

12) 李鍵才, 1987, 「東北地區中部的邊疆和延邊長城」, 『遼海文物學刊』第1期

그러므로 1988년의 『延邊文物簡編』에서 연변장성에 대해서는 고구려가 쌓았고 뒤의 발해와 東夏國 시기에 계속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서술했는데,¹³⁾ 이는 연변 지역 문물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1986년에 연변박물관이 장성 구간에서 직접 채취한 목탄 표본의 탄소연대측정 결과를 장성 건축 연대 추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연변장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헌 자료가 발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탄소연대측정에 의한 자료의 확보는 연대 판단에 관건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의 출판 이후 연변 지역의 연구자들은 대체로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9년에 朴龍淵은 그의 논문에서 연변장성의 성격을 고구려 시기에 쌓은 장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¹⁴⁾ 이는 그가 1983년에 작성한 발해 中京과 관련한 논문 속에서 연변장성을 발해 시기와 관련시켜 설명한 관점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더 시도하면서 장성을 고구려 시기와 관련되도록 遡及解釋하여 그 건축 연대를 특히 강조한 논문이기도 하다.

1990년에 鄭永振은 그의 논문에서 연변장성의 건축 연대를 金 및 東夏國으로 보는 견해들을 비판하면서 장성은 고구려 시기 挾婁 및 勿吉의 남침을 막기 위해 쌓은 것으로서 그 後代의 국가들도 계속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¹⁵⁾ 이 논문은 한국의 학술지에 처음으로 연변장성을 소개하는 논문이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을 통해서 한국 사학계도 연변 지역에 고구려 시기에 쌓아졌을 가능성이 높은 장성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에 朴龍淵은 장성 관련 논문 제출을 통해 고구려 시기에 연변장성을 쌓았다는 관점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¹⁶⁾ 이 논문은 1995년에 한국에도 소개

13) 延邊博物館『延邊文物簡編』編寫組, 1988, 『延邊文物簡編』, 延邊人民出版社, 61~62쪽

14) 朴龍淵, 1989, 앞의 논문

15) 鄭永振, 1990, 「연변지구의 고구려유적 및 몇 개 문제에 대한 탐구」, 『韓國上古史學報』 제4호

16) 朴龍淵, 1994, 「동북지구의 고구려장성」, 『고구려 유적과 유물 연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되었는데,¹⁷⁾ 역시 한국 사학계가 고구려 시기에 쌓여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변장성에 관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뒤 鄭永振과 嚴長錄은 2000년에 출판된 그들의 共著인 『延邊古代簡史』에서 연변장성이 고구려가 통치하는 북옥저인들이 읍루인의 南侵을 저지하기 위해 쌓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⁸⁾

중국 학계의 연변장성 관련 연구가 소개되면서 그에 관심을 가진 한국 학계의 연구 성과도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 학계에서 연변장성에 대해 처음 연구한 이는 金賢淑이다. 金賢淑은 2000년에 작성된 그의 논문에서 연변장성이 이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고구려에서 조성하였으며, 당시 이 지역의 사회변화를 동부여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연변 지역에 조성되었던 고구려의 장성을 통해 그 지역사의 변천 과정, 즉 동부여의 성립과 소멸 과정 및 고구려의 동부여 지배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다.¹⁹⁾

李成制도 고구려 시기 연변 지역에 분포되었던 성곽을 분석하면서 일정한 구간의 장성 지향방향이 남쪽으로 치우친 점에 주목하여 그 축조 연대를 고구려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점을 2009년에 제시하였다.²⁰⁾

북한 학계의 최승택은 2010년에 연변장성의 간단한 현황과 함께 축조 연대를 고구려로 보는 관점을 소개하였다. 그는 장성 유적들이 和龍 및 延吉 일대와 琿春 일대로 갈라져 있다는 점과 고구려와 발해의 축성 방식의 공통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 유적들을 발해의 지역방위를 위한 장성으로 볼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고, 연변장성의 구체적인 축조 연대와 목적에 대해 앞으로 더욱 연구를 심화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²¹⁾

연변장성에 대해서는 최근 중국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17) 박용연, 1995, 「東北地區의 高句麗長城」, 『中國境內 高句麗遺蹟 研究』, 예하

18) 鄭永振·嚴長錄, 2000, 『延邊古代簡史』, 延邊大學出版社, 46~47쪽

19) 金賢淑, 2000, 「延邊地域의 長城을 통해 본 高句麗의 東夫餘支配」, 『國史館論叢』 제88집

20) 李成制, 2009, 「高句麗와 渤海의 城郭운용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 『高句麗渤海研究』 34輯

21) 최승택, 2010, 「연변지역에서 알려진 장성유적」, 『조선고고연구』 제4호

알려졌다. 이 조사는 중국 전국 각지의 장성을 조사하는 국가사업의 일환이다. 2010년 3월 26일 延吉市에서 吉林省長城資源調查工作會議과 함께 조사인원 배양훈련반 개설 의식을 거행하였는데, 이 회의는 길림성의 長城保護工程 항목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연변 일대의 장성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될 것이라고 한다.²²⁾ 그 결과가 기대된다.

2_ 연변장성 유적 概觀과 현황

위에서 살펴보았듯, 연변장성은 고대의 어느 시점에 건축되어 군사적 방어와 관련된 시설로 활용되다가 뒤에 用度廢棄되면서 역사적 기억에서 점차 사라져 왔던 것 같다. 1941년의 『滿洲古蹟古物名勝天然記念物彙編』에 邊壕라고 기록될 때에도 그 흔적은 남았고 일종의 고대 군사시설이라고는 여겨질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유적의 概況이나 건축 주체와 연대에 관련한 체계적 인식이 형성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980년부터 연변박물관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로서 1984년 이후 연변 각 지역의 文物志에 연변장성이 문물로 기록되면서, 관심과 연구가 촉진될 수 있었고, 이후의 연구를 통해 연변장성의 건축 주체와 연대에 대한 서로 다른 몇 가지 관점들이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도 연변장성 本體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발굴 및 조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연구자들은 1984년과 1985년에 작성된 文物志의 관련 기록, 1986년 장성 구간에서 채취한 목탄 시료에 의한 탄소연대측정 자료, 몇몇 현지 연구자의 답사 자료 등을 통해 연변장성에 접근하고 또 그에 따른 결론들을 推論 형식으로 제출하며 논쟁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4월 이후 연변장성이 포함된 吉林省의 여러 장성 유적들에 대해 중국 정부 차원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그

22) '省長城保護工程項目正式啓動'(延邊信息港, 2010-3-29)

결과가 기대된다고 위에서 이미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1980년대에 출판된 文物志 등에 주로 의존하여 연변장성의 유적을 概觀하고 또 답사로 얻은 자료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연변장성을 처음으로 학술논문에서 언급한 연구자는 朴龍淵인데, 그의 1983년 논문에서는 연변장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長城:

현지에서는 흔히 ‘萬里長城’ 혹은 邊壕嶺으로 부른다.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이 장성의 서남쪽 끝은 西古城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7.5km 떨어진 海蘭河가 흐르는 서쪽 산 위에서 시작된다. 이 곳은 海蘭江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和龍과 福洞 방향을 오가는 교통로를 지키는 요충이다. 장성은 이곳으로부터 대체로 동북 방향으로 和龍縣의 西城, 龍門公社(譯者注:公社는 1958년에서 1978년까지 중국에서 쓰던 행정단위의 명칭으로 ‘人民公社’를 말한다. 뒤에 鄉이란 단위로 바뀌었다. 이 글 전체에서의 公社는 모두 鄉으로 고치는 것이 오히려 맞는 표현이다), 延吉縣의 細鱗河, 銅佛, 八道 등의 公社를 거친 이후 동남쪽으로 烟集公社와 長安公社를 지나고 줄곧 延吉市 동쪽 약 15km 지점의 磨盤山 부근에 이른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며 和龍과 延吉 두 縣의 경내를 지나가는데 총 길이는 100km에 가깝다 이 장성은 대체로 自然地勢를 이용하여 쌓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중 어떤 곳은 산꼭대기를 지나고 어떤 곳은 산허리에 쌓아졌으며, 그 밖의 몇 곳 안 되는 지역은 연이어지는 봉우리를 지나며 혹은 山谷과 평원도 가로지른다. 성벽은 대부분 土築이며, 혹은 土石混築과 石築도 있다. 오랜 시간의 빗물에 침식되고 또 개간 등의 원인으로 성벽은 어떤 곳에서는 완전히 무너졌다. 아직 남아 있는 아랫 부분의 너비는 5~7m이고 높이는 1~2.5m이다. 장성이 지나는 부근의 산 정상에는 일반적으로 모두 烽火臺가 있는데, 직경은 15~30m 정도이며 높이는 약 3~5m이다. 현재 조사된 곳은 모두 10곳이다. 부르하통하 이북은 자세히 답사하지 못하여 잘 알 수 없다. 이 장성의 年代에 대해 참고할 문헌 기재는 없다. 지리위치로 볼 때 그 서남쪽은 西古城의 서부와 북부 5~7.5km 지점을 둘러싸고 그 뒤 동북 방향으로 뻗어가고 있다. 그 동부는 동북으로 10~15km 지점에서 延吉市를 둘러싸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장

성은 頭道平原과 延吉平原의 서부와 북부를 둘러싸고 있다. 이들 평원의 남쪽 山地에는 松月山城, 楊木頂子山城, 金谷山城, 船口山城 등 및 邊壕와 烽火臺가 있다. 장성 부근에는 細鱗河日新遺蹟, 烟集公社台岩古城堡 등 발해 유적이 있다. 장성 부근의 교통요지에는 八家子南山山城, 獐項古城, 太陽古城 및 山城, 城子山山城 등이 있다. 지리위치와 발해 유적의 분포 상황, 頭道平原·東盛平原·延吉平原 일대에 발해 유적이 비교적 많은 상황에 따르면 이 장성은 발해 中京의 衛城일 가능성이 있다.²³⁾

위의 장성에 대한 서술은 필자가 西古城이 발해의 中京임을 입증하기 위해 西古城 주위의 중요한 여러 발해 유적을 설명하는 과정에 장성도 하나의 발해 유적으로 분류하며 덧붙인 것이다. 위의 서술 중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하면”이라는 부분의 ‘조사’는 1980년 초부터 논문의 필자가 포함된 연변박물관의 다섯 명 관원, 즉 朴龍淵·嚴長錄·呼國柱·楊再林·서학봉 등의 ‘장성에 대한 조사’를 말하는 것이다.²⁴⁾ 위의 서술에 따르면, 당시의 조사는 장성의 양쪽 끝 지점을 확인하고 양쪽 끝 지점을 잇는 선을 파악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조사조차도 100여 km라는 거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쉽지 않았을 것이다. 위의 서술은 전적으로 그 논문의 필자 본인도 직접 참여하여 얻은 ‘조사에 의한 자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의 논문에서 각 부분의 서술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부르하통하 이북은 자세히 답사하지 못하여”라는 부분이 보이는 것처럼 당시까지는 아직 조사하지 못한 구간도 여럿 되었을 것이다. 당시까지 발견한 봉화대도 10곳 정도였다고 한다. 1984년 출간된 文物志에 따르면, 和龍縣에서 5곳의 봉화대가 발견되었고, 龍井縣에서도 수십 곳의 봉화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延吉市 구간에서 발견되었을 봉화대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수십 곳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므로 1988년에 출판된 『延邊文物簡編』에는 봉

23) 朴龍淵, 1983, 앞의 논문, 110쪽

24) 朴龍淵, 1989, 앞의 논문, 191~192쪽

화대의 숫자를 수십 곳으로 표현했고,²⁵⁾ 朴龍淵의 1989년 연변장성 관련 논문에서는 “성벽은 일반적으로 望臺나 烽火臺로 이용하기 좋은 산꼭대기를 거쳐 지나가는데, 이런 산꼭대기마다 성벽 옆에 흙이나 돌로 쌓은 墩臺가 있다. 비교적 평탄한 곳에서 2~3리씩 사이 두고 墩臺를 쌓았다”고만 서술하여 그 숫자도 분명하게 적지 않았다. 장성의 길이도 1983년의 서술에서는 “100km에 가깝다”고 했는데, 朴龍淵의 1989년 연변장성 관련 논문에서는 “근 150km 된다”라고 그 길이가 연장되어 있다.²⁶⁾ 이렇듯, 1983년 朴龍淵의 논문에 조사되어 기록된 장성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뒤이어 출판된 각 文物志와 뒤에 발표된 논문들에서는 당연히 그만큼 더 진전된 조사성과가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현재까지도 연변장성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또 유용한 자료는 연변 각 지역의 文物志 기록이다. 본고의 작성을 위해 2011년 4월에 연변 일대의 장성을 답사하였는데, 그 짧은 기간의 답사는 원칙적으로 연변 일대 각 지역의 文物志에 기록된 장성 관련 내용을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아래에서 연변 일대 장성의 각 구간을 概觀하면서, 먼저 각 지역 文物志의 장성 관련 기록을 소개하며 또 그 기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2011년에 진행한 답사에서 파악한 현황도 덧붙이고자 한다.

1) 和龍 구간의 장성

1984년에 출판된 和龍의 文物志에 기록된 和龍 구간의 장성 概觀은 다음과 같다.

和龍 경내의 古長城:

古長城은 현지에서 흔히 ‘萬里長城’이나 邊牆 등으로 부른다. 장성은

25) 延邊博物館『延邊文物簡編』編寫組, 1988, 앞의 책, 61쪽

26) 박용연, 1989, 앞의 논문, 192~193쪽

海蘭江 北岸의 土山鄉 東山村 二道溝의 산비탈에서부터 쌓여졌다. 이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며 地勢가 險要하여 和龍과 福洞으로 통하는 交通요충을 지킨다. 古長城은 土山, 西城, 龍門의 세 鄉을 통과하여, 亞東저수지를 건넌 뒤 북쪽으로 龍井縣 細鱗河鄉의 長城村 방향으로 뻗어간다.

古長城은 높은 산 험한 고개 사이를 구불거리며, 和龍縣 경내에서만 그 길이가 20km 정도이다. 성벽은 土築이 많이 보이며, 또한 돌로 쌓은 것과 土石混築도 있다. 현재 보존이 비교적 좋은 구간은 西城鄉 明峯에서 邱山 서쪽에 이르는 것, 邱山の 西山 정상에서 土山鄉의 東山村 二道溝 입구에 이르는 것, 龍門鄉의 亞東저수지 남쪽 및 북쪽 양쪽 등이다. 그 나머지 성벽 구간은 다수가 이미 무너져 없어졌다. 보존이 아직 좋은 성벽을 관찰해 보면 벽의 아랫부분은 너비가 5~7m이고, 윗부분의 너비는 1~3m이며, 높이는 1~2.5m이다. 古長城이 지나는 일대에서 또한 烽火臺 유적을 볼 수 있는데, 모두 5곳이 발견되었다. 그 형상과 구조는 비슷하지만, 크기는 서로 다르며, 모두 古長城의 안쪽에 분포되어 있다.

古長城에 대해 단지 地面調査만 했기 때문에 遺物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참고할 문헌도 없어, 그 확실한 건축 年代에 대해서는 이후의 더 나은 고찰과 연구를 기대하고자 한다.²⁷⁾

위의 기록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古長城에 대해 地面調査만 했다”며 당시 이루어진 조사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본고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수집 차원의 현지답사에서도 확인한 사항이다. 아직까지 장성의 어떤 구간에 대해 현지 문물 관련 기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의 文物志 序言에서 1983년 4월 20일에서 6월 22일까지 和龍市 전역의 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 연변장성과 관련한 새로운 발견 성과도 있었음을 밝혔지만,²⁸⁾ 조사자들 스스로 당시의 조사가 연변장성의 건축 주체 및 단계를 과학적으로 밝히기에는 부족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7) 『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 1984a, 『和龍縣文物志』, 70~71쪽

28) 『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 1984a, 위의 책, 1쪽



〈그림 1〉 和龍市 土山鎮 東山村 연변장성 西端 부근의 봉화대 자리

본고의 작성을 위한 2010년 4월의 현지답사에서 연변장성의 西端, 즉 서쪽 起點으로 알려진 지점의 봉화대 유적을 확인했다. 봉화대 중앙의 고도는 약 567m이며 좌표는 대략 북위 42°38'41.75" 동경 129°02'08.68"의 지점이었다. 봉화대 상부의 중심은 원래 불을 피울 목적으로 '□'형의 구멍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위의 사진처럼 이곳은 후대에 누군가가 어떤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더 파헤친 것으로 보였다.

그림 1에서 보이는 20여 m가 넘는 봉화대의 둘레로는 環壕가 파여져 있었다. 이 봉화대는 그 일대에 장성이 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표지였다. 물론 이 봉화대 인근의 장성이 서쪽 起點이 분명한지, 혹시 그 서쪽으로 장성이 더 이어지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

위의 文物志에는 和龍 구간에서 기존에 발견된 봉화대가 모두 장성의 안쪽에 분포되었다고 분명하게 서술했다. 이 서술은 장성의 일반적 구조에 부합한다. 중국 각지의 장성들에서 봉화대는 장성의 안쪽에 설치되어, 장성으로 보호되어야 할 지역으로 경보를 신속하게 전하는 역할을 하도록 조성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이 서술에 주의하여 봉화대의 바깥 방향인 북쪽 지점에서 장성의 유적을 더 확인하려 했지만, 이번 답사 중 봉화대 인근에서 장성이 지

나는 선은 찾을 수 없었다.

이번 답사에서 和龍 경내의 장성은 위의 文物志에 기록된 것처럼 土山鄉－西城鄉－龍門鄉－亞東저수지의 線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성벽 훼손은 심각하였다. 북위 42°43′43.50″ 동경 129°04′46.51″의 지점인 亞東저수지의 長仁河 서쪽 언덕에서 남쪽으로 북위 42°43′00.43″ 동경 129°04′35.64″의 지점까지 약 1.2km 정도의 성벽은 식별이 가능했는데, 그 남쪽은 농경지로 조성되어 확인이 어려웠다. 성벽은 무너져 주저앉았는데, 그 성벽 위에서는 視野가 좋아 동쪽으로 멀리 頭道平原이 넓게 眺望되었다.

2) 龍井 구간의 장성

1984년에 출판된 龍井의 文物志에 기록된 龍井 구간 장성의 概觀은 다음과 같다.

龍井 장성 유적:

장성 유적은 和龍, 龍井 두 縣과 延吉市의 북쪽 山地를 구불거리며 지난다. 土石混築이며, 대부분의 구간에서 산의 능선 혹은 능선의 한 측면에 쌓았고, 일부 구간은 山嶺과 峽谷 및 하천을 가로지른다. 장성은 弧形이며, 고대에 海蘭江과 부르하통하 분지를 둘러싸고 지키기 위한 군사시설로 보인다.

현재 조사한 상황에 근거하면, 장성은 다음 몇 곳을 지난다. 장성은 和龍縣 八家子鄉 豐山에서 시작하여 중간에 和龍縣 西城鄉의 明岩, 龍門鄉의 亞東과 龍門, 龍井縣 細鱗河鄉의 長城과 日新 및 文化와 小北, 桃源鄉의 大箕와 廉明 및 官道와 官船, 銅佛鄉의 泗水, 朝陽鄉의 石山, 八道鄉의 互助와 雙鳳, 延吉市 烟集鄉의 平峰山과 台岩 및 南溪와 利民, 興安鄉의 紅旗(淸茶館)와 廣興, 龍井縣 長安鎮의 磨盤을 거쳐 마지막에 龍井縣 長安鎮 鷄林 北山에 이른다(譯者 注: 文物志 작성 당시와 달리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이후 廣興과 磨盤은 圖們市로 편입되었고, 鷄林은 延吉市로 편입되었다).

장성의 좌우 양쪽에는 수십 곳의 墩臺를 쌓았다. 그중 몇 곳은 현대에

측량 표지 막대를 세워두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고, 다수는 廢棄되어져 있다. 현재 세 곳의 유적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는 和龍縣 亞東村 亞東 저수지 남쪽 海蘭江 지류인 頭道江 右岸의 대지 위에 있다. 남쪽에는 頭道에서 長仁江으로 가는 도로가 있다. 도로 양쪽에 높은 산이 솟아 있는데, 동쪽에 넓은 頭道 평원이 있고 북쪽에는 하천의 협곡이어서 지세가 險要하다. 유적은 土築이며, 장방형인데 길이가 1m이고(譯者注: '1m'라는 기록에는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너비가 14m이며 벽 아랫부분 너비는 6m이고 윗부분 너비는 2m이며 높이는 2.1m이다. 남쪽 벽 위에 갈라진 틈이 있는데, 출입구로 보인다. 두 번째는 延吉市 烟集鄉 平峰山 중턱 대지 위에 있다. 돌로 쌓았으며, 장방형이고, 東西 길이가 21m이며 南北으로 너비가 10m이다. 담의 너비는 1m이고, 높이는 0.5~1m이다. 중간에 한 줄의 南北 방향의 벽이 있어서 유적을 돌로 나누고 있다. 서쪽 벽 밖에 東西로 길이가 8m이고 南北으로 너비가 6m인 건축지가 덧붙여져 있다. 세 번째는 龍井縣 長安鎮 鷄林村 北山 위에 있다. 石築이며 장방형이다. 西南 방향인데, 길이가 27~32m이고 너비는 18~20m이며 벽 너비는 1m이고 높이는 1~1.5m이다. 서남쪽 벽 위에 갈라진 틈이 있는데 너비가 4m이며 출입구로 보인다. 유적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향하고 있어 海蘭江과 부르하통하 사이의 통로를 장악하여 통제한다. 위에 서술한 3곳 유적은 그 규모와 위치한 지리환경으로 분석할 때 장성과 관련이 있는 戍堡로 보인다. 장성에 대한 조사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장성의 양쪽 끝이 어디로 뻗어가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장성의 시대 구분 문제에 대해 현재 학술계에는 의견차이가 있다. 어떤 이는 장성이 西古城 주위에 뻗어있어 마땅히 발해의 장성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이는 장성이 城子山山城을 둘러싸고 있어 마땅히 東夏國의 장성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이는 東古城은 曷懶路의 治所이며 高麗 왕조가 일찍이 曷懶甸을 점령하여 9城을 쌓았으므로 고려 왕조의 장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종 論點은 모두 문헌과 실물의 근거가 부족하다. 때문에 더 진전된 조사와 考證이 필요하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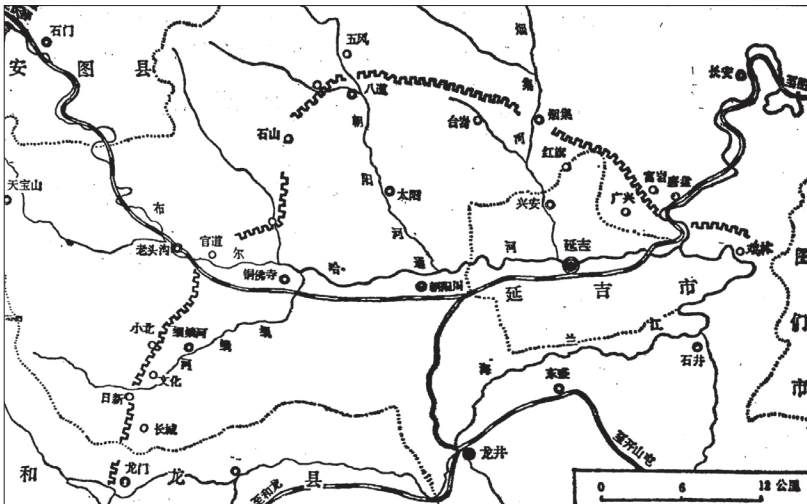
위에 소개한 龍井의 文物志 기록은 독특하게도 연변장성 전반의 노선을

29) 『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 1984b, 『龍井縣文物志』, 99~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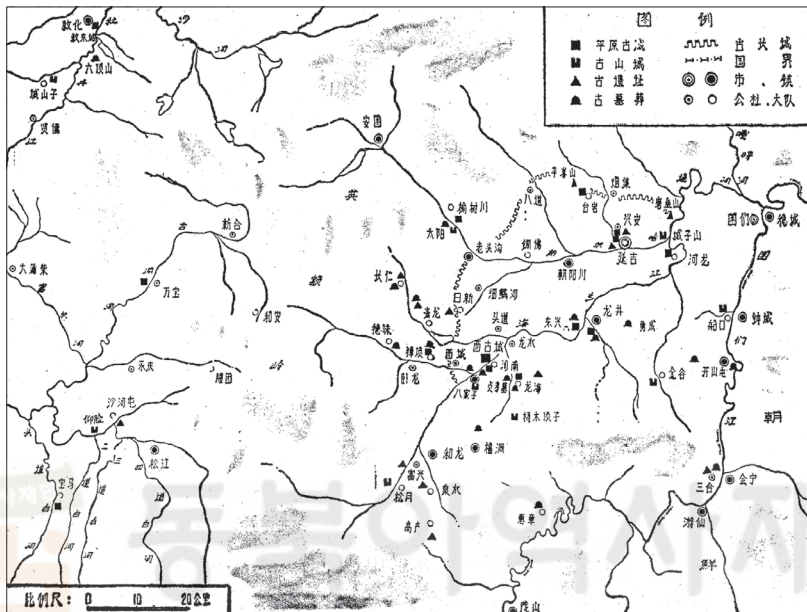
설명하였고, 장성과 관련한 지도까지 덧붙이고 있다. 이미 1983년에 朴龍淵은 그의 논문에 실린 발해 中京 부근 유적 지도에 장성을 표시하는 시도를 했었다. 위의 文物志에 실린 지도, 朴龍淵의 1983년 논문에 실린 지도, 1988년 『延邊文物簡編』에 실린 지도에 그려진 연변장성의 위치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아래에 모두 제시한다.

위에 소개한 자료들은 물론 현지 답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연변장성은 龍井 구간이 제일 길다. 細鱗河鄉 長城, 日新·文化·小北 등 4개 村을 지나고 다시 桃源鄉 大箕·廉明·官道·官船 등 4개 村을 지나 銅佛鄉 泗水, 朝陽鄉 石山과 八道鄉의 互助와 雙鳳을 거쳐서 延吉市 구역의 平峰山으로 장성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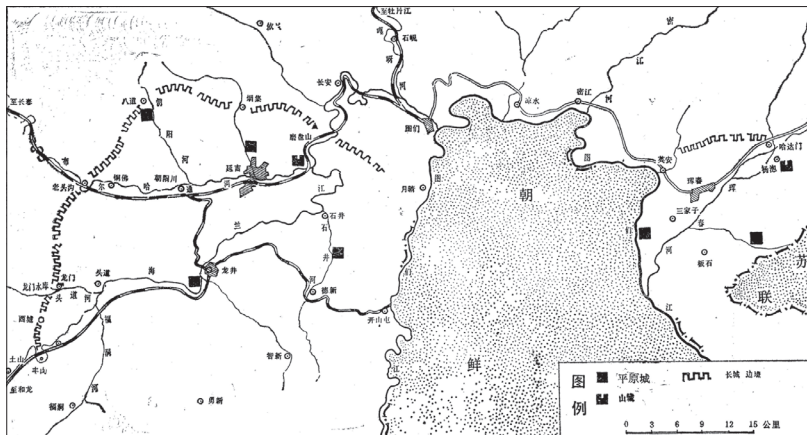
이번 답사에서 현지인들이 성벽이라고 전하는 龍井 구간 文化村 서쪽 약 1km 지점에서 500m 정도의 남북으로 이어진 흔적을 확인하였다(좌표 북위 $42^{\circ}48'43.94''$ 동경 $129^{\circ}06'16.79''$ 에서 북위 $42^{\circ}48'58.18''$ 동경 $129^{\circ}06'20.66''$ 구간까지). 八道鎮과 그 서쪽에 있는 互助村 사이를 지나는 장성과 그 장성 안쪽, 즉 남쪽의 봉화대 한 곳도 확인하였다. 북위 $43^{\circ}00'16.74''$ 동경 $129^{\circ}16'$



〈지도 1〉 龍井縣 文物志(1984)에 실린 장성유적 지리위치도



〈지도 2〉 1983년 차龍淵의 논문에 그려진 연변장성



〈지도 3〉 1988년 『延邊文物簡編』에 그려진 연변장성

56.41" 지점의 봉화대가 있는 능선 서북쪽 산비탈에 장성이 동북에서 서남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장성에서 90여 m 정도 떨어진 산 능선의 봉화대는 둘레가 30여 m며 土石混築된 원형 무덤 모양이다. 봉화대 서쪽에 잇대어 약 17×12m 크기 정도의壕가 있는데 봉화대와 관련된 遺址로 보였다.

3) 延吉 구간의 장성

1984년 출판된 延吉市 文物志에 기록된 장성 概觀은 다음과 같다.

延吉 古長城 및 墩臺:

古長城(俗稱 ‘邊壕嶺’)은 烟集鄉 台岩村 서북 5km 지점의 平峰山 위에 쌓여졌다. 平峰山은 해발 680m인데, 우뚝 높이 솟아 있다. 그 지역은 서북과 동남 및 남쪽을 향해 뻗어간다. 동남쪽은 비교적 넓게 트인 산골짜기이며, 골짜기 안에는 시냇물이 흐르는데 小烟集河라 부르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烟集河로 들어간다. 장성은 平峰山을 거쳐 줄곧 동남쪽 河谷 부근 즉 台岩6隊(譯者注: 隊는 生産隊의 줄임말로 일정한 戶數가 모인 단위의 마을을 지칭하며, 사회주의 조직 형식에 따른 용어다) 북쪽 河谷 부근에서 끝난다.

平峰山 동쪽 끝에서 동쪽 大石砬子 사이의 산어귀 남쪽까지 한 줄의 석벽이 동서 방향으로 쌓여져 있는데 길이는 약 300m이며 너비는 1.8m이고 높이는 70~80cm다. 산어귀 중부에 남쪽으로 깊은 도랑이 있는데, 남북으로 너비가 50m 정도다. 도랑의 동쪽 끝 석벽 북쪽 부근에 方形으로 둘러쳐진 담이 있는데, 동서로 길이가 9m고 남북으로 너비가 12m며, 석벽은 다수가 이미 무너졌다. 장성은 石砬子 동쪽에서 동남으로 방향을 틀어 小烟集河 河谷 서쪽에 닿으며 성벽이 보이지 않게 된다. 平峰山으로부터 구불거리며 이곳으로 뻗어온 성벽의 길이는 2.5km며 대부분 土築으로 흔적이 분명하다.

平峰山 동남 1km 지점의 산 남쪽 비탈에서 인공으로 평평하게 만든 臺地를 발견했는데 동서로 길이가 20m며 남북으로 너비가 15m다. 현재는 매우 두텁게 마른 풀로 덮혀 있는데 腐植土 두께가 20cm에 이른다. 유적 유물이 보이지 않는데 건축지로 보인다.

장성 동남쪽 끝(즉 小烟集河 河谷 서쪽)에 돌로 쌓은 돈대가 있는데,

바닥 직경이 약 15m고 높이가 약 3m다. 돈대 북쪽 10m 지점에 동남 방향의 깊은 도랑 하나가 있으며 곧장 小烟集河 河谷으로 이르는데 길이가 약 50m고 너비가 7~8m며 깊이가 2m 정도인데, 이것은 장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일 수 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台岩 古長城은 서쪽으로 龍井縣 八道鄉 雙鳳까지 연이어지고, 또 구불거리며 和龍縣 八家子의 西山으로 들어간다. 동쪽은 계속 동남쪽으로 뻗어 烟河村 북쪽 산의 墩臺와 서로 연결되고, 烟集河 계곡을 건너, 延吉市 부근의 淸茶館과 城子山을 지나 곧게 鷄林에 닿는다.

古長城은 문헌 기록에 없다. 一說에 고구려 왕조 시기에 읍루인의 남침을 막아내기 위해 옥저인이 쌓았다고 하고, 一說은 발해 中京의 衛城이라 하고, 一說은 金 말기 東夏國이 蒙古 군의 東進을 막기 위한 군사시설이라고 한다. 古長城에 관한 건축 年代는 의견이 다양한데 더 진전된 조사와 고증을 필요로 한다.³⁰⁾

이번 답사로 확인하여 보니, 위의 文物志에 기록한 것처럼 龍井市 雙鳳에서 延吉市 경내로 들어선 장성은 平峰山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곳에는 연변장성의 다른 구간과는 특이한 石築 구간이 나타난다(그림 2). 이번 답사에서 이 구간에 있는 봉화대도 세 곳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모두 土石混築 원형 무덤 모양이었다(그림 3·4).



〈그림 2〉 平峰山 연변장성 石築 구간



〈그림 3〉 平峰山 연변장성 봉화대

30) 『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 1985, 『延吉市文物志』, 64~65쪽

平峰山에서 그 서남쪽 방향의 台岩·烟河·依蘭·淸茶館으로 장성은 이어진다. 淸茶館 구간의 성벽은 대체로 눈으로 윤곽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최근 몇 년 훼손이 더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북위 42°58'35.16" 동경 129°32'09.98"의 지점에 있는 대형의 봉화대는 장성 안쪽, 즉 남쪽에서 延吉市 방향을 잘 眺望할 수 있음은 물론 그 반대편 쪽인 북쪽의 汪淸縣으로 향하는 202번 도로가 있는 山地도 잘 살필 수 있는 지점이었다. 이 봉화대를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 지점들에서 성벽에 잇대어 다수의 무덤을 설치하며 성벽 土石을 파서 사용하면서 훼손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성벽을 자동차가 짓밟아 원형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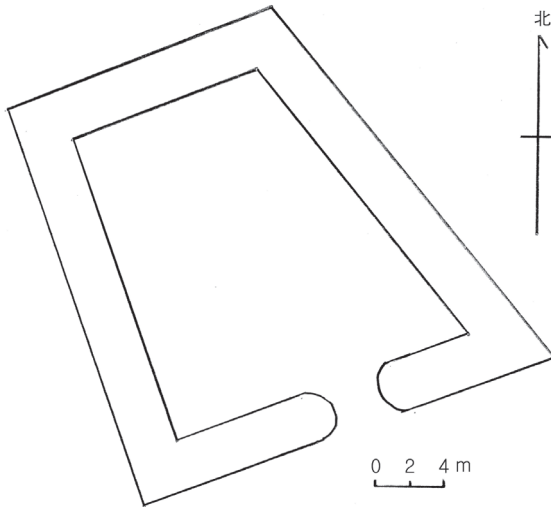


〈그림 4〉 연변장성 淸茶館 구간의 봉화대



〈그림 5〉 淸茶館 구간 성벽의 도로로 인한 훼손

淸茶館 구간을 지난 장성은 圖們市 廣興과 磨盤을 거쳐 城子山山城에 잇닿은 부르하통하 건너편 601고지 북측의 산 능선을 타고 鷄林 北山에 이른다. 이번 답사를 통해, 지금까지 연변장성 동쪽 起點 즉 東端이라고 알려진 지점은 延吉市 小河龍 北山에서 圖們市 지역으로 넘어가는 옛 도로가 산 정상에 이른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200m 정도 거리의 산 정상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곳에는 돌로 쌓은 소형 산성이 있었고, 현지인들은 이를 小山城이라 부르고 있었다. 확인하여 보니 1984년판 龍井 文物志에 그 성격을 戍堡라며 “龍井縣 長安鎮 鷄林村 北山 위에 있다. 石築이며 장방형이다. 西南 방향인데 길이 27~32m, 너비는 18~20m며 벽 너비는 1m, 높이는 1~1.5m다. 서남쪽 벽 위



〈도면 1〉 연변장성 東端의 小山城 평면도

에 갈라진 틈이 있는데 너비가 4m며 출입구로 보인다. 유적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향하고 있어 海蘭江과 부르하통하 사이의 통로를 장악하여 통제한다”고 기록한 지점이었다.

小山城 중심은 해발 509m였고, 좌표는 북위 $42^{\circ}55'26.75''$ 동경 $129^{\circ}40'24.66''$ 였다. 현지에서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小山城 남쪽 성벽은 22.5m 정도이고, 서쪽 성벽은 22.2m 정도였다. 小山城은 불규칙적 장방형을 이루고 있었다. 남쪽 성벽에 문지가 있으며, 문지 폭은 3m 정도였다. 현재 小山城의 남쪽 성벽은 대체로 위의 너비가 약 3m, 기단은 4~5m 정도였으며, 성벽 내부 잔고는 약 1~1.5m였다. 이들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小山城 평면도를 작성하면 〈도면 1〉과 같다.

이 小山城을 통해 이 지점이 고대의 어느 시기에 중요한 군사적 의미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지세가 높은 곳에 위치한 성벽 밖의 비탈 아래로는 圓形 環壕를 파서 小山城을 두르고 있는데, 이는 특별히 군사적 효용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제고점에 위치한 小山城 북서쪽 모서리에서 서쪽으로 능선이 연결되고 있

는데, 이 모서리에서 서쪽으로 4.3km 정도 거리에 城子山山城(磨盤村山城)이 있다. 小山城 동남쪽 모서리에서는 산 능선이 동쪽으로 뻗어내려가며 점차 동북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小山城 동북쪽이 圖們市 방향이며 圖們市의 市區域까지의 거리는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다.

지금까지 小山城 동쪽으로 장성이 이어지며 도문을 지나 더 동쪽으로 나아가 琿春의 장성 구간과 연결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한중 사학계에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현지조사에서도 본고의 연구 범위를 小山城이 있는 지점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小山城 동남쪽 모서리에서 장성이 동쪽으로 더 뻗어나가며 琿春 일대의 장성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이후 연구과제로 남겨놓았다.

이상으로 文物志를 중심으로 기존에 조사 및 연구된 연변장성을 概觀하고, 또한 2011년 4월의 답사자료를 통해 파악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연변장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조사가 시급하다는 사실이다.

Ⅲ. 연변장성의 성격

1_ 연변장성의 장성 특성

중국 고대의 장성들은 當代나 후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구려 千里長城도 역시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고대 문헌에서 연변장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다. 또한 장성 本體에 대한 훼손이 심각하여 현재는 일부 구간들에서 殘壁과 장성 부속시설인 봉화대와 小山城 형태인 堡壘 등이 확인되는 정도다. 그렇지만 부족한 현황 자료에도 불구하고, 연변장성은 연변이라는 위치에 독특한 기원과 형태를 지닌 장성의

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장성이란 고대사회의 변경 일대에 적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흙이나 돌 혹은 벽돌로 쌓은 연속적인 높은 성벽 시설을 말한다. 장성의 起源을 고대 堤防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黃河 발원지에서부터 물의 흐름을 따라 장성이 이어지는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자연 災害를 방지하기 위해 쌓은 고대의 堤防을 戰國時代에 각국이 장성으로 변화시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³¹⁾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 蘇秉琦는 夏家店下層文化의 城이 이른 조합에서 장성의 기원을 찾고 있다.

夏家店下層文化는 북쪽으로 西拉木倫河를 경계로 하고, 남쪽은 永定河를 경계로 하며, 중심 범위는 燕山 북쪽에 있다. 夏家店下層文化가 지닌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은 村落이 河谷 지대에 밀집되어 분포하며, 대부분 방어시설을 갖추면서 土石築의 ‘城堡’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城堡는 遼寧省 喀左縣 한 지역에서도 300여 곳이 발견되었는데, 현대의 주민 거주지에 비교하면 밀집되어 있다. 赤峰 북쪽의 英金河를 따라 밀집되어 분포되면서 일련의 작은 城堡가 띠를 이루고 있는데, 뒤의 燕秦 장성과 平行선을 이루거나 겹치고 있다. 이러한 城堡의 띠는 형식상 ‘장성’으로 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 기능은 유사하다. 漢代 烽燧 유적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장성 작용을 하는 것이다. 秦漢 장성보다 1,000여 년 이른 시기의 ‘長城 原型’으로 부를 수 있다.³²⁾

그러나 중국 학계의 전통적인 관점은 고대의 전쟁에서 장성의 기원을 찾는 다. 즉 大砲 등의 화약을 사용한 무기가 본격적으로 발명되기 이전의 무기 체계에서는 당시 주요한 공격 방식인 接近戰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어시설로서 높고 두터운 城을 쌓아 적의 先制攻擊으로 인한 타격을 막고 나아가 전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도모하고자 했는데, 특히 戰國時代에 이르면 서로 存亡을 걸고 연속적인 전쟁에 빠져들게 된 각국이 불가피하게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31) 牟祥雷, 2008, 「與黃河同行:關於萬里長城的走向」, 『中國三峽』第8期

32) 蘇秉琦 著, 2009, 『中國文明起源新探』, 遼寧人民出版社, 128~130쪽

경쟁적으로 장성을 쌓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秦 이후 각 왕조는 北方 및 西方에 위치한 국가 및 정치세력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장성을 계속 쌓거나 보수했다고 해석한다.³³⁾

연변장성의 기원도 고대의 그 지역에서 장성을 쌓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던 일련의 어떠한 전쟁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 전쟁의 성격이 곧 연변장성의 성격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인일 것이다. 그러므로 고대의 연변 일대에서 역사를 진전시켜 온 여러 민족과 국가들을 戰爭史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연변장성의 기원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연변장성의 기원 문제는 뒤에서 장성의 건축 주체와 연대 문제를 概觀하면서 더 살펴볼 것이다. 먼저 여기서는 연변장성을 쌓도록 만든 특수한 그 지역의 역사적·지리적 상황으로 인하여 형성된 연변장성의 장성으로서의 특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어느 장성이든 장성으로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다. 장성의 定義와 관련시켜 분석하면, 대체적으로 모든 장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장성은 연이어지는 높은 성벽을 갖고 있다. 이는 장성의 구조적·형태적 특징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며,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長城’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되었다. 둘째, 장성은 흙이나 돌 또는 벽돌로 쌓여졌다. 고대의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한 중원과 그 북방의 장성들 대부분은 진흙으로 쌓여졌다. 그러므로 성벽을 표시하는 글자인 牆·垣·墉·壁 등은 모두 ‘土’를 偏旁으로 하게 되었다. 가장 사용하기 편한 소재인 진흙을 다져서 벽체를 만들기 위해 목판을 양쪽에 세우는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다져서 쌓는 기법인 夯築은 夯土版築으로 불리기도 했다. 진흙을 구하기 어려운 山地에서는 돌을 사용했고, 큰 돌이 부족한 경우 벽체 외부는 돌을 쌓고 안에 흙과 작은 돌을 채우고 다지는 土石混築 형태를 띠게 되었다. 셋째, 장성은 적을 방어하는 기능에 중점을 둔 軍事工程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공격적 성격의 군사장비나 설비는 대

33) 王國良 編, 1933, 『中國長城沿革攷』, 商務印書館, 1~7쪽

부분이 이동 가능한 것들인데, 장성은 이동이 불가능한 군사시설로서 설치한 주체의 영역을 지키고 적의 침략을 방어할 목적으로 세워진 전형적인 방어적 군사시설이다. 넷째, 장성은 변경에 쌓는데, 이는 장성의 地理分布의 특점이다. 장성의 군사적 기능이 방어적 시설이기 때문에 장성은 변경 지역의 국경 안쪽에 세우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장성이 국경선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장성으로 국경을 이루지는 않는다. 고대에 국경 자체가 어느 선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도 않았지만, 변경에서의 모순과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장성은 국경 안쪽의 비교적 외지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건설하였다. 다섯째, 장성은 고대의 건축물이다. 장성과 관련하여 언급된 고대라는 개념은 明 시기까지를 말한다. 明 長城을 중국 최후의 장성으로 볼 수 있다.³⁴⁾

연변장성도 위에 언급한 일반적 장성의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그 자체의 특성도 다음과 같이 드러내고 있다.

첫째, 연변장성은 일정한 높이의 성벽으로 길게 연이어지는 장성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에 符合한다. 이 글의 작성을 위한 현지답사에서 이러한 특징을 확인하였다. 위에 인용된 <지도 1~3>에 그어진 연변장성의 線에서 여기저기 성벽이 완전히 소실된 부분들이 많았지만, 좌우 연결 상태를 고려하면 자연적·인위적 침식을 거쳐 현재는 소실된 부분도 고대에는 장성으로 연결되었던 부분임을 추측할 수 있는 情況은 존재하였다. 和龍市 土山鎮 東山村 동북쪽 야산 봉화대에서 시작하여 延吉市와 圖們市 경계 지점인 鷄林 북쪽 산 능선까지 연결되는 약 150km 길이 정도의 장성 구간이 實在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거쳐 그 實在 여부를 자세히 검증할 필요는 있다.

둘째, 남아 있는 성벽을 근거로 판단하면, 연변장성은 지역에 맞는 형태와 소재로 형성되었다. 장성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돌과 흙을 소재로 하여 장성의 線이 지나는 지형에 맞추어 건축된 것이다. 여러 차례 답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돌이 많지 않은 草地인 淸茶館 구간은 土築 혹은 土石混築으로 쌓여졌

34) 景愛, 2006, 앞의 책, 24~30쪽

지만 암석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平峰山 구간은 石築으로 형성되었다. 平峰山 石築 구간은 자연벼랑을 그대로 성벽으로 활용한 부분도 있었다. 龍井과 和龍 사이 일부 구간은 土築으로만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간은 특히 훼손이 심하여 완전히 소실된 부분도 많았다.



〈그림 6〉 淸茶館 구간의 土石混築 성벽



〈그림 7〉 平峰山 구간의 石築 성벽

셋째, 장성의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동할 수 있는 군사시설이 아닌 연변장성은 방어적 성격의 군사시설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한다는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연변장성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즉, 실제로 외부로부터의 침입자와 전투가 벌어졌을 때 연변장성이 그 침입을 방어하는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는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서는 연변장성 일대에 흩어져 있는山城들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변 일대에는 고구려 시기에 쌓은 이후 발해 등의 시기를 거치며 계속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산성과 평지성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연변 지역에 있는 이들 성곽 중山城들의 공통점은 험준한 산을 배경으로 한 立地 조건 때문에 외부의 침입자들이 공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 중 연변장성 안쪽 또는 바깥쪽에 있으면서 장성에 인접한 산성은 城子山山城·城子溝高句麗古城·白石砬子高句麗山城·五虎山高句麗山城·八家子山城·楊木頂子山城·松月山山城인데 이들 산성도 모두 외부에서 접근하여

〈표 2〉 연변 일대 고구려 관련 추정 성곽 현황표³⁴⁾

소재지	성곽 명칭
和龍市	楊木頂子山城, 八家子山城, 松月山山城, 崇善鄉古城里村高句麗古城, 蘆果鄉土城里高句麗古城, 三層嶺山城
延吉市	高句麗興安古城, 河龍古城
龍井市	船口山城, 城子溝高句麗古城, 白石砬子高句麗山城, 偏臉山山城, 三山洞山城, 養參峰山城, 清水山城, 朝東山山城, 土城屯古城, 中坪古城, 金谷山城
圖們市	城子山山城, 亭岩山山城
安圖縣	五峰山山城, 大砬子高句麗山城, 五虎山高句麗山城, 榆樹川高句麗古城, 城門山山城, 仰臉山山城
琿春市	溫特赫部城, 裴優城, 薩其城, 城牆砬子山城, 通背山山城, 營城子古城, 石頭河子古城, 桃源洞村南山城高句麗山城
敦化市	城山子山城, 橫道河子村高句麗古城, 大甸子高句麗古城, 通溝嶺山城
汪清縣	廣興山城, 東四方臺山城, 滿台城山城

침입하기 어려운 입지를 갖고 있다. 답사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면, 이들 산성의 구조는 장기간의 군사적 방어가 가능하도록 입지가 선정되고 또 관련 시설이 갖추어져 건설되었다. 이러한 산성들과 비교하여, 주위의 험준한 산을 비껴간 듯한 입지는 물론 장성 성벽의 높이와 너비 등 구조적으로도 연변장성은 그 군사적 방어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연변장성은 通信 기점의 역할과 함께 신속한 군사적 이동 노선으로의 기능에 뛰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평지 일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일 높은 언덕을 따라 이어지고 또한 山地에서는 주위를 경계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된 지점으로 연결된 연변장성에는 곳곳에 봉화대가 설치되어 있다.³⁶⁾ 이러한 봉

35) 王禹浪·王宏北 編著, 1994, 『高句麗·渤海古城址研究匯編』, 哈爾濱出版社; 高句麗研究會 編, 1999, 『高句麗山城研究』, 학연문화사

36) 연변 각 市와 縣의 文物志에는 봉화대를 墩臺로 표기한 곳이 적지 않다. 관련 논문들도 墩臺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墩臺는 明 시기에 봉화대를 부르는 개념으로 성립되었다. 연변장성의 건축 年代는 明 이전 시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봉화대로

화대들의 연결 자체가 장성의 本體를 구성하는 것이면서, 이러한 연결은 장성의 방어적 기능 발휘에 중요한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봉화대로 연결된 장성의 성벽은 또한 쉽고 빠른 그리고 익숙한 군사적 機動 통로로 작용했을 것으로도 판단된다.

전투에서 적보다 유리한 지역으로 군대를 이동시키는 의미의 機動은 고대 전투에서 勝敗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었을 것이다. 현대 전투에서도 機動은 군사적 승패의 관건적 요소일 것이다. 연변장성은 봉화대를 통하여 敵情을 파악하고 전달하여 그에 뒤따르는 군사적 機動을 계획하여 실행하게 하고, 또 실제로 機動의 유효한 통로로도 활용되면서, 동시에 적의 진격을 일시 저지시키는 防禦線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변장성의 구조로 보면, 침입 세력을 결정적으로 저지하고 타격할 豫備된 전장으로서의 장성이 만들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연변장성의 방어적 군사 기능은 警報 체계에 중점을 두었다고 推論한 것인데, 사실 고대 중원의 각 장성에서도 실제로 警報 체계가 각 장성의 핵심적 작용이었을 수 있다. 아래 인용문에 고대 장성에서 경보 기능이 왜 군사 방어시설인 장성의 핵심적 기능이었는지 잘 부각되어 있다.

역사의 실제 상황으로 보면, 장성 壁體는 도시 성곽과 다르다. 도시 성곽은 특별히 높고 크며, 또한 護城河의 보호를 받고 있어, 그 견고한 防禦力을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장성 壁體는 도시 성곽의 높고 큰 정도가 될 수 없다. 八達嶺 일대는 특수한 例일 뿐이다. …… 이들 몇 가지 史料와 장성의 起源을 근거로 판단할 때, 烽燧의 출현은 성벽에 앞서 출현했다. 원인은 변경의 線이 너무 길고, 적이 進攻할 지점이 너무 많아서, 공격은 쉽고 방어는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황 아래에서 적의 主攻 방향과 進攻 지점은 분별할 수 없다. 특별히 유목민족은 騎馬戰에 능하고, 속도가 빠르며, 충격력이 강하다. 당시 兵力과 財力이 有限한 상황 아래에서 적의 進攻에 맞서 이길 수 있는 방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烽燧의 警報가 있게 되고, 당시 통신 조건이 낙후한 상황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에서 비로소 매우 빠른 敵情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고, 군대 이동과 집결에 대해 대체하기 어려운 작용을 하였다. …… 烽火의 작용이 벽체의 沮止 작용보다 대단히 강화되면, 봉화의 경고와 조기경보 작용은 군대의 集結 機動性을 대단히 강화시키므로, 萬里의 防禦線에 계산할 수 없는 큰 작용을 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장성은 종합적 군사방어체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장성의 핵심적 작용은 마땅히 봉화가 일으키는 警報 작용에 있는 것이다.³⁷⁾

넷째, 연변장성은 실제 방어가 꼭 필요한 핵심지역을 둘러싸는 지점에 건축되었으며 그 線이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특징도 있다. 일반적으로 장성은 변경 안쪽에 쌓게 된다. 연변장성도 물론 변경 안쪽에 쌓은 것이겠지만, 연변장성 안과 밖 지역의 변경 관련성을 검토해 보면 변경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변장성 안쪽 즉 남쪽에는 고대에 건축된 다수의 平地城들이 있는데, 많은 인구가 거주하며 당시 주요한 경제활동인 농업과 목축에 유리한 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장성 바깥쪽 즉 북쪽은 주로 山地며 인구 밀도가 높을 수 없는 지역이다. 연변장성은 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延吉과 龍井 및 和龍의 평원, 즉 고대에 이 일대 경제활동의 중심지대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구성된 것이다. 延吉·龍井·和龍의 文物志를 보면 신석기와 청동기시대는 물론 그 이후 북옥저를 점령한 고구려나 또 그 뒤 발해 초기의 중심지도 역시 장성의 線 이남에 위치하고 있다.

연변장성은 이들 중심지대를 집중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특별한 설계의 산물일 수 있다. 실제적 변경은 장성 이북 山地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山地를 거쳐서 침략해 온 적들을 집중적으로 방어하는 최후 防禦線으로 장성이 설계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평원 지대에 밀집된 경제와 인구를 신속히 대피시키고 또 군사를 효율적으로 機動시키기 위해 연변장성으로 두르고 많은 봉화

37) 劉志慶, 2002, 「關於長城文化的思索」, 『安徽商貿職業技術學院學報』第4期, 67~69쪽

대를 설치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더욱 깊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위에 언급한 여러 상황으로 보면 장성 북쪽에 존재했던 어떠한 정치세력이 주도하여 장성을 쌓았을 가능성은 적다. 通史에서 고대 연변 지역과 관련하여 실존했던 역사적 실체로서의 민족과 국가로는 北沃沮·고구려·挹婁·靺鞨·발해·고려·女眞·金·東夏國·蒙古·元·明·淸 등이 있다. 이들 중 연변장성 북쪽에서 장성을 세울 수 있는 가능한 국가 또는 정치세력은 挹婁·女眞뿐이다. 蒙古는 1233년 東夏國을 멸망시켰지만 장성을 이곳에 세울 세력이 결코 아니다. 金도 마찬가지로 金은 서북방에 있는 蒙古의 남하를 막기 위해 장성과 유사한 界壕를 쌓은 적이 있다. 金이 국력을 소모하며 서북쪽 변경에 界壕를 쌓고 있을 당시 남쪽의 南宋은 故土를 회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여러 차례 金의 남쪽 변경에 침입했다. 그렇지만 金은 남쪽 변경에 북쪽 변경과 같은 장성을 결코 쌓지 않았다. 이는 金의 전략이 남쪽은 공격하고 북쪽은 방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³⁸⁾ 그런데 挹婁 혹은 女眞이 강력한 동원력을 가진 국가에서나 쌓을 수 있는 성격의 유적인 연변장성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 挹婁 혹은 女眞 중의 누가 경제활동의 중심지대인 남쪽을 지켜 주거나 아니면 자신들과 단절시킬 목적으로 그 많은 국력을 소모하여 경제적 중심지대를 완전하게 둘러싸서 감싸는 형태의 장성을 쌓을 수 있었을까?

다섯째, 연변장성은 발해 이전 시기에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고대 장성 유적의 특성을 지녔다. 아직까지 문헌에서 연변장성의 건축 연대와 관련된 기록을 찾지 못하였다. 다만 부족하지만 몇 가지 고고학 자료로 그 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延吉市 市區域 북쪽에 있는 烟河村 북쪽 산 위에서 봉화대가 발견되었는데, 文物志에는 烟河墩臺로 기록되어 있다. 이 봉화대는 장성의 한 堡壘로 보인다. 직경은 11m, 높이는 2m 정도며 봉화대 주위는 직경 22m 정도의 環壕가 두르고 있다. 봉화대 남쪽 비탈에서는 발해 시기 도기 조각이 다수 발견되었

38) 憑恩學, 1994, 「金代長城의 戰爭觀」,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다. 이 봉화대의 유물로 볼 때 이곳을 지나는 장성은 발해 시기에는 이미 존재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봉화대 북쪽으로 장성의 線이 지나고 있으며, 봉화대 서쪽 1.5km 떨어진 산에도 또 하나의 봉화대가 있으며 역시 장성이 이 봉화대를 지나고 있다.³⁹⁾ 또한 1986년 연변박물관이 延吉市 북부 淸茶館 부근 장성의 봉화대 단면에서 목탄 표본을 채집하여 탄소연대측정을 한 결과 지금부터 1505~1655년 이전인, 즉 서기 331~481년 사이인 고구려 시기의 유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⁴⁰⁾

이러한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연변장성은 고대 유적으로서 발해 이전 고구려 시기에 현재의 연변 일대에 거주하던 정치세력이 건축하여 이후 여러 시기에 계속 사용되었던 유적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연변장성이 지닌 고대 유적으로서의 특성일 뿐 정확한 건축 연대와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더 진전된 연구를 기대해야만 한다.

2_ 연변장성의 건축 主體와 年代 문제

1980년대 초부터 연변장성에 대한 연변 지역 문물 관련 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장성의 건축 主體와 건축 年代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처음으로 연변장성의 건축 주체와 연대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밝힌 연구자는 朴龍淵이다.

朴龍淵은 1983년에 작성한 논문에서 연변장성이 발해 中京의 衛城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한 추정 근거로는 장성의 지리위치와 발해 유적의 분포 상황이었다. 연변장성 서남쪽은 발해의 西古城을 둘러싸고, 장성 동부는 延吉市를 둘러싸고 있으며, 이들 장성이 발해 유적을 둘러싸거나 그 유적과 연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장성은 발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39) 『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 1985, 앞의 책, 65~66쪽

40) 延邊博物館『延邊文物簡編』編寫組, 1988, 앞의 책, 61쪽

것이다.⁴¹⁾

연변장성이 발해 中京 顯德府의 衛城이란 관점에 대해 徐學毅가 1986년에 작성한 논문을 통해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의 비판에 따르면 고구려·부여·옥저의 옛 땅을 차지하고 있던 海東盛國인 발해의 中京은 五京 중 가운데인데 한 줄기의 장성을 쌓아 스스로 자신을 가두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발해는 남쪽에 이웃해 있는 신라와 서로 모순 관계에 있었으며, 일찍이 신라는 唐 玄宗의 명령에 따라 唐과 함께 발해를 공격하기도 했는데, 만약 장성이 中京의 衛城이라면 中京 顯德府 治所인 현재의 西古城 남쪽에 장성이 쌓여져야 하는데, 古長城은 실제로 西古城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古長城이 발해 中京의 衛城이라는 說은 성립될 수 없다고도 비판하였다. 또한 발해국은 서기 698년에 건국되어 926년에 멸망하였는데, 발해와 관련한 史料는 비교적 많아서 古長城이 발해 때에 형성되었다면 史料 기재가 없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발해가 멸망한 지 지금까지 1천여 년이 되었는데, 土築 장성이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古長城 형성의 연대는 그렇게 오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 뒤에 徐學毅는 연변장성은 東夏國 시기의 産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秦·漢·明의 장성이 모두 중원 지역 정권이 북방 소수민족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것인데 연변장성도 東夏國이 서북부에 있던 耶律留哥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는 東夏國의 도읍인 城子山山城 土石混築 성벽이 그 형태와 높이에서 古長城의 것과 같으며 동일한 역사 시기의 산물이라는 것, 연변장성 봉화대와 東夏國 봉화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같은 역사 시기의 산물이라는 것, 古長城이 서북의 적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東夏國 서북의 宿敵은 耶律留哥라는 것, 봉화대는 당연히 장성을 지켜야 하는 쪽에 있어야 하는데 발견된 17개 봉화대가 모두 古長城 남쪽에 있어서 敵은 장성 북쪽 혹은 서북쪽에 있다는 것, 古長城이 史料에 보이지 않는 주요한 원인은 東夏國이 짧은 시간에 망했기 때문이란 사실, 장성은 東夏國이 빨리 망하여 그 방어 기능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급

41) 朴龍淵, 1983, 앞의 논문, 110쪽

히 잃어버리고 바로 한 세기 동안의 침식에 묻혀버렸다는 사실 등을 제시하였다.⁴²⁾

뒤이어 연변장성이 金代의 長城이었다는 관점도 제시되었다. 李鍵才는 1987년 논문에서 “문헌기록과 고고학 자료에 근거하여 건축 연대를 추정할 수밖에 없으며, 문헌 근거가 없는 추측으로 정확한 결론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의 연변 지역에 장성을 쌓은 것은 오로지 金 시기에만 있었으며, 다른 시기에는 이 일대에 장성을 쌓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입장에서 분석을 시작하고 있다. 李鍵才는 『金史』, 『高麗史』, 『大金國志』, 『東國輿地勝覽』, 『蒙兀爾史記』 등의 문헌을 인용하며 推論하여 “현재의 연변과 조선 함경남도 경내의 城堡와 장성 유적은 金代 曷懶路 동쪽 고려와 接하는 장성”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李鍵才는 또한 지금의 연변 金代 古城 및 장성과 고려가 쌓은 曷懶甸 9城 및 장성은 남북으로 서로 대치하며 金代에 고려의 進攻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현재 연변장성의 형태는 界壕와 邊牆 및 堡壘가 있어 大興安嶺 동쪽의 金代 界壕 및 邊堡와 형태가 같다고도 인식하였다. 그는 연변장성은 실제로는 界壕·邊堡로서 金代의 장성이라고 주장하였다.⁴³⁾

1980년대 초부터 연변장성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연변 지역 문물 관련 기관이 그 조사 성과를 담아 1984년과 1985년에 연이어 출판한 이 지역의 文物志들에서 연변장성의 건축 주체와 연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이었다. 『和龍縣文物志』는 “古長城에 대해 단지 地面調查만 했기 때문에 遺物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참고할 문헌도 없어, 그 확실한 건축 연대에 대해서는 이후의 더 나은 고찰과 연구를 기대하고자 한다”고 서술했고,⁴⁴⁾ 『龍井縣文物志』는 “장성의 시대 구분 문제에 대해 현재 학술계에는 의견차이가 있다. 어떤 이는 장성이 西古城 주위에 뻗어 있어 마땅히 발해의 장성이라고 주장하고, 어

42) 徐學毅, 1986, 앞의 논문

43) 李鍵才, 1987, 앞의 논문

44) 『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 1984a, 앞의 책, 70~71쪽

면 이는 장성이 城子山山城을 둘러싸고 있어 마땅히 東夏國의 장성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이는 東古城은 曷懶路의 治所이며 高麗 왕조가 일찍이 曷懶甸을 점령하여 9城을 쌓았으므로 고려 왕조의 장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종 論點은 모두 문헌과 실물의 근거가 부족하다. 때문에 더 진전된 조사와 考證이 필요하다”고 서술했으며,⁴⁵⁾ 『延吉市文物志』는 “古長城은 문헌 기록에 없다. 一說에 고구려 왕조 시기에 挾婁人의 남침을 막아내기 위해 沃沮人이 쌓았다고 하고, 一說은 발해 中京의 衛城이라 하고, 一說은 金 말기 東夏國이 蒙古 군의 東進을 막기 위한 군사시설이라고 한다. 古長城에 관한 건축 연대는 의견이 다양한데 더 진전된 조사와 고증을 필요로 한다”고 서술하여,⁴⁶⁾ 모두 연변장성의 건축 주체와 연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가능성이 있는 검토 의견만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다.

연변장성에 대한 연변 지역 문물 관련 기관의 정리된 입장은 1988년에 출판된 『延邊文物簡編』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책에서 연변장성은 고구려가 쌓았고 뒤의 발해와 東夏國 시기에 계속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서술했는데, 이는 당시 연변 지역 문물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1986년에 연변박물관이 장성 구간에서 직접 채취한 목단 표본의 탄소연대측정 결과를 장성 건축 연대 추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⁴⁷⁾ 연변장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헌 자료가 발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탄소연대측정에 의한 자료 확보는 연대 판단에 관건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 책 출판 이후 연변 지역 연구자들은 대체로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연변장성의 고구려 관련성을 강조하는 연구 성과가 연이어 발표되었다. 1989년에 朴龍淵은 논문을 통해 연변장성의 성격을 고구려 시기에 쌓은 장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1983년에 발표했던 논문에서 제시했

45) 『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 1984b, 『龍井縣文物志』, 99~101

46) 『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 1985, 『延吉市文物志』, 64~65쪽

47) 延邊博物館『延邊文物簡編』編寫組, 1988, 앞의 책, 61~62쪽

던 연변장성을 발해 中京의 衛城으로 본다는 관점을 수정하며 내놓은 새로운 관점이었다. 1983~1985년까지 연변장성을 재조사하며 새롭게 얻은 결론인 연변장성의 고구려 관련성을 특히 강조하는 논문에서 朴龍淵이 연변장성을 고구려와 관련시키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문헌의 柵城에 관한 기록과 고고학적 자료에 따라 판단할 때 琿春市 경내와 해란강 및 부르하통하 유역은 북옥저 경내에 있던 고구려의 중요한 통치 구역이었다. 따라서 연변장성은 이들 지역의 안전과 방위를 위하여 쌓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고구려 시기 북방 민족들로는 부여·숙신·읍루·물길·말갈 등이 있었다. 이들 중 읍루는 고구려 북부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였고, 고구려는 읍루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북옥저 백성을 동원하여 군사적 방위를 위한 장성을 쌓았던 것이다.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5세기 이후에도 장성은 북부 물길의 남침을 막기 위해 계속 사용하면서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보았다. 셋째, 고구려 蠶留王 시기에 쌓은 서부의 고구려 천리장성도 그 규모와 형태가 연변 옛 장성과 유사하므로 연변장성의 고구려 관련성이 부각된다는 것이다. 넷째, 1986년 4월 연변박물관이 淸茶館 서북쪽 세 번째 봉화대 단면에서 채취한 목탄 표본 탄소연대측정 결과가 4세기 정도이므로 그 시기의 연변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고구려와 북옥저의 산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朴龍淵은 이 논문에서 연변장성의 건축 연대와 관련한 金 초기 관점, 발해 관련 관점, 東夏國 관련 관점 등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첫째, 金 시기에 연변장성이 쌓여졌다면 이 장성은 고려나 女眞이 쌓은 것이어야 하는데, 장성의 지리위치나 봉화대 시설 등을 살펴보면, 장성은 북부로부터 오는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지 남부의 적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고려 측에서 쌓은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11세기 초에 女眞과 고려가 서로 싸울 때 고려는 이곳에서 장성을 쌓을 시간과 조건이 없었다. 고려의 원정군은 1107년 12월 14일 出兵하여 그 선봉부대가 두만강 이북의 先春嶺·公險鎭에까지 진출하였다. 고려는 曷懶甸에 9城을 쌓았고 女眞도 이에 대처하여 9城을 쌓았다. 그런데 고려 원정군의 활동은 겨울철이었고 그 시간도 42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 고려 원정군이 철거한 이후 女眞은 계속 남하하여 드디어 고

려 9城은 철폐되었으며, 그 뒤 金 시기에는 曷懶甸 일대에 金의 행정기구를 설치하였다. 그러므로 여러 상황으로 고려가 이곳에 공사규모가 방대한 장성을 쌓을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둘째, 발해는 고구려에서 쌓은 연변장성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 발해국은 건국 초기부터 영역이 넓고 강대한 것은 아니었다. 발해 전반기에 粟末 및 白山靺鞨을 제외한 기타의 靺鞨族 여러部和 때로 모순충돌이 있었고, 국내의 계급모순 등도 있었는데 수도의 안전과 방위를 위하여 이 장성과 봉화대 등 군사시설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발해가 장성을 쌓은 것은 아니다. 셋째, 東夏國은 1215~1233년까지 19년간 존속하였다. 정권이 짧고 강성하지 못했던 東夏國이 수도의 안전을 위해 군사방위에 유리한 이 장성과 봉화대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耶律留哥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많은 국력을 기울여 수도 근처에 이러한 장성을 쌓을 수는 없었다. 耶律留哥는 1219년에 죽고 그 후예들은 모두 蒙古 세력에 依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1215년에 세워졌고 후기에 南京에 도읍한 浦鮮萬奴가 耶律留哥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런 장성을 쌓았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⁴⁸⁾

1990년에 鄭永振은 한국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연변장성의 건축 연대를 金 및 東夏國으로 보는 견해들을 비판하면서 장성은 고구려 시기 挾婁 및 勿吉의 남침을 막기 위해 쌓은 것으로 그 後代 국가들도 계속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⁹⁾ 鄭永振의 연변장성 高句麗說 論據와 金代說 및 東夏國說에 대한 논리적 비판은 1989년에 발표한 朴龍淵의 관점과 대체로 같았다.

1994년에 朴龍淵은 다시 연변장성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고,⁵⁰⁾ 이 논문은 1995년에 한국에도 소개되었는데,⁵¹⁾ 연변장성을 고구려 시기의 장성으로 보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朴龍淵은 1989년에 쓴 논문 중에도 언급한 李鍵才의 金代說에 대한 비판을 보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용하면 다

48) 박용연, 1989, 앞의 논문

49) 鄭永振, 1990, 앞의 논문

50) 박용연, 1994, 앞의 논문

51) 박용연, 1995, 앞의 논문

음과 같다.

『동북지구 중부의 변강과 연변장성』의 저자는 또 목단강 일대의 장성과 연변장성을 같은 시기의 같은 성질을 띤 장성으로 인식하였으며 연변장성과 같이 거대한 규모의 역사유적이 역사적 문헌에 기재되지 않을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① 목단강 일대의 장성과 연변 옛장성은 서로 연결되는 통일체가 아니고 저마끔 동떨어진 것이다. 목단강 일대의 장성을 조사, 고증한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장성은 발해 시기의 것으로서 흑수말갈의 남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쌓은 것이라 한다.

② 여진인들이 갈라전에 고려9성에 대처하여 9성을 쌓은 것은 금나라 건국 이전 즉 12세기 초의 일이며 『大金國志』에서 “동쪽은 고려에 접하였다”고 한 계호는 금나라 후기인 13세기 초의 일로서 이 부동한 시기의 사건을 한데 뒤섞어 놓고 모두 연변장성과 연계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진인들이 갈라전에 쌓은 9성은 모두가 동떨어진 성이지 장성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태화 원년에 판 계호는 “동으로 고려와 접하고 서로는 하변계에 이른다”고 한 문맥으로 보아 그 지리적 위치가 동북의 서부지구이지 동북지방이 아니라고 보아지며 또 이것은 계호이지 장성은 아니라고 보아진다. 금나라 시기에 함경도 일대는 금나라의 갈라로총관부의 관할구역이었는데 13세기 초에 고려 변계와 멀리 떨어져 있는 두만강 이북 지방에 이런 장성을 쌓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상은 주로 연변의 학자가 중심이 된 중국 학자들의 연변장성에 대한 관점들이다. 한국 학계에서는 金賢淑과 李成制가 연변장성의 건축 연대 및 주체에 대해 나름대로의 독창적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金賢淑은 200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연변장성은 4세기 후반경에 고구려가 조성했다고 보았다. 3세기 후반~5세기 초반까지 현재의 연변 일대에는 동부여라는 정치체가 고구려의 양해와 적극적인 주선 아래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장성의 조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고구려에서 장성을

조성한 목적은 연변 지역 북방에 거주하는 숙신계 종족으로부터 和龍·龍井·延吉·琿春 등지의 주민들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동부여를 해체하여 영역지배를 본격화하려는 의도도 들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장성 조성에 당시 연변지역에 있던 주민들을 동원했는데, 이는 이 지역에 있던 동부여의 독자성을 완전히 해체하고 고구려의 보편적인 지방통치체제에 맞추어 하나의 단위지역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변 지역에 조성되었던 고구려 장성을 통해 그 지역사의 변천과정 즉 동부여 성립과 소멸 과정 및 고구려의 동부여 지배 양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⁵²⁾

李成制는 2009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연변장성은 고구려 시기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당시 고구려 北邊의 적대세력이었던 勿吉로부터 연변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성의 조성이 필요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5세기 들어 勿吉이 세력을 신장시켰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구려 北邊에 국한된 역량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 安圖 지역이 연변장성 防禦線 바깥에 놓여 있는데, 국내성과의 연결지점인 安圖는 우선적으로 방어되어야 하는 요충이었지만 연결의 장성은 이와 무관해 보이는 것도 문제로 지적한다. 나아가 장성이 대적하고 있는 방향이 과연 북쪽에 대한 방비 일까 하는 의문도 제기한다. 성벽이 가장 잘 남아 있다고 하는 淸茶館 부근 성벽을 볼 때 북향이 아닌 남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⁵³⁾

북한 학계의 최승택은 2010년에 발표한 간략한 논문에서 연변장성의 간단한 현황과 함께 축조 연대를 고구려로 보는 관점을 소개하면서, 장성 유적들이 和龍 및 延吉 일대와 琿春 일대로 갈라져 있다는 점과 고구려와 발해 축성 방식의 공통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 유적들을 발해의 지역방위를 위한 장성으로 볼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고, 연변장성의 구체적인 축조 연대와 목적에 대해 앞으로 더욱 연구를 심화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⁵⁴⁾

52) 金賢淑, 2000, 앞의 논문

53) 李成制, 2009, 앞의 논문

54) 崔勝澤, 2010, 앞의 논문

위에서 연변장성의 건축 주체와 연대에 대한 학계의 여러 쟁점을 概觀해 보았다. 연변장성에 대한 명확한 문헌기록을 아직 찾지 못했고, 장성에 대한 발굴조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므로, 장성의 건축 주체와 연대의 批正은 앞으로 더 진전된 조사와 연구를 기대해야 할 상황이다.

단지 198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온 연변 현지의 기존 조사 자료와 연구 성과들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연변장성이 고구려 시기에 이 지역 토착세력인 북옥저에 의해 그 북쪽 정치세력인 읍루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고 볼 蓋然性이 높다. 물론 이 경우에 군사적 목적으로 조성된 장성은 고구려 이후 시기에 이 지역에 존재했던 발해와 東夏國 및 女眞 혹은 고려에서 계속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관점은 고구려의 북옥저 經略에 대한 『三國史記』 기록,⁵⁵⁾ 읍루의 침략과 그에 대한 북옥저의 대응을 전하는 『三國志』 기록과도 부합한다.⁵⁶⁾ 또한 團結文化를 기반으로 한 북옥저와 그 북쪽에 이웃한 挹婁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자료와도 들어맞는다.⁵⁷⁾

현재 연변은 물론 중국 전역에서 ‘長城保護工程(2005~2014)總體工作方 案’에 따라 각 지역 장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그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그에 따른 연구가 중국의 경우에는 때때로 기존 문물에 대한 재해석의 계기가 되곤 했다. 물론 이러한 조사와 연구 과정에 역사적 실체에 더 접근하는 성과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특히 연변 지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지역 고대사 관련 유적들을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가능한 한 배제하는 방향에서 재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났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연변의 대표적인 고구려 성곽인 城子山山城은 1961년 4월 13일 길림성인민정부에

55) 『三國史記』「高句麗本紀」東明聖王,“(十年)冬十月,王命扶尉猷伐北沃沮,滅之,以其地爲城邑.”

56) 『三國志』卷三十「魏書」烏丸鮮卑東夷傳,“北沃沮,一名置溝婁,去南沃沮八百餘里,其俗南北皆同,與挹婁婁接,挹婁人憚乘船寇抄,北沃沮畏之,每夏輒臧於巖穴,至冬船道不通,乃下居邑落.”

57) 匡瑜, 1982, 「戰國至兩漢的北沃沮文化」, 『北方文物』第1期

의해 길림성중점문물보호단위로 처음 공포되었고 또한 1981년에 재공포될 때도 그 문물의 성격을 고구려 산성으로 명시하여 규정하였는데, 2006년 5월 중국 國務院의 비준에 따라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로 승급되어 공포되면서 명칭도 磨盤村山城으로 바뀌었고 또한 그 유물 성격 표시에서 공식적으로 고구려 관련 내용을 완전히 배제한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 진행된 東北工程과 함께 중국 학계가 지닌 일종의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 경향이 작용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현재 연변 일대 장성에 대한 일련의 조사와 연구 및 그 성격에 대한 중국 학계의 재해석을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중국 연변에 위치한 和龍·龍井·延吉 구간의 연변장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 연변장성은 일찍이 滿洲國에서 작성한 『滿洲古蹟古物名勝天然記念物彙編』(1941)에 ‘邊壕’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이 기록이 연변장성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연변장성은 1941년 그 자료에 기록된 뒤 40여 년이 지난 1980년대부터 다시 관심을 갖게 된 연변 지역의 문물기관에서 조사하고 또 연구되어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 1941년에는 연변장성의 장성으로서의 특성도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상황에서 단지 그 형상만 보고 그것이 遼金 시기의 邊壕 유적이었다는 매우 간단하고 불명확한 인식만 갖고 있었다. 그에 비교하면 1980년 초~2010년 말까지 30여 년 동안 연변장성은 초보적으로나마 조사되었고, 또 지역 文物志에 역사적 실체를 가진 문물로서 기록되긴 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지속된 연구에도 연변장성은 아직 그 실체가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실 연변장성은 문물로서의 그 실체도 아직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못한 실정이다. 1980년대 초에 연변 각 市와 縣의 文物志를 작성하

면서 연변장성 전체 구간에 대한 초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조사 성과들이 담긴 文物志 등은 이후의 연구에 기초 자료로서 줄곧 활용되고 있지만, 본문에서 살펴보았듯 그 기초 자료는 지표 조사에 한정되어 작성된 것이어서 연변장성의 실체를 전반적으로 이해시켜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사 자료의 한계와 관련 문헌 자료의 결핍은 자연히 본고에서 살피고자 했던 주제인 연변장성의 성격에 접근하는 문제를 어렵게 한다.

이 글에서 먼저 지난 30여 년 동안의 발견과 조사 및 연구 현황을 概觀하였는데, 이러한 현황 검토의 유용성은 지금까지의 연구 흐름에 대한 파악을 통해 앞으로의 과제 혹은 그 연구방법까지의 탐색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사 및 연구 현황 概觀에 이어 이 글에서는 기존 자료와 현지 답사 자료를 기초로 연변장성의 현황을 소개했는데, 이 현황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연변장성을 더 체계적으로 조사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용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변장성의 특성을 검토해 보았는데, 연변장성이 장성으로서 지닌 일반성과 특수성의 이해로부터 연변장성의 건축 주체 및 연대 등을 포함한 전반적 성격을 해석하는 몇 가지 주요한 思考의 틀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의 작성 과정에 빚어진 오류와 함께 여러 부족점은 시간을 두고 계속 정정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賈敬顏著, 1994, 『東北古代民族古代地理叢考』,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賈偉明, 1985, 「論團結文化的類型、分期和相關的問題」, 『考古與文物』第1期
- 강인욱·김재윤 등, 2008,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景愛, 2006, 『中國長城史』, 上海人民出版社
- 孔令銅, 1994, 「長城的歷史作用及其辨證評說」,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 匡瑜, 1982, 「戰國至兩漢的北沃沮文化」, 『北方文物』第1期
- 『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 1984a, 『和龍縣文物志』
- 『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 1984b, 『龍井縣文物志』
- 『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 1984c, 『琿春縣文物志』
- 『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 1985, 『延吉市文物志』
- 金毓黻, 1981, 『東北通史』上篇六卷, 十年代出版社
- 김정학, 1958, 「北方亞細亞民族考」, 『아세아연구』1-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金賢淑, 2000, 「延邊地域의 長城을 통해 본 高句麗의 東夫餘支配」, 『國史館論叢』 제88집
- 盧重國, 1992, 「東扶餘에 關한 몇가지 問題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제10집
- 陶剛·倪春野, 2003, 「黑龍江省穆稜河上游考古調查簡報」, 『北方文物』第3期
- 도유호, 1962, 「진번과 옥저성의 위치」, 『문화유산』 62-4
- 리지린, 1963, 「남옥저의 위치」,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
- 牟祥雷, 2008, 「與黃河同行: 關於萬里長城的走向」, 『中國三峽』第8期
- 民生部厚生司教化科, 康德八年十月, 『滿洲古蹟古物名勝天然記念物彙編』
- 朴京哲, 2004, 「濊貊·扶餘와 高句麗의 正體性에 關한 研究」, 『고구려발해연구』 제18집
- 朴龍淵, 1983, 「關於渤海中京問題的商榷」, 『延邊文物資料匯編』
- 박용연, 1989, 「연변 옛장성에 관하여」, 『조선학연구』 제2권
- 박용연, 1994, 「동북지구의 고구려장성」, 『고구려 유적과 유물 연구』, 동북조선민족교 육출판사
- 裴紅善, 2006, 「黑龍江省穆稜市四方台遺址調查簡報」, 『北方文物』第3期
- 樊萬象, 1986, 「牡丹江邊牆調查簡報」, 『北方文物』第3期
- 傅波, 1982, 「肅慎與挹婁關係新探」, 撫順市社會科學研究所

- 憑恩學, 1994, 「金代長城的戰爭觀」,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 三江, 1988, 「漢魏夫余史地考略」, 『北方文物』第1期
- 徐吉洙, 2006, 「고구려 석성의 시원에 관한 연구-신석기시대 석성」, 『고구려발해연구』 제23집
- 徐學毅, 1986, 「延邊古長城考察報告」, 『東疆學刊』第2期
- 蘇秉琦, 1986, 「遼西古文化古城古國-兼談當前田野考古工作的重點或大課題」, 『文物』第8期
- 蘇秉琦 著, 2009, 『中國文明起源新探』, 遼寧人民出版社
- 孫進己 等著, 1987, 『女真史』, 吉林文史出版社
- 孫進己·馮永謙 總纂, 1989, 『東北歷史地理』第一卷, 黑龍江人民出版社
- 송기호, 2006, 『한국 고대의 온돌: 북옥저, 고구려, 발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楊軍, 2010, 「東夫余考」, 『史學集刊』第4期
- 양시은, 2010, 「일제강점기 고구려 발해 유적조사와 그 의미」, 『고구려발해연구』 제38집
- 梁振晶, 1994, 「高句麗千里長城考」, 『遼海文物學刊』第2期
- 엄장록·정영진, 1989, 「연변지구의 중요한 고구려성에 대한 고찰」, 『연변대학조선학 한국학학술토론회논문집』
- 延邊博物館『延邊文物簡編』編寫組, 1988, 『延邊文物簡編』, 延邊人民出版社
-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編, 1982, 『延邊文物資料匯集』
-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編, 1983, 『延邊文物資料匯編』
- 王健群, 1987, 「高句麗千里長城」, 『博物館研究』第3期
- 王國良編, 1933, 『中國長城沿革攷』, 商務印書館
- 王綿厚, 2001, 「高句麗의城邑制度與山城」, 『社會科學戰線』第4期
-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 友之, 1985, 「吉林東部延邊地區發現古長城」, 『遼金契丹女真史研究』第1期
- 魏聲獻, 1931, 「琿春古城考」, 『東北叢刊』第15期
- 劉志慶, 2002, 「關於長城文化的思索」, 『安徽商貿職業技術學院學報』第4期
- 李强, 1986, 「沃沮、東沃沮考略」, 『北方文物』第1期
- 李强·侯莉蘭, 2003, 「延邊地區渤海遺存之我見」, 『北方文物』第4期
- 李健才, 1982, 「夫余的疆域和王城」, 『社會科學戰線』第4期
- 李健才, 1985, 「琿春渤海古城考」, 『學習與探索』第6期
- 李健才, 1986, 『東北史地考略』, 吉林文史出版社

- 李鍵才, 1987, 「東北地區中部的邊疆和延邊長城」, 『遼海文物學刊』第1期
- 李健才, 1991, 「唐代高麗長城和扶余城」, 『民族研究』第4期
- 李德山, 1991, 「夫余起源新論」, 『社會科學戰線』第2期
- 李德山·樂凡, 2003, 『中國東北古民族發展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李文龍, 2001, 「中國古代長城的四个歷史發展階段」, 『文物春秋』第2期
- 李成制, 2009, 「高句麗와 渤海의 城郭운용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 『高句麗渤海研究』 34輯
- 임기환, 1998, 「4~6세기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한국고대사연구』 제14권
- 임기환, 1998, 「고구려 전기 산성 연구」, 『국사관논총』 82
- 林沄, 1985, 「論團結文化」, 『北方文物』第1期
- 林沄, 1998, 『林沄學術文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張博泉, 1999, 「北夫余與東夫余史地考略」, 『史學集刊』第4期
- 張福有·孫仁杰·遲勇, 2011, 「夫余後期王城考兼說黃龍府」, 『東北史地』第2期
- 鄭永振, 1990, 「연변지구의 고구려유적 및 몇 개 문제에 대한 탐구」, 『韓國上古史學報』 제4호
- 정영진, 1999, 「延邊地域의 城郭에 대한 研究」, 『高句麗研究』 8
- 鄭永振·嚴長錄, 2000, 『延邊古代簡史』, 延邊大學出版社
- 최승택, 2010, 「연변지역에서 알려진 장성유적」, 『조선고고연구』 제4호
- 佟冬 主編, 1987, 『中國東北史』, 吉林文史出版社
- 데.엘. 브로단스키 지음·정석배 옮김, 1996, 『연해주의 고고학』, 학연문화사

[ABSTRACT]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ong Wall of Yanbian

Im Chankyung

The Long Wall was obviously constructed in ancient times, in Yanbian, Jilin Province, China. This article examines the present state and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Long Wall, which stretches through the Yanbian region, including Helong, Longjing, and Yanji.

A systematic survey of the Long Wall of Yanbian has not yet been conducted. Further, the exact significance as historical relics has not yet been grasped. The heritage records for the cities and counties of Yanbian were set in the early 1980s. It supposed to be under an investigation for all the section of The Long Wall in Yanbian. The heritage records have been referred to in later studies as fundamental information. However, survey data, such as the surface surveys, were collected briefly and the rudimentary fieldwork was conducted through those surveys. Several studies based on scanty data have drawn various views of The Long Wall of Yanbian. Thus, the research for its construction history and its builders has provoked much controversy.

This paper provides a conceptual overview of historical discovery, investigation, and researches on The Long Wall of Yanbian. Also, the current status of the remains is also introduced through the collected data including fieldwork completed in April 2011. By analyzing the research on other long walls in China, I review the gene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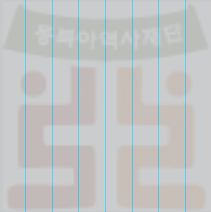
characteristics of The Long Wall of Yanbian, I also consider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determined by the area and the history. Furthermore, I discuss the construction history and its builders.

The following subjects are included in this paper. The first section provides an overview of the discovery and the current research status of The Long Wall of Yanbian, which may effectively suggest methodologies and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Based on existing studies and recent fieldwork, the second part introduces the current state of The Long Wall of Yanbian. This approach is helpful to come up with systematic plans for future surveys. The final section off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ng Wall of Yanbian. Understanding its general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can provide fundamental methods for interpreting the overall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construction history and the builders.

Keywords

The Long Wall, Yanbian, Northern Buyeo, Koguryo (Gaogouli), Balhae (Bohai)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고구려 고분벽화의 백색오염물질 제거에 관한 연구

임권웅 · 정성운 | 고구려발해학회

I. 머리말

고분벽화는 지하 또는 반지하에 축조되어 있는 묘실에 제작되어 있으며, 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경우에도 봉토로 덮여 있기 때문에 지하나 반지하에 축조된 고분 벽면에 제작된 벽화와 같이 저온다습한 환경에 놓여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특수한 환경은 일반 사찰벽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손상을 유발한다. 수용성 염에 의한 손상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용해도가 높은 염의 경우에는 반복되는 결정 작용으로 인해서 채색층이나 벽체의 박리 및 박락을 초래하고 용해도가 낮은 염은 벽화 표면에 오염물질로 집적되었다가 채색층과 함께 박락된다. 이러한 수용성 염에 의한 벽화 손상은 유럽 건축물의 벽화 중에서 회벽체로 제작된 벽화 하단부와 고분벽화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용해도가 낮은 수용성 염에 의해 발생하는 고분벽화의 손상에 관한 연구가 적은 상태며, 특히 벽화 표면에 발생하는 무기질 표면오염물

질(이하 ‘표면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실험과 이론적인 검토가 심도 깊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표면오염물질 제거는 고분벽화 보존처리 과정에서 강화처리나 메움, 채움에 앞서서 먼저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오염물질이 채색층 표면에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처리 시에 사용되는 약품과 안료의 반응 가능성을 고려해 처리방법 선정 전에 처리제와 처리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검토와 실험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분벽화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백색오염물질이 석회를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지만 본 연구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과정에서 시료 확보와 분석이 가능한 진파리 4호분으로 연구범위와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수용성 염과 표면오염물질에 대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결과 및 국외에서 진행된 고분벽화 보존처리 프로젝트의 표면오염물질 제거에 관한 연구결과와 처리사례를 검토·고찰하여 적용 가능한 처리방안들을 선정하는 데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표면오염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분석과 기존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여 백색오염물질을 시편으로 제작하고, 시편을 대상으로 선정된 처리방안을 적용하여 안전성과 처리효과를 확인하며, 기존에 발표한 자료는 한 가지 이온교환수지만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단편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하여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II. 고구려 고분벽화 보존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동향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고구려 고분벽화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적 분석과 보존처리와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진전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백색오염물질에 관한 연구와 안료 중에서 녹색안료인 공작석의 경우 백색오염물질 제거에 사용되는 약품과 반응하여 변색되므로 고구려 고분벽화의 안료에 대한 연구결과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_ 백색오염물질

벽화고분 내부 환경은 고분의 개방여부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밀폐되어 있는 고구려 벽화고분 내부의 환경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상대습도와 10°C 내외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표 1).

〈표 1〉 벽화고분 내부의 온·습도

고분	에트루스크 고분군 ¹⁾	고승총 ²⁾	수산리 고분 ³⁾	진파리 4호분 ³⁾	진파리 1호분 ³⁾	덕흥리 고분 ³⁾	안악 3호분 ³⁾	호남리 사신총 ³⁾	강서 대묘 ³⁾
온도 (°C)	-	19~20	12.9	8.1	10.7	14.9	13.4	11.9	15.1
상대습도 (%)	90 이상	92~98	94	94	94	99	100	99	98

고분내부의 평균습도와 평균온도 그리고 온·습도 변화는 현존하는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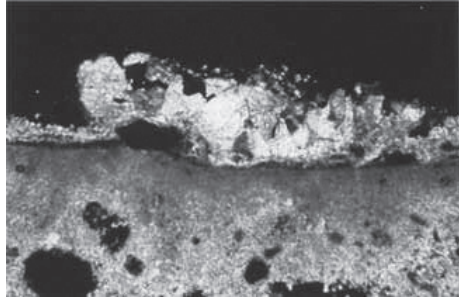
- 1) P. M. Schwarzbaum, I. Massari, G. Pignatelli, and C. Giantomassi, 1989, "Approaches to the conservation of mural paintings in underground structures,"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Mural Paintings* (I), p. 48
- 2) S. Miura and H. Saito, 1989, "Temperature and humidity in the tumulus Takamatsuzuka,"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Mural Paintings* (I), p. 107
- 3) 정용재·홍정기, 2006, 「고구려 벽화고분 생물·환경 조사 2장. 고분내 공기환경 및 온·습도」, 남북공동 고구려벽화고분 보존실태 조사보고서 제1권 조사보고, 남북역사학자협의회·국립문화재연구소

성 염의 상태변화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며 탈염처리 시점을 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⁴⁾ 표면에서 가까운 벽체내부와 표면에 존재하는 수용성 염은 종류와 고분내부의 환경(온·습도)에 따라 다양한 상태로 존재한다.⁵⁾ 수용성 염 중에서 용해도가 낮은 탄산칼슘(석회, CaCO_3)과 황산칼슘(석고, $\text{CaSO}_4 \cdot \text{H}_2\text{O}$)은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표면에 흰색 혹은 철, 망간 산화물이나 흘러내린 토양 등과 결합하여 갈색의 피막이나 피각을 형성 한다.⁶⁾

고분벽화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백색오염물질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형태는 얇은 반투명한 막 형태로 표면에 매끄럽게 형성되어 있거나 회색의 두꺼운 불투명한 층을 형성하면서 수포형태의 표면을 보이고 있다. 로마에 있는 빌라 톨로니아의 지하묘지(The catacombs of Villa Torlonia)에서 채취한 샘플 박편에서도 재결정 작용에 의해 형성된 얇은 석회층이 안료 층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⁷⁾ 석회로 이뤄진 백색오염물질은 고분벽화에서뿐만 아니라 1984년 독일 뮐하임케어리히(Muelheim-Kaerlich)에서 발굴된 로마 시대 목욕탕 천장에 그려진 벽화 표면에서도 확인되었다.⁸⁾

-
- 4) A. Arnold, K. Zehnder, A. Kueng, and O. Emmenegger, 1988, "Wandmalereizerfall, Salze und Raumklima in der Klosterkirche von Muenster," *Salzschaden an wandmalerei*, pp. 153~182; A. Sawdy, "The role of environmental control for reducing the rate of salt damage in wall paintings," *Conservierung the Painted Past*, pp. 95~109
- 5) M. Steiger, 2002, "Thermodynamische Eigenschaften von Salzgemischen," *Mauersalze und Architekturoberflaechen*, pp. 25~35; A. Arnold and K. Zehnder, 1987, "Monitoring Wall Paintings Affected by Soluble Salts," *The Conservation of Wall Painting*, pp. 103~135; S. Laue, 2002, "Salze und Raumklima in historischen Gebaeuden," *Mauersalze und Architektur-oberflaeschen*, pp. 65~71
- 6) CaCO_3 용해도는 20°C에서 1리터에 0.015g이 녹고, $\text{CaSO}_4 \cdot \text{H}_2\text{O}$ 는 같은 조건에서 2.4g이 용해된다.
- 7) R. Mazzeo, E. Joseph, S. Prati, G. Minguzzi, G. Grillini, P. Baraldi, and D. Prandstraller, 2006, "Scientific examination of mural paintings of the Koguryo tombs," in *The 29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 Mural Paintings of the Silk Road: Cultural Exchange of the East and West*, pp. 163~172
- 8) N. Riedl, 1998, "Entfernung von Kalksinterkrusten dargestellt am Beispiel

기존의 연구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고분벽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면오염물질의 종류는 갈색오염물질과 백색오염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 백색오염물질은 석회 혹은 석고 단독 혹은 소량의 점토광물을 포함하고 벽화표면에 집적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분벽화에서 발견되는 수산화칼슘($\text{Ca}(\text{OH})_2$)은 벽체에서 용해되어 나오기도 하지만 벽체나 고분 구조체 보강에 사용된 시멘트 모르타르로부터 형성되기도 한다.



〈그림 1〉 빌라 톨로니아의 지하묘지 벽화

2_ 고구려 고분벽화의 안료

고구려 고분벽화 제작에 사용된 안료에 대한 연구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선행되어 있어 자료수집이 비교적 용이하였다. 특히 2006년도에 실시된 남북공동 조사와 UNESCO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 보존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고분의 안료분석을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조사·연구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고구려 고분벽화에 사용된 안료

	약수리 고분	안악 3호분	덕흥리 고분	수산리 고분	진파리 4호분	진파리 1호분	호남리 사신총	강서 대묘	강서 중묘
황색	-	침철광	침철광	침철광	-	침철광	-	침철광	-
적갈색		적철광	적철광	적철광	적철광	적철광	적철광	-	-

der roemischen Wandmalerei von Muelheim-Kaerlich - Moeglichkeiten und Gefahren unter Zuhilfenahme des fluechtigen Bindemittels Cyclododecan.”
Diplomarbeit, Fachhochschule Koeln

살색		-	적철광 연백	적철광 연백	-	-	-	-	-
적색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적철광	진사	진사
흰색	연백	연백	연백	연백	-	-	-	연백, 방 해석	연백
검정색	탄소	-	탄소	탄소	탄소	탄소	-	-	-
연녹색		-	녹토	녹토	-	녹토	-	-	-
녹청색		공작석	-	-	공작석	-	-	-	-

황색은 침철광⁹⁾을 사용했고, 적갈색에는 적철광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살색은 덕흥리 고분과 수산리 고분에서 조사되었는데 덕흥리 고분벽화의 살색에서 연백과 적철광의 주성분인 Pb와 Fe 그리고 석황(As₂S₃)의 구성성분인 As도 함께 검출되었지만 황토와 연백을 혼합하여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¹⁰⁾ 하지만 연백을 기본 바탕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덕흥리 고분벽화에서 검출된 연백이 함께 검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적색은 조사된 고분 중에서 호남리 사신총을 제외하면 모두 황화수은(HgS)을 사용했다. 고대안료에 사용된 황화수은은 천연산일 경우에는 진사, 인공적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주사라고 부르지만 화학적 성분분석으로는 구분할 수 없고 형태학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구분이 가능하다.¹¹⁾

9) 침철석이라고도 불리며 영어로는 독일 시인 괴테(J. W. von Goethe)의 이름을 따서 goethite로 명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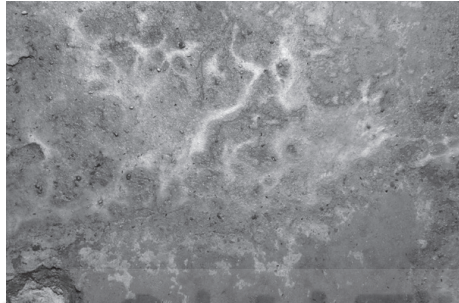
10) 안병찬·홍종욱, 2006, 「고구려 고분벽화의 안료분석」,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실태 조사 보고서 - 제1권 조사보고, 191쪽

11)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검출되는 황화수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진사라고 부르고 있다.

Ⅲ. 연구방법과 결과

1_ 진파리 4호분의 백색오염물질

고구려 고분벽화의 표면오염물질에 대한 성분분석은 UNESCO 프로젝트와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에서도 실시되었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실시된 진파리 4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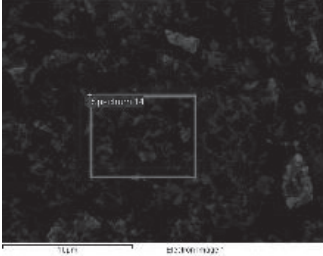
〈그림 2〉 진파리 4호분 현실동벽 백색오염물질

백색오염물질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결정된 방해석(calcite)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시 현장에서 음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하여 백색오염물질 제거실험이 실시되었지만 현장 여건상 체계적인 연구가 실시되지 못하였다.¹²⁾ 2007년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서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진파리 4호분 내부에서 백색오염물질은 벽면 전체면적에서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파리 4호분에서 나타나는 백색오염물질은 반투명 회백색층에서 백색 불투명한 층까지 형성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돌기형태의 층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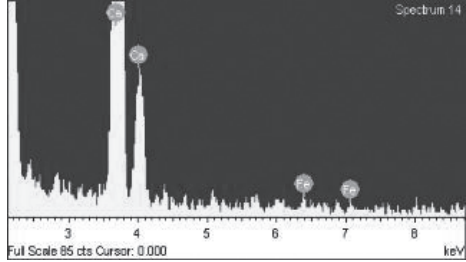
백색오염물질에 대한 주사전자현미경에 부착된 EDX를 이용한 성분분석결과 칼슘(Ca)이 주성분(65.28~71.47%)이며 규소(Si), 알루미늄(Al), 마그네슘(Mg) 그리고 철(Fe)이 소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8, 표 3).¹³⁾

12) 한경순·임권웅, 2007, 「진파리 1, 4호 벽화고분의 손상상태 조사 및 응급보존처리 방안 연구」, 남북공동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 연구보고서, 69~78쪽; 한경순·임권웅, 2008, 「고구려 고분벽화 오염물질 제거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 Vol. 22, 99~1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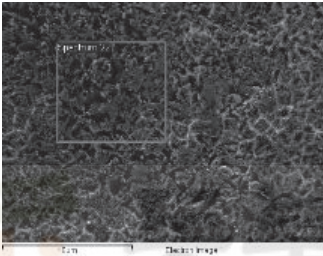
13) Leo1455VP, LEO electron Microscope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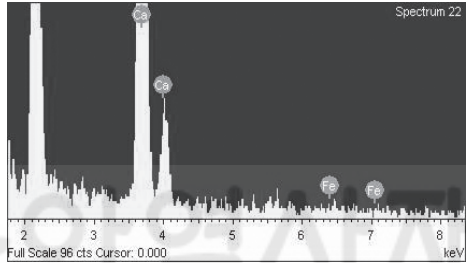
〈그림 3〉 백색오염물질(MS2-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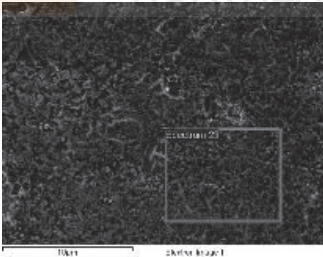
〈그림 4〉 MS2-8-14의 EDX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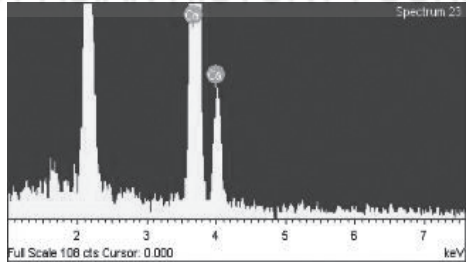
〈그림 5〉 백색오염물질(MS2-8-22)



〈그림 6〉 MS2-8-22의 EDX분석결과



〈그림 7〉 백색오염물질(MS2-8-23)



〈그림 8〉 MS2-8-23의 EDX분석결과

〈표 3〉 진파리 4호분 백색오염물질의 주요 구성성분(중량비, %)

	Mg	Al	Si	Ca	Fe	O	Totals
MS2-8-14	-	-	1,20	68,60	1,12	29,08	100,00
MS2-8-22	0,77	1,07	2,36	65,28	0,26	30,27	100,00
MS2-8-23	-	-	-	71,47	-	28,53	100,00

2_ 처리방안과 시편제작

1) 백색오염물질 제거방안

석회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염물질의 제거에는 일반적으로 물리적·화학적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해부용 칼이나 유리섬유솔을 사용해 제거하거나 치석제거용 초음파장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화학적으로는 산이나 알칼리를 이용한 제거 방식이 많이 쓰이며, 최근에는 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해서 안료층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기도 한다.

본 실험에서는 국내외에서 시판되는 이온교환수지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실험에 사용된 이온교환수지 외에 별도의 약품을 혼합하지 않았다. 백색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실험에 벽화표면세척에 사용되는 AB57과 음이온교환수지 1개와 4개의 양이온교환수지를 사용했다.

(1) AB57

AB57은 벽화표면의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벽화보존처리 전문가인 모라(Mora)가 처음 제작하여 사용되기 시작한 약품이다. AB57은 암모니움카보네이트(Ammonium bicarbonate, $(\text{NH}_4)_2\text{CO}_3 \cdot \text{H}_2\text{O}$), 소듐비카보네이트(Sodium bicarbonate, NaHCO_3), 데조겐(Dezogen),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Carboxy methyl cellulose)로 구성되어 있다. AB57은 벽화표면의 먼지나 탄산칼슘 등 무기질오염물과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는 약품을 혼합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다. AB57의 구성성분인 암모니움비카보네이트는 pH가 7.5에서 8.5로 물에 잘 녹지만 알코올에는 용해되지 않고 물에 용해될 때에는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벽화보존처리에서 탄산칼슘이나 황산칼슘을 용해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품으로 암모니움카보네이트에 비해서 유기질 접착제(medium)와 안료에 대한 반응성이 적기 때문에 암모니움카보네이트의 대체약품으로 사용한다. 흔히 베이킹 파우더라고 불리는 소듐비카보네이트도 탄산칼슘과 황산칼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AB57에 혼합한다. 데조겐은 일종의 살균제로 벽화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 곰팡이류를 제거하기 위해 혼합된 것이다.¹⁴⁾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는 일반적으로 액상의 약품에 혼합해서 점도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한다.

AB57을 구성하고 있는 약품들은 모라(Mora)가 제시한 혼합량¹⁵⁾을 기준으로 벽화오염물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혼합량이 조절된다(표 4). 미켈란젤로가 그린 성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에서 표면오염물질을 제거할 때 사용한 AB57은 소디움비카보네이트의 양을 모라가 제시한 것보다 20g 적게 그리고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는 49g을 더 혼합하였다.¹⁶⁾ 소디움비카보네이트 양을 감소시킨 것은 프레스코벽화라는 특성과 표면오염물질의 성분을 고려한 것이고,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 양을 증가시킨 것은 천장화 세척이라는 작업 특성상 AB57의 점도를 조절하여 벽화표면에 대한 부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실험에서는 모라가 제시한 혼합비율을 사용하였다.

〈표 4〉 AB57의 구성물질과 혼합량

약품명	모라(Mora)	성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세척용
	혼합량(g)	혼합량(g)
Water	1000	1000
Ammoniumbicarbonate	30	30
Sodiumbicarbonate	50	30
Dezogen (10%)	25	5ml
Carboxil methyl cellulose	6	55

14) Appearance: Colourless liquid, Assay: 10% Steramine (quaternary ammonium salt), pH: 7.0 in aqueous solution

15) Mora, L. Mora and P. Philippot, 1984, *Conservation of Wallpaintings*, ICCROM, p. 343

16) N. Riedl, 1998, "Entfernung von Kalksinterkrusten dargestellte am Beispiel der roemischen Wandmalerei von Muehlheim-Kaerlich," Diplomarbeiten, FH Koeln, p. 137

AB57을 벽화의 표면오염물질 제거에 사용할 경우에는 암모니움비카보네이트와 소듐비카보네이트가 탄산칼슘이나 황산칼슘과 반응한 후 칼슘비카보네이트와 황산나트륨, 탄산나트륨 등 벽화를 손상시킬 수 있는 수용성 염을 반응 부산물로 생성시키기 때문에 AB57을 사용한 뒤에는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해서 잔류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안료와 표면오염물질 제거나 세척에 사용되는 약품과의 반응성에 대해서는 프리츠(Fritz)의 연구¹⁷⁾에 따르면 암모니움비카보나이트를 세척제로 사용했을 때 암모니움비카보네이트와 녹색안료인 공작석이 반응해서 청색으로 변색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2) 이온교환수지

이온교환수지는 산업체와 가정 등 많은 분야에서 수질연화과정, 광석에서 귀금속을 농축하는 용도 등으로 넓게 사용된다. 또한 화학 분야에서는 수용액 속의 이온을 분리하거나 농축하는 데 사용한다. 일반적인 형태는 작은 알갱이의 형태를 취하지만 용도에 따라 분말·판 등으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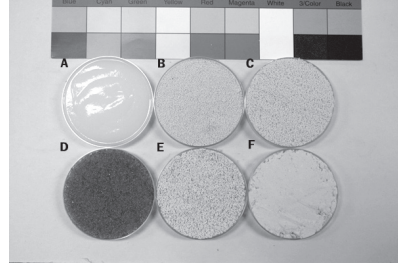
이온교환수지는 스틸렌-디비닐벤젠 공중합체와 같은 것으로 이뤄져 있는 기본 골격, 이온을 교환하는 성질이 있는 작용기와 이온화되어 있는 원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온교환수지가 수용액 속에서 원자단의 이온보다 반응성이 큰 같은 전하의 이온을 접하면 원자단이 작용기에서 분리되고 그 자리에 원자단 이온보다 반응성이 큰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이 작용기에 결합하게 된다. 이때 작용기에 결합하는 이온이 양이온과 음이온에 따라 양이온교환수지와 음이온교환수지로 분류된다.

벽화 보존처리에서 이온교환수지는 탄산칼슘 등 표면오염물질의 특정 양이온이나 음이온을 교환해 표면오염물질을 용해되기 쉬운 상태의 물질로 전환시킨다. 탄산칼슘을 제거할 때는 주로 H^+ 를 원자단으로 갖고 있는 양이온교환

17) E. Fritz, 1994, "Reinigungs- und Rekonservierungsverfahren an Wandmalereien-Der Einsatz physikalisch-chemisch wirkender Nassreinigungungsverfahren und ihre Problematik, Konservierung von Wandmalerei," p. 85



〈그림 9〉 백색오염물질 제거 실험에 사용된
AB57과 이온교환수지



〈그림 10〉 A: AB57, B: SR7, C: CHE4036 D:
CNP80, E: TP206, F: SH

수지를 이용해 양이온인 Ca^+ 를 교환하고, 황산칼슘의 경우에는 OH^- 를 원자단으로 갖고 있는 음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해 SO_4^{2-} 를 제거한다.

본 연구에는 총 5종의 이온교환수지가 사용되었다(그림 9, 10). 5종의 이온교환수지 중에서 SR7¹⁸⁾은 원자단이 Cl^- 인 음이온교환수지다. CNP80,¹⁹⁾ CHE4036²⁰⁾은 원자단이 H^+ 이며, TP260²¹⁾은 Na^+ 이온을 원자단으로 갖고 있다. 다른 이온교환수지들이 알갱이 형태로 제작되어 있지만, SH²²⁾는 분말형태의 양이온교환수지에 H^+ 가 원자단으로 결합되어 있다.

2) 시편제작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시편은 2008년도에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작하였다. 시편의 바탕은 진파리 4호 분 벽체의 화벽층과 유사하게 황토와 회와 모래를 3 : 1 : 1 (중량비)로 혼합한 뒤에 직경 5.5cm 높이 1.5cm의 페트리디쉬를 틀로 사용해서 시편을 제작하였

18) IONAC SR-7, Sybron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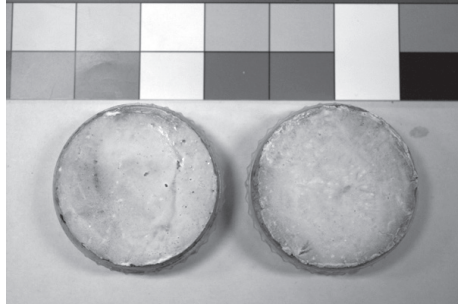
19) LEWATIT CNP 80, LANXESS사

20) LEWATIT MonoPlus S100H CHE4036, LANXESS사

21) LEWATIT MonoPlus TP260, LANXESS사

22) AKEOGARD SH, Syremont사

다. 이때 사용된 황토는 표준체를 사용해서 체가름한 후에 50 μ m 이하의 고운 황토만 사용하였다. 시편의 바탕층을 하루 동안 자연건조시킨 후 그 위에 백색오염물질을 제작하였다. 백색오염물질은 소석회를 증류수와 혼합하여 바탕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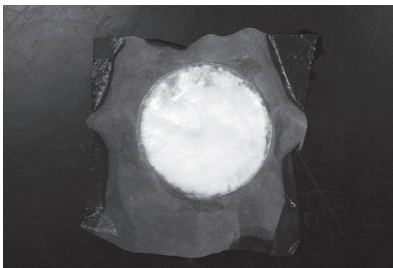


〈그림 11〉 백색오염물질 시편이 물에 젖어 반투명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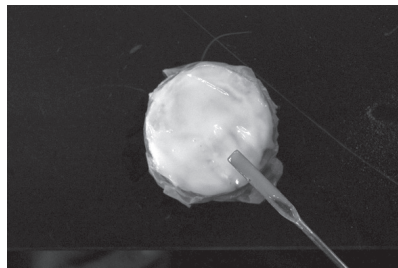
시편 위에 얇게 바른 뒤에 소석회가 녹아 있는 증류수를 주사기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표면에 도포해 주었다. 이렇게 제작된 백색오염물질층의 두께는 약 3mm 정도였다. 시편에 형성된 백색오염물질층은 건조상태에서는 불투명하지만 수분에 젖어 있을 때는 반투명한 상태로 변한다. 반투명상태의 백색오염물질층을 통해서 바탕층의 색과 질감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그림 11). 이와 같은 현상은 진파리 4호분의 백색오염물질층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다.

3) 실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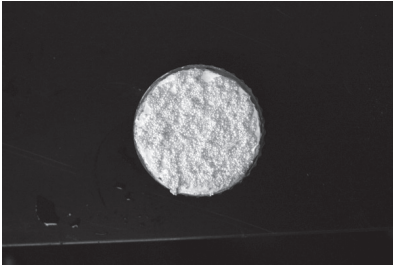
AB57을 젖은 한지를 덮은 시편 세 개에 각각 3g씩 도포한 뒤에 비닐필름으로 밀봉해서 수분과 약품의 증발을 방지하였다(그림 12, 13).



〈그림 12〉 시편을 젖은 한지로 덮은 상태



〈그림 13〉 AB57 도포상태



〈그림 14〉 이온교환수지 도포상태



〈그림 15〉 한지로 이온교환수지를 감싼 상태

5종의 이온교환수지는 각각 시편 세 개에 3g씩 시편 표면에 직접 도포한 후에 젖은 한지를 덮고, 비닐필름으로 수분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편을 봉했다(그림 14, 15). 비닐필름으로 밀봉한 시편은 각각 6시간, 12시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증류수를 사용해서 바탕층 위에 남은 약품을 제거하고 건조과정을 거친 후에 사진 촬영과 무게를 측정하였다.

3_ 결과 및 고찰

AB57과 이온교환수지로 세 개씩 처리된 시편을 처리 후 6시간, 12시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시편의 표면에 남아 있는 AB57과 이온교환수지를 증류수를 이용해서 세척하고 건조시킨 다음 무게를 측정하여 무게 감소량으로 세척효과를 확인하였다.

1) AB57

AB57로 처리된 시편은 육안으로 볼 때 큰 변화가 없었으며(그림 16, 17), 시간에 따른 무게 감소량은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표 5). 안료와 반응해서 색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을 고려하면 백색오염물질 제거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안료층 위에 형성된 백색오염물질 제거에 이용할 경우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AB57 처리 후 시편 무게 변화량 (단위: g)

AB57	6시간	12시간	24시간
처리전	48.69	45.89	45.42
처리후	47.5	44.46	44.66
감소량	1.19	1.43	0.76



〈그림 16〉 AB57 처리 전 (6h, 12h, 24h)



〈그림 17〉 AB57 처리 후 (6h, 12h, 24h)

2) SR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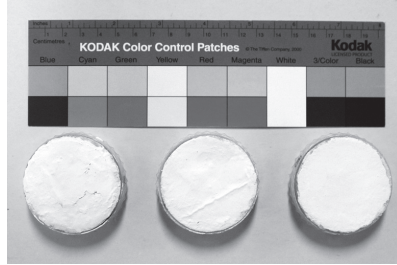
SR7로 처리된 시편의 무게 감소량은 1.18g에서 1.86g까지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시간에 따른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표 6). 시편 표면의 변화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그림 18, 19) 전체적인 무게 감소량으로 볼 때 CNP80과 함께 가장 많은 무게 감소를 보였다.

〈표 6〉 SR7 처리 후 시편 무게 변화량(단위: g)

SR7	6시간	12시간	24시간
처리 전	52.34	42.74	45.60
처리 후	50.48	41.56	44.23
감소량	1.86	1.18	1.37



〈그림 18〉 SR7 처리 전 (6h, 12h, 24h)



〈그림 19〉 SR7 처리 후 (6h, 12h, 24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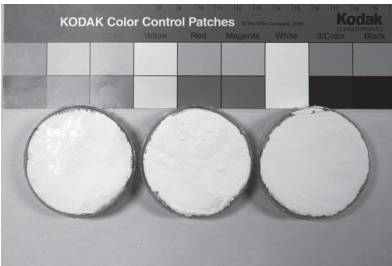
3) CHE4036

CHE4036은 1.08g에서 1.38g까지의 무게 감소량을 보였는데, 12시간과 24시간 경과 후 시편의 무게 감소가 0.03g으로 근소한 격차를 보이고 6시간이 경과한 시편도 1.08g만 변화한 것으로 볼 때 시간에 따른 격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표 7). 처리된 시편 표면에서 이온교환수지 입자 자국이 확인되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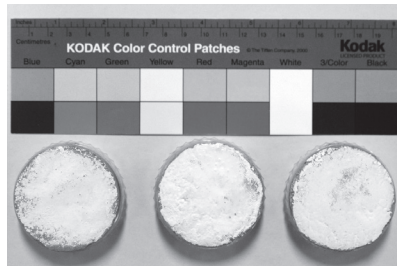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7〉 CHE4036 처리 후 시편 무게 변화량 (단위: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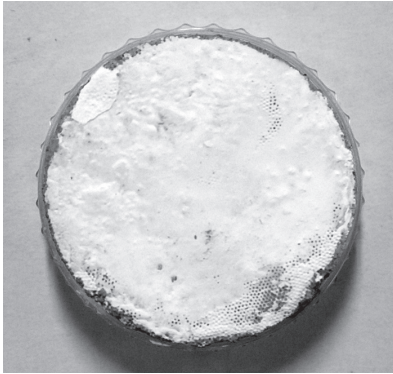
CHE4036	6시간	12시간	24시간
처리 전	44.91	47.25	47.85
처리 후	43.85	45.87	46.5
감소량	1.06	1.38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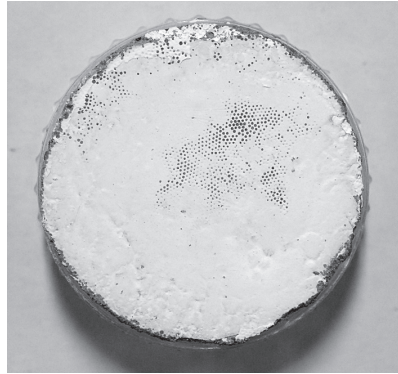
〈그림 20〉 CHE4036 처리 전 (6h, 12h, 24h)



〈그림 21〉 CHE4036 처리 후 (6h, 12h, 24h)



〈그림 22〉 CHE4036 12시간 경과 후



〈그림 23〉 CHE4036 24시간 경과 후

데(그림 20~23), 이러한 자국은 이온교환수지 입자가 석회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장시간 처리할 경우에는 제거대상인 백색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석회가 포함되어 있는 바탕층도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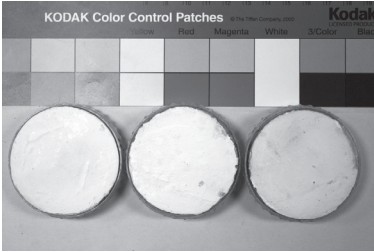
4) TP260

TP260으로 처리된 시편의 경우 시편표면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고(그림 24, 25), 무게 감소도 1.1g에서 0.72g으로 적은 폭으로 감소했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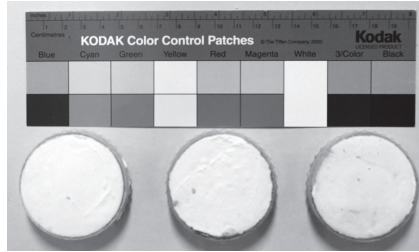
〈표 8〉 TP260 처리 후 시편 무게 변화량

(단위: g)

TP260	6시간	12시간	24시간
처리 전	48.22	44.36	45.65
처리 후	47.12	43.58	44.93
감소량	1.1	0.78	0.72



〈그림 24〉 TP260 처리 전 (6h, 12h, 24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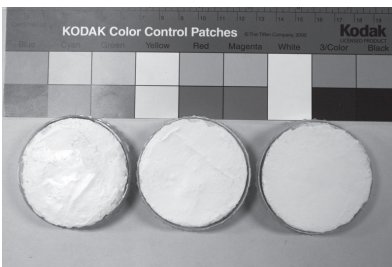
〈그림 25〉 TP260 처리 후 (6h, 12h, 24h)

5) CNP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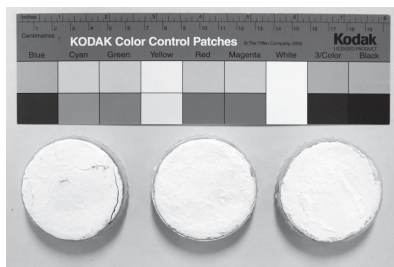
CNP80으로 처리된 시편의 무게 감소량은 1.15g에서 1.81g으로 CNP80의 경우에도 시간에 따른 감소경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표 9), 12시간 처리했을 때 1.81g이 감소하여 SR7로 6시간 처리한 시편과 같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그림 26, 27). 24시간 동안 처리한 시편에서 이온교환수지의 입자자국이 확인되었다(그림 28).

〈표 9〉 CNP80 처리 후 시편 무게 변화량(단위: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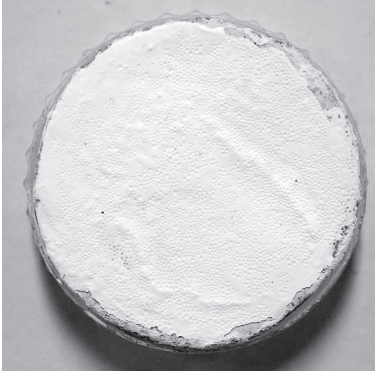
CNP80	6시간	12시간	24시간
처리 전	47.41	47.58	47.21
처리 후	46.26	45.77	45.76
감소량	1.15	1.81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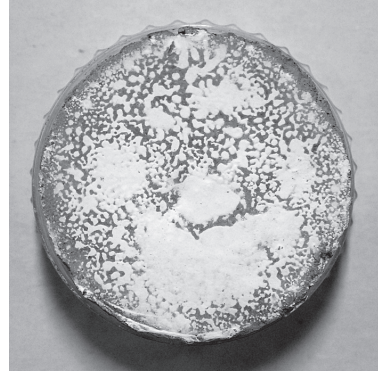
〈그림 26〉 CNP80 처리 전 (6h, 12h, 24h)



〈그림 27〉 CNP80 처리 후 (6h, 12h, 24h)



〈그림 28〉 CNP80 처리 후 24시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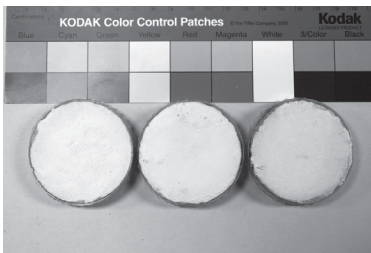
〈그림 29〉 SH 처리 후 24시간 경과

6) 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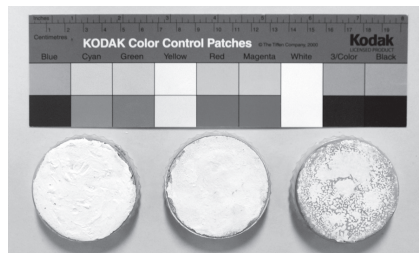
SH로 처리한 시편은 무게 감소폭이 AB57이나 다른 이온교환수지에 비해서 가장 적은 0.79g에서 0.93g으로 나타났다(표 10). SH로 24시간 처리한 시편

〈표 10〉 SH 처리 후 시편 무게 변화량(단위: g)

SH	6시간	12시간	24시간
처리 전	45.85	41.08	47.15
처리 후	44.93	40.29	46.22
감소량	0.92	0.79	0.93



〈그림 30〉 SH 처리 전 (6h, 12h, 24h)



〈그림 31〉 SH 처리 후 (6h, 12h, 24h)

의 경우에 백색오염물질층이 다른 시편들에 비해서 가장 많이 제거되었지만 (그림 29), SH가 분말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자 자국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30, 31).

IV. 맺음말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표면오염물질은 갈색과 백색을 띠고 있다. 현재 까지 진행된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갈색을 띠고 있는 피각은 석회와 황토 혼합물로 확인되었으며, 고분벽화에서 발견되는 백색오염물질은 석회와 약간의 점토광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고분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 석고가 형성된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진파리 4호분에서 수습된 시료를 SEM-EDX로 구성성분을 조사하여 백색 오염물질의 주성분이 석회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2008년도에 수행된 고구려 고분벽화 석회모르타르 특성규명연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편을 대상으로 안료와 반응하지 않는 5종의 이온교환수지와 벽화 표면세척용으로 사용되는 AB57을 이용해서 백색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적용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처리제를 각각 세 개씩의 시편을 대상으로 적용한 다음 6시간, 12시간, 24시간 후에 증류수를 이용해서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에 무게를 측정하여 무게 감소량에 따라 세척효과를 추정하였지만 시간에 따른 세척효과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SR7과 CNP80이 무게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어 백색오염물질 제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용실험 결과 일부 시편에서 장시간 처리할 경우 석회질의 백색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석회가 함유된 바탕층의 손상과 안료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료층 위에 형성되어 있는 백색오염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안료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용시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CHE4036을 적용한 시편의 경우 백색오염물질의 일부가 제거되고, 점토와 석회를 혼합하여 제작한 바탕층이 노출되었고, 이온교환수지의 입자자국이 확인되었다. CNP80으로 처리한 시편에서도 백색오염물질층에 이온교환수지의 입자자국이 확인되었지만 바탕층은 노출되지 않았다. 분말 형태의 SH로 처리된 시편의 경우에는 바탕층이 노출되었음에도 분말 형태이기 때문에 CNP80과 CHE4036 같은 형태의 손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실제로 바탕층의 손상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AB57은 이온교환수지들과 비교할 때 월등한 세척력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료와의 반응성을 고려할 때 안료층 위에 형성되어 있는 백색오염물질 제거에는 적절치 않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선행된 연구에서 실시된 고구려 고분벽화 안료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표 2)에 따르면 안약 3호분과 진파리 4호분의 녹색안료가 공작석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AB57을 사용하여 안약 3호분과 진파리 4호분의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백색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CNP80과 CHE4036의 경우를 통해서 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해서 석회질의 백색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장시간 적용할 경우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탕층이나 석회로 결합되어 있는 채색층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 처리에서는 벽화의 채색층이 없는 부분에 적용실험을 실시하여, 최대 적용시간을 짧게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20~30분 간격으로 백색오염물질이 제거된 정도를 확인하여 적용시간을 조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각의 완전 제거를 전제로 하지 않고 물리적인 제거방법과 병행하여서 처리한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거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Arnold, A. and Zehnder, K., 1987, "Monitoring Wall Paintings Affected by Soluble Salts," *The Conservation of Wall Painting*
- Arnold, A. and Zehnder, K., et al., 1988, "Wandmalereizerfall, Salze und Raumklima in der Klosterkirche von Muenster," *Salzschaeden an wandmalerei*
- Fritz, E., 1994, "Reinigungs- und Rekonservierungsverfahren an Wandmalereien - Der Einsatz physikalisch-chemisch wirkender Nassereinigungsverfahren und ihre Problematik, Konservierung von Wandmalerei"
- Laue, S., 2002, "Salze und Raumklima in historischen Gebaeuden," *Mauersalze und Architektur-oberflaeschen*
- Mazzeo, R. and Joseph, E., et al., 2006, "Scientific examination of mural paintings of the Koguryo tombs", in The 29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 Mural Paintings of the Silk Road: Cultural Exchange of the East and West
- Miura, S. and Saito, H., 1989, "Temperature and humidity in the tumulus Takamatsuzuka,"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Conservation and Restoration Mural Paintings* (I)
- Mora, L. and Mora, P. P., 1984, *Conservation of Wallpaintings*, ICCROM
- Riedl, N., 1998, "Entfernung von Kalksinterkrusten dargestellt am Beispiel der roemischen Wandmalerei von Muelheim-Kaerlich - Moeglichkeiten und Gefahren unter Zuhilfenahme des fluechtigen Bindemittels Cyclododecan," Diplomarbeit, Fachhochschule Koeln
- Sawdy, A. "The role of environmental control for reducing the rate of salt damage in wall paintings," *Conservierung the Painted Past*
- Schwarzbaum, P. M. and Massari, I., et al., 1989, "Approaches to the conservation of mural paintings in underground structures",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Conservation and Restoration Mural Paintings* (I)

Steiger, M., 2002, "Thermodynamische Eigenschaften von Salzmischen,"
Mauersalze und Architekturoberflaechen

안병찬 · 홍종욱, 2006, 「고구려 고분벽화의 안료분석」,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실태 조
사 보고서-제1권 조사보고

정용재 · 홍정기, 2006, 「고구려 벽화고분 생물·환경 조사 2장. 고분내 공기환경 및
온·습도」, 남북공동 고구려벽화고분 보존실태 조사보고서 제1권 조사보고, 남북
역사학자협의회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경순 · 임권웅, 2007, 「진파리 1, 4호 벽화고분의 손상상태 조사 및 응급보존처리 방
안 연구」, 남북공동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 연구보고서

한경순 · 임권웅, 2008, 「고구려 고분벽화 오염물질 제거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
지』, Vol. 2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Using Ion Exchange Resin to Remove White Crust from the
Wall Paintings of Koguryo Tombs

Lim Kwonwoong · Jung Sungyun

A wall painting is composed of the structure that forms the ancient tomb, lime-plastered wall, and colored layer and is painted on the wall of a tomb room built underground or semi-underground. The structure is covered with earth even if the ancient tomb with a wall painting is built above ground so that the wall painting is exposed to low temperature and high humidity like those in the ancient tombs built underground or semi-underground.

In those environments, a wall painting in an ancient tomb is damaged by water-soluble salt. Salt with high solubility causes the lamination or exfoliation of the colored layer or wall, and the salt with low solubility is accumulated on the surface of the wall painting as contaminants, thus making it difficult to recognize the contents of the wall painting. However, they are eventually laminated together with the colored layers or the wall.

This study examined the results of the existing studies on the water-soluble salt and surface contaminants that appear on the wall paintings of Koguryo, reviews the results of pigment analysis, and selects the measures that can be applied practically based on the review and consideration of existing studies and the related cases with respect to the removal of surface contaminants. Specimens were design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study pertaining to the surface contaminants and pigment, and the selected processing method was applied to the specimens.

From the test of the washing power ability, conducted by using AB57 (distilled water, $(\text{NH}_4)\text{HCO}_3$, NaHCO_3 , Desogen, and Carboxil methyl cellulose mixture) and ion exchange resin, which was effective in removing surface contaminants and proven effective in the existing studies, it was found that SR7 and CNP80, the anion exchange resin, were confirmed to be the most effective.

If processed for a long time, however, ion exchange resin was found to give damage to the lime-plastered wall, which includes lime, as well as containments. Therefore, special care needs to be taken in using the ion exchange resin.

However, it was found that ion exchange resin may have a positive effect in removing contaminants if the processing time is adjusted appropriately and the processing is carried out together with the method of physical removal.

Keywords

Wall paintings in Koguryo tombs, surface contaminants, AB57, ion exchange resin

唐代 高句麗 표기 기피현상

- 隋唐 墓誌銘의 國名 표기 분석을 중심으로 -

최진열 |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원

I. 머리말

한국 고대사는 자료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혔지만, 최근까지 발견되는 唐代 墓誌銘을 입수하여 고구려와 백제 遺民, 신라인의 판별과 역주, 자료 소개를 하는 글들이 활발히 발표되고 있다. 고구려 유민의 경우도 주로 고구려인 여부 판별과 자료 소개를 하는 작업이 활발하다.¹⁾ 일부는 고구려 유민의 본적에 관

※ 투고일: 2012년 3월 28일, 심사일: 2012년 11월 14일, 게재 확정일: 2012년 11월 23일

- 1)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譯注韓國古代金石文』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宋基豪, 1998, 「고구려 유민 高玄 墓誌銘」, 『서울대학교 博物館 年報』 10; 李文基, 2001, 「高句麗 遺民 高足西 墓誌의 檢討」, 『歷史教育論集』 26; 李文基, 2002, 「高句麗 寶藏王의 曾孫女 「高氏夫人墓誌」의 檢討」, 『歷史教育論集』 29, 157~159쪽; 尹龍九, 2003, 「중국출토의 韓國古代 遺民資料 몇 가지」, 『한국고대사연구』 32, 293~294쪽; 고구려연구재단 編, 2004, 『중국 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고구려연구재단); 姜清波, 2005.4,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博士學位論文, 164~174쪽; 宋基豪, 2007, 「고구려 유민 高氏夫人 墓誌銘」, 『韓國史論』 53, 490~491쪽; 仇鹿鳴, 2008, 「“攀附先世”與“僞冒士籍”-以渤海高氏爲中心的研究」, 『歷史研究』 2008-2, 65~71쪽

심을 가졌고,²⁾ 필자도 고구려 유민의 본적지 표기에 주목하여 ‘고구려(고려)’라는 옛 국호를 표기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한 바 있다.³⁾

필자는 당대 묘지명을 검토하다가 고구려 공격에 참여한 唐將들의 기록을 접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고구려 관련 기록에는 고구려의 당대 표기인 ‘高麗’라는 단어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기록이 빈출하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정리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正史와 墓誌銘의 高句麗 표기 여부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 『구당서』·『신당서』·『당회요』 등 당대 혹은 그 이후에 편찬된 사서의 고구려 공격 표기를 통해 고구려 표기 여부를 통계적으로 살펴 보겠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당대 묘지명에서 고구려 표기 여부를 묘지명 구절과 표기 여부를 통계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제4장에서는 고구려 이외의 당대 주변국들에 대한 표기도 살펴보고자 한다. 突厥과 위구르, 기타 국가들의 표기도 살펴보고 비교해 보면서 고구려 표기 기피현상이 당대 국명 표기에서 지니는 상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 2) 盧泰敦, 1981, 「高句麗 遺民史 研究－遼東·唐內地 및 突厥方面의 集團을 중심으로」, 『韓洵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96쪽; 李文基, 2002, 「高句麗 寶藏王의 曾孫女 「高氏夫人墓誌」의 檢討」, 『歷史教育論集』 29, 157~158쪽; 姜清波, 2005, 앞의 글, 73~74쪽; 馬一虹, 2006, 「從唐墓志看入唐高句麗遺民歸屬意識的變化－以高句麗末代王孫高震一族及權勢貴族爲中心」, 『北方文物』 2006-1(總第85期), 29左~36右쪽
- 3) 崔珍烈, 2009, 「唐人들이 인정한 高句麗人의 正體性－唐代 墓誌銘에 보이는 高句麗의 別稱(朝鮮·三韓·扶餘) 分析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4, 209~255쪽

II. 史書의 高句麗 표기 대체와 기피

1_ 史書의 高句麗 표기 대체 현상

이 절에서는 『구당서』와 『신당서』, 『당회요』 등에 나타난 唐의 고구려 공격 기사를 통계수치로 살펴본다. 아래의 <표 1>은 고구려의 실명과 별명 표기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正史의 高句麗 공격 표기

史書 표현	『隋書』				『舊唐書』·『新唐書』				『唐會要』	총계
	本紀	列傳	外國列傳	志	本紀	列傳	外國列傳	志		
伐高麗					15 ⁴⁾	11 ⁵⁾	9 ⁶⁾	1 ⁷⁾		36
征高麗						11 ⁸⁾	6 ⁹⁾	2 ¹⁰⁾		19
伐遼						10 ¹¹⁾	3 ¹²⁾	1 ¹³⁾	1 ¹⁴⁾	15
征遼		1 ¹⁵⁾		2 ¹⁶⁾		17 ¹⁷⁾			8 ¹⁸⁾	28
伐遼東						8 ¹⁹⁾	1 ²⁰⁾			9
征遼左									1 ²¹⁾	
征遼東	1 ²²⁾	23 ²³⁾		1 ²⁴⁾	1 ²⁵⁾	18 ²⁶⁾	2 ²⁷⁾		2 ²⁸⁾	46
遼東之役		3 ²⁹⁾								3
征遼海						1 ³⁰⁾				1
入遼									1 ³¹⁾	1
問罪遼碣									1 ³²⁾	1
滅遼東									1 ³³⁾	1
興師遼東						1 ³⁴⁾				1
渡遼之師						1 ³⁵⁾				1
銳意三韓						1 ³⁶⁾				1
	1	25		3	16	78	21	4	15	163

- 4) 『舊唐書』卷3「太宗紀」下 貞觀十八年十一月庚子條, 57卒, “發天下甲士, 召募十萬, 竝趣平壤, 以伐高麗.”; 『舊唐書』卷4「高宗紀」上 貞觀十八年條, 65~66卒, “十八年, 太宗將伐高麗, 命太子留鎮定州.”; 『舊唐書』卷4「高宗紀」上 龍朔元年夏五月丙申條, 81~82卒, “夏五月丙申, 命左驍衛大將軍·涼國公契苾何力爲遼東道大總管, 左武衛大將軍·邢國公蘇定方爲平壤道大總管, 兵部尚書·同中書門下三品·樂安縣公任雅相爲淇江道大總管, 以伐高麗.”; 『舊唐書』卷5「高宗紀」下 乾封元年冬十月己酉條, 90卒, “冬十月己酉, 命司空·英國公勳爲遼東道行軍大總管, 以伐高麗.”; 『新唐書』卷3「高宗紀」龍朔元年正月戊午條, 61卒, “龍朔元年正月戊午, 鴻臚卿蕭嗣業爲扶餘道行軍總管, 以伐高麗.”; 『新唐書』卷3「高宗紀」龍朔元年四月庚辰條, 61卒, “四月庚辰, 任雅相爲淇江道行軍總管, 契苾何力爲遼東道行軍總管, 蘇定方爲平壤道行軍總管, 蕭嗣業爲扶餘道行軍總管, 右驍衛將軍程名振爲鏐方道行軍總管, 左驍衛將軍 龐孝泰爲沃沮道行軍總管, 率三十五軍以伐高麗.”; 『新唐書』卷3「高宗紀」乾封元年十二月己酉條, 65卒, “十二月己酉, 李勣爲遼東道行臺大總管, 率六總管兵以伐高麗.”; 『新唐書』卷2「太宗紀」貞觀十八年七月甲午條, 43卒, “七月甲午, 營州都督張儉率幽·營兵及契丹·奚以伐高麗.”; 『新唐書』卷2「太宗紀」貞觀十八年十一月甲午條, 43卒, “甲午, 張亮爲平壤道行軍大總管, 李世勣·馬周爲遼東道行軍大總管, 率十六總管兵以伐高麗.”; 『新唐書』卷2「太宗紀」貞觀十九年二月庚戌條, 43卒, “十九年二月庚戌, 如洛陽宮, 以伐高麗.”; 『新唐書』卷2「太宗紀」貞觀二十年條二月甲午, 45卒, “二月甲午, 從伐高麗無功者, 皆賜勳一轉.”; 『新唐書』卷2「太宗紀」貞觀二十一年三月戊子條, 46卒, “三月戊子, 左武衛大將軍牛進達爲青丘道行軍大總管, 李世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 率三總管兵以伐高麗.”; 『新唐書』卷2「太宗紀」貞觀二十二年正月丙午條, 47卒, “丙午, 左武衛大將軍薛萬徹爲青丘道行軍大總管, 以伐高麗.”; 『新唐書』卷3「高宗紀」永徽六年二月乙丑條, 56卒, “乙丑, 營州都督程名振·左衛中郎將蘇定方伐高麗.”; 『新唐書』卷3「高宗紀」顯慶五年十二月條, 61卒, “壬午, 左驍衛大將軍契苾何力爲淇江道行軍大總管, 蘇定方爲遼東道行軍大總管, 左驍衛將軍劉伯英爲平壤道行軍大總管, 以伐高麗.”
- 5) 『舊唐書』卷53「李密傳」, 2208卒, “大業九年, 楊帝伐高麗, 使玄感於黎陽監運.”; 『舊唐書』卷65「高士廉傳」, 2444卒, “[貞觀]十九年, 太宗伐高麗, 皇太子定州監國, 士廉攝太子太傅, 仍典朝政.”(『新唐書』卷95「高儉傳」, 3840卒); 『舊唐書』卷69「張亮傳」, 2515卒, “太宗將伐高麗, 亮頻諫不納, 因自請行.”(『新唐書』卷94「張亮傳」, 3829卒); 『舊唐書』卷69「薛萬徹傳附萬均傳」, 2518卒, “二十二年, 萬徹又爲青丘道行軍大總管, 率甲士三萬自萊州泛海伐高麗, 入鴨綠水, 百餘里至泊沔城, 高麗震懼, 多棄城而遁.”(『新唐書』卷94「薛萬均傳附萬均傳」, 3832卒); 『舊唐書』卷82「許敬宗傳」, 2761卒, “[貞觀]十九年, 太宗親伐高麗, 皇太子定州監國, 敬宗與高士廉等共知機要.”; 『舊唐書』卷84「劉仁軌傳」, 2790卒, “時蘇定方奉詔伐高麗, 進圍平壤, 不克而還.”; 『新唐書』卷108「劉仁軌傳」, 4082卒; 『舊唐書』卷185上「良吏上·李君球傳」, 4789卒, “龍朔三年, 高宗將伐高麗, 君球上疏諫曰: …….”; 『新唐書』卷100「蔣儼傳」, 3943卒, “太宗將伐高麗, 募爲使者, 人皆憚行, 儼奮曰: “以天子雄武, 四夷畏威, 蕞爾國敢圖王人? 有如不幸, 固吾死所也.”; 『新唐書』卷110「諸夷蕃將·契苾何力傳」, 4119卒, “顯慶中, 爲淇江軍行軍

大總管，與蘇定方及右驍衛大將軍劉伯英伐高麗，不克。”；『新唐書』卷198「儒學上·敬播傳」，5656卒，“從太宗伐高麗，而帝名所戰山爲駐蹕，播謂人曰：‘蠻輿不復東矣，山所以名，蓋天意也！’其後果然。”；『新唐書』卷202「文藝中·蕭穎士傳」，5656卒，“祖晶，賢而有謀，任雅相伐高麗，表爲記室。”

- 6) 『舊唐書』卷199上「東夷·高麗傳」，5326卒，“太宗又命江南造大船，遣陝州刺史孫伏伽召募勇敢之士，萊州刺史李道裕 運糧及器械，貯於烏胡島，將欲大舉以伐高麗。”；『舊唐書』卷199上「東夷·新羅國傳」，5335卒，“高祖既聞海東三國舊結怨隙，遞相攻伐，以其俱爲藩附，務在和睦，乃問其使爲怨所由，對曰：‘先是百濟往伐高麗，詣新羅請救，新羅發兵大破百濟國，因此爲怨，每相攻伐。新羅得百濟王，殺之，怨由此始。’”(『新唐書』卷220「東夷·新羅傳」，6203卒)；『舊唐書』卷199上「東夷·新羅國傳」，5335卒，“太宗將親伐高麗，詔新羅纂集土馬，應接大軍。”(『新唐書』卷220「東夷·新羅傳」，6203卒)；『舊唐書』卷199下「北狄·契丹傳」，5350卒，“太宗伐高麗，至營州，會其君長及老人等，賜物各有差，授其蕃長窟哥爲左武衛將軍。”(『新唐書』卷219「北狄·契丹傳」，6168卒，“帝伐高麗，悉發酋長與奚首領從軍。帝還，過營州，盡召其長窟哥及老人，差賜繒采，以窟哥爲左武衛將。”)；『新唐書』卷217下「回鶻傳」下，6137卒，“俄遣使請率師助伐高麗，以刺帝意，帝引使者謂曰：‘歸語爾可汗，我父子東征，能寇邊者可卽來。’”；『新唐書』卷219「北狄·奚傳」，6173卒，“帝伐高麗，大酋蘇支從戰有功。”；『新唐書』卷219「北狄·黑水靺鞨傳」，6178卒，“帝伐高麗，其北部反，與高麗合。”；『新唐書』卷220「東夷·高麗傳」，6189卒，“卽厚賜布粟。羣臣皆勸帝毋行，帝曰：‘吾知之矣，去本而就末，捨高以取下，釋近而之遠，三者爲不祥，伐高麗是也。……’”；『新唐書』卷222下「南蠻下·南平獠傳」，5335卒，“太宗再伐高麗，爲舡劍南，諸獠皆半役，雅·邛·眉三州獠不堪其擾，相率叛，詔發隴右·峽兵二萬，以茂州都督張士貴爲雅州道行軍總管，與右衛將軍梁建方平之。”
- 7) 『新唐書』卷21「禮樂志」11，472卒，“帝將伐高麗，燕洛陽城門，觀屯營教舞，按新征用武之勢，名曰一戎大定樂，舞者百四 十人，被五采甲，持槊而舞，歌者和之曰：‘八紘同軌樂，象高麗平而天下大定也。及遼東平，行軍大總管李勣作夷美賓之曲以獻。”
- 8) 『舊唐書』卷59「姜晫傳」，2334卒，“[貞觀]十七年，太宗將征高麗，行本諫以爲師未可動，太宗不從。”(『新唐書』卷91「姜晫傳」，2792卒)；『舊唐書』卷62「楊恭仁傳附師道傳」，2384卒，“未幾，從征高麗，攝中書令。”(『新唐書』卷100「楊恭仁傳」，3928卒)；『舊唐書』卷65「長孫無忌傳」，2453卒，“[貞觀]十九年，太宗征高麗，令無忌攝侍中。”(『新唐書』卷105「長孫無忌傳」，4020卒)；『舊唐書』卷67「李勣傳」，2487卒，“[貞觀]十八年，太宗將親征高麗，授勣遼東道行軍大總管，攻破蓋牟·遼東·白崖等數城，又從太宗摧珍駐蹕陣，以功封一子爲郡公。”(『新唐書』卷93「李勣傳」，3819卒)；『舊唐書』卷68「尉遲敬德傳」，2500卒，“及太宗將征高麗，敬德奏言：……”；『舊唐書』卷77「閻立德傳」，2500卒，“[貞觀]十八年，從征高麗，及師旅至遼澤，東西二百餘里泥淖，人馬不通，立德填道 造橋，兵無留礙，太宗甚悅。”；『舊唐書』卷80「褚遂良傳」，2733卒，“時太宗欲親征高麗，顧謂侍臣曰：‘高麗莫難支賊殺其王，虐用其人。夫出師弔伐，當乘機便，今因其絀虐，誅之甚易。’”；『舊唐書』卷82「許敬宗傳」，2764卒，“白州人龐孝泰，蠻酋凡品，率兵從征高麗，賊知其

- 儒，襲破之。”；『舊唐書』卷92「魏元忠傳」，2950卒，“及征高麗也，總管張君乂擊賊不進，斬之旗下。”（『新唐書』卷122「魏元忠傳」，4341卒）；『舊唐書』卷190中「文苑中·元萬頃傳」，5010卒，“乾封中，從英國公李勣征高麗，爲遼東道總管記室。”（『舊唐書』卷201「文藝上·元萬頃傳」，5743卒）；『新唐書』卷110「諸夷蕃將·契苾何力傳」，4119卒，“帝征高麗，詔何力爲前軍總管。”
- 9) 『舊唐書』卷194下「突厥下·處羅可汗傳」，5080卒，“仍從煬帝征高麗，賜號爲曷薩那可汗。”（『新唐書』卷215下「突厥傳」下，6046卒）；『舊唐書』卷194下「突厥下·阿史那彌射傳」，5188卒，“彌射後從太宗征高麗有功，封平襄縣伯。”（『新唐書』卷215下「突厥傳」下，6064卒）；『舊唐書』卷199上「東夷·高麗傳」，5327卒，“十一月，命司空·英國公李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率裨將郭待封等以征高麗。”；『舊唐書』卷199上「東夷·百濟國傳」，5330卒，“及太宗親征高麗，百濟懷二，乘虛襲破新羅十城。”；『舊唐書』卷199下「北狄·鐵勒傳」，5346卒，“[貞觀]十九年，謂其使人曰：「語爾可汗，我父子竝東征高麗，汝若能寇邊者，但當來也。」”；『舊唐書』卷199下「北狄·烏羅渾傳」史臣曰，5364卒，“我太宗文皇帝親馭戎輅，東征高麗，雖有成功，所損亦甚。”
- 10) 『新唐書』卷21「禮樂志」11，471卒，“帝之破竇建德也，乘馬名黃驄驃，及征高麗，死於道，頗哀惜之，命樂工製黃驄疊曲。”；『新唐書』卷33「天文志」3 五星聚合條，865卒，“[貞觀]十九年六月丙辰，太宗征高麗，次安市城，太白·辰星合于東井。”
- 11) 『舊唐書』卷56「羅藝傳」，2278卒，“後遇天下大亂，涿郡物殷阜，加有伐遼器仗，倉粟盈積。又臨朔宮中多珍產，屯兵數萬，而諸賊競來侵掠。”（『新唐書』卷92「羅藝傳」，3806卒，“天下盜起，涿郡號富饒，伐遼兵仗多在，而倉庫盈溢，又臨朔宮多珍寶，屯師且數萬，苦盜賊侵掠，留守將趙什住·賀蘭誼·晉文衍等不能支。”）；『舊唐書』卷70「岑文本傳」，2539卒，“及將伐遼，凡所籌度，一皆委之。”；『舊唐書』卷80「褚遂良傳」，2734~2735卒，“臣聞有國家者譬諸身，兩京等於心腹，四境方乎手足，他方絕域若在身外，臣近於坐下，伏奉口敕，布語臣下，云自欲伐遼，臣數夜思量，不達其理，高麗王爲陛下之所立，莫離支輒殺其主，陛下討逆收地，斯實乘機。關東賴陛下德澤，久無征戰，但命二·三勇將發兵四·五萬，飛石輕梯，取如迴掌，夫聖人有作，必履常規，貴能克平兇亂，駕馭才傑，惟陛下弘兩儀之道，扇三五之風，提厲人物，皆思效命，昔侯君集·李靖，所謂庸夫，猶能掃萬里之高昌，平千載之突厥，皆是陛下發蹤指示，聲歸聖明，臣旁求史籍，訖乎近代，爲人之主，無自伐遼，人臣往征，則有之矣。漢朝則荀彘·楊僕，魏代則毋丘儉·王頌；司馬懿猶爲人臣，慕容眞僭號之子，皆爲其主長驅高麗，虜其人民，削平城壘，陛下立功同於天地，美化包於古昔，自當超邁於百王，豈止俯同於六子，陛下昔翦平寇逆，大有爪牙，年齒未衰，猶堪任用，匪唯陛下之所使，亦何行而不克。”；『新唐書』卷88「劉文靜傳」，3734卒，“王敦文靜爲詔「發太原·西河·雁門·馬邑男子年二十至五十悉爲兵，期歲盡集涿郡以伐遼。」”；『新唐書』卷93「李靖傳」，3815卒，“帝將伐遼，召靖入，謂曰：「公南平吳，北破突厥，西定吐谷渾，惟高麗未服，亦有意乎？」”；『新唐書』卷96「房玄齡傳」，3734卒，“會伐遼，留守京師，詔曰：「公當蕭何之任，朕無西顧憂矣。」凡糧械飛輪，軍伍行留，悉裁總之。”；『新唐書』卷101「蕭瑀傳」，3950卒，“既而主詭辭謂突厥，果解圍去，然帝素意伐遼，又銜瑀以謀厭其機，謂群臣曰：「突厥何能爲，瑀乘未解時乃給恐我！」遂出瑀爲河池

- 郡守.”; 『新唐書』卷108 「劉仁軌傳」, 4082쪽, “顯慶五年, 伐遼, 義府欲斥以罪, 使督漕, 而船果覆沒.”; 『新唐書』卷110 「諸夷蕃將·史大柰傳」, 4111쪽, “史大柰, 本西突厥特勒也, 與處羅可汗入隋, 事煬帝, 從伐遼, 積勞爲金紫光祿大夫, 後分其部於樓煩.”; 『新唐書』卷132 「吳兢傳」, 4527쪽, “蕭瑀諫無伐遼, 出爲河池郡守.”
- 12) 『新唐書』卷215上 「突厥傳附阿史那思摩傳」上, 6040쪽, “居三年, 不能得其眾, 下多攜背, 思摩慙, 因入朝願留宿衛, 更拜右武衛將軍, 從伐遼, 中流矢, 帝爲吮血, 其願厚類此.”; 『新唐書』卷215上 「突厥傳附阿史那泥孰傳」上, 6041쪽, “思摩旣不能國, 殘眾稍稍南度河, 分處勝·夏二州, 帝伐遼, 或言突厥處河南, 邇京師, 請帝無東.”; 『新唐書』卷216上 「吐蕃傳」上, 6074쪽, “帝伐遼還, 使祿東贊上書曰: 「陛下平定四方, 日月所照, 竝臣治之. 高麗恃遠, 弗率於禮, 天子自將度遼, 隍城陷陣, 指日凱旋, 雖鷹飛于天, 無是之速. 夫鵠猶鴈也, 臣謹治黃金爲鴈以獻.”
- 13) 『舊唐書』卷28 「音樂志」1, 1047쪽, “[永徽]六年三月, 上欲伐遼, 於屯營教舞, 召李義府·任雅相·許敬宗·許圜師·張延師·蘇定方·阿史那忠·于闐王伏闕·上官儀等, 赴洛城門觀樂, 樂名一戎大定樂.”
- 14) 『唐會要』(王溥撰, 2006,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卷27 「行幸」, 599쪽, “初, 上將發, 諫議大夫褚遂良上疏曰: 「臣遍求史籍, 訖于近代, 爲人之主, 無自伐遼, ……」”
- 15) 『隋書』卷67 「裴矩傳」, 1581~1582쪽, “高元不用命, 始建征遼之策.”
- 16) 『隋書』卷12 「禮儀志」7 鹵簿·隋條, 284쪽, “[大業]八年征遼, 又造鈎陳, 以木板連如帳子.”; 『隋書』卷24 「食貨志」, 食·隋條, 688쪽, “[大業九年]益遣募人征遼, 馬少不充八馱, 而許爲六馱.”
- 17) 『舊唐書』卷63 「裴矩傳」, 2408쪽, “高麗不用命, 始建征遼之策.”; 『舊唐書』卷74 「崔仁師傳」, 2621쪽, “征遼之役, 詔太常卿 韋挺知海運, 仁師爲副, 仁師又別知河南水運.”; 『舊唐書』卷74 「劉洎傳」, 2611쪽, “太宗征遼, 令洎與高士廉·馬周留輔皇太子定州監國, 仍兼左庶子·檢校民部尚書.”; 『舊唐書』卷84 「劉仁軌傳」, 2790쪽, “[顯慶]五年, 高宗征遼, 令仁軌監統水軍, 以後期坐免, 特令以白衣隨軍自效.”; 『舊唐書』卷109 「阿史那社尒傳」, 3289쪽, “[貞觀]十九年, 從太宗征遼, 至駐蹕陣, 頻遭流矢, 拔而又進.”; 『舊唐書』卷185上 「良吏上·田仁會傳」, 3289쪽, “貞觀十八年, 太宗征遼發後, 薛 延陀數萬騎抄河南, 太宗令仁會及執失思力率兵擊破之, 逐北數百里, 延陀脫身走免.”; 『舊唐書』卷193 「列女·楊紹宗妻王氏傳」, 5144쪽, “至年十五, 父又征遼而歿, 繼母尋亦卒.”(『新唐書』卷205 「列女·楊紹宗妻王傳」, 5820쪽); 『新唐書』卷81 「高宗諸子·孝敬皇帝弘傳附裴居道傳」, 3589쪽, “會有司以征遼士亡命及亡命不卽首者, 身殊死, 家屬沒官.”; 『新唐書』卷86 「劉武周傳」, 3711쪽, “募征遼, 有功, 補建節校尉.”; 『新唐書』卷88 「劉文靜傳附樊興傳」, 3744쪽, “太宗征遼, 以興忠謹, 副房玄齡留守京師, 檢校右武侯將軍.”; 『新唐書』卷90 「劉弘基傳」, 3765쪽, “大業末, 從征遼, 貲乏, 行及汾陰, 度後期且誅, 遂與其屬椎牛犯法, 吏諷捕繫.”; 『新唐書』卷98 「馬周傳」, 3900쪽, “帝征遼, 留輔太子定州.”; 『新唐書』卷100 「裴矩傳」, 3933쪽, “高麗不聽命, 征遼自此始.”; 『新唐書』卷100 「閻立德傳」, 3941쪽, “未幾, 復爲大匠, 卽

- 洪州造浮海大航五百艘，遂從征遼，攝殿中監，規築土山，破安市城。”；『新唐書』卷102「褚亮傳」，3976卒，“太宗征遼，子遂良從，詔亮曰：……”；『新唐書』卷105「長孫无忌傳附順德傳」，4023卒，“順德仕隋爲右勳衛，征遼當行，亡命太原，素爲高祖親厚。”；『新唐書』卷198「儒學上·顏師古傳」，5642卒，“〔貞觀〕十九年，從征遼，道病卒，年六十五，謚曰戴。”
- 18) 『唐會要』卷2「雜錄」，22卒，“總章元年二月，敕征遼軍逃亡，限內不首，及更有逃亡者，身竝處斬，家口沒官。”；『唐會要』卷2「箋表例」587卒，“貞觀十九年正月，上征遼，發定州，皇太子奏請飛驛遞表起居，又請遞敕垂報，許之。”；『唐會要』卷27「行幸」，599卒，“〔貞觀〕十九年正月，上征遼，親率領六軍，發洛陽，至定州，詔皇太子監國。”；『唐會要』卷28「蒐狩」，614卒，“上謂侍臣曰：‘軍令有犯，罪在不赦，但恐外人謂我翫好畋獵，輕棄人命，又以其曾從征遼有功，特令放免。’上于是製冬狩詩。”；『唐會要』卷61「御史臺」中 館驛使條，1247卒，“貞觀十九年，太宗親征遼，發定州，皇太子奏請飛驛遞表起居，又請遞敕垂報，竝許之。飛表奏事。”；『唐會要』卷81「勳」，1765卒，“舊制，勳官上柱國已下至武騎尉爲十二等，有戰功者，各隨高下以授。岑文本謂資高而勳卑者，皆從卑敘。至貞觀十九年四月九日，太宗欲重征遼之賞，因下制：‘授以勳級，本據有功，若不優異，無由勸獎。今討高麗，其從駕爰及水陸諸軍戰陣有功者，竝特聽從高品上累加。’六軍大悅。”；『唐會要』卷95「高句麗」，2020卒，“又以特進李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趨遼東，兩軍合勢，以其月之三十日，征遼之兵，集於幽州。”；『唐會要』卷97「吐蕃」，2051卒，“上征遼還，獻大鵝，黃金鑄成，高七尺，可受酒三斛。”
- 19) 『舊唐書』卷54「竇建德傳」，2235卒，“是歲，山東大饑，建德謂 安祖曰：‘文皇帝時，天下殷盛，發百萬之眾以伐遼東，尙爲高麗所敗。今水潦爲災，黎庶窮困，而主上不恤，親駕臨遼，加以往歲西征，瘡痍未復，百姓疲弊，累年之役，行者不歸，今重發兵，易可搖動。……’”；『新唐書』卷85「竇建德傳」，3696卒，“隋大業七年，募兵伐遼東，建德補隊長。方如軍，會邑人孫安祖盜羊，爲縣令捕劾笞辱。安祖刺殺令，亡抵建德，建德陰舍之。時山東饑，羣盜起，乃謀曰：‘往文皇帝時，天下盛彊，發百萬眾 伐遼東，猶爲所敗。今水潦爲災，民力凋敝，主上不是恤，而親駕臨遼。且往歲西征，十不一返，今創夷未平，又重發兵，人情危駭，易以搖動。丈夫不死，當建功於世，渠爲亡命虜乎！我聞高雞泊廣袤數百里，葭蘆阻奧，可以違難；承間竊出，椎埋掠奪，足以自資。因得聚豪桀，且觀時變，以就大計。’”；『舊唐書』卷57「劉文靜傳」，2291卒，“乃命文靜詐爲煬帝敕，發太原·西河·鴈門·馬邑人年二十已上五十已下悉爲兵，期以歲暮集涿郡，將伐遼東。由是 人情大擾，思亂者益眾。”；『舊唐書』卷63「蕭瑀傳」，2400卒，“煬帝又將伐遼東，謂羣臣曰：‘突厥狂悖爲寇，勢何能爲，以其少時未散，蕭瑀遂相恐 動，情不可恕。’因出爲河池郡守，即日遣之。既至郡，有山賊萬餘人寇暴縱橫，瑀潛募勇敢之士，設奇而擊之，當陣而降其眾。”；『舊唐書』卷67「李靖傳」，2481卒，“太宗將伐遼東，召靖入閣，賜坐御前，謂曰：‘公南平吳會，北清沙漠，西定 慕容，唯東有高麗未服，公意如何？’”；『舊唐書』卷74「馬周傳」，2619卒，“太宗伐遼東，皇太子定州監守，令周與高士廉·劉洎留輔皇太子。”；『新唐書』卷102「岑文本傳」，3966卒，“踰年爲令，從伐遼東，事一委倚，至糧漕最日·甲兵凡要·料配差序，籌不廢手，由是神用頓耗，容止不常。”；『新唐書』卷110「諸夷蕃將·馮盎傳」，4112卒，“從煬帝伐遼東，

遷左武衛大將軍。”

- 20) 『舊唐書』卷196上「吐蕃傳」上, 5222쪽, “太宗伐遼東還, 遣祿東贊來賀, 奉表曰: 「聖天子平定四方, 日月所照之國, 竝爲臣妾, 而高麗恃遠, 闕於臣禮. 天子自領百萬, 度遼致討, 隳城陷陣, 指日凱旋. 夷狄纔聞陛下發駕, 少進之間, 已開歸國. 雁飛迅越, 不及陛下速疾. 奴忝預子壻, 喜百常夷. 夫鶻, 猶雁也, 故作金鶻奉獻.」”
- 21) 『唐會要』卷94「北突厥」, 2003쪽, “[貞觀]十八年十一月, 突厥泥熟俟利苾北渡河, 延陀惡之, 數相攻擊. 俟利苾有眾十萬, 不能撫御, 悉南渡河, 請處勝·夏之間, 許之. 羣臣言: 「陛下方遠征遼左, 而置突厥於河南, 距京師不遠, 豈得不爲後患?」上曰: 「夷狄亦人, 以德治之, 可使如一家. 且彼不北走延陀而歸我, 其情可見.」俟利苾既失眾, 輕騎入朝.”
- 22) 『隋書』卷5「恭帝紀」, 99쪽, “及煬帝親征遼東, 令於京師總留事.”
- 23) 『隋書』卷37「李穆傳附敏傳」, 1124쪽, “[大業]十年, 帝復征遼東, 遣敏於黎陽督運”; 『隋書』卷41「高穎傳」, 1182쪽, “上不從, 以穎爲元帥長史, 從漢王征遼東, 遇霖潦疾疫, 不利而還.”; 『隋書』卷41「蘇威傳」, 1188쪽, “及遼東之役, 以本官領左武衛大將軍, 進位光祿大夫, 賜爵寧陵侯. 其年, 進封房公. 威以年老, 上表乞骸骨. 上不許, 復以本官參掌選事. 明年, 從征遼東, 領右禦衛大將軍.”; 『隋書』卷44「滕穆王瓚傳」, 1223쪽, “大業七年, 親征遼東, 綸欲上表, 請從軍自效, 爲郡司所遏.”; 『隋書』卷63「元壽傳」, 1498쪽, “[大業]七年, 兼左翊衛將軍, 從征遼東. 行至涿郡, 遇疾卒, 時年六十三.”; 『隋書』卷63「楊義臣傳」, 1500쪽, “其後復征遼東, 以軍將指肅慎道. ……尋從帝復征遼東, 進位左光祿大夫.”; 『隋書』卷64「張瀛傳」, 1510쪽, “開皇十八年, 爲行軍總管, 從漢王諒征遼東, 諸軍多物故, 瀛獨全.”; 『隋書』卷64「陳稜傳」, 1510쪽, “遼東之役, 以宿衛遷左光祿大夫. 明年, 帝復征遼東, 稜爲東萊留守.”; 『隋書』卷65「薛世雄傳」, 1534쪽, “明年, 帝復征遼東, 拜右候衛將軍, 兵指蹋頓道. 軍至烏骨城, 會楊玄感作亂, 班師. 帝至柳城, 以世雄爲東北道大使, 行燕郡太守, 鎮懷遠.”; 『隋書』卷65「董純傳」, 1540쪽, “及帝重征遼東, 復以純爲彭城留守.”; 『隋書』卷66「郎茂傳」, 1555쪽, “會帝親征遼東, 以茂爲晉陽宮留守.”; 『隋書』卷68「閻毗傳」, 1595쪽, “及征遼東, 以本官領武賁郎將, 典宿衛. 時眾軍圍遼東城, 帝令毗詣城下宣諭, 賊弓弩亂發, 所乘馬中流矢, 毗顏色不變, 辭氣抑揚, 卒事而去. 尋拜朝請大夫, 遷殿內少監, 又領將作少監事. 後復從帝征遼東, 會楊玄感作逆, 帝班師, 兵部侍郎斛斯政奔遼東, 帝令毗率騎二千追之, 不及.”; 『隋書』卷69「袁充傳」, 1612쪽, “大業六年, 遷內史舍人, 從征遼東, 拜朝請大夫·秘書少監. 其後天下亂, 帝初罹雁門之厄, 又盜賊益起, 帝心不自安.”; 『隋書』卷70「楊玄感傳」, 1616쪽, “帝征遼東, 命玄感於黎陽督運.”; 『隋書』卷70「劉元進傳」, 1623쪽, “會帝復征遼東, 徵兵吳·會, 士卒皆相謂曰: ……”; 『隋書』卷74「酷吏·元弘嗣傳」, 1701쪽, “遼東之役, 進位金紫光祿大夫. 明年, 帝復征遼東, 會奴賊寇隴右, 詔弘嗣擊之.”; 『隋書』卷74「酷吏·王文同傳」, 1702쪽, “及帝征遼東, 令文同巡察河北諸郡.”; 『隋書』卷76「文學·虞綽傳」, 1739쪽, “從征遼東, 帝舍臨海頓, 見大鳥, 異之, 詔綽爲銘.”; 『隋書』卷76「文學·王胄傳」, 1742쪽, “從征遼東, 進授朝散大夫.”; 『隋書』卷85「段達傳」, 1899쪽, “帝征遼東, 百姓苦役, 平原祁孝德·清河張金稱等竝聚眾爲

- 羣盜，攻陷城邑，郡縣不能禦。”；『隋書』卷85「段達傳」，1899年，“明年，帝征遼東，以達留守涿郡。”
- 24) 『隋書』卷8「禮儀志」3親征條，160年，“大業七年，征遼東，煬帝遣諸將，於薊城南桑乾河上，築社稷二壇，設方壇，行宜社禮。”
- 25) 『新唐書』卷1「高祖紀」，2年，“煬帝征遼東，遣高祖督運糧於懷遠鎮。”
- 26) 『舊唐書』卷55「劉武周傳」，2252年，“武周因去家入洛，為太僕楊義臣帳內，募征遼東，以軍功授建節校尉。”；『舊唐書』卷57「劉文靜傳附樊興傳」，2300年，“太宗之征遼東，以興忠謹，令副司空房玄齡留守京師。”；『舊唐書』卷58「劉弘基傳」，2309年，“大業末，嘗從煬帝征遼東，家貧不能自致，行至汾陰，度已後期當斬，計無所出，遂與同旅屠牛，潛諷吏捕之，繫於縣獄，歲餘，竟以贖論。”；『舊唐書』卷66「房玄齡傳」，2462年，“太宗親征遼東，命玄齡京城留守，手詔曰：……。”；『舊唐書』卷83「張儉傳」，2776年，“太宗將征遼東，遣儉率蕃兵先行抄掠。”（『新唐書』卷111「張儉傳」，4133年）；『舊唐書』卷83「程務挺傳」，2784年，“太宗將征遼東，召名振問以經略之事，名振初對失旨，太宗動色詰之，名振酬對逾辯。”（『新唐書』卷111「程務挺傳」，4146年）；『舊唐書』卷90「王及善傳」，2909年，“從太宗征遼東，兼領左屯營兵馬，與高麗戰於駐蹕山，君愕先鋒陷陣，力戰而死。”（『新唐書』卷116「王及善傳」，4240年）；『舊唐書』卷109「契苾何力傳」，3293年，“太宗征遼東，以何力為前軍總管，軍次白崖城，為賊所圍，被稍中腰，瘡重疾甚，太宗自為傳藥。”；『舊唐書』卷185上「良吏上·蔣儼傳」，4801年，“太宗將征遼東，募使高麗者，眾皆畏懼，儼謂人曰：……。”；『新唐書』卷99「劉洎傳」，3919年，“及征遼東，詔兼太子左庶子·檢校民部尚書，輔皇太子監國。”；『新唐書』卷99「崔仁師傳」，3921年，“及征遼東，副韋挺知海運，又別知河南漕事。”；『新唐書』卷106「楊弘禮傳」，4045年，“太宗征遼東，拜兵部侍郎。”；『新唐書』卷110「諸夷蕃將·阿史那社尒」，4115年，“從征遼東，中流矢，擢去復戰，所部奮厲，皆有功。”；『新唐書』卷111「薛仁貴傳」，4139年，“妻柳曰：「夫有高世之材，要須遇時乃發。今天子自征遼東，求猛將，此難得之時，君盍圖功名以自顯？富貴還鄉，葬未晚。」”；『新唐書』卷143「元結傳」，4681年，“曾祖仁基，字惟固，從太宗征遼東，以功賜宜君田二十頃，遼口并馬牝牡各五十，拜寧塞令，襲常山公。”；『新唐書』卷170「張萬福傳」，5178年，“萬福以儒業不顯，乃學騎射，從王斛斯以別校征遼東，有功。”；『新唐書』卷197「循吏·田仁會傳」，5623年，“太宗征遼東，而薛延陀以數萬騎掩河內，詔仁會與執失思力率兵擊敗之，尾逐數百里，延陀幾生得，璽書嘉尉。”
- 27) 『舊唐書』卷194上「突厥上·思摩傳」，5165年，“思摩遂輕騎入朝，尋授右武衛將軍，從征遼東，為流矢所中，太宗親為吮血，其見顧遇如此。”；『新唐書』卷222下「南蠻下·南平獠會傳」，6326年，“及討林邑，長真出兵攻其後，又率部落數千從征遼東，煬帝召為鴻臚卿，授安撫大使，遣還。”
- 28) 『唐會要』卷33「諸樂」，718年，“龍朔元年三月一日，上召李勣·李義府·任雅相·許敬宗·許圜師·張延師·蘇定方·阿史那忠·于闐王伏闐·上官儀等，譙於城門，觀屯營新教之舞，名之曰一戎大定樂。其時欲親征遼東，以象用武之勢。”；『唐會要』卷67「留守」，1400年，“貞觀十七年，太宗親征遼東，令太子太傅房元齡充京城留守，詔曰：「公當蕭何之任，朕無西顧之憂矣。軍戎器械，戰士糧廩，竝委卿處分發遣。」東都留守，以蕭瑀為之。”

〈표 1〉은 주로 隋·唐初 고구려를 공격했던 기사에서 고구려 국명을 표기했는지 혹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표기했는지 통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표 1〉에서 참고한 자료 가운데 『당회요』는 정사는 아니지만 당대의 전장제도에 대한 문서를 모아 정리한 사서며, 『구당서』와 『신당서』에도 없는 사료를 수집하여 당대 정치·경제·군사·문화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1차 자료다. 이 자료 가운데 일부는 『구당서』와 『신당서』에도 보이므로 正史와 동일한 사료적 가치

- 29) 『隋書』卷41「蘇威傳」, 1188쪽, “及遼東之役, 以本官領左武衛大將軍, 進位光祿大夫, 賜爵寧陵侯. 其年, 進封房公. 威以年老, 上表乞骸骨. 上不許, 復以本官參掌選事. 明年, 從征遼東, 領右禦衛大將軍.”; 『隋書』卷64「陳稜傳」, 1510쪽, “遼東之役, 以宿衛遷左光祿大夫. 明年, 帝復征遼東, 稜爲東萊留守.”; 『隋書』卷74「酷吏·元弘嗣傳」, 1701쪽, “遼東之役, 進位金紫光祿大夫. 明年, 帝復征遼東, 會奴賊寇隴右, 詔弘嗣擊之.”
- 30) 『舊唐書』卷53「李密傳」史臣曰, 2225쪽, “當隋政板蕩, 煬帝荒淫, 搖動中原, 遠征遼海, 內無賢臣以匡國, 外乏良吏以理民, 兩京空虛, 兆庶疲弊.”
- 31) 『唐會要』卷95「高句麗」, 2021쪽, “[貞觀]十一月, 至幽州. 初入遼也, 將十萬人, 各有八馱, 兩軍戰馬四萬匹, 及還, 死者一千二百人, 八馱及戰死者十七八.”
- 32) 『唐會要』卷95「高句麗」, 2021쪽, “[貞觀]二十二年七月, 太子太傅·知門下省事房元齡謂諸子曰: ‘吾自度危篤, 以東討不停, 豈可使吾銜恨入地?’ 遂封表上諫曰: ‘……高麗歷代連誅, 莫能討擊. 陛下責其逆亂, 弑主虐人, 親總六軍, 問罪遼碣, 未經旬日, 卽滅遼東, 前後虜獲, 數十萬計.’”
- 33) 『唐會要』卷95「高句麗」, 2021쪽, “[貞觀]二十二年七月, 太子太傅·知門下省事房元齡謂諸子曰: ‘吾自度危篤, 以東討不停, 豈可使吾銜恨入地?’ 遂封表上諫曰: ‘……高麗歷代連誅, 莫能討擊. 陛下責其逆亂, 弑主虐人, 親總六軍, 問罪遼碣, 未經旬日, 卽滅遼東, 前後虜獲, 數十萬計.’”
- 34) 『舊唐書』卷80「褚遂良傳」, 2733~2734쪽, “時太宗欲親征高麗, 顧謂侍臣曰: ‘高麗莫離支賊殺其王, 虐用其人, 夫出師弔伐, 當乘機便, 今因其弑虐, 誅之甚易.’ 遂良對曰: ‘陛下兵機神算, 人莫能知, 昔隋末亂離, 手平寇亂, 及北狄侵邊, 西蕃失禮, 陛下欲命將擊之, 羣臣莫不苦諫, 陛下獨斷進討, 卒竝誅夷. 海內之人, 徼外之國, 畏威攝伏, 爲此舉也. 今陛下將興師遼東, 臣意熒惑. 何者? 陛下神武, 不比前代人君, 兵旣渡遼, 指期克捷, 萬一差跌, 無以威示遠方, 若再發忿兵, 則安危難測.’ 太宗深然之. 兵部尚書李勣曰: ‘近者延陀犯邊, 陛下必欲追擊, 此時陛下取魏徵之言, 遂失機會. 若如聖策, 延陀無一生還, 可五十年間疆場無事.’ 帝曰: ‘誠如卿言, 由魏徵誤計耳. 朕不欲以一計不當而尤之, 後有良算, 安肯矢謀.’ 由是從勣之言, 經畫渡遼之師. 遂良以太宗銳意三韓, 懼其遺悔, 翌日上疏諫曰……”
- 35) 위와 같음.
- 36) 위와 같음.

를 가지기 때문에 <표 1>의 통계 자료로 사용하였다.

먼저 “고구려를 정벌한다”라는 뜻을 지닌 “伐高麗”, “征高麗”처럼 고구려의 실제 국호를 언급한 사료는 『구당서』와 『신당서』에 각각 36개와 19개였다. 양자를 합하면 55개로 전체의 33.7%다. 반면 “요(遼)를 정벌한다”는 뜻을 지닌 “伐遼”, “征遼”, “요동을 정벌한다”라는 뜻을 지닌 “伐遼東”, “伐遼左”, “征遼東” 등 고구려를 “요”, “요동” 등 다른 별칭으로 표기한 기록은 모두 107개이며 65.6%다. 이 가운데 요동 60개(36.8%), 요 44개(27%) 혹은 45개(27.6%, “渡遼”라는 표기를 포함할 경우)였다. 이 밖에 遼左·遼海·遼碣·三韓이 각각 1회 언급되었다.

자료의 내원으로 살펴보면 『수서』에서는 고구려(고려) 대신 요·요동 등 별칭을 사용한 예가 29개로 100%였다. 반면 『구당서』에서는 고구려(고려)를 직접 언급한 기사가 55개, 요·요동 등 별칭을 사용한 기사가 65개였다. 전자는 46.2%, 후자는 53.8%였다. 『당회요』의 표기 15개는 모두 고구려 대신 별칭을 사용하였다. 이 네 개 史書 가운데 당대에 편찬된 사서는 『수서』이며, 『구당서』는 五代에, 『신당서』와 『당회요』는 宋代에 편찬되었다. 따라서 당대 중국인의 고구려 표기 관행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수서』다. 그런데 『수서』의 고구려 공격 기사에 고구려 대신 요·요동 등 별칭이 사용된 것은 당대 중국인의 고구려 표기에 대한 인식이 잘 반영된 것이다.

고구려 대신 ‘요’와 ‘요동’, ‘요해’, ‘요갈’ 등을 사용한 것은 고구려 영토 가운데 요동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隋의 중신 裴矩가 고구려 옛 땅이 본래 孤竹國이었고 漢代에는 3郡이었다고 煬帝에게 한 말을 보면³⁷⁾ 수당시대 고구려를 요, 혹은 요동으로 표현한 것은 고구려의 땅이 漢의 郡현이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고구려는 수·당이 회복해야 할 故土라는 인식이 깔리게 된다. 아울러 고구려 공격은 고토 회복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혹은 북조와

37) 『新唐書』 卷100 「裴矩傳」, 3933쪽, “矩因奏言:「高麗本孤竹國, 周以封箕子, 漢分三郡, 今乃不臣, 先帝疾之, 欲討久矣. 方陛下時, 安得不事? 今其使朝突厥, 及見啟民, 舉國臣服, 魯令入朝, 可致也. 請面詔其使, 令歸語王, 有如旅拒, 方率突厥誅之.」”

수·당에서 고구려 군주를 요동군왕 혹은 요동군공으로 봉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³⁸⁾ 당시 고구려의 代稱 혹은 별칭으로 ‘요동’이 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당시대의 사서에서는 고구려(고려)보다 고구려의 별칭인 ‘요’와 ‘요동’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당대에 편찬된 『수서』와 당대의 사료를 정리한 『당회요』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 표기 대신 다른 별칭을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상황이었을까? 이 물음에 대해 답하려면 묘지명에서 살펴봐야 한다. 이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2. 『新唐書』 「渤海傳」의 영역 기술과 高句麗의 해체

제1절에서는 『구당서』와 『신당서』의 고구려 공격 기사를 중심으로 唐代 중국인들이 고구려 표기를 기피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사서에서도 보인다. 『三國志·魏書』 「東夷傳」을 보면 고구려가 옥저와 동예를 지배했다고 서술하였고,³⁹⁾ 『삼국사기』에도 옥저와 동예를 이전부터 지배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삼국지·위서』 「동이전」에는 고구려와 옥저, 동예를 별도의 나라로 보아 열전을 따로 두어 기록하였다. 이처럼 고구려의 지배를 받는 지역을 독립국처럼 기록한 것은 당시 중국에서 고구려의 영역을 분해하여 파편적으로

38) 崔珍烈, 2008, 「東晉·南北朝~唐代 주변국 冊封 封號의 地名 분석-韓國古代 三國君主들의 冊封 郡王/郡公 칭호의 이해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197, 83~95쪽

39) 『三國志·魏書』 卷30 「烏丸鮮卑東夷·東夷·高句麗傳」, 844쪽, “國人有氣力, 習戰鬪, 沃沮·東濊皆屬焉.”; 『三國志·魏書』 卷30 「烏丸鮮卑東夷·東夷·東沃沮傳」, 846쪽, “沃沮諸邑落渠帥, 皆自稱三老, 則故縣國之制也. 國小, 迫于大國之間, 遂臣屬句麗. 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 使相主領, 又使大加統責其租稅, 貂布·魚·鹽·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又送其美女以爲婢妾, 遇之如奴僕.”; 『三國志·魏書』 卷30 「烏丸鮮卑東夷·東夷·濊傳」, 848쪽, “漢末更屬句麗.”

이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⁴⁰⁾

이러한 서술 방식은 당대 편찬한 사서나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된 당대사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渤海의 팽창과정을 서술하는 『신당서』 「발해전」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祚榮은 곧 比羽의 무리를 병합하였고, 荒遠함을 믿어 곧 나라를 세웠으며 스스로 震國王이라 칭하였다. 또 사신을 보내 突厥과 수교하였다. 땅은 사방 5千里였으며 戶는 十餘萬이었고, 勝兵은 數萬이었다. 자못 書契를 알았으며 扶餘·沃沮·弁韓·朝鮮 등 海北諸國을 모두 얻었다.⁴¹⁾

위의 인용문에서는 발해가 부여·옥저·변한·조선 등 海北諸國을 얻었다고 기록하였다. 송기호 교수에 따르면 '변한'은 「李他仁墓誌」에서 고구려를 변한으로 지칭했던 것으로 보아 고구려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한다. 이 경우 조선은 고조선을 지칭한다고 한다.⁴²⁾ 혹은 조선이 漢四郡 가운데 고구려의 발상지인 현도군을 제외한 낙랑군 등을 지칭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여·옥저·변한·조선은 모두 고구려의 땅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발해가 차지한 땅을 고

40) 물론 正始 6년(245) 樂浪太守 劉茂와 帶方太守 弓遵이 東濊를 공격하여 不耐侯 등이 항복하였고, 2년 후인 正始 8년(247) 曹魏의 궁궐을 방문하여 조공하자 다시 不耐濊王에 봉하였다. 이후 東濊는 郡을 방문하여 朝謁하였고 樂浪·帶方 2郡에서 전쟁 시 賦調를 징수하고 東濊人을 役使하여 郡의 민처럼 대우했다고 한다(『三國志·魏書』 卷30 「烏丸鮮卑東夷·東夷·濊傳」, 849쪽, “正始六年, 樂浪太守 劉茂·帶方太守 弓遵以領東濊屬句麗, 興師伐之, 不耐侯等舉邑降. 其八年, 詣闕朝貢, 詔更拜不耐濊王. 居處雜在民間, 四時詣郡朝謁. 二郡有軍征賦調, 供給役使, 遇之如民.”). 이러한 『三國志·魏書』 「東夷·濊傳」의 기록을 보면 曹魏는 東濊가 高句麗에서 벗어나 樂浪·帶方に 臣屬했다고 보아 별도의 독립국으로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다.

41) 『新唐書』 卷219 「北狄·渤海傳」, 6179~6180쪽, “祚榮卽并比羽之眾, 恃荒遠, 乃建國, 自號震國王, 遣使交突厥, 地方五千里, 戶十餘萬, 勝兵數萬, 頗知書契, 盡得扶餘·沃沮·弁韓·朝鮮海北諸國.”

42) 송기호, 2011, 「발해의 고구려 계승성 補論」,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318쪽

구려의 옛 영토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를 네 개의 지역으로 분할한 것은 고구려라는 표기를 꺼린 것이다. 이는 발해의 영토를 서술한 부분에서도 보인다.

예전에 그 왕은 여러 차례 諸生을 보내 京師의 太學을 방문하여 古今制度를 학습하고 배우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드디어 海東盛國이 되었으니, 영토는 5京 15府 62州였다. 肅愼故地를 上京으로 삼고 龍泉府라 하였으며 龍·湖·渤 3州를 거느렸다. 그 남쪽은 中京으로 삼고 顯德府라 칭했으며, 盧·顯·鐵·湯·榮·興 6州를 관할하였다. 獺豹故地는 東京이라 하여 龍原府라 불렀고 柵城府라고도 하며 慶·鹽·穆·賀 4州를 거느렸다. 沃沮故地는 南京이라 하며 南海府라 하였고 沃·晴·椒 3州를 관할하였다. 高麗故地는 西京으로 삼고 鴨渚府라고 부르며 神·桓·豐·正 4州를 거느렸고, 長嶺府는 瑕·河 2州를 관할하였다. 扶餘故地는 扶餘府라 하며 늘 勁兵을 주둔시켜 契丹을 막았고, 扶·仙 2州를 거느렸다. 鄭頡府는 鄭·高 2州를 관할하였다. 挹婁故地는 定理府였고 定·潘 2州를, 安邊府는 安·瓊 2州를 각각 관할하였다. 率賓故地는 率賓府라 하였고 華·益·建 3州를 거느렸다. 拂涅故地는 東平府라 하였고 伊·蒙·沱·黑·比 5州를 관할하였다. 鐵利故地는 鐵利府라고 하며 廣·汾·蒲·海·義·歸 6州를 거느렸다. 越喜故地는 懷遠府라고 하며 達·越·懷·紀·富·美·福·邪·芝 9州, 安遠府는 寧·鄜·慕·常 4州를 각각 관할하였다. 또 郢·銅·涑 3州는 獨奏州였다.⁴³⁾

43) 『新唐書』卷219「北狄·渤海傳」, 6182쪽, “初, 其王數遣諸生詣京師太學, 習識古今制度, 至是遂爲海東盛國, 地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 以肅愼故地爲上京, 曰龍泉府, 領龍·湖·渤三州. 其南爲中京, 曰顯德府, 領盧·顯·鐵·湯·榮·興六州. 獺豹故地爲東京, 曰龍原府, 亦曰柵城府, 領慶·鹽·穆·賀四州. 沃沮故地爲南京, 曰南海府, 領沃·晴·椒三州. 高麗故地爲西京, 曰鴨渚府, 領神·桓·豐·正四州; 曰長嶺府, 領瑕·河二州. 扶餘故地爲扶餘府, 常屯勁兵扞契丹, 領扶·仙二州; 鄭頡府領鄭·高二州. 挹婁故地爲定理府, 領定·潘二州; 安邊府領安·瓊二州, 率賓故地爲率賓府, 領華·益·建三州. 拂涅故地爲東平府, 領伊·蒙·沱·黑·比五州. 鐵利故地爲鐵利府, 領廣·汾·蒲·海·義·歸六州. 越喜故地爲懷遠府, 領達·越·懷·紀·富·美·福·邪·芝九州; 安遠府領寧·鄜·慕·常四州. 又郢·銅·涑三州爲獨奏州.”

위의 인용문을 보면 발해 영토는 고구려 옛 영토와 勿吉·肅慎 등 현재 黑龍江·松花江 일대의 영토로 나뉜다. 위의 인용문에서 高麗故地를 鴨綠府, 즉 압록강 중류 일대로 한정하였던 점이 주목된다. 또 고려고지 이외에도 발해 영토 가운데 濊貊故地·沃沮故地·扶餘故地는 본래 고구려 땅이었다. 『신당서』 「지리지」에 보이는 고구려 멸망 후 설치한 靺鞨州 14州와 靺鞨府 8府가 모두 고구려 영토라면 拂涅故地(拂涅州)와 越喜故地(越喜州都督府)도 고구려 땅으로 볼 수 있다.⁴⁴⁾

어쨌든 발해 영토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고구려와 겹침에도 “고구려 옛 땅+읍루·숙신 등 기타 지역”으로 서술하지 않고 고구려 영토였던 부여·옥저·예맥의 옛 땅[故地]으로 세분한 것은 고구려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말살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武王이 727년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고구려의 옛 터전을 수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소유하게 되었다.”⁴⁵⁾고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또 『續日本紀』에는 “渤海國者, 高麗之故地也.”라고 하여 발해가 고려 즉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했음을 명시하였다. 일본 기록에 따르면 발해는 고구려 계승국이었던 지만, 唐은 발해를 고구려 계승국으로 간주하고 싶지 않았고, 위의 인용문은 그러한 心態를 그대로 드러낸 표현이었다. 송기호 교수의 표현처럼 자신에게 대적했던 고구려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싶었을 것이다.⁴⁶⁾

위에서 살펴본 『신당서』는 북송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구려 기피 현상이 당대의 것이 아니라 북송시대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당대에 편찬된 사서 가운데 고구려를 없앤 증거를 찾아야 한다. 이는 『晉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진서』에는 고구려 열전이 없다. 북한의 현명호는 『진서』에 고구려 열전이 빠진 원인을 당태종의 1차

44) 『新唐書』 「地理志」에 따르면 14州는 南蘇州·蓋牟州·大那州·倉巖州·磨米州·積利州·黎山州·延津州·木底州·安市州·諸北州·識利州·拂涅州·拜漢州였고, 9府는 新城州都督府·遼城州都督府·哥勿州都督府·衛樂州都督府·舍利州都督府·居素州都督府·越喜州都督府·去旦州都督府·建安州都督府였다(『晉書』 卷33下 「地理志」 7下 河北道·高麗降戶條, 1128쪽).

45) 『續日本紀』 卷10 “武藝忝當列國, 監總諸藩, 復高麗之舊居, 有扶餘之遺俗.”

46) 송기호, 2011, 앞의 논문, 318쪽

고구려 침공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진서』 改撰은 貞觀 18년 (644) 唐의 고구려 침략준비와 함께 편찬을 시작하여 그 침략에서 타격을 받고 돌아간 다음해(정관 20년, 646)에 끝났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한 당태종은 고구려가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었고 고구려에 불쾌감과 적대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고구려에 대한 감정이 개찬 중인 『진서』에 반영되어 「고구려전」을 빼버렸고 허경중이 이러한 작업을 주도했을 것이라고 보았다.⁴⁷⁾

『진서』에 고구려 열전이 없는 이유를 당태종의 공포나 증오 같은 심리적인 요인 이외에 실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언급하기도 한다. 당태종은 정관 22년 (648) 신라 사신 金春秋·金法敏 부자 일행에게 손수 지은 溫湯과 晉祠의 碑, 『진서』를 하사하였다.⁴⁸⁾ 당태종이 신라 사신들에게 고구려와 백제의 열전이 없는 『진서』를 하사한 것은 唐이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암시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당태종의 御撰인 『진서』의 완성 시점(644)과 신라의 唐 청병(642?), 당태종의 고구려 親征과 실패(644), 고구려 공격 재차 실패(648)라는 일련의 사건을 고려하면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진서』 「동이전」에 고구려와 백제의 열전을 없애거나 뺀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⁴⁹⁾ 『진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47) 현명호, 1992, 「발해의 고구려와의 계승관계를 모호하게 한 별칭 《발해말갈》에 대하여」, 『발해사 연구논문집』 1,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09~111쪽

48) 『舊唐書』 卷199上 「東夷·新羅傳」, 5335~5336쪽, “二十二年, 眞德遣其弟國相·伊贊干金春秋及其子文王來朝. 詔授春秋爲特進, 文王爲左武衛將軍. 春秋請詣國學觀釋奠及講論, 太宗因賜以所制溫湯及晉祠碑并新撰晉書. 將歸國, 令三品以上宴餞之, 優禮甚稱.”; 『新唐書』 卷220 「東夷·新羅傳」, 6203쪽, “明年, 遣子文王及弟伊贊子春秋來朝, 拜文王左武衛將軍, 春秋特進. 因請改章服, 從中國制, 內出珍服賜之. 又詣國學觀釋奠·講論, 帝賜所製晉書. 辭歸, 敕三品以上郊餞.”;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眞德王二年條, “遣伊浪金春秋及其子文王朝 唐太宗遣光祿卿柳亨郊勞之, 既至見春秋 儀表英偉厚待之 春秋請詣國學觀釋奠及講論 太宗許之, 仍賜御製溫湯及晉祠碑并新撰晉書, 嘗召燕見賜以金帛尤厚.”

49) 李成珪, 2003, 「韓國 古代 國家의 形成과 漢字 受容」, 『韓國古代史研究』 32, 59~60쪽의 주) 15. 이 논문에서는 高句麗와 百濟를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고구려 열전뿐만 아니라 本紀에서도 고구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다만 慕容氏의 載記에 모용씨와의 관련 기사에 등장할 뿐이다. 이는 『진서』에서 고구려 관련 기사를 대부분 없앴기 때문이다. 이처럼 철저하게 고구려의 기록을 없앤 것은 당대 중국인의 고구려에 대한 증오나 기피현상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

Ⅲ. 唐代 墓誌銘 高句麗 기사와 高句麗 표기 기피

이 장에서는 당대 묘지명의 고구려 표기를 검토하려고 한다. 먼저 당대 묘지명이긴 하지만 수양제의 고구려 원정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자.

「趙靜安墓誌」에서 정관 18년(644) 趙靜安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정관 18년(644) 태종 文皇帝를 따라 東夷의 죄를 물으러 [참전하였다].
戈를 휘둘러 一舉에 삼한은 黃龍에서 형체가 가루가 되었고 활을 당기니 九種이 玄免에서 몸이 부숩졌다.⁵⁰⁾

위 인용문의 원문에서 ‘門罪東夷’의 ‘門’字는 편자의 주석에 따르면 ‘問’字라고 한다. 이 인용문에서 ‘동이’는 고구려를 가리키는 단어임이 분명하다. 두 번째 문장에 보이는 黃龍은 남북조시대에는 前燕·後燕·北燕의 수도였던 龍城(和龍城)을 가리켰다.⁵¹⁾ 혹은 『자치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강남, 즉 남조에

표현은 없으나 李成珪 博士는 사석에서 그러한 의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 50) 「趙靜安墓誌」, 『全唐文補遺』 第八輯, 322위쪽, “貞觀十八年, 從太宗文皇帝門罪東夷. 麾戈一舉, 三韓粉魄於黃龍; 機弭纔張, 九種碎身於玄免.”
- 51) 『宋書』 卷76 「朱脩之傳」, 1970쪽, “脩之深嘉其義, 竟不告也. 後鮮卑馮弘稱燕王, 治黃龍城, 託跋燾伐之, 脩之與同沒人邢懷明竝從.” 이하 정사류는 北京中華

서 북연을 黃龍國이라 불렀던 것으로 보아⁵²⁾ 국명으로도 볼 수 있다. 용성·화룡·황룡은 같은 땅을 다른 명칭으로 부른 것이다.⁵³⁾ 당대에도 거란 남쪽에 있는 곳이었으며,⁵⁴⁾ 거란 失活部落에 설치했던 기미주인 信州의 屬縣이었고 본래 營州都督府에 속했다. 후에 신주는 靑州에, 黃龍縣은 范陽縣에 寄治되었다.⁵⁵⁾ 『舊唐書』「契丹傳」에는 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營州에서 거란의 군장과 노인 등을 모아 물자를 차등으로 하사하고 蕃長 窟哥에게 左武衛將軍을 제수했다고 기록하였다.⁵⁶⁾ 『신당서』「거란전」에서는 태종이 고구려 정벌 당시 거란과 奚의 군사를 징발하여 동원하였으며,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영주에서 거란의 君長 굴가와 노인들에게 상을 주었다고 기록하였다.⁵⁷⁾ 어떤 경우건 거란은 고구려와 당의 전쟁 당시 친당 세력이었지, 고구려 편은 아니었다. 당고조 武德初까지 거란이 돌궐이나 고구려 영향권에 속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태종의 고구려 공격 당시에는 거란은 고구려 영향권 안에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 통설이다.⁵⁸⁾ 따라서 황룡을 포함한 거란의 일부 혹은 전부가 고구려 영토가 아니었다면 위 인용문에서 “戈를 휘둘러 일거에 삼한은 황룡에서 형체가 가

書局 標點校勘本에 의거한다.

- 52) 『資治通鑑』卷122 「宋紀」4 文帝元嘉十二年春正月, 385쪽, “燕王數爲魏所攻, 遣使詣建康稱落奉貢. 癸酉, 詔封爲燕王; 江南謂之黃龍國.”
- 53) 趙海麗, 2011, 「北魏門閥婚姻制之代表家族 - 冀州長樂信都馮氏與北魏皇室及顯族聯姻關係探論」, 『理論學刊』2011-6(總第208期), 94호론쪽
- 54) 『舊唐書』卷199下 「北狄·契丹傳」, 5349쪽, “契丹, 居潢水之南, 黃龍之北, 鮮卑之故地, 在京城東北五千三百里.”
- 55) 『舊唐書』卷39 「地理志」2 十道郡國·河北道·信州條, 1526쪽, “信州: 萬歲通天元年置, 處契丹失活部落, 隸營州都督. 二年, 遷於靑州安置, 黃龍: 州所治, 寄治范陽縣.”; 『新唐書』卷43下 「地理志」下 羈縻州·河北道·契丹·營州都督府條, 1126~1127쪽
- 56) 『舊唐書』卷199下 「北狄·契丹傳」, 5350쪽, “太宗伐高麗, 至營州, 會其君長及老人等, 賜物各有差, 授其蕃長窟哥爲左武衛將軍.”
- 57) 『新唐書』卷219 「北狄·契丹傳」, 6168쪽, “帝伐高麗, 悉發酋長與奚首領從軍. 帝還, 過營州, 盡召其長窟哥及老人, 差賜繒采, 以窟哥爲左武衛將軍.”
- 58) 이성재, 2005,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국학자료원); 이재성, 2011, 「麗唐戰爭과 契丹·奚」, 『中國古中世史研究』26; 김지영, 2011, 「7세기 중반 거란의 동향 변화와 고구려-660년 거란의 이반을 기점으로」, 『만주연구』12, 79~84쪽

루가 되었고”라는 구절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인용문의 대구가 잘 맞지는 않으나⁵⁹⁾ 문맥상 황룡을 제외한 ‘삼한’, ‘九種’, ‘玄兎’은 고구려를 지칭함을 알 수 있다. 『구당서』 「褚遂良傳」에서도 고구려 대신 ‘삼한’이란 별칭을 사용한 예가 발견된다.⁶⁰⁾ 위 인용문의 구중은 『사기』 「孔子世家」에서 인용한 『사기집해』에 따르면 九夷를 지칭한다.⁶¹⁾ 『후한서』 「동이열전」에 따르면 구이는 畎夷·于夷·方夷·黃夷·白夷·赤夷·玄夷·風夷·陽夷 등 9개 동이 집단을 지칭한다.⁶²⁾ 당시 중국인들은 고구려를 동이와 동일시하며 9종류의 동이, 즉 구이 혹은 구중을 고구려의 별칭으로 사용하였다.

또 「豆善富墓誌」에서 豆府君의 가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六世祖 步蕃은 西魏의 將으로서 河曲에 주둔하였다. 北齊의 神武[帝]에게 격파되어 드디어 遼海로 달아났으며, 後裔는 요해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성을 豆氏라고 하였다. 皇唐이 遼가 臣屬하지 않음을 이유로 정벌하여 兵戈가 玄菟之野에 머물렀다. 君考는 遠祖 [竇]融이 河外에서 [後漢 光武帝에] 항복했던 일을 흠모하여 마침내 九夷列成之將을 참하여 旌門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邑落의 塗炭之人을 부축하고 關에 귀순하였다. 天晝가 크게 내려졌으니, 一門에 天子의 은총이 넘쳤다.⁶³⁾

59) 만약 당시 高句麗의 서북쪽 국경선이 黃龍, 즉 營州 일대로 확장되었다면 黃龍도 高句麗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식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

60) 『舊唐書』 卷80 「褚遂良傳」, 2734쪽, “由是從勳之言, 經畫渡遼之師. 遂良以太宗銳意三韓, 懼其遺悔, 翌日上疏諫曰 ……”

61) 『史記』 卷47 「孔子世家」 注引 『史記集解』, 1922쪽, “王肅曰: ‘九夷, 東方夷有九種也. 百蠻, 夷狄之百種.’”

62)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2808쪽, “王制云: ‘東方曰夷.’ 夷者, 柢也, 言仁而好生, 萬物柢地而出, 故天性柔順, 易以道御, 至有君子·不死之國焉. 夷有九種, 九夷來御也, 曰畎夷, 于夷, 方夷, 黃夷, 白夷, 赤夷, 玄夷, 風夷, 陽夷. 故孔子欲居九夷也.”

63) 「豆善富墓誌」, 『全唐文補遺』 第四輯, 441아래쪽, “六世祖步蕃, 西魏將, 鎮河曲. 爲北齊神武所破, 遂出奔遼海, 後裔因家焉. 爲豆氏□□皇唐征有遼之不庭, 兵戈次玄菟之野. 君考夫卒慕遠祖融河外納款, 遂斬九夷列成之將, 稽顙旌門. 扶邑落

위의 인용문에서 두부군의 6世祖 步蕃은 北魏末 河西(오르도스)에서 활동했던 紇豆陵步蕃이었다. 후에 흘두릉보변은 高歡, 즉 인용문의 神武[帝]에게 패해 전사하였다.⁶⁴⁾ 또 紇豆陵氏는 孝文帝의 胡姓의 漢姓 改稱 조치 때 竇氏로 바꾸었다.⁶⁵⁾ 따라서 融, 즉 竇融을 먼 선조(遠祖)라고 지칭한 것이다. 그러나 두응은 즉 新末·後漢初에 활동했던 공신이었던 扶風郡 平陵縣 출신의 漢人이므로⁶⁶⁾ 유목민 출신인 흘두릉씨(두씨)와 혈연적 관계가 없다. 그리고 遼海로 달아나 豆氏로 바꾸었다는 것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다만 잔존 세력 일부의 도주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두부군 본인의 행적은 사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용문에 따르면 두씨(紇豆陵氏)는 고환과의 권력투쟁에서 패하여 고구려로 도망갔다가 당이 고구려를 침입하자 고구려의 장군(九夷列成之將)을 죽이고 당에 귀순하였다.

위의 인용문에서 요해는 요수 일대 혹은 요동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당태종의 고구려 친정 때 고구려에서 당으로 귀순했다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해석하면 고구려를 지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遼’와 ‘玄菟之野’, ‘九夷’는 모두 고구려를 가리킴이 분명하다.

앞에서 태종과 고종 시기에 고구려 공격에 참전했던 인물의 묘지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묘지명에서는 고구려 대신 ‘삼한’, ‘구중’, ‘현도’, ‘요해’, ‘요’, ‘현도지야’, ‘구이’, ‘조선’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고구려를 지칭하였다. 이 밖에 ‘島夷’,⁶⁷⁾ ‘鳥夷’,⁶⁸⁾ ‘遼碣’,⁶⁹⁾ ‘濊貊’,⁷⁰⁾ ‘樂浪’,⁷¹⁾ ‘辰韓’⁷²⁾ 등의 단어도 고구려를

塗炭之人, 歸誠關闕. 天書大降, 榮寵一門.”

64) 『魏書』卷75 「尔朱兆傳」, 1663쪽, “初, [尔朱]榮既死, 莊帝詔河西人紇豆陵步蕃等令襲秀容. [尔朱]兆入洛後, 步蕃兵勢甚盛, 南逼晉陽, [尔朱]兆所以不暇留洛, 回師禦之. [尔朱]兆雖驍果, 本無策略, 頻爲步蕃所敗, 於是部勒士馬, 謀出山東. 令人頻徵獻武王於晉州, 乃分三州六鎮之人, 令王統領. 既分兵別營, 乃引兵南出, 以避[紇豆陵]步蕃之銳. 步蕃至於樂平郡, 王與兆還討破之, 斬[紇豆陵]步蕃於秀容之石鼓山, 其衆退走.”

65) 『魏書』卷113 「官氏志」, 3012쪽, “次南有紇豆陵氏, 後改爲竇氏.”

66) 『後漢書』卷23 「竇融列傳」, 795쪽, “竇融字周公, 扶風平陵人也. 七世祖廣國, 孝文皇后之弟, 封章武侯. 融高祖父, 宣帝時以吏二千石自常山徙焉.”

67) 「韓羅墓誌」, 『全唐文補遺』第二輯, 126위쪽, “是以西征戎國, 席卷高昌, 東伐島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극소수이지만 고구려의 당대 표기인 ‘고려’를 사용한 예도 보인다. 「斛斯正則墓誌」의 기록에서 수양제의 고구려 침공 부분에서 고구려를 ‘高驪’라고 표기하였다.⁷³⁾ 반면 당태종의 친정 기사에서는 고구려를 ‘鳥夷’라고 표기하였다.⁷⁴⁾ 이 밖에 龍朔元年(661) 등 여러 차례 고구려 침공에 참전한 「契苾嵩墓誌銘」에는 고구려를 ‘고려’로 지칭한 용례가 두 차례 보인다.⁷⁵⁾

夷, 驂駕遼右.”

- 68) 「唐故隋酒城府鷹揚趙君(曹諒)及琅耶郡君安氏墓誌并序」, 『全唐文新編』 20, 13873쪽, “值隋世道消, 鳥夷憑甸, 龍旂爰舉, 問罪三韓.”
- 69) 「強偉墓誌」, 『唐代墓誌彙編』 麟德026, 413쪽, “至[貞觀]十八年, 將作大匠閻立德江南造船, 召爲判佐. 十一年副虞部員外郎唐遜造海船一千艘, 其年勅差副宋州刺史王波利更造海船. 事異畢副兵部員外郎裴明禮運糧遼碣.”
- 70) 「陸仁儉墓誌」, 『唐代墓誌彙編續集』 延載005, 335쪽, “顯慶五年, 神丘道大總管蘇定方地均衛霍, 術妙孫吳, 引公爲入幕之賓, 籍公有從橫之算, 掃除穢貊, 我有九焉.”
- 71) 「南郭生墓誌」, 『全唐文補遺』 第二輯, 337아래쪽, “即以龍朔二年樂浪道征, 功參百戰, 遼海息其祆氛; 威懼九梯, 肅慎貢其楛矢.”; 「南郭生墓誌」, 『全唐文新編』 21, 14628쪽
- 72) 「阿史那忠碑」, 『全唐文新編』 20, 13683쪽, “顯慶五年, 詔爲使持節長岑道行軍大總管, 辰韓倣擾, 從旆除殘, 契丹縱毒, 廻戈拯亂, 剽元菟之游魂, 覆黃龍之□.”; 「尉遲敬德墓誌」, 『全唐文補遺』 第二輯, 156위쪽, “屬辰韓負險, 獨阻聲教, 憑丸都而舉斧, 恃涓水而含沙. 太宗爰命六軍, 親紆萬乘, 觀兵玄菟, 問罪白狼.”; 「尉遲敬德墓誌」, 『全唐文新編』 20, 14029쪽. 尉遲敬德墓誌의 ‘辰韓’은 ‘丸都’와 ‘涓水’, ‘玄菟’, ‘白狼’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高句麗 정벌에 관한 표현임이 확실하다. 즉 ‘辰韓’은 高句麗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 73) 「斛斯正則墓誌」, 『全唐文補遺』 第二輯, 231아래쪽, “尋而從擊高驪, 甫陟猿巖, 預迫隨於鞞轂; 即泛鯁壑, 仍迅驚於樓船.”; 「斛斯正則墓誌」, 『全唐文新編』 20, 14265쪽
- 74) 「斛斯正則墓誌」, 『唐代墓誌彙編續集』 咸亨005, 187쪽, “[貞觀]十八年, 從幸洛陽宮. 仍屬鳥夷恃嶮, 狼顧不賓. 即從龍麾, 恭聞豹略.”; 「斛斯正則墓誌」, 『全唐文補遺』 第二輯, 232위쪽
- 75) 「契苾嵩墓誌」, 『全唐文補遺』 第六輯, 413아래쪽, “龍朔元年, 詔爲遼東道行軍大總管. 于時九月, 水陸兩軍大會平壤, 兵至鴨綠, 波濤浩瀚, 無舟可濟. 恐失王期, 仰天而嚚, 具申忠志. 寒風四起, 流澌立合. 軍衆纒渡, 冰隨後銷, 高麗謂神.”; 「契苾嵩墓誌」, 『唐代墓誌彙編』 開元314, 1374쪽, “高麗逆命, 王師問罪, 先鋒直進, 斬首數千, 若戰被傷, 通中者七.”; 「契苾嵩墓誌」, 『全唐文新編』 22, 15064쪽

위에서 당대 묘지명에서 고구려를 直書하거나 별칭으로 사용한 용례를 표로 정리하였다(〈표 2〉 참조).

〈표 2〉 唐代 墓誌銘의 高句麗 표기 일람

墓誌銘	高句麗 지칭 용어	활동 연대	墓主 매장 연대	高句麗 로 표기
曹諒及琅耶郡君安氏墓誌 ⁷⁶⁾	烏夷 三韓		大業 10년(614)	× ×
王君愕墓誌 ⁷⁷⁾	三韓	貞觀 19년(645)	大業 10년(614)	×
韋匡伯墓誌 ⁷⁸⁾	遼左	大業 7년(611)	開明2	×
屈突通墓誌	東夷 ⁷⁹⁾ 三韓 ⁸⁰⁾	大業 7년(611)	貞觀 2년(628)	× ×
段志玄墓誌 ⁸¹⁾	遼左 遼碣	大業中	貞觀 16년(642)	× ×
隋故銀青光祿殷州刺史誌銘 ⁸²⁾	遼	大業 9년(613)	貞觀 20년(646)	×
大唐梁君墓誌 ⁸³⁾	東夷 遼碣		貞觀 22년(648)	×
韓邏墓誌 ⁸⁴⁾	烏夷		永徽 5년(654)	×
張士貴墓誌 ⁸⁵⁾	朱蒙之緒 玄夷之孽	貞觀 18년(644)	顯慶 2년(657)	× ×
尉遲敬德墓誌 ⁸⁶⁾	辰韓 玄菟 白狼		顯慶 3년(658)	× × ×
强偉墓誌銘 ⁸⁷⁾	遼碣	貞觀 18년(644)	麟德元年(664)	×
王道智墓誌銘 ⁸⁸⁾	遼陽 三韓		乾封元年(666)	× ×
曹欽墓誌 ⁸⁹⁾	朝鮮		乾封 2년(667)	×
仵欽墓誌 ⁹⁰⁾	三韓	永徽 5년(654)	總章元年(668)	×
李勣墓誌銘 ⁹¹⁾	東夷	貞觀 17년(643)	總章 2년(669)	×
馬寶義墓誌 ⁹²⁾	三韓 玄菟 九種		總章 3년(670)	× × ×

斛斯正則墓誌 ⁹³⁾	烏夷	貞觀 18년(644)	咸亨元年(670)	×
斛斯正則墓誌 ⁹⁴⁾	高驪 烏夷	大業년간	咸亨元年(670)	○ ×
邊眞墓誌 ⁹⁵⁾	三韓 九種		咸亨 4년(673)	×
姬溫墓誌銘 ⁹⁶⁾	三韓 白狼 九種 玄菟		上元 2년(675)	×
張仁禕墓誌 ⁹⁷⁾	辰韓		儀鳳 4년(679)	×
張和墓誌 ⁹⁸⁾	九種 青丘 三韓		永淳元年(682)	×
屈突詮墓誌 ⁹⁹⁾	桂樓 馬韓 小貊		載初元年(690)	×
屈突詮墓誌 ¹⁰⁰⁾	五部 九種		載初元年(690)	×
安興孫墓誌 ¹⁰¹⁾	三韓 九種	龍朔년간 (661~663)	天授元年(690)	×
董師墓誌 ¹⁰²⁾	三韓 遼川	龍朔년간 (661~663)	691(天授2)	×
陸仁儉墓誌 ¹⁰³⁾	穢貊	顯慶 5년(660)	延載元年(694)	×
南郭生墓誌 ¹⁰⁴⁾	樂浪	龍朔 2년(662)	延載元年(694)	×
連簡墓誌 ¹⁰⁵⁾	三韓舊壤 九種遺黎		天冊萬歲 2년 (696)	×
王思訥墓誌 ¹⁰⁶⁾	三韓 九種 朝鮮		天冊萬歲 2년 (696)	×
姚思玄 ¹⁰⁷⁾	三韓 玄免 遼		萬歲通天 2년 (697)	×
張素墓誌銘 ¹⁰⁸⁾	三韓 朝鮮 玄菟	龍朔년간 (661~663)	神功元年(697)	×

趙靜安墓誌 ¹⁰⁹	遼	總章 2년(669)	神功 2년(698)	×
趙靜安墓誌 ¹¹⁰	東夷 三韓 九種 玄免	貞觀 18년(644)	神功 2년(698)	×
王德表墓 ¹¹¹	遼陽	麟德년간 (664~666)	聖曆 2년(699)	×
張仁楚墓誌 ¹¹²	遼	龍朔 3년(663)	長安 3년(703)	×
張仁楚墓誌 ¹¹³	三韓		長安 3년(703)	×
陽玄基墓誌 ¹¹⁴	鴨綠	總章元年(668)	長安 3년(703)	×
契苾嵩 ¹¹⁵	高麗		開元 18년(730)	○
契苾嵩墓誌 ¹¹⁶	高麗	龍朔元年(661)	開元 18년(730)	○
豆善富墓誌 ¹¹⁷	遼海 遼 玄菟之野 九夷		開元 29년(741)	×
阿史那忠碑 ¹¹⁸	辰韓 元菟(玄免)	顯慶 5년(660)	上元 2년(761)	×
爾朱義琛墓誌 ¹¹⁹	三韓		上元 3년(762)	×

76) 「唐故隋酒城府鷹揚趙君(曹諒)及琅耶郡君安氏墓誌并序」, 『全唐文新編』 20, 13873쪽, “值隋世道消, 烏夷憑甸, 龍旂爰舉, 問罪三韓.”

77) 「王君愕墓誌」, 『全唐文補遺』 第二輯, 85위쪽, “既而三韓放命, 六師薄伐.”; 「唐故幽州都督邢國公王公(王君愕)墓誌」, 『全唐文新編』 20, 13818쪽

78) 「韋匡伯墓誌」, 13734쪽

79) 「屈突通墓誌」, 13744쪽

80) 「屈突通墓誌」, 13745쪽

81) 「段志玄碑」, 13679쪽

82) 「隋故銀青光祿殷州刺史誌銘」, 『全唐文新編』 20, 13830쪽, “[大業]九年, 從駕伐遼, 全軍獨剋.”

83) 「大唐梁君墓誌」, 『全唐文新編』 20, 13848쪽, “近以東夷小醜, 暫闕朝儀, 聖上方命徂征, 問罪遼碣.”

84) 「韓邏墓誌」, 126위쪽

85) 「張士貴墓誌」, 42위쪽-42아래쪽

- 86) 「尉遲敬德基誌」, 『全唐文補遺』 第二輯, 156위쪽; 「尉遲敬德基誌」, 『全唐文新編』 20, 14029쪽
- 87) 「强偉墓誌」, 413쪽
- 88) 「王道智墓誌」, 『唐代墓誌彙編』 乾封022, 456쪽, “旣而天子按劍, 親事遼陽, 三韓方梗, 六軍不振.”; 「唐故左驍騎左一車騎將軍上柱國王君墓誌銘」, 『全唐文新編』 20, 14194쪽
- 89) 「曹欽墓誌」, 『唐代墓誌彙編續集』 乾封014, 167쪽, “朝鮮遂陷, 王旅用康. 此又公之勳也.”; 「大唐故左驍衛大將軍上柱國雲中縣開國公曹府君(曹欽)墓誌銘」, 『全唐文新編』 20, 14211쪽
- 90) 「仵欽墓誌」, 『唐代墓誌彙編』 咸亨024, 526쪽, “永徽五年, 除開福府旅師. 景操高列, 威策駭於三韓; 神王肅清, 聲教霑於七澤.”; 「仵欽墓誌」, 『全唐文新編』 20, 14264쪽
- 91) 「李勣墓誌」, 『唐代墓誌彙編續集』 總章010, 178쪽, “[貞觀]十七年加特進·太子詹事, 仍同中書門下. 太宗問罪東夷, 以公爲遼東道大總管.”
- 92) 「馬寶義墓誌」, 『全唐文補遺』 第五輯, 157아래쪽, “泊以三韓肆虐, 恃玄菟以蜂飛; 九種挺妖, 阻黃龍而蝟聚. 聖上愍茲萌庶, 方申吊伐.”; 「馬寶義墓誌」, 『唐代墓誌彙編』, 咸亨044, 541쪽; 「唐故上騎都尉馬君(馬寶口)墓誌銘并序」, 『全唐文新編』 21, 14286쪽
- 93) 「斛斯正則墓誌」, 『唐代墓誌彙編續集』 咸亨005, 187쪽; 「斛斯正則墓誌」, 『全唐文補遺』 第二輯, 232위쪽
- 94) 「斛斯正則墓誌」, 『全唐文補遺』 第二輯, 231아래쪽; 「斛斯正則墓誌」, 『全唐文新編』 20, 14265쪽
- 95) 「邊眞墓誌」, 『全唐文補遺』 第五輯, 166위쪽, “往以三韓作逆, 九種不賓, 鼓月騎以長驅, 指霜伐而獨遠.”
- 96) 「姬溫墓誌」, 『全唐文新編』 21, 14361쪽, “于時三韓蟻衆, 驚濤阻於白狼, 九種鴟張, 凝氛晦於玄菟, 興師薄伐, 命將襲行, 擢君爲左二軍兵曹.”
- 97) 「張仁禕墓誌」, 『全唐文補遺』 第一輯, 60위쪽, “屬辰韓作梗, □險未清, 司空英國公奏君爲遼東行軍總管.”
- 98) 「張和墓誌」, 『唐代墓誌彙編』 永淳002, 686쪽, “更九種强梁, 蟻結青丘之域; 三韓叛換, 鴟張紫塞之□.”
- 99) 「屈突詮墓誌」, 『全唐文補遺』 第八輯, 300아래쪽-301위쪽, “桃都雜種, 桂樓遺噍, 憑馬韓之險隔, 傲鯁壑之深阻, 周王楛矢之貢, 闕而不供; 漢帝樓船之師, 征而不襲, 公以幕中神筭, 堂上奇兵, 出九地而先登, 連五符而告捷. 掃丸都而填穰穴, 策是攻心; 服小貊而降右渠, 明同屈指.”
- 100) 「屈突詮墓誌」, 301위쪽, “使金如粟, 貪吏改節而脩身; 鑄戟爲農, 匈奴感恩而嚮化. 北庭無事, 旣聞三表之功; 東隅未康, 復佇八條之績. 冊拜銀青光祿大夫·守安東都護, 臨五部之邊邑, 輯九種之遺黎, 微陽煦而谷春, 巨浪銷而海謐.”
- 101) 「安興孫墓誌」, 『全唐文補遺』 第七輯, 320위쪽, “以龍朔年中, 攘袂三韓, 揚旆九種, 蒙授上騎都尉.”
- 102) 「董師墓誌」, 『全唐文補遺』 第五輯, 205위쪽-205아래쪽, “往以龍朔年中, 三韓霧起, 孫泉竊號, 據鯁壑而挺妖; 衛滿稱尊, 怙鯨波而起祲. 所以天王命將, 飲馬

〈표 2〉를 보면 39개의 묘지명에서 고구려를 지칭하는 단어나 별칭이 모두 79개였다. 이 가운데 요해·백량·요천처럼 고구려의 별칭뿐만 아니라 실제 지명으로 해석하여 중의적인 단어도 있다. 반면 황룡처럼 고구려를 지칭하는

遼川; 大帝興威, 揚兵海島.”

- 103) 「陸仁儉墓誌」, 335쪽
- 104) 「南郭生墓誌」, 『全唐文補遺』 第二輯, 337아래쪽; 「南郭生墓誌」, 『全唐文新編』 21, 14628쪽
- 105) 「連簡墓誌」, 『唐代墓誌彙編』 天冊萬歲008, 882쪽, “屬三韓舊壤, 九種遺黎, 恃玄菟以稽誅, 控滄波而作梗.”
- 106) 「王思訥墓誌」, 『全唐文補遺』 第五輯, 223아래쪽, “往者三韓作梗, 九種挺妖, 君卽杖劍狼川, 橫戈鯤壑, 朝鮮之靜, 君有力焉.”; 「王思訥墓誌」, 『唐代墓誌彙編』, 天冊萬歲006, 881쪽; 「王思訥墓誌」, 『全唐文新編』 21, 14637쪽
- 107) 「姚思玄墓誌」, 『唐代墓誌彙編』 萬歲通天021, 903쪽, “又曩以三韓有事, 九伐申威, 而公效節滄瀾, 若動樓船之旅; 展誠玄免, 以獲渡遼之□.”
- 108) 「張素墓誌」, 『唐代墓誌彙編』 神功008, 918쪽; 「張素墓誌」, 『全唐文新編』 21, 14671쪽
- 109) 「趙靜安墓誌」, 『全唐文補遺』 第八輯, 322위쪽, “總章二年八月, 恩制三衛主帥及監門校尉入遼者, 竝停番放選.”
- 110) 「趙靜安墓誌」, 322위쪽
- 111) 「王德表墓誌」, 『全唐文補遺』 第一輯, 78아래쪽, “後遷鄜州洛川縣主簿·定州新樂縣丞·瀛州樂壽縣丞. 麟德之歲, 薄伐遼陽.”
- 112) 「張仁楚墓誌」, 『唐代墓誌彙編』 長安044, 1022쪽, “龍朔三年, 從英公破遼, 授上柱國.”
- 113) 「張仁楚墓誌」, 『唐代墓誌彙編』 長安044, 1022쪽, “神兵作氣, 無資一鼓之誼; 肅奮歸降, 坐滅三韓之俗.”
- 114) 「陽玄基墓誌」, 『全唐文補遺』 第八輯, 330위쪽, “唐顯慶三年, 從薛仁貴平契丹. 龍朔元年, 隨契必何力破鴨綠, 授游擊將軍·左驍衛善信府果毅. 總章元年, 授鹿陵府長上折衝, 仍檢校東柵州都督府長史. 誅反首領高定問等, 封定陽郡公, 食邑二千戶.”
- 115) 「契苾嵩墓誌」, 『唐代墓誌彙編』, 1374쪽; 「契苾嵩墓誌」, 『全唐文新編』 22, 15064쪽
- 116) 「契苾嵩墓誌」, 『全唐文補遺』 第六輯, 413아래쪽; 「契苾嵩墓誌」, 『全唐文新編』 22, 15064쪽
- 117) 「豆善富墓誌」, 441아래쪽
- 118) 「阿史那忠碑」, 13683쪽
- 119) 「爾朱義琛墓誌」, 『唐代墓誌彙編』 上元036, 619쪽, “復以三韓尙梗, 邊隅有事, 供軍機要, 事資良牧, 乃除定州刺史.”; 「爾朱義琛墓誌」, 『全唐文新編』 21, 14370~14371쪽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단어도 있지만 사실 황룡은 전연·후연·북연의 수도인 용성(화룡성), 즉 당대의 영주 일대를 지칭하므로 대구더라도 제외하였다. 이 경우 고구려의 별칭 총수는 증감이 모두 가능하다.

용례로 계산하면 고구려, 즉 당대의 표기인 ‘고려’는 세 개에 불과하다. 즉, 고구려를 직서한 것이 전체의 약 3.8%에 불과하다. 39개 묘지명 가운데 ‘고려’로 표기한 묘지명은 두 개(5.1%)다. 어떤 쪽이건 간에 고구려 즉 ‘고려’ 대신 별칭을 사용한 예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구려를 지칭하는 ‘고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거나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일 것이다. 이는 고구려 유민의 본적을 분석하여 고구려와 돌궐 등 당대에 걸끄러운 상대국 유민들은 묘지명에서 국명을 표기하지 못했던 현상과 일치한다.¹²⁰⁾

이와 더불어 단어의 용례를 분석하면 삼한이 18회로 가장 많고 구종 9회, 현토(玄兔) 7회, 요 5회, 동이 4회, 요갈·조선·조이·진한 3회, 백랑·요양·요좌 2회, 계루·구이·낙랑·도이·현이·마한·소맥·압록·예맥·朱蒙之緒·청구·오부·요천·요해가 각각 1회였다. 고구려의 별칭으로 사용된 단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동이·도이·조이·현이·구이처럼 동방의 이민족을 지칭하는 용어(10회), 예맥·소맥·계루·오부처럼 고구려를 연상시키는 단어(4회), 낙랑·현도·백랑·요·요갈·요양·요좌·요천·요해 등 전한 이래의 군현명이나 각종 지명(24회), 삼한·마한·진한·조선 등 한국 고대의 옛 국명(25)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 구종을 포함하면 동방의 이민족을 지칭하는 용어는 19회가 된다.

이러한 유형을 해석하면 먼저 전한 이래의 郡名과 각종 지명을 사용한 것은 고구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숨은 뜻을 파악할 수 있다. 또 동이·도이·조이·현이·구이·구종 등 동방 이민족을 지칭하는 단어나 고구려를 별칭하는 예맥·소맥은 고구려를 비칭하는 어감이 강하다. 반면 고구려와 무관하지만 한국 고대의 국명이었던 삼한·마한·진한·조선이 사용된 것도 주목

120) 崔珍烈, 2009, 앞의 논문, 213~227쪽

할 사실이다. 필자는 고구려 유민의 본적을 분석하여 ‘조선’, ‘삼한’, ‘진한’, ‘부여’가 모두 ‘고구려’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음을 발견하고 이것은 당대 중국인들이 고구려와 조선·삼한·진한·부여를 동일시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론한 바 있다.¹²¹⁾ 고구려 유민의 본적뿐만 아니라 당대 문무관료들의 묘지명에도 고구려와 동일시되는 조선·삼한·진한 등이 출현하는 것은 당시 중국인들이 고구려와 조선·삼한·진한의 역사적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¹²²⁾

현재로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당시 묘지명에서 고구려를 직서하지 않고 동방의 이민족, 각종 지명, 한국 고대 국명 등 다양한 유형의 별칭을 사용한 이유를 정확히 밝힐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다만 막연하게 당대 중국인이 고구려를 깔끄러워 했거나 고구려의 국명을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만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명 표기의 기피현상은 고구려에만 해당되는 현상일까? 다음 장에서 고구려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용례를 분석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IV. 唐代 墓誌銘 주변국 기사의 國名 표기

1_ 突厥과 위구르의 國名 표기

돌궐은 북조 후기에 유연을 격파하고 몽골고원을 지배하였다. 그리고 수·당과 잦은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정사뿐만 아니라 묘지명에도 빈출하였다. 이 절에서는 돌궐을 직서한 예와 별칭을 사용했던 예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121) 崔珍烈, 2009, 앞의 논문, 234~248쪽

122) 盧泰敦, 1982,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 『한국사연구』 38, 130~133쪽

록 한다.

먼저 돌궐의 실명을 사용한 예다. 「唐儉墓誌」에는

또 馬邑 사람 高滿正은 城을 들고 突厥에 歸附하였다. [...] 境外에 있었기 때문에 便宜로 太和 等 5鎮을 설치하여, 匈奴의 左臂을 끊고, 中國의 潘雍을 심었다.¹²³⁾

라고 하였다. 인용문 첫 부분에서는 高滿正이 돌궐에 귀부하였다고 적었다. 뒷부분에서는 太和 등 5鎮 설치가 흉노의 左臂을 끊은 효과가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이 부분의 흉노는 문맥상 돌궐을 지칭한다. 이 묘지명에서는 돌궐의 실명과 별칭을 동시에 기록하였다. 「李孟常墓誌」에서도 獯戎과 돌궐을 동시에 기록하였다.¹²⁴⁾ 여기에서 훈용은 돌궐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이 밖에 돌궐을 ‘獯狁’,¹²⁵⁾ ‘葷戎’,¹²⁶⁾ ‘獯虜’¹²⁷⁾ 등으로 지칭한 예도 보이지만, 돌궐은 주로 ‘흉노’로 별칭되었다. 『구당서』 「돌궐전」에 수록된 盧備의 상소문에도 “今匈奴不臣”이라고 하여 돌궐을 흉노로 표기한 예가 보인다.¹²⁸⁾ 즉,

- 123) 「唐儉墓誌」, 『唐代墓誌彙編續集』 顯慶006, 90쪽, “又馬邑人高滿正, 以城附於突厥, …… 因以境外, 便宜置太和等五鎮, 斷匈奴之左臂, 樹中國之潘雍.”
- 124) 「李孟常墓誌」, 『全唐文補遺』 第一輯, 30아래쪽, “懷彼獯戎, 屢擾疆場, 強陵地脈, 禋起天街. […] 貞觀四年, 副右僕射李靖破突厥於磧北, 賜奴婢一百口.”
- 125) 「紇干承基墓誌」, 『全唐文補遺』 第二輯, 163아래쪽, “武德之末, 獯狁強梁, 控弦宜鹿之川, 飲馬涇陽之浦, 侵斥中夏, 騷擾邊亭. 連烽時警, 飛書日至.”
- 126) 「周護墓誌」, 『全唐文補遺』 第一輯, 21위쪽, “[貞觀]四年, 劉武周北引葷戎, 南侵汾晉. 既襲韓王之寇, 方擬代相之禍.”
- 127) 「寇洋墓誌」, 『全唐文補遺』 第一輯, 173위쪽, “尋轉涇州司馬, 累充朔方軍節度判官, 元帥戶部尚書王峻·兵部尚書蕭嵩, 悉以金革之事, 咨於幕下. 乃北逐獯虜, 勒銘於牛頭山, 雖燕然紀功, 不是過也. 仍兼東受降城使, 匈奴懼焉.”; 「寇洋墓誌」, 『唐代墓誌彙編』, 天寶136, 1627쪽
- 128) 『舊唐書』 卷194上 「突厥傳」上, 5170쪽, “右補闕盧備上疏曰: 「臣聞有虞咸熙, 苗人逆命, 殷宗大化, 鬼方不賓, 則戎狄交侵, 其來遠矣. 漢高帝納婁敬之議, 與匈奴和親, 妻以宗女, 賂以鉅萬, 冒頓益驕, 邊寇不止, 則遠荒之地, 凶悍之俗, 難以德綏, 可以威制, 而降自三代, 無聞上策. 今匈奴不臣, 擾我亭障, 皇赫斯怒, 將整元戎, 臣聞方叔帥師, 功歌周雅, 去病耀武, 勤勒燕山, 則萬里折衝, 在於擇將. ……」”

묘지명뿐만 아니라 정사에도 돌궐을 흉노 등의 별칭으로 사용하는 예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묘지명에서 사용된 돌궐의 실명 표기와 별칭 표기의 비중을 비교하기 위해 당대 묘지명의 돌궐 실명과 별칭 표기 사례를 정리하였다(〈표 3〉 참조).

〈표 3〉 突厥의 실명과 別稱 표기

墓誌銘	突厥 지칭 용어	활동 연대	墓主 매장 연대	突厥 실명 표기 여부
崔仲方墓誌 ¹²⁹⁾	胡	仁壽년간 (601~604)	大業 10년(614)	×
姜晷墓誌 ¹³⁰⁾	突厥 犬羊		貞觀 8년(634)	○ ×
張君寬墓誌 ¹³¹⁾	獫狁		貞觀 19년(645)	×
李思摩(阿史那思摩)墓誌 ¹³²⁾	匈奴	貞觀 3년(629)	貞觀 21년(647)	×
李思摩妻統毗伽可賀敦延陀墓誌 ¹³³⁾	匈奴	貞觀 3년(629)	貞觀 21년(647)	×
常何墓誌 ¹³⁴⁾	凶奴	貞觀 9년(635)	永徽 4년(653)	×
唐儉墓誌 ¹³⁵⁾	突厥 匈奴		顯慶元年(656)	○ ×
周護墓誌 ¹³⁶⁾	葷戎	貞觀 4년(630)	顯慶 3년(658)	×
紇干承基墓誌 ¹³⁷⁾	獫狁	武德년간 (618~626)	顯慶 5년(660)	×
龍澄墓誌銘 ¹³⁸⁾	凶奴		龍朔元年(661)	×
遂□字墓誌 ¹³⁹⁾	匈奴		景龍 3년(663)	×
安菩墓誌 ¹⁴⁰⁾	北狄		麟德元年(664)	×
李孟常墓誌 ¹⁴¹⁾	獯戎	貞觀 4년(630)	乾封元年(666)	×
南郭生墓誌 ¹⁴²⁾	骨都 匈奴	龍朔 2년(662)과 長壽년간(692~ 694) 사이	延載元年(694)	×
王思訥墓誌 ¹⁴³⁾	匈奴	永淳년간 (682~683)	天冊萬歲 2년 (696)	×

王琬墓誌 ¹⁴⁴⁾	匈奴	萬歲通天 2년 (697)	萬歲通天 2년 (697)	×
王元墓誌 ¹⁴⁵⁾	匈奴	大足年中(701)	開元 7년(719)	×
公孫思觀墓誌 ¹⁴⁶⁾	匈奴	萬歲登封元年 (695)	開元 8년(720)	×
臧懷亮墓誌 ¹⁴⁷⁾	匈奴		開元 18년(730)	×
臧懷亮墓誌 ¹⁴⁸⁾	匈奴		開元 18년(730)	×
李全禮墓誌 ¹⁴⁹⁾	匈奴	開元21년(733)	開元 21년(733)	×
裴仙先墓誌 ¹⁵⁰⁾	匈奴		天寶 2載(743)	×
故九姓突厥契苾李中郎贈 右領軍衛大將軍墓誌文 ¹⁵¹⁾	西北蕃突厥		天寶 3載(744)	○
高遠望墓誌 ¹⁵²⁾	突厥		天寶 4載(745)	○
張去逸墓誌 ¹⁵³⁾	匈奴	開元 20년(732)	天寶 7년(748)	×
張去逸墓誌 ¹⁵⁴⁾	匈奴	開元 20년(732)	天寶 7년(748)	×
寇洋墓誌 ¹⁵⁵⁾	獯虜 匈奴		天寶 7년(748)	×
崔湛墓誌 ¹⁵⁶⁾	山戎		天寶 10년(751)	×
郭英奇墓誌 ¹⁵⁷⁾	突厥	天寶初	天寶 13년(754)	○
衛思九墓誌 ¹⁵⁸⁾	北胡		天寶中	×

- 129) 「崔仲方墓誌」, 『全唐文補遺』第八輯, 258위쪽, “仁壽初, 除總管, 代藍忻蔚四州諸軍事·代州刺史, 胡人畏威, 漠南絕叛.”
- 130) 「姜譽墓誌」, 『全唐文補遺』第七輯, 243위쪽, “突厥來寇, 授公左七總管. 尋而犬羊奔北, 有詔追公入朝. 惟帝念功, 方申後命.”
- 131) 「張君寬墓誌」, 『全唐文補遺』第五輯, 100아래쪽, “既有先覺之口, 亦隆不輕之賞, 授上儀同, 遷上輕車都尉. 初, 獯豸未賓, 王師薄伐. 公受戒律, 殲厥醜徒.”; 「張君寬墓誌」, 『全唐文新編』20, 13814쪽
- 132) 「李思摩墓誌」, 『唐代墓誌彙編續集』貞觀050, 38쪽, “貞觀三年, 匈奴盡滅, 公因而入朝.”
- 133) 「大唐故右武衛大將軍贈兵部尚書李思摩妻統毗伽可賀敦延陀墓誌」, 『全唐文新編』20, 13838쪽, “逮貞觀三年, 匈奴中亂, 思摩率衆, 因以歸朝.”
- 134) 「常何墓誌」, 『全唐文補遺』第七輯, 5아래쪽, “[貞觀]九年六月四日, 令總北門之寄. 其年八月, 匈奴至便橋, 授馬君副總管. 賊退, 除真化府折衝都尉, 特令長上.

封武水縣開國男，食邑三百戶。公所任之府，卽在京邑。”

- 135) 「唐儉墓誌」, 90쪽
- 136) 「周護墓誌」, 『全唐文補遺』第一輯, 219쪽, “[貞觀]四年, 劉武周北引葦戎, 南侵汾晉。旣襲韓王之寇, 方擬代相之禍。”
- 137) 「紇干承基墓誌」, 『全唐文補遺』第二輯, 163아래쪽, “武德之末, 獯獷強梁, 控弦宜鹿之川, 飲馬涇陽之浦。侵斥中夏, 騷擾邊亭。連烽時警, 飛書日至。”
- 138) 「唐驍騎都尉龍澄墓誌銘」, 『全唐文新編』20, 14074쪽, “遂屬凶奴未寧, 從軍北討。旣而□清瀚海, 霧廓龍庭。”
- 139) 「遂□字墓誌」, 『全唐文補遺』第二輯, 407아래쪽, “隸大總管裴公, 北伐匈奴。”
- 140) 「安菩墓誌」, 『全唐文補遺』第四輯, 402아래쪽, “君時逢北狄南下, 奉敕遣征。一以當千, 獨掃蜂飛之衆。領衛帳部落, 獻馘西京。”
- 141) 「李孟常墓誌」, 『全唐文補遺』第一輯, 30아래쪽, “憬彼獯狄, 屢擾疆場, 強陵地脈, 祲起天街。[...] 貞觀四年, 副右僕射李靖破突厥於磧北, 賜奴婢一百口。”
- 142) 「南郭生墓誌」, 『全唐文補遺』第二輯, 338위쪽, “富貴自取, 擒骨都之左賢; 英略克, 申斷匈奴之右臂。”; 「南郭生墓誌」, 『全唐文新編』21, 14628쪽
- 143) 「王思訥墓誌」, 『全唐文補遺』第五輯, 223아래쪽, “永淳之初, 匈奴未弭, 謀臣雨驟, 猛將雲奔。君亦占募從戎, 隨廣陵以深入; 投名壯藉, 逐衛霍而橫行。”; 「大周故文林郎驍都尉王君墓誌銘并序」, 『唐代墓誌彙編』, 天冊萬歲006, 881쪽; 「王思訥墓誌」, 『全唐文新編』21, 14637쪽
- 144) 「王琬墓誌」, 『全唐文補遺』第四輯, 400위쪽, “[萬歲通天]二年, 制授壯武將軍, 仍借紫及金龜袋, 檢校媯州刺史·清夷軍經略大使, 爲匈奴作梗, 侵擾代州。公當奉敕合往救援, 先期電激, 上副天心, 別奉聖恩, 特加賞錫。”; 「王琬墓誌」, 『全唐文新編』21, 14768쪽
- 145) 「王元墓誌」, 『全唐文補遺』第二輯, 437위쪽, “大足年中, 凶奴不率, 侵擾邊毗。君授律前驅, 登時獻捷。”; 「王元墓誌」, 『唐代墓誌彙編』, 開元090, 1216쪽
- 146) 「公孫思觀墓誌」, 『全唐文補遺』第一輯, 99위쪽, “萬歲登封元年改授昭武校尉·行左監門衛中候。尋以匈奴作梗, 充清邊西道前軍押官。”
- 147) 「臧懷亮墓誌」, 『全唐文補遺』第五輯, 355아래쪽, “匈奴犯塞, 公示弱伏兵, 陷賊略盡。”; 「大唐故冠軍大將軍左羽林軍大將軍上柱國東莞郡開國公臧懷亮墓誌并序」, 『全唐文新編』22, 15062쪽
- 148) 「臧懷亮墓誌」, 『唐代墓誌彙編續集』開元098, 521쪽, “破敵, 拜游擊將軍。本府折衝長上, 轉懷州南陽府折衝長上, 充勝州游奕軍副使, 遷定遠將軍·雍州通樂府折衝長上, 遷明威將軍·本衛左郎將, 充東受降城副使。秣馬利兵, 匈奴不敢南望。”
- 149) 「李全禮墓誌」, 『全唐文補遺』第八輯, 60위쪽, “開元廿一年, 敕簡充橫海軍副使。領兵三千, 燕山橫截。陳武事, 布軍容, 鼓角雷震, 旌旗慧雲。匈奴退散, 無傷一人。”
- 150) 「裴仙先墓誌」, 『全唐文補遺』第八輯, 44아래쪽, “時西戎爲大, 疑我與匈奴連和, 詔擇信臣武士可死絕國者, 於是公爲舉首, 召見前殿。”
- 151) 「故九姓突厥契苾李中郎贈右領軍衛大將軍墓誌文」, 『全唐文新編』22, 15199쪽,

〈표 3〉을 보면 34개의 표기 사례 가운데 돌궐의 실명을 기록한 예는 5개, 흉노·힘윤 등 별칭을 사용한 예는 29개다. 즉, 실명은 14.7%, 별칭은 85.3%다. 이는 고구려 국호의 실명 표기 3.8%보다 높지만, 돌궐 표기 역시 실명보다 별칭을 주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돌궐의 본적 혹은 출신 표기에서도 돌궐의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필자의 연구와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¹⁵⁹⁾ 아마도 당대 중국인들은 돌궐도 고구려처럼 기피하였기 때문에 실명보다 별칭을 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 돌궐과 흉노의 친연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북조시대의 사서이

- “大唐故九姓突厥贈右領軍衛大將軍李中郎者，西北蕃突厥渠帥之子也。”
- 152) 「高遠望墓誌」, 『全唐文補遺』 第八輯, 48위쪽, “突厥與契丹都督□□于迷心未啓, 莫晤傾巢.”
- 153) 「張去逸墓誌」, 『唐代墓誌彙編』 天寶126, 1621쪽, “上巡五陵後二歲, 遷金吾將軍. 明年, 詔擇使匈奴者, 以公爲專對之選, 俾膺是行, 仍賜紫金魚袋, 以極絳冕之寵飾也.”; 「張去逸墓誌」, 『全唐文補遺』 第三輯(吳鋼 主編, 西安: 三秦出版社, 1996), 82아래쪽, “上巡五陵後二歲, 遷金吾將軍. 明年, 詔擇使匈奴者, 以公爲專對之選, 俾膺是行.”
- 154) 「張去逸墓誌」, 『唐代墓誌彙編』 天寶126, 1621쪽, “上巡五陵後二歲, 遷金吾將軍. 明年, 詔擇使匈奴者, 以公爲專對之選, 俾膺是行, 仍賜紫金魚袋, 以極絳冕之寵飾也.”; 「張去逸墓誌」, 『全唐文補遺』 第三輯(吳鋼 主編, 西安: 三秦出版社, 1996), 82아래쪽, “上巡五陵後二歲, 遷金吾將軍. 明年, 詔擇使匈奴者, 以公爲專對之選, 俾膺是行.”
- 155) 「寇洋墓誌」, 『全唐文補遺』 第一輯, 173위쪽, “尋轉涇州司馬, 累充朔方軍節度判官, 元帥戶部尙書王峻·兵部尙書蕭嵩, 悉以金革之事, 咨於幕下. 乃北逐獯虜, 勒銘於牛頭山, 雖燕然紀功, 不是過也. 仍兼東受降城使, 匈奴懾焉.”; 「寇洋墓誌」, 『唐代墓誌彙編』, 天寶136, 1627쪽
- 156) 「崔湛墓誌」, 『全唐文補遺』 第二輯, 24위쪽, “及御史大夫張南陽公, 北平山戎, 東清遼海; 百戰全勝, 二蕃授首. 公預入幕, 帝嘉乃勳, 超授同州大亭府折衝·兼河北節度經略副使, 賞緋魚袋, 授上柱國.”
- 157) 「郭英奇墓誌」, 『全唐文補遺』 第六輯, 84위쪽, “俄以破吐蕃新城之功, 除右金吾翊府中郎將, 賜紫金魚袋. [...] 天寶初, 奉制充朔方軍討擊副使, 仍兼十將. 其年秋, 領朔方戰士於河東破奚, 改授左內率. 三載, 又以破突厥斬啜餘燼之功, 轉右司禦率.”
- 158) 「衛思九墓誌」, 『全唐文補遺』 第八輯, 405아래쪽, “天寶中, 北胡□夏, 毒虐烝民. 公星言執軌, 以平爰□. □□□□, 凱捷連仍.”
- 159) 崔珍烈, 2009, 앞의 논문, 220~225쪽

지만 당초에 편찬된 『주서』와 『북사』 「돌궐전」에는 돌궐을 흉노의 별종이라고 기록하였다.¹⁶⁰⁾ 별종의 뜻은 명확하지 않지만, 가장 좁게 해석해도 몽골고원을 지배했던 흉노제국에 복속된 집단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돌궐은 흉노가 지배했던 몽골고원을 지배했고, 오히려 흉노보다 넓은 북아시아 초원 지역을 지배하였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유목국가 역사의 연속성을 존중하여 통일된 유목국가의 일원으로 돌궐을 흉노와 동일시했을 것이다. 혹은 두 나라가 지배했던 지역이 몽골고원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속지주의’에 따라서 흉노를 돌궐의 별칭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2_ 기타 주변국의 國名 표기

이 절에서는 고구려와 돌궐 이외의 국가에 대한 실명 혹은 별칭 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구려와 돌궐을 제외한 나라의 국명 표기 자료는 그 수가 적기 때문에 통계적인 의미는 없음을 미리 밝힌다.

〈표 4〉 高句麗와 突厥 이외의 국가 실명과 別稱 표기

국가	墓誌銘	해당 국명 지칭 용어	활동 연대	墓主 사망 연대	해당 국명 실명 여부
吐蕃	陽玄基墓 ¹⁶¹⁾	吐蕃		長安 3년(703)	○
	李秀墓誌 ¹⁶²⁾	吐蕃		天寶元年(742)	○
	裴仙先墓誌 ¹⁶³⁾	西戎		天寶 2년(743)	×
	郭英奇墓誌 ¹⁶⁴⁾	吐蕃		天寶 13년(754)	○
	郭英奇墓誌 ¹⁶⁵⁾	犬戎	開元 6년(718)	天寶 13년(754)	×
	曹景林墓誌 ¹⁶⁶⁾	羌戎	토번의 침입	建中 3년(782)	×
契丹	陽玄基墓誌 ¹⁶⁷⁾	契丹	顯慶 3년(658)	長安 3년(703)	○

160) 『周書』卷50 「異域下·突厥傳」, 907쪽, “突厥者, 蓋匈奴之別種, 姓阿史那氏, 別爲部落.”; 『北史』卷99 「突厥傳」, 3285쪽, “突厥者, 其先居西海之右, 獨爲部落, 蓋匈奴之別種也, 姓阿史那氏.”

	高遠望墓誌 ¹⁶⁸⁾	契丹		天寶 4載(745)	○
	阿史那忠 ¹⁶⁹⁾	契丹 黃龍	顯慶 5년(660)	上元 2년(761)	○
奚	郭英奇墓誌 ¹⁷⁰⁾	奚	天寶년간	天寶 13년(754)	○
소그드	慕容曦光墓誌 ¹⁷¹⁾	兇胡 胡賊	開元 9년(721)	載初元年(690)	×
高昌	韓邏墓誌 ¹⁷²⁾	戎國		永徽 5년(654)	○
百濟	楊思訥墓誌 ¹⁷³⁾	帶方	永徽년간 이전	龍朔 3년(663)	×
	難元慶墓誌	遼 ¹⁷⁴⁾			×
		遼陽 三韓 ¹⁷⁵⁾		開元 2년(714)	×

- 161) 「陽玄墓誌」, 『全唐文補遺』 第八輯, 330아래쪽, “俄授左衛翊府右郎將, 於鄴城鎮守, 頻破吐蕃賊.”
- 162) 「李秀墓誌」, 『全唐文補遺』 第八輯, 39위쪽, “今吐蕃之勝者有五, 我之長子惟一.”
- 163) 「裴仙先墓誌」, 『全唐文補遺』 第八輯, 44아래쪽, “時西戎爲大, 疑我與匈奴連和, 詔擇信臣武士可死絕國者, 於是公爲舉首, 召見前殿.”
- 164) 「郭英奇墓誌」, 『全唐文補遺』 第六輯, 84위쪽, “俄以破吐蕃新城之功, 除右金吾翊府中郎將, 賜紫金魚袋. …… 天寶初, 奉制充朔方軍討擊副使, 仍兼十將. 其年秋, 領朔方戰士於河東破奚, 改授左內率. 三載, 又以破突厥斬啖餘燼之功, 轉右司禦率.”
- 165) 「郭英奇墓誌」, 『全唐文補遺』 第六輯, 83아래쪽, “開元六年, 犬戎入寇, 先父君時爲河西節使, 率衆禦敵.”
- 166) 「曹景林墓誌」, 『全唐文補遺』 第一輯, 213위쪽, “廣德中, 羌戎寇甸, 從狩於陝, 以勞拜本軍大將軍.”
- 167) 「陽玄墓誌」, 『全唐文補遺』 第八輯, 330위쪽, “唐顯慶三年, 從薛仁貴平契丹. 龍朔元年, 隨契必何力破鴨綠, 授游擊將軍·左驍衛善信府果毅. 總章元年, 授鹿陵府長上折衝, 仍檢校東柵州都督府長史. 誅反首領高定問等, 封定陽郡公, 食邑二千戶.”
- 168) 「高遠望墓誌」, 『全唐文補遺』 第八輯, 48위쪽, “突厥與契丹都督□□于迷心未啓, 莫晤傾巢.”
- 169) 「阿史那忠碑」, 『全唐文新編』 20, 13683쪽, “顯慶五年, 詔爲使持節長岑道行軍大總管, 辰韓倭擾, 從旆除殘, 契丹縱毒, 廻戈拯亂, 剽元菟之游魂, 覆黃龍之□.”

〈표 4〉에서는 표본이 적어서 국명의 실명과 별칭 비중에 통계적·확률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吐蕃은 실명과 별칭이 각각 3개씩이었고, 吐蕃은 4개 가운데 3개가 실명이었다. 반면 소그드·고창·백제·신라는 실명이 아닌 별칭으로 표기되었다.

먼저 토번의 예를 살펴보자. 「郭英奇墓誌」에 따르면 開元 6년(718)에 犬戎이 당을 침입하였다. 이때 郭英奇는 河西節度使에 임명되어 적들을 막았다.¹⁷⁶⁾ 하서절도사는 토번의 방어를 담당하였으므로, 「곽영기묘지」에 기록된 ‘견융’은 토번임을 알 수 있다. 杜佑는

秦은 좁은 關中만으로도 여섯 개의 疆國을 멸망시켰는데도 지금 [당조에서는] 천하의 재물을 고갈시켜가며 京師에 올려 바쳐도 밖으로 犬戎에게 능욕을 당해 성채 수백 곳을 함락당했고, 안으로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그치지 않은 지 벌써 36년이나 되었다.¹⁷⁷⁾

- 170) 「郭英奇墓誌」, 『全唐文補遺』 第六輯, 84위쪽, “俄以破吐蕃新城之功, 除右金吾翊府中郎將, 賜紫金魚袋. [...] 天寶初, 奉制充朔方軍討擊副使, 仍兼十將. 其年秋, 領朔方戰士於河東破奚, 改授左內率. 三載, 又以破突厥斬啜餘燼之功, 轉右司禦率.”
- 171) 「慕容曦光墓誌」, 『全唐文新編』 22, 15148쪽, “去開九年, 六州叛, 復領所部兵馬, 摧破兇胡. 至其年二月十四日, 加授左威衛翊府中郎將. 至開十年, 胡賊再叛, 立功授左威衛將軍, 以功高賞輕, 尋加冠軍大將軍·行左金吾衛將軍.”
- 172) 「韓邏墓誌」, 『全唐文補遺』 第二輯, 126위쪽, “是以西征戎國, 席卷高昌, 東伐島夷, 驂駕遼右.”
- 173) 「楊思訥墓誌」, 『全唐文補遺』 第七輯, 268아래쪽, “于時辰垵逆命, 帶方肆毒, 天駟東臨, 神鑣西引. [...] 永徽初, 除紀王府錄事參軍.”
- 174) 「難元慶墓誌」, 『全唐文補遺』 第六輯, 420아래쪽-421아래쪽, “□祖玘, 仕遼任達率官, 亦猶今宗正卿焉.”
- 175) 「難元慶墓誌」, 『全唐文補遺』 第六輯, 421아래쪽, “其一: 達率騰華, 遼陽鼎貴. [...] 其二: 氣蓋千古, 譽重三韓.”
- 176) 「郭英奇墓誌」, 『全唐文補遺』 第六輯, 83아래쪽, “開元六年, 犬戎入寇, 先父君時爲河西節使, 率衆禦敵.”
- 177) 『新唐書』 卷215上 「突厥傳」上, 6025쪽, “杜佑謂: 「秦以區區關中滅六疆國, 今竭萬方之財, 上奉京師, 外有犬戎憑陵, 陷城數百, 內有兵革未寧, 三紀矣. ……」”

라고 하여 당시 토번이 당의 서쪽 변경을 잠식했던 현상을 한탄하였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토번을 ‘견융’이라고 표기하였다.

「裴仙先墓誌」에서도 “당시 서융이 강대하여 我와 흉노의 連和를 의심하였다.”¹⁷⁸⁾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해의 외교 상황을 반영하는지 알 수 없어 흉노는 돌궐이나 위구르 두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의 별칭으로 보이지만, 당시 강대했던 서융은 토번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 曹景林은 廣德년간(763~764)에 羌戎이 침입하자 陝州로 扈從하여 左武衛大將軍에 임명되었다. 廣德은 代宗의 연호이므로 당시에 長安을 점령하여 대종에게 섬주로 피신하게 한 강융은 토번밖에 없었다. 이상의 예에서 토번은 ‘견융’, ‘서융’, ‘강융’의 별칭으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토번의 실명으로 표기한 예도 3개나 있다.¹⁷⁹⁾

거란은 모두 실명으로 표기되었다. 「陽玄基墓誌」에 따르면 陽玄基는 顯慶 3년(658)에 薛仁貴 휘하에서 중군하여 거란을 평정하였다.¹⁸⁰⁾ 여기에서 거란을 별칭이 아닌 실명으로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阿史那忠碑」에서도

顯慶 5년(660), 조서를 내려 공을 使持節 長岑道行軍大總管으로 임명하였다. 辰韓이 움직여 소요를 일으키니 군대를 따라서 흉악한 적을 제거하고, 契丹이 잔학하여 戈를 돌려 난을 평정하여 元菟의 游魂을 제거하고, 黃龍의 □를 덮었다.¹⁸¹⁾

178) 「裴仙先墓誌」, 『全唐文補遺』 第八輯, 44아래쪽, “時西戎爲大, 疑我與匈奴連和, 詔擇信臣武士可死絕國者, 於是公爲舉首, 召見前殿.”

179) 「李秀墓誌」, 『全唐文補遺』 第八輯, 39위쪽, “今吐蕃之勝者有五, 我之長子惟一.”; 「陽玄基墓誌」, 『全唐文補遺』 第八輯, 330아래쪽, “俄授左衛翊府右郎將, 於鄯城鎮守, 頻破吐蕃賊.”; 「郭英奇墓誌」, 『全唐文補遺』 第六輯, 84위쪽, “俄以破吐蕃新城之功, 除右金吾翊府中郎將, 賜紫金魚袋, [...] 天寶初, 奉制充朔方軍討擊副使, 仍兼十將. 其年秋, 領朔方戰士於河東破奚, 改授左內率. 三載, 又以破突厥斬啜餘燼之功, 轉右司禦率.”

180) 「陽玄基墓誌」, 『全唐文補遺』 第八輯, 330위쪽, “唐顯慶三年, 從薛仁貴平契丹.”

181) 「阿史那忠碑」, 『全唐文新編』 20, 13683쪽, “顯慶五年, 詔爲使持節長岑道行

라고 하여 진한과 元菟는 고구려를 지칭한다. 따라서 위의 인용문에서 고구려는 별칭으로 표기하였고, 거란은 실명과 함께 ‘황룡’이라는 별칭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황룡은 당시 거란이 지배하던 지역, 혹은 이와 가까운 영주의 옛 지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란을 지칭하거나 변경 지역을 지칭한 것으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구로 보면 거란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 또 「高遠望墓誌」에서는 契丹都督이라는 관명이 보인다.¹⁸²⁾

거란과 이웃한 奚 역시 실명으로 표기되었다. 「곽영기묘지」에는

天寶初에 制를 받들어 朔方軍討擊副使에 充임되었고 여전히 十將을 겸하였다. 그해 가을에 朔方의 戰士를 거느리고 河東에서 奚를 破하고 左內率로 改授되었다.¹⁸³⁾

라고 하여 奚가 실명으로 등장하였다. 奚人의 본적에 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실명으로 기록했다는 점은 토번·거란의 상황과 비슷하다.

반면 백제에 대한 기록에서는 백제의 실명이 아닌 별칭을 사용하였다. 백제유민 難元慶의 墓誌銘에는 그의 선조를 “□祖玗는 遼에 벼슬하여 達率官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지금 [唐]의 宗正卿과 같다.”¹⁸⁴⁾라고 기록하였다. 또 “其一: 達率은 華[唐을 지칭]에 올랐으며, 遼陽의 鼎貴였다. [...] 其二: 氣는 千古를 덮었고, 譽는 삼한에 떨쳤다.”¹⁸⁵⁾ 라고 하여 백제를 요양과 삼한으로 표기하였

軍大總管, 辰韓倣擾, 從旆除殘, 契丹縱毒, 廻戈拯亂, 剽元菟之游魂, 覆黃龍之□.”

182) 「高遠望墓誌」, 『全唐文補遺』 第八輯, 48위쪽, “突厥與契丹都督□□于迷心未啓, 莫晤傾巢.”

183) 「郭英奇墓誌」, 『全唐文補遺』 第六輯, 84위쪽, “天寶初, 奉制充朔方軍討擊副使, 仍兼十將, 其年秋, 領朔方戰士於河東破奚, 改授左內率.”

184) 「難元慶墓誌」, 『全唐文補遺』 第六輯, 420아래쪽-421아래쪽, “□祖玗, 仕遼任達率官, 亦猶今宗正卿焉.”

185) 「難元慶墓誌」, 『全唐文補遺』 第六輯, 421아래쪽, “其一: 達率騰華, 遼陽鼎貴,

다. 「楊思訥墓誌」에서도 ‘帶方이 肆毒하여’¹⁸⁶⁾라고 하여 백제 대신 ‘대방’을 사용하였다. 대방은 남북조시대부터 중국 왕조가 백제왕에게 수여하는 군공 혹은 군왕 칭호에 사용하는 군현명이기도 했다.¹⁸⁷⁾

이는 고창과 소그드 등 중앙아시아 諸國에도 해당된다. 「韓邏墓誌」에는

이로써 戎國을 西征하여 高昌을 席卷하였으며, 島夷를 東伐하여 遼右로 車馬를 몰았다.¹⁸⁸⁾

라고 기록되었다. 앞 구절에서 戎國은 뒷부분에 고창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고창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島夷와 遼右는 고구려를 지칭하였다. 「慕容曦光墓誌」에서도

開元 9년(721)에 六州가 叛하자 다시 휘하의 兵馬를 거느리고 兪胡를 격파하였다. 그해 二月 十四日에 이르러 左威衛翊府中郎將에 加授되었다. 開元 10년(722)에 胡賊이 다시 叛하자 功을 세워 左威衛將軍에 授수되었고 功이 높고 賞이 가벼웠기 때문에 冠軍大將軍 行左金吾衛將軍이 더해졌다.¹⁸⁹⁾

라고 하였다. 『구당서』에는 개원 9년 夏四月 庚寅日에 蘭池州 叛胡 康待賓과 安慕容 등이 六胡州를 공격했던 기록이 있다.¹⁹⁰⁾ 「慕容曦光墓誌」와 『구당서』

…… 其二：氣蓋千古，譽重三韓。”

186) 「楊思訥墓誌」, 『全唐文補遺』 第七輯, 268아래쪽, “于時辰 坤逆命, 帶方肆毒, 天駟東臨, 神鑣西引. [...] 永徽初, 除紀王府錄事參軍.”

187) 崔珍烈, 2008, 앞의 논문, 83~88쪽

188) 「韓邏墓誌」, 『全唐文補遺』 第二輯, 126위쪽, “是以西征戎國, 席卷高昌, 東伐島夷, 驂駕遼右.”

189) 「慕容曦光墓誌」, 『全唐文新編』 22, 15148쪽, “去開九年, 六州叛, 復領所部兵馬, 摧破兪胡. 至其年二月十四日, 加授左威衛翊府中郎將. 至開十年, 胡賊再叛, 立功授左威衛將軍, 以功高賞輕, 尋加冠軍大將軍·行左金吾衛將軍.”

190) 『舊唐書』 卷8 「玄宗紀」 開元九年夏四月庚寅條, 182쪽, “夏四月庚寅, 蘭池州叛胡顯首僞稱葉護康待賓·安慕容, 爲多覽殺大將軍何黑奴, 僞將軍石神奴·康鐵頭等, 據長泉縣, 攻陷六胡州. 兵部尚書王晙發隴右諸軍及河東九姓掩討之.”

의 구체적인 사건 발생 시점이 다르지만, 개원 9년에 육호주에서 소요가 발생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육호주에는 주로 소그드인들이 거주했고¹⁹¹⁾ 『구당서』 「현종기」의 기록에서도 강대빈과 안모용의 성 ‘강’과 ‘안’은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국가인 康國과 安國에서 따왔기 때문에 인용문의 𑖀胡와 胡賊은 소그드인으로 볼 수 있다.

백제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 출신 인물들의 본적 표기는 대부분 자국의 실명을 사용하였다.¹⁹²⁾ 따라서 사건사를 서술할 때 국명이 아닌 별칭을 사용한 것은 본적 표기원칙과 달랐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토변과 거란,奚 등을 제외하면 관련 국가에 대한 기록에서 국명은 실명이 아닌 별칭으로 표기되었다. 이는 당대 중국인의 이민족 본적 혹은 출신 표기에는 국가의 실명을 사용한 국가와 별칭을 사용한 국가의 구별이 있었지만, 사건사의 서술에서는 이러한 금기 사항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V. 맺음말

본문에서는 唐代의 사서와 묘지명의 고구려 표기를 살펴보았다. 당대에 편찬된 『수서』와 당대를 다룬 『구당서』·『신당서』·『당회요』의 고구려 표기를 살펴보면, 고구려의 실제 국호를 언급한 사례는 『구당서』와 『신당서』에 각각 36개와 19개였다. 양자를 합하면 55개로 전체의 33.7%다. 반면 “요(遼)를 정벌한다”는 뜻을 지닌 “伐遼”, “征遼”, “요동을 정벌한다”라는 뜻을 지닌 “伐遼東”, “伐遼左”, “征遼東” 등 고구려를 “요”, “요동” 등 다른 별칭으로 표기한 기록은

191) 六胡州의 種族 구성과 기능은 朴漢濟, 2009, 「唐代 六胡州 州城의 建置와 그 運用—“降戶”安置와 役使의 一類型」, 『中國學報』 59, 187~223쪽 참조.

192) 崔珍烈, 2009, 앞의 논문, 220~227쪽

모두 107개, 65.6%다.

당대 묘지명에서 고구려에 대한 표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삼한(18회), 九種(9회), 玄菟(7회), 遼(5회), 동이(4회), 遼碣·朝鮮·鳥夷·辰韓(3회), 白狼·요양·요좌(2회), 계루·九夷·낙랑·鳥夷·玄夷·마한·小貊·鴨綠·예맥·朱蒙之緒·靑丘·五部·遼川·遼海(1회) 등 다양한 별칭이 사용되었고 고구려의 당대 표기인 '고려'는 단 세 차례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돌궐을 匈奴·獫狁·葷戎·獯戎·山戎 등으로 표기한 것과 일치한다. 고구려와 돌궐은 망국이었기 때문에 실명보다 별칭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의 고창이 실명으로 표기되었고, 唐에 복속된 거란과 奚도 실명 표기가 보인다는 점에서 망국이어서 별칭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구려를 지칭하는 단어가 다른 국가의 별칭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표현이 묘지명에 사용되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유형별로 보면 예맥·소맥·계루·오부처럼 고구려를 연상시키는 단어도 있지만, 동이·도이·조이·현이·구이처럼 동방의 이민족을 지칭하거나 낙랑·현도·백랑·요·요갈·요양·요좌·요천·요해 등 전한 이래의 군현명이나 각종 지명을 사용한 예가 많았다. 전자는 동방 이민족에 대한 멸칭이고 후자는 고구려 영토가 중국의 옛 군현이었음을 상기시키는 표현인 것 같다. 반면 고구려를 삼한·마한·진한·조선 등으로 칭한 것은 당대 중국인들이 고구려가 한국 고대 여러 나라와 역사적 친연성 혹은 연속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고구려 유민에 대한 본적 표기 원칙¹⁹³⁾과 일치한다. 즉, 당대 조정과 지배층 사회에서 고구려가 고대 한국의 여러 나라와 역사적·문화적 친연성 혹은 계승관계에 있음을 인정했음은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편찬 혹은 제작 시기로 보면, 당대에 편찬된 『수서』와 묘지명에 고구려의 실명이 아닌 각종 별칭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대에 고구려의 본래 국호보다 별칭으로 칭하는 관행이 보편화되었음을 뜻한다. 또 이러한 경향은 당대의 자료를 바탕으로 오대와 송대에 편찬된 『구당

193) 崔珍烈, 2009, 위의 논문, 209~255쪽

서, 『신당서』, 『당회요』의 고구려 표기에도 계승되었다. 즉, 고구려의 실명보다 별칭을 사용하는 관례는 당대에 이미 시작되었고 송대까지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1. 사료

- 『舊唐書』(劉昫等撰, 1975, 中華書局)
- 『唐代墓誌彙編』(周紹良主編, 199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唐代墓誌彙編續集』(周紹良·趙超主編, 200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史記』(司馬遷撰, 1982, 中華書局)
- 『宋書』(沈約撰, 1974, 中華書局)
- 『新唐書』(歐陽修·宋祁撰, 1975, 中華書局)
- 『魏書』(魏收撰, 1974, 中華書局)
- 『全唐文新編』 20(周紹良主編, 2000,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 『全唐文新編』 21(周紹良主編, 2000,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 『全唐文新編』 22(周紹良主編, 2000,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 『全唐文補遺』 第一輯(吳鋼主編, 1994, 西安: 三秦出版社)
- 『全唐文補遺』 第二輯(吳鋼主編, 1995, 西安: 三秦出版社)
- 『全唐文補遺』 第四輯(吳鋼主編, 1997, 西安: 三秦出版社)
- 『全唐文補遺』 第五輯(吳鋼主編, 1998, 西安: 三秦出版社)
- 『全唐文補遺』 第六輯(吳鋼主編, 1999, 西安: 三秦出版社)
- 『全唐文補遺』 第七輯(吳鋼主編, 2000, 西安: 三秦出版社)
- 『全唐文補遺』 第八輯(吳鋼主編, 2005, 西安: 三秦出版社)
- 『周書』(令狐德棻等撰, 1971, 中華書局)
- 『後漢書』(范曄撰, 1965, 中華書局)
- 고구려연구재단 編, 2004, 『중국 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 서울: 고구려연구재단
-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譯注韓國古代金石文』 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2. 연구서

이성재, 2005,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 국학자료원

3. 연구논문

김지영, 2011, 「7세기 중반 거란의 동향 변화와 고구려-660년 거란의 이반을 기점으로

- 로」, 『만주연구』 12
- 盧泰敦, 1981, 「高句麗 遺民史 研究 - 遼東·唐內地 및 突厥方面의 集團을 중심으로」, 『韓洵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 盧泰敦, 1982,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 『한국사연구』 38
- 모리야스 다카오, 2006, 「당대 불교적 세계지리와 ‘호’의 실태」, 중앙아시아학회 엮음, 『실크로드의 삶과 종교』, 사계절출판사
- 朴漢濟, 2009, 「唐代 六胡州 州城의 建置와 그 運用 - “降戶”安置와 役使의 一類型」, 『中國學報』 59
- 宋基豪, 1998, 「고구려 유민 高玄 墓誌銘」, 『서울大學校 博物館 年報』 10
- 宋基豪, 2007, 「고구려 유민 高氏夫人 墓誌銘」, 『韓國史論』 53
- 尹龍九, 2003, 「중국출토의 韓國古代 遺民資料 몇 가지」, 『한국고대사연구』 32
- 李文基, 2001, 「高句麗 遺民 高足酉 墓誌의 檢討」, 『歷史教育論集』 26, 역사교육학회
- 李文基, 2002, 「高句麗 寶藏王의 曾孫女 「高氏夫人墓誌」의 檢討」, 『歷史教育論集』 29
- 이재성, 2011, 「麗唐戰爭과 契丹·奚」, 『中國古中世史研究』 26
- 崔珍烈, 2008, 「東晉·南北朝~唐代 주변국 冊封 封號의 地名 분석 - 韓國古代 三國 君主들의 冊封 郡王/郡公 칭호의 이해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197
- 崔珍烈, 2009, 「唐人들이 인정한 高句麗人의 正體性 - 唐代 墓誌銘에 보이는 高句麗의 別稱(朝鮮·三韓·扶餘) 分析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4
- 姜清波, 2005, 4,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博士學位論文
- 仇鹿鳴, 2008, 「“攀附先世”與“僞冒士籍” - 以渤海高氏爲中心的研究」, 『歷史研究』 2008-2
- 馬一虹, 2006, 「從唐墓志看入唐高句麗遺民歸屬意識的變化 - 以高句麗末代王孫高震一族及權勢貴族爲中心」, 『北方文物』 2006-1(總第85期)
- 趙海麗, 2011, 「北魏門閥婚姻制之代表家族 - 冀州長樂信都馮氏與北魏皇室及顯族 聯姻關係探論」, 『理論學刊』 2011-6(總第208期)

[ABSTRACT]

The Trend of Naming Koguryo through Other Names in the Tang Period

Choi Jinyeoul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memorial inscriptions from the Tang Period and found avoidance of country names such as Koguryo, Turk (突厥), Baekje, and others. The Chinese officials, scholars, and intellectuals wrote the epitaphs of their own, which included the generals and colonels who participated in the invasion of Koguryo, Turk (突厥), Baekje, Kochang, and other areas. I found that there were few examples of designating Koguryo as Koguryo or as Koyo, which was the Koguryo name during the Tang Period. This name appeared in 3.8% of 79 expressions. Instead, Koguryo was expressed as Koguryo, Joseon, Samhan, Buyeo, Jinhan, Dongyi, Hyeondo, Gujong, Doyi, Baekrang, Gyeru, Guyi, Laklang, Hyeoyi, Mahan, Yemaek, Chenggu, Obu, Yocheon, Yohae, and others, or in 96.2% of the 79 examples.

This trend of naming the country through other names in the Tang Period also applied to Turk, Baekje, and the Sogdians. For example, in the memorial inscriptions in the Tang Period, Turk was expressed as Hiungno (Xiongnu), Heomyun, Hunyung, and Hunro. Baekje was expressed as Yo, Yoyang, and Samhan. But Tibet (Tobean), Georan (Qitai), and Hai were called by their own names, and other names and the country name appeared frequently.

The trend to latter, Koguryo by other names was due to the Chinese

avoidance and hatred of Koguryo, which had defeated Chinese dynasties, such as Sui and T'ang, in the sixth and seventh centuries. And the Chinese acknowledged Koguryo and considered Koguryo, Chosun, Samhan, Buyo, Jinhan as the same country which had the history.

Keywords

Koguryo, other names for Koguryo, Joseon, Samhan, Buyo, Jinhan, Dongyi, Hyeondo, Gujong, Doyi, Turk, Hiungno (Xiongnu)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선 세조대 ‘女眞 和解事’에 대한 연구

- 申叔舟의 파견을 중심으로 -

한성주 | 강원대학교 사학과 강사

I. 머리말

麗末鮮初 동북면 및 두만강 지역의 여진인들은 조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조선에서는 건국 후에 동북면을 조선의 행정구역으로 재편하려 하였다. 따라서 동북면에 거주하던 여진인들은 점차 조선에 동화되어 편호가 되어 갔으며, 압록강 및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던 여진인들은 조선에 내조하면서 조선과의 관계를 이어 갔다. 그런데 올랑합·알타리·올적합의 여진 종족은 반목과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여진 종족 간의 반목과 투쟁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元明交替期에 알타리와 올랑합이 올적합의 침구를 피해 압록강·두만강까지 남하하였다. 그 후에도 올적합의 침구는 계속되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알타리의 首長 동맹가첩목아가 諸種올적합에게 피살되어 패망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¹⁾

※ 투고일: 2012년 5월 18일, 심사일: 2012년 11월 11일, 게재 확정일: 2012년 11월 23일

1) 서병국, 1971, 「童猛哥帖木兒의 建州左衛研究」, 『백산학보』 11; 김구진, 1988,

조선에서는 이들의 반목과 투쟁을 이용하여 以夷制夷하기도 하였지만 변경의 안정을 위하여 이들의 싸움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1459년(세조 5)에 이루어진 ‘女眞 和解事’다. 즉, 세조대에는 종족 간의 투쟁이 격화되어 조선에 내조한 올랑합·알타리와 올적합이 서로 조선의 구원을 청할 정도였다. 이에 조선에서는 올랑합·알타리와 올적합을 각각 구원하기보다는 申叔舟를 파견하여 이들의 반목과 투쟁을 화해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세조대 ‘여진 화해사’에 대해서는 여진인들의 반목과 투쟁을 화해시키기 위한 시도라는 다소 개론적인 접근만이 진행되어 왔고 자세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진 화해사’의 배경과 과정, 성격보다는 그 직후에 발생한 1460년(세조 6)의 소위 ‘毛憐衛 征伐’을 더 주목해 왔다.²⁾ 그러나 ‘여진 화해사’나 ‘모련위 정벌’에 비단 둘 다 신속주가 파견되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기에 발생한 조선의 여진 정책의 결과였다는 점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즉, 조선의 對여진 정책은 強穩兩面의 羈縻政策으로,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여진 화해사’와 ‘모련위 정벌’이 이러한 조선의 여진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조대 ‘여진 화해사’가 이루어진 배경과 과정, 그리고 성격에 대해 파악해 봄으로써 조선의 여진 정책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선에서는 왜 이 지역 여진인들의 분란과 투쟁을 방지하려 한 것인지, 더 나아가 ‘여진 화해사’가 실시된 주된 지역인 두만강 유역을 조선이 어떻게

『13C~17C 女眞 社會의 研究-金 滅亡 以前 淸 建國 以前까지 女眞社會의 組織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원호, 1992, 「宣德年間(1425~1435) 명과 朝鮮間의 建州女眞」, 『아세아연구』 85; 박원호, 2002, 『明初朝鮮關係史研究』, 일조각 등 참고.

2) 이인영, 1954, 「申叔舟의 北征」, 『韓國滿洲關係史의 研究』, 을유문화사; 河內良弘, 1974, 「申叔舟의 女眞出兵」, 『朝鮮學報』 71; 강성문, 1989, 「朝鮮시대 女眞征伐에 관한 연구」, 『軍史』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황선희, 2007, 『世祖 초기의 女眞關係와 北征』,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성주, 2008, 「조선 세조대 毛憐衛 征伐과 여진인의 從軍에 대하여」, 『강원사학』 22 · 23

인식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여진관계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조선시대 여진 정책의 성격을 검토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된다.

II. 여진 세력 간 투쟁과 조선의 대응

몽골족이 세운 원은 정책적으로 중국 및 요동지역에서의 민족 이동을 가급적 억제하였고, 소위 衛所제도를 창안하여 요동 각지의 여진족을 統御하면서 각기 그 소재한 지역에 安集시키려 하였다.³⁾ 그러나 元明交替期の 혼란한 상황은 요동지역 여진족의 사회·정치 상황에도 영향을 주어서 여러 여진 부족들의 이동과 분포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당시 요동지역의 여진족 이동과 분포 변화는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던 여진(토착여진)족들의 고려 동북면으로의 이동이다. 이들은 고려시대 東女眞 등으로 불리었는데, 원명교체기 納哈出 및 胡拔都의 침입을 피해 두만강 南岸 고려 동북면의 남부 해안지대로 이주한 것으로 파악된다.⁴⁾ 원명교체기 여진족 이동과 분포 변화의 두 번째 경향은 바로 올랑합·알타리·올적합의 압록강·두만강 유역으로의 남하였다. 원래 올랑합·알타리·올적합 등의 원거주지는 牧丹江과 松花江이 합류하는 지역인 三姓지방이었다.⁵⁾ 元初에 이 지역에 軍民萬戶府 다섯을 설치하여 北

3) 김구진, 1973, 「驪末鮮初 豆滿江 流域의 女眞 分布」, 『백산학보』 15, 106쪽. 명대 衛所제도 등에 관해서는 서인범, 2005, 「명대의 遼東都司와 東寧衛」, 『명청사연구』 23; 남의현, 2006, 『明代 遼東都司 支配의 限界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의현, 2008, 『명대요동지배정책연구』, 강원대학교출판부 등 참고.

4) 김구진, 1988, 앞의 논문, 37~38쪽

5) 김구진, 1973, 「呑呑會의 韓朶里 女眞에 對한 研究」, 『사충』 17·18, 87쪽

邊을 鎮撫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지역의 여진족들을 통치한 것을 알 수 있다.⁶⁾

그러나 元末이 되면 이 지역의 5만 호부 중 斡朶里·火兒阿·托溫의 3만 호 부만이 남게 되었는데, 이 3만 호부의 이름은 모두 지역 명칭이었다.⁷⁾ 이들 알타리·화아아·탁온 등이 바로 알타리(오도리)와 올랑합이다. 『고려사』나 『고려사절요』를 보면 고려 말에 이미 알타리·올랑합에 대해 宣慰하고 이들의 來朝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萬戶·千戶·百戶 등의 官職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⁸⁾ 그런데 이들의 이동이 대규모로 진행된 것은 삼성지방에 있던 3만 호부가 서북방에 살던 올적합과 부족투쟁을 하게 되면서였다.

〈記事 1〉

孟哥帖木兒가 대답하기를, “當初에 우리들이 兀狄哈과 서로 싸워서 家屬을 거느리고 떠돌아다니다가 本國에 이르렀는데, 이제 만약 京師에 가게 되면, 올적합 등이 틈을 타서 가축을 擄掠하여 원수를 갚으려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 이것으로 비추어 보면, 맹가첩목아 등은 처음에 올적합의 침략으로 인하여 자리를 피해 본국 東北面の 慶源·鏡城 땅에 이르러 居住한 것입니다.⁹⁾

〈기사 1〉은 明 永樂帝가 알타리의 首長 童孟哥帖木兒를 招撫하려고 하자 조선에서 上奏한 내용인데, 동맹가첩목아의 알타리가 올적합과의 부족투쟁의 결과 본거지를 버리고 두만강 유역의 경원·종성에 거주하게 된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명의 여진 초무에 응해 자리를 비우면 올적합이 침략하여 원수를 갚으려 한다고 하여 알타리와 올적합이 원수지간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지방에 거주하던 알타리·올랑합 등은 올적합과의 투쟁을 피해 두만강·압록강 유역으로 남하하였고, 〈기사 1〉에서 보듯 올적합 등도 두만강 유역까지

6) 『元史』 卷59, 地理志 合蘭府 水達達等路條

7) 『龍飛御天歌』 권7, 제53장

8) 『고려사』 세가 권46, 공양왕 3년 9월 병오; 공양왕 4년 2월 정축; 3월 경사

9) 『태종실록』 권9, 5년 5월 경술

이동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조선 초기 두만강 유역의 여진 분포를 보면 5진을 올랑합·알타리와 올적합이 둘러싸고 있고, 그 위를 다시 올적합이 폭 넓게 둘러싸는 형세였다. 올적합은 骨看·忽刺溫·嫌鎭·尼麻車·都骨·南訥·巨節·弓乙未車 등 여러 종족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그중 골간올적합이 慶興 주위에 살면서 조선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 흘러온올적합은 建州女眞의 알타리·올랑합과 경쟁하면서 요동지역으로 진출하여 馬市를 통하여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海西女眞의 주류를 이루었다.¹⁰⁾

〈기사 1〉에서 보듯 삼성지역에 거주하던 여진 세력들이 두만강 유역으로 남하하였지만, 올적합의 침입을 지속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알타리와 올랑합은 서로 경쟁하기도 하였지만¹¹⁾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였고, 알타리·올랑합과 올적합은 대립과 투쟁을 반복하여 왔다. 그중 알타리와 올적합의 반목과 투쟁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알타리 수장 동맹가첩목아의 패망이었다. 楊木拑兀이 開原에서 人口를 사로잡아가자 명과 동맹가첩목아는 이들을 송환하라고 압박하였고, 결국 양목답울은 올적합의 여러 세력을 끌어들이 명의 使臣과 동맹가첩목아를 공격하였던 것이다.¹²⁾ 이때 동맹가첩목아뿐만 아니라 남자는 모두 살해되고, 婦女子들도 모두 搶奪되어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잡혀갔다 도망 온 인구가 354명에 달하였다.¹³⁾

동맹가첩목아의 패망 후에도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알타리·올랑합對 올적합의 투쟁과 반목은 계속되었다. 1435년(세종 17)에는 具州의 嫌鎭兀狄哈 4백여 인이 韓梁里에 침략하여 14戶를 불사르고, 壯男女 86명, 弱男女 63명과 牛馬 445필을 사로잡아 갔다.¹⁴⁾ 다음해인 1436년(세종 18)에도 忽刺溫

10) 김구진, 1988, 앞의 논문, 58쪽

11) 올랑합과 오도리가 고려에 내조해서 서로 우두머리 자리를 다투기도 한 것을 보면, 서로 경쟁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고려사』 권46, 공양왕 4년 2월 정축; 『태조실록』 권1, 총서

12) 서병국, 1971, 앞의 논문, 88~89쪽; 김구진, 1973, 앞의 논문, 117~120쪽; 박원호, 1992, 앞의 논문, 156~157쪽

13) 『세종실록』 권62, 15년 11월 을사

14) 『세종실록』 권70, 17년 11월 정해

兀狄哈이 會寧에 침입하여 男女와 馬를 노략하였지만, 조선군과 알타리가 추격하여 사로잡힌 사람들과 말을 빼앗아 돌아오기도 하였다.¹⁵⁾ 알타리는 올적합이 침략하여 오는 것 때문에 안심하여 살 수 없고 生業조차 누릴 수 없었다.¹⁶⁾ 또 서로 침략을 반복하여 가축과 사람을 노략하고, 손해를 본 자가 반드시 보복을 하여 빼앗긴 수효만큼 찾아간 뒤에야 그치는 상황이었다.¹⁷⁾ 올랑합은 小巨節올적합과 서로 다투면서 보복하는 중이었고, 알타리는 남닐·거절·임아거올적합과 원수가 되어 그 고기를 먹고자 할 정도였다.¹⁸⁾

제종올적합의 알타리 침탈은 결국 사람과 우마를 빼앗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진 사회의 농경화와 관련이 깊다. 요동의 여진인들은 15세기가 되면 초기농경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고, 농경을 위한 노예와 우마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보다 북쪽에 있던 올적합의 경우에는 농경기술이 알타리·올랑합보다 뒤떨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약탈하여 포로로 잡아갔던 것이다. 그런데 올적합은 자신들의 경제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자 알타리뿐만 아니라 조선을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1436년(세종 18) 慶源 침구인데, 침입한 올적합의 수가 3천여 명이었으며, 3백여 구의 사람과 가축을 죽이거나 사로잡아간 것으로 되어 있다.¹⁹⁾ 즉, 올적합은 비단 알타리와 올랑합을 침략할 뿐 아니라 조선 변경에도 해마다 침입하여 인물을 죽이고 노략하고 있었다.²⁰⁾

한편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알타리 등은 올적합의 계속된 공격을 피해 자신들의 거주지를 이동하려 하였으며, 올적합과 和解하기를 원하였고, 이것은 올적합도 마찬가지였다. 알타리·올랑합은 지속적으로 올적합과 옛 원한을 풀고 화해하여 화친하고자 하였는데, 올적합이 알타리에게 화친할 것을 강요하고 있고, 알타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화친을 원하고 있었다.²¹⁾ 또한 동맹가침목아

15) 『세종실록』 권74, 18년 9월 기해

16) 『세종실록』 권95, 24년 2월 임진

17) 『세종실록』 권88, 22년 2월 계미

18) 위와 같음.

19) 『세종실록』 권75, 18년 10월 을축; 갑술; 권76, 19년 2월 갑신; 권77, 19년 5월 기유

20) 『세종실록』 권88, 22년 2월 계미

21) 『세종실록』 권95, 24년 1월 무인

의 이복동생 범찰이 중심이 되어 알타리·올랑합과 올적합이 화친을 맺고, 더 나아가 함께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침입한 다음, 거주지를 이동할 것을 계획하기도 하였다.²²⁾ 조선은 이에 대해 '근처 야인들이 올적합을 유인해 방하지 살해하여 우리로 하여금 4진을 영구히 세우지 못하게 함이 명백하다'고 하여 이들의 화친과 조선 침입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다.²³⁾

화친의 구체적인 방법도 나타나고 있는데, 3일 路程을 나와서 한가운데 있는 들에 모여 양편이 모두 군사를 배치한 후에 서로 대치하고 중간에 연락하는 사람[牙保]를 시켜 友好를 맺자는 말을 전하는 것이었다.²⁴⁾ 그러나 화친을 맺을 때 조선의 허락을 구하거나 군병을 빌리려고도 하였다.²⁵⁾ 동맹가침목아의 아들 동창과 범찰이 조선을 배반하고 건주위 이만주에게로 합세한 뒤, 남아 있는 알타리 遺種들은 1백여 호가 넘었으며,²⁶⁾ 이들은 더욱 조선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동창과 범찰의 이주로 세력이 약해진 알타리로서는 올적합과 화친을 하는 것도 조선의 도움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당시 조선에서는 새로 설치된 6진 방어를 위해 이 지역 여진 세력들을 보호하고 안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여진의 이동을 억제하면서 울타리인 변리로 만드는 '여진 변리화 정책'으로 나타났고, 여진 변리를 구축한 이후 변리를 공고히 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전개되었다.²⁷⁾ 또한 세종은 귀화한 마변자를 보내어 제종올적합을 招撫하여 이들의 침입을 막고자 하였고, 함길도 감사와

22) 『세종실록』 권75, 18년 11월 정사; 권76, 19년 3월 신축; 권78, 19년 7월 기축; 권89, 22년 6월 정해

23) 『세종실록』 권77, 19년 5월 기유

24) 『세종실록』 권78, 19년 7월 기축; 권95, 24년 2월 임진

25) 『세종실록』 권95, 24년 1월 무인; 2월 임진

26) 『세종실록』 권90, 22년 7월 기유

27) 여진 세력의 이동을 억제하려고 조선은 명과의 외교적 방법을 통하기도 하고, 정치·경제적 회유책을 쓰기도 하였으며, 무력을 동반한 강경책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또 변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올적합의 침입을 막아 주거나 구원해 주고, 생활을 구제해 주어 이탈을 방지하려 하였다. 변리가 배반하였을 경우 철저히 응징하고, 다른 변리들의 이탈을 방지하기도 하였다. 한성주, 2010, 앞의 논문 참고.

도절제사에게 올적함을 초안할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²⁸⁾ 세종의 올적합 조무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는데, 올적함을 厚待하자 내조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²⁹⁾ 세종의 조무로 남눌·수빈강·홀라온올적합 등이 내조하여 침입이 줄어들었지만, 올적합의 올랑합·알타리, 그리고 조선에 대한 침입이 그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당시 조선은 알타리·올랑합과 올적합의 화친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6진 개척을 담당했던 김종서는 오랑캐는 흩어져 살면 힘이 분산되고 통합이 안 되지만, 한 곳에 모여 살면 힘이 합쳐져서 변경을 위협하고 사변이 일어날 것으로 보았다.³⁰⁾ 김종서는 범찰이 도을온을 증개삼아 올적합과 화친하려고 하는 것도 저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알타리가 올적합이나 올랑합 등과 화친하여 세력이 안정화되고 강해지면 변경에 이롭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에 있었다.³¹⁾ 황보인도 김종서의 의견에 동의하여 “만약 화친을 한다면 알타리에게 도망갈 마음을 열어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³²⁾ 마침내 세종은 둘의 의견이 時世에 맞는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알타리 가시파 등이 화친할 뜻을 청하거든, 구주올적합이 이미 조선에 귀순하여 늘 왕래하고 있고, 너희들은 우리 땅에 많이 모여 살고 있으니 올적합이 어찌 너희들을 해할 것이며, 해한다고 해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근심할 것 없다”라고 말하도록 하고 있다.³³⁾ 세종은 결국 변경 안정에 여진 제 세력의 화친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28) 『세종실록』 권78, 19년 8월 갑자

29) 홀라온올적합의 경우 1437년(세종 19)을 시작으로 7건, 1438년(세종 20)에는 22건, 1439년(세종 21)에는 65건의 내조 현황을 보이고 있다. 河內良弘, 1992, 「朝鮮世祖の字小主義とその挫折」, 『明代女眞史の研究』, 同朋舎, 293~300쪽

30) 『세종실록』 권95, 24년 1월 무인

31) 위와 같음.

32) 위와 같음.

33) 위와 같음. 그러나 세종은 ‘그들의 화친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하여 강박하게 청하여 오는 것을 또 이쪽에서 너무 막는다면 도리어 틈이 생길 것이니, 경은 이 뜻을 잘 알고 적당히 헤아려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화친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알타리 등과 틈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주시시키고 있다. 『세종실록』 권95, 24년 1월 무인

김종서와 황보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당시 조선에서는 여진 세력의 통합과 화해보다는 힘의 분산과 분열이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 이에 김종서는 '함길도의 精兵 4천 명을 뽑고, 올랑합·알타리 가운데 올적합과 원망을 맺은 사람을 嚮導로 삼아 길을 나누어 올적합을 정벌'하자는 주장을 하여 올랑합·알타리 對 올적합의 투쟁을 이용하고자 하기도 하였다.³⁴⁾ 또한 올적합이 다니는 要衝인 豆門³⁵⁾에 木柵 셋을 설치하여 三軍을 나누어 낮이면 병력을 진열하여 시위하고 밤이면 堡에 거두며 인근의 올랑합과 알타리를 나누어 보내 前後로 침략한 죄를 힐책하기를 주장하였다.³⁶⁾

한편 세종은 조선이 올적합의 침입에서 알타리 등을 구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붙어 살 희망이 끊어지는 것이며 국가의 신의를 보일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³⁷⁾ 또한 近境의 올랑합도 급할 때는 알타리를 구해 주도록 하고 있고, 深處野人(올적합)이 알타리를 침략하면 변장은 저쪽 지경과 우리 지경을 논하지 말고 형세를 보아 올적합을 공격하도록 함으로써 알타리를 구원하도록 하였다.³⁸⁾

조선은 6진 주변의 알타리·올랑합을 심쳐야인인 올적합의 침입에서 보호하여 주었고, 알타리·올랑합은 조선의 울타리인 번리가 되었다. 결국 조선은 이들 여진 번리에 대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즉 唇亡齒寒의 관계라 일컬

34) 『세종실록』 권75, 18년 11월 경자

35) 豆門은 올적합이 다니는 요충지로서 我境로부터 군사행보로 2일정, 빨리 가면 1일정(『세종실록』 권88, 22년 2월 계미)으로 두만강 밖이며, 土門으로 추정된다.

36) 김종서의 목적은 올적합이 쉽게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올랑합 또한 조선을 두려워하도록 하고, 동요하는 알타리나 올랑합 등을 조선에 더욱 귀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세종실록』 권88, 22년 2월 계미). 두문지방에서 조선군의 관병시위는 실제로 이루어져, 조선군이 사냥한다고 소리치고 산과 들에 횡행하여 올적합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근경의 여진인 및 대소 邊將과 서울의 朝官들도 연속해서 행할 것을 주장하였다(『세종실록』 권102, 25년 10월 정해).

37) 『세종실록』 권95, 24년 2월 임진

38) 『세종실록』 권95, 24년 2월 임진; 권102, 25년 10월 정해

게 되었고, 변리들도 심쳐야인들과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다.³⁹⁾ 그러나 조선의 정책은 세조의 집권과 더불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Ⅲ. 申叔舟의 派遣과 女眞 和解 시도

1_ 신숙주의 派遣 배경

문종, 단종을 이은 세조대에도 알타리·올랑합 對 울적합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고, 이전시기보다 오히려 격화되어 갔다.⁴⁰⁾ 다음의 <기사 2>를 보면, 이들의 싸움이 상당히 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記事 2〉

- ① 兀狄哈 등이 군사를 모아 韓朶里에게 復讐를 꾀하고 있다 하고, 알타리들도 역시 군사를 모아 이에 대응할 기세가 하니, 이는 곧 自中相圖다. 그러나 이 무리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하여 감히 변방을 침범하지 못한 것인데, 이제 만약 합치게 되면 장차 변방의 우환이 될 것이므로 그 형세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② 마땅히 계략을 써서 和解시킬 것이지만, 만일 울적합이 近境에 이르면 우리는 마땅히 근경의 사람들을 聲援하고 庇護해야 할 것이다.⁴¹⁾
- ② 함길도 도절제사 楊汀이 野人 尙同哈과 兀狄哈 등이 서로 다투는 事由를 馳啓하니, 글을 내려 回諭하기를, “울적합들이 사람과 家畜을 빼앗기어 怨隙이 이미 깊어져서, 그 報復을 반드시 서둘 것이다. …… 상동합 등은 우리나라 後門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藩籬가 되

39) 한성주, 2010, 앞의 논문, 176~178쪽

40) 『세조실록』 권14, 4년 12월 병진; 권15, 5년 1월 갑오; 임자

41) 『세조실록』 권10, 3년 11월 경오

니, 마땅히 愛護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경은 내 뜻을 잘 타일러서 스스로 預備하게 하고, 경도 역시 救援하는 태세를 취하여 우리 국가에서 撫育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⁴²⁾

- ③ 野人 柳尙同介 등이 와서 말하기를, “兀狄哈과 獐端을 맺음이 이미 심하니, 보복이 반드시 빨리 올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부족이 흩어져 살므로 능히 버티지 못할까 두려우니, 원컨대 한 곳에 모여 살게 하소서” 하므로, 내가 그에게 타이르기를, “너희들은 반드시 모여 살 것이 없다. 내가 이미 都節制使로 하여금 救援하게 하였다.” 고 하였다. 대체로 野人들이 모여서 살면 우리에게는 不便하지만 또 유상동개 등은 대대로 後門에 살면서 우리의 藩籬 노릇을 하였으니, 또한 그가 禍를 당하는 것을 모르는 척 보아 넘길 수도 없다. 경이 그를 聲援할 형편이 되거든 信義를 잃어서는 안 된다. 다만 올적합 등은 아이들과 원수가 되었지만 우리나라에는 본래 罅隙이 없었는데, 지금 유상동개 등을 위해서 다시 하나의 敵을 만들 수는 없으니, 비록 聲援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緩急은 경이 마땅히 요량하여 대처하라.⁴³⁾

〈기사 2〉의 ①, ②, ③을 보면, 알타리와 올랑합이 올적합을 공격하여 사람과 가축을 빼앗았고, 이에 대한 올적합의 보복을 염려하고 있다. 알타리·올랑합은 올적합의 침입에 대비하여 군사를 모아 대비하려 하고 있고, 흩어진 부족을 모아 살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조선의 藩籬가 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허가가 있지 않으면 한 곳에 모아 살기 어려우므로, 조선에 모여 살기를 청하고 있었다.

세조는 알타리·올랑합의 대응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데, 우선 〈기사 2〉의 ①과 같이 알타리·올랑합의 무리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한 것이고, 변방을 침범하지 못한 것인데, 합치게 되면 장차 변방의 우환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 〈기사 2〉의 ③처럼 알타리·올랑합이 올적합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 곳에 모여 살기를 청하였지만, 모여 살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

42) 『세조실록』 권14, 4년 12월 병진

43) 『세조실록』 권15, 5년 1월 갑오

이유로는 대체로 이들 야인들이 모여 살면 우리에게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세조가 말한 불편함이란 결국 변경의 우환이 될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울적함이 近境에 이르면 근경의 사람들을 聲援하고 庇護하도록 하고 있고(〈기사 2〉의 ①), 愛護하고 스스로 預備하게 하면서 救援하는 태세를 취하여 조선에서 撫育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고 있다(〈기사 2〉의 ②). 또 변리인 알타리·올랑합이 울적합에게서 禍를 당할 때 聲援할 형편이 되거든 信義를 잃지 말고 구원하고, 다만 새롭게 敵을 만들면 안 되므로 聲援을 하더라도 緩急을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기사 2〉의 ③). 여기까지는 세종대의 인식과 정책이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기사 2〉의 ①-③의 '마땅히 계략을 써서 和解시킬 것'이란 부분이다. 세조는 세종대와는 반대로 알타리·올랑합과 울적합을 화해시키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세조는 왜 이런 정책의 변화를 추구한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세조는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하였기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이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세조는 왕권강화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려 하였고, 그것은 六曹直啓制와 전제적 성격의 왕권 등으로 나타났다.⁴⁴⁾ 또 세조대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園丘壇 제사를 부활시켰고, 자신의 칭호를 '承天體道烈文英武'로 부르도록 하였으며, 세조의 行幸에 따른 기이한 현상, 즉 '奇瑞'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왕위계승에서의 정당성, 즉 세조 즉위에 소위 '天命'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대외관계에서도 이러한 천명이 강조되고 있었다. 세조는 즉위 초부터 "野人의 上京이 본래는 定한 數가 있으나, 지금은 즉위한 初期인지라 불려서 위로해야 하므로, 친히 여러 종족의 야인을 만나 보고, 분명히 내 마음을 알게 해서, 北方에 위급한 걱정거리가 없게 하려

44) 中村榮孝, 1970, 「朝鮮世祖의 園丘壇祭祀について(上)」, 『朝鮮學報』 54; 高橋公明, 1987, 「朝鮮遣使ゲームと世祖の王權」, 『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 吉川弘文館; 김태영, 1994, 「朝鮮초기 世祖王權의 專制성에 대한 一考察」, 『한국사연구』 87; 김상태, 1996, 「朝鮮 世祖代의 園丘壇 復設과 그 性格」, 『한국학연구』 6·7; 한형주, 1996, 「朝鮮 世祖代의 祭天禮에 대한 研究-太·世宗代 祭天禮와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81 등 참고.

고 한다”⁴⁵⁾고 하여 여진의 내조를 대거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즉위한 이후에 南蠻·北狄으로서 來附하는 자가 심히 많은데, 모두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니, 이것은 하늘이 끌어들이는 바이지 나의 슬기와 힘이 아니다”⁴⁶⁾고 하여, 왜인과 야인의 내조가 天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실제로 세조대에는 다른 왕대들보다 왜인과 야인들의 내조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세조 즉위 초에 野人 730여 명이 내조하였다는 내용이 있고,⁴⁷⁾ 1456년(세조 2)에 望闕禮를 행할 때에 왜인·야인 5백여 명이 隨班하였다는 내용도 나타난다.⁴⁸⁾ 구체적인 통계치로서 세조대 여진의 내조 횟수는 254회로 1년 평균 18회였으며, 이것은 세종대 10.6회, 성종대 14.3회보다 많았다는 연구도 제시되었다.⁴⁹⁾ 또 왜인들의 경우도 1466~1471년 기간에만 총 80회가 내조한 것으로 나타나 ‘朝鮮遣使 畚’이라고까지 표현되었으며, ‘조선견사 畚’은 그 자체만으로도 조선의 王權을 莊嚴化하는 현상이었다.⁵⁰⁾ 결국 세조대에 이전시기보다 왜인과 야인의 내조를 많이 받아들인 것은 王權을 장엄화하여 자신의 즉위가 천명을 받아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대외관계 또한 국내정치와 연결하여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조의 여진 화해 시도 역시 세조 즉위의 천명을 강조하여 대외관계에까지 준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세조의 여진 화해 시도의 배경이 되는 다음의 <기사 3>을 분석하여 보자.

〈記事 3〉

- ① 야인 馬申哈를引线하여 照運을적합 등과 알타리 야인을 和親하게 할 수 있는 方策을 물었다.⁵¹⁾

45) 『세조실록』 권2, 1년 11월 무인

46) 『세조실록』 권8, 3년 7월 경인

47) 『성종실록』 권50, 5년 12월 을사

48) 『세조실록』 권3, 2년 1월 신미

49) 박정민, 2010, 「세조대의 여진관계와 정책」, 『한국사연구』 151, 104쪽

50) 高橋公明, 1987, 앞의 논문, 참고.

51) 『세조실록』 권15, 5년 1월 을사

- ② …… 金麻尙哈이 諸種올적합의 木契를 가지고 禮曹에 告하기를, “올적합 등이 우리로 하여금 와서 告하게 하기를, ‘올랑합 등이 우리의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사로잡아 갔으니, 보복하고자 합니다. 빌건대 저들을 救援하지 마시고, 長城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우리들은 올랑합에게 길이 막혔으니, 骨看지방으로 나아가 入朝하기를 원합니다’ 하였습시다.” 하였다.⁵²⁾
- ③ 上이 金麻尙哈을 交泰殿에서 引見하고 諭示하기를, “…… 네가 올적합에게 가서 유시하기를, ‘…… 너희 올적합 등이 비록 알타리에 길이 막혔다 하더라도 내가 막지 말도록 하겠다. 너희가 옛날 罪를 혐의스럽게 여기지만, 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길이 막혀 어렵다고 하지 말고 옛날의 죄가 혐의스럽다 하지 말라. 또 너희가 서로 원수를 갚는 일로써 개죽음[浪死]하는 것도 無益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妻子와 牛馬를 刷還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和解시켜, 각각 그 生業에 안정하게 하고자 한다’ 하라. 네가 가서 나의 뜻을 유시하라.” 하였다.⁵³⁾

우선 <기사 3>의 ①을 보면, 세조는 야인 馬申哈이 내조하였을 때 照運올적합 등과 알타리 야인을 和親하게 할 수 있는 방책을 물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①에서 나오는 ‘야인 마신합’은 ②의 ‘金麻尙哈’과 같은 인물이다. ②의 내용을 보면, 김마상합은 올랑합·알타리 등과 함께 내조하였을 때, 다른 諸種올적합의 木契를 가져와서 조선에 보고하였는데, 그 목계는 세종올적합이 조선에 보내는 것이었다. 목계의 내용은 올랑합에게 보복할 때 조선에서 구원하거나 長城(行城) 안으로 들어지 말 것과 조선으로 내조하는 길이 올랑합에 의해 막혔기 때문에 骨看지방을 통해 조선에 입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올적합이 보낸 목계에 대해 세조의 대응은 다시 김마상합을 보내어 세종올적합을 초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종올적합이 조선에 내조할 때 알타리로 하여금 길을 막지 않도록 하여 내조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과 알타리·올랑합이 빼앗은 올적합의 妻子와 牛馬를 찾아 돌려보내게 하고, 서로 화해시켜

52) 『세조실록』 권15, 5년 1월 입자

53) 위와 같음.

각각 生業에 안정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기사 3〉의 ③). 세조는 여진 세력들을 화해시켜 변경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멀리 거주하는 심처올적합을 초무하고 내조하게 하여 왕권을 드높이고 왕위계승의 천명을 보다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듯하다.

세조의 여진 화해 결정에 따라 申叔舟가 함길도 도체찰사로 임명되었다.⁵⁴⁾ 마신합에게 올적합과 알타리의 화친 방책을 물은 지 18일 만이었다. 세조는 “올량합과 올적합이 보복하기를 그치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들을 화해시키고자 신숙주를 체찰사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어 신숙주의 역할은 바로 ‘女眞 和解事’를 주관하는 것이었다.⁵⁵⁾ 또 세조는 신숙주에게 여진인들에게 유시할 내용을 命하였는데, 다음 〈기사 4〉의 내용이다.

〈記事 4〉

가서 野人들에게 諭示하기를, “듣건대, 너희들이 옛날부터 서로 원수라고 하나, 함부로 죽이는 것은 無益하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利害 관계가 없지만 나는 너희들이 비록 異族의 무리이나 人情은 같다고 여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한가지로 돌본다[我國人一視]. …… 내가 지금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禍亂을 平定하며 너희들을 보기를 오히려 자식과 같이 하는 때에 너희들을 보호하여 평안하게 하지 못한다면, 어찌 天心에 忤하겠는가? 너희 兀狄哈 등은 길이 막힐까 두려워하지 말고 자주자주 來朝하고, 兀良哈·斡朵里 등도 王化를 가로막지 말고, 각각 前의 怨恨을 버리고서 나의 지극한 가르침을 들어라.”고 하라.⁵⁶⁾

〈기사 4〉를 보면, 먼저 알타리·올량합 대 올적합의 투쟁은 조선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지만 사람의 人情은 같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여진인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세조는 ‘我國人一視’란 표현으

54) 『세조실록』 권15, 5년 1월 임자

55) 위와 같음.

56) 『세조실록』 권15, 5년 1월 임자

로 여진을 我國人과 똑같이 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세조 자신의 즉위가 天命을 받아 이루어졌음을 밝히면서 자신이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禍亂을 평정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덧붙여 세조는 여진인들을 자식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여진인들을 보호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고 천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알타리·올랑합과 올적합이 원한을 풀고 화해하고, 올적합은 조선에 자주 내조하며, 올랑합·알타리는 올적합을 막아 세조의 王化를 막지 말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보면 세조대에 이루어진 '여진 화해사'는 첫째, 두만강 유역의 안정을 위해 여진 세력 간의 투쟁 격화를 방지하고, 둘째, 새로 즉위한 세조 정권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점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_ 신숙주의 活動과 和解 과정

'女眞 和解事'의 임무를 띠고 함길도 도체찰사로 임명된 신숙주는 1459년(세조 5) 1월 29일 서울을 떠나 동년 4월 17일에 復命하였다.⁵⁷⁾ 약 80여 일을 함길도의 6진 지역을 내왕하면서 알타리·올랑합·올적합을 6진으로 불러들여 '여진 화해사'를 주관한 것이다. 신숙주의 활동과 행적을 통해 '여진 화해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자.

신숙주는 서울을 떠난 지 40여 일 만에 세조에게 '여진 화해사'의 경과를 보고하였는데,⁵⁸⁾ 그것을 보면 6진 중 먼저 會寧鎭에 도착하여 알타리·올랑합 등의 여러 酋長들을 불러모은 것으로 되어 있다. 회령에서 신숙주는 자신이 세조의 命을 받들고 온 것을 밝히고 올적합을 불러들여 알타리·올랑합과 화해시키는 일에 대한 주장들의 생각을 물었다. 회령 부근의 주장들은 세조의 計策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 말하면서 命을 따를 것을 약속하였다.

57) 『세조실록』 권15, 5년 1월 입자; 권16, 5년 4월 무진

58) 『세조실록』 권15, 5년 3월 임진. 이후 이 신숙주의 馳啓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주를 달지 않고 이 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이후 신속주는 올랑합 金把兒歹(金波乙大)를 대동하고⁵⁹⁾ 북쪽으로 이동하여 鐘城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종성 부근에 거주하는 올랑합 柳尙冬哈(柳尙同介)⁶⁰⁾과 대면하여 역시 화해의 순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런데 마침 종성 부근의 愁州에는 올적합 두 사람이 화해의 일을 의논하러 와 있었기 때문에 신속주가 이 두 사람을 불렀고, 그중 加霜哈이라는 사람이 왔다. 가상합은 원래 올랑합이었지만 올적합에게 포로가 되었던 사람이었다.

가상합은 兀未車울적합 也堂其의 “죽은 자는 그만이지만 살아 있는 자는 되돌려 주고, 서로 더불어 화해하여 평안히 사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말을 전하러 온 것이었다. 즉, 올미거울적합은 올랑합이 빼앗아간 인물을 돌려주기를 희망하면서 화해하자는 뜻을 전한 것이다. 이때 신속주는 종성의 올랑합 유상동합을 座中에 두고는, 가상합에게 돌아가서 올적합을 화해시키려는 세조의 유시를 전하도록 하였다. 그 방법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세조의 유시를 말로 전하는 것[傳語]과 여진 문자[女眞字]로 번역된 글[書契]을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었다. 전언과 서계 둘 다 그 대략적인 뜻은 여진 세력을 화해시키려고 한 <기사 4>의 내용과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나 전언과 서계를 비교해 보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傳語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여진 화해사’의 일은 신속주가 세조의 명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올랑합이 사로잡은 올적합을 쇠한하겠다는 것과 올적합이 알타리·올랑합에 대해 보복하려고 하지만 이들은 조선의 近境에 살면서 조선에 충성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조선이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세조의 王旨를 듣고 처자를 데리고 돌아가고 자주 조선에 朝見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례하게 항거하면 올적합의 땅도 數日程에 지나지 않으니 후회해

59) 金把兒歹(金波乙大)는 올랑합인데, 都萬戶의 관직을 가지고 있었고, 회령진에서 서쪽으로 120리 떨어진 두만강 밖 下東良에 거주하고 있었다. 『단종실록』 권13, 3년 3월 기사

60) 柳尙冬哈(柳尙同介)은 올랑합으로, 조선에서 知中樞院事의 관직을 제수받았고(『단종실록』 권12, 2년 12월 계묘), 종성에서 서쪽으로 20리 두만강 밖 愁州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종성 부근은 올랑합이 거주하였는데, 올랑합 부락 9개, 95가, 489명의 장정이 있었다. 『단종실록』 권13, 3년 3월 기사

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書契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여진 화해사’의 배경이 된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 우선 앞서 살펴보았던 마상합이 올적합의 목계를 가지고 온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올적합의 길이 막혔으므로 ‘여진 화해사’를 시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기사 4〉와 같은 내용, 즉 세조 즉위의 정당성을 밝히면서 여진인들을 보호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자 천명이라는 것과 알타리·올랑합과 올적합이 화해하고, 올적합은 조선에 자주 내조하라는 내용이다. 한편 세조가 만물을 ‘一視同仁’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표현도 쓰고 있다.

신숙주는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면서, 전년에 여진인들의 내조를 상고해 보았을 때 火刺濫올적합 이외에 諸姓올적합은 한 사람도 오지 않은 것은 알타리·올랑합 대 올적합의 싸움으로 인해서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올적합이 지금 와서 화해를 모색하는 것은 올랑합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조선이 이들을 원조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조선에 納款하려는 것은 올랑합의 세력을 고립시키려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여러 올적합을 초무하면 반드시 아무 일 없이 올 형세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화해를 빙자해서 올적합을 초무한다면 올랑합도 조선의 올적합 초무에 대해 별다른 의심하지 않을 것이므로, 양쪽으로 慰撫를 할 때라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 憐恤하고 撫育하는 뜻을 보이고, 한편으로 그들을 위협해서 두렵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書契에서 나타나지 않고 傳語에서 나타나는 올적합에 대한 위협 내용은 신숙주의 이와 같은 계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숙주는 또 가상합이 야당기에게 돌아가는 길에 尼麻車올적합 弓豆에게도 글을 전하게 하여 우두로 하여금 諸姓兀狄哈를 招諭하게 하였다. 우두에게 전한 글 또한 신숙주의 치계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記事 5〉

지금 王旨를 받들고 邊方을 巡行하면서 諸種野人을 招安하고 있다.
네가 諸姓兀狄哈의 頭目에게 두루 告하여 와서 王旨를 듣도록 하라.

올랑합·알타리 등은 지금 이미 명을 받들고 和解하였으니, 너희들은
길이 막혔을까 의심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⁶¹⁾

이를 보면, 신숙주는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받은 우두를 이용하여 제종올적합을 초무하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두는 세종대에 처음 내조하였고 여러 차례 上京하면서, 조선으로부터 護軍의 관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⁶²⁾ 신숙주가 우두에게 보낸 글은 앞서의 記事들보다는 상당히 축약되어 있지만, 신숙주가 세조의 명으로 제종여진인들을 초안하고 있고, 우두가 이것을 諸姓(제종)올적합에게 두루 알리어, 이들이 와서 왕지를 듣게끔 하라는 내용이다. 또한 올랑합·알타리 등은 이미 명을 받고 화해하기로 하였으므로, 제종올적합이 의심하지 말도록 전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신숙주는 이후 차례로 穩城鎮·慶源鎮에 이르러 올랑합·토착여진 등을 초유하여 세조의 명을 따르게 하고, 골간올적합 마상합과 올랑합 金管婁를 대면하여 약속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제성올적합의 頭目, 즉 酋長들이 사는 곳에 글을 지어 여진 문자로 번역하여 보냈는데, 이것은 '여진 화해사'를 위한 두 번째 서계라 할 수 있다. 여진 문자로 번역한 두 번째 서계 역시 세조의 명을 받은 신숙주가 제종올적합들이 조선으로 오는 길을 통하게 하였고, 올랑합·알타리 등이 모두 조선의 명을 들어서 올적합들과 원수가 되지 않기를 약속하였으니, 염려하지 말고 와서 왕지를 들으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신숙주는 같은 글을 다시 가상합에게 주어 올미거올적합의 야당기를 타이르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서계들에는 골간올적합 마상합을 올미거올적합에게 인도하여 이르게 하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올적합 중에서도 조선과 친화력이 높은 앞서의 니마거올적합의 우두, 골간올적합의 마상합 등을 이용하여 다른 제종올적합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신숙주의 계획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신숙주의 여진 화해 계획과 실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61) 위와 같음.

62) 『세종실록』 권92, 23년 5월 병오; 병진; 권93, 23년 6월 신미; 권118권, 29년 12월 경오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신숙주는 두만강 유역의 5진을 직접 순행하면서 5진 주변의 올랑합·알타리들을 초무하여 화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제종올적합에게는 세조의 유시를 적은 서계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특히 여진 문자로 번역하여 보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서계를 보낼 때 조선과의 관계가 깊은 올적합의 유력 추장들을 활용한 점을 들 수 있다. 네 번째는 여진인들의 감응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신숙주는 사로잡힌 올적합의 처지를 후하게 대접하고 풀어주어 올적합의 감응을 이끌어내려 하였다.

신숙주의 이러한 계획은 잘 실행되고 있었지만, 화해사에 대한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첫째, 신숙주는 화해사를 위해 올적합을 불러왔는데 올랑합이 오지 않으면 올적합에게 경멸을 당할 것이고, 올적합에 포로된 사람과 빼앗긴 가축을 찾아냈는데도 올적합이 오지 않으면 반대로 올랑합에게 경멸을 당할까 염려하였다. 둘째, 양쪽에 사람을 보내어 갔다가 돌아오는 정도와 의논할 시간 등을 계산하니 거의 한 달에 이르고, 강을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멀고 가까운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과 가축을 찾아내고 여러 추장을 모아서 還付하도록 약속을 정하는 데도 다시 거의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었다. 처음에 신숙주가 한성에 있을 때는 여진 화해사의 일을 3개월 안에 끝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직접 함경도에 와서 화해사를 실행하다 보니 여진이 달라 곳곳에서 일이 늦추어지고 있었다. 셋째, 동량북에 거주하고 있던 올랑합 浪孛兒孛은 ‘올적합 2만여 군사가 와서 복수하려 한다’는 정황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신숙주는 화해사가 잘못된 계획은 아닌가 염려하기도 하였고,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六鎭軍의 부서를 짜고 精하게 훈련해 두고 있었다.

이후 신숙주는 두 번째 치계를 통해 세조에게 여진 화해사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앞서 마상합을 이용한 올적합 초무의 결과였다.⁶³⁾ 마상합은 신숙주의 명을 받아 올적합에게 파견되었는데, 7일 동안 아무도 없는 땅을 지나 올미거울적합의 愁呵歹 및 남늘올적합 품합·阿刺哈 집에 도착

63) 『세조실록』 권16, 5년 4월 갑자. 이후 이 신숙주의 두 번째 馳啓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주를 달지 않고 이 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하였다. 여기서 이들에게 세조의 유시를 전하고 서계를 주면서 화해의 命을 따르도록 하였고, 또한 이 글을 제증올적합에게 널리 전하도록 하였다. 다시 4일을 가서 올미거올적합 育帖應哥가 사는 곳에 가서 서계를 전하고, 육첩응가의 아들 宋杓로 하여금 글을 가지고 야당기 등을 타이르도록 하였다. 마상합이 돌아올 때 올미거올적합 육첩응가는 직접 함께 왔고, 남눌올적합 아라합은 家人好土를, 아라합의 조카 波水是 長子 刺亦哈을 함께 보냈다. 육첩응가는 임신한 아내와 아들 4인이 올랑합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아내는 포로로 된 중에 아이를 낳은 상태였다. 그러나 육첩응가는 올랑합의 蘇多哈이란 자를 친히 죽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와 아들들을 돌려받기 위해 나왔다는 것은 마상합이 전한 세조의 유시 및 서계의 내용을 신뢰하고 나온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신숙주는 육첩응가의 내조로 화해사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육첩응가를 이용 다른 올적합들도 의심없이 화해사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신숙주는 '육첩응가가 올랑합의 소다합이란 자를 친히 죽였음에도 명을 듣고 나왔으니 나머지 頭目들이 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육첩응가에게는 우선 그 아내와 젖먹이만을 돌려보내어 빨리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삼게 하여 나머지 추장들을 데리고 오도록 하였고, 이렇게 하여 올적합을 초대하는 것이 반드시 효력이 있고 빠른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신숙주는 즉시 올랑합과 알타리의 여러 추장을 부르고 遠近이 다 모여서 올미거올적합의 육첩응가와 더불어 面前에서 화해하도록 하였고, 올미거올적합 육첩응가 등이 야당기 등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화해를 聽從하고 포로된 사람들은 차차로 쇄환하기로 약속하게 하였다. 또 마상합 등 3인으로 하여금 육첩응가를 호송하도록 하고, 육첩응가로 하여금 나머지 사람들을 초대하게 하였기 때문에 육첩응가가 다시 돌아오면 和親하는 일은 대개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신숙주는 여진화해사가 이제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을 확신하여, 前後의 사실들과 여러 가지 節目을 날날이 도절제사 楊汀에게 시행하도록 하고, 서울로 돌아갈 것이라고 치계하였다.

마침내 한 달 뒤인 그해 5월 신숙주가 예측한 것과 같이 올미거올적합 야당

기와 육첩웅가 등 남녀 19명이 마상합을 따라 경원에 도착하였고, 함길도경차관 강효문과 도절제사 양정이 올랑합·알타리의 여러 추장들을 불러 야당기 등과 함께 공궤하면서 화해사가 이루어졌다.⁶⁴⁾ 야당기가 올랑합과 더불어 酬酌하면서 하늘에 기도하여 화친하기를 약속하고, 사로잡아온 남녀 27인 모두를 돌려준 것이다.⁶⁵⁾ 이로써 조선이 추진한 올랑합·알타리와 올적합의 화해가 비로소 마무리된 것이다.

IV. ‘女眞 和解事’와 두만강 유역에 대한 인식

조선과 여진의 관계에서 세종과 세조의 공통점은 여진 세력의 통합이 6진 방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6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여진 세력의 안정도 그만큼 중요한 현안이었다. 세종은 이를 위해 6진 주변의 여진인을 조선에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들게 하여 조선의 울타리가 되도록 하는 이른바 여진 ‘번리화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세조는 이에 더해 먼 지역의 여진 세력 또한 조선에 내조하여 복속함으로써 근경의 울타리가 침범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지속된 올랑합·알타리와 올적합의 투쟁을 종식시키려는 이른바 ‘여진 화해사’를 추진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진 세력 간의 투쟁 격화와 새로 즉위한 세조 정권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점이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세조대 여진화해사는 전체 여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여진 화해사가 이루어진 두만강 유역에 대한 조선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64) 『세조실록』 권16, 5년 6월 신유

65) 위와 같음.

세조는 우선 여진 화해사가 이루어진 직후 화해사에 공이 있는 여진인들을 포상하였다. 즉, 올랑합·알타리 중 올적합의 인물을 돌려준 사람들을 3등으로 나누어 군자미로서 포상토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올랑합과 알타리가 조선의 명령을 따라서 감히 다투지 않고 잡아온 올적합을 돌려준 것'에 있었다.⁶⁶⁾ 그리고 그해 9월이 되면 세조는 함길도 경차관 강효문을 서울로 올라오도록 하면서 '화해의 일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쇄환되지 않은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니, 강제로 쇄환시킬 필요는 없다'고 유시하였다.⁶⁷⁾ 이를 통해서 보면 세조는 화해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경차관 강효문 등으로 하여금 9월까지 머무르게 하였고, 올랑합 등이 잡아온 올적합 포로들을 조사하여 강제로라도 쇄환시킴으로써 화해의 일을 성공시키려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화해사의 과정 중 일어난 두 가지 상황은 조선과 여진 관계를 다시 변화시켰다. 그중 하나는 명에서 건주삼위 여진인과의 통교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세조는 세종과는 다르게 압록강 유역에 거주하는 건주삼위와의 통교를 재개하고, 조선에 내조한 건주삼위 여진인들에게 조선의 관직을 수여하였다. 그런데 명에서는 조선의 이러한 행동을 여진에 대한 招撫로 생각하였고, 조선에 사신을 보내어 조선의 행동을 詰責하였던 것이다.⁶⁸⁾

명의 사신이 조선에 와서 勅書を 전한 것은 1459년(세조 5) 4월로,⁶⁹⁾ 신숙주가 여진 화해사를 위해 함길도에 머무르고 있던 시기였다. 세조는 칙서를 베껴 신숙주에게 보내는 한편, 신숙주가 여진에 보낸 서계는 초무의 자취가 많이 있으니 還收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 가까운 곳은 모름지기 환수해야

66) 『세조실록』 권16, 5년 6월 병인

67) 『세조실록』 권17, 5년 9월 기해

68) 유봉영, 1973, 「王朝實錄에 나타난 李朝前期의 野人」, 『백산학보』 14; 조영록, 1977, 「入關前 明·鮮時代の 滿洲女眞史」, 『백산학보』 22; 河內良弘, 1992, 앞의 논문; 姜龍範·劉子敏, 1999, 『明代中朝關係史』,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王臻, 2005, 『朝鮮前期與明建州女眞關係研究』, 中國文史出版社; 남의현, 2005, 「明代 兀良哈·女眞의 成長과 遼東都司의 危機」, 『만주연구』 3; 한성주, 2007, 「조선초기 조·명 이중수직여진인의 양속문제」, 『조선시대사학보』 40 참고.

69) 『세조실록』 권16, 5년 4월 기미

한다고 유시하였다.⁷⁰⁾ 그리고 세조는 명이 건주위에 칙서를 보내어 조선과 교통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에 빗대어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들도 조선과 교통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이다.⁷¹⁾ 명의 칙서가 두만강 유역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압록강 유역 건주위에 대한 것임에도 세조는 명과의 마찰을 더 이상 바라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조의 이러한 지시는 신숙주가 아직 함경도에서 여진 화해사를 추진하던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신숙주가 여진 화해사의 성공을 확신하는 두 번째 치계를 보낸 다음의 2일 후에 내려진 조처였다. 그렇지만 ‘여진 화해사를 시종 한결같이 추진하여 마침내 여진인들을 귀순하도록’ 다시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⁷²⁾ 명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될 수 있으면 피하되 두만강 유역에 대한 조선의 여진 초무는 지속적으로 실행하려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조선의 번리였던 올량합 浪孃兒罕의 배신이었다. 낭발아한은 우선 신숙주가 ‘여진 화해사’의 추진을 위해 함길도에 머물 때는 ‘올적합 2만여 군사가 와서 복수하고자 한다’⁷³⁾는 소문을 퍼뜨려 신숙주가 화해사의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또한 신숙주가 경원에 있을 때 여러 鎭의 추장을 보아서 올적합에 포로된 인물을 쇄환하였는데, 여러 추장은 모두 왔지만 유독 낭발아한만은 병을 핑계로 참여하지 않았다.⁷⁴⁾ 그리고 통사가 “장차 올적합과 화해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부르러 왔다”고 하였음에도 낭발아한의 族人이 활시위를 당겨 쏘려 하였으며, 심지어는 “조선에서 장차 군사를 내어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하면서 木契를 만들어 선동하여 罅端이 생기게 하고 있었다.⁷⁵⁾ 결국 경차관 강효문은 화해사가 개최된 것을 보고하면서도 낭발아한은 필시 사로잡은 인물을 돌려보내려 하지 않고, 화해하는 데 이익이 없

70) 『세조실록』 권16, 5년 4월 갑자

71) 『세조실록』 권16, 5년 4월 병인

72) 위와 같음.

73) 『세조실록』 권15, 5년 3월 임진

74) 『세조실록』 권16, 5년 6월 신유

75) 위와 같음.

을 것이라는 취지로 세조에게 치계하였으며, 동량북 등지의 여진인들이 安穩하지 못한 것은 낭발아한 때문이라고 보고하게 되었던 것이다.⁷⁶⁾

더구나 서울에서 侍衛하고 있던 낭발아한의 아들 浪伊升戶가 吉州의 溫井에 병을 치료하러 가서는 조선을 배반하고 중국에 가려는 형적이 드러남으로써 낭발아한과 낭이승거 등 일족 17명이 참수되었다.⁷⁷⁾ 이것은 다시 명과의 외교문제가 되었는데, 명에서는 낭발아한이 명의 관직을 가지고 있던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또한 낭발아한의 아들 중 阿比車는 살아남아 낭발아한의 親堂 및 諸種野人 1천 5백여 인을 모아 회령에 침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변경의 우환거리가 되었으며, 鏡城의 桴村口子에서 別差 前萬戶 宋憲의 被殺은 낭발아한이 중심이 되었던 모련위 올랑합에 대한 정벌의 계기가 되었다.⁷⁸⁾

세조는 올랑합 등이 낭발아한의 복수를 하고자 침입하는 상황에서 올랑합과 올적합의 화해를 도모하는 것은 오히려 조선의 國威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보았고, 오히려 올랑합에 대해 보복하고자 하는 올적합의 마음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⁷⁹⁾ 이후 모련위 정벌이 실시되었고, 정벌에 참여한 여진인 명단을 보면 니마거·남눌·화라운·골간올적합뿐만 아니라 알타리·올랑합·토착여진 등 138명 이상의 여진인들이 참여한 것을 볼 수 있다.⁸⁰⁾ 이것은 세조가 한편으로는 여진인들의 반목을 이용하여 올적합을 참여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에 복속한 6진 주변의 여진인들을 동원한 것이다. 따라서 모련위 정벌은 조선의 주도 아래 조선에 복속한 여진인들이 참여한 정벌이었다. 이렇게 보면 여진 세력을 화해시키는 '여진 화해사'와 여진의 반목을 이용했던 '모련위 정벌' 모두 변경의 안정을 위해서 실시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조선을 중심으로 여진을 복속시키려고 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두만강 유역의 여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76) 위와 같음.

77) 한성주, 2007, 앞의 논문, 27~28쪽

78) 『세조실록』 권18, 5년 11월 갑진; 권19, 6년 1월 병오; 2월 기유; 경술; 신미

79) 『세조실록』 권15, 5년 정월 임자

80) 한성주, 2008, 앞의 논문, 107~111쪽

조선이 신숙주를 파견하여 ‘여진 화해사’를 추진한 이유는 여진인들의 투쟁 격화가 변경의 안정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들을 화해시켜 변경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이외에도 심처올적합을 초무하고 내조시켜 왕권을 드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이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들과 심처올적합을 화해시킨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왕권을 드높인다는 것은 우선 두만강 유역이 조선에 완전하게 복속되어 있다는 전제와 인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한편 여진 화해사가 일어나던 중 발생한 조선과 명의 두 차례 외교문제, 즉 건주삼위의 통교문제와 낭발아한의 처리문제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보면 압록강 유역과 두만강 유역으로 나눌 수 있다. 둘 모두 두만강 유역에 잠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이 생각하는 압록강 유역과 두만강 유역에 대한 인식은 상이한 점이 있었다. 이것은 『태조실록』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다음 <기사 6>을 분석하여 보자.

〈記事 6〉

- ① 임금이 즉위한 이후에 讜教가 멀리 서북면 백성들에게까지 입혀지고, …… 의주에서 閭延에 이르기까지의 沿江 천 리에 고을을 설치하고 수령을 두어서 압록강으로 경계를 삼았다.
- ② 임금이 즉위한 뒤에 적당히 萬戶와 千戶의 벼슬을 주고, 李豆關을 시켜서 여진을 招安하여 被髮하는 풍속을 모두 冠帶를 띠게 하고, 禽獸와 같은 행동을 고쳐 예의의 교화를 익히게 하여 우리나라 사람과 서로 혼인을 하도록 하고, 服役과 納賦를 編戶와 다름이 없게 하였다. 또 추장에게 부림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모두 국민이 되기를 원하였으므로, 孔州에서 북쪽으로 甲山에 이르기까지 뚝을 설치하고 鎭을 두어 백성의 일을 다스리고 군사를 훈련하며, 또 학교를 세워서 경서를 가르치게 하니, 文武의 정치가 이에서 모두 잘 되게 되었고, 천 리의 땅이 다 조선의 版圖로 들어오게 되어 두만강으로 경계를 삼았다.
- ③ 江 밖은 풍속이 다르나, 具州에 이르기까지 風聞으로 듣고 義를 사모해서, 혹은 친히 來朝하기도 하고, 혹은 자제들을 보내서 볼모로

侍衛하기도 하고, 혹은 벼슬 받기를 원하고, 혹은 内地로 옮겨 오고, 혹은 토산물을 바치는 자들이 길에 잇닿았으며, 기르는 말이 좋은 새끼를 낳으면 자기네가 갖지 않고 서로 다투어서 바치며, 강 근처에 사는 자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爭訟하는 일이 있으면, 관청에서 그 曲直을 辨明하여 후 가두기도 하고, 혹은 매를 치기까지 해도 邊將을 원망하는 자가 없고, 사냥할 때에는 모두 우리 三軍에게 예속되기를 자원해서, 짐승을 잡으면 관청에 바치고, 법률을 어기면 벌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과 다름이 없었다.⁸¹⁾

〈기사 6〉의 ①과 ②는 각각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삼았다고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①과 ②를 잘 분석해 보면 경계로 삼았다는 직접적인 이유가 결국은 압록강은 의주에서 여원에 이르기까지 고을을 설치하고 수령을 두었다는 것이고, 두만강은 공주에서 갑산에 이르기까지 역시 고을을 설치하고 진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①·②는 모두 조선에서 고을을 설치하고 수령을 파견한 것, 즉 조선이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 행정체계화시킨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사 6〉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삼았다는 것은 조선 국왕이 임명한 수령 또는 변장이 파견되어 조선의 법령을 통해 완전한 통치를 구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사 6〉의 ③은 두만강을 경계로 삼았다는 내용인 ②에 대한 일종의 부가적인 설명인데, 압록강에 대해서는 이러한 설명이 전혀 없다. 두만강을 경계로 삼았다고 하는 내용 다음에는 바로 강 밖의 여진인들이 조선에 복속되어 있었다는 부가적 설명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조선은 두만강으로 경계를 삼았다고 하면서도 여진인들이 강 밖에 거주하더라도 조선에 來朝하거나 侍衛 또는 관직을 받아[受職] 복속하고 있었고, 조선의 법률을 어기면 벌을 받는 것이 조선인과 다름이 없었다고 하고 있었다.⁸²⁾ 이것은 두만강은 조선의 경계가 되었

81) 『태조실록』 권8, 4년 12월 계묘(〈기사 11〉의 ①, ②, ③ 모두 이에 해당한다.)

82) 한편 유재춘은 최근 이 기사를 바탕으로, 두만강을 경계로 삼았다고 하면서도 江北 지역에 대한 내용에서는 중국(明)의 영토라는 의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유재춘, 2011, 「중·근세 韓·中間 국경완충지대의 형성과 경계인식」,

지만, 그 경계라는 것은 조선의 행정력이 실제적·실효적으로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고, 경계의 밖, 즉 두만강 밖은 조선의 행정 관원이 파견되지 않았지만 조선의 法令이 미침으로써 조선에 복속된 지역을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조선 국왕의 법령이 미치는 지역까지를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인식은 고려시대 尹瓘의 公嶮鎭 설치와 연결되어 조선은 공협진 이남에 대한 영유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명에서 東北面 十處人民의 영속을 주장할 때와 童猛哥帖木兒의 명 入朝를 주장할 때 조선에서는 두만강 유역뿐만 아니라 공협진 이남이 조선의 영역임을 주장하고 있다.⁸³⁾ 게다가 명에서 동북면 십처인민의 조선 영속을 승인하면서 이러한 인식은 고착화되었으며, 마침내 『세종실록』 지리지에 경원의 경계를 '북쪽으로 공협진에 이르기까지 7백리, 동북쪽으로 先春峴에 이르기까지 7백여 리'라고 하게 되었던 것이다.⁸⁴⁾

한편 세조대 모련위 정벌에도 불구하고 여진 침입이 지속되자 세조는 韓明澮를 도체찰사로 임명하여 다시 여진 정벌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한명회는 함길도에서 5鎭을 순찰하여 병마를 점열하고 1461년(세조 7) 9월 10일에 거사할 계획을 정하였던 것이다.⁸⁵⁾ 그러나 회령에 두만강 내의 지역인 三東良·三斜地·無兒界·甫兒下·毛里安·吾治安·沙吾貴·下伊亂·廬包·伐引·阿赤郎貴 등지에 거주하는 여러 酋長들이 管下 사람 159인과 함께 귀순을 청하면서 여진 정벌 계획은 중단되었다. 한명회는 귀순한 여진 추장들에게 조선의 경계가 선춘령 이남부터고, 모두 조선의 옛 땅이므로 이곳에 거주하는 여진인들을 조선 백성과 같이 보았는데, 여진인들이 조선에 복속을 안하므로 이들을 정벌하여 5진처럼 마을을 개척하고 조선이 직접 통치할 것이라 위협하였다. 이는 조선 초기부터 유래한 두만강 유역과 공협진 이남이 조선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지속되어 왔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한 마을을 개척하여 조선의 행정

『한일관계사학회』 39, 175쪽

83) 『태종실록』 권7, 4년 5월 기미; 권10, 5년 9월 임자

84) 『세종실록』 권155, 지리지 함길도 경원도호부

85) 『세조실록』 권25 7년 9월 임인

력이 미치는 5진은 조선의 직접적인 관할이고, 두만강 이북 또한 조선의 법령이 미치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직접적인 관할로 변경할 수 있는 곳을 말하고 있다.

다시 세조대 낭발아한의 처벌 사건으로 되돌아가서, 여진 화해사를 방해하고 조선을 배신하였던 낭발아한의 처벌에 대해 명은 '왕의 法에 의하여 罪를 주는 것은 다만 王國에서 行할 수 있는 것이지 隣境에서는 행할 수 없는 것인데 왕국의 법으로 인경의 사람을 죄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⁸⁶⁾ 그러나 조선은 '본국 後門의 地境 위의 야인들은 編氓과 다름이 없고, 낭발아한 또한 인경의 사람이라 볼 수 없다'⁸⁷⁾는 주장을 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명은 왕의 법이 미치는 곳은 왕국이고, 그 법은 국경을 넘을 수 없는 것이며, 조선이 낭발아한에게 조선의 법을 적용하여 죄를 준 것은 조선의 영역을 넘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은 두만강 밖의 여진인들은 조선의 편氓이고, 그곳에 거주하는 낭발아한 또한 인경의 사람이라 볼 수 없다고 하여 조선의 법은 두만강을 넘어 확대되고 있고, 영역이 왕국의 범위, 즉 국경을 초월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조선의 법령과 왕명이 미치는 범위가 두만강 유역에서는 행정과 관할, 즉 경계와 국경을 넘어 구현되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결국 세조대 여진 화해사는 이러한 두만강 유역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실시되었던 것이다.

V. 맺음말

元明交替期 혼란한 상황에서 여진인들의 이동이 시작되었는데, 올랑합·알타리들은 올적합의 침구를 피해 두만강 유역으로 남하하였고, 이들은 이후에도

86) 『세조실록』 권20, 6년 6월 갑인; 『明英宗實錄』 卷314, 天順 4年 4月 甲戌

87) 『세조실록』 권20, 6년 6월 갑자

서로 대립과 투쟁을 반복하였다. 이들의 반목과 투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알타리의 首長 童猛哥帖木兒의 패망이었다. 조선은 이 사건을 계기로 6진을 개척하였으며, 여진 세력의 투쟁과 반목을 이용하여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알타리와 올랑합을 藩籬化시킴으로써 올적합의 침입을 막으려 하였다. 여진 사회 또한 점차 농경화되어 가고, 조선·명과의 무역관계가 심화되어 갈수록 알타리·올랑합 대 올적합과의 투쟁은 더욱 격화되어 갔으며 사람과 牛馬 등을 침탈하면서 서로를 원수로 여기게 되었다. 격화된 서로 간의 투쟁은 침탈을 서로 멈추자는 화해 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지만, 세종대에는 여진 세력들의 화해와 통합보다는 힘의 분산과 분열이 6진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여진인들의 화해 시도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방하거나 저지하였고, 대신 알타리·올랑합에게 6진에 모여 살면서 조선의 번리가 되면 조선이 구원하여 줄 것이라는 논리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정책은 세조의 집권과 함께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세조는 소위 ‘天命’을 강조하면서 왕위계승에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대외관계에서도 이러한 ‘천명’을 강조하여 다른 왕대들보다 왜인과 야인들의 내조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세조는 골간올적합 김마상합의 내조로 제종올적합이 조선 내조를 원하는 것에 자극을 받았고, 올랑합·알타리와 올적합을 화해시켜 변경을 안정화시키면 멀리 거주하는 올적합의 조선 내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숙주를 파견하여 ‘여진 화해사’를 추진한 것은 여진 세력 간의 투쟁 격화와 이에 따른 6진 방어 전략의 변화와 함께 새로 즉위한 세조 정권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점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신숙주는 약 80여 일을 함길도의 6진 지역을 내왕하면서 ‘여진 화해사’를 주관하였다. 신숙주는 우선 두만강 유역의 5진을 직접 순행하면서 주변의 알타리·올랑합 등의 여러 酋長들을 불러 모으고 ‘여진 화해사’에 대한 세조의 명을 따를 것을 지시하여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다음으로 제종올적합에게 傳言과 書契로 세조의 유시를 전하게 하였는데, 특히 서계는 여진 문자로 번역하여 보냈다. 그리고 이러한 서계를 보낼 때는 올적합 중에서도 조선

과 관계가 깊은 유력 추장들을 이용하여, 다른 제종올적합의 의심을 종식시키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취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사로잡힌 올적합의 처사를 후하게 대접하면서 조선의 은혜를 각인시키는 한편 이를 전하게 하여 제종올적합의 감응을 이끌어내려 하였다. 그러던 중 앞서 마상합을 이용한 올적합 초무의 결과로 올미거올적합 육첩응가가 내조하게 되면서 신숙주는 여진 화해사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육첩응가를 다시 제종올적합에게 보내어 다른 사람들도 화해사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육첩응가가 다른 제종올적합을 데리고 오면 화해사가 성립될 것으로 판단한 신숙주는 서울로 상경하였고, 한 달 뒤 경원진에 육첩응가 등 올적합 19명이 도착하면서 여진 화해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화해사 과정 중 명에서 건주삼위 여진인의 조선 통교를 문제 삼았고, 조선의 번리였던 낭발아한이 화해사를 방해하고 조선을 배신한 것은 조선과 명·여진 관계를 다시 변화시켰다. 조선은 압록강 유역의 건주삼위에 대해서는 명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통하지 않을 것을 표명했지만, 두만강 유역의 낭발아한에 대해서는 그 일족을 참수하였다. 명은 낭발아한의 처벌에 대해 다시 문제를 삼았지만 조선은 모련위 정벌을 감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의 압록강 유역과 두만강 유역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건국 직후부터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 이후 명과의 十處야인 귀속 문제 등을 거치면서 고려시대 윤관이 설치한 공험진과도 연결되었으며, 두만강 유역 이북은 압록강과는 다르게 언제라도 조선이 직접 鎭을 설치하여 조선의 영토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두만강 유역 이북 조선의 6진 지역에 근접하여 살던 여진인들은 조선의 법령과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하였던 것이다. 세조대 여진 화해사는 두만강 유역의 변경 안정을 위해 실시되었는데, 조선의 두만강 유역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려사』,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단종실록』, 『세조실록』, 『龍飛御天歌』, 『北征錄』, 『元史』, 『明太宗實錄』, 『明英宗實錄』, 『大明一統志』, 『大明會典』
- 강성문, 1989, 「朝鮮시대 女眞征伐에 관한 연구」, 『軍史』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김구진, 1973, 「驪末鮮初 豆滿江 流域의 女眞 分布」, 『백산학보』 15
- 김구진, 1973, 「吾音會의 韓朶里 女眞에 對한 研究」, 『사충』 17·18
- 김구진, 1976, 「骨看 兀狄哈 女眞 研究」, 『사충』
- 김구진, 1988, 『13C~17C 女眞 社會의 研究-金 滅亡 以前 淸 建國 以前까지 女眞社會의 組織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상태, 1996, 「朝鮮 世祖代의 園丘壇 復設과 그 性格」, 『한국학연구』 6·7
- 김순남, 2009, 「조선 成宗代 兀狄哈에 대하여」, 『조선시대사학보』 49
- 김순남, 2011, 「16세기 조선과 野人 사이의 모피 교역의 전개」, 『한국사연구』 152
- 김태영, 1994, 「朝鮮초기 世祖王權의 專制性에 對한 一考察」, 『한국사연구』 87
- 남의현, 2005, 「明代 兀良哈·女眞의 成長과 遼東都司의 危機」, 『만주연구』 3
- 남의현, 2006, 「明代 遼東都司 支配의 限界에 對한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의현, 2008, 『명대요동지배정책연구』, 강원대학교출판부
- 박원호, 1992, 「宣德年間(1425~1435) 明과 朝鮮間의 建州女眞」, 『아세아연구』 85
- 박원호, 2002, 『明初朝鮮關係史研究』, 일조각
- 박정민, 2010, 「세조대의 여진관계와 정책」, 『한국사연구』 151
- 서병국, 1971, 「童猛哥帖木兒의 建州左衛研究」, 『백산학보』 11
- 서인범, 2005, 「명대의 遼東都司와 東寧衛」, 『명청사연구』 23
- 송기중, 1992, 「《太祖實錄》에 등장하는 蒙古語名과 女眞語名(II)」, 『진단학보』 73
- 유봉영, 1973, 「王朝實錄에 나타난 李朝前期의 野人」, 『백산학보』 14
- 유재춘, 2011, 「중·근세 韓·中間 국경완충지대의 형성과 경계인식」, 『한일관계사학회』 39
- 이인영, 1954, 「申叔舟의 北征」, 『韓國滿洲關係史의 研究』, 을유문화사
- 조영록, 1977, 「入關前 明·鮮時代의 滿洲女眞史」, 『백산학보』 22
- 한성주, 2007, 「두만강지역 여진인 동향 보고서의 분석-『端宗實錄』 기사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86

- 한성주, 2007, 「조선초기 조·명 이중수직여진인의 양속문제」, 『조선시대사학보』 40
- 한성주, 2008, 「조선 세조대 毛憐衛 征伐과 여진인의 從軍에 대하여」, 『강원사학』 22·23
- 한성주, 2009, 「朝鮮前期 '字小'에 대한 고찰-對馬島 倭人 및 女眞 勢力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3
- 한성주, 2010, 「조선전기 두만강유역 '女眞 藩籬·藩胡'의 형성과 성격」, 『한국사학보』 41
- 한형주, 1996, 「朝鮮 世祖代의 祭天禮에 대한 研究-太·世宗代 祭天禮와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81
- 황선희, 2007, 「世祖 초기의 女眞關係와 北征」,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高橋公明, 1987, 「朝鮮遣使ブームと世祖の王權」, 『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 吉川弘文館
- 中村榮孝, 1970, 「朝鮮世祖の園丘壇祭祀について(上)」, 『朝鮮學報』 54
- 河內良弘, 1974, 「申叔舟의 女眞出兵」, 『朝鮮學報』 71
- 河內良弘, 1992, 「朝鮮世祖의 字小主義とその挫折」, 『明代女眞史の研究』, 同朋舎
- ケネス·R·ロビンソン, 1997, 「一四五五年三月の人名記録にみる朝鮮王朝の受職野人」, 『年報 朝鮮學』 6
- ケネス·R·ロビンソン, 1999, 「朝鮮王朝-受職女眞人の關係と'朝鮮」, 『歴史評論』 592
- 姜龍範·劉子敏, 1999, 『明代中朝關係史』,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 建文, 1995, 「論明代對東疆地區的管轄問題」, 『北方文物』, 1995年 第2其
- 王冬芳, 1997, 「關於明代中朝邊界形成的研究」, 『中國邊疆史地研究』, 1997年 第3其
- 王臻, 2005, 『朝鮮前期與明建州女眞關係研究』, 中國文史出版社

[ABSTRACT]

The “Jurchen Reconciliation”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
Focusing on the Dispatch of Shin Sukju

Han Seongjoo

The Uryangkhad (兀良合) and the Odoli (斡朵里) moved southward to the current Southern Manchurian area to escape from the invasion of Oljeokhap (兀狄合). Since that, time conflict and struggle were repeated. The representative event of this conflict and struggle was the defeat of Tong Monqke Temur (童猛哥帖木兒), the head of the Odoli. The conflict sometimes caused a movement of reconciliation, but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世宗), it was decided to disperse power and to divide the Jurchen to be more helpful in the defense of the six commanderies rather than to seek reconciliation or integration. The Joseon's policy began to change along with the reign of King Sejo (世祖). He stressed the legitimacy of the enthronement by noting the so called “heavenly calling,” which was also stressed in his diplomacy. King Sejo promoted the “Jurchen Reconciliation” (女真 和解事) by dispatching Shin Sukju (申叔舟). This was made by boasting of the newly established power's legitimacy even though it was caused by the conflicts between the Jurchens.

Shin supervised the “Jurchen Reconciliation” in the six commanderies in Hamgil Province (咸吉道) for 80 days. First, he visited the five commanderies near the Tumen River in person and attracted that participation of various chiefs of the Odoli and the Uryangkhad. In

the next place, he sent the intention of King Sejo to Uryangkhad leaders (諸種兀狄哈) in a translated into the Jurchen language. When he sent that letter, he used chiefs who had deep relations with Joseon. Finally, he attempted to get compassion from those leaders by giving a cordial reception of wives and children of captured Uryangkhad. Finally, the "Jurchen Reconciliation" was successful due to the participation of the Uryangkhad. However, Ming China objected to the diplomatic relations of the Jurchens of the three commanderies in Jianzhou (建州三衛) with Joseon, and the fact that Nangpaeahan (浪亭兒罕), a supporter of Joseon, interfered in the reconciliation and betrayed Joseon transformed the relations between Joseon and Ming China and the Jurchen. Joseon accepted the request of Ming China regarding the Geonjusamui of Amnok River and declared not to make a communication with them. However, Joseon beheaded the family of Nangbalahan in Amnok River. Although Ming raised the issue of the punishment of Nangpaeahan, Joseon tried to conquer the Moryeonui (毛憐衛).

Accordingly, Joseon's recognition of the Amnok River and the Tuman River basin seemed different. Such recognition took place right after the foundation of Joseon. Since then, it was linked to Gongheomjin (公險眞), which Yun Gwan (尹瓘) of Goryeo had opened after the dispute with Ming China regarding the naming of Jurchen groups. And Joseon had in mind that the north of Tuman river basin, unlike the Amnok River basin, could be incorporated into Joseon's territory by installing a commandery directly. Thus, the Jurchen in the adjacent areas of The six commanderies north of Tuman River basin intended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s and instructions of Joseon. While the Jurchen Reconciliation during King Sejo's reign was executed

to bring stability in the Tuman river basin, it was conducted under this recognition and background.

Keywords

Joseon (朝鮮), King Sejo (世祖), Shin Sukju (申叔舟), Jurchen Reconciliation (女眞 和解事), Tuman River basin (豆滿江流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래부사와 대일외교

김강일 | 강원대학교 사학과 강사

I. 머리말

근세 동아시아 세계는 조선·중국(明·淸)·일본 모두 민간인의 해외 도항을 국가가 통제하는 鎖國政策을 폈다. 이와 같은 쇄국의 시대에 倭館이 소재한 東萊 지역은 조·일 양국에게 ‘밖으로 향한 열린 창구’였다. 조선후기의 동래 지역은 국가의 울타리(國之藩垣)였고, 동래부는 바다의 문호가 되는 곳(爲海徼門戶之地)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국방문제가 중요시되는 지역이었다. ‘不俱戴天之怨讐’로 여기던 일본을 지척에 둔 탓에 항상 국방에 신경을 써야 하는 지역이었지만, 이와 병행하여 왜인과 직접 접촉하면서 교린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지역 또한 동래부였다. 즉, 동래부는 ‘남쪽 변방의 중요한 땅’¹⁾이었고, ‘왜인 접대를 전담하는 곳’²⁾으로서 대마도 사절이 그들의 외교현안

※ 투고일: 2012년 5월 18일, 심사일: 2012년 10월 28일, 게재 확정일: 2012년 11월 23일

1) 『속중실록』 숙종 10년 2월 4일 경자조, “東萊乃南藩重地, 爲任不輕.”

2) 『광해군일기』 광해군 5년 3월 16일 갑술조, “……倭人接待之事本府專堂 ……”

을 접수하는 첫 번째 외교창구였다.

쇄국의 시대에 왜관은 국가 경영에 필요한 해외정보를 입수하거나³⁾ 수출 입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곳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조선이 倭館 운영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도 明治政府에게 강제로 접수당할 때까지 倭館을 폐쇄하지 않았던 이유는 조선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왜관 및 왜관이 소재한 동래부에 대한 연구, 동래부의 행정 책임자로서 동래부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다음과 같다.

- ① 동래부사와 경상좌수사, 다대포첨사의 교체 실태를 다른 지역의 관리와 비교·분석하고, 해당 관직의 교체가 동래부의 대일외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논문(李源均, 1979, 「朝鮮時代の 首領職 交替實態 - 東萊府使의 경우」, 『부대사학』 3; 李源均, 1985, 「朝鮮後期 地方武官職의 交替實態 - 『慶尙左水營先生案』과 『多大浦先生案』의 분석」, 『부대사학』 9).
- ② 동래부 재정에 관한 연구(오영교, 1986, 「조선후기 지방관청 재정과 殖利活動」, 『學林』 6; 鄭貳根, 1993, 「17·18세기 부산지방(東萊府)의 재정」, 『항도부산』 10). 이 연구에서는 동래부가 국경도시로서 군역 부담이 크고, 倭

3) 북쪽 국경이 여진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창구로서 왜관은 조선정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곳이었다. 조선정부는 통신사가 가져오는 부정기적인 정보와 倭館을 통하여 얻는 일상적인 정보를 기초로 대일정책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倭館은 조선 및 중국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창구인 동시에 일본 정보가 들어오는 창구 역할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岩下哲典·眞榮平房昭 編, 2001, 『近世日本と海外情報』, 岩田書院 수록 米谷均, 「對馬口における朝鮮中國情報」, 113쪽 이하 참조. 기타 허지은, 2008, 『近世 쓰시마 朝鮮語通詞의 정보수집과 유통』,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강일, 2008, 4, 「조선후기 倭館의 정보수집에 관한 연구 - 『分類紀事大綱』 25 風說之事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9집 참조.

4) 倭館은 조선의 수출품이 나가는 창구인 동시에 수입품이 들어오는 창구였다. 특히 조선에서 생산되지 않는 丹木과 물소뿔은 倭館을 통한 수입이 중요한 루트였으며, 일본산 구리와 유황 역시 무기와 화폐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이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물품을 들어오는 창구로서 倭館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館 운영과 관련된 雜役의 발생과 운영 경비의 조달, 중앙으로의 무역세(왜관개시에서 발생한 세액) 상납 등 동래부 재정 운영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 ③ 동래부사와 경상감사, 예조관원, 통신사의 상관관계를 밝힌 논문(장순순, 2008, 「조선후기 通信使行의 인적구성과 對日外交의 특질-三使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1).
- ④ 동래부와 倭館의 교류가 동래 지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양홍숙, 2009, 『조선후기 동래 지역과 지역민 동향-왜관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는 동래부와 왜관의 교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동래부의 지역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밝힌 종합적인 연구이다.
- ⑤ 동래부와 倭館(館守)이 일상적으로 교섭에 임했던 과정에서 생산된 「實務文書」를 분석한 연구(이훈, 2007, 「조선후기 東萊府와 倭館의 의사소통-兩譯관련 「實務文書」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제27집). 이는 양국의 의사소통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연구이다.

이상이 동래부사와 관련된 주요한 연구들인데, 대개의 연구가 왜관과 관련하여 동래부사를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성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동래부 및 동래부사 연구에서 미진한 점을 밝혀 보고자 한다.

첫째, 동래부사의 관력을 조사하여 어떤 인물이 동래부사를 역임했는지 밝히고, 이들이 동래부사 이후 어떤 관직으로 나갔는지 알아볼 것이다.

둘째, 동래부의 대일 외교비용을 분석하여 근세 후기 대일외교의 실상을 파악해 볼 것이다.

셋째, 동래부사의 외교 상대로서 관수가 타당한지 여부를 분석할 것이다.

II. 東萊府와 東萊府使

1_ 동래부사 및 대일 외교라인의 官歷

동래 지역은 원래 東萊縣이었다. 그러나 일본 사신이 왕래하는 관문으로서 義州와 같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명종 2년(1547) 재상 李苞의 건의에 따라 都護府로 승격하고 문무당상관(정3품)을 부사로 임명하였다.⁵⁾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동래가 가장 먼저 왜군의 수중에 떨어지자 정부에서는 패전지라는 이유로 도호부에서 縣으로 降號시켰다. 선조 32년(1599)에는 동래현을 다시 동래도호부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堂上武官을 府使로 임명하고 判官을 두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일 국교가 재개됨에 따라 선조 34년(1601)에는 동래부에 문관직 부사를 임명하고 판관 제도를 없앴다.⁶⁾

동래부는 경상도에 있던 14개 都護府 중의 하나이며,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던 동래도호부사는 보통 동래부사라고 불렸다. 『大典會通』 吏典 外官職條에 따르면 도호부사는 종3품 당하관이 임명되었으나 동래부사는 다른 도호부사와 달리 문관 정3품의 당상관이 임명되었다.⁷⁾ 동래부사 趙存性 때는 처음으로 義州府尹의 관례에 의거하여 왜인들의 情狀에 관계되는 일이면 경상감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왕에게 狀啓하라는 권한이 주어졌다.⁸⁾ 이는 왜

5) 『韓國近代邑誌』 14, 慶尙道 8, 東萊郡誌 「建置沿革」; 『증정교린지』 제3권 勿禁牌式 「茶禮儀」, 115쪽 참조.

6) 위의 책 「建置沿革」, “宣祖朝降爲縣令, 復升爲府使, 置判官遣文臣堂上建節廢判官, 復陞府使.”

7) 『經國大典』 吏典 外官職 慶尙道條에는 영덕·경산·동래·고성·거제·의성·남해에 종5품 현령을 둔다고 되어 있다. 『大典會通』 卷之一, 吏典 外官職 慶尙道條에는 都護府使 14인을 두며, 종3품이고, 東萊는 縣令에서 都護府로 승격한다고 되어 있다.

8) 『광해군일기』 중초본, 2년(1610) 9월 5일, 직계한 후 동래부사는 경상감사에게 따로 보고하여 경상감사도 왜관의 일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직계할 수 있는 사안은 보고 시일을 단축할 수 있는 倭情에 국한하였고, 다른 사안을 직계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

정을 매우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다. 동래부사는 年例送使, 差倭 등 일본 사절이 오면 京·鄕接慰官 및 부산첨사와 함께 접대에 참여하였고, 대마도 사절이 왜관에 도착한 다음부터 돌아갈 때까지의 모든 진행과정을 경상감사를 통해서 중앙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회답을 받으면 다시 왜관에 전달하였다.

17세기 초반까지는 동래부사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았다. 대마도에서 사절이 오면 경상감사가 직접 동래로 내려가 대마도 사절과 교섭에 임했으며, 조정에서 宣慰使가 파견되어 사절을 접대하고, 사절이 가져온 예단을 看儉하는 것도 선위사와 경상감사가 직접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관이 30년 이상 동래부에 존속하면서 동래부사의 지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642년부터 吏曹가 아닌 備邊司에서 동래부사를 천거하기 시작하면서 동래부사의 선정이 한층 강화되었다.⁹⁾ 문관 인사권을 가진 이조에서 동래부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 동래부사를 선정할 때마다 이조에서 비변사에 추천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개진한 후 중요 당상들이 모인 비변사에서 동래부사를 추천하였다. 그 이유로는 이 무렵에 처음으로 대마도에서 두모포왜관을 이전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변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한 조선 조정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동래부사의 선정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¹⁰⁾

두모포왜관 때는 1600년(선조 33) 10월 李馨郁이 부임한 이래 1676년(숙종 2) 7월 李馥의 부임까지 55명의 동래부사가 근무하였다.¹¹⁾ 초량왜관 시기에는 1679년(숙종 5) 2월 李瑞雨가 부사로 부임한 이래 1872년(고종 9) 9월 메이

었다고 한다. 양홍숙, 2009, 『조선후기 東萊 지역과 지역민 동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8쪽

9) 장순순, 2008, 「조선후기 왜관에서 발생한 朝日 양국인의 물리적 마찰 실태와 처리」,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제31호

10) 장순순, 2008, 위의 논문 참조.

11) 두모포왜관 때의 동래부사 명단과 임기는 양홍숙, 2009, 앞의 책, 59쪽 <표 6>과, 양홍숙, 2008, 「17세기 두모포왜관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와 지방관의 역할」, 『한국민족문화』 31(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5쪽에서 자세히 분석하였다.

지 정부가 초량왜관을 강제로 점령할 당시의 동래부사인 鄭顯德까지 모두 148명이 근무하였다. 따라서 두모포왜관 때부터 초량왜관이 강제로 점거되는 1872년까지 272년 사이에 모두 203명의 부사가 근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말미에 첨부한 도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관제에는 중앙직과 지방직 모두 일정한 임기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관의 임기를 瓜滿 또는 瓜期·瓜限이라 하고, 瓜滿으로 교체되는 경우를 瓜遞라고 하였다.¹³⁾ 이 규정에 따르면 동래부사는 당상관인 동시에 未挈家首領이므로 임기가 900일(2년 6개월)이지만, 초량왜관 시기의 동래부사는 평균 임기가 12.65개월에 불과하다.¹⁴⁾ 이 시기의 동래부사 148명 중에서 임기를 모두 마치고 이임한 부사(瓜遞)는 불과 12명뿐이며(8.11%), 2년 6개월의 임기 중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임한 부사가 56명(37.84%)이므로 대부분의 부사는 임기 도중에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래부사가 교체되는 원인은 크게 나누어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는 경우(瓜遞), 범죄로 파직당하는 경우(罪遞, 被拿), 질병 또는 재임 중 사망으로 그만두는 경우(病遞, 卒逝), 기록상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遞, 辭遞)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질병 또는 사망으로 교체된 경우는 6건(4.05%)뿐이며, 수령으로서의 업무상 과실 또는 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당한 경우는 47건(37.16%)이

12) 메이지 정부가 초량왜관을 강제로 점령한 이후에도 동래부사는 계속 대일업무에 종사했으며, 1910년(순종 4) 8월 東萊府尹兼監理 金彰漢이 사직할 때까지 28명의 동래부사(부윤)가 근무하였다. 본 논고에서는 두모포에서 초량으로 왜관을 옮긴 이후부터 1872년 9월 초량왜관이 점령당할 때까지를 초량왜관 시기로 보고, 이 시기에 재임했던 동래부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조선전기의 삼포왜관 시기, 입탄 이후의 두모포왜관 시기, 1876년 개항 이후의 왜관(일본인 전관거류구역)은 각 시기에 따라 동래부사의 역할, 왜관 현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래부사의任免 사유도 다를 수 있다. 초량왜관 시기는 조·일 간에 ‘평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며, 다른 시기의 왜관보다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조일 교류가 이루어진 시기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13) 『經國大典』卷1 吏典 外官職條

14) 위의 주 8) 참조. 양홍숙의 연구에 따를 때 두모포왜관 시절 동래부사의 평균임기는 16.75개월이므로 초량왜관 시절의 동래부사의 임기는 4개월 정도가 짧아졌다.

다. 나머지는 교체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없다.¹⁵⁾

징계사유(37.16%) 중에서 일반적인 범죄, 또는 수령의 직무태만 내지 직무상 과실로 파직된 경우(罪罷, 被拿, 京罷)는 20건(13.51%)이며, 대외외교(邊情)와 관련된 교섭을 잘못했거나 倭情 보고와 관련하여 파직된 경우는 35건(23.65%)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4할에 가까운 동래부사가 갖가지 원인으로 징계를 받고 임기가 만료되기도 전에 교체되었으며, 징계 원인으로서는 倭情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아 23.65%에 달했다.¹⁶⁾ 그 이유는 대외외교와 무역이 이루어지는 동래부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¹⁷⁾

대일 외교업무는 왜관에서 일본인을 직접 접촉하는 역관에서부터 동래부사(부산첨사) ↔ 경상감사 ↔ 중앙 부서(禮曹) ↔ 국왕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15) 『東萊郡誌』, 『慶尙南道輿地集成』 등의 사료에는 교체 사유가 ‘遞’, ‘辭遞’로 간략히 기록되어 있어서 무슨 이유로 교체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縉紳外任案』에는 동래부사의 성명 아래 到任日字만 기록되어 있어서 전임지와 후임지는 물론 교체 이유조차도 알 수 없다. 辭遞의 이유에 대하여 “…… 守令이 外職에 오래 있게 되면 중앙에서의 진출의 기반을 닦기가 어렵고, 監司의 계속적인 감독과 암행어사의 부정기적인 감찰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在京 臺官의 탄핵을 받기가 일쑤이며, 또 매우 까다로운 監司의 考績이 자주 행하여지는 까닭에 영달의 야망을 품고 있는 수령들이 대개 수령직을 기피하고 있었기 때문” 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원균, 1979, 「조선시대 수령직 교체실태」, 『釜大史學』 제3집, 73쪽 참조.

16) 이 수치는 『東萊郡誌』, 『慶尙南道輿地集成』 등의 사료에 기록된 수치일 뿐이며, 『實錄』, 『備邊司謄錄』, 『日省錄』 등에 기록된 경우를 추가하면, 倭情과 관련하여 처벌된 동래부사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경정할 만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양홍숙, 2009, 앞의 책, 53쪽 참조.

17) 선행연구 중에는 1506~1897년까지 동래부사에 임명된 사람은 260명 미만이었는 데, 대략 6명에 1명꼴로 왜관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Louis James, 1996, 「朝鮮後期 釜山 倭館의 記錄으로 본 朝日關係 - 폐_성가심(迷惑)에서 상호이해로」, 『한일관계사연구』 제6집, 145쪽 이하 참조). 초량왜관 시대에는 倭情과 관련하여 처벌된 동래부사가 지방관으로서의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로 파직되는 경우보다 더 많다(148명 중에 35명이므로 대략 4.2명 중에 1명 꼴로 倭情과 관련하여 파직되었다). 그러나 조선전기부터 왜관이 강제로 접수되기까지 400여 년에 이르는 동래부사의 처벌 사례를 일률적으로 파악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임란 전의 동래부와 이후의 동래부, 두모포왜관과 초량왜관 시기에 따라 동래부사의 역할, 왜관 현황 등에 따라 동래부사의 교체사유도 다르기 때문이다.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이에 걸맞는 보고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일 간에 외교사안이 발생하면 동래부는 경상감영에 보고하고, 동래부사의 장계를 받은 경상감사는 여기에 감사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여 새로운 장계를 다시 꾸며서 중앙 부서로 보냈다. 따라서 경상감사에는 대일업무의 경험이 있는 동래부사 출신을 임명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러나 초량왜관 시기에 경상감사를 역임한 사람은 모두 141명이었는데, 동래부사를 그만둔 후 대일 외교라인의 상급관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감사로 陞任한 경우는 모두 17명뿐이었다(148명 중 11.49%). 중앙 관청 중에서 대일외교의 실무 부서라고 할 수 있는 禮曹로 이임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결국 대일 외교라인의 인사에서 前任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後任地를 결정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대일외교의 최일선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동래부사의 잦은 교체와, 대일외교 경험이 없는 인물이 경상감사에 임명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점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조선시대에 대일외교를 담당했던 관료의 전문성은 그다지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_ 동래부의 왜관 관리비용

동래 지역으로 건너오는 일본 사신들은 모두 왜관에 머물기로 되어 있었다. 이들이 왜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己酉約條에 명시되어 있는데, 대마도주의 特送使는 110일, 歲遣船을 타고 오는 왜인은 85일, 각종 差倭는 55일, 大差倭는 60일, 裁判倭는 체류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무한정이었다.

왜인들은 왜관에 체류하는 동안 조선정부로부터 몇 차례 宴享을 받았음은 물론, 지위에 따라 날마다 일정량의 식료품과 어물·과일·술 등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관내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 밖에도 날마다 정해진 수량의 柴炭을 지급했고, 임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배에서 먹을 양식인 過海糧까지 지급하였다.¹⁸⁾ 이와 같은 대마도의 정규사절 외에 조선 연해 각지에 표

18) 過海糧은 대마도인에게는 5일간의 양식을 주고, 도주특송인에게는 5일간의 양식

착하는 왜인들(漂倭)에게도 본국으로 송환할 때 표착한 배 1척에 대하여 쌀 2섬, 표왜 1명당 옷감으로 무명 1필씩을 지급하였다.

또한 동래부에는 특별히 釜倉色·日供色·支待色 등의 담당 계원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부산진성 안에는 釜倉·支待庫·公木庫·日供庫·公米庫 등의 창고가 있어서 왜인 접대에 소요되는 각종 물화의 價米와 錢貨를 보관하고 있었다.¹⁹⁾ 釜倉에는 매년 쌀 2,670섬 11말 9되 1홉 3작과 콩 822섬 8말 6되를 저장했다가 연례송사왜와 별차왜의 料米로 지출했는데, 남는 것이 생기면 倉錄하고, 모자랄 때는 大同庫에서 加劃하기로 되어 있었다. 支待庫는 魚價의 利錢 4,217냥 2전 5푼을 淵海 각 고을에 분급하고, 매년 이자 800냥을 받아서 왜인에게 베푸는 宴享에 필요한 物種을 책임지고 공급하였다. 公木庫는 매년 公木 1,121동 44필 32척 3촌을 수장하고 이것을 왜인에게 지급했으며, 효종 2년(1651)부터 일본인들의 요청에 따라 그중 600동은 인삼으로 바꾸어 지급하고, 321동 44필 33척 3촌은 현물로 지급하였다. 日供庫는 왜관에 체류하는 일본인에게 날마다 제공하는 물품을 공급하던 곳이며, 魚價米 937섬 7말 8홉과 매년 납입하는 양이 정해져 있는 각 고을의 作米 579섬 3되 4홉 4작, 鷹價米 420섬 10말, 雜種物價米 91섬 4말 4되를 수장하고 있었다. 貢米庫는 公作米 16,000섬을 매년 각 고을에서 징수하여 왜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동래부에서 지출한 왜관 유지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練藜室記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²⁰⁾

……차왜가 옛날 견본으로 표준을 삼아 전 수량을 물리쳐 우리로 하여금 다른 물건과 바꾸어 주기 어렵게 해 놓은 뒤에, 드디어 말하기를, “도주(島主)의 말이 축전주(築前主)는 달리 살아갈 길이 없으니, 그중에 무명 3백 동(同)은 1필(匹)당 쌀 12두(斗)로 환산하여 특별히 5년 동

을 더 주고, 국왕사에게는 20일간의 양식을 준다. 『국역 증정교린지』 제4권 「약조」, 129쪽

19) 東萊鄉校, 1937, 『東萊郡誌』 卷1-2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자료 이용, 청구기호 한古朝62-153)

20) 『燃藜室記述』 別集 제18권, 邊圉典故 西邊 「倭國」

안 바꾸어 주기를 허락할 것을 원한다.” 고 하므로 문서를 작성하여 서로 약속하였다. 경자년에 차왜 등이 다시 무명을 그전 견본대로 하자고 함부로 떠들며 위협하므로, 조정에서 1백 동을 더하여 모두 4백 동을 쌀로 환산하여 도합 1만 6천 석이 되고, 공무역의 무명의 수도 4만 7천 필이나 많은 수량에 이르니, 경상도에서 들어오는 세금의 절반이 왜인 접대 비용에 다 쓰였다.

대마도의 토지는 돌이 많고 흙이 적어서 오곡(五穀)이 되지 않고, 오직 구맥(瞿麥)만 심을 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칩뿌리와 고사리뿌리를 캐어 먹으며, 도주도 세금을 삼포(三浦)에서 거두어 먹고 산다. 대마도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벼슬을 받아 호군(護軍)에 제수된 사람은 해마다 한 번씩 와서 조회하는데, 무려 배가 50여 척이며, 오면 몇 달씩 묵으며 또 격군(格軍)인 왜인의 양료(糧料)를 받아서 그 처자를 먹이니, 경상하도(慶尙下道)에 있는 미곡은 태반이 왜료(倭料)로 없어졌다.

경상도의 미곡이 절반이나 대마도로 흘러들어 갔다는 말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경상도 세금의 상당 부분이 왜인 접대비로 쓰였다는 점은 알 수 있다.²¹⁾

왜인들에 대한 접대에는 이처럼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었으며, 이러한 경비는 결국 동래 지역주민들에게서 거둬들인 것이었다. 다른 도에서 볼 수 없는 동래 지역 민중들의 과중한 부담은 결국 동래 지역 민중들의 경제생활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선왕조가 중요시했던 대일외교에서의 선린·우호도 따지고 보면 동래 지역민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21) 김양수는 豊臣秀吉 이후에 경상도 세금의 1/4에서 1/3 정도가 왜관 유지비라고 보았다. 구체적인 왜관 유지비용은 경상도 세입의 약 22.3%, 접대와 외교비용은 그 절반인 10.6% 정도로 보고 있다. 김양수, 2007, 「조선후기 譯官의 증개무역과 倭館維持費」, 역사실학회, 『역사와 실학』 32

3_ 東萊府使와 館守

대일외교에서 동래부사의 상대방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 문제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없다. 일반적으로는 왜관의 館守가 동래부사의 외교상대로 인식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마도에서 오는 서계의 대부분은 수령자가 동래부사이고, 실무상 참고인으로 부산첨사가 병기되어 있다. 따라서 대일외교에서 동래부사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동래부사가 관수와 동격의 위치에서 대일외교 업무를 수행했는지, 대마도주와 동격의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것은 통교체제와도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선후기의 대일교섭은 조선 국왕과 일본의 막부 장군, 즉 최고통치자 간에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교섭보다는 예조 관원과 對馬島主, 동래부사와 왜관의 館守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일본에서 파견되는 사절은 예외없이 예조참판과 참의, 예조좌랑 등 예조 관원과 동래부사 앞으로 보내는 書契를 지참하였다. 서계 규례에 따르면 조선 국왕 ↔ 막부 장군, 막부의 老中 ↔ 예조참판, 예조참의 ↔ 대마도주로 대응되어 있다. 즉, 대마도에서 보내는 서계의 최고 수령자는 예조참의였고, 장군 측에서 보내는 國書의 최고 수령자는 조선 국왕이었는데, 이러한 형태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관수는 외교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 측에서 관수에게 보내는 서계는 없다. 다만 조선의 훈도·별차가 실무상 참고를 위하여 자신들 명의로 관수에게 써 준 傳畵는 존재한다. 이때의 傳畵는 외교문서가 아니라 실무문서라고 한다.²²⁾ 다시 말하면, 조일 양국은 각각 통교자의 지위에 따라서 외교문서를 주고받았는데, 조선 국왕은 막부 장군, 예조참판은 막부의 老中, 예조참의는 대마도주와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

22) 이훈, 2011,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 제2부 「외교 창구 동래부·왜관의 의사소통과 「실무문서」」 참조.

대마도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건너오는 연례송사의 경우 예조참의 앞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동래부사·부산첨사 앞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을 지참하였으며, 일본국왕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대차왜의 경우 예조참판 앞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예조참의 앞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그리고 동래부사·부산첨사 앞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을 지참하였다. 그리고 소차왜의 경우는 예조참의와 동래부사·부산첨사 앞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을 지참하였다.

업무처리 면에서 볼 때, 동래부사는 중앙에서 파견된 고위 관리로서 단순히 대마도의 서계를 중앙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했던 것은 아니다. 즉, 동래부사는 징세 및 잡역 동원을 통하여 왜관 유지 및 대일외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관수는 외교적으로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대마번에 문의하고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였다. 관수제도는 1637년(인조 15) 11월에 파견된 우치노 곤베[內野權兵衛]가 그 시초라고 한다.²³⁾ 이해는 兼帶制가 시행된 해이며, 새로운 통교무역체제 아래에서 제반사가 운영되어 가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관수의 주된 임무는 왜관 내부를 통제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宗家文庫에 전하는 「館守條書」를 통해서 알 수 있다. 「館守條書」²⁴⁾는 왜관으로 부임하는 관수에게 대마번의 조선 담당 家老가 하달한 업무지침으로 관내의 규약 준수, 교역이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 조선과 북경에 관한 風說의 수집과 보고, 조선 쪽 훈도와 별차를 상대하는 문제 등 모두 17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條書에 따라 관수는 조일 교섭에서 발생하는 세세한 일까지 대마번에 알린 후 지시를 받아서 수동적으로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과의 외교 현안에 관하여 관수의 독자적인 결정권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동래부사와 관수를 동격으로 놓고 대일외교를 분석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점이 있다.

대마번에서 관수를 선발할 때는 ‘우마마와리[馬回]’ 중에서 현역의 ‘구미카

23) 田代和生, 2002,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77쪽 참조.

24) 「館守條書」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No.4616, MF00770) 『本邦朝鮮往復書』 중에 수록되어 있다.

시라[與頭] 또는 ‘오모테반가시라[表番頭]’를 뽑았다고 한다.²⁵⁾ 우마마와리는 扶持가 2인 정도 딸린 중급 무사이며 고위직은 아니다. 반면 동래부사는 정3 품으로 예조참의와 마찬가지로 당상관 반열에 드는 고위 관료이다.

조선 관리들의 인식 역시 동래부사의 외교상대는 관수가 아니며, 대마도주를 동래부사와 동격으로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숙종 45년(1719) 己亥通信使 때 제술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申維翰은 대마도에서 도주(宗義誠)와 상견례를 할 때, 도주에게 절을 해야 한다는 일본 측 통사(雨森東五郎)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이 섬은 조선의 한 고을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태수가 圖章을 받았고, 조정의 녹을 먹으며 큰 일이나 작은 일을 명령을 받으니 우리나라에 대하여 藩臣의 의리가 있다. 禮曹參議와 東萊府使와 더불어 대등하게 문서를 교환하니, 즉 그 등급이 같은 것이다.²⁶⁾

또 동래부사 韓配夏(1650~1721 재임)가 조선 여인과 간음한 관왜의 처벌 문제로 장계를 올려 조정의 회답을 구했는데, 영의정 崔錫鼎이 다음과 같이 임금께 상주하였다.

……島主는 속국의 변방 신하로서 감히 예조참판과 맞서서 예를 행하지 못하고 겨우 참의와 서찰을 통하니, 왜관에 머무는 將倭(館守) 및 裁判倭 등은 곧 도주의 差人이다.²⁷⁾

왜관에서 중대한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한 경우 동래부에서는 將校와 中軍이, 왜관 쪽에서는 禁徒倭가 입회하여 사체를 檢屍하였다.²⁸⁾ 사체 검안에는 원래 해당 지방의 수령이 입회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동래부사가 감시현장에

25) 田代和生, 2002, 앞의 책, 178쪽에서 참조함.

26) 申維翰, 「海遊錄」, 국역 『해행총재』 I, 408~409쪽 참조.

27) 국역 『전객사별등록』(I), 戊子(1708) 정월 16일

28) 『邊例集要』 권14 「雜犯」, 甲申(1704) 7월. 소통사 金銀奉을 살해하고 암장한 왜인 右衛門을 관문 밖에서 효수할 때, 동래부 中軍 및 將校를 보내 監刑하게 하였다.

나간 적은 없었다. 대마도주와 抗禮之官인 동래부사가 직접 형장에 나가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²⁹⁾ 왜관 쪽에서는 관수를 대신하여 禁徒倭가 나왔다.

아메노모리[雨森芳洲]는 오랫동안 대마번에서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했던 조선 전문가이다. 1729년(영조 5)에는 年限裁判으로 조선에 파견되기도 했으며, 경상도 사투리를 자유롭게 구사할 만큼 조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조일 간의 외교 현장에서 실제 경험을 토대로 파악한 동래부사와 관수의 지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³⁰⁾

古館 초기에는 (조선의) 역관들에게 말할 때, 동래(부사)는 사이항[裁判]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배우지 못한 소치라고도 할 수 있고, 문맹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 그 후 울릉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선의 의견은 어떠한지, 隣交와 그 밖의 여러 일들이 이번은 없겠는지 하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동래(부사)를 높이 존경하여 잘 살펴본 바, 동래(부사)는 3품의 사람이므로 도노사마[대마번주]보다 높은 지위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동래부사의 외교 상대는 대마도주였으며, 관수는 대마번의 使者 신분으로서 도주를 대리하여 조선과 대마번의 외교 현안 문제를 처리하는 지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선 국왕과 막부 장군, 예조참판과 막부 家老, 예조참의 및 동래부사와 대마도주로 대응되는 통교체제를 일목요연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 『邊例集要』 권14 「雜犯」, 己未(1739) 정월, “…… 他殺我國通事及潛商人蔘倭人·倭館門外行刑時, 館守倭, 送其禁徒與本府軍官, 眼同監刑, 館守, 不過島主之差價, 而不爲親自監刑, 使禁徒替行, 本府與島主抗禮之官, 自前送中軍替監, 似是重事體之意, 若使府使親監, 則未免館守之下舉措 ……”

30) 한일관계사학회 편, 2001, 『역주 交隣提醒』 (53) 동래부사의 지위, 國學資料院

Ⅲ. 東萊府와 倭館

동래부사의 대일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관 통제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조·일 양국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국교를 재개했는데, 당시 조선 정부가 왜관을 설치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왜관을 어떻게 지역사회와 격리시키는가 하는 점이었다. 일본인(對馬島人, 館倭)의 거주를 왜관에만 한정시키고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접촉을 막고자 노력했던 배경에는 조선 사정이 왜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린다는가³¹⁾ 미풍양속이 흐트러지는 것을 우려했던 점도 있겠지만,³²⁾ 근본적으로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더욱 커진 일본인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왜관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대마도에서 건너온 役人과 상인 등이 왜관에 장기 체류하면서 무역과 외교교섭에 임하고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400~500여 명의 대마도인들이 왜관에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³³⁾ 이들 대마도인과 조선의 역관·상인 등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갖가지 사건이 끊이지 않던 곳이 왜관이었다. 따라서 1607년 두모포왜관이 설치될 때부터 境界를 정하여 조선인들이나 館倭들이 마음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양국인의 왜관 출입에 대하여 물리적이고 법제적인 통제를 가하였다.³⁴⁾

31) 『광해군일기』(중초본) 광해 5년(1613) 3월 16일 기사, “왜인의 성격은 간사하기 그 지없습니다. 간사하고 잘달은 무리들과 몰래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정을 엿보는 것이 근래에 더욱 심해졌으니, 왜관에 거류하는 자들을 엄히 기찰하여 그 출입을 금해야 합니다. ……”

32) 『현종실록』 현종 7년(1666) 12월 15일 기사, “듣자니 왜관의 왜인이 여염집에 출입하는 것을 보통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숙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 폐단을 일체 엄금해야 할 것이니 신임 부사가 도착한 후에 항시 감시를 철저히 하여 발각되는 대로 호시하도록 하소서.”

33) 선행연구에 따르면 1678년(숙종 4) 4월 23일 豆毛浦왜관에서 초량왜관으로 이전하는 날, 館守 이하 460여 명의 대마도인이 新館에 들어갔다고 한다. 田代和生, 1983, 「草梁倭館の設置と機能」, 『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72~173쪽

34) 국역 『증정교린지』 제4권 『約條』, 129쪽; 효종 4년 계사년(1653)에 各房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을 금하기로 약조를 정했으며, 임의대로 각방에 들어가는 자는 潛商

왜관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으로는 절도·강도, 폭행, 潛商(밀무역), 일본인이 왜관 밖으로 무단히 나가거나,³⁵⁾ 조선인이 금령을 어기고 왜관 안으로 들어가서 매춘을 하는 것(交姪), 倭債(路浮稅, 밀무역 자금)과 관련한 접촉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잦은 접촉은 이따금 양국인 사이에 행패와 다툼이 일어나고 살인사건을 동반하기도 하였다.

潛商·交姪·闌出은 근세의 왜관 업무가 시작된 이래 조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통제를 가하고 禁飮을 마련했던 사건이지만 각 사건이 갖는 의미는 다르다. 交姪은 개인 간의 범죄행위에 속하는 일이며, 조선 측에서는 엄금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사건 해결에 미온적인 편이었다. 潛商은 양국 모두 재정수입(商業稅)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闌出은 禁飮의 위배라는 점에서 양국(특히 조선)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으며, 대개는 양국의 외교문제로 비화하여 조선이 禁飮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草梁으로 왜관을 옮긴 직후인 1679년에는 왜관의 東西南北에 禁標를 설정하여 대마도인들이 통행중 없이 무단으로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³⁶⁾ 1709년에는 왜관의 토담을 1.8m 높이의 돌담으로 개축하여 조선인이 왜관에 함부로 넘나드는 것을 통제하였고, 1739년에는 왜관 밖의 伏兵幕을 6군

으로 논한다고 규정하였다.

- 35) 『조선왕조실록』에는 대개 ‘闌出’로 기록하고 있으나 ‘亂出’로 쓰기도 했다(영조 31, 1755년 12월 25일에 “倭情甚狡, 每以亂出館門, 恐喝萊伯 ……”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일본 쪽 기록에서는 ‘亂出’, ‘濫出’ 등을 혼용하고 있다. 『영조실록』 영조 31년(1755) 12월 22일 4번째 기사에서는 감사 李彝章이 倭情을 논하며, “倭情은 매우 교활하여 늘 관문을 함부로 나와서 동래부사에게 공갈하므로 그 청을 모두 들어준다. ……”고 하였다(倭情甚狡, 每以亂出館門, 恐喝萊伯).
- 36) 『邊例集要』 권5 「約條」 기미(1679) 10월. 『通信使謄錄』 제4책 임술(1682, 숙종 8) 11월 30일, 「約條定奪」에는 “관문 밖의 왜인 출입의 한계는 그 경계를 엄하게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舊館(豆毛浦왜관)은 守門 밖 수십 보의 거리에 左自川이 있으므로 그 하천으로 한계를 삼았다. 新館(草梁왜관)은 守門 밖 바로 앞에 海港이 있어 그 港을 넘으면 바로 絶影島이다. 서쪽은 宴享廳에 이르는 길로 문에서 연향청까지 1馬場의 거리이다. ……”라고 되어 있다.

데로 늘려 왜관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³⁷⁾ 실제로 조선인의 경우에 왜관 출입이 특별히 허용된 역관이나 상인을 제외하고 누구든 허가 없이 왜관을 출입할 경우 ‘蘭入’ 혹은 ‘投入’, ‘潛入’이라고 하여 사형과 같은 엄벌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조일 양국 사이에 외교나 무역상 현안문제가 있을 때는 조선정부가 파견한 왜학역관(訓導·別差)이 왜관 안으로 들어가서 협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禁輸를 어기고 왜관 밖으로 뛰쳐나가 동래부로 몰려가서 동래부사를 상대로 일종의 무력시위를 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동래부에서 왜관 쪽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撤供撤市였다. 동래부의 요구에 왜관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동래부사가 가장 많이 사용한 카드는 왜관에 지급하는 잡물을 중단하고 시장을 철폐하는 것이었다.

아메노모리 호슈가 그의 저서 『交隣提醒』에서 “撤供撤市는 對馬 사람들한테는 어린애의 젖을 끊는 것과 같은 것이다”³⁸⁾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철공철시는 동래에서는 왜관에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활용하기 쉬운 카드였고, 동시에 왜관 측이 가장 우려하였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인들이 關出事件을 일으킨 원인으로는 조선 쪽의 강경한 통제에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고, 왜관 거주 일본인들의 방만한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더러는 일본인들의 무리한 요구라든가 조선 멸시관 내지 조선에 대

37) 조·일 양국의 왜관 출입에 대한 물리적이며 법제적인 통제에 대해서는 尹裕淑, 2003, 「約條にみる近世の倭館統制について」, 『史觀』 138에 상세하다.

38) 한일관계사학회 편, 2001, 역주 『交隣提醒』 (3)잡물 지급의 중지와 시장철폐(撤供撤市), 國學資料院, 19쪽. 1704년에 소통사 金銀奉이 관내에서 倭債 때문에 관외 右衛門의 칼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의 경우에도 왜관에서는 바로 범인 색출을 하지 않았다. 이에 훈도와 별차가 공식적인 범인 처벌 요구를 하기 전에 별차 吳判事가 관내에 있는 범인을 내놓지 않으면 撤供撤市한다는 전갈을 호주머니 속에 품고 있다가 보여주었고, 그 사실을 안 관수가 범인을 곧장 잡아들임으로써 사건을 신속히 해결했다고 한다.

한 우월감이 작용했을 수도 있지만, 난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조선 쪽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왜관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동래부의 役 부담이 과중하여 쌀이든 시탄이든 지급할 여유가 없었다는 구조적인 문제였다. 동래부는 임진왜란의 후유증으로 주민수에 비하여 군역이 과다한 것이 큰 폐단이였다. 동래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군역과 職役 외에 大小差倭의 접대에 따른 支供, 왜관 체류자의 日供雜物, 마련된 물자를 운송하는 운송역, 크고 작은 왜관 공사의 부역, 기타 잡다한 役이 부과되어 동래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雜役은 규모에 따라 왜관 주변 지역민의 범위를 벗어나 東萊府 지역민, 경상도민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부담은 결국 동래 주민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어 절도든 매춘이든 생활의 방편을 위하여 범법행위까지 감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흔히 말하기를 기유조약 이후 왜관이 강제로 점탈당하기까지를 '선린우호' 시대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선린우호도 동래부 인근 주민들의 막대한 희생을 바탕으로 가능했던 일이며, 250년간의 평화유지비용은 결국 동래 주민들이 부담했다고 볼 수 있다.

초량왜관은 客館·商館, 조일 간의 외교무대라는 성격이 복합된 공간이었으며, 정치적인 공간이었다. 즉, 왜관은 설립 당초부터 조선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세워졌고, 이후의 운영과 통제에서도 『경국대전』 등의 실정법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설 수밖에 없는 정치적 공간이었다. 그 이유는 왜인들과의 분쟁사건이 장기화하여 외교분쟁으로 발전할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조선 측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왜관에 대한 조선정부의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과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했는데, 격리시키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조선 쪽 사료에는 이국 생활을 하는 왜관 거류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거의 찾을 수 없으며, 왜관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와 규제는 결국 闖出·潛商·交奸·폭행사건 등의 회피책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 鎖國을 표방했던 조선에서도 어떠한 대일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왜관은 밖으로 열려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었지만 규제

일변도의 왜관 정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초량왜관은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어 왜관이 폐쇄될 때까지 198년 동안 존속하였다. 그동안 초량왜관은 국가적으로 부단한 외교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항상 주목을 받았으며, 동래 지역 입장에서는 막대한 부와 民力의 소모를 강요하는 곳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IV. 맺음말

조선후기의 동래 지역은 ‘東萊乃南藩重地’였고, ‘倭人接待之事本府專堂’으로서 중요시되는 외교와 국방의 요충지였다. 따라서 동래부사를 선발할 때는 문관 인사를 담당하던 禮曹가 아니라 備邊司에서 관여했으며, 다른 지역의 도호부사와는 달리 당상관을 임명하였다.

대일 외교업무는 왜관에서 일본인을 직접 접촉하는 譯官에서부터 동래부사(부산첨사) ↔ 경상감사 ↔ 중앙 부서 ↔ 국왕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동래부사는 한 지방을 책임지는 목민관으로서, 일반적인 업무 외에 대일외교 라인의 최일선에 서서 대마도와의 외교문제를 처리하고 왜관을 관리하였다.

17세기 초반까지는 동래부사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사절이 오면 경상감사가 직접 동래로 내려와 일본 사절과 교류했으며, 조정에서 宣慰使가 파견되어 사절을 접대하고, 사절이 가져온 예단을 看儉하는 것도 선위사와 경상감사가 직접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관이 30년 이상 동래부에 존속하면서 동래부사의 위치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642년부터 吏曹가 아닌 備邊司에서 동래부사를 천거하기 시작하면서 동래부사의 임명이 한층 강화되었다. 그 이유로는 이 무렵 일본에서 처음으로 두모포 왜관의 移館 건의가 있었고, 변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으로 파

악한 조선 조정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동래부사의 선정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동래부사 임기는 원칙상 900일(2년 6개월)이었는데, 두모포왜관 시기에 동래부사 임기는 평균 16.75개월이고, 초량왜관 시기는 12.65개월이었다. 따라서 임기를 모두 마치고 이임하는 경우보다는 임기 전에 파직 또는 이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량왜관 시기에 동래부사에서 경상감사로 승진한 경우는 17명 뿐이며, 동래부사 이임 후 대일외교의 중앙 부서인 禮曹로 이임한 경우는 없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조선시대 대일 외교라인의 인사는 前任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後任地를 결정했던 것은 아니며, 대일외교 경험이 없는 인물이 경상감사에 임명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점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조선시대에 대일 외교를 담당했던 관료의 전문성은 그다지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이후 동래 지역의 국방이 강화된 결과 동래 지역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군역과 職役 부담이 늘어났다. 그 밖에도 왜관 유지비용으로 大小差倭의 접대에 따른 支供, 왜관 체류자의 日供雜物, 마련된 물자를 운송하는 운송역, 크고 작은 왜관 공사의 부역, 기타 잡다한 役이 부과되어 동래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雜役은 규모에 따라 왜관 주변 지역민의 범위를 벗어나 경상도민 전체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부담은 결국 동래 주민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어 절도든 매춘이든 생활의 방편을 위하여 범법행위까지 감행하게 되었다. 기유조약 이후 250년간에 걸쳐 계속된 '선린우호'의 시대도 동래부 인근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가능했던 일이며, 250년간의 평화유지비용은 결국 동래 주민들이 부담했다고 볼 수 있다.

초량왜관은 1876년에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왜관이 일본인들의 전관거류 구역이 될 때까지 198년 동안 존속하였다. 그동안 초량왜관은 국가적으로 부단한 외교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항상 주목을 받았으며, 동래 지역의 입장에서 막대한 부와 民力の 소모를 강요하는 곳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후기의 대일교섭은 조선 국왕과 일본의 막부 장군 사이에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교섭보다 예조관원과 對馬島主, 동래부사와 왜관의 館守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서계의 규례에 의하면 예조참의 ↔ 대마도주, 將軍의 서계(막부의 老中) ↔ 예조참판으로 대응되어 있다. 즉, 대마도에서 보내는 서계의 최고 수령자는 예조참의였고, 장군 측에서 보내는 서계의 최고 수령자는 예조참판이었으며, 관수는 외교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 측에서 관수에게 보내는 서계는 없다. 다만 조선의 훈도·별차가 실무상 참고를 위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관수에게 써 준 傳書는 존재하는데, 이때의 傳書는 외교문서가 아니라 실무문서이다.

『海遊錄』·『邊例集要』 등의 사료에 나타난 조선 관리들의 인식 역시 동래부사와 대마도주를 동격으로 취급한 것으로 보이며, 조선 전문가인 아메노모리 호슈 역시 동래부사는 3품의 사람으로서 대마번주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동래부사의 외교 상대는 대마도주였으며, 관수는 대마번의 使者 신분으로 조선과 대마번의 외교 현안문제를 도주를 대리하여, 도주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지위에 불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선 국왕과 막부 장군, 예조참판과 막부 家老, 예조참의 및 동래부사와 대마도주로 대응되는 통교체제를 일목요연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록〉

동래부사 명단과 임기(草梁倭館)

* 『東萊郡誌』, 『慶尙道先生案』, 『韓國近代邑誌 14, 慶尙道 8』, 『東萊郡誌』, 『慶尙南道輿地集成』, 『縉紳外任案』 등을 참고하여 만든 도표이다. 인명이나 임기 등 불분명한 사항은 實錄에 따라 보정하였다.

연번	수령 이름	임기	교체이유	재임
1	이서우(李瑞雨)	1679. 2.~1680. 6.	臺官 탄핵으로 파직(臺罷), 경상감사 역임	16
2	조세환(趙世煥)	1680. 6.~1681. 2.	전라감사 除授	8
3	남익훈(南益熏)	1681. 2.~1683. 4.	밀양부사에서 승진, 朝辭 생략 후 부임, 呈遞	26
4	소두산(蘇斗山)	1683. 4.~1684. 8.	辭遞	16
5	박치도(朴致道)	1684. 8.~1685. 9.	동래부 장계로 파직	13
6	유지발(柳之發)	1685. 9.~1686. 4.	동래부 推考에 착오가 과중하여 파직	7
7	이항(李沆)	1686. 4.~1688. 1.	差倭書契에 대한 조정의 회답문제로 京罷	21
8	이덕성(李德成)	1688. 1.~1689. 4.	病遞	15
9	박신(朴紳)	1689. 4.~1690. 7.	왜관 잡임 여인을 즉시 잡지 못한 일로 파직	15
10	남후(南垺)	1690. 7.~1690. 8.	卒逝	1
11	이형상(李衡祥)	1690. 9.~1691. 7.	청주목사에서 승진, 朝辭 생략 후 부임	10
12	김홍복(金洪福)	1691. 7.~1692. 10.	定州목사에서 승진, 左兵使와 相詰하다가 被拿	15
13	손만웅(孫萬雄)	1692. 10.~1693. 5.	淸州목사에서 승진, 朝辭 생략 후 부임, 교체됨	7
14	성관(成瓘)	1693. 5.~1694. 4.	執義에서 승진, 부산진에 표류해 온 왜인을 잃어버린 일로 被拿	11
15	한명상(韓命相)	1694. 4.~1694. 5.	曾子를 문묘에서 黜享(삭제)하려는 유림의 소청에 휘말려 교체	1
16	이희용(李喜龍)	1694. 9.~1696. 11.	呈遞	26

연번	수령 이름	임기	교체이유	재임
17	이세재(李世載)	1696. 11.~1698. 1.	持平에서 승진, 1697년 8월 왜인이 仙庵에 난입한 일(東平行一件)로 被拿, 경상감사 역임	14
18	박권(朴權)	1698. 1.~1698. 9.	承旨에서 除拜되어 부임, 5월에 왜인 1인이 변복하고 읍내에 잠입한 일로 파직, 경상감사 역임	8
19	조태동(趙泰東)	1698. 9.~1699. 7.	校理에서 승진, 病遞, 경상감사 역임	10
20	정호(鄭浩)	1699. 7.~1700. 6.	校理에서 승진, 1700년 5월 啓聞없이 新銀을 사용한 일로 被拿	11
21	김덕기(金德基)	1700. 6.~1701. 9.	呈本道遞	15
22	박태항(朴泰恒)	1701. 11.~1703. 4.	獻納에서 승진, 1703년 3월 왜인이 사기그릇 제조허가를 갱신하여 다시 제조할 수 있도록 요청한 일, 죽은 왜인의 유물에 대해 회답문서를 발급하지 않고 물건 먼저 내준 일, 도해 중 익사한 자의 친척이 왜관에 난입한 일 3건으로 被拿	17
23	이야(李壘)	1703. 4.~1705. 2.	안동부사에서 부임, 충청감사 除授, 경상감사 역임	10
24	황일하(黃一夏)	1705. 2.~1706. 10.	承旨에서 除拜, 전직이 臺官이라는 이유로 파직	20
25	한배하(韓配夏)	1706. 10.~1709. 1.	弼善에서 陞拜, 瓜遞	27
26	권이진(權以鎭)	1709. 1.~1711. 4.	茂長현감에서 승진, 朝辭 생략 후 부임, 瓜遞, 경상감사 역임	27
27	이정신(李正臣)	1711. 4.~1712. 10.	應教에서 승진, 病辭	18
28	이명준(李明浚)	1712. 11.~1715. 3.	敎理에서 승진, 卒逝	28
29	권수(權綏)	1715. 4.~1715. 9.	宴享에 기생이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장계에 임금의 御諱를 잘못 적은 일로 京罷	5
30	김시환(金始煥)	1715. 9.~1716. 5.	輔德에서 승진, 丙申遞	8
31	한중희(韓重熙)	1716. 5.~1717. 6.	어사의 장계로 被拿	13

연번	수령 이름	임기	교체이유	재임
32	조영복(趙榮福)	1717. 10.~1718. 윤8.	司僕正에서 승진, 부친의 병으로 進達 후 교체, 1725년 경상감사 陞任	11
33	서명연(徐命淵)	1718. 윤8.~1719. 8.	潭陽부사에서 승진, 己亥遞	13
34	정형익(鄭亨益)	1719. 12~1720. 7.	金堤군수로 문과장원급제 후 품계를 올려 부임	7
35	윤석래(尹錫來)	1720. 10.~1722. 6.	同副承旨에서 除拜, 瓜還	18
36	박내정(朴乃貞)	1722. 7.~1724. 3.	執義에서 승진, 甲辰遞	20
37	윤유(尹游)	1724. 3.~1724. 9.	吏曹佐郎에서 승진, 전직 臺官이라는 이유로 臺罷	6
38	조석명(趙錫命)	1724. 10.~1725. 7.	執義에서 승진, 전직 臺官이라는 이유로 관직삭탈 후 파직	9
39	이중협(李重挾)	1725. 7.~1726. 12.	修撰에서 승진, 丙午遞	17
40	이의천(李倚天)	1726. 12.~1727. 7.	靈光군수에서 이임, 丁未遞	7
41	최영세(崔榮世)	1727. 7.~1728. 2.	안동부사에서 부임, 別騎衛로 역마를 빌려줄 때 능히 살피지 못한 일로 파직	7
42	권부(權孚)	1728. 2.~1728. 5.	掌書에서 승진, 동년 臺遞	3
43	민응수(閔應洙)	1728. 5.~1729. 5.	경상감사 陞任	13
44	이광세(李匡世)	1729. 5.~1730. 10.	安邊부사에서 승진, 水營 水師와 관직을 비교하고 다툼 일로 파직	17
45	정언섭(鄭彦燮)	1730. 10.~1733. 4.	文學에서 승진, 瓜遞	30
46	정래주(鄭來周)	1733. 4.~1734. 1.	寧海부사에서 이임, 병이 심하여 臺官 장계로 교체	9
47	이흠(李滄)	1734. 5.~1734. 8.	舍人에서 승진, 驛馬를 규정보다 과다하게 차출한 일로 被拿	3
48	최명상(崔命相)	1734. 8.~1736. 4.	持平에서 승진, 丙辰卒	20
49	오명서(吳命瑞)	1736. 6.~1738. 1.	承旨에서 除拜, 臺官 상소로 被拿	19
50	구택규(具宅奎)	1738. 1.~1738. 9.	長湍부사에서 이임, 臺官 상소로 교체	8
51	정형복(鄭亨復)	1738. 9.~1739. 8.	校理에서 승진, 別騎衛가 試射하는 일로 左兵使와 다투다가 被拿	11

연번	수령 이름	임기	교체이유	재임
52	박사창(朴師昌)	1739. 8.~1741. 1.	동래부와 왜관 정비, 『東來府誌』 편찬, 파직	17
53	김석일(金錫一)	1741. 3.~1742. 9.	辭遞	18
54	정이검(鄭履儉)	1742. 9.~1743. 6.	運米監官 田雨章의 공작미 逋欠 문제가 드러나 徒3년 유배	9
55	김한철(金漢喆)	1743. 6.~1744. 12.	田雨章의 공작미 포함사건을 경상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파직. 1747년 大司諫에 발탁, 도승지·이조참판·경기감사·함경감사 등 역임	18
56	심약(沈錫)	1744. 12.~1746. 8.	差倭의 所請을 잘못 처리한 일로 被拿	20
57	홍중일(洪重一)	1746. 8.~1747. 8.	大司諫으로 승진	12
58	김상중(金尙重)	1747. 8.~1747. 12.	倭人節目問事 被拿	4
59	민백상(閔百祥)	1747. 12.~1749. 1.	경상감사로 陞任	13
60	정권(鄭權)	1749. 1.~1749. 6.	承旨로 이임	5
61	황경원(黃景源)	1749. 6.~1750. 4.	瓜滿 遞差	10
62	조재민(趙載敏)	1750. 7.~1751. 6.	辭遞, 승지로 이임	11
63	신위(申暉)	1751. 6.~1753. 4.	예단삼 문제로 남해현 定配	22
64	이이장(李彝章)	1753. 4.~1754. 1.	장단부사에서 부임, 동래부사에서 경상감사로 승임	9
65	임상원(林象元)	1754. 1.~1755. 12.	公作米年限裁判差倭事 拿命	23
66	이유신(李裕身)	1755. 12.~1756. 10.	規外大差倭出來 狀違事 被拿	10
67	홍중효(洪重孝)	1756. 12.~1757. 7.	査定御使에서 발탁, 차왜문제로 거제 정배, 석방 후 대사간으로 승진	7
68	조엄(趙嚴)	1757. 12.~1759. 1.	교리, 충청도어사, 호서어사를 거쳐 동래부사 도임, 경상감사 陞任	13
69	심발(沈爕)	1759. 1.~1759. 8.	승지에서 부임, 滯商 문제로 파직	7
70	홍명한(洪名漢)	1759. 9.~1761. 9.	승지에서 부임, 이조참의 승진	24
71	권도(權善)	1761. 9.~1762. 9.	利城현감에서 부임, 倭宴不參 문제로 被拿	12

연번	수령 이름	임기	교체이유	재임
72	정만순(鄭晩淳)	1762. 9.~1763. 12.	승지로 이임	15
73	송문재(宋文載)	1763. 12.~1764. 8.	승지에서 부임, 差倭문제로 귀양	8
74	강필리(姜必履)	1764. 8.~1766. 11.	差倭의 譯官護行 건의로 삭직, 대사간 역임	27
75	엄인(嚴璘)	1766. 11.~1768. 4.	승지에서 부임, 대사간으로 승진	17
76	이명식(李命植)	1768. 4.~1769. 5.	승지, 이조참의. 대사간에서 경상감사 到任	13
77	이재간(李在簡)	1769. 5.~1770. 5.	황해감사 승진	12
78	이보관(李普觀)	1770. 5.~1771. 7.	승지에서 도임, 對馬島 사정을 馳問한 일로 被拿	14
79	박사눌(朴師訥)	1771. 7.~1772. 6.	대사간에서 부임	11
80	이석재(李碩載)	1772. 6.~1773. 8.	대사간으로 이임	14
81	이택수(李澤遂)	1773. 8.~1774. 6.	松羅察訪에서 부임	10
82	김제형(金悌行)	1774. 8.~1776. 7.	승지에서 부임, 逆黨으로 몰려 파직	23
83	유당(柳戇)	1776. 8.~1777. 9.	동부승지에서 부임,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임	13
84	임정원(林鼎遠)	1777. 9.~1778. 9.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임	12
85	이치중(李致中)	1778. 10.~1780. 1.	광주부윤을 거쳐 부임, 차왜문제로 파직	15
86	이문원(李文源)	1780. 1.~1780. 8.	예조참의에서 경상감사 除授	7
87	윤사국(尹師國)	1780. 9.~1781. 1.	八送使 정지 요청 건으로 因御使 書啓 被拿	4
88	조영진(趙英鎭)	1781. 2.~1781. 12.	사간원 대사간에서 부임, 送使 문제로 파직	10
89	이병모(李秉模)	1782. 1.~1782. 7.	동부승지에서 부임, 경상감사 역임	6
90	이양정(李養鼎)	1782. 7.~1783. 6.	公作米와 炭庫布 문제로 先罷被拿	11
91	이의행(李義行)	1783. 7.~1784. 8.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임	13
92	이이상(李頤祥)	1784. 10.~1785. 12.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임	14
93	홍문영(洪文泳)	1786. 2.~1786. 12.	秋應德 구타치사사건으로 파직	10
94	민태혁(閔台爌)	1786. 12.~1787. 2.	交奸事件에서 장계를 고쳐 쓴 일로 京罷	2

연번	수령 이름	임기	교체이유	재임
95	이경일(李敬一)	1787. 2.~1788. 9.	釜倉逋欠件 拿罷	19
96	김이희(金履禧)	1788. 10.~1791. 2.	瓜遞,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임	28
97	유강(柳綱)	1791. 3.~1792. 6.	貶罷,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임	15
98	윤필병(尹弼秉)	1792. 7.~1795. 3.	승지에서 부임, 瓜遞,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임	32
99	윤장렬(尹長烈)	1795. 3.~1796. 12.	玉浦倭學事 拿罷	21
100	정상우(鄭尙愚)	1796. 12.~1798. 5.	사간원 대사간에서 부임, 이조참의로 이임	17
101	김달순(金達淳)	1798. 6.~1799. 5.	형조참의에서 부임, 호조참판으로 이임	11
102	김관주(金觀柱)	1799. 5.~1800. 7.	동부승지로 이임	14
103	한치응(韓致應)	1800. 7.~1802. 6.	승지를 거쳐 개성유수 역임	23
104	서유련(徐有鍊)	1802. 6.~1803. 윤2.	禮單蓼 문제로 被拿	9
105	정만석(鄭晩錫)	1803. 윤2.~1806. 1.	경상우도 암행어사를 거쳐 부임, 公忠道 관찰사 移拜, 경상감사 역임	36
106	오한원(吳翰源)	1806. 2.~1809. 2.		36
107	윤노동(尹魯東)	1809. 5.~1812. 4.		35
108	김노응(金魯應)	1812. 4.~1812. 7.	성균관 대사성에서 부임, 경상감사로 陞任	3
109	조정철(趙貞喆)	1812. 8.~1813. 5.	충청감사로 이임	9
110	홍수만(洪秀晩)	1813. 5.~1816. 2.	승지에서 부임, 瓜遞, 성균관 대사성 역임	33
111	조봉진(趙鳳振)	1816. 4.~1817. 10.	강원감사로 이임	18
112	박기수(朴綺壽)	1817. 9.~1820. 2.	瓜遞,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임	29
113	이화(李瑋)	1820. 3.~1821. 2.	松禁 파직	11
114	이덕현(李德鉉)	1821. 3.~1822. 8.	경상좌도어사 장계로 파직, 사간원 대사간 역임	17
115	이규현(李奎鉉)	1822. 8.~1824. 윤7.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임	24
116	이로(李潞)	1824. 9.~1825. 4.		7
117	이항(李沆)	1825. 6.~1825. 12.		6

연번	수령 이름	임기	교체이유	재임
118	윤경진(尹景鎭)	1826. 1.~1827. 6.	左承旨로 이임	17
119	김선(金鏞)	1827. 7.~1829. 5.	왜관 소통사 배말돈 피살사건으로 파직	22
120	홍희조(洪羲祖)	1829. 7.~1831. 1.	왜관 구타사건으로 파직	18
121	박제명(朴齊明)	1831. 2.~1833. 6.	瓜遞,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임	28
122	박대규(朴大圭)	1833. 7.~1834. 6.	右承旨로 이임	11
123	이탁원(李鐸遠)	1834. 7.~1835. 8.		13
124	민영훈(閔永勳)	1835. 9.~1837. 3.	南應中 사건으로 파직	18
125	성수묵(成遂默)	1837. 4.~1838. 11.	瓜遞, 書契違式件으로 推考, 邊報 지체로 重推	19
126	이명적(李明迪)	1839. 1.~1840. 6.		17
127	홍중웅(洪鐘雄)	1840. 8.~1841. 4.		8
128	강시영(姜時永)	1841. 6.~1842. 6.	충청도 관찰사로 이임	12
129	오취선(吳取善)	1842. 7.~1843. 8.	이조참의로 이임, 경상감사 역임	13
130	임영수(林永洙)	1843. 9.~1845. 5.	右承旨로 이임	20
131	강로(姜老)	1845. 6.~1847. 4.		22
132	조징림(趙徵林)	1847. 6.~1849. 4.		22
133	송주헌(宋柱獻)	1849. 6.~1850. 4.		10
134	이선익(李宣翼)	1850. 4.~1851. 5.		13
135	이휘녕(李彙寧)	1851. 5.~1852. 7.		14
136	유석환(俞錫煥)	1852. 7.~1853. 12.	右承旨로 이임	17
137	송정화(宋廷和)	1854. 1.~1855. 5.	承旨로 이임	16
138	서당보(徐堂輔)	1855. 7.~1857. 1.	承旨로 이임	18
139	남종순(南鐘順)	1857. 3.~1858. 3.	承旨로 이임	12
140	윤행모(尹行謨)	1858. 4.~1858. 11.	承旨로 이임	7
141	김석(金錫)	1859. 1.~1859. 6.	交奸 罷黜	5
142	정헌교(鄭獻教)	1859. 8.~1860. 5.	承旨로 이임	9
143	박신규(朴臣圭)	1860. 7.~1861. 4.	承旨로 이임	9
144	조규년(趙奎年)	1861. 5.~1862. 3.	承旨로 이임	10

연번	수령 이름	임기	교체이유	재임
145	엄석정(嚴錫鼎)	1862. 3.~1863. 3.	館倭蘭出 巡營啓罷	12
146	강로(姜澔)	1863. 3.~1866. 5.	瓜遞, 1년 仍任, 副總管 이임	38
147	서경순(徐璟淳)	1866. 6.~1867. 5.	사간원 대사성으로 이임	11
148	정현덕(鄭顯德)	1867. 5.~1874. 1.	瓜遞, 2차 仍任, 承旨로 이임	80
			평균재임기간 (月)	12,6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사료〉

『經國大典』 (<http://www.krpia.co.kr/>)

국역 『증정교린지』

『邊例集要』

『燃藜室記述』 別集 제18권,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縉紳外任案』, 서울대학교규장각 (청구기호 奎12132-v,1-2)

慶尙南道誌編纂委員會, 1963, 『慶尙南道輿地集成』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2755-16=2)

東萊郷校, 1937, 『東萊郡誌』 卷1-2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자료 이용, 청구기호 한古朝 62-153)

申維翰, 「海遊錄」, 국역 『해행총재』 I

한국인문과학원편찬부, 1991, 『韓國近代邑誌』 14, 慶尙道 8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자료 이용, 청구기호 911.008-한586ㄸ-14=2)

〈단행본〉

金玉根, 1977, 『朝鮮後期 經濟史研究』, 瑞文堂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63, 『부산사료총서』 제1 東萊府事例

양홍숙, 2009, 『조선후기 東萊 지역과 지역민 동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훈, 2011,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

한국국학진흥원, 2005, 『增補 慶尙道先生案』 上

한일관계사학회 편, 2001, 역주 『交隣提醒』, 國學資料院

岩下哲典·眞榮平房昭 編, 2001, 『近世日本と海外情報』, 東京: 岩田書院

尹裕淑, 2011, 『近世日朝通交と倭館』, 東京: 岩田書院

田代和生, 2002, 8,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3刷), 東京: 創文社

〈논문〉

김양수, 2007, 「조선후기 譯官의 중개무역과 倭館維持費」, 역사실학회, 『역사와 실학』 32

양홍숙, 2008, 「17세기 두모포왜관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와 지방관의 역할」, 『한국민

족문화』 3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尹裕淑, 2003, 「約條にみる近世の倭館統制について」, 『史觀』 138

이원균, 1979, 「조선시대의 수령직 교체실태 - 동래부사의 경우」, 『釜大史學』 3

장순순, 2008, 「조선 후기 왜관에서 발생한 朝日 양국인의 물리적 마찰 실태와 처리」,
『한국민족문화』 제31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Louis James, 1996, 「朝鮮後期 釜山 倭館의 記錄으로 본 朝日關係 - 폐_성가심(迷惑)에서 상호이해로」, 『한일관계사연구』 6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Dongnae Magistrate and Diplomatic Policy toward Japan

Kim Kangil

1. The Dongnae area in the late Joseon period was a fence of the country (國之藩垣) and a coastal door (爲海徼門戶之地)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national defense as a borderline. Dongnae County was the exclusive “reception area of the Japanese,” an “important land of southern border,” as well as the first diplomatic site for the Japanese envo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verage tenure of the Dongnae County Magistrate during the Choryang Waegwan period, and their subsequent career. There were many dismissals of the magistrate due to mistakes in negotiating issues with the Japan House, and the average tenure was no more than six months. However, the reasons for dismissal were mainly by professional negligence, with almost thirteen months the average tenure.

2. The working level diplomatic policy line toward Japan and the policy decision line involved the Dongnae County Magistrate of Dongraebu ↔ the Governor of Gyeongsang Province ↔ Board of Rites' Second Minister and Third Minister ↔ the Border Security Council ↔ and the King. When the head office of Dongnae County and the governor of Gyeongsang submitted a report, it was reviewed by the

Board of Rites. Then, it was finally sent to the Border Security Council and the king. While the head office of Dongnae County and the governor of Gyeongsang Province participated in working level negotiations with Japan at the Japan House, the Minister of the Board of Rites together with the king and the Border Security Council took leading roles in determining diplomatic action toward Japan.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the role of the Dongnae County Magistrate was not remarkable, the role became reinforced when the Border Security Council other than Board of Personnel (吏曹) began to recommend the magistrate from 1642. Around this time, Tsushima asked for the relocation of Dumopo Japan House for the first time, which alerted the court considering the selection of the magistrate.

3. Generally, the counterpart of the Dongnae County Magistrate was regarded as the Master of the Japan House (館守), but this study analyzed that position more specifically. The role of the Dongnae County Magistrate was not simply to deliver the situation of Tsushima to the central government as a dispatched official. Rather, the magistrate took initiatives in matters required to maintain the Japan House and foreign diplomacy toward Japan. However, the head of Japan House did not take full responsibility, but was assigned tasks from the Tsushima district which is shown in the records of the so family. Therefore, it is not proper to make them equal as counterparts in analyzing the foreign diplomacy. This study argues that the foreign counterpart of the Dongnae County Magistrate was the daimyo of Tsushima. And also the Korean head of the Japan House was the Interpreter Official (K, Hundo; K, Byeolcha) in Joseon.

4. The Japanese in the Dongrae area lived from food supplied from the Joseon government. The sojourning expenses for Japanese castaways was provided by the Joseon government until they were repatriated to their home country. As such, large expenses for receiving the Japanese were required, and it was appropriated from the residents in the Dongrae area. The residents suffered a great burden in the late Joseon period, which made them more impoverished. The good neighbor policy by the Joseon government was made possible based upon the sacrifices of Dongrae residents.

Keywords

Dongnae county Magistrate, Governor of Gyeongsang Province,
Diplomatic policy toward Japan, Japan House, Tsushima

티베트 貴族의 혼인문화

심혁주 | 한림대학교 生死學인문한국연구단 HK연구교수

I. 머리말

1959년 티베트가 실질적으로 중국으로 귀속될 때까지 티베트 政敎의 핵심계층은 상위 5% 정도의 귀족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티베트의 정치와 종교뿐 아니라 문화와 풍습까지도 재구성할 수 있는 강한 경제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티베트 귀족가문은 ‘等級內訓制’의 혼인형태를 선호하였다. ‘등급내혼제’란 비슷한 혹은 우열의 차이가 거의 없는 귀족가문끼리 혼인 당사자의 의지와 감정에 상관없이 가문이 주체가 되어 혼인을 추진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당시 티베트 귀족가문의 혼인은 보편적인 풍속과 혼인제도의 측면보다는 더 중요한 상위개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당시 사회에서 향유하던 사회적 신분의 공고화 그리고 가문의 재산분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이었다. 즉, 당시 귀족의 혼인은 비슷한 혹은 상위등급 계층 간의 정치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강화라는 현실적 의미를 지니고

※ 투고일: 2012년 4월 14일, 심사일: 2012년 8월 23일, 게재 확정일: 2012년 11월 23일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귀족의 혼인은 가문의 또는 가문에 속해 있는 남녀관계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는 방식이자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¹⁾ 이는 티베트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적은 숫자이지만 전통적으로 기득권을 형성하고 우월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던 귀족가문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련된 방법 중의 하나이기도 했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가문의 혼인을 통하여 티베트 사회에서 좀 더 넓고 긴밀한 政敎의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따라서 근대 티베트 귀족의 혼인문화를 보다 세밀하게 추적하고 당시 그레야만 했던 사회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티베트 귀족의 혼인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주지하면서 본문에서는 근대 티베트 귀족가문의 정략적인 혼인 배경과 필요성 및 그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려 한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귀족 혼인문화의 특징은 무엇인지, 혼인 절차와 과정은 어떠한지, ‘兄弟共妻’를 해야만 했던 가문의 상황과 결과는 어떠한 영향을 파급했는지, 일부다처제와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티베트 농노의 혼인과는 어떤 異同을 갖는지 그 차이점을 부각시킬 것이며, 추가적으로 왜 그레야만 했는지에 대한 당시의 현실과 사회적 배경을 가늠할 것이다.

II. 국내외 학계의 연구사례

시기적으로 1959년 전까지의 티베트 귀족집단을 티베트 사회와 정치를 연구하

1) 陳小強은 토번의 사회계층을 贊普(최고의 통치자)·貴族(관직에 처세하는 통치계층)·僧侶(귀족의 일부계층)·平民(귀족과 노예의 중간계층)·奴隸(노예) 등으로 구분하였다. 陳小強 著, 1995, 「試析吐蕃王朝社會結構」, 『藏學研究論叢』, 西藏人民出版社, 248쪽

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테마로 선정할 수 있다. 특히 티베트를 연구하는 외국 인에게는 그렇다. 그것은 티베트의 종교와 역사를 통찰력 있게 헤아려 보면 잘 알 수 있다. 실지로 해외 藏學의 경우 근대적 의미의 티베트 연구가 시작된 19세기 이래로 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분야는 티베트의 '권력구조'와 '사회구조'의 관계였다. 예를 들자면 티베트 사원의 권위와 영향력 그리고 달라이 라마를 보좌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攝政활동과 라마승집단의 세력다툼 등이다. 이러한 경향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티베트 연구가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티베트의 귀족집단을 중심으로 티베트 사회나 문화를 분석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티베트 사회나 문화가 갖는 보편성을 무시하거나 왜곡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또 다른 편에서 생각하면 과연 티베트 사회와 문화를 귀족의 역할과 기능을 배제한 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더군다나 국내 학계처럼 티베트 사회와 문화의 연구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더욱더 그러하다.

이러한 학술적 상황을 이해한다면 본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는 인정될 수 있겠다. 살펴보면 해외에서는 티베트의 '귀족' 연구가 차지하는 학문적 비중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편의 밀도 있는 학문적 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 사례에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 분야의 심층적인 연구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내에서 티베트의 혼인문화에 관한 연구 성과로 홍병혜의 「티베트 전통의 혼인유형 분석과 군혼문화의 형성배경」의 학술논문²⁾을 주목할 수 있다. 본 논문의 핵심 내용은 혼인은 가정의 구성을 전제로 하며, 역사적으로 한 가정의 형태는 이에 상응하는 혼인의 유형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혼인문화는 인류의 주요한 문화현상이다. 인류의 초기는 모계사회이며, 모계사회의 특징을 혼인

2) 홍병혜, 2004, 「티베트 전통의 혼인유형 분석과 군혼문화의 형성배경」, 『중국학연구』 제28집, 215~241쪽

의 형식으로 국한하자면 일처다부 등의 群婚문화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혼인형태가 티베트에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연구 동기의 전제 아래 티베트의 정체성과 저력을 혼인문화, 특히 계층에 따른 혼인유형 분석과 근혼문화의 형성배경의 전통을 통하여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홍병혜의 논문이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1959년 이전까지의 티베트의 혼인형태와 내용 및 특징을 서술하고 있음에도 그 주요 내용은 티베트 농노계층의 혼인형태만을 서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추가적인 학술적 필요성을 느낀다.

국내에 비해 해외(중국과 미국, 이탈리아)연구는 활발한 편이다. 따라서 국외의 연구사례는 본 연구에 귀중한 학술적 관점과 견해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이탈리아의 저명한 티베트 학자 루치아노 페치(Luciano Petech)의 저서 『*Aristocracy and Government in Tibet*(티베트의 귀족과 정부): 1728~1959』를 들 수 있다. 본서는 루치아노 페치가 1973년 로마에서 출간한 책을 중국 학자 선웨이룽[沈衛榮]이 번역하여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의 티베트 전문학술지 중국장학출판사(中國藏學出版社)에서 『티베트 귀족과 정부(西藏的貴族和政府)』로 2008년에 새롭게 출간했다. 저자도 서문에서 밝히고 있지만 본서의 목적은 고대 티베트 귀족계층들 중에서 경제나 정치면에서 특권과 우대를 누렸던 ‘압시[亞谿, 황금귀족]가문들을 찾아내어 분석하는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중국의 침입으로 티베트의 농노제가 와해되기 바로 직전인 1959년까지를 분석했다. 특히 황금귀족의 상징인 달라이 라마 집안과 그 연계된 가족들을 인물중심으로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특권을 지나라하게 해부한 관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연구 대상이 티베트 상층 귀족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연구문헌의 한계를 가진다.

위의 연구 성과와 연계하여 티베트의 세속 귀족사회를 추적하는 데 다음의 저서 역시 매우 유용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바로 티베트인 학자 츠런양중[次仁央宗]의 저서 『*西藏貴族世家: 1900~1951(The Aristocratic Families in Tibet)*』(中國藏學出版社, 2006)이다. 본서는 티베트 귀족가정의 탄생과 세습 상황 그리고 권력관계를 집중적으로 해부하고 있다. 특히 달라이 라마 친족의 권력구조와 세습 유통방식을 밀도 있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다. 본 연구에서는 티베트 귀족세력의 來源을 다섯 방향에서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① 고대 吐蕃 왕실과 대신들의 후예, ② 元·明·清 시대 중앙정부에서 하사한 公爵이나 土司의 후예, ③ 역대 달라이 라마의 직계가족, ④ 판첸라마의 직계가족, ⑤ 사카파[薩迦派] 法王의 가족과 그에 속한 관원들이다. 루치아노 페치는 이들 중 ③·④·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미국의 골드스타인(M. C. Goldstein) 교수의 연구 성과인 “Taxation and the structure of a Tibetan Village”(『中亞雜志』 제15권, 1971) 또한 참고할 만한 수준이다. 그의 연구에서는 고대 티베트 귀족의 경제 수준과 세습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골드스타인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莊園(pha-gzhis)’을 기초로 하는 티베트의 귀족가정은 유럽의 그것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다. 서구의 귀족계층은 혈통을 중시하는 반면, 티베트의 귀족가정은 혈통이 아닌 토지장원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티베트 귀족은 서구사회에는 없는 데릴사위제도, 즉 ‘瑪巴’제도를 습속으로 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부와 권력을 상속하기 위해서다. 만약 아들이 없어 대가 끊긴 집안은 사위를 집안으로 들인다. 그리고 부인의 姓을 따르게 한다. 이러한 ‘마파’제도는 가정을 세습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연구 성과인 “Serfdom and nobility: an examination of the institution of “human lease” in traditional Tibetan society”(『亞洲研究雜志』(J. As. St) 제30권, 1971, 521~534쪽)에서 그 예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티베트의 종교사 혹은 정치사는 두 가지 매우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神權’정치, 두 번째는 ‘貴族’정치다. 전자의 경우는 국내의 학자들을 통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연구 성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상술한 페치의 학술연구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그리스의 티베트 학자 라홀(R. Rahul)과 카라스코(P. Carrasco)의 티베트 貴族史에 관한 선행 연구가 있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인류학자 골드스타인(Goldstein) 교수가 인류학의 관점에서 티베트의 귀족과 정부를 연구하였는데 이 모두 일정량의 학술 성과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페치의 『티베트의 귀족과 정부』를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기존의 학술연구에서 없었던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티베트 50여 家 귀족의 家寶에 관한 세밀한 연구라는 점이다. 이는 한족의 世族, 유럽의 王公貴族과 그 성격 을 달리한다. 본서의 중요한 쟁점과 관점은 다음과 같다. ① 티베트 정치사에서 귀족의 작용과 역할, ② 근대 티베트 정치사에서 귀족의 변천상황과 그 異同, ③ 고대 황금귀족의 구성과 조직 그리고 티베트 정부와의 정치적 연계성, ④ 그리고 그들의 직능과 행정방식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티베트 스타일의 정치체제와 귀족정치의 주요 특징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상술의 해외 선행 연구 성과를 주지하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 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즉, 내용상으로 티베트 귀족 혼인문화의 특 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롭게 등장했던 ‘兄弟共妻’의 배경과 그 효과는 무엇 인지? 그리고 일부다처제와는 어떤 점이 문화적으로 다른지? 마지막으로 혼인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가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Ⅲ. 티베트 貴族의 세계

티베트의 귀족계층은 ① 압시[亞谿], ② 제본(第本) 그리고 ③ 미찰(米扎)과 같 이 대·중·소 세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³⁾ 이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 중 ‘압시’라는 귀족가문은 달라이 라마 부모의 가정을 말한다. 세부적으 로 보자면 압시(yab gzhis)의 ‘압(yab)’은 부친의 경어로, ‘시(gzhis)’는 장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農田, 즉 莊園을 의미한다. ‘압시’가정은 대량의 토지를 소유

3) 次仁央宗, 2006, 『西藏貴族世家: 1900~1951』,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41~43쪽

〈표 1〉 티베트 귀족계층의 형태와 특징

분류	① 압시[亞谿]	② 제본(第本)	③ 미찰(米札)
특징	달라이 라마의 친인척 가정을 말한다. 따라서 ‘아계가정’은 대량의 토지와 莊園을 부여받고 최고의 신분을 보장받는 귀족계층으로 분류된다.	혈통과 세습을 원칙으로 한다. ‘血親’ 전승이 특징	자수성가형 귀족 테릴사위제, 양자
대표적 가문	① 桑珠頗章(bSam-grub-pho-brang) ② 宇妥(g. Yu-thog) ③ 彭康(Phun-Khang) ④ (前期) 拉魯(Lha-Klu) ⑤ (後期) 拉魯(Lha-Klu) ⑥ 朗頓(Glang-mdun)	① 噶錫(dGav-bz) ② 通(Thon) ③ 朵客(mDo-mkhar) ④ 帕拉(pha-lha) ⑤ 拉嘉日(Lha-rgya-ri)	① 森厦欽噶 ② 夏扎 ③ 擦誠 ④ 索康 ⑤ 赤門
신분과 지위	최상	상	중
정치적 영향력	중	상	상
경제적 영향력	상	상	중
종교적 영향력	상	상	중

하며 최고의 권위와 신분을 보장받는 귀족계층이다. 학계에서는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계층에 근대까지 대략 6개의 압시가문이 존재했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⁴⁾ 예를 들어 ① 제7대 달라이 라마 가족인 ‘상주포장(桑珠頗章, bSam-grub-pho-brang)’귀족,⁵⁾ ② 제10대 달라이 라마 가족인 ‘위투어[宇

4) 원래는 7개의 귀족집단이어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9대 달라이 라마의 가족은 멸망했기 때문에 기록으로 전해지지 않는다.

5) 7대 달라이 라마 가족이다. 일반적으로는 ‘桑頗’이라 칭한다. 이 귀족가문은 ‘索諾木達爾扎’가 설립자다. 索諾木達爾扎는 18세기 전반기 티베트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귀족 인사 중의 하나다. 그는 티베트 江孜에서 출생했다. 그는 어렸을 적 학교사원인

妥, g.Yu-thog]가문,⁶⁾ ③ 제11대 달라이 라마의 가족인 ‘펑캉[彭康, Phun-Khang]’가문,⁷⁾ ④ 제8대 달라이 라마 前期에 해당하는 ‘라누[拉魯, Lha-Klu]’가문⁸⁾과 제12대 달라이 라마 가문인 後期 ‘라누[拉魯]’⁹⁾가문, ⑤ 제13대

‘哲幫寺’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티베트의 東藏으로 가서 환속하고 결혼하였다. 그의 첫 번째 아들이 6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으로 인정되어 이 집안은 일약 ‘얍시’귀족으로 신분이 상승되었다. 章嘉·若貝多杰, 2006, 『七世達賴喇嘛傳』,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248~251쪽

6) 10대 달라이 라마(楚臣嘉措, 1816~1837) 가족이다. 달라이 라마의 아버지 羅布桑年扎가 가문의 기반을 닦았으며 결국 황금가족인 ‘宇妥’귀족가문을 탄생시켰다. 陳慶英, 2006, 『歷輩達賴喇嘛生平形象歷史』,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98~199쪽

7) 11대 달라이 라마 가족이다. 정식명칭은 ‘彭措康賽(Phun-tshogs-Khang-gsar)’다. 이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장원은 雅隆(Yar-klungs)계곡 입구의 昌珠(Khra-vbrug)라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貢孜才旺頓珠(dKon-rtse-tshe-dbang don-grub)가 집안의 설립자이며 1841년 10월 10일 청 황제로부터 ‘輔國公’이란 관직을 하사받았다. 또한 1845년 티베트 정부는 貢孜才旺頓珠에게 막대한 장원을 하사했다. 그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11대 달라이 라마의 영동으로 점지되었다. 陳慶英, 2006, 위의 책, 201~202쪽

8) 8대 달라이 라마 가족이다. 정식명칭은 ‘拉魯嘎察(Lha-Klu-dgav-tshal)’이다. 이 귀족의 명칭은 라싸 부근의 지역(壯觀宅第) 명칭이기도 하다. 제8대 달라이 라마는 이 가정에서 출현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이 가정에서 티베트 황교의 전세영동을 많이 배출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가족은 2개의 시기, 즉 8대 전기와 12대 달라이 라마의 후기 귀족가족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귀족집안은 티베트 사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막강한 부와 명예를 차지할 수 있었다. 청 왕조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견제하고 좀 더 객관적인 활불을 선출하기 위하여 1793년 ‘金瓶掣籤’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게 된다. 이 가문의 기원은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씨(佚名)의 세 명의 자손에서 시작되는데 이 중 장남이 索南達吉(bSod-nams-dar-rgyas)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馮智, 2006, 『八世達賴喇嘛傳』,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65~166쪽

9) 정식명칭은 ‘拉魯嘎擦’이다. ‘彭錯策旺(Phun-tshogs-tshe-dbang)’을 중심으로 형성된 12대 달라이 라마 가족이다. 이 가문은 이미 전기 拉魯귀족을 형성한 과거가 있는바 정부는 장원의 합리적인 분배를 위하여 1858년 12대 달라이 라마 가족과 8대 달라이 라마 가족의 混居를 권장하였다. 이는 황금귀족인 달라이 라마 친인척들의 富의 축적과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노력이었다. 이 귀족가문의 건립자는 彭錯策旺이다. 彭錯策旺은 1859년 황제로부터 ‘公’의 관직을 수여받았고, 1865년에 죽었다. 彭錯策旺은 세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12대 달라이 라마는 막내였다. 普布覺活佛洛桑楚臣强巴嘉措, 2006, 『十二世達賴傳』,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43~46쪽

달라이 라마 가족인 ‘랑퉁[朗頓, Glang-mdun]’가문,¹⁰⁾ ⑥ 제14대 달라이 라마 가족 등을 말한다. 이 ‘얍시’ 귀족집단의 특징은 ‘제본’ 귀족처럼 집안 대대로 세습되어 온 집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아이가 전대 달라이 라마의 전세 靈童으로 지정¹¹⁾되면서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수준이 수평에서 수직선상으로 격상된 가정이다.¹²⁾ 지정된 자신의 아들이 황교사원에서 정식 활불로 인준받아 티베트의 지도자로 배양되기 위하여 종교적 수습기간에 들어서면 부모들은 티베트 정부로부터 고관의 작위나 대장원의 경제적 기반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 전통이 처음부터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역사적 사실을 추적해 보면 제6대 달라이 라마 재위기간까지 이러한 전례는 없었다.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제7대 달라이 라마 재위기간 중인 1729년에 청 왕조의 전격적인 실행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청은 제7대 달라이 라마 부친에게 ‘輔國公’이라는 爵位를 하사하였다. 이 작위는 이후 전세 영동으로 승인받은 부친에게 관례적으로 하사되었다. 그러나 예외도 있었다. 예를 들면 제9대 달라이 라마 가족은 어떤 관직과 작위도 하사받지 못했으며 제10대 달라이 라마 가족은 ‘一等台吉’이라는 비교적 낮은 등급의 작위만을 얻었다. 따라서 이 ‘아계’라는 귀족집단의 특징은 제7대 달라이 라마 재위시절부터 본격적으로 티베

10) 이 귀족가문은 13대 달라이 라마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13대 달라이 라마의 아버지 工噶仁青(Kun-dgav-rin-chen)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朗頓(Glang-mdun)’ 가족이다. 工噶仁青은 達拉岡布 산촌의 朗頓村的 일개 농민이었다. 그러나 그의 네 번째 아들이 13대 달라이 라마의 어린영동으로 인정되자 1879년 청 황제로부터 ‘公’이라는 명칭과 관직을 하사받았다. 普布覺活佛洛桑楚臣強巴嘉措, 熊文彬 譯, 2006, 『十三世達賴喇嘛傳』,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26~27쪽

11) 전세영동으로 확인되면 그 집안은 ‘얍시’ 가정으로 분류되고 아울러 그 부모 또한 새로운 환경과 인적 관계를 접하게 된다. 이때 어린 영동의 부모는 원래의 이름 대신 새로운 호칭을 얻게 된다.父인 경우는 ‘加亞’라 부르고 母의 경우는 ‘加雍’이라 한다. 티베트어로 加는 王의 의미고 亞는 아버지의 존칭이다. 따라서 ‘加亞’는 ‘왕부’의 뜻이 된다. 雍은 티베트어로 모친의 존칭이다. 따라서 ‘加雍’은 ‘왕모’의 뜻이 된다. 畢達克, 沈衛榮·宋黎明 譯, 2008, 『西藏的貴族和政府: 1728~1959』,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7쪽

12) ‘얍시’ 귀족가문의 출현은 기존의 티베트 귀족사회에 새로운 권력구도를 형성하게 했다. 달라이 라마라는 활불의 지위와 신성함을 등에 업은 본 가문의 등장은 ‘제본’이나 ‘미찰’ 등의 기존 귀족계층을 긴장시켰으며 새로운 권력의 판도를 암시했다.

트 사회의 경제·정치·종교의 중심에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세습의 전통을 확립하였다.¹³⁾

역사적으로 티베트에는 다섯 개의 대표적인 '제본'가문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① 噶錫(dGav-bz),¹⁴⁾ ② 通(Thon), ③ 朵客(mDo-mkhar), ④ 帕拉(pha-lha), ⑤ 拉嘉日(Lha-rgya-ri) 같은 가문이다. 또한 대표적인 '미찰'가문은 차지에[擦絨], 샤짜[厦扎], 쉐강[索康], 휘강[霍康], 아페이[阿沛]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외에도 30개의 '미찰'귀족가정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모든 '미찰가정'은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계륵[噶倫]이라는 티베트 지방정부의 주요 관원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가정은 일반 귀족가정과 구별하기 위하여 가정의 호칭에도 구별을 두었다.¹⁵⁾ '미찰가정'은 티베트 사회의 귀족 범주에 포함되지만 위에서 서술한 '압시가정'과 '제본가정'과는 그 성격과 배경이 다르다. 즉, 이 가정들은 대부분 스스로 노력하여 자수성가한 계층이라는 점이다. 이 계층들은 중국 정부가 티베트 흡수시기인 1940~1950년대에도 약 30여 개가 티베트 전역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중 일부의 '미찰가정'은 기본적으로 당시 티베트의 재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샤짜[厦扎]', '차지에[擦絨]' 등과 같은 가문이다. 이 가정은 가문의 지속과 사회 권력과의 연계를 위하여 이혼·재혼·데릴사위·양자 등의 다양한 결합 형태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가족 내의 남성 계승자 유무를 매우 중요시했다. 남성 계승자가 있다면 이 계승자의 직위 상승을 통해서 그 가족의 경제적·신분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었

13) 심혁주, 2010, 『티베트의 활불제도 - 신을 만드는 사람들』,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125~130쪽

14) '多仁'이라고도 불린다.

15) 티베트의 귀족가정은 그 가정의 성원뿐만 아니라 가정의 家僕·家奴는 물론 심지어 屬民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원은 티베트 귀족의 독특한 가족집단을 구성하였다. 가정은 귀족들의 거주 조합형식이며, 경영조직을 건립한 사회집단이다. 따라서 티베트의 귀족가정은 내부적으로 조합의 지구성을 강조하였고, 성원 사이의 유대관계를 강조하였으며, 가정의 의무와 책임을 통하여 관계를 결부하여 이를 통해 가족성원들 사이의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특히 티베트의 귀족가정은 항상 가족 간의 도덕적인 특정관계를 우선하였는데, 이러한 도덕적인 관계는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실천지침이었다. 홍병혜, 2004, 앞의 논문, 215~220쪽

으며, 이러한 과정을 이용하여 가정의 사회적 지위 또한 제고할 수 있었다. 상술한 세 유형의 가문은 티베트의 농노제 사회에서 탄생한 특권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아계가정’은 가문의 전통을 유지하는 토대로써 혈통을 그다지 주요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른 귀족가문과의 차이점이다. 예컨대 제본이나 미찰 귀족가문은 가문의 연속성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가족 내부에서는 ‘혈친전승’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또한 가족 내에 관료 출신의 남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매우 중시하였기 때문에 남성의 존재여부는 가정의 발전과 쇠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였다. 따라서 가문의 가업전승이라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 계층 사이의 구성원 유입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다. 예를 들면, 데릴사위·양자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혼인과 가족의 재구성을 전략적으로 운용하였는데, 이는 당시 귀족가정 내부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가 인정하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¹⁶⁾ 따라서 가정의 권력과 경제력을 구비하기 위하여 이혼과 재혼은 물론 여러 배우자를 일시에 동반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가정구성의 방식에 부합하여 ‘제본가정’에서는 ‘一妻多夫制’의 혼인형태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는 티베트 귀족가정의 일반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농노가정에서도 역시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혼인형태이다. 이러한 혼인유형을 선택하는 이유는 각 계층마다 다양하지만 귀족가정에서는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실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16) 中根千枝, 周焯 譯, 1996, 『西藏的貴族』, 西藏: 西藏人民出版社, 77쪽

IV. 귀족의 혼인문화

1_ 사례와 특징

티베트 귀족계층은 가문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번영시키고 확장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로 가문끼리의 정략적인 혼인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예를 들어, 티베트 최고의 귀족가문인 파라[帕拉]가문은 가문의 위기가 닥쳤을 때 쑤어강[索康], 샤거바[夏格巴], 짜강[扎康] 등의 명문가문들과 혼인을 진행하여 그 위기를 벗어났으며 5대 달라이 라마(阿旺羅桑嘉措)를 배출한 총지에[窮結]가문은 티베트 산남[山南]지방의 지쉐[吉雪, skyid shod], 라짜리[拉嘉理, lha rgya ri], 야자오[雅郊, yarrgyab] 등지의 영주들과 혼인을 맺어 그 사회적·경제적 신분의 확장을 도모하였다.¹⁷⁾ 이 가문들은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통하여 귀족세계에서 새로운 인맥과 인적 교류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티베트 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 번영할 수 있었다.

본문에서는 티베트의 여러 귀족가문 중에서 구체적으로 파라[帕拉, Phajo-lha-khang]귀족가문을 예로 들어 혼인의 사례와 그 배경을 알아보려고 한다. 파라귀족가문은 본래 ‘파쥬라캉[帕覺拉康]’가정의 이름에서 유래되었고 티베트 귀족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파라’가문으로 불린다. 이 가문의 근원지는 티베트 쟡[gtasang, 后藏] 지역의 깎제[rgyal rtse, 江孜] 지역이다. ‘파라’가문은 티베트의 귀족사에서 6대 ‘제본(第本, sde-dpon)’귀족가문 중의 대표적 가문의 하나다. 이 가문의 처음 설립자는 부탄인으로 전해진다. 시기적으로 17세기 40년대 최고로 흥성했던 가문으로 깎제 일대에 방대한 싸루[薩魯]장원을 형성했으며 티베트 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세속귀족이었다. 이 가문은 1792년 네팔(廓爾喀)과의 전쟁에서 수훈을 세운 파라·단정랑지에[帕拉·丹增朗杰]

17) 陳慶英, 2007, 「西藏山南窮結家族」, 『民族學報』第20期, 台灣: 國立政治大學, 85쪽

가 淸조로부터 까론(bka' blon, 噶倫)이라는 티베트 지방정부의 최고위직을 하사받으면서부터 본 가문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¹⁸⁾ 고대 티베트 사회의 계층구조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13법전'과 '16법전'에 제시된 티베트 사회의 9품제¹⁹⁾의 특색을 감안할 때, 귀족가문의 구성원이 관료로 진출한다는 것은 본 가문의 경제적 자산인 장원을 더욱더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에도 가문을 지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였다. 단정랑지에[丹增朗杰]의 시작에서 후대 150년간 파라가문의 후손들이 축적한 정치적 지위는 자연스럽게 장원의 확장을 이끌어냈다. 따라서 1959년 중국 정부에 의한 '민족평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파라가문이 티베트에서 소유한 장원의 지리적 범위는 르커저[日喀則], 바이랑[白朗], 쟡즈[江孜], 캄마[康瑪], 취수이[曲水], 라싸[拉薩], 징지에[瓊結] 등지에 이르렀다. 이는 파라가문이 방대한 토지와 초목 그리고 농노를 소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신분과 막대한 재정을 유지했던 파라가문은 1930년대에 들어와 가문의 위기를 맞이한다. 그러한 이유는 6명의 자녀를 둔 가문의 가장인 파라·평취난지에[帕拉·彭措南杰]와 그의 부인이 연이어 병으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평취난지에의 큰아들 파라·투덩야오단[帕拉·土登沃丹]은 가문의 지위와 신분을 지키기 위해 결사적으로 동생들의 혼인문제에 개입하게 된다. 파라가문에서 투덩야오단은 매우 특수한 인물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 가문에서 유일하게 출가한 라마승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그는 가문의 위기를 구하기 위하여 개인적 신분을 벗

18) 帕拉·丹增朗杰는 1792년 네팔(廓爾喀)과의 전쟁에서 수훈을 세워 청 정부와 티베트 지방정부로부터 정치적 신분을 포상받아 관료로 진출하였다. 畢達克, 沈衛榮·宋黎明 譯, 2008, 『西藏的貴族和政府: 1728~1959』,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66쪽

19) 근대까지 티베트 사회에서는 신분의 등급이 '3級 9等'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티베트의 법전인 『13法典』에 따르면 티베트 사회는 상·중·하의 3級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 급은 다시 상·중·하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따라서 티베트 사회는 총 9개의 신분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 중 일등급이 귀족이고 9등급이 농노인 것이다. 陳慶英, 2002, 『藏族部落制度研究』,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58~159쪽

어던지고 환속했다. 그러한 이유는 그 자신도 출가하기 전까지 귀족가문의 흥망성쇠의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부모의 부재 속에서 자녀의 혼인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일찍부터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국 투덩야오단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첫 번째 여동생은 당대의 귀족집안인 '런왕가[仁崗家]'와 혼인을 맺었고, 두 번째 여동생은 后藏 지역 판첸라마[班禪喇嘛] 은둔지의 거대 귀족 '경강가(傾康家)'의 부인이 되었다. 세 번째 동생 또한 귀족가문인 '길보가(吉普家)'와 혼인을 맺었다.²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투덩야오단은 기존의 혼인방식, 즉 상대 집안은 반드시 우월한 가문을 선택해 혼인을 맺었던 선대와는 달리 조금 등급이 낮은 귀족가문과도 혼인을 맺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 때 출가했던 개인의 약력과도 무관하지 않은 가치관에서 비롯된다. 그는 비교적 자신의 가문보다는 낮은 등급에 있는 가문일지라도 혼인관계를 맺어 사회적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도로 파라가문을 더욱 더 공고히 하는 인적 네트워크와 정치적 세력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투덩야단은 남동생들도 또한 당대의 귀족가문인 '공상자(貢桑孜)'가문과의 혼인을 추진하여 성공하였다.²¹⁾ 여기서 특이한 점은 남동생은 티베트 귀족사회에서 처음으로 兄弟共妻인 일처다부제의 형식으로 혼인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혼인형식을 티베트에서는 '시송마[洒松瑪]'라고 호칭했다. 사실상 이러한 혼인형식은 티베트 농노사회와 유목민 사회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

20) 次仁宗央, 2006, 앞의 책, 61쪽

21) 다른 예를 들어보면, 赤門家族은 '미찰'가정으로 貢覺丹巴 때에 이르러 이미 대귀족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이 가족이 보유한 장원은 단지 두 개에 불과하였다. 경제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노리던 본 가문의 諾布旺杰은 명문 귀족인 夏格巴 가문의 데릴사위가 되었다. 데릴사위가 된 이후에 낙포왕결은 귀족관원으로 부상하였고, 적문가족에게는 장원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는 토지의 확장과 굳건한 사회적 신분의 토대를 제공했다. 낙포왕결은 훗날 적문가족에서 분가하여 赤門蘇巴家族을 건립하였다. 분가하기 이전 그는 적문가족과 혼인하여 8명의 자녀를 두었다. 8명의 자녀 중 6명이 아들이었는데, 6명의 아들 중 4명이 승려가 되었고, 다른 두 아들은 한 아내를 함께 맞이하여 兄弟共妻의 혼인형태를 선택하였다. 낙포왕결의 분가 후 적문가문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시 심각한 상태를 맞이하였다. 次仁宗央 著, 1997, 『試論西藏貴族家庭』, 『中國藏學』 第1期 참조.

나 티베트 귀족사회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에 속한다. 그렇다면 투덩야단은 왜 두 명의 동생을 상대 귀족가문의 형제공처의 형식으로 혼인을 추진했을까? 티베트에서 일처다부제의 혼인형식은 근본적으로 재산과 토지의 영속성을 확보하려는 현실적 상황에서 출현하였다. 이러한 가치관은 농노나 유목민 그리고 귀족세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 척박한 티베트의 생존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기반인 莊園과 그에 속한 토지 그리고 農奴의 보유 및 세습이다. 티베트에서 이혼이나 별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도 감정이나 사랑으로 혼인관계가 이루어진 비율보다 경제적·정치적·현실적 이유로 결합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티베트에서 이혼은 경제적 자산의 이동과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티베트 귀족가문의 혼인문화는 가문의 재산보호와 확장 그리고 정치적 실체들과의 의도적인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문의 자녀들은 가문의 수장이 결정하는 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수밖에 없었다.

티베트 사회에서는 일처다부의 혼인유형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혼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면 첫 번째가 母女共夫, 두 번째 父子共妻, 세 번째가 朋友共夫 등이다. 母女共夫의 형태는 대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경우에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배우자를 잃은 남성이 재혼하려고 할 때, 후처가 결혼적령기의 딸을 데리고 오는 경우에 모녀가 합의를 거쳐 명의로는 어머니와 결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녀가 한 남편을 공유하는 경우다. 또 다른 경우는 재혼할 때, 후처가 데리고 오는 딸이 유아일 때 후처의 딸이 성장하면 어머니가 아내의 자리를 딸에게 양위하는 것이다. 이러한 혼인형태는 가정에서는 여전히 모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녀가 모두 한 남편과 부부다.²²⁾ 부

22) 根旺은 논문 「關於藏族多偶婚制研究中幾個問題認識」에서 “형제나 자매 중 심각한 질환 또는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형제나 자매는 다른 형제·자매와 명의상으로 공동의 배우자를 갖게 하여, 생활을 위탁한다. 이러한 경우에 共夫婚이나 共妻婚을 통하여 병약한 형제와 자매는 가정에서의 정식 지위를 획득하고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가정에 아들이 없이 딸만 있거나 아들이 있어도 출가하였을 경우 데릴사위를 맞이하여 자매가 共夫하는 형식으로 가정을 구성하는 경우 역시 복리의 효과를 위한 群婚의 기능이다. 또한 자매 중 혼인할

자공처의 혼인형태는 전체 혼인의 2% 이하로 그 비율이 매우 낮다. 남성이 배우자를 잃은 이후에 장성한 아들이 결혼할 때 祖業의 분산을 초래하여 관청의 공무 및 세무와 노역을 대량으로 지불하지 않기 위해 부자의 동의를 거쳐 아들이 직접 본인의 명의로 아내를 맞이한 후 부자가 공처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에게는 할아버지로 아들에게는 아버지라 부른다. 또한 상처한 남성이 나이가 어린 여성에게 재취할 때 전처소생의 아들과 부자공처의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봉우공부는 서로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²³⁾

형제공처제와 일처다부제의 차이점은 전자는 주로 귀족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혼인형태로써 한 가문의 형제가 다른 유력 가문의 여성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자 형제 중 한 명이 죽거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할 때 이루어진다. 일처다부제는 실질적으로 티베트 유목사회에서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한 여성이 남편의 형제와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는 남편이 실종이나 죽음에 이르러 부재중일 때 이루어진다.

티베트에서 일처다부제의 혼인형태는 대부분 정치적·경제적인 이유로 발생되는데 문화적인 이유도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티베트 혼인문화의 형성은 세 가지 방면에서 추진되었다. 첫 번째가 경제적 이익 추구, 두 번째가 환경에 대한 순응, 세 번째가 종교의 초월의식이다. 따라서 정치적·경제적 요소를 제외한다면 결국 티베트 고유의 특수한 생태와 환경은 이들에게 순응을 토대로 한 개방적인 사고를 유도하였고, 이로 인해 전통적인 本教 외에 불교를 흡수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여 결국 본교와 불교를 조화시킨 티베트불교(藏傳佛教)를 생산하였다. 또한 티베트불교의 기본사상인 윤회와 해탈은 개념에서 초월

수 없는 사정, 즉 추모·생리결함·불임 등일 경우 협상을 통하여 다른 자매의 혼인에 가입하여 원래의 일부일처의 혼인 형태가 共夫의 형태로 변화한다. 티베트의 姊妹共夫의 혼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성된 것이 대부분인데, 모두 사회보장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根旺, 1995, 「關於藏族多偶婚制研究中幾個問題認識」, 『藏學研究論叢』(7), 西藏人民出版社. 참조.

23) 홍병혜, 2004, 앞의 논문, 217쪽

의식을 조성하였고 이러한 기본 인식은 티베트 사회에 일처다부제라는 혼인문화가 자생하는 데 커다란 관념적 토대가 되었다.

2_ 귀족사회의 혼인과정과 형식

티베트 귀족가문에서 태어난 여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권을 받았다. 비록 아직 혼인 전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그녀를 무시할 수 없었다. 집안의 노비들도 정성스런 태도로 그녀들을 섬겼고 항상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 그래서인지 티베트 여인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 열정적인 애정을 꿈꾸며 따뜻한 가정을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낭만적 생각은 겉으로 표시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로부터 어떤 가문과의 혼인이 임박했음을 조심스럽게 통고받는다. 귀족 소녀들은 긴장하며 당황하지만 이들에게 귀족끼리의 결혼은 일종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신분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안정적 계약 성격을 가진다. 이들의 결혼은 가문의 수장인 아버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혼식 날 종종 우는 신부도 있다. 그녀들은 낭만적인 혼인을 갈망하고 희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티베트에서 혼인이란 정치적 기능이 강하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연대임을 잘 알기에 당사자들은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티베트 귀족사회의 혼인과정과 형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택혼

귀족가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자는 16세, 여자는 14~15세 정도가 되면 부모는 혼인을 위해 상대 가문을 찾기 시작한다. 보통은 여자 가정 쪽에서 먼저 사회적·경제적 신분이 비슷한, 혹은 더 우월한 남자 쪽 귀족가문을 물색하고 이 일을 추진할 가문의 대표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비단(緞綢)·칼(藏銀)·음식(食物)·하다(哈達) 등의 예물을 마련하여 물색한 가문을 방문한다. 그리고 양가 자녀의 궁합과 사주를 맞추어 본다. 여기에는 우선 남자 쪽의 허락이 있어

야 한다. 만일 남자 쪽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미 사전에 혼인관계가 다른 가문과 이미 이루어졌다고 알리는 거절의 방법이다. 여자 집안의 대표자는 남자 가문의 궁합과 사주를 위한 정보를 구하면 바로 저명한 라마승을 초빙하여 점을 보고 운세를 본다.

2) 求婚과 定婚

사원의 라마승을 통하여 길일을 잡으면 여자 가문 내에서 신분(品位)이 가장 높은 어른이 풍성한 예물을 준비하여 남자 가문을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정식으로 청혼을 청한다. 예물을 전하고 담화가 이루어지면 양가는 다시 라마승을 청하여 점을 치고 혼인의 길일을 잡는다. 혼인을 하고 연회를 벌이는 장소는 신혼 방이 있는 장소에서 같이 진행한다. 혼인이 벌어지기 전 여자 쪽은 남자 쪽에 고급스런 하대를 선물해야 하며, 혼인이 진행될 때 남녀는 같이 마주보고 인사를 한다. 이것을 티베트에서는 ‘寵哈’이라 칭한다. 그리고 남자 쪽은 여자의 모친에게 일정한 수량의 ‘努仁’²⁴⁾을 바쳐야 한다. 이는 여자 쪽 모친의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다. 혼인 할 때 쌍방은 반드시 한 명의 보증인(證婚人)을 모셔야 한다. 이는 결혼계약의 파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혼인 후의 연회는 술과 안주를 준비하고 전문적으로 춤과 藏劇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청하여 혼인을 축하하며 일반적으로 하루 동안 진행하기도 하지만 신분이 높은 귀족가문일수록 2~3일 하는 경우도 있다.

혼인 후 신부가 남자 가문에 적응하는 기간은 한 달 정도다. 이때 친정에서 같이 온 여자 노비는 신부에게 정신적으로 위안과 도움을 준다. 이 한 달 동안 신부는 신랑 측의 세심한 배려를 받는다. 마지막 날에는 양가가 모두 참여하는 ‘제순(齊盾, 밖에 나간다)’이라고 부르는 야유회를 가진다. 주로 날씨 좋은 여름에 하는데, 양쪽 가문이 공원에 모여 식사를 하고 하루를 즐겁게 보낸다. 행복한 혼인생활을 위해서 양가는 이 하루를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아침에

24) ‘哺乳錢’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혼인 사례금이다.

는 다 같이 대조사[大昭寺] 또는 포탈라궁[布達拉宮]에 가서 절하고 복을 기원한다. 혼인 직후 한 달의 마지막에 보내는 '제순' 의식이 끝나야 비로써 혼인은 완결을 맺게 되는 것이다. 귀족의 혼인은 귀족사회가 인정하는 도덕적·경제적 관습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인생의 전환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귀족의 혼인은 귀족사회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관계가 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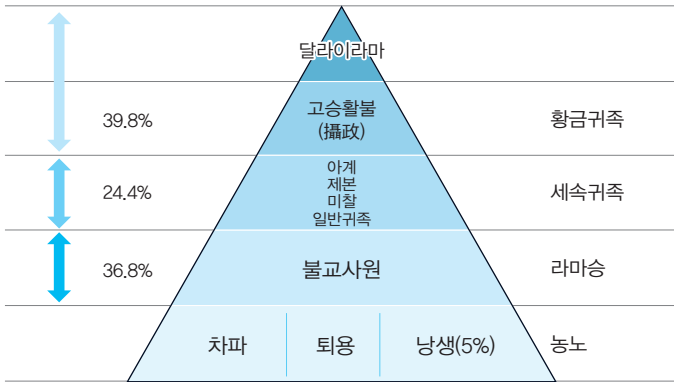
혼인 후에 여자나 남자 쪽은 귀족가문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써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때 여자에 비해 남자 쪽은 사회적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은 새로운 귀족가문에서 자기의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 적응과정에서는 불안하고 당황스러워 한다. 그러함에도 귀족가문에서 이혼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이혼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이혼하는 경우는 새로운 가족관계에서 구성원 간의 불협화음이나 적응이 매우 어려운 경우다. 간혹 사랑이 결여된 혼인으로 인한 개인적 감정의 불만 표출로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귀족사회에서 이혼에 대한 반응은 매우 민감하다. 그러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가문의 경제적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길 바라는 면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귀족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권력의 공백화 현상을 우려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 귀족가정에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는 여자나 남자 모두 동등하며, 귀족의 재산은 아들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상속된다. 또한 귀족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대귀족의 경우 여자의 지위나 영향력은 남자와 동등하지 않다.

V. 귀족계층의 혼인과 그 특징

귀족가정의 여인이 혼인하여 임신이 확인되면 가문의 모든 사람은 그녀에 대한 대우와 태도가 달라진다. 일상생활에서는 시어머니가 그녀의 칼슘 부족을

염려하여 충분한 음식을 배려하고, 출산 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통적인 방법인 '수요[酥油, 일종의 식용유지]'를 바른다. 그리고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에서 일광욕을 즐기라고 권유한다. 이때는 활동적인 남편도 집에서 그녀와 매일 함께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면 낳은 아기가 딸이든 아들이든 이때부터 여인의 지위는 이전과는 달라진다. 아이의 출생은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했던 귀족소녀가 한 귀족가정의 사회적 신분을 부여받은 구성원으로 변신하는 순간이다. 다시 말해서 티베트의 귀족여성은 건강한 아이의 출산과 더불어 비로써 가정 내에서 지위와 신분의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다. 또한 이때부터 그녀는 가문의 재정을 담당하기 시작하며 귀족사회의 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예를 들면 가문의 경제적 지원 아래 어떠한 사교 장소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귀족여인들의 사교클럽은 가문의 위세를 홍보하고 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매우 문화적인 모임이다. 따라서 모든 귀족 여성들은 이 사교 모임에 적극적이다. 이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품격과 의상 그리고 희귀한 보석을 자랑하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들의 방을 공개하며 소장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가문의 위세를 드러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옥과 진주로 만든 머리장신구 외에도 반지·보석귀고리와 일부 산호목걸이 등이다. 티베트 귀족의 남편은 신분과 지위에 따라 자신의 아내한테 보석을 항상 선물한다. 이러한 물질적 선물이 가정과 부인에 대한 예의라고 귀족사회에서는 인식한다. 남편과 남편 가정의 사회적 신분은 부인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만족을 주는 것 외에도 남편을 통해서 물질적인 만족을 얻으면서 그녀들은 정신적인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쁘고 화려한 옷, 고가의 보석은 단지 개인의 취미와 추구가 아니라 일종의 신분을 과시하고 다른 계층과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제적·문화적 특혜를 향유했던 근대 티베트 사회(~1951)의 계층구조를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하였다.

10세기부터 티베트에서는 封建農奴制가 시작되었고 13세기부터는 전 지역에 보편화되었다. 티베트 봉건농노제의 특징은 莊園의 소유, 즉 귀족의 토지장악과 농노 소유가 그 핵심내용이다. 1951년 이전 구티베트 사회는 官家, 세속귀족, 불교사원의 고위 라마승 등으로 형성된 3대 영주가 정치·종교·경제



〈그림 1〉 티베트의 사회구조(~1951)

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티베트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되는 소수였지만 티베트의 방대한 토지, 목장, 산림, 산천과 주요 목축을 장악하고 있었다. 티베트의 농노는 크게 ‘차파(差巴)’, ‘퇴용(堆窮)’, ‘낭생(朗生)’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티베트 전체인구의 90%를 넘고 있었으며 이 중 노예 등급으로 다시 분류되는 낭생은 5%의 인구비율을 보였다. 이들에게는 토지 소유권이 없으며 인신의 자유와 혼인 문제 또한 자율권이 허락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의 처지와 신분은 대대로 세습되었다. 티베트는 ‘政教合一’ 체제로 유지되는 사회였다. 종교의 수장이 곧 정치를 기획하고 주관한다는 의미다. 역대로 정교합일의 수장은 살아 있는 부처로 대변되는 달라이 라마였다. 물론 달라이 라마를 보좌하는 攝政 활불과 황교의 고위 라마승 그리고 귀족세력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엄밀하게 보자면 티베트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력은 달라이 라마를 정점으로 하는 세 부류다.²⁵⁾ 이 중 귀족세력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실체다. 티베트의 귀족집단은 가문의 번영과 지속을 위해 세 가지 영역에 집중하였다. 첫 번째는 자신이 속한 가문에서 대외적으로 관료를 양성하는 것이다. 근대 티베트 사회의 최대 정치기구인 까샤(bka' shag, 噶廈)에 적지

25) 심혁주, 2010, 앞의 논문, 78~85쪽

않은 大臣이 귀족가문 출신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분명해진다²⁶⁾(표 2).

까삭은 일반적으로 175명의 께둥(Tse drung, 승관)과 175명의 쉘둥(shod drung, 속관)으로 구성된다. 이는 티베트의 귀족계층 중 상층승려와 세속관원이 평행하는 구성이다. 티베트 지방정부의 구조는 엄격하게 관료주의 체계다. 지방정부의 관료는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세속귀족으로 구성된 俗官이고 두 번째는 황교의 승려들로 구성된 僧官이다. 모든 속관은 일률적으로 귀족집단에서 공급된다. 이러한 자격은 귀족들만 가질 수 있다. 즉, 귀족의 자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티베트 사회의 고위관료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고대 티베트의 귀족집단은 대략 200여 개의 성씨를 가진 가정으로 구성되었다. 한 가정당 평균 6명의 호구로 계산할 때 전체적으로 1,200명의 귀족집단은 티베트 최고의 상층 계층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 평민으로 살아가는 티베트인들과는 매우 대조적인 생활환경이었다. 귀족집단이 일반 평민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적지 않은 장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귀족도 토지 소유와 농노 보유량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 귀족이 보유하고 있는 장원은 領地와 份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영주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고 후자는 농노가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귀족은 대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적 우세와 특세를 바탕으로 噶廈 내에서 권위와 권력을 점유하고 있었다. 귀족은 생활방식이나 기호식품, 정치적 권리, 사회적 특혜 면에서 우세한 대접을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26) 티베트 사회에서 까삭(bka' shag, 噶廈)은 귀족세력들의 본영지며 달라이 라마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세속적 권력기관이다. 까삭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가 譯倉인데 黃教 출신의 4명의 라마승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仔康으로 4인의 귀족으로 구성된다. 이곳의 수장은 달라이 라마고 외부 인사로는 청조가 파견한 駐藏大臣이 있다. 噶廈에는 '계륜'이라 호칭되는 중요한 대신들이 있는데 총 4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3인이 귀족이고 1인이 라마승이다. 噶廈에는 시기적으로 1792년 청조가 추진한 티베트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티베트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駐藏大臣을 파견하기도 하였으나 의도한 만큼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청조는 7대 달라이 라마 이후부터 噶廈에 소속된 대신들의 신분은 4단계의 품계로 나누어 녹봉을 지급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2품에 해당하는 신분은 달라이 라마고 3품은 갈륜의 大臣이다. 4품은 譯倉(비서담당)과 仔康(회계담당)이다. 平措次仁, 1996, 『西藏通史』, 西藏社會科學院, 676~686쪽

등급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등급의 구분은 재산의 보유정도, 지위(噶廈 내에서의 신분), 그리고 혈통 등과 같이 세세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근대까지 티베트의 절대적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해온 ‘갈하’ 내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의석수는 티베트 사회에서 그들이 향유하는 종교적·정치적 신분과 권위를 표시한다. <표 2>는 티베트 귀족의 전성기였던 1728~1959년의 기간, 즉 230년간의 기간을 2단계의 시기별로 나누어 귀족이 점유했던 의석수와 흥망의 관계를 도표화한 것이다.²⁷⁾

〈표 2〉 까삭(bka' shag, 噶廈)과 귀족의 상관관계

귀족	점유한 의석수 (1728~1844)	점유한 의석수 (1844~1959)
朵喀(mDo-mkhar)	3	3
噶錫(dGav-bzhi)	4	1
帕拉(pha-lha)	3	2
沙扎(bShad-sgra)	3	2
索康(Zur-khang)	2	2
桑珠破(bSam-grub-pho-brang)	2	2
吞(Thon)	3	0
薩迺(gSar-byung)	0	3
赤門(Khri-smon)	1	1
阿沛(Nga-phod)	0	2
擦絨(Tsha-rong)	0	2
宇妥(gYu-thog)	0	2
霍爾康賽(Hor-khang-gsar)	1	1
拉魯(Lha-klu)	0	2
布隆贊(vBrong-rtse)	1	0
拉定(Lha-sding)	1	0
기타 21家 귀족	0	각 1인

27) 華達克, 沈衛榮·宋黎明譯, 2008, 앞의 책, 18쪽

〈표 2〉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사해 준다. 첫째, 두 시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실질권력을 장악한 귀족은 1단계(11개 귀족)보다 2단계(34개 귀족) 시기에 더 심화 확대되었다. 이는 첫 번째 시기에 권력의 중심부에 처음 들어온 귀족 집안이 두 번째 시기에 들어서도 세습 혹은 유지되었거나 확대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두 번째, 두 시기에 거쳐 2석 혹은 2석 이상의 의석수를 점유한 귀족은 당시 정치권력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 귀족 수는 14家뿐이다. 당시 귀족의 전체 규모는 200여 家에 달한다. 그런데 그중에서 14家만이 噶廈 내에서 중심 귀족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다수의 귀족 중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사회신분의 고하가 엄격히 존재했으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핵심 귀족세력은 일부 몇 家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표 2〉에 수록된 귀족집단만이 최고위층의 귀족계층에 속하며 정교의 영향력을 발휘 하였던 것이다. 귀족가문이 흥성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영향력 있는 대형 황교사원에 집안의 아들을 출가시키는 것이다. 이는 티베트가 불교 사회임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한 것이다. 티베트에서 사원의 수행승은 90% 이상이 귀족계층이었다. 수행승은 세습과 교육 방법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데, 수행승에게는 절대적인 초약권을 부여하였다. 승려계층은 혼인과 무관한 계층이지만 불교가 신앙 이상의 역할을 하였던 티베트의 전통사회에서는 성장한 자녀의 출가를 최대 경사로 생각하였다.

티베트는 불교사원의 영향력과 대중성 있는 활불의 존재로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원 중심의 사회였다. 이는 일반 티베트 신자들이 불교사원과 사원에 존재하는 활불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신봉하는 종교의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귀족가정은 가문의 구성원 중 남자 한 명을 필수적으로 사원에 출가시킬 필요가 있었다. 출가한 자식이 사원에서 라마승 혹은 활불로까지 신분과 지위가 상승하면 가문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는 지원세력을 보유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티베트에서 개인적인 종교적 구도와와는 다른 귀족가문의 전략적 정책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귀족가문끼리의 혼인풍속은 가문의 부와 신분을 세습하고 확장하는 가장 자연스런 방법이었다. 근대 이전까지 티베트 귀족세계에서는 and

親적 성격이 농후한 혼인이 유행이었다. 귀족가문은 정치적·경제적 혹은 문화적 역량의 특성에 따라 다른 귀족가문과의 다양한 혼인관계를 진행했다. 이는 외형상으로는 일상적인 가문끼리의 혼인을 보여주지만 내재적인 목표는 귀족 간의 연합을 통한 신분과 힘의 과시를 의미한다. 영향력 있는 가문끼리의 혼인은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외부적으로 사회적 신분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끼리의 혼인은 장원과 농노의 재정 증가를 의미하며 자산의 확대로 이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문을 위해 혼인 당사자들의 개인적 감정과 의견은 배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티베트 사회에서 ‘일처다부제’ 형식의 혼인은 매우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는 한 명의 부인이 다수의 남자를 한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나이 순서에 따라 형이 먼저 동거를 하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의 남편으로 인정받아 동거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하지만 형이 살아 있는데도 동생을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여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했다. 간혹 형제기간에 불협화음으로 이어져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경우도 있어 여자는 이 형제들을 잘 다루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까지 부여받았다. 일반적으로 농노나 유목인 가정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으나 귀족가문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드물었다. 왜냐하면 형제기간의 마찰과 불협화음은 가문의 붕괴와 재산의 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共妻 상황 중에 형이나 동생이 다른 배우자를 원한다면 가문은 우선 그를 설득하고 복종시킨다. 그런데도 역시 다른 배우자를 고집한다면 가문 회의를 통해 새로운 반려자를 찾아주고 재산을 떼 주어 ‘分家’시키기도 한다. 가문에서 분가할 때 허락해 주는 재산은 가문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다. 만약 토지가 부족할 때는 가문의 이름으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귀족가문이 제일 꺼려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살펴본 파리가문은 이러한 재산유출과 인적 융합의 분열을 방지하고자 일처다부와 兄弟共妻를 과감히 시도한 전형적인 귀족가정의 사례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족사회에서 共夫 혹은 共妻의 혼인사례보다는 一夫一妻의 혼인형식이 선호되었고 제일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근대까지 티베트의 귀족가문들은 어떻게 가문의 연속성과 세습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하여 매우 고민하였으

며, 그 해결방법으로 귀족가문끼리의 혼인을 서로 간에 추진하였는데 이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VI. 맺음말

근대에 이르기까지 티베트 사회를 이끌어 왔던 동력으로 크게 세 부류의 정치적 실체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불교사원이고 두 번째는 활불과 라마승집단, 세 번째는 귀족세력이다. 이 중 귀족세력은 티베트 사회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티베트 사회에서 귀족집단은 섭정활불을 중심으로 하는 라마승 세력과 함께 불교사원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티베트의 정치·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서 광범위한 인적 시스템을 구축한 진정한 파워 집단이었다. 재정의 세속과 인적 구성원의 정치적 조합을 특징으로 하는 귀족집단은 역사적으로 막대한 토지와 장원을 자산으로 해당 지역 불교사원을 장악했으며 개인 구성원들은 지방정부인 '갈하'에 진출하여 정치적으로 약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티베트 사회에서 귀족집단이 보여준 긍정적 역할과 영향력은 활불보다도 효과적이었으며 라마승보다도 광범위했다. 귀족집단은 가문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일원을 사원으로 출가시키거나 갈하에 진입시켜 대신으로 만들었다. 이는 불교사원에 아들을 출가시켜 영향력 있는 라마승으로 만드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자 향후 잠재적 정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대부분이 사원에 출가하여 라마승이 되면 평생 불교에 정진하고 세속으로 환속하는 이는 매우 적었다. 이 밖에 또 다른 방법은 귀족은 같은 계층의 가문끼리 혼인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데, 이는 티베트 정권의 교체기나 수장(달라이 라마)의 유고 시, 다가올 수 있는 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혼인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티베트 사회는 계층구별이 확실한 신분의 등급이 존재

했는데 귀족은 전체 티베트 인구의 5%도 안 되는 지배계층에 속하였다. 그들은 인구에 비해 점유한 농노와 토지 그리고 장원은 방대했고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문의 중요한 과제였다. 그 방법으로 비슷한 가문끼리의 혼인 결탁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재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결론적으로 귀족계층 간의 혼인은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도구이자 경제적인 방법이었다. 이는 당시 티베트 사회에서 가문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단이자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 심혁주, 2010, 「티베트의 활불제도－신을 만드는 사람들」, 서강대학교 출판부
- 홍병혜, 2004, 「티베트 전통의 혼인유형 분석과 근혼문화의 형성배경」, 『중국학연구』 제28집
- 達瓦次仁, 1991, 『西藏封建農奴制研究論文選』,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普布覺活佛洛桑楚臣強巴嘉措, 2006, 『十二世達賴傳』,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普布覺活佛洛桑楚臣強巴嘉措, 熊文彬 譯, 2006, 『十三世達賴喇嘛傳』,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馮智, 2006, 『八世達賴喇嘛傳』,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舒介勛, 1988, 『藏族史論文集』, 四川: 四川人民出版社
- 牙含章, 1988, 「試論西藏封建農奴制度」, 『中國藏學』第1期
- 劉忠, 1983, 「試析西藏農奴制莊園的殘存形態」, 『民族學研究』第5集
- 劉忠, 1990, 「論清代領主等級制度的形成」, 『中國藏學』第4期
- 劉忠, 1991, 『西藏封建農奴制研究論文選』,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林冠群, 2007, 『唐代吐蕃歷史與文化論集』,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章嘉·若貝多杰, 2006, 『七世達賴喇嘛傳』,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張江華, 1989, 「試論西藏封建農奴制度的基本類型」, 『民族研究』
- 中國藏學研究中心社會經濟研究所 編, 1996, 『西藏家庭四十年變遷－西藏百戶家庭調查報告』,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中根千枝 著, 周煒 譯, 1996, 『西藏的貴族』, 西藏: 西藏人民出版社
- 陳慶英, 2002, 『藏族部落制度研究』,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陳慶英, 2006, 『歷輩達賴喇嘛生平形象歷史』,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陳慶英, 2007, 「西藏山南窮結家族」, 『民族學報』第20期, 台灣: 國立政治大學
- 陳小強 著, 1995, 「試析吐蕃王朝社會結構」, 『藏學研究論叢』, 西藏: 西藏人民出版社
- 次仁央宗, 1997, 「試論西藏貴族家庭」, 『中國藏學』第1期
- 次仁央宗, 1998, 「帕拉莊園朗生的今昔」, 『西藏研究』第7期
- 次仁央宗, 1999, 「帕拉家族及其莊園」, 『中國藏學』第2期
- 次仁央宗, 2006, 「西藏貴族世家: 1900~1951」,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皮德羅·卡拉斯科, 陳永國 譯, 周秋有 校, 1985, 『西藏的土地與政體』, 西藏: 拉薩出

版社

畢達克, 沈衛榮·宋黎明 譯, 2008, 『西藏的貴族和政府: 1728~1959』,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Goldstein, M. C., 1971, "Taxation and the structure of a Tibetan Village," 『中亞雜誌』 제15권

Goldstein, M. C., 1971, "Serfdom and nobility: an examination of the institution of "human lease" in traditional Tibetan society," 『亞洲研究雜誌(J. As. St.)』 제30권

Tsering Yangdzom, 2006, *The Aristocratic Families In Tibetan History 1900~1951*, China Intercontinental Pres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Marriage Culture of Tibetan Noble Families

Sim Hyukj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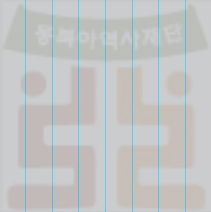
The following three aspects will help in understanding the power and the truth of how Tibetan society has maintained its unity of religion and politics until modern times. The first aspect is the Dalai Lama, the head of the unity of religion and politics, and high-ranking monks who are close to the Dalai Lama. The second aspect is the Buddhist temples that hold strong influence in designing and constructing Tibetan politics and religious culture. The third aspect is the power bloc of Tibetan noble families. However, the Tibetan society before 1951 was formed of the ruling class comprised of three types of lords,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of the feudal local government, the nobles, and the high-ranking lamas of Buddhist temples. Their population accounted for only 5% of the total population. Among them, the aristocracy was the actual power group that created Tibetan culture and politics, and took the lead in economy. Historically, the Tibetan aristocracy formed four types of classes. The first class was the *Yabshi* family. They were called “Golden aristocrats” and consisted of the parents of the Dalai Lama and the family of the Panchen Lama. The second class was the *Depon* family. This family, the most influential group in Tibetan noble society, was traditional and authoritative, and passes power to blood-related descendants. The third class was the *midak* family. This family used to dominate ministers of the Tibetan local government and actively pushed

forward marriage among similar families to maintain families' stability and status. At the time, this marriage culture affected other noble classes, except for the *Yabshi* family, and led to the universal sentiment that recognizes the politicization of marriage. Lastly, although they were ordinary nobles, they were small self-made families that accumulated economic wealth by their own efforts and entered into the world of nobles. This article analyzes the noble families' marriage forms, values, and marriage purpose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marriage of then-noble families was highly political by highlighting the difference from the marriage culture of common peasants and serfs in Tibet, and considers the social background at the time to see reasons for the politicization of the marriage.

Keywords

Tibet, noble, marriage, unity of religion and politics, golden aristocrats, polyandry

동향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과 러시아의 사할린 한인 연구

- 연구사의 검토 -

방일권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I. 머리말

한국민에게 사할린은 각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역사적 출발로는 19세기 말부터 한인 이주사의 한 무대가 된 동북아의 한 큰 섬이지만, 20세기에 들어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사의 정리, 일본의 역사왜곡, 그리고 평화로운 동아시아 관계 정립과 관련해서 러시아 사할린은 각별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지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사할린의 한인 문제는 오랜 동안 한일 양국의 현안이 되어 왔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총동원 정책을 중심으로 출발하나, 오늘날에는 패전 이후 한인에 대한 일제의 방기, 소련 시절의 억류와 이 기간 동안 이들의 귀환 문제에 대해 보여준 한국 정부의 무관심, 그리고 억류 기간과 1990년대 이후 영주귀국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경험들이 얽힌 복잡한 현상이 되었다. 한인의 억류와 귀환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의 엇갈린 시

각에서부터 일본인으로 규정되어 억류된 한인들의 국적 문제나 피동원자에 대한 배상(소위 '보상'으로 일컬어지는 노동의 대가에 대한 개인청구권 문제)까지 논란거리다. 아울러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를 의미하는 사할린 한인 1세대에 대한 영주귀국 사업이 2010년으로 실질적으로 완료된 상황에서, 영주귀국자에 대한 인권과 처우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반성과 새로운 단계에 걸맞은 정책의 요구도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20여 년의 영주귀국 사업을 계승할 향후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당장의 현안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2005년부터 사할린 한인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심을 갖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사할린 '조선인 강제동원'의 실상을 파악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고 역사적 의문과 현안들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많은 연구와 자료의 확보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조사의 결과가 여전히 이렇다 할 성과들을 내지 못한 원인의 하나로 그간 우리 학계의 관련 연구가 척박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자료와 전문연구자의 부족도 심각한 문제다. 정치권에서조차 사할린 한인에 대한 역사적 의문과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초적인 자료 확보와 연구진의 관심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실정이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사할린 문제를 다룬 전반적 연구사나 연구 경향을 분석한 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는 지금까지 국내 연구에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일제의 강제동원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동시기 전후의 시대적·역사적 관계 속에서 조망하는 연구와 관심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할린 지역이 갖는 다양한 정치·문화·역사적 특성을 공시적·통시적으로 고려하려면 자료 및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비판적 지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전문가 부족 상황에서 관련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구성도 긴요한 바, 일본과 한국의 연구, 그리고 러시아 측 연구자들의 연구와 그 시각이 상호 비교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측의 연구가 상당한 시각차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러시아 측 연구와 그들의 시각을 먼저 검토하고 일본 측 연구는 추후 별도의 검토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2011년 11월 말 현재까지 발간된 약 250편의 한국과 러시아 측 연

구 성과에 대한 간략한 정리다. 주요 연구자와 연구 성과, 그리고 주제와 시각 등을 중심으로 정리와 소개, 분석을 시도하였다.

II. 한국의 연구: 연구자와 영역

사할린 지역에 대한 국내 연구의 출발이 언제인가는 보는 이에 따라 연구의 개념과 결과물의 형식에 대한 기준이 달라 합의하기 어렵다. 국회 및 국립도서관과 국내 주요 학술기관 소장 자료를 검색한 결과로는 학술 기사의 경우는 1960년대 후반을, 학술 논문 영역에서는 1970년대 후반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¹⁾

내용적으로 국내의 사할린 연구는 대부분이 한인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민족적 아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 그리고 사할린 동포 귀환운동의 영향과 관련 연구 생산 간의 직접적 관계를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1960년대 일본에서 귀환운동의 단초가 만들어져 사할린 한인의 존재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국내에서 관련 민간 조직이 구성되었던 역사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2011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사할린 관련 연구로 볼 수 있는 총 196편²⁾을 살펴본 결과 국내의 사할린 연구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4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첫 번째는 자료집이다. 사할린 문제에 관한 문헌자료나

-
- 1) 1990년 이후에 관련 연구가 모든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학술 연구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연구의 출발은 1990년대부터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2) 학술 기사가 74편으로 가장 많았고, 학위논문을 포함한 논문이 68편, 학술도서 외에 회고와 소설 등 문학작품을 포함한 일반 도서가 31편, 기타 자료집, 보고서, 용역 보고서 등이 23편 등이었다.

학술지에 게재된 자료 소개를 비롯해 관련 단체의 활동 내용, 동포들의 육성을 담은 서간자료, 정책세미나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학술 연구다. 일반 논문과 학위논문, 그리고 학술적 성격의 저서들이 중심이 된다. 셋째는 르포성 자료다. 한인의 상황과 사할린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발간되거나 번역된 보도성 자료, 사진집 등의 다수 자료들이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학술기사이다. 공산권에 대한 연구가 자유롭지 않은 시기와 1990년대 초까지 재외동포, 공산권 관련 잡지들과 간혹 일반 잡지들에서 사할린(특히 억류동포) 문제는 정식 학술 연구의 주제라기보다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나 문제점을 언급하는 형식을 갖는 학술적 성격의 기사로 일반인에게 알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 기사는 향후 일반 학술 논문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있기도 하거니와 특히 1990년대 이전에 사할린 지역 관련 연구의 주류를 이룬다는 점에서 학술 기사라는 별도의 범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자료에 따라서는 앞서 분류한 네 그룹 중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자료집의 경우만 하더라도 순수하게 관련 자료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배경적인 사실을 전하는 학술적 기사나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연구 자료가 함께 붙어 있는 사례가 많았다. 학술 기사 중에는 일반 논문보다 더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견해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자료 분류는 그 주된 형식에 중심은 두되 내용을 고려하며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³⁾

1_ 주요 연구영역 1: 강제동원

사할린 지역에 관한 국내 연구의 시작은 억류 동포에 대한 현실적 관심에서 촉

3) 이 외에도 신문 지면을 통해 사할린 및 사할린 한인 문제와 관련된 기사들이 적지 않게 보도되었고, 그중에서 학술적으로 조명할 만한 의미 있는 자료들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기사는 별도의 분석을 요한다고 여겨지므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발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한국인에게 있어 사할린 문제의 근원은 일제 식민 지배의 미청산 문제와 맞닿아 있는 만큼 핵심 사안인 강제동원에 관한 연구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사할린 한인의 강제동원사에 대한 국내 학술 연구의 시발은 김민영의 논문과 전경수의 보고서로 볼 수 있다. 이주와 귀환이라는 주제에 비하면 한참 늦은 연구의 출발이라고 하겠다. 경제사학자인 김민영은 일제 전시체제가 이전 조선인의 사할린 이주부터 일본 측의 통계 자료들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근거로 조선인 사할린 동원의 실체에 접근한다.⁴⁾ 김민영은 일본 측의 사할린 강제동원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 꼽히는 나가사와 시게루[長澤秀]의 논문에서 제시된 조선인 강제동원의 기초자료와 그 분석을 적극 활용하여 사할린 조선인 강제동원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인류학자인 전경수가 책임 집필한 보고서⁵⁾는 민속 연구 방법을 활용한 현지조사의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 2장에서 전경수는 사할린의 역사와 초기 조선인 이주사, 조선인 강제동원과 이에 수반된 결과들을 주로 일본 측의 자료(일본어로 번역된 러시아어 자료 포함)를 기초로 다루었다. 김민영의 논문과 전경수의 보고서는 사할린 조선인의 강제동원 전반을 대상으로 한 학술적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자료 이용 면에서 일본 측 연구의 의존도가 컸다.

사할린 조선인 강제동원의 세부 주제들에 대한 연구는 2005년 이후에 출현한다. 2006년에 김승일이 비평논문⁶⁾을 통해 기존 연구를 검토하며 향후 연

4) 김민영, 2000, 「사할린 한인의 이주와 노동, 1939~1945」, 『국제지역연구』 4권 1호, 23~52쪽

5) 국립민속박물관 편, 2001, 『러시아 사할린, 연해주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특히 보고서의 2장인 전경수, 「한인동포 사회의 이주역사와 정착배경: 모든 것이 강제된 삶의 현장」(위 책, 39~80쪽) 참조.

6) 김승일, 2006, 「사할린 한인 미귀환 문제의 역사적 접근과 제언」, 『한국근현대사연구』 38집, 185~225쪽. 김승일은 기존 연구를 비판하며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를 종합한 후,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들고 있다. 강제연행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 사할린 한인 중 이중 연행자의 보상과 가족상봉 문제의 해결, 사할린 한인의 참상을 소개하기 위해 판결문 등의 발굴과 그 자료의 해석, 그간 연구의 문제점 파악, 사할린의 자연·사회·정치·국제관계 등에 대한 종합연구 등. 또한 그는 GHQ에 대한 이해와

구가 필요한 부분을 다수 지적한 바 있었다. 그가 언급한 문제들이 모두 연구로 추진되려면 더 많은 자료와 연구자들이 필요하겠지만, 몇 주제는 진일보한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선구적인 업적으로 강제동원 분야에서 계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연구자로 먼저 정혜경을 들 수 있다. 정혜경은 각종 명부와 관련 자료 및 생존자의 진술 내용 분석 등을 토대로 한 ‘전환배치’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일련의 연구 결과를 보고서와 학술 논문으로 정리해 나갔다.⁷⁾ 사할린과 일본의 동원 현장 및 생존자 면담 조사에다 관련 명부의 탄탄한 분석 경험에 기록학적 관리방법을 동원하여 미시적인 분석을 겸한 정혜경의 연구들은 ‘전환배치’의 이유와 규모, 실태 및 사실상 조선인에게는 강제적인 현원징용이었던 ‘전환배치’가 결과한 2차 피해 등을 복원하였다.⁸⁾ 정혜경의 연구는 조선인이 본격적으로 동원되기 전인 1920~1930년대에 조선의 사할린 인식을 다루는 배경 연구⁹⁾나 사할린 강제동

문서 탐독, 일본·북한·러시아·미국 등의 관계와 시각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일본 측 시각 및 논리에 대한 대안 마련(역사적·국제법적 연구)도 요구되며, 실천적 문제인 귀환과 무국적자의 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집단적 연구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각국 학자들 간의 공동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 7)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 『사할린 ‘이중징용’ 피해 진상조사』; 정혜경, 2008, 「1944년에 일본 본토로 ‘전환배치’된 사할린(화태)의 조선인 광부」, 『한일민족문제연구』 14호, 5~73쪽; 정혜경, 2009, 「전시체제가 화태 전환배치 조선인 노무자 관련 명부의 미시적 분석」, 『승실사학』 22집(이 두 글은 같은 연구자의 저서 『일본 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 연구 2』, 2011, 선인에도 수정 보완하여 실렸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간, 2007, 『강제동원구술기록집8-지독한 이별』; 정혜경, 2011, 『지독한 이별-1944년, 에스토르』, 선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정혜경의 사할린 한인 강제동원 연구는 진상조사와 구술조사에서 명부의 미시적 분석과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대중적 담론의 형성 등으로 그 폭과 깊이를 더해 가고 있다.
- 8) 전환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장석홍도 논문 「사할린 한인 ‘이중징용’의 배경과 강제성」(『한국학논총』 29호, 2007, 473~502쪽)에서 다룬 바 있지만, 정혜경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거의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전환배치(이중징용)의 배경과 강제성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나 주장을 찾을 수 없다.
- 9) 정혜경, 2007,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 사회의 화태 인식」, 수요역사연구회 편, 『식민지 동화정책과 협력 그리고 인식』, 서울: 우리미디어, 261~293쪽

원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된 대중서¹⁰⁾와 더불어 읽혀질 때 20세기 초 일제의 강제동원과 사할린 조선인 문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베일에 가려졌던 사할린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연구에서도 국내 학자들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미즈호와 가미시스카의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2편의 보고서¹¹⁾를 비롯해, 이원용의 정리로 가미시스카 사건에 대한 소련 측 자료를 번역한 자료집¹²⁾이 발간되었다.¹³⁾ 위원회 보고서의 조사책임자는 대표적인 두 학살사건이 모두 무고한 조선인 민간인들이 희생자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강제동원된 이들만이 아니라 先住 정착자들까지 일제의 감시와 차별의 대상이었던 상황과 해방 직후 공권력 부재의 혼란 속에서 일부 일본인들의 병든 식민지 지배 의식과 잘못된 애국심이 기존의 차별 의식과 혼재되는 가운데 비인도적인 잔혹행위가 발현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또 다른 보고서¹⁴⁾도 빼놓을 수 없다. 보고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면서 사할린 강제동원의 전 과정(동원, 이동경로, 배치된 작업장과 노동실태, '전환배치', 조선인 학살, 귀환문제 등)을 노무동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피해조사, 구술조사 등과 기존 연구를 비교하여 동원의 실상과 그 장기적인 영향을 구체화한 동 보고서에는 조선인 피동원자의 규모(약 3만 명 추정), 강제동원 작업장의 분포,

10) 정혜경, 2010, 『조선 청년이여 황국 신민이 되어라』, 서해문집. 특히 이 책의 5장인 '동토의 땅, 사할린의 얼어붙은 눈물'(152~191쪽) 참조.

1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사할린 가미시스카(上敷香)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조사』, 2007 및 『사할린 미즈호(瑞穂)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조사』, 2008(연구책임자: 방일권)

12) 이원용, 2009, 『사할린 가미시스카 한인학살사건 1』, 북코리아

13) 국내 연구자는 아니지만 일본어로 발간되었던 하야시 에이다이[林大榮]의 르포인 『증언: 화태 조선인 학살사건』(사할린한인 교포귀환촉진회 간, 1993)은 국내 연구에도 활용되었고,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에 르포성 픽션인 콘스탄틴 가포네프의 러시아어 책도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가파네프, 이연정 역, 2009, 『사할린 미주호 마을의 비극』,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14)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간, 2011, 『사할린 강제동원 조선인들의 실태 및 귀환』(연구책임자: 김명환)

남사할린 강제동원의 특징(동원 중 사망 및 행불 비율이 높음) 등을 규명하는 진일보한 성과가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사실상 사할린 지역 조선인의 노무동원 문제에 집중된 국내 연구계에 사할린과 쿠릴 지역으로 동원된 조선인 군인, 군속 관련 명부를 분석한 일본인 연구자 기타하라 미치코[北原道子]의 논문이 번역 소개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연구 분야가 확대되었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일제 강제동원의 성격상 그 규명 작업에서도 국내 학자와 일본 연구자 간의 협력과 자료의 발굴 및 분석, 그리고 공유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_ 주요 연구영역 2: 이주와 귀환

사할린 한인의 이주와 귀환은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강제동원을 사할린 한인 이주의 주요한 원인으로 본다면 이주와 귀환은 사할린 연구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주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와 귀환에 특별히 초점을 둔 연구들을 따로 떼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사적으로 이주와 귀환의 주제는 사할린 지역 국내 연구의 출발인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나온 학술 기사의 약 50% 이상을 포괄하며, 자료집 역시 대부분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주와 귀환은 연구의 시계열적인 추적과 연구 동향의 특징들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 주제이다.

1960~1970년대 중반까지 사할린 한인의 이주와 귀환을 언급한 자료들은

15) 기타하라 미치코(北原道子), 2011, 「조선인 제5방면군 우수명부」로 본 사할린·쿠릴·홋카이도 부대의 조선반도 출신 군인, 정혜경 외, 『강제동원을 말한다-명부편(1)』, 도서출판 선인, 235~287쪽. 재일조선인운동사연구회 편, 『재일조선인사연구』 36호(2006. 10)에 실린 일본어 논문을 번역한 글로 '조선인 제5방면군 우수명부(留守名簿)'를 토대로 구일본 육군의 사할린·쿠릴·홋카이도 부대에 소속된 조선인 420명을 분석한다. 논문에서 필자는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배치 및 소속 부대, 병종, 출신지별 분포, 전사자와 행방불명자, 공탁 내역 등에 관해 상세히 분석하고, 개인별로 전사 및 행방불명된 상황을 일일이 확인함으로써 명부에 함의된 역사성과 의미를 드러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주로 언론인들에 의해 세상에 빛을 보았다. 공산권에 속한 사할린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연구는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정보의 부족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추진되기 어려웠다. 이에 비해 언론인들은 사회문제, 혹은 공산권에 대한 학술 기사 형태의 보도라는 형식으로나마 사할린과 그곳에 '억류된 동포' 문제를 언급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하나가 1960년대 후반에 일본의 '화태억류귀환 한국인회'를 통해 진행된 사할린 동포들과 국내 유족들의 편지 교환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1970년대 초 우리 정부가 1차로 200여 명의 사할린 억류 동포를 국내로 귀환시키기 위해 일본을 매개로 소련 측과도 접촉을 시도하고자 했던 사건이었다.¹⁶⁾

기자 박경석은 2회에 걸쳐 사할린 한인들이 보내온 편지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꺾박당하는 처지와 귀환의 강렬한 염원, 일본인 처와 함께 1958년에 일본으로 귀환한 이들의 활동과 한인 귀환에 대한 3국(한·일·소) 각국의 입장을 소개했다.¹⁷⁾ 1970년대에 들어서는 비록 외국인 학자의 글을 번역하여 제한적으로 소개하는 형식이기는 하지만 사할린 지역의 소개¹⁸⁾나 사할린 동포의 귀

16) 1971년에 손치규를 시작으로 몇 명의 동포가 일본을 거쳐 국내로 귀환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1970년도에는 국내에서 중소이산가족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벌였다. 물론 7·4 공동선언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과 공산권에 대해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천명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7) 박경석, 1967, 「적치하의 망향 30년」, 『신동아』 1967년 3월호, 170~178쪽; 「사할린에서 온 편지」, 『신동아』 1967년 9월호, 248~252쪽. 필자는 1973년 일본과 소련 적십자사 당국자 간의 만남에서 사할린 교포의 송환 문제가 언급되었음을 알리며 소련이 이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인 바, 향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다만 사안이 국제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일본의 태도가 주요 변수가 되리라고 전망했다.

18) J. 스테판, 1971, 「사할린도, 소련의 동북아시아의 전초기지」, 『대전략』 13-4(1971년 11월), 5~20쪽. 이 글은 *Asian Survey*, Vol. 10, No. 12(1970년 12월호), 1090~1100쪽의 "Sakhalin island: Soviet outpost in Northeast Asia"를 번역한 것이다. 스테판은 사할린을 아시아의 '알자스 로렌'으로 규정하면서 섬의 역사, 섬을 둘러싼 쟁탈전과 일·러 관계, 자원과 경제발전 전망, 사할린에 대한 사회·학문·문화적 접근들, 원주민의 상황 등을 언급했다. 한인에 대해서는 18쪽에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데 해방 당시 억류된 이는 4만 3천 명으로 최대의 외국인 소수집단으로서 주로 1930년대 노무자로 사할린으로 끌려온 이들로 규정되었다. 『대전략』은 국방대학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였던 만큼 출간물이었다고는 하나 일반 사회에

환 가능성을 해당국들 간의 관계 속에서 가늠해 보는 기사¹⁹⁾도 나왔고, 한인 귀환 운동에 가담한 인사의 입을 빌려 한국 측의 입장을 홍보하는 듯한 보도도 나타났다.²⁰⁾

1970년대 초 사할린 동포의 귀환문제에 관한 한국 측의 정리된 입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최낙정의 글에 나타난 대로, 사할린의 한인들은 약 15만 명의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부 혹은 그 후손으로서, 일본에 이어 소련 치하에서도 비극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련이나 북한의 국적을 강요받는 처지에 있는 이들로 규정된다. 그중 '약 7천 명이 1960년대 후반 이후 당시까지 귀환 희망을 알려오고 있음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 제공자 일본과 억류의 주체인 소련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사할린 한인은 인도적으로 마땅히 귀환되어야 하겠지만 당장의 귀환은 안보상의 문제를 비롯한 현실적 우려점이 없지 아니하므로 외교적 해결책과 순차적 귀환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당시 우리 정부의 입장에 유가족과 국민은 당연히 지지를 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1990년대 초까지도 많은 학술 기사들에서 거의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사할린 한인 문제에 관한 이 주장의 근원은 무엇인가? 필자가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주요 동기의 하나였던 이 의문과 관련해 여기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첫 번째는 현규환이다. 당시 사실상 연구자가 부재했던 재외동포 문제에서 성과를 냈던 현규환은 1972년에 『재소한인의 사적 고찰』을 출간했다.²¹⁾ 한인의 러시아 이민사를 중심으로 한 이 책에서 사할린 한인은 5장(165~200쪽)에 소개된다. '종전과 함께 억류된 화태 한국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의 5장은 사할린 한인의 억류 경위, 전후 사할린 잔류문제 및 이념대립, 일본인의 귀환

공개된 정보는 아니었다고 하겠다.

19) 이강걸, 1973, 「사할린 교포문제와 한일소관계」, 『자유공론』 1973년 8월호, 100~109쪽

20) 대표적으로 '사할린억류교포귀환촉진회' 간부인 최낙정의 「사할린 교포의 실태와 송환문제」(『북한』 1975년 2월호, 251~257쪽)가 그 예가 된다.

21) 현규환, 1972, 『재소한인의 사적 고찰』(교포정책자료 13), 해외교포문제연구소 간

과 한국인의 억류 상황 및 귀환 운동 등을 다룬다.

현규환은 자신의 책에서 5장은 '장재술의 『화태 한국인』이라는 책자에서 번역 발췌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²²⁾ 엄밀히 현규환 본인의 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진술이지만, 이 자료가 이후의 많은 논문 및 학술 기사에서 수없이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저자의 무비판적인 인용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글에 포함되었던 다수의 미확인 혹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었다. 조선인의 동원과 잔류자의 수와 관련된 부분부터 살펴보면, 가장 많은 조선인이 사할린으로 투입된 것은 '1939년부터 41년'이고, 연 동원인원은 '약 15만 명'이었으나 약 10만 명이 이동하여 '화태에 잔류한 사람은 5만 정도'라는 내용(168쪽)이 나온다. 소위 강제동원 연인원 15만 명설의 출발이다. 사할린 한인 '비국적자'를 일컫는 '비즈칼단스키'²³⁾를 비롯해 러시아어를 잘못 옮긴 명칭들도 이 책에 기원을 둔다.

현규환의 책은 향후에 계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잘못된 정보들뿐만 아니라 사할린과 한인사회를 보는 국내 연구자들의 시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데올로기적 비난은 당시의 정서상 이해의 여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본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데다²⁴⁾ 일본인과 소련에 대해 '비열', '비민주적'이라는 식의 비하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자주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마카로프(마카로호)에서 발생해 소련 치하에서 남한 출신의 조선인이 차별을 받은 대표적 사건으로 자주 언급되는 '남북조선인 간의 폭력사건'도 여기에 소개되어 있다.²⁵⁾ 또한 '가미시카 군용기지건설에 동원된 한국인 징용노무자 2천 명 중

22) 위 책, 166쪽. 장재술은 일본에 머물며 사할린 동포 귀환운동 및 이와 관련된 저술 활동을 벌인 활동가로 그의 생애와 활동, 저술 자료는 2010년에 몇 편의 글을 통해 발표되었다. 김진곤·안미련의 『장재술 선생의 생애와 애족정신』(울산 남구문화원 향토사연구소 간, 2010) 및 「통일일보 기고문 '사할린 한국인의 비극'에 나타난 장재술의 공적」(『울산문화연구』 2호, 2009, 119~134쪽) 등이 그 예다.

23) 정확히는 '베즈그라즈단스트보(Безгражданство)'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잘못이 원본에 있었는지, 번역 과정의 실수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24) 2절의 대부분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스탈린 체제에 대한 비난이다.

25) 위 책, 177~178, 181~188쪽 등을 보라. 마카로프 사건은 '소련당국의 재화태한국인에 대한 숙명적인 잔인한 처벌에 의해 해결되었다'(181쪽)고 한다.

200명이 학살된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일본의 비인도적 처사들이 여러 곳에서 자행되었다고 주장한다.²⁶⁾

또 다른 한 사람은 장민구다. 1972년 4월부터 개시된 한국방송공사의 라디오 방송 '사할린동포에게'를 담당한 책임자였던 장민구는 1976년에 방송을 듣고 보내온 편지들을 모은 책²⁷⁾과 학술 기사²⁸⁾를, 이어 1977년에는 석사학위 논문을 내놓아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연구의 최초 필자로 자신의 이름을 기록했다.²⁹⁾

비록 학위논문의 간행 시기가 1970년대 후반이기는 하지만 장민구의 연구는 사실상 1970년대 초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 발표되는 그의 연구들도 실제로 학위논문에서 보여준 기본 시각과 정보를 벗어나지 않는다. 장민구의 연구는 공산권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 시기에 한국으로 귀환을 희망하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 자료(KBS로 발송된 4,500여 통의 편지)의 분석, 개인 증언과 외무부 및 대한적십자사, 일본 등에서 나온 기초자료들을 다수 참고하고 있었고, 사할린 동포의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억류 동포에 대한 비정치적이고 인도주의적 견지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³⁰⁾하고 있는 등 당시의 다른 사할린 관련 기사들과는 긍정적인 차별성을 갖는 연구로 평가된다.

논문에서 장민구는 사할린 섬의 역사와 탐험사, 일·러 관계 등을 개괄한 후 사할린 한인의 억류 배경과 현황, 현지 인구와 억류된 이들의 출신(남한 출신이 90%)을 비롯한 통계들을 정리한다. 이후 소련의 한인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 억류자의 귀환의 염원과 국적 문제, 북한의 선전, 현지의 생활실

26) 위 책, 195쪽 이하를 보라.

27) 장민구 편저, 1976, 『사할린에서 온 편지』, 한국방송공사

28) 장민구, 1976, 「사할린의 한국인들」, 『북한』 56(1976년 8월호), 243~253쪽

29) 장민구, 1977, 『사할린(화태)억류동포실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간행은 1978년에 이루어졌다)

30) 배경으로는 1972년 7·4공동성명과, 1973년 6월 23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통일외교정책'에 이산가족 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태(취업현황과 월수입 등), 귀환추진 운동(일본과 한국 중심)을 소개하여 사할린 한인 문제는 인도적으로 시급한 과제임과 동시에 일본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사할린 동포의 대부분은 공산 이데올로기의 선전 속에서도 바람직한 조국(남한)관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통일방안에 대해 지지를 표한다는 것도 강조된다. 물론 '북괴'가 강력한 선전 공작활동을 펼치고 있고, 귀환을 희망하지 않고 사할린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도 달지만 그럼에도 '사할린 교포의 송환 문제는 법 또는 정치관계를 초월한 인도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풍성한 정보와 참신한 시각으로 장민구의 논문은 이후 다양한 학술 기사로 여러 곳에 소개되었고, 그만큼 관련 연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다. 하지만 필자가 향후 여러 글에서 반복하는 사할린 억류 동포의 역사적 연원과 여러 부정확한 통계 인용도 이 논문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된 한인의 수가 15만 명으로 추정되었고, 1939~1941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의 한인이 사할린의 작업장으로 투입되었다고 적혀 있다(9쪽). 해방 후 현지에 억류된 4만 3천 명을 모두 강제동원자로 본 것이나 1956년 일소 수교 이후 '일본인 처를 가진 2,200명'이 일본으로 송환되었다(10쪽)는 내용, 그리고 당시 사할린 억류자 중 '27,950명'이 북한 국적 취득자라는 지적(표 1)은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없다. 3만 8천 명에 달하는 남한 출신자의 출신 도별 통계(경상도 70%, 충청도 20%, 기타 10% 등)와 경상도 출신을 제외한 '그 외 도민들은 대부분 강제 연행되어 간 사람들이다'(13~14쪽)라는 주장 역시 어떤 자료에 근거했는지 알 수 없다. 그 외에 사할린 현지 생활에 대한 각종 수치와 심지어 조국관이나 심리상태에 대한 서술까지도 '화태억류귀환동포회'나 개인들의 증언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어서(물론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할 수도 있겠으나) 학술적 엄밀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16~25쪽 참조).

장민구의 논문에 내포된 사할린 한인에 대한 일종의 종합적 자료집이라는 성격은 다른 제목으로 발표된 그의 여러 글에서도 동일한 특징으로 나타났

다.³¹⁾ 즉, 자료집이든 짧은 학술 기사든 사할린 동포 억류의 역사적 배경, 억류 후 국적 취득 문제, 공산 치하에서의 생활에 따른 조국관의 변모, 30여 년간의 귀환교섭, 사할린 동포 귀환의 문제점과 대책의 지적 등의 주제들이 동일한 구도로 언급된다. 현황에 대한 여러 통계들은 막연하게 편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얻은 정보로만 짐작될 뿐이며 그 출처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마찬가지다.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15만 명설이나 해방 후 현지에 억류된 4만 3천 명 모두를 강제동원자로 보는 것은 현규환의 글에서 출발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1956년 일소 수교 이후 ‘일본인 처를 가진 2,300명’이 일본으로 송환되었다는 수치나, 당시 사할린 억류자 중 ‘2만 6천여 명’이 북한 국적 취득자라는 지적, 3만 8천 명에 달하는 남한 출신자의 출신 도별 통계(경상도 70%, 충청도 20%, 기타 10% 등)와 경상도 출신을 제외한 ‘그 외 도민들은 대부분 강제 연행되어 간 사람들이다’는 주장 등은 일정한 객관적 검증이 요구되는 부분이었다.³²⁾

필자의 소견으로 현규환과 장민구의 연구는 초기 국내 연구의 경향을 대표하며 향후 사할린 연구의 기본적인 수치와 시각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각각의 긍정·부정적인 공헌을 논외로 하더라도 두 연구자의 성과와 시각에 시대적 한계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오늘날의 연구에서도 여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
- 31) 앞서 언급된 장민구의 글 이외에 「사할린 歸還과 北傀工作 속 갈등」(『북한』 1978년 4월호, 162~171쪽), 1985년에 나온 「사할린 거주동포의 조국관과 국내이산가족」(『공산권연구』 73호, 85~96쪽)과 「사할린 거주동포의 귀환추진과정 및 그 대책」(『공산권연구』 74호, 122~136쪽)도 사실상 동일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사할린 한인의 편지 소개를 중심으로 한 『사할린에서 온 편지』 역시 편지 외에, 사할린 섬과 억류동포 발생의 배경(3장 및 5장), 귀환운동의 과정과 송환의 문제점(4장), 1975년 동경지방재판소에 제출된 화태 억류자 귀환에 관한 청구소송의 소장(부록) 등을 함께 실어 사할린 억류 한인 문제에 관한 일종의 자료집 역할을 하도록 기획되었다.
- 32) 장민구, 1978, 「사할린 歸還과 北傀工作 속 갈등」, 『북한』 1978년 4월호, 162~171쪽. 이 글에서는 사할린 억류자 중 북한 국적 취득자의 수치가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즉, 앞에서 2만 6천 명으로 밝혔던 이 수치가 표 1에서는 ‘27,950명으로 4만 3천 명의 65%’라고 되어 있다. 그 외에 일본인 귀환자 수를 50만 명(실제 30만 명)으로 잘못 제시하기도 한다(164~165쪽).

한계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근거 자료나 검증 절차 없이 일방적인 목소리로 문제를 던지는 것이나 사할린 한인 문제를 체제우월성 강조나 일본에 책임 넘기 기라는 틀 안에서 다루는 방식이 사할린 사회에 관한 국내 연구의 초기 단계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반성할 부분은 존재한다. 후대 연구자들 역시 선행 연구를 비판적 검토나 검증의 과정 없이, 때로 특별한 목적으로 인용하기 까지 하면서도 이를 흔히 자료의 부재나 시대적 한계의 탓으로 돌리곤 했다는 점에서 공동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할린 한인의 이주와 귀환에 관한 연구사의 다음 단계는 1970년대 말부터 1990년까지로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 시기는 앞에서 제기되었던 사할린에 관한 기본 정보의 부족이 여전한 가운데 억류 당사자와 유가족의 불붙는 귀환의 갈망과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및 이에 부응해 일어난 일본과 한국의 귀환 운동이 뒤섞인 시기다. 편의상 국내 연구의 2단계로 명명하고자 하는 이 시기에도 학위논문 등의 전문적인 학술 연구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2단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련성과는 일본의 시민활동가나 르포 작가 등이 발표한 글의 번역본과 사할린 한인의 억류 책임을 중심으로 벌어진 법적 논의들이었다.

1980년대 초까지는 일본에서의 관련 운동과 성과들에 대한 번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두 출판사에서 서로 다른 번역자들이 출간한 일본의 르포 작가 미시나 히데아키[三品英彬]의 책³³⁾은 저자가 박노학 사할린귀환재일한국인회장과 만나면서 사할린 한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후 일본 내 여론 환기를 위해 쓴 책으로서 약간의 픽션이 가미된 부분도 없지 않다. 하지만 박노학에게 보내온 동포들의 편지와 일본 측 자료, 면담, 귀환운동 활동의 경험 등이 개인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소개되고 있어 사실감을 더하는 데다, 억류 한인의 90%를 강제동원자로 추정하는 일본인 저자의 한인 강제동원에 대한 인정은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일본의 책임 문제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주기에

33) 三品英彬 著, 김종필 역, 1982, 『사할린의 한: 나의 조국 일본을 고발한다』, 인간; 三品英彬, 박재영 역, 1983, 『망향 40년』, 성정출판사

충분했다. 게다가 일제 시기 사할린 현지에서의 열악한 노동조건, 일본인의 차별정책과 조선인 학살사건, 해방 직후 소련군정하의 생활, 귀환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무책임한 태도, 귀환을 위한 일본 내의 활동과 그 평가, 사할린 재판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의 차별적 시각을 냉정히 비판하는 이 책은 정보 부족에 시달리던 국내 연구자들에게 사할린의 비극을 확실한 사실로서 자리매김하게 함과 동시에 제3자인 듯 입장을 취했던 우리 정부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³⁴⁾

법조인 중에서는 재일변호사 김경득이 1975년부터 일본에서 진행된 '사할린 재판'에 대한 각종 보고 형태의 글을 통해 법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책임을 심도 있게 제기함으로써 한국 법조계에 적지 않은 자극을 주었다. 그는 사할린 한인의 비극이 초래된 배경(일제의 동원 역사와 패전 후의 기민정책)과 일본 정부의 무성의함, 귀환을 위한 개인들의 노력과 국제적 접촉 등 1976년까지의 사할린 한인 귀환을 둘러싼 역사를 되짚어 나가면서 그것이 바로 일본 변호인단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하고 당시 진행되고 있는 사할린 재판과 재판정에서의 쟁점들, 일본 재판정의 형식논리를 비판적으로 소개한다. 아울러 사할린 한인의 잔류는 일본인의 한인에 대한 일종의 민족차별로부터 초래된 것인 바 재일한국인의 인권옹호 문제와 관련이 깊다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³⁵⁾

34) 국내에서 간행된 관련 책으로 임은전, 『사할린 동포의 울부짐』(소문출판사, 1988)이 있으나 이 책은 사할린귀환재일한국인회 회장 박노학의 증언과 그 가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글로서 박노학 자신의 동원과 사할린의 생활 및 해방 후 소련 치하의 생활, 일본으로의 귀환 후 귀환운동 활동을 그의 사망 시기까지 추적하고, 박노학 등의 활동으로 촉발된 여러 귀환운동 활동 소식과 사할린귀환재일한국인회 연혁, 1980년대 일시만남이 이루어진 이들의 명단 등을 부록으로 실어, 사할린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35) 김경득, 1982, 「사할린 재판보고」, 『마당』 1982년 10월호, 98~102쪽; 「일본에서의 재사할린한국인 귀환운동의 경위와 현단계」, 『대한변호사협회지』 88호(1983. 7), 14~18쪽; 「사할린 교포송환 교섭경위」, 『교포정책자료』 22집(1984. 9), 143~148쪽; 「사할린잔류 한인 귀환소송의 추이와 법적 논점」, 『해외동포』 30(1988. 12), 23~26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의 네 글은 사실상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되거나 동일하다.

김경득의 논리는 사할린 한인 문제의 발생 원인을 일본의 강제연행과 원상회복 의무의 위반에 있음을 명시한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발간자료 ‘사할린억류한국인귀환청구재판’에 관한 1차조사보고서³⁶⁾나 1970~1980년대 일본에서 진행된 사할린 한인 귀환운동의 한 중심이었던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교수의 주장³⁷⁾과 일치하였고, 국내 관련 연구에서도 기본적인 관점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홍석조의 연구³⁸⁾다. 사할린 한인 귀환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는 이 글에서 필자는 한인의 억류사로 볼 때 당장 귀환이 급한 상황이지만 현실적 문제점으로 관련 기본 통계나 자료가 절대 부족하고 외교관계가 복잡하며 한국은 해결자적 지위가 아니라면서, 법률적으로 당장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할린 한인 국적 조항의 해석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방’에 따른 새로운 국제법 이론의 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결국 문제 유발 주체인 일본에 대해 식민지배로 생긴 결과의 원상회복을 묻는 홍석조의 문제의식과 논조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사할린 한인 억류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배재식 등³⁹⁾과 지정일의 연구⁴⁰⁾와 동일 선상에 있다.

36) 이 자료는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편집부, 1984, 『귀환은 일본정부의 책임이다 - 일본 연의 조사보고서』, 137~150쪽을 비롯해 여러 곳에 중복,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이후의 연구나 법조계의 관련 기사를 보면 한국의 연구자나 언론에서 이 자료의 통계나 논지, 예시를 반복해 소개하는 등 이 자료가 단순한 소개 자료의 차원을 넘어 이후 한국 측의 시각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진다.

37)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사할린 잔류 한인과 일본의 전후책임」, 『해외동포』 30(1988. 12), 9~13쪽 및 『교포정책자료』 32(1990. 1), 9~13쪽. 필자는 이 글에서 사할린 한인을 ‘전쟁노동력으로 연행’되어 ‘전후 방치’된 이들로 소개하고 ‘한인 대부분을 사할린으로 강제 연행했다가 그대로 방치한 일본 정부’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며, 나아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기 전까지 일본 국민이었던 한인을 인양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커다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38) 홍석조, 1988. 3, 「사할린잔류 한국인귀환에 관련된 제문제점과 대책」, 『정우』 70, 118~126쪽. 같은 글이 『해외동포』 30(1988. 12), 『교포정책자료』 32호(1990), 27~33쪽에도 실려 있다.

39) 배재식, 1983. 7, 「사할린 잔류 한국인의 법적지위의 본질」, 『대한변호사협회지』, 8~13쪽; 「잃어버린 인권을 구제하는 길: 재사할린 교포의 송환문제」, 『교포정책자료』 32호(1990. 1), 4~8쪽. 배재식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전의 일본국적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소련에 의해 무국적자로 규정된 사할린 한인과 이들의 억류는 ‘법적으로 인권의 조직적 침해를 당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국제법적으로도 사할린

우리 정부도 사할린 한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국내 연구가 활발해지기 이전에 이 문제의 주도적 해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할린 교포의 현황과 법적 지위』⁴¹⁾다. 한국 정부는 일부 사할린 한인을 귀환 시키려 했던 1970년대 초의 시도가 실패한 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중앙 차원에서 대책의 모색을 시작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인 귀환 관련법의 점검과 우리 정부의 귀환에 대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려 했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법무부의 자료는 한일 협정시 배제되었던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문제, 일본 정부의 귀환실현 책임의 법적 측면을 되짚고 있다.⁴²⁾

이주와 귀환 연구는 199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무엇보다 한소 수교(1990. 9. 30)로 양국 간 소통의 길이 열리면서 사할린 한인의 실태에 관한 관심과 정보가 늘어났고, 점차 활성화되는 인적 교류 속에 사할린 한인의 모국방문이 이루어지는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다. 1990년대 이후의 연구는 관심의 다양화와 학술적 성격 연구 활성화로 특징지을 수 있겠다.

소련으로 접근할 길이 열리게 되면서 학술 기사들은 사할린 현지 한인 및

잔류 한인은 소수민족으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문제는 소수민족으로서의 권리와 기본적 인권의 국제법적 보호의 문제다. 따라서 이들에게 국적과 주거지 선택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법적 책임의 당사자인 소련과 일본은 이들의 염원을 따라 귀환을 추진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1985. 4, 「사할린 교포의 국적문제」, 『대한변호사협회지』, 63~72쪽에서도 동일한 시각이 확인된다.

- 40) 지정일, 1988. 12, 「사할린 거주 한인의 귀환(법적측면)」, 『해외동포』 30, 14~22쪽. 무국적 사할린 한인들의 법적 지위와 귀환을 원하는 한인들의 법적 입장을 고찰하는 이 글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로 인해 한인은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1961년 4월 28일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가 차별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교포정책자료』 32호(1990), 14~22쪽에도 같은 제목과 내용이 실려 있다.
- 41) 법무부, 1986, 『사할린 동포의 현황과 법적 지위(법무자료 73집)』, 계문사
- 42) 법학자 정인섭 역시 한일협정에서 제외되었던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문제와 일본 정부의 귀환 실현 책임에 관한 법적 측면을 꼼꼼히 점검하는 「재사할린 한인에 관한 법적 제문제」(『국회법학회논총』 66호(1989. 12), 165~190쪽)를 발표하였다.

이미 귀환한 일부 한인의 생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⁴³⁾ 이제까지 일본의 책임에만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달리 사할린 한인 사회를 러시아 한인이주사의 연장에서 살피며 소련 치하의 생활을 보다 깊이 다루거나 한인의 성공담과 다양한 삶의 변화들을 소개하고 1992년 9월 말에 이루어진 1차 영주귀국까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여주면서 사할린 한인 문제를 보다 주도적인 입장에서 우리 측이 해결해 가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도드라졌다.⁴⁴⁾

1990년대에는 자료적인 기반도 넓어지기 시작했다. 사할린 귀환운동 관련 자료집,⁴⁵⁾ 러시아 출신 학자의 한인 역사통계 자료,⁴⁶⁾ 일본의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저서, 취재기, 개인들의 생애이야기 등이 번역 출간⁴⁷⁾되었던 것이다. 특히 오누마 야스아키의 책 『사할린에 버려진 사람들』⁴⁸⁾은 일본의 전쟁책임 문

43) 『전망』 40호(1990. 4)에 실린 김연수, 「사할린동포의 이주사」(42~47쪽), 손명근, 「근면한 까레이스끼 사할린 한인들의 생활상」(48~53쪽), 장민구, 「사할린 동포들의 한국방문과 전망」(60~65쪽)과, 박종건, 1991. 8, 「통한의 땅, 사할린 한인들의 어제와 오늘」, 『통일로』 36호, 152~161쪽; 서현섭, 1992, 「한인 2세대들이 터주대감이 된 망향의 땅 사할린」, 『북한』 1992년 8월호, 72~77쪽; 차성덕, 1994. 6, 「사할린 교포 1세의 영주 귀국 및 생활보호」, 『외교』 30, 96~100쪽; 김수한, 1995. 1, 「광복 50주년과 사할린 교포문제」, 『민족정론』 18, 116~122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책으로는 김월화, 1990, 『한국과 소련: 기자가 본 인식과 현실』, 학문사가 있다.

44) 이 같은 논조는 2000년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종철, 2000. 4, 「사할린 동포를 말한다: 사할린 동포의 현주소는 역사의 불행디고 중상계급으로 성장」, 『통일한국』 196, 16~18쪽

45)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문제의원간담회 편,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편역, 1994, 『사할린 잔류 한국, 조선인문제와 일본의 정치』, 고려대학교 출판부; 사할린동포법률구조회, 1997, 『사할린 보고서』, 사할린동포법률구조회 간은 특별히 언급할 만한 자료들이다.

46) 박수호, 1992, 「사할린 한인 역사통계」, 『재외한인연구』 2, 163~174쪽

47) 대표적으로 오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저, 이종원 역, 1993, 『사할린에 버려진 사람들』, 청계연구소; 쓰노다 후사코(角田房子) 저, 김은숙 역, 1995, 『슬픔의 섬 사할린의 한국인: 전후책임의 배경』, 조선일보사를 들 수 있고, 훗카이도신문사에서 펴낸 취재물인 『오! 사할린의 하늘이여 조국의 흠뻑새여』(사할린동포귀국후회회 간, 신해진 역, 1990)와 다큐멘터리물인 우노요시코(우야숙자)의 『사할린』(우석출판사, 1991, 고계영 역)도 개인에 관한 이야기들에 포함시킬 수 있다.

48) 이 책은 大沼保昭, 1992, 『サハリン棄民: 戦後責任の点景』(中央公論社)의 번역본이다.

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뿐 아니라 인권운동에서도 꾸준한 실천을 보여준 전문가적 시각과 일본에서 진행된 사할린 귀환운동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관련 연구에 적지 않은 자극이 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사할린 동포의 귀환운동 문제를 살피는 가운데 강제동원의 시기와 책임 소재를 더 면밀하게 추적하고자 하는 부분적 시도⁴⁹⁾나 사할린 한인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려는 시도⁵⁰⁾도 나타났으나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에 비해 2단계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할린 한인의 법적 지위 문제에 관한 논의는 새로운 차원으로 성숙되었다. 그 주된 공헌자는 노영돈이었다. 그는 이미 1990년부터 사할린 한인의 실태와 귀환 현황을 검토하면서 일본의 법적 책임(특히 1952년 샌프란시스코 협약으로 일본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짚어나가는 가운데 한인의 실태에 관한 신뢰성 높은 검토된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차별성을 보여주었다.⁵¹⁾ 1991년과 1992년에 나온 연구들을 통해 노영돈은 일본은 법리적 측면에서 사할린 한인들의 귀환권리를 막은 책임뿐 아니라 보상 문제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사할린 한인에 대해 인도적·도의적 책임으로만 한정하려는 태도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과감하게 지적했다.⁵²⁾ 2000년대에 들어 사할린 동포 관련법의 제정 문제에도 참여한 노영돈은 한일과거사 미해결 청산 문제의 대표적 사례인 사할린 한인 문제의 현안을 살피는 가운데 그 해결의 보다 주된 걸림돌은 일본의 잘못된 인식과

49) 이희수, 1998. 6, 「사할린 동포와 귀환운동」, 『순국』 89호, 36~43쪽. 사할린 동포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 필자는 1935년경 일본의 미쓰비시·미쓰이 상사 등의 요청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앞장서 상당수 조선인들을 동원함으로써 사할린 강제동원이 본격화되었음을 밝히고, 특히 1942. 2~1944. 9간에 대대적인 강제동원이 실시되었다고 하였으나(37쪽) 이는 사실과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50) 이정희, 1997, 「러시아 사할린주 한인의 실태연구」, 『영남정치학회보』 7, 257~314쪽

51) 노영돈, 1990. 12, 「사할린 한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교포정책자료』 35, 35~41쪽

52) 노영돈, 1991, 「사할린 한인의 귀환문제에 관하여」, 『인도법논총』 10-11, 219~236쪽; 노영돈, 1992, 「사할린 한인에 관한 법적 제문제」, 『국제법학회논총』 37-2, 123~144쪽

대처가 아니라 사할린 한인의 귀환 문제를 인도적 차원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동조적인 입장을 취한 우리 정부의 태도와 재외동포의 국적법 문제 등에서 드러나듯 사할린 한인을 귀찮은 존재로 보아 온 한국 정부와 관료들의 이중적인 입장과 인식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⁵³⁾

2000년대에 들어 이주와 귀환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더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민속학⁵⁴⁾과 사회학 연구자들⁵⁵⁾이 이주와 귀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행정학 이론에 비추어 귀환 정책의 실현과정을 분석하는 연구,⁵⁶⁾ 북한의 사할린 한인 정책,⁵⁷⁾ 영주귀국을 둘러싼 국제 간 교

53) 노영돈, 2004, 8, 「사할린 한인문제, 어떻게 되고 있나」, *OK Times* 129호, 19~27쪽

54) 인류학자로는 최길성과 이순형이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남겼다. 최길성은 「한인의 사할린 이주와 문화변용」, 『동북아문화연구』 1(2001), 243~271쪽과 「사할린 동포의 민족간 결혼과 정체성」, 『비교민속학』 19(2000), 103~123쪽, 그리고 『사할린: 유형과 기민의 땅』(민속원, 2003) 등에서 사할린 한인의 이주와 귀환에 초점을 두면서도 유형지 사할린의 역사, 현지 원주민, 강제동원과 억류된 시기의 문제들, 현지의 언어생활, 일상, 결혼, 소련 붕괴기의 변화와 남한인들과의 만남, 귀환의 문제 등을 언급하고 영주귀국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제언도 덧붙인다. 최길성이 현지와 현지에서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순형은 『사할린귀환자』(서울대학교출판부, 2004)에서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1세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정리하고 사할린 이주와 귀환의 과정과 한국으로 이주한 이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

55) 정근식·염미경, 2000, 「디아스포라, 귀환, 출현적 정체성: 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경험」, 『재외한인연구』 9, 237~280쪽이 대표적이다. 필자들은 사할린 한인인 식민지체제와 냉전체제의 역사적 복합에 의해 생성된 디아스포라 집단으로 파악하면서, 디아스포라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은 '존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생성'의 문제이므로 2세대들의 출현적 정체성(emergent identity)에 주목할 때 현재의 사할린 한인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 정부의 귀환 정책은 사할린 거주 한인에서 사할린 한인으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필자들은 향후 사할린 한인에 관한 연구가 그들이 '살아왔던 세계와 경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고 이를 이론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56) 김성중,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과 정착의 정책과제」, 『한국동북아논총』 40집(2006), 195~218쪽;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의 정책의제화 과정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50집(2009), 309~329쪽;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정책변동과정 분석: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사례」, 『한국동북아논총』 53집(2009), 309~334쪽

57) 조정남, 2002, 「북한의 사할린 한인정책」, 『민족연구』 8, 187~197쪽과 조정남의 연구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이나래, 2004, 「북한민족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재외동포정책」, 『통일논총』 22집, 173~196쪽이 있다. 사할린 한인에 대한 북한의

섭과정에 관한 학위논문⁵⁸⁾이나 사할린과 우즈베키스탄의 한인을 비교하여 이주사와 정체성의 차이를 규명하는 논문⁵⁹⁾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사할린에 관한 기억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⁶⁰⁾과 별도로 다루게 될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정책을 시대별로 정리한 조정남은 사할린 억류 한인의 수에 대한 논쟁과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서, 해방 후 사할린 한인 사회를 구성하는 3 부류와 각각의 특징 및 상호간의 갈등적 관계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아울러 그는 1950년 이래 사할린 내 ‘조선공산당’ 사건을 새롭게 소개하면서, 북한의 사할린 한인 정책을 시기별로 적극 및 소극적 정책기와 방관정책기로 구분한다.

- 58) 강정하, 2001, 『사할린 잔류 한인의 영주귀국을 둘러싼 한-일-러 교섭과정 연구』, 한림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사할린 한인의 귀환문제를 둘러싼 해당 3국(한·일·러)의 정책과 3국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교섭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필자는 1단계로 ‘이슈의 제기과 공유’기(1989~1992. 9)를 거쳐 인도적 차원의 협상체제로 성립하였고, 2단계인 ‘영주귀국 교섭과정 및 타결’기(1992. 10~1994. 11)에 일시귀국에서 영주귀국으로 논의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이후 3단계에 ‘일본의 적극적인 외교’에 힘입어 귀환의 해결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강정하는 정부 간 교섭이라는 문제를 처음으로 학위논문의 주제로 다루면서 이용되지 않았던 러시아 자료와 특히 한국의 국회 소장 자료와 학술적 기사들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 측의 대일·대러 정책 방향 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 간 교섭의 과정을 도표화한 부록도 유용하다. 하지만 현지 조사나 유가족 등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자료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협상 상대가 된 각국 정부의 자료 활용을 통한 비교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논문이 갖는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 59) 텐 옥사나, 2011, 『러시아 사할린 한인의 민족정체성-우즈베키스탄 고려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한국학 협동과정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년에 실시된 설문조사를 기초로 사할린 한인과 중앙아시아(특히 우즈베키스탄) 한인을 비교하며 사할린 한인의 이주적 특성, 민족정체성의 변화 등을 살피는 논문이다. 필자는 한인 1세대에 비해 2~3세대가 본국에 대해 느끼는 동질감의 인식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언어구사력,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도 그와 유사하다고 밝힌다. 이어 사할린과 우즈베키스탄의 한인을 비교하면서 사할린 한인 2~3세대는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가고 싶어 하나 고려인의 경우 한국은 역사적 고향의 의미만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차이와 별개로 필자는 한인은 다문화 시대에 국제 교류의 주요 자원이라고 규정한다. 중앙아시아 출신 연구자의 특성상 러시아어 자료가 다수 활용되고 있고,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을 비교적인 시각에서 다룬 점은 이 논문이 갖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러시아 측 사료 활용이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60) 한경구, 2008, 「일본인의 전쟁과 죽음의 기억: 신화로서의 사할린. 마오가 우편전화국 여성 전화교환수 집단자살 사건과 국제이해 교육」, 『사회과학연구』 21(국민대학교), 23~48쪽; 이은숙·김일림, 2008, 「사할린 한인의 이주와 사회문화적 정

정착과 적응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관심 주제의 세분화와 비교적 시각의 정착 현상이 드러난다.

물론 이상의 연구에서도 역사적 기원에 대한 수치들은 옛 자료를 답습한다. 가령 김성종의 연구들은 사할린동포법률구조회의 사할린 보고서(1997)를 인용해 사할린 억류 한인의 강제동원자설과 15만 명 동원설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하지만 그의 글은 귀환동포 운동의 역사를 잘 정리하고 귀환의 장애가 된 내외적 요인들을 균형 있게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사할린 한인 문제는 전후 협상과정의 혼란과 냉전체제의 등장이라는 국제정치적 문제'와 한일 양국 간에 첨예한 이슈가 된 '귀환과 정착 비용이라는 실질적 문제'가 뒤엉킨 사안이며,⁶¹⁾ 민족의 불행한 역사의 유산으로 규정된다.⁶²⁾ 또한 문제의 기본 특성과 귀환의 장애들은 1980~1990년대의 국제정치 환경 및 통치 집단의 변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같은 외적 사건들의 변화를 통해 정책의 변동으로 연결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사회문화적 가치관이 정책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주장한다.⁶³⁾

최근의 연구들은 각 영역별로 다루는 주제들이 세분화됨과 동시에 조명 대상이 되는 개별 문제를 중심으로 그와 연관된 사할린 문제의 전반적 측면들을 재검토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특정 분야의 연구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법학자 노영돈은 논문 「사할린 한인 우편저금 등 보상청구소송」에서 2007년 일본에서 시작된 우편저금 등 보상청구 소

체성: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지리』 20-1, 19~33쪽; 박승의, 「사할린 한인동포 제2세. 우리는 누구인가」(1), 『지역사회』 46호, 40~47쪽, 같은 글(2), 『지역사회』 47호, 115~129쪽

- 61) 김성종, 2009,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정책변동과정 분석: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사례」, 『한국동북아논총』 53집, 316쪽
- 62) 김성종, 2006,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과 정착의 정책과제」, 『한국동북아논총』 40집, 215쪽
- 63) 김성종, 2009,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정책변동과정 분석: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사례」, 『한국동북아논총』 53집, 330쪽

송에 관련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한다. 연구자는 개인재산의 상환 문제는 보상이 아닌 배상이며 귀환의 책임과는 별개의 채무 문제임이 분명하지만 이 사안은 귀환 문제나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의 해석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소송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즉, 단일 사안 안에서 사할린 한인 문제 전체를 되짚어 보게 하는 방식이다.⁶⁴⁾

한혜인의 논문(2011)⁶⁵⁾도 그 한 예다. 논문은 강제동원이나 귀환 등 한 가지 주제에 천착하던 기존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더 나아가 양자를 연결하고 국제관계의 큰 틀만이 아니라 당사국 네 나라(소련·남북한·일본)가 각각 어떠한 정책과 논리를 표방했는지를 제시한다. 한혜인은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사할린 한인 귀환을 둘러싼 남북한과 일본 및 소련의 정책과 논리를 한국과 일본 측의 보도, 외교문서, 연구 등을 통해 드러내는 역사적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일제 강제동원, 소련 시기 3부류 한인의 삶과 북한의 노동 이주자 문제, 귀환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 등은, 필자에게 각국의 국민화 정책의 한 사례들로 일정한 비교의 영역일 뿐이다. 한혜인은 1970년대 외교 문서와 보도 및 소련 측 발굴 문서 등의 분석에 근거할 때, 소련과 북한은 사할린 한인의 국민화 정책을 추구한 반면 일본과 한국은 棄民 혹은 경계에 선 타자라는 입장에서 한인을 바라보았고 특히 한국의 경우 체제 유지의 한 방편으로 사할린 한인 귀환의 이슈를 활용했다고 주장한다.

지리학 혹은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사할린 한인 문제에 접근하는 시도들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 분야에서 학위논문과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재혁을 예로 들면, 먼저 박사학위 청구논문⁶⁶⁾에서 사할린 한인 이주의 역사적 성격과 형성과정을 시계열적인 전개방법으로 정리하면서 인구의 특성과

64) 노영돈, 2008, 「사할린한인 우편저금 등 보상청구소송」, 『한민족공동체』 16, 60~76쪽

65) 한혜인, 2011, 「사할린 한인 귀환을 둘러싼 배제와 포섭의 정치: 해방후~1970년대까지의 사할린 한인 귀환 움직임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02호, 157~198쪽

66) 이재혁, 2010, 『러시아 사할린 한인인구의 형성과 발달』,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현상을 파악하고, 이주의 특성과 이주 형태를 분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할린 한인 인구 문제는 러시아로 한인 이주가 시작된 시기부터 20세기 말까지를 통시적으로 기술하여 러시아 전체의 한인 인구 형성과 발달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사할린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할린의 한인 인구 형성과 발달과정의 시기를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인구발달의 단계로서의 시기 구분이 역사·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한인 사회의 변화와 적응의 과정을 표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⁶⁷⁾

3_ 주요 연구영역 3: 영주귀국자의 복지

귀환자의 복지 관련 연구는 영주귀국과 동시에 시작될 수는 없었으나 재이주가 초래하는 제반 문제를 검토하여 향후 이주정책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었던 만큼 정책 연구 및 복지 분야에 관련된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주제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연구가 본격화되는 시점은 안산 고향마을 단지로의 영주귀국이 성사된 2000년 이후였다.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연구 과제를 수행한 최종혁과 한동우의 보고서⁶⁸⁾가 대표적인 예다.

67) 지리학 및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한인의 이주 경로 및 북사할린을 포함하여 사할린 한인 인구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려는 이재혁의 시도는 사할린 지역 연구의 진일보한 성과로 새롭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14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러시아와 사할린의 한인인구의 변화와 발달을 종합적으로 연결해 보는 시각이 연구상의 어떤 유익을 제공하며 새로운 한인상을 창조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회문화, 민속학적 주제들에 이르기까지 다루는 주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기존 연구들의 종합인양 여겨지는 인상도 없지 않다. 학위논문을 개별화한 학술논문들도 같은 구도와 시각으로 전개된다. 사할린 개관, 일반역사, 인구와 민족집단, 제정기 이래 한인의 이주사 속에서 사할린 한인사회를 검토하는 일반 논문(「러시아 사할린 한인 이주의 특성과 인구발달」, 『국토지리학회지』 44권 2호, 2010, 181~198쪽)과 사할린 한인의 이주를 6시기로 구분한 논문(「일제강점기 사할린의 한인이주」, 『시베리아연구』 15권 1호, 2011, 85~135쪽)에서는 사할린의 한인 이주자를 자신들의 의지나 자각과는 관계없는 이주자라며 애매히 정의한다.

68) 최종혁·한동우, 2001, 『사할린 귀환동포 생활실태조사』, 강남대학교 부설 한국사회복지연구소 간. 연구결과에 따르면 귀환동포의 33%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고, 고국생활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사할린에 남겨진

영주귀국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환으로 영주귀국자의 생활실태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제점 파악과 제도 개선, 민간 차원의 지원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는 이 보고서에서는 안산 영주귀국자를 대상으로 귀국 현황과 귀국 동기, 수입, 지출, 건강, 가족 간 연락, 거주환경 만족도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적십자사 측의 현실적 관심사이기도 했다.

위 보고서에는 강제동원을 배경으로 한 한인의 이주(43~82쪽) 및 귀환의 실태과정(104~123쪽)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43~82쪽). 사할린 한인 문제의 배경과 관련해 최종혁과 한동우는 약 15만 명의 '강제징용자' 설을 택하고 있으며, 영주귀국자 중에 약 32%가 징용과 모집 등으로 동원되었다고 보았다(39쪽). 이 내용은 향후 사회복지 분야 관련 논문들에서 답습된다. 예를 들어 2001년에 나온 사할린 영주귀국자의 생활만족 문제에 관한 두 편의 논문은⁶⁹⁾ 앞의 보고서와 유사한 통계치와 시각 및 결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용역에 참여한 경험이 학위논문의 작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⁷⁰⁾

반면, 2006년 사할린 영주귀국 시설에 대한 생활시설만족도 조사를 통해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역방문의 어려움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문제는 여타의 생활상의 문제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원 측면에서도 영주귀국자와 사할린에 있는 가족들의 연락 및 접촉 증가와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사업이 긴요하다고 주장한다.

- 69) 황정태, 2001, 『사할린 귀환동포의 생활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호경임, 2001, 『사할린 귀환동포의 생활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70) 먼저 호경임은 1999년 이후 귀환한 사할린 한인의 생활실태와 만족도 파악에 목적을 두고 안산 고향마을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활상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했다. 조사 결과 귀환자들의 현재생활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고,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건강, 개인적 교류, 귀국의 동기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비해 황정태의 연구 목적은 사회사업학적 관점에서 사할린 귀환동포의 개인적 적응도와 문제점의 검토를 통한 지원의 기초자료 생산이다. 역시 안산 고향마을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로서 귀환자의 거주형태(부부동거, 독신자동거 등), 경제상태, 심리 등의 문제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다. 조사 결과 독신자 간 동거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기초생활보장자라는 경제적 부담과 나이 및 건강문제가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할린 영주귀국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배상우의 논문⁷¹⁾에 따르면 영주귀국자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그 원인에 대해 필자는 귀국자들은 가족들과의 헤어짐을 선택하면서까지 귀국을 택할 만큼 귀국 후의 삶에 대해 기대를 가졌으나, 현실적으로 귀국 후의 삶에서 동반되는 경제력, 정서,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시설생활에서의 만족감이 떨어진다고 분석하였다.

안산 고향마을 영주귀국 지원사업소 업무를 직접 관장했던 정천수의 논문⁷²⁾이나 독신으로 노인 시설에 입소한 이들을 대상으로 귀환자의 생활적응 실태를 연구한 김주자의 석사학위 청구논문⁷³⁾은 형식과 내용에서 유사하다. 정천수는 안산고향마을 영주귀국자 8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면접조사 결과를 기초로 영주귀국동포의 사회복지 실태 및 지원 실태와 만족도 조사, 동포 관련사업의 문제점 파악과 (정부 및 민간 차원을 포함한) 개선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였다. 김주자 역시 요양원 등 노인시설 입소자 10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생활만족도와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들은 귀국자에게 제공되는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한 후 설문조사 결과를 성·연령·거주형태별로 구분한 뒤 조사 결과에 반영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결론은 약간 차이가 난다. 정천수는 최소한도의 가족동반 귀국 허용, 지원을 전담하는 정부 직속기구 설치, 세대별 거주형태의 개선(단독 세대를 늘리는 방향)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이에 비해 김주자는 입소자들은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높고, 과거와 미래 모두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당초 가졌던 귀환의 기대와 달리 계도화되는 영주귀국자의 국내 현실 생활을 우려한다.

71) 배상우, 2006, 『사할린영주귀국 시설노인의 생활실태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72) 정천수, 2007, 『사할린영주귀국동포 생활상 및 사회복지 지원실태에 관한 연구: 안산고향마을을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73) 김주자, 2006, 『사할린 귀환동포의 생활적응 실태 연구 - 노인시설 거주자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들은 지역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친지방애가 단절되는 현상을 경험하며, 문화적 이질감 속에서 그리움을 더욱 키우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학 학위논문에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엄밀함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학술논문임에도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할린 한인들 사실상 모두 강제동원의 피해자로 잘못 정의하는 개념정리가 지속되는 점⁷⁴⁾은 극복의 대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

복지 문제가 주된 관심이기는 하지만 나형욱의 2009년 연구⁷⁵⁾는 97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할린 한인의 재이주(영주귀국) 이유, 정착지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자세히 조사함으로써 영주귀국자의 적응 문제에 대해 보다 큰 사회학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주귀국자의 약 80%는 러시아에서 경제적으로 큰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 즉, 이들의 귀국은 경제적인 문제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큰 동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귀국자의 90% 가량이 자식을 두고 왔기 때문에 귀국 한인들과 자손들의 연락·방문의 기회제공과 동반귀국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국내 정착과 관련해 영주귀국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외로움)과 경제적 문제로 요약되었다. 나형욱의 조사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나 1차 영주귀국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가 생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김인성⁷⁶⁾의 연구는 나형욱의 조사를 기초로 한국 정부가 사할린 한인들의

74) 사회복지 부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세철의 논문(「사할린 영주귀국자들의 생활실태: 안산시에 영주 귀국한 1세 독신노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7, 한서대학교, 2003, 127~143쪽)을 보면 영주귀국 1세대가 '1927년 이전 출신자'라고 자의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학문적이나 실무적 차원에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75) 나형욱, 2009,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정착실태에 관한연구」, 『재외동포와 다문화: 2009년 재외한인학회 ·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09년 12월, 109~137쪽

76) 김인성, 2011. 6, 「사할린 한인의 한국으로의 재이주와 정착분석-제도 및 운용실태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24, 279~301쪽

영주귀국 및 정착과정에서 운용하고 있는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영주귀국 사업이 20년을 경과하는 동안 한국 측의 시각은 대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할린 한인들에게 따뜻한 동포애를 보여준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느끼는 큰 문제는 한국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손들에 대한 그리움이다. 김인성은 이 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사할린 한인 문제의 법제화가 절실하며, 한인 1세와 그 자손들이 함께 생활하거나 자유롭게 사할린과 한국을 오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이는 '사할린 한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이중국적제의 도입 혹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유연한 적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2차 영주귀국 사업 대상이 된 사할린 동포 정착지 중에서 특정 단지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나왔다. 2009년 1월에 부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126명을 수용한 정관 지구의 귀환자 중 114명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기초로 한국에서의 생활실태와 만족도를 살피고 있는 배수한의 논문⁷⁷⁾은 설문대상자의 최고령자가 1936년생이라는 점에서 보듯이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2세에 해당하는 이들에 관한 조사라는 의미가 있다. 2세의 특성을 살펴보면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이주했거나 현지에서 출생한 이들로 대부분 사할린에서 높은 교육을 받았고, 전문직 종사자로 활동한 경험을 가졌으며, 상당수가 어린 시절에 한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귀국의 동기와 관련해 2세들 역시 귀향욕구에 보다 자극을 받았다고 분석되나 1세들처럼 영주귀국 규정에 의해 가족과 이별을 경험했다. 또한 귀국 이후에 경제적 곤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점차 부각되는 상황이다. 현재 영주귀국 대상자가 동원 피해 당사자보다는 그 자제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미를 갖는 배수한의 논문이지만, '일제가 1937년에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했다'(2쪽)고 잘못 언급하는 등 한인 비

77) 배수한, 2010,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거주실태와 개선방향: 부산 정관 신도시 이주자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13-2호, 279~308쪽

극의 기원에 대한 고찰은 여전히 기본적인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⁸⁾

4_ 기타 연구영역: 기억과 구술

사할린을 둘러싼 기억의 문제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고자 한다. 이주와 귀환에 관한 앞의 내용에서 언급되었듯 르포나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려 사할린에 대한 기억을 담아내려는 시도들은 1990년대 이전에도 있었다. 사진집의 형식으로 간행된 이토 다카시의 사진집⁷⁹⁾도 그 하나다. 포토 저널리스트로서 일본 식민지배와 침략의 피해자들에 대한 책을 내고 있는 저자는 한국과 소련이 교류가 없던 시절부터 사할린을 오가며 혹독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생존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의 과거와 현재를 취재했다.

이토는 강제연행된 이들과 일본으로 온 이들, 한국 내 유가족들의 생존 당시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진에 대한 소개의 글 정도가 아니라 개별적인 인터뷰를 기초로 한 요약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더 크다. 개인사와 더불어 이들의 당시 생활상, 개인적 감정과 간혹 취재 대상자가 언급한 내용의 일부가 인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흑백 사진에 내

78) 그 외에 2010년 현재, 670명의 영주귀국 동포가 거주 중인 인천 지역의 생활 실태는 이운성 국회의원실의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다. 2010년 국정감사를 위한 정책 준비의 차원에서 논현동 거주자 73명에 대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자료집)에 따르면, 영주 귀국해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 중 20%만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할린 동포들이 한국을 찾은 이유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84%, 사할린에서의 고된 삶 14.3%, 혈육을 찾기 위해 1.4%였으며 한국에 와서 가장 불편한 점은 생계비 부족 45.9%, 외로움 35.1%, 언어 18.9%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운성 의원실, 2010,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의 한국 사회 적응실태 보고: 인천 남동구 논현동·고잔동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73명 심층면접 설문조사 결과』

79) 이토 다카시, 김문규역, 1997, 『사할린 아리랑: 카레이스키의 증언』, 눈빛. 이 사진집과 취재자료집은 먼저 일본에서 1991년에 출간(일본자료명: 寫真記録 樺太棄民 - 殘された韓國・朝鮮人の証言)되었다가 1997년에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간행되었다.

정한 이력서처럼 감정 없이 적혀진 사진 주인공들의 삶이 더해져 기록의 사실성에 무게를 더한다. 영상기록(사진)과 증언(인터뷰)이 결합하여 역사적 실상의 생생한 느낌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이토의 사진집은 애당초 연구를 목적으로 생산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후대 연구자들을 위한 가치 있는 기록으로 여겨질 수 있다.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이 실현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술 채록 작업이 진행되어 일부가 지면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그 하나의 예가 생존자 정예석의 구술 증언이다.⁸⁰⁾ 1942년 사할린 비행장 건설현장으로 동원되었던 정씨의 증언은 충남 공주라는 특정 지역에서 사할린 서부의 비행장 건설현장으로 집단 동원되는 사례를 잘 묘사하고 있다. 증언 자료를 산문으로 정리한 형식이어서 사료적 가치는 적으나 구체적인 동원의 실상과 현지 사정, 그리고 해방 후 현지 생활이 피해 당사자의 입을 통해 공개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조사 결과로 나온 구술 자료집들도 생생한 기억이 담겼다. 최초의 정부 발간 사할린 관련 구술 자료집인 『검은 대륙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은 9편의 강제동원 관련 증언을 필두로 하여 억류된 당사자의 기록인 수필(山中半月記)과 해제, 신문자료, 연표 등으로 구성되어 강제동원에 대한 일반 자료집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⁸¹⁾ 『지독한 이별』은 사할린 강제동원에 대한 두 번째 정부 간행 구술 자료집으로 1944년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조선인 광부를 전환 배치한 사건(소위 ‘이중징용’) 피해자 14인의 구술이 수록되어 있다.⁸²⁾ 이 책 역시 현장조사에 기초한 현지 사진(화보) 및 해제를 포함시켜 자료적 가치를 더했다.

그 외에 구술자료를 연구에 활용한 최근의 사례로 여성구의 글⁸³⁾을 들 수

80) 「증언: 정예석 할아버지를 찾아서」, 『민족문제연구』 6권, 1995, 25~30쪽

8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6, 『검은 대륙으로 끌려간 조선인들』

82)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 『지독한 이별』

83) 여성구, 「사할린 한인의 희생과 미귀환」, 『해방후 해외한인의 희생과 미귀환』(제3회 미귀환연구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간

있다. 해방 직후부터 1948년까지 사할린 현지 상황에 대한 증언을 기초로 한인 사회의 어려움과 귀환 문제를 보여주려는 연구 자료 형식의 이 글은 증언을 역사적 사실과 대조,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나 자료가 부족한 해당 시기를 다룬 연구물로 의미가 있다.

연구와 무관하게 구술 채록의 형식으로 생애를 정리하는 글도 간간히 출간되고 있다. 가령 제9동양어문학교 교감, 유치원교육협의회장 등을 지낸 사할린 태생자 공노원의 구술생애사⁸⁴⁾에는 부친의 사할린 이주, (소련)국적 취득문제, 사할린 내 한국어 교육사와 본인의 활동 등이 구술되어 있다. 사할린 주민과 한국인의 만남을 다룬 개인 활동가의 구술 채록도 출간되었다. 1994년 이래 사할린에 정착한 후 각종 난치병을 침뜸으로 치료하며 지역사회의 민간의술자로 이름을 알리게 된 손병덕(한국인)의 행적을 채록하여 정리한 책⁸⁵⁾이 그것이다. 이들 자료는 학문적 관심이 아니라 개인의 활동을 중심에 놓고 있고, 구술사 연구방법론과도 동떨어져 있다. 하지만 변화의 한가운데 놓인 사할린 주민들의 관심과 일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족한 공식 자료를 통해 이들의 삶을 엿보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논문 중에는 이은숙과 김일림의 구술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있으나 엄밀히 구술조사 방법론을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⁸⁶⁾ 오히려 구술을 채택하지 않

84) 박경하, 2010, 『사할린 한인 공노원 구술생애사: 사할린 한국어 교육의 선구자』, 경진

85) 손병덕 구술, 김정희 정리, 2010, 『사할린에서 싹 틔운 아리랑 침뜸』, 허임기념사업회

86) 이은숙·김일림, 2008, 「사할린 한인의 이주와 사회문화적 정체성: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지리』 20-1, 19~33쪽. 2007년 사할린에서 동포를 면담한 구술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논문으로 한인의 이주와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글이다. 구술을 중심으로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의미 있는 작업이고, 논문에서 구술 내용이 인용되고 있으나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상정된 주제들(가족 및 결혼관, 국적 문제와 그 영향, 교육과 언어 문제 등)을 밝히기에는 표본 집단이 11명(11명)이 너무 적다. 게다가 사할린 현지 한인협회의 추천을 거쳐 만난 구술자들이 사할린 사회의 대표성을 갖는 인물인지 의문스럽고, 구술 면담의 질문 형식이나 구술자 선정에서 일관성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구술자의 일부는 논문에서 구술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1세대 영주귀국대상자와 중첩되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연구에 반영된 구술의 내용은 당시 사할린 한인의 생활, 결

앞으로도 기억의 문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글은 사할린 ‘한인 2세’로서의 정체성과 삶을 회고하며 기록한 박승의의 글과 사할린이 일본에서 어떻게 기억되는가를 다룬 한경구의 논문이다.⁸⁷⁾ 양자는 다루는 주제와 문제의식, 글의 형식에 이르기까지 외견상 비교가 어려운 글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비교해 읽어보면 사할린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관점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⁸⁸⁾

혼, 국적문제, 사할린 사회단체들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는 정도였으며 분석적 접근도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 87) 박승의, 「사할린 한인동포 제2세. 우리는 누구인가」(1), 『지역사회』 46호, 40~47쪽, 같은 글(2), 『지역사회』 47호, 115~129쪽; 한경구, 2008, 「일본인의 전쟁과 죽음의 기억: 신화로서의 사할린. 마오카 우편전화국 여성 전화교환수 집단자살 사건과 국제이해 교육」, 『사회과학연구』 21(국민대학교), 23~48쪽
- 88) 한경구의 글 「일본인의 전쟁과 죽음의 기억」은 종전 당시 소련군의 진격 과정에서 사할린 마오카 우편전신국에서 전화교환수로 근무하던 9명의 여성들이 음독자살한 사건이 일본에서 어떻게 기억되는가를 평화교육 및 국제이해교육의 차원에서 검토·비판한다. 사할린 마오카의 여성 전화교환수들의 죽음은 일본에서 와카나이 공원의 ‘9명의 처녀’ 기념비, 영화, 소설, 논픽션, TV드라마,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일종의 ‘신화’로 추억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일본인들의 사할린에 대한 기억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외관상 단순히 교환수 여성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억과 추모는 실상 책임감이나 순결에 대한 ‘신화’를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일본과 일본인의 국제법 위반이나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오히려 구소련과 옛 소련군의 국제법 위반이나 잔혹행위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지는 바, 평화교육이나 국제이해교육의 측면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박승의의 글은 사할린 국립대학 교수인 본인의 개인사를 돌아보며 사할린 한인 1세의 삶과 동원된 이들의 자제(2세로 표현됨)들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20세기 중반기의 역사, 국제환경의 배경 속에서 살피고 있다. 정체성, 문화적 동화문제 등이 주로 고민되고 있으며 1세만이 아니라 2세 한인동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교육 문제, 사할린의 한국어 교육사 등에 대한 언급은 일제 시기 및 억류기의 사할린 한인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서 두드러지나, 1945년 당시 조선인 징용자 수를 4만 5천 명으로 밝히기도(46호, 44쪽) 하고, 본인 가족의 도화(1931년 가족을 따라서 들어옴)를 강제모집의 한 형태로 보는 등 사할린 현지 한인의 동원 문제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Ⅲ. 러시아 측 연구와 연구자

사할린과 한국 간 상호관계사에 관한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 동안 두 나라 역사가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다. 이데올로기적 냉전 속에서 남북문제의 한 원인 제공자로 여겨진 소련과 남한 사이에 외교 관계가 성립될 시기까지 양국의 학자들이 서로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소련 측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 옛 가라후토[樺太] 주재자로 일본국의 통치 아래 있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자국의 영토로 편입된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약 2만 3천 명에 이르는 한인⁸⁹⁾ 및 한인사회에 대한 관심이 행정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1946~1949년까지 북한에서 노무자들이 노동계약에 의거해 사할린과 극동 지역에 유입되었는데, 그 수는 약 2만 6천 명에 이르렀다.⁹⁰⁾

일본인은 1946~1949년 사이에 귀환했으나 한인은 정치적 원인으로 인해 섬에 남겨 되어 일종의 장기 억류 상태에 놓였다. 1990년 9월 30일 양국의 수교는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이에 대한 연구사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로 역사가들만이 아니라 언론인·정치인·사회활동가 등의 관심이 사할린 한인에게 집중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작은 기사나 미담 소개 등을 제외하고 사할린 한인사에 관한 학문적 성과물로 한정할 경우 러시아 측 연구는 뚜렷하고 체계적인 분석의 대상이 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요컨대 관련 분야에서 러시아 측 연구가로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은 3명으로 요약되었다.

89) 국립 사할린 지역 역사기록보존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이하 ГАИСО). Ф. 171, Оп. 3, Д. 7, Л. 122

90) ГАИСО. Ф. 53, Оп. 1, Д. 109, Л. 27. 그중에 약 1만 4,500여 명이 귀환했다. 북한에서 온 계약 노무자들은 차츰 귀환 길에 올라 1962년경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3,851명이 남아 있었다. 이 수에는 소련 국적을 취득한 715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ГАИСО. Ф. П-4, Оп. 63, Д. 1, Л. 5

그중에 먼저 소개되어야 할 연구자는 복지코우(Бок Зи Коу, 한국명 박수호)다. 그의 책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사할린의 한인들)』⁹¹⁾은 사할린 한인사에 관한 연구로는 러시아 측의 의심할 바 없는 주요한 업적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인의 이주에 관한 일본 측의 주요한 학술 자료와 간행물들에 대한 분석을 가한 후, 몇몇 한인의 회상을 첨부해 최초로 학술적 연구물로 만들었다. 물론 개인적 회상을 동원하는 접근방식은 학문적 객관성에 관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복지코우의 연구는 러시아 역사학계에서는 처음으로 사할린의 한인 문제를 본격적인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면에서, 또한 경제학자로서 면밀한 수치들에 대한 분석과 비판 위에서 일본의 경제적 침략 의도를 비판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후에도 몇몇 연구들에서 복지코우는 러시아와 일본에서 진행되는 사할린 한인 문제의 연구 추이를 추적했음을 알 수 있다.⁹²⁾

복지코우에 뒤이어 사할린 한인 문제에 관한 한 가장 두드러지고 인정을 받고 있는 러시아인 학자로 아나톨리 꾸진(Кузин)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다. 꾸진의 연구를 거치면서 사할린 한인에 관한 연구는 러시아 각지의 문서보관소 소장 자료들에 기초하는 연구로 전환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전체가 사할린 한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꾸진의 첫 책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корейцы: жизнь и трагедия судьбы(극동의 한인들: 삶과 운명의 비극)』⁹³⁾을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이다. 사할린 한인에 관한 러시아 측 연구에서 이 책은 지금까지도 빠짐없이 언급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한인의 러시아

91) Бок Зи Коу,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사할린의 한인들), Южно-Сахалинск, 1993, - 222 с.

92) Бок Зи Коу, К вопросу о «о проблема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사할린 한인 문제에 대하여에 관한 문제) // Нам жизнь дана(우리에게 삶이 주어졌다) [Литературно-публиц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 Сост. Сун Дюн Мо.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альневост. кн. изд-во, Сахалин, отд-ние, 1989, 111 с. ил.;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бл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사할린의 한인들: 문제와 전망),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МГиГ ДВО АН СССР, - 77 с.

93) Кузин А. Т.,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корейцы: жизнь и трагедия судьбы(극동의 한인들: 삶과 운명의 비극), Южно-Сахалинск, 1993, - 368 с.

극동 지역으로의 이주부터 다루는 이 책에서 사할린 문제는 2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역사적 시점은 1870~1992년까지를 포괄하며, 2장에서도 3~6장이 남부 사할린 지역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다.

책의 편제에서 보듯이 꾸진은 현대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극동 지역 및 북부 사할린 거주 한인과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루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1945년 이후 남사할린에 남겨진 한인의 수를 소련 측 기록 자료를 인용하여 2만 2천에서 2만 5천 명 사이였음이 거의 분명하다면서 그들 대부분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강제적 동원의 피해자들임은 러시아 측 자료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가 이 책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논점은 분명해 보인다. 즉, 제정 러시아 시대에 러시아가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을 수용했듯이 북부와 남부 사할린에서는 한인을 받아들였으며, 교육과 문화정책 등을 통한 한인의 소비에트화가 한인 사회의 문화적·물질적 안녕의 중요한 동인이 되어 온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해방을 가져온 소련의 정책적 배려가 남사할린의 한인 사회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꾸진은 자신의 첫 저서에서 적지 않은 기록보존소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고 또한 북사할린에 거주했던 한인의 명단 등 개인 기록들까지 부록에 첨부해 줌으로써 자신이 이미 상당한 자료를 수집하였음을 드러내었다. 실제 저자가 기록보존소에서 쓴 그간의 노력이 반영된 두 번째 책을 2006년에 사료집 『사할린의 코레이즈들: 역사와 시대성』⁹⁴⁾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함으로써 아키비스트다운 면모를 과시하였다. 상당한 양의 역사기록들을 기초로 저지는 다시 2010년에 3권으로 이루어진 사할린 한인에 관한 방대한 저작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운명)』을 발간했다.

3권으로 크게 보강되었다고는 하나 꾸진의 2010년 업적은 사실상 그의 첫 번째 책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세기 후반에서 1937년까지의 시기

94) Кузин А. Т.,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1880 – 2005(사할린의 한인들: 역사와 시대성),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и материалов (사료집) //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06, – 460 с.

를 다루는 1권의 소재목은 ‘이민과 강제이주’이고, ‘통합과 동화’라는 제목의 2권은 1945~1990년을 다룬다.⁹⁵⁾ 민족적 차이를 넘어서는 규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3권⁹⁶⁾이 하나 더 붙어 있고, 문서 자료와 그에 대한 저자의 해석과 견해가 결합되어 서술되었으며, 일부분에서 일본과 한국 측 연구자들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성과로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인 저자의 관점이나 장절의 구성은 그의 첫 책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꾸진은 개별적인 한인 문제들을 다루는 논문의 수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연구자다.⁹⁷⁾ сахалин 한인의 역사 일반에서 시작하여 сахалин주의 정책

95) Кузин А. Т.,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нография я. В трех книг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Лукоморье», 2010. 제 1권의 러시아어 제목은 Иммиграция и депортация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в. - 1937 г.), - 262 с.; 제2권은 Интеграция и ассимиляция (1945 - 1990 гг.), 336 с.이다.

96) 3권의 러시아어 제목은 ‘20-21세기 전환기의 민족간 연대 Этническая консолидация на рубеже XX - XXI вв.’ (-384с.)이다.

97) Кузин А. Т., Судьбы корейцев в аспекте исторического опыта освоения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ахалин과 쿠릴 열도의 역사적 적응 경험 측면에서 본 한인의 운명) // Россия и островной мир Тихого океана(러시아와 태평양 지역), Выпуск I,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халин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2009, 400 с., С. 269 - 281; Он же, Корейцы-бывшие японские подданные в послевоенной советской системе управления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1945~1947 гг.) (남сахалин의 소련 전후 통치 시스템 내에서의 구 일본 국적 한인들, 1945~1947) // Власть и управление на Востоке России(러시아 동방의 권력과 통치), 2010, No. 3, С. 95 - 101; Он же, Проблемы послевоенной репатриации япон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а(сахалин 일본인과 한인의 전후 귀환 문제) // Россия и АТР(러시아와 아시아·태평양), 2010, No. 2, С. 76 - 83; Он же, Послевоенная вербовк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на промышл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946 - 1960 гг.) (сахалин 지역의 산업을 위한 전후 북한 노동자 모집, 1946~1960) // Россия и АТР, 2010, No. 3, С. 148 - 156; Он ж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з истор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школы (1925 - 2000-е гг.) (сахалин 한인들: 민족학교의 역사에서, 1925~2000년대) // Вестник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상 페테르부르크 대학 통보), Серия 13, 2010, Выпуск 4, С. 3 - 8; Он же, Трансформация гражданского статус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сахалин

과 한인 문제, 이주, 북한에서 유입된 계약 노동자, 한인 민족학교, 한인의 국적 처리문제 등 일제 시대 한인의 노동을 제외하고 사실상 거의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들 연구에서 꾸진은 앞서 언급했듯이 한인의 인구 수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 측 자료를 비교하고, 일제 시대에 유입된 이와 북한 계약 노동자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엄밀함을 보여주었고, 남북한을 함께 다루는 연구 시각을 견지했다.

연구 업적 면에서 사할린 한인에 관한 러시아 측 연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세 번째 연구자는 박승의이다. 그의 연구는 역사,⁹⁸⁾ 문화,⁹⁹⁾ 민속,¹⁰⁰⁾ 이산의 문

한인의 시민적 지위의 변화) // *Власть*(권력), 2010, No. 08, С. 75–78; *Кузин А. Т.,* Переход корейцев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пределы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оиски исследователя)(한인의 극동 이주, 연구의 모색),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01, 64 с.; *Он же,* Корейская эмиграция на рус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ее трагизм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의 한인 이주와 그 비극성) // *Ми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20–24 сентября 1994 г. : Тезисы докладов и сообщений*(1994. 9. 20–24.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의 이민의 과정’ 자료집), Владивосток, 1994, С. 112~114; *Он же,* Корейцы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남사할린의 한인들) // *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 итоги и уроки. Всероссийск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21–22 апреля 2010 г.*(2010. 4. 21–22. 국제학술회의 ‘대조국전쟁: 결산과 교훈’ 자료집) Владивосток, 2010, С. 40–47; *Он же,* Выдворение(발탁) // *Особое мнение*(각별한 견해), 2007, No. 53, С. 54–56; *Он же,* Сахалинское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гражданско-правовые аспекты(사할린의 한인 주민: 시민법적 측면) // *III Ръжковские чтения. Материалы краеведческ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5–6 октября 2004 г.*(3차 르쭌코프 독회: 2004. 10. 5–6, 지역연구 회의 자료집)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халин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2006, С. 95–101; *Он ж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международно-правовые аспекты(사할린의 한인: 국제법적 측면) // *А.П. Чехов в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21–30 сентября, 2005 г.*(2005. 9. 21–30. 국제학술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학문·문화 공간에서의 안톤 체홉’ 자료집),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Лукоморье», 2006, С. 155–159; *Он же,*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к неисследованная актуальная научная проблема (비활성화된 연구 주제로서의 사할린 한인사) // *Научные проблемы гуманита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인문학 연구의 학적 제문제), 2010, No. 10, С. 30–37

98) *Пак Сын Ы,* Политические репрессии и депортация корейцев с Сахали

нав 1930-х-70-х гг. (정치 탄압과 1930-70년대 сахалин으로부터의 한인 귀환) // *Извес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중앙아시아 한국학보), 2010, No. 9 (17), С. 55-67; *Он же*, Жизнь корейцев на Карафуто(가라후토의 한인의 생활) // <http://www.arirang.ru/news/2007/07164.htm> (검색일: 30, 11, 2011); *Он же*, К вопросу о послево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Японии и за судьб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 한인의 운명에 대한 일본의 전후 책임 문제) // Сборник трудов Втор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Уроки истории,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и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и мира XX - XXI вв.»(제2차 국제학술회의 '제2차 세계대전과 20-21세기의 세계 및 러시아의 역사' 자료집,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Политехн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009, С. 89-90; *Он же*,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 до и после Чехова(체홉 전후의 сахалин 한인) // А. П. Чехов в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21-30 сентября 2005 г. (2005, 10, 21-30. 국제학술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학문·문화 공간에서의 안톤 체홉' 자료집), Южно-Сахалинск: Лукоморье, 2006, С. 159-179; *Он же*,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на Сахалине: история формирования (сахалин의 한인 디아스포라: 형성의 역사) // Доклад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Россия и Корея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конце XIX - начале XX вв.», Владивосток, 24-25 августа 2009 г. (2009, 8, 24-25, 블라디보스토크 국제학술회의 '19세기 말-20세기 초의 동북아에서의 러시아와 한국' 자료집)

- 99) *Иконникова Е. А., Пак Сын Ы*, Писател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Сахалине(сахалин 디아스포라의 작가들) //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오늘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2009, No. 7, С. 74-77; *Пак Сын Ы*, А. П. Чехов и проблема асимилиации иммигрантов (на материале произведен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안톤 체홉과 이민자의 동화 문제) // IX Чеховские чтения: А. П. Чехов и проблемы нравственного здоровья общества (9차 체홉 독회: 안톤 체홉과 사회의 도덕적 건전성 문제).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СахГУ, 2006, С. 53-58; *Он же*, Проблема иммигрантов и её выражение в литературных текстах (на материале произведен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이주의 문제와 문학 텍스트 속에서의 표현들) // Филологический журнал: межвузовский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статей(어문학 저널: 학술논문선집), Выпуск XIV,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СахГУ, 2006, С. 17-21
- 100) *Пак Сын Ы*, А. П. Чехов и проблемы аккультурации в сфере пит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안톤 체홉과 сахалин 한인의 음식 분야에서의 문화변용 문제) // X Чеховские чтения(10차 체홉 독회): «Ориентиры сахалинского чеховедения в панораме XXI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СахГУ, 2007, С. 55-61; *Он же*, Адаптационная эволюция обрядов жизненного цикла 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сахалин 한인의 의례 변용) // Современные кореевед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제,¹⁰¹⁾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¹⁰²⁾ 등 광범위한 주제들에 닿아 있다.

ом университете(극동 국립대 현대 한국학 연구). Выпуск 4.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ательств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006, С. 37 – 44; *Он же*, К вопросу об этимологии и структуре собственных имен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사할린 한인 이름의 구조와 어원 문제) // Материалы VI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ой сессии ЮСПК СахГУ: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статей(사할린 국립대학 6차 학술회의 자료집).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СахГУ, 2006, С. 107 – 112; *Он же*, Обряды жизненного цикл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ождение ребенка, пэкиль, толь(사할린 한인의 의례: 출생, 백일, 돌) // Материалы XXXVII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аспирантов и сотрудников СахГУ: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статей(사할린국립대 교수, 대학원 및 연구자 37차 학술회의 자료집).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СахГУ, 2006, С. 41 – 43; *Он же*, Проблемы сыновней почтительности «хэ» у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효’ 문제)//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ого воспитания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материалы региональ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25 – 26 мая 2006 г.(2006. 5. 25–26. 지방학술회의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및 도덕 교육의 제문제’ 자료집)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07, С. 63 – 67; *Он же*, Сахалинская корейская семья: от традиционной к современной(전통에서 현대로: 사할린 한인 가족) // Материалы II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Феномен творческой личности в культуре». (제2차 국제학술회의 ‘문화 속의 창조적 개성 현상’ 자료집),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МГУ, 2006, С. 133 – 141

- 101) *Лак Сын Ы*, Проблемы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고향으로의 귀환 문제) //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атериалы региональ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27 – 28 марта 2007г.)(2007. 3. 27–28. 지방학술회의 ‘사할린과 쿠릴: 역사와 현대성’ 자료집.),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Лукоморье, 2008, С. 277 – 287; *Он же*, Репатр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родину: история и проблемы (사할린 한인의 고국 귀환)// <http://www.dvd-sakhalin.ru/?pg=2&type=2&page=0>. (검색일: 30. 11. 2011)
- 102) *Лак Сын Ы*, Проблемы идентифик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사할린 한인 젊은이들의 정체성) // 《Мозаика культур: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поликультурного диалога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интеграционном поле》.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20 – 25 марта 2009г.)(2009. 3. 20–25. 국제학술회의 ‘문화의 모자이크: 이론과 실제’ 자료집).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СОИПИП КК, 2009, С. 39 – 41

연구자 자신이 사할린 한인의 일원으로 한인 사회의 내부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주요한 3인의 연구자 이외에도 러시아 연구자로서 사할린 한인 문제의 일면을 언급하거나 자기 연구 주제를 한인 사회의 경우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이들의 성과들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연구가 나온 시간적 순서에 따를 경우 가장 먼저 니콜라이 콜레스니꼬프(Николай И. Колесников)의 『В одном строю с рабочими и крестьянам и(노동자 및 농민과 한 대열에서)』를 언급해야 할 것이다. 1974년에 나온 이 책의 내용보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은 저자가 1945년 소련의 승전으로 '해방된 남사할린에 남아 있던 한인의 수는 4만 7천 명을 넘었다'고 기록보존소 자료를 인용하여 언급했다는 사실에 있다.¹⁰³⁾ 역시 러시아의 주요 기록보존소에서 자료를 수집했다는 꾸진의 통계와 콜레스니꼬프의 자료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향후 검증을 요하는 부분이다.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 정평을 얻고 있는 다른 러시아인 연구자로 Л.В. 자브롭스카야(Забровская)를 빼놓을 수 없다. 자신의 연구들에서 자브롭스카야는 사할린 한인과 관련된 남북한의 정책이라는 주요한 문제를 제기했다.¹⁰⁴⁾ 관련된 논문들 역시 남북한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연구를 진행했는데, 1940년대 북한에서 유입된 계약 노동자들의 노동이주¹⁰⁵⁾부터 1990년대 이후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남북한에 대한 관계 문제¹⁰⁶⁾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103) Колесников Н. И., В одном строю с рабочими и крестьянами(노동자 및 농민과 한 대열에서).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халинское отделен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чного книжного издательства, 1974, 120 с.

104) Забровская Л.В., Россия и КНДР: опыт прошлого и перспективы будущего (1990 годы) (러시아와 북한: 과거와 미래 전망(1990년대)).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во Дальневост. ун-та, 1998, -116 с.

105) Забровская Л.В., Трудовая миграция из КНДР в Россию (середина 1940-х - 2003 гг.)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노동 이주, 1940년대 중반-2003년) //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극동의 제문제), 2005, No. 5, С. 62-72

106) Забровская Л.В., Власти КНДР и РК в борьбе за симпат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1990-е гг.) (사할린 한인의 교감을 확보하기 위한 남북한 당국의

전문 역사서는 아니지만 남사할린 한인의 비극을 조명하는 성과물도 1990년대 이후 기록보존소의 개방과 더불어 나타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성과물로 가포넨코(К. Гапоненко)와 그린(В. Гринь)의 책을 들 수 있다. 『Трагедия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미주호 마을의 비극)』을 쓴 가포넨코는 1945년 8월 말 일 본인의 소개 과정에서 자행된 미즈호촌의 조선인 학살 사건을 논픽션 형식의 글로 재구성하여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한인의 비극이 실제적 사건이었음을 한인 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¹⁰⁷⁾ 역사가가 아닌 르포 형식의 이 글에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들이 일일이 언급되지 않으나 한인이 일제 식민지의 철저한 희생자임을 알리는데는 충분했다. 저자는 한인만이 아니라 가해자 일본인 주민들 역시 크게 보면 군국주의와 전쟁의 비극을 경험한 이들로 볼 수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싶어 했다. 일제시대 가미시카로 불렸던 레오니도보의 한인 학살을 주제로 한 그린의 『Разлука длиною в жизнь(생의 긴 이별)』¹⁰⁸⁾은 1945년 8월 17일을 전후로 한 사건을 소재로는 하고 있으나 부제처럼 소설체로 구성되어 보기에 따라 연구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글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글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사할린의 정보기관에 미공개 상태로 남아 있던 형사재판 기록을 기초로 한 사실로서,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한 이후까지 한인들을 차별했던 식민지배적 구조와 의식이 구체적인 사건들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자극을 준 성과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사할린 한인 학교에 대한 코스파노프와 뵘드류브나야(А.И. Костанов,

대결)// Китай и АТР на пороге XXI века: Тезисы докладов. IX между народ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제9차 국제학술회의 '21세기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자료집), Ч. 1, М., 1998, С. 185-188; Она ж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и их связи с родиной предков (러시아 한인과 조상과의 연계) (1990~2003 гг.) //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극동의 제문제), No. 5, С. 39-50

107) Гапоненко К.Е., Трагедия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 (미주호 마을의 비극), Южно-Сахалинск, 1992, -134 с.

108) Гринь В., Разлука длиною в жизнь...: Повесть (생의 긴 이별: 이야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Лукоморье", 2010, 76 с.

И.Ф. Подлубная)의 연구 「сахалин의 한인 학교들」과 소군정하 한인 사회의 문화생활을 추적하는 И.А. 추벤꼬바(Цуепенкова)의 논문 「잊힌 극장」에서는 지역사 연구가 봄을 이루던 1990년대 러시아 학문 풍토의 영향이 느껴진다. 이 두 논문은 모두 기록보존소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존재했다가 사라진 한인 사회의 활동들을 복원하는 시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сахалин의 한인 학교들」은 194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까지 сахалин 한인 학교들의 설립·운영, 교사 및 재원의 수급 문제와 폐교를 다루고 있다.¹⁰⁹⁾ 학교 문제에 관한 당의 정책, 민족 문제 등과 연결하여 학교 문제를 살펴보는 이 논문은 박승의의 연구들과 기본적인 결론이 유사하다.

이와 달리 「잊힌 극장」의 필자는 1948~1959년까지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сахалин 한인 드라마 극장의 역사를 기록보존소 자료와 활동가들의 회고를 더하여 복원해냄으로써 보다 흥미를 끈다. 드라마 극장의 음악·연극 등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한인들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 형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모국어와 전통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일종의 해방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컸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¹¹⁰⁾

сахалин 지역사에 관심을 가진 러시아 연구자들 중에서 С. 하니야(Ханья)와 В.В. 셰그로프(Щеглов)는 소비에트 사회와 한인의 관계 문제에 주목했다. 하니야는 1950년대에 들어 한인 사회가 소비에트 사회에 동화되는 과정을, 셰그로프는 1940년대 말~1950년대 초의 시기에 남сахалин과 쿠릴로 이주한 소비에트 시민들이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가옥 등을 배정받아 새로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인 사회와 접촉하는 모습을 살핀다.¹¹¹⁾ 두 논문은 기

109) Костанов А.И., Подлубная И.Ф., Корейские школы на Сахалине: исторический опыт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сахалин의 한인 학교들: 역사적 경험과 현대성). Южно-Сахалинск, 1994, 24 с.

110) Цуепенкова И.А., Забытый театр (Из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1948 - 1959 гг.)(잊힌 극장: 1948~1959년 сахалин의 한인 드라마 극장의 역사 중에서) // Вест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зея(сахалин 박물관통보), 1997, No. 4, С. 207 - 213

111) Ханья С., Интегр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оветское общество в

본적으로 소련 체제가 사할린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가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지역사의 일부분으로 한인 사회의 경험을 포함시켰다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하겠다.

소련 시절 한인 연구자 중에서 사할린 문제로 학위논문을 제출한 이병주의 성과는 일제 점령 시기의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연구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¹¹²⁾ 남사할린은 일본의 군사 및 경제적 침략의 도구로 철저히 이용당했으며, 가라후토로 끌려온 한인 역시 예외가 아니었음을 일본 및 한국¹¹³⁾ 측 자료들을 분석하며 입증하고 있어 가치 있는 논문으로 현재까지 자주 인용되고 있다. 즉, 이병주가 논문을 작성할 당시는 일제시대의 식민 지배가 종식된 지 약 30년이 된 시점으로 관련 기록이 막 공개될 시점임을 감안할 때 그의 연구는 당시로서 최신의 공개 기록을 활용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록 당시의 자료 공개가 제한적이었고, 1970년대의 정치적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각종 자원의 송출 상황이나 관련 정책에 대한 필자의 여러 수치를 동원한 상세한 논의와 비교할 때 강제 동원된 한인의 수나, 생활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요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고, 특히 사할린 주립기록보존소(GASO)에 소장되어 있는 가라후토[樺太]청 문서를 분석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1995년에 러시아 학자인 Г.И. 두라레츠(Дударец)가 사할린 기록보존소

середине 50-х гг. XX столетия (20세기 50년대 사할린 한인들의 소비에트 사회로의 동화) // *Краеведческий бюллетень*(지방연구 회보), 2005, No. 4, С. 195-212; *Щеглов В.В.*, Переселение советских граждан на Южные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 середине 40-х - начале 50-х гг. XX в. (20세기 40-50년대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로의 소련 시민의 이주) // *Краеведческий бюллетень*(지방연구 회보), 2000, No. 4, С. 54-68

112) *Ли Бен Дю*, Южный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 годы японского господства(일본 점령기의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역사학박사 학위청구 논문), М., 1976, -177 с.

113) 출판 정보를 보면 이것들은 주로 북한 측 자료로 보인다. 하지만 논문의 러시아어 표기는 한글 그대로의 발음이 아니라 의미를 옮긴 것이어서 해당 자료 명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에 소장된 화태청 문서들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간략한 해제를 달았다.¹¹⁴⁾ 연구자는 가라후토청이 생산한 일본어 자료들 속에 한인 관련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지만, 5쪽에 불과한 짧은 내용으로서 한인 문제를 조명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법적인 측면에서 러시아 한인의 국적 문제를 조명하는 한국인 연구자들의 글이 러시아어로 나오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다수의 관련 연구 업적을 발표한 노영돈 교수의 책 『러시아 한인의 제문제』와 모스크바에서 학위논문을 제출한 이성제의 논문 『국제법상의 국적 문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은 연구의 일부로 사할린 한인 문제를 언급했다.¹¹⁵⁾ 사할린 한인의 국적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요하며, 동시에 국제정세의 영향이라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측면이 있는 만큼 러시아 측 연구자들의 공정한 시각에 근거한 연구가 기다려지는 영역이라고 생각된다.¹¹⁶⁾

한인의 해외 이민사를 조명하는 김 게르만의 책에서도 사할린 한인 사회와 사할린 한인과 관계된 다양한 문제들(일제 시기 사할린 한인의 강제동원, 북한 노동자 유입, 1990년대 이후의 사회적 지위, 남북한에 대한 관계, 사할린 한인 사회 내부의 갈등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복지코우 · 스테판 · 이병주 · 꾸진 등

114) Дударец Г.И., Обзор японских фонд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рхи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주기록보존소의 일본자료 폰드 개요)// Краеведческий бюллетень(지방연구 회보), 1995, No. 2, С. 188 - 192

115) Ло Ен Дон, Проблема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러시아 한인 제문제), М., 1995, -108 с.; Ли Сонг Джэ, Вопросы гражданства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праве(국제법상의 국적 문제),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юридических наук(법학박사 학위청구논문), М., 2002, -215 с.

116) 최근 А. А. Белоногов(Белоногов)가 관련된 문제로 학위논문을 준비 중이다. 이는 논문 내용의 일부를 언급한 다음 글에서 확인된다. Белоногов А.А., К вопросу об историографии политико-правового положени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 конец XX веков)(러시아 극동 지역 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치-법적 상황에 대한 역사술의 문제: 19세기 후반-20세기 말) // Вопросы гуманитарных наук(인문학의 제문제), 2009, No. 4, С. 51 - 55. 최종 논문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사할린 한인의 정치적 · 법적 상황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이 간략히 언급되고 있다.

의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어 새로운 내용을 찾을 수는 없었다.¹¹⁷⁾ 그 외에도 1945~1949년 사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사할린과 쿠릴 지역에서의 인구·사회·경제발전 정도를 검토하는 소장학자 И.П. 김(Ким)의 학위논문도 2010년에 나와 있다.¹¹⁸⁾ И.П. 김은 기본적으로 소련에 병합된 이후 사할린 주 지역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사할린 한인의 귀환 문제도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¹¹⁹⁾

향후 연구를 위해 참고자료로서 가치가 큰 러시아 출간물들에 대한 소개도 간략히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1945~1948년까지 초대 민정국 책임자로서 사할린 주의 출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크류코프의 회고가 간행되었다.¹²⁰⁾ 그의 회고는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가 소비에트 시스템 속에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사할린 한인으로서의 최초로 일본에서 남한

117) *Ким Г.Н.*, История иммиграции корейцев(한인의 이민사), Книга I.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в. – 1945 г. (1권, 19세기 후반–1945년) Алматы: Дайк-пресс, 1999, 424 с.; *Он же*, История иммиграции корейцев, (한인의 이민사) Книга вторая(2권), 1945 – 2000 годы, Часть I. Алматы: Дайк-пресс, 2006, 428 с.; Часть II. Алматы: Дайк-пресс, 2006, 396 с.; *Он же*,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사할린의 한인들) [인터넷 자료] // http://world.lib.ru/k/kim_o_i/strlrf.shtml (검색일: 2011.11.30); *Он же*, Распад СССР и пост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소련의 해체와 포스트 소비에트 한인들) [인터넷 자료] // http://world.lib.ru/k/kim_o_i/aws.shtml (검색일 2011.12.1)

118) *Ким И.П.*, Политическо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присоединенных 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осточная Пруссия, Южные Сахалин,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1945 – первая половина 1949 год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러시아 연방에 속하게 된 영토(동프러시아 남사할린과 쿠릴 지역)에서의 정치·인구·사회-경제발전: 1945~1949년 상반기) // *Россия и островной мир Тихого океана*(러시아와 태평양 지역), Выпуск 2,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Лукоморье», 2010, 416 с.

119) 그의 논문은 모스크바 등 중앙 기록보존소의 자료들을 활용한 최초의 학위논문이자 최신의 러시아 측 연구 성과라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이번 기회에는 학위논문 자체를 입수하지 못한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기회를 기대하고자 한다.

120) *Крюков Д.Н.*, Граждан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в 1945 – 1948 гг. (1945–1948년간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민정 행정) // *Краеведческий бюллетень*(지방연구 회보), 1993, No. 1, С. 3 – 44

의 혈육을 상봉했던 박형주의 수기 『사할린 리포트』도 2004년에 일본어에서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간행되었다.¹²¹⁾ 양자 모두 학문적 성격의 글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문서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시대 상황과 개인의 시각을 주관적으로나마 반영하고 있다.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한국과 러시아에서 나온 사할린 한인 사회 연구사를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상대적으로 연구물의 수가 많았던 국내 연구에 대해서는 주요 연구 영역별로 연구사를 검토하는 방식을 취한 반면, 러시아의 경우는 연구자를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이 무엇인지 살피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물론 본고가 사할린 한인 사회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룬 것은 아니다. 특히 사할린 사회의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학 분야의 연구물들을 일괄적으로 제외했다. 학술 기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 신문보도 등 언론 자료, 운동사와 관련된 자료집 등에서도 얼마든지 자료를 더 찾아볼 수 있다.

단순히 비교하자면 물리적인 수나 연구 영역의 측면에서 한국의 연구가 러시아 측보다 다수를 차지했다. 사할린 한인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세 영역으로 분류가 가능할 정도로 축적된 배경은 그 역사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이민사가 아니라 제국주의와 식민지 통치에서 비롯된 비교적 최근사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렇기에 이주의 배경이 된 '강제동원', 해방 후의 '억류와 귀환의 문제', 그리고 억류 상태의 해소 이후 고국에서의 '정착 문제'로 접근하게 되었다. 즉, 사할린 한인사를 구성하는 시계열적인 역사 연구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러시아의 연구에서 소수 민족에 국한되며 사료를 중심으로

121) *Пак Хен Чжу*, *Репортаж с Сахалина(사할린 리포트)*, 2004, 167 c.

접근하기 곤란한 주제였던 사할린 한인 문제는 1990년대 이후에도 개별 연구자들의 관심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양해지는 지역사 연구 동향에 발맞추어 한인사와 한인 사회의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

물론 양적 우위가 곧 연구의 질적 우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의 연구사에서 계속적으로 발전적인 성과를 내는 연구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귀환 문제에서 장민구, 법률 분야의 노영돈, 강제동원 연구에서 정혜경 등을 제외하면 수많은 이들이 잠시 사할린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가 한두 편의 성과를 낸 후 연구에서 손을 떼 셈이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냉정한 학문적 접근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연구자에게 학술적 성과와 관련된 발언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이렇게 해서는 언제까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관련된 학문적 담론을 형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러시아 측 연구는 출발의 시기가 늦었고, 연구자 수도 적으나 연속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 측 연구들은 사료 편찬 영역에서 우위를 보이며, 이와 연관되어 후속 연구들을 산출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연구들의 질적 발전을 기대할 만한 기반은 닦였다고 여겨진다. 아직은 연구자 층이 얇고 기존 연구자들의 사망이나 고령화가 두드러지지만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소장 연구자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 주요한 문제를 둘러싼 학문적 논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할 만하다고 여겨진다.

한국 측 연구에서 아쉬운 점이자 향후 연구에서 보다 집중해야 할 영역은 자료에 대한 관심이다. 사료 편찬이 강세를 보이는 러시아에 비해 한국 측 연구는 강제동원 분야를 제외하고 자료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다는 느낌이다. 자료집은 여전히 수적으로 적다. 특히 사할린 한인의 귀환이 실현된 1990년대 이후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자료집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2000년대 이후에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공개되고 있는 공적 기록을 비롯해 영주귀국 사업을 주관한 적십자사 측의 소장 자료,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 측의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주요 문건들은 자료집으로 묶어 소개하고 정리하는 일이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¹²²⁾ 이미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주요한 자료들의 발굴과 해제도 같은 중요성을 갖는 일이다.

러시아 측 연구의 경우에는 다면적이고 복잡한 문제인 사할린 한인사의 연구에서 개별 연구자들이 각각의 관심 영역에서 진행하는 분투의 한계가 느껴진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연구 역량의 한계보다는 미리 한계 지워진 시각과 관심의 폭이 러시아 측 연구의 현재 한계들을 연장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즉, 러시아 측 연구를 보면 1945년 이전의 일본어 자료 이용의 한계만이 아니라 러시아어 자료 중에서도 1급 중요성을 갖는 중앙기록보존소들의 자료조차 발굴될 여지가 많다.¹²³⁾ 지역사적 관심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사할린 한인의 법적 측면 등 연구가 본격화되지 못한 영역이 존재하며, 한국 측의 기존 연구 활용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느낌이다. 아직은 자료와 문제들의 영역과 국경 너머 연구자들의 시각까지 넘나들어야 할 절박함이 크지 않은 것이다.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자 연구자 간 자극책으로서, 그리고 여전히 미해결인 실제적 과제들의 생산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연구 국경을 넘는 연구자 간 협업과 주요 연구 성과들의 공동 출간이 필요하다.

122) 한국 측 연구에서 이러한 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기록 전문가인 박종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연방 사할린과 한인문제」(『한러관계사의 연구현황과 한러관계 증진의 길: 2010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0, 45~61쪽)라는 글에서 1945년 종전 이후 남사할린 한인의 억류 경위를 러시아 측 자료를 중심으로 살핀다. 한인의 이주나 현지의 실정, 일본에서의 소송 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와 다른 주장을 찾기 어려우나 한인의 귀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소련 양측 간에 협의한 내용과 검토의 과정 등이 구체적인 문서(특히 러시아 측 자료)를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필자는 사할린 동원자의 규모(연인원)를 약 6~8만 명, 억류 당시의 한인 수를 약 2만 명으로 보고 있다. 종전 직후 GHQ 측이 해방 후 사할린 한인의 수와 귀환 문제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남한의 미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하지가 당시 남한의 국내사정을 들어 송환에 난색을 표시한 것에 영향을 받아 '더 이상 사할린 한인의 송환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말았다'(54쪽)고 밝힌다. 소련 측도 당초에는 한인을 억류할 의사를 갖지 않았고 정치적인 관계로 북한으로의 송환을 고려했으나 남한 출신자가 다수이고 일본인 송환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현지의 노동력 문제가 불거지자 추후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55쪽). 이로써 억류되어 무국적자의 처지로 전락한 한인은 사할린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차별적인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123) 특히 Архи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대외정책기록보존소), Гос. Архи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러시아연방기록보존소), Рос. Гос. архив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И(러시아현대사기록보존소) 등의 자료는 매우 김요하다.

[ABSTRACT]

A Review of Research on Sakhalin Koreans Published in South Korea and Russia

Bang Ilkwon

This paper reviews and introduces research on the Sakhalin Korean diaspora issues in Korea and Russia. To review the research trends about important issues in history regarding Sakhalin Koreans, this paper examines and compares 250 relevant theses, research papers, and academic articles published in South Korea and Russia from the 1960s to 2011. Important findings are summarized.

In South Korea, the research about Sakhalin Koreans may be divided into three divisions: forced mobilization, the issue of repatriation, and resettlement in their historical homeland. These classifications have as background the fact that researcher on Sakhalin Koreans was not an immigrant the immigration history, which form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recently appeared from imperialism and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In other words, it is the direct result of the chronicle survey on problems of Sakhalin Koreans.

In comparison, the issues of the Sakhalin Koreans in Russia remained just as the problems of minority groups. Then in the 1990s, individual researchers started to show interest in this theme. Recently, the interest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diaspora and the lives of Koreans in Sakhalin tends to increase with the diverse trends of research on local history.

Keywords

Sakhalin Koreans, the history of the Korean diaspora, migration, forced mobilization, repatri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동북아시아역사재단
DONGBUK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역사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실무총괄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 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0년 4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B, C) (B, B, C) (A, C, C) (B, C, C)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擁,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38호(2012. 12)

초판 1쇄 인쇄 2012년 12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2년 12월 31일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미근동 26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